차례

요한의 책에 나타난 특별주제 목차

이 책은 나의 친구이며

타자를 도와준

도리스 스프라베리 에게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녀의 계속적이며

자발적 헌신을 힘입어

본 주석들이 완성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신미국표준역(NASB) — 1995 개정판

좀 더 읽기 쉽게:

▣고어체 영어표현(“thee’s” 와 “thou’s” 등)은 현대식 영어로 표현하였다.

▣지난 20 년 동안 의미의 변화 때문에 잘못 이해되어질 수 있었던 단어나 구들을 현대식 영어로 개정하였다.

▣어려운 단어 배열이나 어휘의 절들을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재 번역하였다.

▣고어체 영어와 현대식 영어의 형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리고”(And)로 시작된 문장의 상당수를 좀 더 나은 영어표현으로 재번역 하였다. 원래의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영어와 다르게 구두법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식 영어의 구두법은 많은 경우에 원어의 “그리고(And)대신으로 사용되었다. 다른 경우에는 원어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그리고”(and)를 문맥에 의해 “그때”(then) 또는 “그러나”(but)로 해석하였다.

좀 더 적절하게:

▣가장 오래되고 좋은 헬라어 신약 본문의 최근 연구를 재검토 하였고 어떤 구절들은 원본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개정하였다.

▣평행적인 구절들을 비교, 검토하였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몇 동사들을 문맥 안에서 좀 더 나은 설명을 위해 재 번역하였다.

신미국표준역의 전통을 보존하며:

▣신미국표준역의 개정판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번역이 아니다. 신미국표준역은 시험기간을 거쳐 신미국표준역의 인식되어진 기준안에서 최소한의 변화를 가져왔다.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은 신미국표준역의 타협하지 않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어의 전통적이고 문자적인 번역을 고수하고 있다.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의 번역가들과 자문위원들은 성경언어, 신학에 박사학위를 가졌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서 학위를 가진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교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전통을 고수하며:
신미국표준역은 가장 타당한 영어성경의 번역판으로 평판을 받아 왔다. 최근에 다른 번역판들에 대해 어떤 부분은 옳게 번역되고 읽기에도 쉽다고들 하지만 결국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번역판들은 자체에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문자적인 해석은 원본에 충실한 반면 읽기에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번역판들은 자주 의역에 의존한다. 의역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이것은 번역가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로 그 구절의 의미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결과적으로 의역은 성경을 의역된 만큼 설명한다. 신미국표준역 개정판은 번역가가 그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믿는 대로가 아닌 원본이 실제적으로 말하는 대로 번역한 신미국표준역 전통을 그대로 살렸다.

—록맨재단

저자의 글
본 주석이 어떻게 독자를 도울 것인가?

성경적인 해석은 고대의 감동받은 저자를 이해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를 현대에 적용하도록 하려는 이성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다.

해석의 영적인 과정은 중대하지만 한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과 기대를 포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1) 그를 위한 (2) 그를 알기 위한 (3) 그를 섬기기 위한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과정은 삶의 변화를 위한 기도와 죄의 고백과 순종하려는 자세가 포함된다. 해석의 과정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중대하다. 그럼에도 진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신비스럽다.

해석의 이성적인 과정은 설명하기에 좀 더 쉽다. 우리는 반드시 일관성이 있으면서도 정당하게 본문을 다루어야 하며 우리의 개인적이고 교파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해석가가 될 수 없다. 이 주석은 우리의 편견을 뛰어 넘어 우리를 도울수 있도록 구조화된 세 해석원리를 포함한 조심스럽고도 이성적인 과정을 제공한다.

제 1 원리

첫 번째 원리는 성경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저자와 연관된 특별한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원저자는 전달하려는 내용과 목적을 가졌다. 본문은 고대의 감동받은 원저자가 결코 의미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의미할 수 없다. 그의 의도는 우리의 역사적, 감정적, 문화적, 개인적, 또는 교파적인 필요가 아니라는 것이 열쇠이다. 적용은 해석의 총체적인 동반자이지만 적절한 해석은 반드시 적용에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경본문은 오직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이 의미는 원래 성경저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시대에 전달하고자 했던 것을 의미한다. 이 하나의 의미는 다른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의 중심 진리에 상응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제 2 원리

두 번째 원리는 문학적인 단위를 확정짓는 것이다. 성경의 각 책은 각각 통일적인 문서이다. 해석자들은 진리의 한 면을 위해 다른 면들을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문학적 단락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전체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각 장, 단락, 절은 전체 성경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없다. 해석은 반드시 전체에 대한 연역적인 접근으로 시작하여 각 부분에 대한 귀납적 방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문단으로 이루어진 각 문학적 단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장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락구분도 감동 되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구분들은 우리에게 단락의 범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 문장, 절, 구나 단어 수준이 아닌 문단 수준에서의 해석은 성경저자가 의도한 의미를 따르는 열쇠이다. 문단들은 자주 주제나 중심 문장으로 불리는 하나의 통일된 논제를 가지고 있다. 문단속의 각 단어, 구, 절과 문장은 어찌되었건 이 통일된 주제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이 주제를 한정하고 확장하고 설명하고 질문한다. 적절한 해석을 위한 실제적인 열쇠는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 문학적 단위 안에서 각 문단을 기초로 한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는데 있다. 본 연구안내주석은 독자가 현대 영어 번역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번역판들은 그들이 다른 번역이론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신약 헬라어 본문은 네 번째 개정판이다(UBS[4]). 이 책은 현대 원문 연구학자에 의해 단락으로 나누어졌다.
2. 뉴킹제임스역(NKJV)은 공인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헬라어 원문 전통을 기초로 축어 적으로 번역되었다. 이 책의 단락 구분은 다른 번역판 보다 길게 되었다. 이렇게 긴 단락들은 학생들이 통일된 논제를 보는데 도움을 준다.
3. 신개정표준역(NRSV)은 수정된 축어역이다. 이것은 다음에 열거된 두 현대번역본의 중간 지점에 있다. 이것의 단락 구분은 주제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4. 현대영어성경(TEV)은 미국성서공회에서 출판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현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도했다. 신국제역(NIV)에서와 같이,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자주 주제보다는 화자를 중심으로 문단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해석자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신약 헬라어 본문(UBS[4]) 과 현대영어성경(TEV)을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하였지만 그들의 단락 구분이 다르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5. 신예루살렘성경(NJB)은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등가 번역본이다. 이것은 유럽인의 시각으로 단락 짓는 것을 비교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6. 본 주석에서 사용한 본문은 1995 년에 개정된 신미국표준역(NASB)으로서 축어적인 번역본이다. 각 절의 주석은 이 번역본의 구분을 따르고 있다 (본 주석에서 역자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본문을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으로 대신하였다).

제 3 원리

세 번째 원리는 성경의 단어나 구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넓은 범위의 의미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헬라어의 단어나 구절들은 자주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보는 것은 헬라어 본문에 나타난 상이점들을 이해하고 가능한 해석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작업은 교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입은 저자의 원문대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도와준다.

본 주석은 독자가 자신의 해석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확정된 답을 주기보다 정보를 제공하고 생각할 기회를 준다는 뜻이다. 다른 가능한 해석들은 우리가 편협하고 독단적이며 교파 중심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종종 도와준다. 해석가들은 옛문서의 해석이 얼마나 애매할 수 있는지를 인식하고 폭넓은 해석의 범주를 가져야 한다. 성경을 진리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거의 동의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위의 세 원리들은 옛본문을 다룸에 있어서 역사적인 제한들을 극복하도록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는 본 주석을 읽는 모든 독자들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한다.

밥 어틀리
동텍사스침례대학
1996 년 6 월 27 일

성경읽기를 위한 바른 안내
검증할 수 있는 진리를 위한 개인적인 연구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어디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것에 궁극적인 권위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가? 그것이 삶에 의미를 주는가?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모든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다(전 1:13-18; 3:9-11).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씨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릴 때 몇몇 식구들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나 자신과 내 주위의 세계에 대한 질문도 커졌다. 익숙한 문화와 진부한 종교생활은 내가 읽거나 경험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했다. 그때에 나는 담담하고 둔감한 나만의 세계 속에서 혼동과 찾음, 기다림, 그리고 자주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들의 대답은 (1) 개인적인 철학 (2) 고대의 신비 (3) 개인적인 경험이나 (4) 심리적 투영임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을 보는 나의 눈과, 내게 왜 사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게 답할 수 있는 검증이 가능하고 증거가 충분할 뿐 아니라 이성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나는 이 대답을 개인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발견했다. 나는 증거들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고 내가 발견한 믿을만한 증거들은 (1) 고고학으로 확실하게 증명되는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 (2) 구약성경의 예언들의 정확성 (3)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1,600 년이 넘도록 일관성이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4) 성경을 통해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간증들이다. 믿음의 일관된 체계인 기독교는 인류의 복잡한 질문을 답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이성적인 면뿐 아니라 성경을 신뢰하게 되는 데서 오는 경험적인 면을 통해 나에게 감정적인 기쁨과 안정을 주었다.

나는 성경을 통해 내 삶의 중심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강렬하면서도 내적 자유를 맛보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의 매우 다른 해석들이 주장되어지고 때로는 같은 교회나 학교에서 조차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놀라움을 기억한다. 성경의 영감과 신뢰하는 확신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다. 난해한 구절들에 대하여 성경의 권위와 옳음을 주장하는 그많은 사람들의 상반되는 해석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거나 거부할 것인가?

이 일은 내 인생의 목표와 믿음의 여정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나에게 무한한 평화와 기쁨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마음은 (1) 포스트 모던시대의 상대주의; (2) 모순된 종교 체제들의 독단주의(세계 종교들); 그리고 (3) 교파적인 우월감 안에서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을 바랬다. 고문서의 바른 해석을 위한 연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역사적, 문화적, 교파적, 경험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랐다. 나의 견해를 견지하기 위해 종종 성경을 읽었다. 나는 나 자신의 불안함과 부당함을 발견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다.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

비록 나는 철저히 객관적일 수 없었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읽게 되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함으로써 그 영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나에게 편견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편견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었다. 바른 성경읽기를 함에 있어서 번역가 자신이 종종 가장 커다란 장애가 된다!

성경연구를 위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점검할 전제들을 독자들과 함께 나누려고 한다:

I. 전제들

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유일한 계시임을 믿는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 저자의 역사적 상황과 원저자인 성령의 의도하심 안에서 해석되어져만 한다.

나. 나는 성경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쓰인 것임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 스스로를 역사적, 문화적 상황 안에서 우리에게 맞추신다. 하나님은 진리를 감추시지 않는다. 그는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은 반드시 우리시대의 관점이 아닌 성경시대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은 처음 그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에게 의미하지 않았던 내용을 현재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성경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일상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한다.

다. 나는 성경이 통일된 메시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성경에 어렵고 역설적인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장 좋은 해석가는 성경 바로 그 자체다.

라. 나는 모든 말씀(예언을 제외하고)이 감동된 원저자의 의도에서 오로지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비록 우리는 원저자의 의도를 완전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의 지침들이 있다:

1.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된 장르(문학의 유형)
2.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나 특별한 사건
3. 각 단락 및 전체 책의 문학적 배경
4. 전체 메시지와의 연관성에서의 문학적 단락의 개요
5.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특별한 문법적인 요소
6.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용어들
7. 대구(평행) 구절들

이와 같은 영역의 연구는 성경구절을 연구하는 우리의 목표다.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나의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해석상 지나친 다양성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부적절한 방법을 말하고자 한다.

II. 부적절한 방법들

가. 성경의 책들의 문학적 상황을 무시하고 모든 문장, 구, 심지어 각각의 단어들을 저자의 의도나 전체 상황과 관계없이 진리의 진술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본문사용"(proof-texting)으로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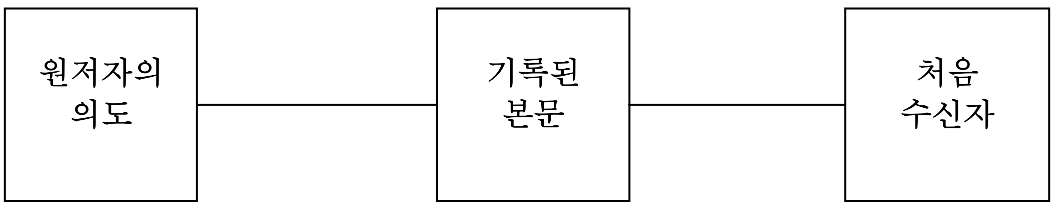
나. 본문이 거의 또는 전혀 지지하지 않는 상상적인 역사적 상황을 대용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조간 신문정도로 생각하며 성경을 읽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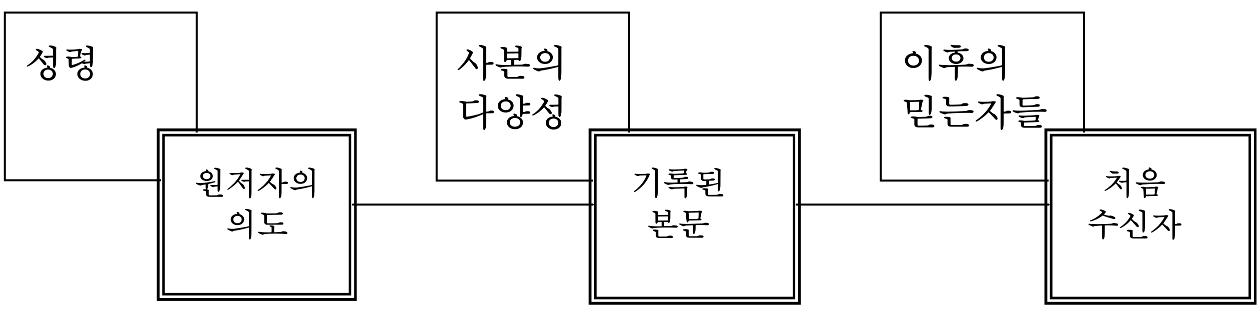
라. 성경을 처음의 청취자와 원저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철학적, 신학적 메시지로 우화화 하여 책들의 역사적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다.

마. 원저자의 목적과 그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신학적 체계, 선호하는 교리나 현대 논쟁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원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경을 다룰 때 설교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종종 행해진다. 이것은 "독자 중심"("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해석이라고 종종 불려진다.

인간의 글을 통한 의사소통과 관련된 최소한의 세 가지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다른 독서법들이 세 요소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성경의 독특한 감동을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정된 아래의 도표가 좀 더 적절하다:



실제로 세 가지의 모든 요소는 해석하는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을 위해 나의 해석은 첫 두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원저자의 의도와 본문. 이제까지 잘못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1) 우화화나 영해하는 본문과 (2) "독자 중심" 해석(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 하는가)에 대해 나는 반대한다. 이러한 잘못은 모든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동기, 편견, 방법, 적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해석의 범주나 한계 그리고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저자의 의도와 본문의 구조는 바른 해석의 범주를 갖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부적절한 독서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일관성 있는 바른 성경읽기나 해석이 되도록 돕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겠는가?

III. 바른 성경읽기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지금 나는 특별한 문학 형태에 대한 독특한 해석 기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원리가 모든 형태의 성경본문에 적용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의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성서유니온)는 특별한 문학형태에 따라 접근하기에 좋은 책이다.

나의 방법은 네 가지 개인적인 읽는 단계를 통해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하시도록 우선적으로 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 본문, 그리고 독자에 우선권을 두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석가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 받을 수 있는 독자를 보호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성경은 주석가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 준다.” 이것은 연구를 돕는 주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라는 뜻이다.

본문 자체가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최소한의 다섯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원저자의
   ㄱ. 역사적 배경
   ㄴ. 문학적 배경
2. 원저자가 선택한
   ㄱ. 문법적 구조(구문법)
   ㄴ. 당시의 용법
   ㄷ. 문학적 형태
3. 우리의 적절한 이해
   ㄱ.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우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논리와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적용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슬프게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이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에 관하여 자주 의견이 맞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다!

네 가지 읽는 단계는 아래의 해석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었다.

가. 독서의 첫 번째 단계
1. 단번에 그 책을 읽으라. 다른 번역을 읽되 가능하면 다른 번역이론에 속한 번역본을 읽으라.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ㄷ. 풀어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전체본문의 중심목적을 찾아라. 주제를 찾아라
3. (가능하면)문학적 단위, 장, 문단, 혹은 중심목적이나 주제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문장을 파악하라.
4. 뚜렷한 문학적 유형을 파악하라.
   ㄱ. 구약
      1) 이야기체
      2) 시(지혜문학, 시편)
      3) 예언서(산문, 시)
      4) 법률
   ㄴ. 신약
      1) 이야기체(복음서, 사도행전)
      2) 예화(복음서)
      3) 편지/서신서
      4) 계시 문학

나. 독서의 두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중요한 논제나 주제를 찾으라.
2. 중요한 논제를 말하고 간단하게 그 내용을 진술하라.
3. 목적 진술문을 점검하고, 연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용하여 개요를 넓혀라.

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
1. 책 전체를 다시 읽고 성경에서 역사적인 상황과 특별한 사건을 확인하라.
2. 성경에 언급된 역사적인 내용들을 열거하라.
   ㄱ. 저자
   ㄴ. 날짜
   ㄷ. 수신자
   ㄹ. 글을 쓴 특별한 이유
   ㅁ. 저술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의 요소
   ㅂ.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언급
3. 해석할 성경본문의 단락별 개요를 만들라. 문학의 단위에 항상 유념하라. 문학적 단위는 여러 장이나 문단에 걸쳐 있을 수 있다. 이과정은 원저자의 논리와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4.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적 배경을 점검하라.

라. 독서의 네 번째 단계

1. 본문의 특별한 문학적 단위를 여러 번역본을 사용하여 다시 읽으라.
    ㄱ. 축어적 역본(뉴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ㄴ. 등가적 역본(현대영어성경, 예루살렘역)
    ㄷ. 풀어 쓴 역본(리빙 바이블, 확대번역성경)
2. 문학적 또는 문법적 구조를 확인하라.
    ㄱ. 반복적인 표현, 엡 1:6, 12, 13
    ㄴ. 반복되는 문법적 구조, 롬 8:31
    ㄷ. 대조되는 개념들
3. 다음의 항목들을 파악하라.
    ㄱ. 중요 용어
    ㄴ.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
    ㄷ. 문법적으로 중요한 구조
    ㄹ. 어려운 단어, 절, 문장
4. 평행되는 구절들을 확인하라.
    ㄱ. 해당되는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을 찾아라
        1) "조직신학"책
        2) 참조성경
        3) 성구사전
    ㄴ. 당신의 주제에서 역설적인 짝을 이루는 것을 찾아라. 성경의 여러 가지 진리는 서로 대립적인 짝으로 나타난다; 많은 교파적 대립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기 위한 반쪽 본문사용에 기인한다.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 쓰였다. 우리의 해석은 성경의 취지에 입각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성경의 완전한 메시지를 찾아내야만 한다.
    ㄷ. 같은 책, 같은 저자, 같은 문학형태 안에서 평행되는 구절들을 찾아라;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분이시므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5.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대한 당신의 연구를 도울 수 있는 자료들을 사용하라
    ㄱ. 해설 있는 성경
    ㄴ. 성경백과사전, 성경핸드북, 성경사전
    ㄷ. 성경개론서
    ㄹ. 성경주석(고금을 막론하고 개인 성경연구를 바르게 도울 수 있는 주석을 사용하라.)

IV. 성경해석의 적용

이제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원래의 상황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당신의 삶과 문화에 적용하여야 한다. 나는 성경의 권위를 "원저자가 그의 시대에 말하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시대에 적용하는 것" 이라고 정의한다.

적용은 반드시 원저자가 시간과 논리 안에서 의도한 바를 따라야 한다. 성경이 그 시대에 말하고자 한 것을 알기 전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다! 성경 본문은 그것이 의미하지 않았던 것을 결코 의미할 수 없다.

당신의 세분화된 단락 수준 (독서의 세 번째 단계)의 개요는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이다. 적용은 단어 수준에서가 아니라 단락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어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구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문장들은 단지 문맥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해석의 과정에서 영감 받은 사람은 오직 원저자뿐이다. 우리는 단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원저자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조명은 영감이 <u>아니다</u>.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원저자의 의도안에 머물러야만 한다. 적용은 전체 글, 각 문학적 단위, 문단에 나타난 일반적인 의도에 특별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의 쟁점이 성경을 해석하게 말고;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본문으로 부터 원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만약 본문이 원리를 뒷받침한다면 그것은 타당하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원리들은 자주 본문의 원리가 아닌 "우리의" 것이 되고 있다.

성경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본문(예언은 제외)에는 단지 하나의 의미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의미는 그 시대의 위기나 필요에 대해 말하고 있는 원저자의 의도와 연관이 있다. 하나의 의미에서 다양한 적용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적용은 수신자의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원저자가 의미했던 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V. 해석의 영적인 면

지금까지 나는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본문중심의 과정을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해석의 영적인 면을 간단하게 논하고자 한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점검목록이다:

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고전 1:26-2:16).
나. 개인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용서와 깨끗이 해주심을 위해 기도하라(참조 요일 1:9).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갈망하도록 기도하라(참조 시 19:1-14; 42:1 이하; 119:1 이하).

라. 허락하신 새로운 깨달음을 당신의 삶에 즉각 적용하라.
마. 겸손함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유지하라.

성령의 영적인 인도와 논리적인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음에 인용된 내용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갖도록 내게 도움을 주었다:

가. 제임스 W. 사이어, 왜곡된 성경(*Scripture Twisting*), 17-18 쪽에서:

"성령의 감동은 영적 엘리트에게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경적인 기독교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위한 전문적 강의도, 그것을 터득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또한 모든 타당한 해석이 자신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성령께서 지혜, 지식, 영적분별의 특별한 은사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런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을 권위있게 해석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 성경은 최종권위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도 권위를 갖는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배우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책임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 결론적으로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참된 계시라는 것이라는 점과, 또한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이 궁극적인 권위라는 점과, 성경은 결코 신비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의 평범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키에르케가드의 글, 버나드 렘, *성경해석학*, 75 쪽에서:

키에르케가드에 의하면, 성경의 문법적, 사전적, 역사적 연구는 필요할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읽기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위해서는 사람의 입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과의 대화를 열망하며 진심으로 읽어야 한다. 부주의하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학적이나 직업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사랑의 편지(love letter)로 읽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다. 라울리, *성경의 계시*, 19 쪽에서:

"성경의 단순한 지적인 이해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모든 보화를 소유하지 못한다. 단순한 지적이해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이해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지적 이해가 영적 이해(영적 보화)에 이르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 지적인 깨달음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키려는 열정과 영적수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 결과 그는 과학적 연구방법을 뛰어 넘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성경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VI. 본 주석의 체계

본 *연구안내주석*은 당신의 해석과정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가. 각 책의 간단한 역사적 개요를 소개한다. 독서의 세 번째 단계를 실시한 후 이 안내를 보라.
나. 각 장의 처음 부분에 문맥적 통찰력 난을 넣었다. 이것은 문학적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다. 각 장 혹은 주요 문학 단위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 가지 현대 번역본의 문단분할과 그 제목을 제시했다:
1. 신약 헬라어 본문, 네 번째 개정판(UBS[4])
2.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NASB)
3. 뉴킹제임스역(NKJV)
4. 신개정표준역(NRSV)
5. 현대영어성경(TEV)
6. 예루살렘역(JB)

문단구분은 영감 되지 않았다. 그것은 문맥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다른 번역이론과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여러 현대어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원저자가 가졌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제 문장" 또는 "본문의 중심 생각" 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통일된 생각이 역사적, 문법적으로 적절한 해석의 열쇠이다. 문단보다 작은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거나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또한 각 문단은 앞뒤의 문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책 전체의 문단 개요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반드시 영감 된 원저자가 주장하는 주제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

라. 밥(Bob)의 설명은 한 절씩 해석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원저자의 생각을 따르도록 도와준다. 그의 설명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1. 문학적 상황
2. 역사적, 문화적 통찰력
3. 문법적 지식
4. 단어 연구
5. 관계된 대구(평행)구절

마. 때에 따라 신미국표준역, 1995 개정판 대신에 다른 여러 현대 번역본도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1. “공인본문”으로 알려진 뉴킹제임스역
2. 개정표준역 전국교회협의회의 축어적 개정판인 신개정표준역
3. 미국성서공회의 등가번역본인 현대영어성경
4. 프랑스 천주교역을 기초로 한 영어 등가 번역본인 예루살렘역

바. 헬라어에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영어번역본을 비교하는 것이 본문의 문제점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1. 사본의 다양성
2. 대체할 수 있는 단어의 뜻
3. 문법적으로 어려운 본문이나 구조
4. 애매한 본문

영어번역본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깊고 철저한 연구가 되도록 도와준다.

사.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장의 중요한 해석상의 문제들에 대한 생각할 질문들을 제시했다.

요한복음의 개론

들어가는 말

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침례(세례)로 시작되지만 요한복음은 천지창조 이전에서 시작된다.

나. 요한은 요한복음의 첫 장의 첫 절에서 부터 시작하여 복음서 전체에 걸쳐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관 복음은 이 진리(메시아됨의 비밀)를 나중까지 숨겨둔다.

다. 분명한 것은 요한은 공관 복음과 기본적인 맥락을 같이 하면서 요한복음을 전개한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초대 교회(1 세기 후반기)의 필요 안에서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최종적인 사도적 증인이었다.

라. 요한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1. 일곱 가지의 기적/이적과 군중들의 해석
2. 27 번의 인터뷰와 개인적인 면담
3. 예배와 절기
   ㄱ. 안식일
   ㄴ. 유월절(참조, 5-6 장)
   ㄷ. 초막절(참조, 7-10 장)
   ㄹ. 수전절(참조, 10:22-39)
4. "나는" 진술문
   ㄱ. 거룩한 이름(YHWH)과의 관계성
      1) 내가 그라(4:26; 8:24, 28; 13:19; 18:5-6)
      2)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8:54-59)
   ㄴ. 술어 주격과 함께 쓰인 경우
      1) 나는 생명의 떡이니(6:35, 41, 48, 51)
      2) 나는 세상의 빛이니(8:12)
      3) 나는 양의 문이라(10:7, 9)
      4) 나는 선한 목자라(10:11,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11:25)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요(15:1, 5)

마.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의 차이점

1. 요한은 신학적인 면에 중점을 두었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역사와 지형은 매우 정확하고 상세하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불일치되는 정확한 이유는 확실치 않다
   ㄱ. 초기 유대 사역(초기 성전 청결)
   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의 시간적 배열
2.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서가 분명하게 다른 점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죠지 엘던 라드의 책 *신약신학*에서는 이러한 차이점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ㄱ. "네 번째 복음서는 공관 복음서와 매우 다르다. 그 기록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전통에 길들여서 신학적 해석 안에서 역사가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215 쪽).
   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한의 어법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의 어법으로 쓰였기 때문이라고 결론짓는다면 중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네 번째 복음서의 신학은 어느 범주까지 예수님의 것이라기보다 요한의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한의 생각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범주까지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이라기 보다 요한의 해석이라고 믿을 것인가?"(215 쪽).
   ㄷ. 라드는 알브라이트의 글 "요한복음과 팔레스틴의 최근 연구"(다비스 와 더브가 편집한 *신약의 배경과 종말론*에서)를 인용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사이에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없다; 그 차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전통의 집중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에센파의 가르침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전통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도 뒤틀리거나 잘못되었다거나 그의 가르침에 중요한 새로운 요소가 첨가되어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초대교회의 필요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복음서에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고르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교회의 필요가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더하거나 바꿀 수 있었다고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비평적인 신약학자와 신학자의 가장 근거 없는 주장은 예수님의 마음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인하여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서 어떠한 두드러진 차이도 초기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의 차이점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어떤 위대한 사색가나 사람도 자신들의 취향과 흥미에 따라 제각기 보는 점이 다른 친구나 사람들에게 다르게 평가되고 있다"(170-171 쪽).

ㄹ. 다시 죠지 라드의 글에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사이의 차이점은 요한복음은 신학적이고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아니다. 모두 신학적이지만 다르다는 것이다. 해석된 역사는 사건의 단순한 나열보다 상황을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만약 요한복음이 신학적인 해석이면 그것은 역사 안에서 일어났다고 요한이 확신하는 사건의 해석이다. 예수님에 대한 글자 그대로(*ipsissima verba*)의 기록이나 그의 생애에 있었던 사건의 모든 기록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공관복음의 의도가 아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그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 속에 있는 자료들을 자유롭게 다시 정리하고 신중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다. 요한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좀 더 자유로웠다면, 그것은 그가 좀 더 깊이 있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그리기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221-222 쪽).

저자

가. 복음서가 저자에 관하여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 저자임을 나타낸다
1. 목격자인 저자 (참조, 19:35)
2. "그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폴리크라테스와 이레니우스 모두 그가 사도요한인 것을 동의함)
3.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음

나. 요한복음 자체의 역사적 배경이 확실하므로 해석상 저자의 문제는 중대한 요소는 아니다. 영감 된 저자에 의한 것이라는 확신이 중요하다!

요한복음의 저자와 저작시기는 영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석에 영향을 준다. 주석가는 그 책이 쓰인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찾는다. 반드시 요한의 이원론을 다음의 다섯 가지의 면에서 살펴보아야 하는가? (1) 유대인의 두 세대 (2) 쿰란공동체의 의의교사 (3) 조로아스터교 (4) 영지주의적 생각, 또는 (5) 예수님에 대한 독특한 시각

다. 초기의 전통적인 생각은 세베대의 아들인 사도요한이 목격자라는 것이다. 이점은 반드시 명확하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2 세기의 외부적 자료들이 복음서의 저자를 다른 사람으로 여기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믿음의 동료와 에베소 장로들은 나이든 사도가 쓰는 것을 격려했다(유세비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글을 인용한다)
2. 동료사도 안드레(무라토리안 단편, 주후 180-200, 로마에서)

라. 몇몇 현대 신학자들은 요한복음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여러 가정아래 다른 저자를 추정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2 세기 초엽으로 추정한다(주후 115 년 이전):
1.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제자(사도요한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 쓰임(J. 웨이스, B. 라이트푸트, C. H. 다드, O. 쿨만, R. A. 쿨페퍼, C. K. 바렡)
2. "장로 요한"에 의해 쓰임(요한사도의 신학과 종말론에 영향을 받은 아시아출신의 초기 지도자 그룹 중 한 사람). 유세비우스(주후 280-339)가 인용한 파피아스(주후 70-146)의 불명확한 구절에서 유래됨.

마. 요한복음서 자료의 우선적인 원천으로서 요한 자신을 위한 증거
1. 내적증거
   ㄱ. 저자는 유대인의 가르침과 예식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구약 세계관을 공유했다
   ㄴ. 저자는 주후 70 년 이전의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알았다
   ㄷ. 저자는 목격자였다고 주장한다
      1) 1:14
      2) 19:35
      3) 21:24
   ㄹ. 저자는 사도 중의 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의 것들에 익숙했다.

1)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밤의 재판)
2) 구체적인 숫자(2:6 의 물 항아리와 21:11 의 물고기)
3) 구체적인 사람
4) 저자는 사건과 사람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알았다
5) 저자는 "사랑하는 제자"인 것으로 여겨진다
ㄱ) 13:23, 25
ㄴ) 19:26-27, 34-35
ㄷ) 20:2-5, 8
ㄹ) 21:7, 20-24
6) 저자는 핵심구성원으로 여겨진다(베드로, 야고보, 요한, 참조, 마 17:1; 26:37)
ㄱ) 13:23-24
ㄴ) 20:2
ㄷ) 21:7
7) 요한복음에서 한 번도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불리지 않은 것은 매우 이상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사도의 핵심구성원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 외부적인 증거
ㄱ.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알려 졌다.
1) 폴리캅과 관계를 갖고 있던 이레니우스(주후 120-202)는 사도요한을 알았다(참조, 유세비우스의 *역사적 교회론* 5:20:6-7) – "주의 품에 기대었던 주의 제자, 요한 그 자신이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복음서를 집필했다"(*Haer*, 3:1:1, 유세비우스의 *역사적 교회론* 5:8:4).
ㄱ)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주후 153-217) – "동료의 권유와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요한은 영적 복음서를 기록했다"(유세비우스의 *역사적 교회론* 6:14:7).
ㄴ) 트리포와의 담론 81:4 에서 순교자 저스틴(주후 110-165)
ㄷ) 터툴리안(주후 145-220)
2) 요한이 저자라는 것은 아주 이른 시기의 목격자에 의해 확신되었다
ㄱ) 서머나의 주교(주후 153) 폴리캅(주후 70-156, 이레니우스의 기록에서)
ㄴ) 피르지아의 히에라폴리스의 주교였고 사도요한의 제자로 기록된 파피아스(주후 70-146, 로마와 유세비우스의 말시온을 반대하는 서론에서)

바. 전통적인 저자를 의심하는 이유
1. 요한복음의 영지주의적 주제와의 연결성
2. 21 장의 분명한 추가
3. 공관복음서와의 연대기적 모순
4. 요한이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5.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공관복음서와 다른 어휘와 문학 형태를 사용한다

사. 사도요한이 저자라고 할 때 그에 관하여 무엇을 가정할 수 있겠는가?
1. 그는 에베소에서 기록했을 것이다(이레니우스는 "에베소에서 복음서를 집필했다"고 말한다)
2. 그는 고령의 나이에 기록했을 것이다(이레니우스는 그가 트라얀의 통치기간인 주후 98-117 까지 살았다고 말한다)

저작시기

가. 저자를 사도요한으로 가정한다면
1. 주후 70 년 이전, 로마 총독(나중에 황제가 됨, 타이터스)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 되기전
ㄱ. 요 5: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 ."
ㄴ. 사도를 지칭하기 위해 처음에 사용하던 "제자"의 명칭을 계속 되풀이 한다
ㄷ. 후기 영지주의적 요소로 추정되는 것이 사해사본 안에서 발견되었다. 사해사본을 통해 그것이 1 세기에는 신학적인 전문용어 가운데 속해있었음이 드러났다
ㄹ. 주후 70 년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의 파괴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1 세기의 후반부
ㄱ. 요한의 발전된 신학
ㄴ. 이미 20 여 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예루살렘의 함락이 언급되지 않았다
ㄷ. 요한의 영지주의식의 어투나 강조점의 사용
ㄹ. 교회의 초기 전통
1) 이레니우스

2) 유세비우스

ㅁ. 미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W. F. 알브라이트는 요한복음의 기록시기를 70 년대 후반이나 80 년대 초라고 주장한다.

나. “장로 요한”으로 가정할 때 기록시기는 2 세기 중엽이 된다. 이 이론은 사도요한이 저자임을 부인하는 다이오니시어스로 부터 시작되었다(문학적 이유). 신학적 이유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요한의 저자됨을 부인하는 유세비우스는 (1) 사도인 요한과 (2) 장로인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파피아스의 인용문(역사적 교회론 3:39:5,6)에서 자신이 때와 장소에 걸맞는 다른 요한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수신자

가. 요한복음은 로마의 소아시아지방 특히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졌다.

나. 나사렛 예수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심연한 단순함과 깊이 때문에 요한복음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영지주의 그룹에게 선호되었다.

목적

가. 요한복음 자체가 전도적 목적을 주장한다, 20:30-31
1. 유대인 독자를 위해
2. 이방인 독자를 위해
3. 초기 영지주의적 독자를 위해

나. 사도적 필요에 의해서 쓰인 것으로 여겨진다
1. 침례(세례)요한의 광신적인 추종자를 대항하여
2. 초기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특별히 서언)를 대항하여: 이 그룹은 신약의 다른 책에서도 볼 수 있다
   ㄱ. 에베소서
   ㄴ. 골로새서
   ㄷ. 목회서신서(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ㄹ. 요한 일서(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편지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20 장 31 절의 목적 진술문은 전도와 더불어 인내의 교리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현재 시제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와 같이 요한복음은 소아시아의 몇몇 그룹에 의해 지나치게 강조된 바울의 신학에 균형을 잡아준다(참조, 벧후 3:15-16). 놀랍게도 초기의 교회전통은 바울이 아니라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본다(참조, F. F. 브루스의 *예수님의 수제자들*, 120-121 쪽 [영])

라. 맺음말 (21 장)은 초대교회의 특정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 요한은 공관복음의 기사를 보완한다. 그러나 그는 유대 사역 특히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춘다.
2. 추가된 부분인 21 장은 두 질문의 답을 제시한다.
   ㄱ. 베드로의 회복
   ㄴ. 요한의 장수
   ㄷ. 지연된 예수님의 재림

마. 어떤 이들은 요한이 3 장(침례)과 6 장(성찬 또는 마지막 주의 만찬)이 성례를 다룰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례에 대한 기록이나 대화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성례를 중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요

가. 철학적/신학적 서언(1:1-18)과 실제적인 맺음말(21 장)

나.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의 일곱 기적(2 장-12 장)과 사람들의 해석
   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2:1-11)
   나.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4:46-54)
   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심(5:1-18)
   라. 갈릴리에서 5000 명을 먹이심(6:1-15)
   마.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심(6:16-21)

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9:1-41)
사.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심(11:1-57)

다. 인터뷰와 개인적인 면담
1. 침례(세례)요한(1:19-34; 3:22-36)
2. 제자들
ㄱ. 안드레와 베드로(1:35-42)
ㄴ. 빌립과 나다나엘(1:43-51)
3. 니고데모(3:1-21)
4. 사마리아 여인(4:1-45)
5. 예루살렘의 유대인들(5:10-47)
6. 갈릴리의 군중(6:22-66)
7. 베드로와 제자들(6:67-71)
8. 예수님의 형제들(7:1-13)
9. 예루살렘의 유대인들(7:14-8:59; 10:1-42)
10. 다락방의 제자들(13:1-17:26)
11.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심문함(18:1-27)
12. 로마인들의 심문(18:28-19:16)
13. 부활후의 대화, 20:11-29
ㄱ. 마리아
ㄴ. 10 명의 사도
ㄷ. 도마
14. 베드로와의 마지막 대화, 21:1-25
15. (7:53-8:11,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원래 요한복음의 속한 것이 아니었다!)

라. 예배/절기
1. 안식일 (5:9; 7:22; 9:14; 19:31)
2. 유월절 (2:13; 6:4; 11:55; 18:28)
3. 초막절 (8-9 장)
4. 수전절 (빛의 축제, 참조, 10:22)

마. "내가" (I Am) 진술문
1. 내가 그라 (4:26; 6:20; 8:24, 28, 54-59; 13:19; 18:5-6, 8)
2. 나는 생명의 떡이니(6:35, 41, 48, 51)
3. 나는 세상의 빛이니(8:12; 9:5)
4. 나는 양의 문이라(10:7, 9)
5. 나는 선한 목자라(10:11, 14)
6.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11:25)
7.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14:6)
8. 나는 참 포도나무요(15:1, 5)

독서의 첫 단계(v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단번에 책 전체를 읽으라. 책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당신 자신의 말로 진술하라.

1. 책 전체의 주제

2. 문학의 형태(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다시 한번 그 책 전체를 단번에 읽으라. 중심 주제에 대한 개요를 만들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1. 첫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2. 두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3. 세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4. 네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5. 기타

요한복음 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말씀이 육신이 됨	영생의 말씀	서언	생명의 말씀	서언
1:1-5	1:1-5	1:1-5	1:1-5	1:1-18
	요한의 증거: 참 빛			
1:6-13	1:6-13	1:6-9	1:6-9	
		1:10-13	1:10-13	
	말씀이 육신이 됨			
1:14-18	1:14-18	1:14-18	1:14	
			1:15	
			1:16-18	
침례(세례)요한의 증거	광야의 소리	요한의 증거	침례(세례)요한의 메시지	요한의 증거
1:19-28	1:19-28	1:19-23	1:19	1:19-28
			1:20	
			1:21a	
			1:21b	
			1:21c	
			1:21d	
			1:22	
			1:23	
		1:24-28	1:24-25	
			1:26-27	
			1:28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어린양		하나님의 어린양	
1:29-34	1:29-34	1:29-34	1:29-31	1:29-34
			1:32-34	
최초의 제자들	최초의 제자들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에 대한 증거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들	최초의 제자들
1:35-42	1:35-42	1:35-42	1:35-36	1:35-39
			1:37-38a	
			1:38b	
			1:39	
			1:40-42a	1:40-42
			1:42b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심	
1:43-51	1:43-51	1:43-51	1:43-45	1:43-51
			1:46a	
			1:47	
			1:48a	
			1:48b	
			1:49	
			1:50-51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18 절에 대한 신학적, 역사적 통찰

가. 시/노래/신조에 대한 신학적 개요
   1.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1-5 절(말씀이신 예수)
   2.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증거, 6-9, 15 절(빛이신 예수)
   3.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심, 10-18 절(아들이신 예수)

나. 1-18 절의 신학적 구조와 되풀이되는 주제
   1. 예수님은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1a)
   2.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계셨다(1b, 2, 18c)
   3.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공유하셨다(1c, 18b)
   4. 성부 하나님의 구속과 양자 삼으심의 방법(12-13)
   5.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9, 14)
   6. 계시, 하나님이 완전하게 드러내셨다(18d)

---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을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 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

다. 말씀(*logos*)의 히브리어 와 헬라어 배경
1. 히브리어 배경
ㄱ. 말의 능력(사 55:11; 시 33:6; 107:20; 145:15), 창조에서(창 1:3, 6, 9, 11, 14, 20, 24, 26, 29), 족장의 축복(창 27:1 이하; 49:1)
ㄴ. 잠언 8:12-23 은 "지혜"를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로서, 모든 창조의 대리자로서 인격화 하였다(참조, 시 33:6 과 외경인 *지혜서* 9:9)
ㄷ. 탈굼(아람어 성경과 주석)은 의인화를 피하기 위하여 말씀(*logos*)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였다
2. 헬라어 배경
ㄱ. 헤라클레이토스 – 이 세상은 변한다; 비인격적인 신과 변함없는 말씀(*logos*)은 이 세상을 같이 붙잡고 변하하는 과정을 인도한다
ㄴ. 플라톤 - 비인격적인 신과 변함없는 말씀(*logos*)은 행성의 궤도를 지키고 계절을 결정한다
ㄷ. 스토아 - 말씀(*logos*)은 "세계의 이성" 혹은 관리자이지만 반(semi) 인격체이다.
ㄹ. 필로 – "하나님 앞에 사람의 영혼을 서게 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사람과 하나님사이의 다리"로서, 또는 "우주의 조종사가 모든 것을 조절하는 키잡이"로 말씀(*logos*)의 개념을 인격화 하였다.

라. 2 세기의 발전된 영지주의 신학/철학적인 체계의 기본요소
1. 영과 물질의 존재론적(영원한)으로 대립적 이원론
2. 물질은 악하고 완강하다; 영은 선하다.
3. 영지주의의 체계는 높고 좋은 신과 물질을 만든 낮은 신 사이를 천사세계(*aeons*)로 가정한다. 어떤 사람은 이 낮은 신이 구약의 여호와였다고 확신한다(말시온과 같이)
4. 구원은 다음에 의하여 왔다
ㄱ. 한 사람이 천사적 수준을 지나 하나님과 하나되는 길로 통과하도록 해주는 비밀스러운 지식과 암호
ㄴ. 모든 사람이 지닌 신적 흔적, 그들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ㄷ. 비밀스러운 지식을 인간에게 주는 계시의 특별한 대리자(그리스도의 영)
5. 이러한 생각의 체계는 예수님의 신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실제적이고 영구한 성육신과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구속의 진리는 부인한다!

마. 역사적 배경
1. 1-18 절은 말씀(*logos*)의 사용함으로써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서로 연결시키려 한다.
2. 이단인 영지주의는 뛰어난 구성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 서론의 철학적 배경이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서신이다. 2 세기까지는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적 체계가 문서로 알려진 것은 없지만 영지주의적 주제의 태동은 사해사본과 필로 안에서 발견된다.
3. 공관복음(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신성(메시아적 비밀)을 갈보리 사건이 있기까지 가리워 두지만, 후에 쓰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중대한 주제인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임(인자, 참조, 겔 2:1; 단 7:13)을 1 장 부터 전개한다.

바. 특별주제를 보라: 요한일서 1:1 에서 요한복음 1 장과 요한일서 1 장을 비교함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1-5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 "태초에" 이것은 창세기와 요한일서를 반영한다.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대표하는 서신이다. 1-5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창조 전에 선재하셨다는 것의 확언이다(참조, 1:15; 8:56-59; 16:28; 17:5; 고후 8:9; 빌 2:6-7; 골 1:17; 히 1:3; 10:5-8).

▣ **"계시니라"**(3 번) 이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과거에 계속 남아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미완료 시제(참조, 1, 2, 4, 10 절)이다. 이러한 시제는 말씀이 선재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3,6,14 절의 부정과거 시제와 대조된다.

▣ **"말씀"** 헬라어의 말씀(*logos*)은 단순히 각 단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말한다. 문맥안에서 이것은 헬라인들은 "세계의 이성"(world reason)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히브리적 표현인 "지혜"에 상응하는 말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고 동시에 메시지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한다.

▣ **"하나님과"** 이것은 "마주 보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매우 가까운 교제를 말한다. 또한 하나의 하나님의 실체와 영원한 세 인격의 개념을 지적한다. 신약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부터 분리되셨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이시다라고 역설한다.

▣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1 절의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미완료 시제의 동사가 쓰였다. 하나님앞에 정관사가 없지만 *하나님*은 강조를 위해 헬라어 구의 맨 앞에 위치한다. 1 절과 18 절은 선재하시는 말씀(참조, 5:18; 8:58; 10:30; 14:9; 20:28; 롬 9:5; 히 1:8; 벧후 1:1)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강력한 진술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던 것처럼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성부와 다르지만 성부와 똑같은 하나님의 실체이시다.

신약은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지만 성부의 독특한 특징을 유지한다. 하나이신 하나님의 실체는 요한복음 1:1; 5:18; 10:30, 34-38; 14:9-10; 20:28 에서 강조 되었다. 반면에 요한복음 1:2, 14, 18; 5:19-23; 8:28; 10:25, 29; 14:11, 12, 13, 16 에서는 다르심이 강조되었다.

1:2 1 절과 평행을 이루며, 주전 6-5 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성부와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는 유일신의 관점에서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1: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은 성부의 대리자로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참조, 1:10; 고전 8:6; 골 1:16; 히 1:2). 이것은 시편 33:6 과 잠언 8:12-23 에서 지혜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 (지혜는 여성형 명사이므로 여성형을 취했다).

▣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높고 좋은 신과 물질을 만든 낮은 영적 존재사이의 천사 세계에 대한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한다.

1: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구절은 "생명" 그 자체가 말씀이신 아들로 부터 온 것임을 강조한다. 요한은 생명(*zoē*)을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참조, 1:4; 3:15, 36; 4:14, 36; 5:24, 26, 29, 39, 40; 6:22, 33, 35, 40, 47, 48, 51, 53, 54, 63, 65 등)의미로 사용했다. 다른 헬라어 용어인 "생명"(*bios*)은 세속적, 육체적 의미의 생명으로 사용했다(참조, 요일 2:16).

▣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은 진리와 하나님의 지식을 위해 요한이 사용한 상식적인 비유이다 참조, 요 3:19; 8:12; 9:5; 12:46). 생명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주목하라! 빛과 어두움은 사해사본 안에서 일반적인 주제이다. 요한은 종종 이원론적인 용어와 범주 안에서 표현했다.

1:4 "빛이 비치되" 이것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셨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세상에 드러나셨다. 구약에서 육체적으로 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천사와 동일시되었다(참조, 창 16:7-13; 22:11-15; 31:11, 13; 48:15-16; 출 3:2, 4; 13:21; 14:19; 삿 2:1; 6:22-23; 13:3-22; 슥 3:1-2).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육신 이전의 말씀이었다고 주장한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신개정표준역(NRSV)	"어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더라"
현대영어성경(TEV)	"어둠이 그것을 내쫒지 못하더라"
신예루살렘성경(NJB)	"어둠이 그것을 압도하지 못하더라"

이 용어의 기본적인 뜻은 "붙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1) 압도하기 위하여 붙잡는 것 (참조, 마 16:18) 또는 (2) 이해하기 위하여 붙잡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요한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모두 제안하기 원했던 것 같다. 요한복음은 두 가지 뜻의 어구로 성격 지워 진다(예, "거듭남 또는 위로 부터" 3:3 와 "바람-성령 3:8).

개역개정 1:6-8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1:6-7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침례(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였다(그의 메시지와 관점에서). 그는 말라기 3:1; 4:5 에서 이미 예언 되어졌다 (참조, 요

1:20-25). 사도요한은 침례(세례)요한 주변에 전개된 초기의 오해 때문에 6-8 절을 삽입했을 것이다(참조, 눅 3:15; 행 18:25; 19:3). 다른 복음서들 보다 나중에 그의 복음서를 쓴 사도요한은 이런 문제의 전개를 보았다.

그리스도가 미완료(선재하심)동사로 묘사된 것은 흥미롭다. 반면에 요한은 부정과거(시간 안에서 나타남)와 현재(지속적인 결과와 함께하는 역사적 사건)동사 (참조, 6 절)로 묘사되었다. 예수님은 언제나 존재하신다.

1:6-8 이 구절(6-8 절)과 15 절 (회고법적 삽입구)은 예수님에 대한 침례(세례)요한의 증거를 기록한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다. 시적 형식에 이와 같은 절들을 삽입하는 것은 어렵다. 학자들 안에서 서론이 시냐 산문이냐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1:7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절이다. 다른 모든 복음서(독특한 기독교 문학형태)와 같이 요한복음은 전도를 위한 책이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구원의 놀라운 제시이다

1:7, 12 "믿다" "믿다"라는 동사는 요한복음에서 78 번, 요한서신에서 24 번 사용되었다. 요한복음에서 "믿다"의 동사형만 사용되고 명사형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믿음은 우선적으로 지적 또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지적인 반응이다.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에서 세 가지로 번역되어 진다: 믿다, 신뢰하다,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다"(참조, 11 절)와 "예수님을 받아들이다" (참조, 12 절)는 서로 대구적(평행)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안에 있는 자유지만, 그것은 받아 들여져야만 한다. 구원은 특권과 책임이 동반되는 언약의 관계이다.

1:8 다른 복음서들 보다 나중에 그의 복음서를 쓴 사도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듣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요한의 제자들 중에 전개되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했을 것이다(참조, 행 18:25-19:7).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

명사형(증인-*marturia*)과 동사형(증거하다-*martureō*)은 요한복음의 중심 단어이다. 예수님의 많은 증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침례(세례)요한 (참조, 요 1:7, 8, 15; 3:26, 28; 5:33)
2. 예수님 자신(참조, 요 3:11; 5:31; 8:13-14)
3. 사마리아 여인(참조, 요 4:39)
4. 성부 하나님(참조, 5:32, 34, 37; 8:18; 요일 5:9)
5. 성경(참조, 요 5:39)
6. 나사로를 살리심을 본 군중(참조, 요 12:17)
7. 성령님(참조, 요 15:26-27; 요일 5:10, 11)
8. 제자들(참조, 요 15:27; 19:35; 요일 1:2; 4:14)
9. 저자 자신(참조, 요 21:24)

개역개정 1:9-13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9 "참 빛" 이것은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보다는 순수하고 실제라는 의미로서 "참"이다. 이것은 1 세기의 신학적인 모든 다양성과 연관된다. "참"은 요한의 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용사이다(참조, 3:35; 4:23, 37; 6:32; 7:28; 15:1; 17:3; 19:35; 요일 2:8; 5:20; 계시록에서 10 번 사용됨). 6:55 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 **"세상에 와서"** 요한은 영적 세계인 천국을 떠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는 물리적 영역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 종종 이 표현을 사용했다 (참조, 6:14; 9:39; 11:27; 12:46; 16:28).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모든 사람을 비추다"
뉴킹제임스역(NKJV)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다"
신개정표준역(NRSV)	"모든 사람을 비추다"

현대영어성경(TEV) **"모든 사람들 위에 비추다"**
신예루살렘성경(NJB)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이 구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헬라문화배경에서 그것은 신적 섬광 또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계시의 내적 빛을 말한다. 이것은 퀘이커 교도의 해석방법이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요한에 의하면 "빛"이 사람의 악을 드러낸다(참조, 3:19-21).

둘째, 이것은 자연계시 [즉, 하나님은 자연(참조, 시 19:1-5; 롬 1:19-20)이나 내적인 도덕개념(롬 2:14-15)을 통해 알려질 수 있다] 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오직 참 빛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한다.

1:10 "세상" 요한은 세상 (*kosmos*)을 세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다: (1) 물질적인 세상(1:10, 11; 11:9; 16:21; 17:5, 24; 21:25); (2) 모든 인류(1:10, 29; 3:16, 17; 4:42; 6:33; 12:19, 42; 18;29); (3) 타락한 사람들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부터 떠난 사회(7:7; 15:18-19; 요일 2:15; 3:1,13). 여기에서는 (2)번이 적당하다.

▣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타락한 이방 민족이나 선택된 유대족속 모두 예수님을 약속한 구세주로 인식하지 못했다. "알다"의 히브리어적 표현은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참조, 창 4:1; 렘 1:5).

1: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은 11 절에서 2 번 사용되었다. 첫 번째는 중성 복수형으로 사용되었고 그 뜻은 (1) 모든 창조 또는 (2)지리적인 유대와 예루살렘을 말한다. 두 번째는 남성 복수형으로 유대 사람을 의미한다.

1:12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이것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역할을 보여준다(참조, 16 절).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반응 해야만 한다(참조, 3:16; 롬 10:9-13; 엡 2:8-9).하나님의 통치는 확실하지만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조건적 언약관계를 시작하셨다.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고 믿음 안에서 인내해야 한다.

▣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의 헬라어 단어는 (1) 법적 권위 또는 (2) 권리나 특권(참조, 5:27; 17:2; 19:10, 11)을 의미할 수 있다. 타락한 인간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약의 저자들은 계속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기 위해 가족의 비유를 사용한다: (1) 아버지 (2) 아들 (3) 자녀 (4) 거듭남 (5) 입양. 기독교는 생산물(천국행 표, 화재보험 정책)이 아닌 가족의 개념에 유사하다.

자녀에 대한 두 가지 헬라어 단어를 예수님(*huios*)과 믿는 자들(*teknon, tekna*)에게 구별하여 사용한 것은 특이하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과는 다른 범주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독특하면서도 우리의 것과 유사하다.

▣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계속해서 믿는 것"을 의미하는 현재형 능동태 분사이다. "믿는다"의 어원적인 배경은 그 당시의 뜻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히브리어에서 "믿는다"의 원래 의미는 견고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것은 의지가 되고 충성되며 신뢰할만한 사람을 비유할 때 사용 되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믿음," "믿다," "신뢰하다," 로 번역된다. 성경적 믿음이나 신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누구 안에 두느냐의 문제다. 초점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성실하심을 믿고, 그의 사랑하심을 입은 분을 믿는 것이다. 초점은 인간이 가진 믿음의 양이나 강도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 있다. 2:23 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 **"그의 이름"** 구약에서 사람의 이름은 매우 중요했다. 이름은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담긴 예언 혹은 그의 인격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1:13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현대영어성경(TEV)	"그들은 태어나 인간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신예루살렘성경(NJB)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체의 충동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피"는 복수형이다. 이것은 인종적인 특권이나 인간의 성적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이끌어 내심을 말한다(참조, 6:44, 65). 12 절과 13 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사이에서 언약적인 균형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1:14-18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은 헬라 이방종교의 생각에 기독교를 융합시키려는 시도를 하던 영지주의의 잘못된 교리를 공격하고 있다. 임마누엘 약속(참조, 사 7:14)의 성취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이셨고 진실로 하나님이셨다 (참조, 요일 4:1-3).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 중에 한 인간으로 주거를 정하셨다(문자적으로, "그의 텐트를 치셨다"). 요한복음에서 "육체"는 바울의 글에서처럼 죄 된 본성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문자적으로 이것은 "주거를 정하셨다"는 뜻이다. 이것은 광야 시대와 성막에 그 배경을 가지고 있다(참조, 계 7:15; 21:3). 유대인들은 나중에 광야시대의 경험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밀월기"라고 부른다. 이때 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가까웠던 시기는 없었다. 이 기간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구름기둥의 유대인식 용어는 "셰키나," 히브리어로 "함께 계심이다."

▣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1) 예수님의 변화되심과 하늘에 오르심과 같은 것, 또는 (2)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가 지금은 보이고 충분히 알려 졌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것은 요한일서 1:1-4 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다. 영과 물질을 대립적 관계로 보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강조점과는 반대이다.

구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단어인 "영광" (*kbd*)는 원래는 상업적 용어로(저울의 짝을 일컫는) "무거운"이란 뜻이다. 무거운 것은 가치가 있거나 고유의 값어치가 있었다. 종종 밝은 것의 개념은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기 위한 말로 더해졌다(참조, 출 15:16; 24:17; 사 60:1-2). 오직 하나님만 훌륭하시고 존귀하시다. 그는 타락한 인간이 쳐다보기에는 너무 눈부시다(참조, 출 33:17-23; 사 6:5).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질 수 있다(참조, 렘 1:14; 마 17:2; 히 1:3; 약 2:1).

"영광"이라는 말은 무언가 모호하다: (1)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평행될 수 있다 (2)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가리킬 수 있다 (3) 그것은하나님의 형상을 뜻할 수 있다. 그 형상을 따라 인간이 지으심을 받았으나(참조, 창 1:26-27; 5:1; 9:6), 후에 반역을 함으로 망가졌다(참조, 창 3:1-22).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아버지로 부터 독생하신 자의 영광"
신개정표준역(NRSV)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현대영어성경(TEV)	"그가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받은 영광"
예루살렘성경(JB)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그의 것인 영광"

"오직"(*monogenēs*)의 뜻은 "유일하면서 하나인" (참조, 3:16)를 의미한다. 벌게이트역은 "독생하신"으로 번역했고, 안타깝게도 오래된 영어 번역본은 이것을 따라 번역했다 (참조, 눅 7:12; 8:42; 9:38; 히 11:17). 강조점은 단일성과 유일성에 있지 성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 **"아버지"** 구약은 하나님을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로 비유한다: (1) 이스라엘 민족은 종종 여호와의 "아들"로서 비유되었다(참조, 호 11:1; 말 3:17) (2) 이른 시기에 쓰인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했다(1:31) (3) 신명기 32 장에서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로 불렸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로 불렸다 (4) 이 유사성은 시편 103:13 에 기록되어 있고, 시편 68:5 (고아의 아버지)은 이 유사성을 발전시켰다 (5) 선지서에서는 자주 사용되었다 (참조, 사 1:2; 63:8; 아들로서의 이스라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63:16; 64:8; 렘 3:4, 19; 31:9).

예수님은 이 유사성을 취하셨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가족사이의 깊은 관계로써 나타낸다 1:14, 18; 2:16; 3:35; 4:21, 23; 5:17, 18, 19, 20, 21, 22, 23, 26, 36, 37, 43, 45; 6:27, 32, 37, 44, 45, 46, 57; 8:16, 19, 27, 28, 38, 42, 49, 54; 10;15, 17, 18, 25, 29, 30, 32, 36, 37, 38; 11:41;12:26, 27, 28, 49, 50; 13:1; 14:2, 6, 7, 8, 9, 10, 11, 12, 13, 16, 20, 21, 23, 24, 26, 28, 31; 15:1, 8, 9, 10, 15, 16, 23, 24, 26;16:3, 10, 15, 17, 23, 25, 26, 27, 28, 32; 17:1, 5, 11, 21, 24, 25; 18:11; 20;17, 21!

▣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서 결합된 두 단어는 잠언 16:6 에서 동시에 사용한 구약의 단어인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과 충성) 와 에멭(신실하심)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적인 용어로서 예수님의 인격(참조, 17 절)을 묘사한다. 6:55 와 17:3 의 특별주제인 진리를 보라.

1:15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선재하심(참조, 1:1; 8:56-59; 16:28; 17:5; 고후 8:9; 빌 2:6-7; 골 1:17; 히 1:3-10:5-8)에 대한 침례(세례)요한의 강력한 확신이다. 선재하심과 예언은 역사위에 계시며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확증한다. 이것은 성경적 세계관의 중요한 부분이다.

1:16-18 요한복음의 한 특징은 저자가 역사적인 사건, 대화, 또는 가르침의 부분에 자신의 설명을 삽입하는 방법에 있다. 종종 이것은 예수님, 다른 사람, 요한의 말을 서로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16-19 절이 저자 요한의 설명 이라고 주장한다(참조, 3:14-21).

1:16 "충만" 이것은 헬라어 단어 *플레로마* 이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은 높은 신과 낮은 영적 존재들 사이에 있는 천사의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참조, 골 1:19; 2:9; 엡 1:23; 4:13)의 중재자이고 천사의 수준이다. 여기에서 다시 사도 요한은 초기 영지주의의 실체를 공격한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은혜 위에 은혜러라"
신개정표준역(NRSV)	"은혜를 위한 은혜러라"
현대영어성경(TEV)	"우리에게 축복을 계속하여 주시는"
신예루살렘성경(NJB)	"다른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이 해석적인 질문은 어떻게 "은혜"를 이해하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1)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자비인가 (2)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인가 (3)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인가? 중심 생각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성육신 안에서 놀랍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답"이다(참조, 고후 1:20).

1:17 "율법" 모세의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기 까지는 예비적이고 불완전한 것이었다(갈 3:23-29; 롬 4).

▣ **"은혜"**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마땅치 않고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참조, 엡 2:8). 바울 서신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인 은혜(카리스)는 요한복음에서는 단지 세 번 사용되었다(참조, 1:14, 16, 17). 신약의 저자들은 영감을 받아 그들 자신의 어휘, 유사, 비유들을 자유롭게 사용했다.

▣ **"진리"** 이것은 (1) 성실함 또는 (2) 진리 대 거짓 (참조, 1:14; 8:32; 14:6)의 감각으로 사용했다. 은혜와 진리가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온 것을 주목하라.

▣ **"예수"** 이것은 서론에서 처음 사용된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이름이었다.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어떤 사람은 이것이 출애굽기 33:20-23 과 모순된다고 말한다. 출애굽기 본문 안에서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물리적인 모습이 아닌 "저녁놀"을 의미한다. 이 본문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셨다는 것이다 (참조, 14:8 이하).

이 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로서의 나사렛 예수를 강조한다. 그는 하나님의 충만하고 유일한 자기 계시이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은 성부 자신의 궁극적인 계시이다. 그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 (참조, 골 1:15-19; 히 1:2-3).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독생하신 하나님"
뉴킹제임스역(NKJV)	"독생하신 아들"
신개정표준역(NRSV)	"이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현대영어성경(TEV)	"외아들"
신예루살렘성(NJB)	"이는 외아들이다"

헬라어 사본의 다양성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쎄오스*) 은 초기 헬라어 사본 $P^{66,}$ $P^{75,}$ B, C 에 있다. A 와 C^3 사본에서만 "하나님" 대신 "아들"을 사용하고 있다. "아들"은 요한복음 3:16,18; 요일 4:9 에서 "독생자"에 대한 서기관의 기억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브루스 M. 메츠거의 *신약 헬라어 본문 주석* 198 쪽). 이것은 예수님의 충만하고 완전한 신성에 대한 강한 확신이다! 이 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세 개의 호칭이 가능하다: (1) 독생자 (2) 하나님 (3) 아버지의 품에 있는 자.

바트 D. 어만의 *성경 왜곡의 역사*, 78-82 쪽,에서 본문의 목적적 수정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은 흥미롭다.

▣ **"아버지 품 속에 있는"** 이것은 1 절과 2 절의 "하나님과 함께"와 매우 비슷한 의미이다. 이것은 가까운 교제를 말한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그가 하나님을 설명하셨다"
뉴킹제임스역(NKJV)	"그가 하나님을 공표하셨다"
신개정표준역(NRSV), 신예루살렘성경(NJB)	"그를 알게 하신 자"
현대영어성경(TEV)	"그가 그를 알게 하셨다"

우리는 영어단어의 “주해”를 1:18 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로 부터 얻게 된다. 이것은 충분하고 완전한 계시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는 성부를 나타내어 보이시는 일이었다(참조, 요 14:7-10; 히 1:2-3).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은 성부를 보고 아는 것이다(죄인을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도와주시며, 버림받은 자를 받아주시고, 어린아이와 여자를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말씀(*logos*)을 정의 하고 그것의 고대 종교에서의 용법, 세속적인 용법, 성경적인 용법을 설명하라.
2. 예수님이 선재하심의 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3. 구원에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4.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만 했는가?
5. 1:1-18 의 개략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6.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다른 신학적 진리들을 열거해 보라(적어도 8 가지 이상)
7. 1:18 절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9-51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침례(세례)요한에 관계된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두 가지 오해를 다룬다:
   1. 침례(세례)요한 주변의 사람에게 전개된 일과 1:6-9, 20, 21, 25; 3:22-36 에서의 논쟁 되어진 것
   2.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연루된 것과 32-34 절에서 다루어진 것. 같은 이단 영지주의는 요한일서 1 장에서도 공격을 받는다.

나. 요한복음은 침례(세례)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침례(세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생애에서 교회의 예식인 침례(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게 빠져 있다. 거기에는 그것을 생략 가능케 했던 최소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1.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성례중시주의는 요한으로 하여금 기독교 안에서 그것을 덜 강조하도록 작용했다. 그의 복음서는 교제에 초점을 둔 것이지, 의식이 아니다. 그는 두 가지의 성례식인 침례(세례)와 주의 만찬에 대하여 이야기 하거나 기록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기록을 기대했던 내용의 생략은 그것에 대한 주의를 이끈다.
   2. 다른 복음서보다 그의 복음서를 나중에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 다른 복음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모든 공관복음서는 성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주변적인 상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하나의 예로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대화와 사건 (13-17 장)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것은 주의 만찬 그 자체에 관한 기록은 아니다.

다. 이 기록의 강조점은 예수님의 인성에 관한 침례(세례) 요한의 증언이다. 요한은 다음과 같은 기독교적 진술을 만들었다:
   1.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다(29 절). 예수님께 대한 이 호칭은 이곳과 계시록에서만 사용되었다.
   2. 예수님은 선재하신다(30 절)
   3.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34 절)
   4.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시고 주시는 분이다.

라.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에 관한 진리는 개인적인 증언에 의해 발전되었다
   1. 침례(세례)요한
   2. 안드레와 시몬
   3. 빌립과 나다나엘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이는 문학 기법이다. 이 책에는 예수님에 관한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한 대화나 증언이 27 번 나온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19-23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1:19 "유대인들"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1)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유대의 사람들 또는 (2) 오직 종교 지도자들만을 가리킬 수 있다. 몇몇 학자들은 한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칭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유대인의 기독교에 대한 적대심은 주후 90 년에 있었던 얌니아 회의 이후에 격렬해 졌다.

▣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침례(세례)요한 역시 제사장의 반열이었음이 확실하다(참조, 눅 1:5 이하). 요한복음에서 "레위인들"이란 단어는 이곳에만 있다. 그들은 성전의 치안 담당자들 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 권위자들로 부터 보내진 진상 조사원의 공적 그룹이었다(참조, 24 절). 일반적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사두개인이었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이었다(참조, 24 절). 이 두 그룹 모두 침례(세례)요한에게 묻는 일에 가담한다.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인 대립감을 뛰어 넘어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반대하기 위해 힘을 합했다.

▣ **"네가 누구냐"** 같은 질문이 8:25 에서 예수님께 되물어 진다. 요한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을 불편해 하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행동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 사람을 구약의 종말론적 주제와 연관지어서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이 질문은 마지막 때 혹은 새 시대를 나타내는 사람에 대한 유대인의 기대와 관계가 있다.

1: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 진술은 강력하다. 요한은 그가 약속된 구세주(그리스도)로 기대되어진 것을 세번 연속해서 부인한다.

▣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단어 "*마시아*" 의 헬라어 번역이다. 이것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구약에서 기름부음의 개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강조와 특수한 사역을 위한 준비를 뜻한다.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어졌다. 이것은 의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 올 특별한 사람과 동일시 되었다. 많은 사람은 침례(세례) 요한이 바로 약속된 구세주라고 생각했다(참조, 눅 3:15). 왜냐하면 그는 약 400 년전의 구약 성경 저자들 이후에 처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1:21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엘리야는 죽지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워 갔기 때문에(참조, 왕하 2:1), 그는 구세주가 오시기전에 올 것으로 기대되었다(참조, 말 3:1; 4:5). 침례(세례)요한은 마치 엘리야 처럼 보였고 그렇게 행동했다(참조, 슥 13:4).

▣ **"나는 아니라"** 침례(세례)요한은 자신을 엘리야의 종말론적 역할과 관계된 자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말라기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보았다(참조, 마 11:14; 17:12).

▣ **"네가 그 선지자냐"** 모세는 자기와 같은 자 (그는 그를 "선지자"로 불렀다) 가 그의 후에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참조, 신 18:15, 18; 행 3:22). 이 말은 신약에서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 (1) 메시아가 아닌 다른 종말론적 인물(참조, 7:40-41) 또는 (2) 메시아와 동일시 되는 인물(참조, 행 3:22).

1:23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것은 말라기 3:1 과 평행의 의미를 내포하는 칠십인역의 이사야 40:3 에서 인용했다.

▣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의 글(40-54 장)의 종의 노래(참조, 42:1-9; 49:1-7; 50:4-11; 52:13-53:12)중 사 40:3 의 인용이다. 그들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지칭했으나 52:13-53:12 에서는 개인을 가리킨다. 길을 곧게 하라는 개념은 왕의 방문을 준비한다는 뜻이었다.

전체 구절은 침례(세례)요한을 깎아내릴 사도 요한의 신학적 목적을 나타낸다. 그 이유는 침례(세례)요한을 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선택했던 1 세기의 여러 이단그룹들의 난무 때문이었다.

개역개정 1:24-28

[24]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26]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28]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1:24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 본문은 모호하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바리새인들이 요한에게 질문자를 보냈다(참조, 19 절) 또는 (2)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상한 일이지만 질문자들은 바리새인 이었다(참조, 9 절).

특별주제: 바리새인

I. 이 단어는 다음중 하나의 기원을 가졌다:
   가. "분리한." 이 그룹은 마카비안 기간 동안 발전되었다. (이 생각이 가장 넓게 받아들여진다).
   나. "나누다." 이것은 같은 히브리어 어원의 또 다른 의미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해석가를 의미한다고 말한다(참조, 딤후 2:15).
   다. "페르시아 의." 이것은 같은 아람어 어원의 또 다른 의미이다. 사두개인의 어떤 교리는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과 함께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II. 그들은 마카비안 기간 동안 "*하시딤*"(경건한 사람들)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에세네파와 같은 그룹들은 안티오커스 IV 에피파네스에 반대한 반-헬라주의에서 나왔다. 그 바리새인들은 요세푸스의 *유대상고사*에서 처음 언급된다.

III. 그들의 중요한 교리들.
   가. <u>오실 구세주에 대한 믿음</u>, 이것은 에녹 I 과 같은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 묵시 문학의 영향 을 받았다.
   나. <u>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u>. 이것은 사두개인과 완전히 다르다. 바리새인의 교리의 많은 부분은 사두개인들의 것과 신학적으로 대조를 이룬다.
   다. <u>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기초로 한 후세 지향적인 삶,</u> 이것에는 상과 벌이 연관된다.
   라. <u>구약의 권위와 구전 전통(탈무드).</u> 그들은 랍비(보수적인 샴마이 학파, 자유적인 힐렐 학파)들이 해석하고 적용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랍비들의 해석은 보수적이고 자유적인 다른 철학을 가진 랍비들 사이의 대화에 기초를 둔다. 성경의 의미에 대한 구두로 된 토론은 결국 두 가지 형태로 기록되었다: 바빌로니안 탈무드와 팔레스타니안 탈무드. 그들은 모세가 이와 같은 구전 해석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믿었다. 이러한 토론의 역사적 시작은 에스라와 "위대한 회당"(후에 산헤드린이라 불려짐).
   마. <u>잘 발전된 천사론.</u> 이것은 선하고 악한 영적 존재를 모두 포함한다. 이것은 페르시안 이원론과 신구약 중간시대의 유대문학에서 발전되었다.

1:25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고대 유대교에서 개종하려는 이방인들을 위해 베풀어진 개종자 침례(세례)는 규범적이었지만 유대인 자신이 침례(세례)를 받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쿰란종파의 유대인은 자신에게 하는 침례(세례)를 행했다). 이 본문은 이사야 52:15; 겔 36:25; 슥 13:1 로부터 메시아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만약"** 이것은 저자의 관점으로나 그의 문학적 목적을 위해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조건절의 제 1 유형이다.

▣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메시아적 인물들로 보이는 세 유명한 인물을 에세네파 관점에서 사해사본에 표현한 것은 흥미롭다.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 얼마는 그리스도가 재림 하시기전에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올 것이라고 믿은 것 또한 흥미로운 일이다(참조, 크리소스톰, 제롬, 그레고리, 어거스틴).

1:26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전치사 "안에" (in)는 "함께" (with)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이것의 선택은 평행을 이루는 33 절의 "성령"을 염두에 두고 해야만 한다.

1:27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은 주인이 집에 들어 왔을 때 그의 신발 끈을 푸는 종의 임무를 가리킨다 종이 할 수 있는 가장 천하고 가장 평범한 일로 여겨졌다). 유대 랍비는 그의 신발 끈을 푸는 것 이외에

종이 기꺼이 하는 모든 일을 그의 제자들이 기꺼이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그것은 말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신발을 벗기고 그 신발을 두는 장소에 가져가는 것도 포함한다. 이것은 가장 비천함의 비유이다.

1:28 "베다니" 킹제임스역은 "베타바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 번역본의 저자가 오리겐의 도시의 위치에 대한 오해(그리고 장소의 우화화)위에 세워진 믿음 때문이었다. 바르게 고쳐진 것은 베다니(보드멘 파피루스)—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도시는 여리고를 가로질러 요단가의 동쪽 편에 있었다.

개역개정 1:29-34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1:29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은 곧 축하될 것이었다(참조, 2:13). 그러므로 이것은 이집트로 부터(참조, 출 12 장) 구해냄(즉 구원)의 표시인 유월절 양을 가리킨다. 그러나 다른 해석들이 있다: (1) 이것은 이사야 53:7 의 고통당하는 종을 말할 수 있다 (2) 이것은 창세기 22:8 의 수풀에 걸린 동물을 의미할 수 있다 (3) 이것은 "계속적으로"라 불리는 성전 안에서의 매일의 제사를 의미할 수 있다(참조, 출 29:38-46). 절기로 모일 때마다 희생의 목적으로 양이 보내어 졌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에 대한 이 강력한 비유는 바울에 의하여 결코 사용되지 않았고, 요한에 의해서만 드물게 사용되었을 뿐이다(참조, 1:29, 36). 헬라어 단어인 "어린 양"은 요한에 의해 21:15 에, 계시록에서 28 번 사용되었다.

침례(세례)요한의 묘사에 대한 또 다른 가능성은: 신구약 중간 시대의 묵시적 문학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양은 승리의 전사이다. 양의 희생적인 면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재판관으로서의 양은 뛰어나다(참조, 계 5:5-6, 12-13).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지고 가는"은 "들어 올려 운반해 가는"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레위기 16 장에 나오는 속죄양의 개념과 매우 비슷하다. 세상 죄가 언급 되어진 사실은 양의 우주적인 임무를 함축한다. 죄가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인 것에 주목하라. 예수님은 세상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1:30 "나보다 앞선 것은" 이것은 강조를 위한 15 절의 반복이다. 이것은 선재하심과 메시아의 신성에 대한 또 다른 강조이다(참조, 1:1, 15; 8:58; 16:28; 17:5, 24; 고후 8:9; 빌 2:6-7; 골 1:17; 히 1:3).

1:31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것은 일반적인 요한식 문구(참조, 2:11; 3:21; 7:4; 9:3; 17:6; 21:14)이지만, 이것은 공관 복음서에서는 아주 드문 예이다. 마가복음 4:22 에 한 번 나타난다. 어떤 사람을 사실적으로 알기 보다 개인적인 교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의 "알다"와 같다. 침례 (세례) 요한의 목적은 두 가지이다: (1) 사람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2)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

1:32-33 이것은 요한이 성령의 내려 오심과 예수님 위에 머무심을 본 것에 대한 삼중 강조이다.

1:32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것은 메시야(참조, 사 42:1; 59:21; 61:1)를 인식하는 이사야의(40-66 장)방법이었다. 예수님이 이 순간이 되기 전까지는 성령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준비의 상징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침례(세례)요한을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은 그 당시의 악한 시대와 도래할 의의 시대인 두 시대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불렸다. 이 비젼이 침례(세례)요한에게 말했을 것이다 (1) 이는 메시아다 그리고 (2) 새로운 시대가 밝았다.

▣ **"비둘기"** 이것은 (1)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랍비적 상징 (2) 창세기 1:2 에서 새의 암컷이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은 성령을 암시하는 것 또는 (3) 성령(성령은 새가 아니다)이 내려오는 비유로서 사용되었다.

▣ **"머물렀더라"** 요일 2: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1: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침례(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 완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척으로서 그들은 여러 해에 걸쳐 가족모임 또는 종교적 모임에서 만났다.

▣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세례)시 발생했던 특별한 일들을 통해 메시아이심을 인식했다.

요한의 침례(세례)는 종교적 권위를 암시했다. 예루살렘으로 부터 온 공적 위임자들(참조, 19-28 절)은 그의 권위의 근원을 알기 원했다. 침례(세례)요한은 예수님께 그 권위를 돌렸다. 예수님의 성령 침례(세례)는 요한의 물 침례(세례) 보다 뛰어나다. 예수님 자신이 물로 받으신 침례(세례)는 새 시대로 진입하는 성령 침례(세례)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고전 12:13 에서 이것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과 관계된 개념으로 보인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간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세례)를 베푸시고, 새로 믿은 자 안에 그리스도를 형성하신다(참조, 요 16:8-13).

1:34 "내가 보고 증언하였노라" 두 개의 동사는 마쳐지고 계속되는 과거의 행동을 의미하는 완료형 능동 직설법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요일 1:1-4 과 매우 비슷하다.

▣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 나다나엘은 요 1:49 에서 예수님께 같은 호칭을 사용했다. 사단 또한 마 4:3 에서 이 호칭을 사용했다. 헬라어 사본 P^5 와 $\aleph^*$에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사용한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일반적인 표현이다. 하지만 본문 비평의 이성적인 신조를 따른다면 가장 우습고 이상한 것은 원래의 본문일 것이다. 그래서 비록 다른 번역을 지지하는 사본의 수가 적더라도 그 번역을 택할 여지가 있게 된다. 고든 피는 *강해 성경 주석* 시리즈의 첫 번째 책에 있는 그의 글 "신약의 본문 비평" 419-433 쪽에서 이 본문의 다양성을 논했다.

> 요한복음 1:34 에서 침례(세례)요한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킹제임스역, 개정 표준역) 이라고 했는가 아니면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새 영어 성경-NEB, 예루살렘 성경)라고 했는가? 사본의 증거는 초기의 본문 유형에서 조차 나누어진다. "아들"은 여러 고대 라틴(aur, c, f, l, q)와 후기 시리아 증거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알렉산드리아 증거($P^{66,}$ P^{75}, B, C, L cop^{bo})에서 발견되어 진다. 반면에 '택한 자'는 오래된 라틴 사본 a, b, e, ff^2, 고대 라틴, 고대 시리아의 것에서와 같이 알렉산드리아의 P^5, $\aleph$, cop^{sa} 에 의하여 지지된다.
>
> 이 질문은 결과적으로 내적증거의 바탕에서 결정되어져야만 한다. 필사(복사)적인 가능성으로서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다양성은 사고라기보다는 고의적이다(참조, 바트 D. 어만의 *성경 왜곡의 역사*, 69-70). 하지만 2 세기의 서기관이 양자론적 기독론을 지지하기 위해 본문을 바꾸었는가, 아니면 '택하신 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양자론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정통파 서기관이 정통적인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 본문을 바꾸었는가?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나중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 그 이유로서는 무엇보다도 '아들'이라는 단어가 양자론자의 관점에 맞추기 위해 복음서의 어디에서도 바꾸어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
> "하지만 최종 결정은 주해에 달려있다. 침례(세례)요한이 말한 것은 거의 확실하게 메시아적 용어로 말한 것이지 기독교 신학의 진술이 아니다. 이것의 핵심은 그가 말한 것이 시편 2:7 또는 이사야 42:1 같은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신앙을 반영하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의 문제다. 요 1:29 의 주제인 고난 받으심, 유월절, 양을 고려할 때, '택하신 자'가 복음서의 문맥에 맞는지 반드시 논의해 보아야 한다 (43 1-432).

개역개정 1:35-42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하고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1:35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마가복음 1:16-20 은 두 제자의 부르심에 대한 다른 기술로 보일 수 있다. 이전에 예수님과 그의 갈릴리 제자들이 얼마나 자주 접촉을 하였는지 불확실하다. 예수님 시대에 전임으로 랍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제자 훈련의 단계가 있었다. 이 과정은 랍비적 자료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복음서의 기록에 철저히 따른 것은 아니다. 이 두 제자들은 안드레 (참조, 40 절)와 요한 (복음서에서 이름으로 결코 자신을 가리키지 않은 자)이다.

제자라는 말은 다음과 같이 의미할 수 있다: (1) 배우는 자 그리고/또는 (2) 따르는 자. 이것은 약속한 유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초기의 호칭이었다. 신약에서 제자로 부름 받은 것이 단순한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참조, 마 13 장). 기독교는 순종하고 인내하겠다는 결심이 계속적으로 따르는 결정에 의해 출발한다(회개와 믿음). 기독교는 화재보험이나 천국행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종/친구의 관계를 매일 갖는 것이다.

1: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침례(세례)요한은 자신 보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모아지게 했다(참조, 3:30).

1:38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것은 모세율법과 구전 전통(탈무드)의 내용과 적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를 지칭하는 1 세기 유대교의 일반적 호칭이었다. 글자 그대로 풀이 하면 "나의 주인"이란 뜻이다.사도요한은 "선생"과 같은 뜻으로 이것을 사용하였다(참조, 11:8, 28; 13:13-14; 20:10). 요한이 그의 용어들을(참조, 38, 41, 42 절) 설명한 것을 보면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쓴 것임을 보여준다.

▣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이것은 선생과 학생사이의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의 질문은 그들이 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것을 내포한다 (참조, 39 절).

1:39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이것은 요한이 (1) 12:00 a.m. 또는 (2) 동틀 때 시작하는 로마 시간을 사용했는지 혹은, 6:00 p.m. (황혼) 에 시작하는 유대 시간을 썼는지 불확실하다. 요한복음 19:14 와 마가복음 15: 25 을 비교해 볼때 그것은 로마 시간인 것 같다. 하지만 요한복음 11:19 를 보면 그것은 유대 시간을 말하는 것 같다. 요한은 두 가지 모두 사용이 가능했다. 여기서는 로마 시간의 (2)로 보인다(오후 4 시경).

1:41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그가 자기 자신의 형제를 먼저 찾아"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를 찾아"
현대영어성경(TEV)	"즉시 그는 찾았다"
신예루살렘성경(NJB)	"안드레가 첫 번째 한 것은"

이 번역에 영향을 주는 사본의 다양성이 있다. 선택할 수있는 여지는 다음과 같다: (1) 안드레가 했던 첫 번째일 (2) 그가 발견한 첫 번째 사람 (3) 안드레가 첫 번째로 가서 말했다.

▣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1:20 의 설명을 보라.

1:42 "예수께서 보시고" 이 단어는 "뚫어지게 보시고"를 의미한다.

▣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에 관해 신약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다. 마 16:17 에서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 로 불렸지만 여기에서는 "요한의 아들"(*'Iōannēs*)로 불렸다. P^{66}, P^{75}, א, 라틴 사본 B 에서 발견되는 요한이란 이름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n"(*'Iōnas*) 이 하나만 있다. 요나라는 이름은 A, B^3, K 사본과 후기 헬라어 사본에 있다. 이것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는 못한다. 아람어 원본에서 번역된 이름의 다양한 철자법은 일반적이다.

▣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란 단어는 아람어로 돌(*kepa*)이었는데 헬라어에서는 *kephas* 로 되었다. 그 이름은 견고함, 힘, 영구성이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간주된다.

개역개정 1:43-51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1:43 "이튿날" 요한은 복음서 전체에 연대기적 구절을 포함시켰다(참조, 1:29, 35, 43; 2:1 등).

▣ **"나가려 하시다가"** 요한은 공관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이른 시기의 예수님의 유대사역을 기록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유대사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예루살렘에 중점을 둔다.

▣ **"나를 따르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형이다. 이것은 영구적인 제자가 되는 랍비식 부름이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관계를 확정하는 지침을 정해 놓았다.

1:44 "빌립은 벳세다 사람이라" 이 도시의 이름은 "고기 잡는 집"이다. 이것은 또한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었다.

1:45 "나다나엘"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히브리 이름이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이름으로 그를 호칭하지 않았다. 현대 학자들은 그가 바돌로매로 불렸을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그것은 단지 추측으로 남아 있다.

▣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의 세 부분 중 둘을 가리킨다: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주후 90 년 얌니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됨). 그것은 전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방법이다.

▣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것은 유대식 용법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예수님은 나사렛에 살았고 그 집의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참조, 미가 5:2)한 것이나, 동정녀에게서 탄생(참조, 사 7:14)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1: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분명하게 빌립과 나다나엘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방 갈릴리의 나사렛이 아니라(그들은 아마 사 9:1-7 을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미 5:2)

1:47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그 속에 속임수가 없도다"
현대영어성경(TEV)	"그안에 거짓된 것이 없도다"
신예루살렘성경(NJB)	"그 속에 속임이 없도다"

이것은 선택된 사람, 이스라엘의 진실한 대표인 숨은 동기가 없는 곧은 사람을 말한다(참조, 시 32:2),

1:48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분명히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가 메시아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초인간적인 지식을 사용하였다.

어떻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어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초인간적인 힘을 사용했는지 인간의 능력을 사용했는지 확실치 않다. 여기서는 초인간적인 능력이다.

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두 호칭을 주시하라! 둘 다 민족적 메시아적 내용을 품고 있다. 초기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1 세기의 유대인의 틀에서 이해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까지 고난의 종(참조, 사 53 장)으로서의 인성과 사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1:51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뉴킹제임스역(NKJV)	"아주 확실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신개정표준역(NRSV)	"아주 진실 되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현대영어성경(TEV)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한다"
신예루살렘성경(NJB)	"모든 진리 안에서"

문자적으로 이것은 "아멘! 아멘!"이다. 이 단어를 두 번 연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된다(25 번). "아멘"은 믿음(에메쓰)을 나타내는 히브리식 표현으로서 "견고한"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나타내는 비유이다. 이것은 "믿음" 또는 "진실함"으로 번역되어 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확언으로 사용되었다. 문장의 처음에 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중대하고 확실한 진술에 주의력을 이끌어 내는 독특한 방법이었다(참조, 1:51; 2:3, 5, 11; 5:19, 24, 25; 6:26, 32, 47, 53; 8:34, 51, 58; 10:1, 7; 12:24; 13:16, 20, 21, 38; 14:12; 16:20, 23; 21:18).

복수형(대명사와 동사)으로 바뀌는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필히 거기에 서있던 모든 사람에게 알려 져야만 했다.

▣ **"하늘이 열리고"** 이것은 하늘이 열린 상태로 있는 것을 내포하는 완료형 능동태 분사이다. "하늘들"은 복수형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것이 복수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1) 창세기 1 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지구위의 궁창 또는 (2)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의미할 수 있다.

▣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은 야곱이 벧엘에서의 경험한 것을 내포한다(참조, 창 28:10 이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야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것을 단언하고 있다.

▣ **"인자"** 이것은 예수님의 스스로 고르신 명칭이다. 이것은 히브리어적 표현으로 인간을 말한다(참조, 시 8:4; 겔 2:1). 그러나 다니엘 7:13 에서의 사용 때문에, 그것은 신적인 성질을 갖게 되었다. 이 단어는 민족적이거나 군사적인 색채를 띄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랍비에 의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것이 그의 두 가지 본성을 결합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셨다(참조, 요일 4:1-6).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루살렘에서 온 그룹의 사람들은 왜 침례(세례)요한에게 그가 구약에 나오는 그 유명한 세 사람 중 한명이냐는 질문을 하였는가?
2. 요한복음 1:19-30 에서 침례(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기독교의 중요 교리를 말해 보라.
3. 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부름에 대하여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가?
4.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주목하라(39 절).
5.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가나의 혼인 잔치	포도주로 변한 물	가나의 혼인 잔치	가나의 혼인 잔치	가나의 혼인 잔치
2:1-11	2:1-12	2:1-11	2:1-3	2:1-10
			2:4	
			2:5	
			2:6-10	
			2:11	2:11-12
			2:12	
성전 청결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다	성전 청결		성전 청결
2:13-22	2:13-22	2:13-22	2:13-17	2:13-22
			2:18	
			2:19	
			2:20	
			2:21-22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신다	마음의 감찰자		인간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지식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2:23-25	2:23-25	2:23-25	2:23-25	2:23-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2:1-11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예수님은 그의 시대의 다른 종교적 지도자들과는 매우 달랐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먹고 마셨다. 침례(세례) 요한이 광야로부터 온 은둔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일반 대중과 함께 공공연히 지내었다.

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매우 가정적이고 가족적이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내세우는 종교주의자들에게 화를 내실 때 그분의 다른 성품을 보여주듯이, 보통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돌보심과 관심은 글 특징짓는다. 전통이나 의무적인 의식이 아닌 사람에 둔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자유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것은 문화적인 기대를 존중하는 자유였다.

다.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드러낸 처음 일곱 가지 기적은 다음과 같다.
1.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2:1-11)
2. 소년을 고치심(4:46-54)
3. 절름발이를 고치심(5:1-18)
4. 무리를 먹이심(6:1-15)
5. 물위를 걸으심(6:16-21)
6. 소경을 고치심(9:1-41)
7. 나사로를 살리심(11:1-57)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2:1-11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3]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1 "혼례가 있어" 마을의 혼례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인 사건이었다. 그들은 자주 전체 공동체에 개입되었고 여러 날 동안 계속될 수도 있었다.

▣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확실한 것은 마리아는 그 혼례식 준비를 돕고 있었다. 이것은 마리아의 행동 (1) 하인들에게 명령함(참조, 5 절) 그리고 (2) 음식에 관심을 나타냄(참조, 3 절)에서 알 수 있다. 그녀가 친척이었거나 가까운 친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3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손님에게 포도주를 내는 일은 유대인의 풍습이었다. 다음의 세 가지는 포도주가 분명히 발효된 것을 보여 준다: (1) 연회장의 설명, 9-10 절 (2) 예수님 시대의 유대 풍습 (3) 위생 처리와 화학적 첨가물의 부족.

특별주제: 포도주와 독주

I. 성경적 용어
 가. 구약
  1. *야인* – 이것은 포도주의 일반적 용어로서 141 번 사용되었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어근으로 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의 어원은 불확실 하다. 이것은 항상 과일(주로 포도)의 즙을 발효시킨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사용된 특별한 구절들은 창세기 9:21; 출 29:40; 민 15:5,10 이다.
  2. *티로쉬* – 이것은 "새 포도주" 이다. 왜냐하면 근동의 날씨에서 발효는 즙이 나온 후 6 시간이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발효 중에 있는 포도주를 말한다. 다음의 전통적인 구절들을 보라, 신 12:17; 18:4; 사 62:8-9; 호 4:11.

3. *아시스* – 이것은 알코올음료를 말한다(욜 1:5; 4:11).
4. *세카* – 이것은 "독주"를 말한다. 히브리어 어근은 "술 취한" 또는 "주정뱅이"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좀 더 취하게 만들기 위해 어떤 것을 첨가한 것을 말했다. 이것은 *야인*과 평행이다(참조, 잠 20:1; 31:6; 사 28:7).

나. 신약
1. *오니스* – 이것은 헬라어 *야인*과 같은 뜻이다.
2. *네오스 오이노스*(새 포도주) – 헬라어 *티로쉬*와 같은 뜻이다(참조, 막 2:22).
3. 글레우코스 비노스(달콤한 포도주) – 발효의 이른 시기에 있는 포도주(참조, 행 2:13).

II. 성경에서의 사용

가. 구약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창 27:28; 시 14:14-15; 전 9:7; 호 2:8-9; 욜 2:19, 24; 암 9:13; 슥 10:7).
2. 포도주는 희생 제사의 일부분이었다(출 29:40; 레 23:13; 민 15:7, 10; 28:14; 신 14:26; 사 9:13).
3. 포도주는 약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6:2; 잠 31:6-7).
4. 포도주는 실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노아 – 창 9:21; 롯 – 창 19:33, 35; 삼손 – 사 16:19; 나발 – 삼상 25:36; 우리아 – 삼하 11:13; 암몬 – 삼하 13:28; 엘라 왕상 16:9; 벤하닷 – 왕상 20:12; 지도자들 – 암 6:6; 부녀자들 – 암 4).
5. 포도주는 남용될 수 있다(잠 20:1; 23:29-35; 31:4-5; 사 5:11, 22; 19:14; 28:7-8; 호 4:11).
6. 포도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용이 금지되었다(임무수행중인 제사장, 레 10:9; 겔 44:21; 나실인, 민 6 장; 지도자들, 잠 31:4-5; 사 56:11-12; 호 7:5).
7. 포도주는 종말론적인 배경에서 사용되었다(암 9:13: 욜 3:18; 슥 9:17).

나. 신구약 중간시대
1. 포도주를 적당하게 사용하면 매우 유용하다(전 31:27-30).
2. 랍비들은 "포도주는 모든 약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서 포도주가 없을 때 약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BB 58b).

다. 신약
1. 예수님은 많은 양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요 2:1-11).
2.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다(마 11:18-19; 눅 7:33-34; 22:17 이하).
3. 오순절 때 베드로는 "새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 되었다(행 2:13).
4. 포도주는 약으로서 사용되었다(막 15:23; 눅 10:34; 딤전 5:23).
5. 지도자들이 남용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완전히 금욕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딤전 3:3, 8; 딛 1:7; 2:3; 벧전 4:3).
6. 포도주는 종말론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마 22:1 이하; 계 19:9).
7. 술 취함은 깊이 뉘우쳐야 한다(마 24:49; 눅 11:45; 21:34; 고전 5:11-13; 6:10; 갈 5:21; 벧전 4:3; 롬 13:13-14).

III. 신학적인 통찰

가. 변증법적 긴장
1. 포도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술 취함은 중요한 문제이다.
3. 어떤 문화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믿는 자는 반드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마 15:1-20; 막 7:1-23; 고전 8-10; 롬 14:1-15:13).

나. 주어진 한계를 넘는 경향성
1.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다(창조는 "매우 좋은 것이다," 창 1:31).
2.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한계를 넘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남용해왔다.

다. 남용은 물질자체가 아니라 사용자인 우리에게 달려있다. 물질적인 창조 안에서 악한 것은 없다(참조, 막 7: 18-23; 롬 14:14, 20; 고전 10:25-26; 딤전 4:4; 딛 1:15).

IV. 1 세기의 유대 문화와 발효

가. 발효는 포도가 으깨어진 후 6 시간 정도 후에 바로 시작된다(특히 위생 처리가 안된 조건에서 더운 날씨에).

나. 유대전통은 표면에 거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발효의 표시), 그것은 포도주 십일조에 적당했다(*마아세로쓰* 1:7). 그것은 "새 술" 또는 "달콤한 술"이라 불렸다.

다. 첫 번째 격렬한 발효는 1 주일 후에 이루어진다.

라. 두 번째 발효는 40 일이 걸린다. 이 상태를 "숙성된 포도주"라고 간주하며 제단에 제사드릴 수 있다 (*엘휴요쓰* 6:1).

마. 포도주의 앙금(오래된 포도주)위에 있었던 포도주가 상품으로 여겨졌지만, 사용하기 전에 잘 걸러져야만 했다.
바. 보통 1 년 동안 발효된 포도주를 적당하게 오래된 것으로 생각했다. 3 년은 포도주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는 가장 긴 기간이었다. 이와 같은 포도주를 "오래된 포도주라 불렀고 이것은 반드시 물로 묽게 만들어야만 했다.
사. 오직 지난 100 년 동안 멸균 환경과 화학적 첨가제를 사용하므로 발효기간이 길어졌다. 고대에는 발효의 자연적 진행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V. 맺음말
가. 당신의 경험, 신학, 성경적인 해석이 예수님, 1 세기의 유대인, 그리고 혹은 기독교 문화를 깎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완전한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다.
나. 나는 알코올의 사회적인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을 지나치게 말해 왔다. 그리고 문화적/교파적 편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의를 주장해 왔다.
다. 로마서 14:1-15:13 과 고린도 전서 8-10 장 말씀은 나에게 통찰력을 주었고 안내서가 되었다. 즉, 개인적인 자유나 판단하는 비평이 아닌 모든 문화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료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했다. 만약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실행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 만약 우리가 전체적인 금욕을 하나님의 뜻으로 강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또한 포도주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대 문화(예 - 유럽,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2:4 "여자여" 이 말은 거칠게 느껴지지만 히브리식 표현으로써 존경의 호칭이다(참조, 4:21; 8:10; 1:26; 20:15).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뉴킹제임스역(NKJV) "당신의 염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
신개정표준역(NRSV) "당신에게와 나에게 무슨 걱정이 됩니까"
현대영어성경(TEV)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성경(NJB)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이까"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 문자적으로 "무엇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이다(참조. 사 11:12; 삼하 16:10; 19:22; 왕상 17:18; 왕하 3:13; 역대하 35:21; 마 8:29; 막 1:24; 5:7; 눅 4:35, 8:28; 요 2:4). 이것은 그의 가족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관계의 출발이 되었을 것이다(참조, 마 12:46 이하; 눅 11:27-28).

▣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된 목적에 대한 그 자신의 이해를 보여 준다 (참조, 막 10:45). 요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1) 때(참조, 1:39; 4:6, 52, 53; 11:9; 16:21; 19:14, 27) (2) 마지막 때(참조, 4:21, 23; 5:25, 28) (3) 그의 마지막 날들(체포, 재판, 죽음, 참조, 2:4; 7:30; 8:20; 12:23, 27; 13:1; 16:32; 17:1).

2:5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이 상황에서 그녀를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 전적으로 방해가 된다는 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2:6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유대인의 정결관습 때문에"
뉴킹제임스역(NKJV) "정결의 방법을 따라"
신개정표준역(NRSV)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문에"
현대영어성경(TEV) "유대인은 씻는 예식의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
신예루살렘성경(NJB) "유대인의 관습인 씻는 일을 위하여"

물을 담는 통들은 발, 손, 도구 등을 의식적으로 닦기 위해 사용되었다. 요한은 이방인들이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설명을 기록했다.

2:6-7 "돌항아리 여섯" 요한복음에서 자주 그러듯이,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1) 신랑, 신부를 돕기 위해 (2)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유대주의의 실현인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시였다. 두 번째 목적의 이유로는: (a) 숫자 "6"는 인간의 노력을 상징한다 (b) 아구까지 채우라는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히 포도주를 더 공급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인다 (c) 마을의 혼례잔치를 위해서는 지나치게 많은 포도주의 양 (d) 포도주는 새 시대의 풍부함의 상징이었다(참조, 렘 31:12; 호 2:22; 14:7; 욜 3:18; 암 9:12-14)는 점이다.

▣ **"두세 통 드는"** 사용된 도량법은 히브리어 용어인 *바쓰*였다. 예수님 시대에 세 가지의 *바쓰*의 용량이 사용되었다. 그것의 정확한 양은 알 수 없지만, 이 기적은 매우 많은 양의 포도주를 말한다.

2:8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연회장"
뉴킹제임스역(NKJV)	"잔치의 관리자"
신개정표준역(NRSV)	"청지기의 장"
현대영어성경(TEV)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예루살렘성경(NJB)	"잔치의 장"

이 사람은 (1) 잔치의 책임자인 명예로운 손님 또는 (2) 손님 맞는 일을 책임진 하인이다.

2:10 보통 가장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손님들이 취한 후에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 놓는다. 하지만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나중에 대접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옛날 약속과 예수님의 새 약속을 비교하는 듯하다(참조, 히브리서). 예수님의 성전 청결(참조, 2:13-25)은 이 진리를 상징하는 것 같다.

2:11 "이 첫 표적" 요한복음은 일곱 가지의 기적과 그것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적이 첫 번째의 것이다.

▣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영광(1:14 절의 주해를 보라)을 나타내심은 기적의 목적이었다.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이 기적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제자들의 처음 믿음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에 대한 계속적인 이해를 말한다. 손님들이 이 기적을 알았는지는 불확실 하다.

개역개정 2:12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2:12 "가버나움" 나사렛의 불신(참조, 눅 4:16-30)으로 갈릴리가 예수님의 근거지가 되었다(참조, 마 4:13; 막 1:21; 2:1; 눅 4:23, 31; 요 2:12; 4:46-47).

▣ 이것은 가나의 기적에서 본 예수님의 가족 사역에 관한 독특한 사건이다.

2:13-25 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몇 차례나 하셨는가에 대하여 신약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요한은 성전 청결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 사역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놓았다. 반면에 공관복음(마 21:12; 막 11:15, 눅 19:45)은 성전 청결을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마지막 주간 중에 있었던 일로 묘사한다. 두 개의 다른 기록에서, 한 번이 아닌 두 번의 성전 청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요한이 신학적 목적으로 예수님의 활동을 구성했을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 각 복음서 저자들은 감동아래서 예수님의 활동과 가르침을 선택, 채택, 구성, 요약하는 자유를 가졌다. 나는 그들이 예수님 자신의 말을 지어내거나 사건들을 만드는 자유가 있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복음서들은 현대식 자서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선택된 독자들을 목표로 한 전도용 책자이다. 복음서들은 연대기적이거나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만 기록한 것도 아니다(오히려 요약한 것임). 이것은 복음서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 동방의 문서는 서방의 것과 다른 문화적 기대를 반영한다.

나.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을 먼저 관계 하시는 성전 청결은 요한의 전체적인 신학적 목적에 부합한다. 3 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것을 볼 수 있다 (정통 유대주의). 그러나 4 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넓은 그룹(심지어 유대종파의 이교 그룹)과 관계하신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2:13-22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13 "유월절" 이 절기는 출애굽기 12 장과 신명기 16:1-6 에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날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단지 일 년 동안 사역하신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요한은 세 번의 유월절을 언급한다: (1) 2:13, 23 (2) 6:4 (3) 11:55; 12:1; 13:1; 18:28, 39; 19:14. 5:1 은 네 번째 유월절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 얼마 동안 이었는지 모르지만, 요한복음은 그 기간이 최소한 3 년, 4 년의 가능성, 심지어 5 년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를 유대 절기 주변 상황 안에서 구성했다(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은 항상 예루살렘을 지리학적 또는 지형학적 감각이 아닌 신학적인 감각으로 말했다.

2:14 "성전 안에서" 헤롯 대왕(팔레스타인을 주전 37-4 까지 치리했던 이두메 사람)의 성전은 7 개의 뜰로 나뉘었다. 바깥뜰은 이방인의 뜰이었다. 그곳에서는 제물을 바치기 원하고 특별한 제물을 가져 오기 원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 상인들이 상점을 차렸다.

▣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 두 가지의 설명이 필요하다: (1) 성전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오직 세겔이 이었다. 유대의 세겔은 오랫동안 주조가 그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대에는 성전에서 단지 두로의 세겔만 사용되었다 (2) 로마 황제의 형상이 있는 동전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다. 물론 동전을 바꾸려면 값을 지불해야만 했다!

▣ **"소와 양과 비둘기"**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제사로 받아들여지는 동물을 사야만 했다. 그러나 대 제사장의 가족이 이 상점들을 통제하고 동물의 값을 엄청나게 받았다. 만약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동물을 데려 오면, 제사장들은 그 동물들이 육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적당치 못하다고 말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인들에게 그들의 동물을 사야만 했다.

2: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이 기록에서 예수님의 분노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화 자체는 죄가 아니다! 에베소서 4:26 의 바울의 글은 이와 같은 행동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무엇이 있다.

2:16 "이것을 치워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으로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다.

▣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동의 정지를 의미하는 부정의 분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형이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 점에서 이사야 56:7 과 예레미야 7:11 을 인용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와 같은 구약의 예언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스가랴 14:21 이하의 메시아적 예언을 함축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2:17 "제자들이 기억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행동의 영적인 진리를 보았다는 뜻이다(참조, 22 절; 12:16; 14:26).

▣ **"이것은 기록 되었다 (한 것을–17 절)"** 이것은 완료형 수동태 완곡 표현으로, 문자적으로 "기록 되어 있다" 이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감동을 확신 하는 위한 독특한 방법이다. 이것은 시편 69:9 에서 인용한 것이다. 시편 22 편과 같이 이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합한다. 하나님과 진실한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열심은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뜻이었던 죽음으로 이끌었다 (참조, 사 53:4, 10; 눅 22:22; 행 2:23; 3:18; 4:28).

2:18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이런 일을 행하는 너의 권위로서 네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뉴킹제임스역(NKJV)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신개정표준역(NRSV)	"이것을 행할 무슨 표적을 네가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느냐"
현대영어성경(TEV)	"네가 이것을 행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기적이 무엇이냐"
신예루살렘성경(NJB)	"네가 이와 같이 해야만 한다면 네가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유대인이 예수님께 가져온 중심 되는 질문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마귀로 부터 왔다고 주장했다(참조, 8:48-49, 52; 10: 20). 그들은 메시아가 확실한 방법으로 확실한 것을 하기를 기대 했다. 예수님이 이러한 특별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 관하여 어리둥절해 하기 시작했다(참조, 막 11:28; 눅 20:2).

2:19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4 절과 15 절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 성전(*히에론*)은 성전이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반면에 19, 20, 21 절에 나오는 단어(*나오스*)는 성전안의 지성소를 가리킨다. 이 구절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분명한 것은 마 26:60 이하; 막 14:57-59; 행 6:14 에서 이 구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그것이 주후 70 년에 티투스에 의하여 파괴된 성전 그 자체와 어쨌든 관계가 있다(참조, 마 24:1-2). 이 구절은 예수님이 고대 유대주의가 아닌 그 자신에게 초점을 둔 새로운 영적 예배를 세우신 진리와 관계가 있다(참조, 4:21-24).

2:20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헤롯대왕은 유대인을 회유하기 위해 두 번째의 성전을 확장하고 개조했다(스룹바벨의 때부터, 참조, 학개서). 요세푸스는 이것이 주전 20 년 또는 19 년에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특별한 사건은 주후 27-28 년에 생긴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이 성전의 공사가 주후 64 년까지 계속된 것을 알고 있다. 이 성전은 유대인의 큰 소망이 되었다(참조, 렘 7).

2: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것에 대하여 깨닫지 못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참조, 17 절).

예수님은 그가 오신 이유를 아셨다. 적어도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 (1)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2) 참된 인성의 모범을 세우기 위해; (3) 많은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주려고. 이 구절은 마지막 목적을 말하고 있다.

2:22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자주 그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을 주었다. 그때에 제자들이 항상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개역개정 2:23-25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2:23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믿었다"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피스테오)에서 왔다. 그것은 "믿다," "믿음," "신뢰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요한복음에서 명사형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동사형은 자주 사용되었다. 이 문맥에서 군중들이 실제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와 같이 피상적인 믿음으로 사용된 단어 "믿다"의 예는 요한복음 8:31-59 와 사도행전 8:13, 18-24 에 있다. 참된 성경적인 믿음은 처음에 나타내는 반응 그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제자가 되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참조, 마 13:20-22, 31-32).

분명한 것은 이런 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기적에 의하여 이끌렸다(참조 2:11; 7:31).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을 인정했다. 하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일로 인한 믿음은 그것을 지탱하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참조, 4:38; 20:29). 믿음의 주체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한다(참조, 20, 30-31). 기적은 하나님의 자동적인 표적이 아니다(참조, 마 24:24; 계 13:13 16:14:19:20).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2:23; 6:14; 7:31;10:42); 사람들은 자주 표적을 보았지만 믿기를 거부했다(참조, 6:27; 11:47; 13:37).

특별주제: 동사 "믿다"에 대한 요한의 사용(명사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요한은 많은 경우에 "믿다"라는 단어를 전치사와 더불어 사용했다.

1. *에이스*는 "안으로"란 뜻이다. 이것은 그의 믿음/신뢰를 예수님 안에 두는 믿는 자를 강조하는 독특한 구성이다.

ㄱ. 그의 이름 안으로(요 1:12; 2:23; 3:18; 요일 5:13)
ㄴ. 그 안으로(요 2:11; 3:15, 18; 4:39; 6:40; 7:5, 31, 39, 48; 8:30; 9:36; 10:42; 11:45, 48; 12:37, 42)
ㄷ. 내 안으로(요 6:35; 7:38; 11:25, 26; 12:44, 46; 14:1, 12; 16:9; 17:20)
ㄹ. 그가 보낸 자 안으로(요 6:28-29)
ㅁ. 그 아들 안으로(요 3:36; 9:35; 요일 5:10)
ㅂ. 예수 안으로(요 12:11)
ㅅ. 빛 안으로(요 12:36)
ㅇ. 하나님 안으로(요 12:44; 14:1)

2. 요한복음 3:15(막 1:15)의 *엔*은 "안에"라는 의미이다.
3. 전치사가 없는 여격(요일 3:23; 4:50; 5:10)
4. "그것을 믿다"의 의미인 *호티*는 무엇을 믿는가를 말한다. 예를 들면,

ㄱ.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6:69)
ㄴ. 예수님은 내가 그이다(8:24)
ㄷ. 아버지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 안에 있는 아버지(10:38)
ㄹ. 예수님은 그리스도라(11:27; 20:31)
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11:27; 20:31)
ㅂ.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 보내졌다(11:42; 17:8, 21)
ㅅ.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다(14:10-11)
ㅇ. 예수님은 아버지로 부터 왔다(16:27, 30)
ㅈ.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아버지의 언약의 이름과 그 자신을 동일시했다(8:24; 13:19)

성경적인 믿음은 사람과 메시지 이 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은 순종, 사랑, 인내에 의하여 증명된다.

2:24-25 이것은 헬라어에서 한 문장이다. 중요한 단어인 "의탁하다"는 문맥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과 태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처음의 동의나 감정적인 반응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또한 인간 마음속에 있는 변덕과 악함에 대하여 예수님의 아심을 단언한다. 이 구절은 3 장의 니고데모에 의하여 예증 됐다. 심지어 "종교 적인 사람"이라도 그 자신의 노력, 지식, 위치, 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혈통으로 불가능하다. 의로움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온다(참조, 롬 1:16-17; 4).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님은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2. 예수님 시대의 결혼 관습을 설명해 보라.
3. 헤롯 성전의 평면도를 그릴 수 있는가? 성전에서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있었을 장소를 말할 수 있는가?
4. 왜 공관복음은 처음의 성전청결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았는가?
5. 예수님은 헤롯 성전의 파괴를 내다 보셨는가?
6. "신뢰하다," "믿다," "믿음"으로 해석되는 헬라어 단어를 정의하고 설명하라.

요한복음 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님과 니고데모	새로 태어남	예수님과 유대 관리	예수님과 니고데모	니고데모와의 대화
3:1-15	3:1-21	3:1-10	3:1-2	3:1-8
			3:3	
			3:4	
			3:5-8	
			3:9	3:9-21
			3:10-13	
		3:11-15		
			3:14-17	
3:16-21		3:16		
		3:17-21		
			3:18-21	
예수님과 침례(세례)요한	침례(세례)요한이 그리스도를 높이다	요한의 이어지는 간증	예수님과 요한	요한이 처음으로 증거하다
3:22-30	3:22-36	3:22-24	3:22-24	3:22-24
		3:25-30	3:25-26	3:25-36
			3:25-30	
하늘로 부터 온 자			하늘로 부터 온 자	
3:31-36		3:31-36	3:31-36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 ### 개역개정 3:1-3
>
> [1]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1 "바리새인" 이 정치적/종교적 파벌의 뿌리는 마카비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이름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들은 구전(탈무드)으로 정의되고 설명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성실하고 헌신되었다. 1:24 절의 설명을 보라.

▣ **"니고데모"**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 "사람들의 정복자"(참조 7:50; 19:39)란 의미인 헬라어 이름(빌립과 안드레가 그랬듯이, 참조 1:40, 43)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유대인의 관원"
신개정표준역(NRSV), 예루살렘성경(NJB)	"유대인의 지도자"
현대영어성경(TEV)	"유대인 지도자"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70 인의 산헤드린 구성원을 위한 전문적인 용어이었다. 이것의 권위는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제한되어 왔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래도 대단히 상징적인 중대성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이 니고데모를 1 세기의 정통 유대주의의 대표로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영적으로 명성을 얻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을 준수하는 것(심지어 좋은 법이라도)이나 인종적 배경으로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 시민권을 확정한다. 성실함이나 인간의 열성적인 신앙심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영접하심에 이르는 문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터 온 선생으로 안 니고데모의 깨달음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개인적으로 유일하게 궁극적으로 신뢰하는 것만이 타락한 인간의 소망이다!

3:2 "밤에" 랍비들은 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으므로 율법을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이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아마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는 밤에 예수님께 온 것 같다. 니고데모의 영혼이 어두운 밤을 의미하고 있다는 가정은 추측이다.

▣ **"랍비"**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선생"을 의미한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이 되었던 것들 중 하나는 예수님이 랍비 학파 중 어느 하나의 출신도 아니었다는 점이다.

▣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 문장의 처음에 놓여 있다. 이것은 아마 신명기 18:15, 18 의 예언을 암시 할 수도 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의 능력을 인식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것은 가능하고 있음직한 실제를 의미하는 조건절의 제 3 유형 이다.

3:3, 5, 11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멘, 아멘"이다. 이것은 구약의 단어 "믿음"에서 왔다. 이것의 어근은 "단단한" 또는 "확실한"이다. 예수님은 중대한 문장의 처음에 그것을 사용하셨다. 나중에 이것은 진실된 진술을 확언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문장의 처음에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요한복음의 독특한 면이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아멘"이란 단어의 반복은 대화의 단계를 밝혀준다..

3:3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3:2 에 있는 니고데모의 고백과 같은 조건절의 제 3 유형 이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현대영어성경(TEV)	"거듭난"
신개정표준역(NRSV), 신예루살렘성경(NJB)	"위로부터 난"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태 가정법이다. *아노쎈*이란 단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1) "육체적으로 두 번째 태어난" (2) "태어난 때부터" (참조, 행 26:5) 또는 (3) 이 문맥에 어울리는 뜻인 "위로부터 난" (참조 3:7, 31; 19:11). 이것은 아마 요한이 의미가 둘 다 맞는 이중 의미(두 가지 뜻의 어구)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일 것이다(참조

바우어 *헬라어 사전*, 77 쪽). 4 절에서 분명해지듯이, 니고데모는 그것을 (1) 번의 뜻으로 이해했다. 요한과 베드로(참조, 벧전 1:23)는 바울이 '양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처럼 구원을 위해 가정에 대한 은유를 사용한다. 초점은 자식을 갖는 아버지의 행동에 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행동이다(참조, 1:12-13).

▣ **"볼 수 없느니라"** 이 관용어구는 5 절의 "들어갈 수 없느니라"와 평행이 된다.

▣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두 번만 사용되었다(참조, 5 절). 이것은 공관복음에서 핵심이 되는 말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와 마지막 설교, 그리고 대부분의 그의 비유에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지금 인간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요한이 이 말을 단지 두 번만 사용하는 것은 놀랍다(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음). 요한복음의 핵심되는 단어와 은유는 "영생"이다.

이 구절은 예수님 가르침의 종말론적(마지막 때) 목적과 관계가 있다. 신학적 역설인 "이미, 그러나 아직"은 두 시대의 유대적 개념과 관계가 있다. 두 시대는 현재의 악한 시대와 메시아에 의해 막이 열릴 의의 시대를 말한다. 유대인은 오로지 군사적 권한이 주어진 영적 지도자로 오는 사람을 기대했다(구약속의 사사 같은). 예수님의 두 가지 오심은 두 시대가 겹쳐지도록 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성육신으로써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 왔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시록 19 장에 나오는 군사적 정복자로서 오시지 않았다. 그는 고난 받는 종(참조, 사 53)으로 그리고 겸손한 지도자(참조, 슥 9:9)로 오셨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시작되었지만(참조, 마 3:2; 4:17; 10:7; 11:12; 12:28; 막 1:15; 눅 9:9, 11; 11:20; 21:31-32) 완성된 것은 아니다(참조, 6:10; 16:28; 26:64).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두 시대 사이에서 긴장을 가지고 산다. 그들은 부활의 생명을 가졌지만, 육체적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죄의 속박으로 부터 자유하지만, 계속 죄를 범한다. 그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인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산다!

> 요한복음에 대한 이미 그러나 아직인 긴장의 유용한 표현은 프랭크 스태그의 *신약 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요한복음은 다가올 미래에 관한 강조(14:3,18 이하, 28; 16:16, 22)이고 그것은 부활과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 심판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한다(5:28 이하; 6:39 이하, 44, 54; 11:25; 12: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복음서 전체에는 영생, 심판, 부활이 실체로 드러난다(3:18 이하; 4:23; 5:25; 6:54; 11:23 이하; 12:28, 31; 13:31 이하; 14:17; 17:26)" (311 쪽).

개역개정 3:4-8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3:5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의 또 다른 예이다. 둘 사이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다 (1)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영"에 관사가 없다) (2) 세상적인 것과 하늘의 것. 이 대조는 6 절에 설명되어 있다. "물"을 의미하는 이론은: (1) 랍비들은 남성 정액에 대해 그것을 사용한다 (2) 아이의 탄생과 관계된 물 (3) 회개의 상징인 요한의 침례(세례) (참조, 1:26; 3:23) (4) 성령에 의한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뿌림의 의식(참조, 겔 36:25-27) (5) 기독교인의 침례(세례)−(비록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문맥 안에서 (3) 번의 이론이—요한의 물 침례(세례)와 성령으로 주시는 메시아의 침례(세례)에 관한 요한의 진술—가장 명백한 의미임이 틀림없다. 문맥 안에서 태어남은 은유적이며 우리는 니고데모의 단어에 대한 오해가 해석을 주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1) 번의 이론은 적당하지 않다. 비록 니고데모는 나중의 기독교인의 침례(세례)를 가리키는 말로써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사도 요한은 종종 그의 이론을 예수님의 역사적인 말씀 속으로 삽입하였다(참조, 14-21 이하). (2) 번의 이론은 위와 아래,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에 대한 요한의 이원론에 부합한다. 이 용어들을 정의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대립되는지[(1) 번 또는 (2)번] 아니면 보완하는지 [(4) 번]를 반드시 결정해야만 한다.

3:6 이것은 요한복음(참조, 11 절)에서 자주 나오는 또 한 번의 수직적인 이원론이다(위와 아래).

3:7 "너에게…네가" 첫 번째의 것은 니고데모를 일컫는 단수형이지만, 두 번째의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복수형이다 (11 절에서도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혈통적인 출신을 신뢰하는 유대인적 성향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는다(참조, 4:12; 8:53). 영지주의를 대항하여 1 세기 말엽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유대 혈통 우월감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3:8 여기에는 히브리어(그리고 아람어) 단어(*루아크*)와 "바람"과 "영"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프뉴마*)의 역할이 있다. 성령이 그러하듯이 바람은 자유롭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람이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의 영향은 안다;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구원은 그가 조절할 수 없지만, 성령이 조절하신다(참조, 겔 37). 또한 5-7 절이 같은 진리를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구원은 성령(참조, 6:44, 65)의 시작하심과 사람의 반응인 믿음/회개와의 결합체이다(참조, 1:12; 3:16, 18).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성령의 인성과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참조, 14:17, 25-26; 16:7-15). 요한은 의의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시대로 본다.

개역개정 3:9-15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9-10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상징적인 용어를 두 가지 관점: (1) 유대주의의 개종자 침례(세례)와 (2) 침례(세례)요한의 설교에서 이해해야만 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을 일부러 무시하려는 것일 수 있다; 심지어 유대 관리인 니고데모와 같은 누구라도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지혜를 구원의 도구로 강조하는 이단인 초기 영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쓰였다.

3:11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복수 대명사는 예수님과 사도 요한(참조, 11 절) 또는 예수님과성부를 가리키는데, 후자가 문맥적으로 더 타당하다(12 절).

▣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한은 종종 받아들이다/받다(*람바노*)란 단어와 신학적 감각안에서 그것의 전치사적 합성어를 사용했다.

1. 예수님을 영접하는
   ㄱ. 부정적으로(1:11; 3:32; 5:47)
   ㄴ. 긍정적으로(1:12; 3:11, 33; 5:43; 13:20)
2. 성령을 영접하는
   ㄱ. 부정적으로(14:17)
   ㄴ. 긍정적으로(7:39)
3.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ㄱ. 부정적으로(12:48)
   ㄴ. 긍정적으로(17:8)

1:8 에 대한 특별 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3:12 "만약…만약" 첫 번째의 것은 저자의 관점이나 그의 글의 목적을 위해 진실이라고 생각되는 조건절의 제 1 유형이다. 두 번째의 것은 가능하고, 심지어 때로는 일어남직한 행동을 의미하는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 **"너희"** 이 대명사와 동사는 복수형이다. 니고데모는 제자들이나 또는 다른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었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7 절과 11 절과 같이 모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일반적인 진술일 수 있다.

3:13 이 절은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가 참이고,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독특함을 확실히 하려고 했다(참조, 1:1-14). 이것은 요한의 수직적인 이원론의 또 다른 예이다: 천국과 땅, 육체와 영, 니고데모의 근본과 예수님의 근본.

▣ **"인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호칭이다; 이것은 1 세기의 민족적, 군사적, 메시아적 의미를 갖지 않았다. 이 단어는 "인간"을 의미하는 에스겔 2:1 과 시편 8:4, 신성을 의미하는 다니엘 7:13 으로 부터 왔다. 이 단어는 예수님의 완전한 하나님 되심과 완전한 인간되심을 역설적으로 결합한다(참조, 요일 4:1-3).

3:14-21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어디서 끝났는지 사도 요한의 부가적인 설명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확실히 아는 것은 어렵다. 14-21 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14-15 절은 예수님과 (2) 16-17 절은 아버지와 (3) 18-21 절은 사람과 관계있다.

3:14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 동안 심판의 경험을 설명하는 신명기 21:4-9 에서 인용한 것이다. 중심적인 진리는 인간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믿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에게 물리는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주셨다. 이 믿음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약속에 순종하는 증거이다.

▣ **"들린"** 이것은 자주 "지극히 높이다"로 번역되었다(참조, 행 2:33; 5:31; 빌 2:9). 이것은 요한이 두 감각(두 가지 뜻의 어구, 참조,1:5; 3:3, 8) 안에서 사용한 또 다른 용어이다.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믿고 구리 뱀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뱀이 무는 것으로 인한 죽음에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역시 악한 뱀(마귀, 죄)의 무는 것에서 구해질 것이다.

3:15-18 "자마다"(15 절) "자마다"(16 절) "자는"(18 절)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초대이다(참조, 사 55:1-3; 겔 18:23, 32; 딤전 2:4; 벧후 3:9).

3:15 "믿다" 이것은 현재 수동태 분사이다. 믿음은 계속되는 신뢰이다. 1:7 과 1:12 의 설명과 2:3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를"**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사실(신학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그와의 개인적인 관계도 의미한다. 구원은 메시지가 믿어지는 것이고 그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의 문법적 형태는 일반적이지 않다. 전치사 *en* 과 함께 있는 이 대명사는 요한복음에서 오직 여기에서만 발견된다; 보통 전치사 *eis* 와 함께 사용된다. 이것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와 반드시 관계가 있을 수 있다(참조, *쉬운 영어로 쓴 신약 성경* 헤롤드 그린리 저).

3:15, 16 "영생" 이 헬라어 용어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마태복음 25:46 에서는 같은 단어가 영원한 분리로 사용되었다. 요한복음에서 *zoē* 는 일반적으로 부활, 종말론적인 생명, 또는 새 시대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영생"을 강조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이며 목표이다.

개역개정 3:16-21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3:16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과거에 완료된 행동(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을 말하는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동사인 "주었다"와 마찬가지로)이다. 16-17 절은 아버지의 사랑을 중요하게 다룬다. "사랑하다"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이다. 이것은 고전적인 헬라어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초대 교회는 그것을 취하고 특별한 의미를 불어 넣었다. 어떤 문맥에서는 그것은 아버지의 또는 아들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사랑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3:19; 12:43; 요일 2:15).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구약의 *헤세드*와 동의어이다. 요한의 시대에 코이네 헬라어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동의어이다(3:35 와 5:20 을 비교하라).

해석가는 반드시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신인동형)의 모습을 가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거룩한, 유일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를 묘사하기 위한 시도안에서 우리의 세계, 우리의 느낌, 우리의 역사적인 관점을 묘사하는 단어를 사용해야만 한다. 인간의 모든 어휘는 어느정도 유사성을 갖거나 은유적이다. 드러난 것이 확실한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궁극적이지는 않다. 타락하고, 일시적이며, 유한한 인간은 궁극적인 실체를 잡을 수 없다. 2:23 의 특별주제: "믿다"에 대한 요한의 사용을 보라

▣ **"이처럼"**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이다. 이것은 감정적이 아닌 방법적인 표현이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참조, 롬 5:8)을 나타내셨다. 그것은 인간을 위해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참조, 사 53; 롬 3:25; 고후 5:21; 요일 2:2) 주는 것(16 절)과 보내는 것(17 절)이었다[둘 다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 **"세상"** 요한은 헬라어 단어 *코스모스*를 여러 가지 감각으로 사용했다(1:10 의 설명을 보라).

이 절은 또한 영(하나님)과 물질의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을 반대한다. 헬라인들은 물질을 악한 것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들에게 물질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신적인 불꽃을 가두어 두는 감옥이다. 요한은 물질이나 육체를 악하다고 간주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세상(지구, 참조, 롬 8:18-22)과 인간(육체, 참조, 롬 8:23).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의적인 다의성(두가지 뜻의 어구)의 또 다른 예이다(참조, 1:5; 3:3, 8).

▣ **"독생자"** "유일하면서 하나"이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생각에서 "독생한"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1) 성적인 감각 또는 (2) 다른 아이들이 없었다는 생각이다. 거기에는 예수님 처럼 정말 다른 아이들이 없었다. 1:14 에 있는 자세한 설명을 보라.

▣ **"그를 믿는 자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과 계속되는 믿음을 강조하는 현재형 능동태 분사이다. 이 확언은 강조하기 위해 15 절 부터 반복된다. "자마다"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지나친 강조를 하지않는 균형을 가져야만 한다(인종적, 지성적, 또는 신학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의지"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둘 다 진리이다! 하나님은 항상 반응을 시작하시고 대리자(참조, 6:44, 65)를 세우시지만, 그는 언약을 따라 사람과 그의 관계를 만들어 오셨다. 사람들은 반드시 그의 제시와 조건에 반응하고 계속해서 반응해야 만 한다!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멸망하지 않고"** 이것이 함축하는 것은 어떤사람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뜻이다(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 그들의 멸망은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부족한 믿음의 반응과 직접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을 야기하거나, 지도하거나, 또는 원하지도 않는다(참조, 겔 18:23, 32; 딤전 2:4; 벧후 3:9).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했고, 악한 자의 전멸을 주장했다. 이것은 다니엘 12:2 와 마태복음 25:46 과 대조될 것이다. 이것은 동방의 높은 수식적인 문학을 서방의 해석적인 형식(문학적인 것과 논리적인 것)안으로 강요하는 신실한 신앙인의 좋은 예이다. 이 단어의 좋은 토론을 위해 로버트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들*, 274-277 쪽을 보라.

3:17 "세상을 심판하려" 예수님은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단언하는 많은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있다(참조, 3:17-21; 8:15; 12:47).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오셨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있다(참조, 5:22-23, 27; 9:39; 그리고 신약의 다른 부분들, 행 10:42; 17:31; 딤후 4:1; 벧전 4:5).

여러 가지 신학적인 설명들을 순서적으로 하면: (1)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는 표시로 창조와 구속을 그에게 주셨듯이 심판도 주셨다(참조, 5:23) (2) 예수님은 처음에 심판자가 아닌 구원자로 오셨지만(참조, 3:17), 사람들이 그를 배척한 사실에 의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심판할 것이다 (3) 예수님은 왕중의 왕으로 그리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다(참조, 9:39).

이렇게 표면적으로 대조되는 진술은 침례(세례)요한이 엘리야이며 또는 엘리야가 아닌 것에 대한 진술과 비슷하다.

3:18 이 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자유와 자기 스스로 취하는 심판에 대한 주제를 반복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신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보낸다. 믿음은 계속되는 결과("믿는," 현재 능동태 분사)이고 불신도 마찬가지이다("심판을 받은," 완료형 수동태 직설법과 "믿지 아니하는," 완료형 능동태 직설법).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3:19-21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지성적으로나 문화적 이유가 아닌 주로 도덕적 이유로 그것을 거부한다(참조, 욥 24:13). 빛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의 메시지, 인간의 필요, 그리스도의 공급, 요구되는 반응을 의미한다. 이것은 1:1-18 에서부터 되풀이 되는 주제이다.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구원과 마찬가지로 정죄는 둘 다 현재의 실체(참조, 3:19; 9:39)이고 미래의 완성이다(참조, 5:27-29; 12:31, 48). 믿는 자는 이미(인식된 종말) 그러나 아직(완성된 종말)안에서 산다.

3:21 "진리를 따르는" "빛"(참조, 19, 20[두 번], 21)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용이므로, "진리"도 대문자로 표기되어야만 한다. *헬라어 신약 성경을 위한 문법적인 도움*에서 로버트 한나는 *신약의 문법적인 통찰*의 "진리의 제자인 사람"을 번역한 터너의 말을 인용했다(144 쪽).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2. 5 절에서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믿다”(구원의 믿음)은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
4. 요한복음 3:16 은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인가?
5. 캘빈주의는 요한복음 3:16 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6. “멸망”은 전멸을 의미하는가?
7. “빛”을 정의하라.

22-36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한 요한의 강조는 요한복음서의 처음부터 대화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전달 되었다. 3 장에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계속된다.

나. 1 세기 말에 쓰인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들이 쓰여진 이후에 생긴 질문들을 다루고 있다. 그것들 중 하나는 침례(세례)요한과 연결된 큰 무리의 초기 이단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점이다. 1:6-8, 19-36 에서 침례(세례)요한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자신의 낮은 관계를 확언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거한 것은 매우 중대하다 (참조, 행 18:24-19:7).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3:22-24

[22]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3:22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와 갈릴리 두 지방에서의 초기 사역은 공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다.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연대기적 자서전은 아니다.

▣ **“그는 그들과 거기 함께 유하시며”**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설교하셨지만 그의 제자들과는 폭넓게 대화하셨다. 그는 그 자신을 그들에게 쏟아 부었다. 이 방법론은 로버트 콜만의 두 훌륭한 책의 초점이다, *전도의 종합 기본 계획*과 *제자훈련의 종합기본 계획*이다. 이 둘은 모두 작은 그룹에 개인적으로 관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한다.

▣ **“세례를 베푸시더라”** 우리는 4:2 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침례(세례)를 주지 않고 제자들이 준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침례(세례)요한의 메시지와 매우 비슷했다. 이것은 회개와 예비에 대한 구약의 메시지였다. 여기의 침례(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침례(세례)가 아니지만 회개와 영적 수용성을 상징하는 침례(세례)이다.

3: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이 장소의 위치는 불확실하다: (1)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요단강 건너편의 베레아 지역이었다고 믿는다 (2)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사마리아의 북동쪽이었다고 믿는다 (3) 어떤 사람들은 그곳을 세겜시에서 3 마일 떨어진 곳으로 믿는다. “*애논*”이 “시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 번이 가장 타당하다. 확실한 위치가 어디든 간에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서 일하셨고 요한은 예수님보다 좀 더 북쪽 어디에선가 일했다.

3: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시점에서 역사적인 사실을 첨가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어떤 사람은 그것은 요한복음의 연대와 공관복음(참조, 마 14:1-12; 막 6:140-29)의 연대를 일치 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한다. 이 만남은 그리스도 생애의 연대를 추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역개정 3:25-30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25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변론이 되었더니" 이것은 "말다툼" 또는 "대항"의 강한 의미이다. 어떤 헬라어 사본들에는 복수형인 "유대인들"로 되어 있다. 둘 다 고대 헬라어 사본의 지지를 받는다. 단수형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원본일 것이다. 고대 서기관들은 본문을 조화시키고 매끄럽게 하는 경향을 가졌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논쟁을 선동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현대영어성경(TEV), 신개정표준역(NRSV)	"정결예식에 관하여"
예루살렘성경(NJB)	"예식적인 씻음의 문제"

이 논쟁의 초점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론이 있다: (1) 요한을 따르던 자들은 요한의 침례(세례)와 예수님의 침례(세례)를 씻음에 관계된 유대 전통과 연관 지어서 논쟁하고 있다; 같은 단어가 2:6 에서 사용되고 있다. (2)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의 생애와 사역이 유대주의를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가르치고 있는 직접적인 문맥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ㄱ) 2:1-12, 가나의 혼례 (ㄴ) 2:13-22, 성전 청결 (ㄷ) 3:1-21, 유대인의 관리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ㄹ) 3:22-36, 유대인의 씻는 예식과, 침례(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침례(세례). 이 문맥이 이와 같은 특수한 논쟁을 특별하게 확대하지 않은 사실은 이것이 침례(세례)요한에게 나사렛 예수의 우월성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한 다른 기회를 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3:26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양(참조, 1:19-36)에 관한 요한의 이전의 증거를 기억했고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성공에 대하여 약간은 부러워했다. 예수님 또한 어떤 경쟁심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 하셨다(참조, 4:1).

3:27 "만일 하늘에서 그에게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매우 직접적인 확언이다.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바"(it)와 "그에게"(him)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1) 어떤 사람은 "그에게"는 믿는 자를 의미하고 "바"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에게 오는 자를 의미한다고 말한다(참조, 요 6:44, 65) (2) 다른 사람은 "그에게"는 예수님을 그리고 "바"는 믿는 자를 의미한다고 믿는다(참조, 요 6:39; 10:29; 17:2, 9, 11, 24).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주신"이란 단어가 믿는 자 각자의 구원을 의미하거나, 혹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이다(참조, 17:2).

3:28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침례(세례)요한은 1:20 과 마찬가지로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선구자라고 명확하게 확증한다. 이것은 이사야 40 장과 부합되는 말라기 3:1; 4:5-6 의 예언적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다(참조, 요 1:23).

3: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묘사하는결혼에 대한 은유가 많이 언급되어 있다(참조, 사 54:5; 62:4, 5; 렘 2:2; 3:20; 겔 16:8; 23:4; 호 2:21). 바울은 심지어 에베소서 5:22 이하에서 그것을 사용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언약 관계의 가장 좋은 현대적인 예이다.

▣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경쟁적인 영을 가지는 대신에 침례(세례)요한은 확실하게 그의 위치를 인식했고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다.

3: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하여야"란 단어가 중요하다. 이것은 이미 3:14 와 4:4 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자신 보다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단순한 선구자로서 자신을 이해한 요한의 강한 확언이다.

개역개정 3:31-36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31-36 이 절들에 대하여 주석가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많은 논란이 있다 (1) 침례(세례)요한의 구두적인 확언 (2) 예수님의 말씀(참조, 3:11-12) (3) 사도 요한의 말. 이 절들은 16-21 절의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

3:31 "위로부터 오시는 이" 메시아를 위한 두 호칭이 그의 선재하심과 완전한 신성(참조, 31 절)을, 그리고 그의 인성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중대하다(참조, 34 절). "위로부터"란 단어는 3 절의 "거듭난" 또는 "위로부터 난"에서 사용된 단어와 같다.

위와 아래,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세상적인 영역을 말하는 이원론은 요한의 특징이다. 이것은 사해사본의 종말론적 이원론과는 다르다. 이것은 또한 영과 물질의 영지주의 이원론과도 다르다. 요한복음에서 창조 그 자체와 인간의 육체는 악이나 죄에 있지도 않고 또한 악이나 죄도 아니다.

▣ **"모두 위로부터"(above all–두 번 사용)** 이 절의 앞부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신성과 선재하심 (참조, 1:1-18; 3:11-12)을 암시한다. 뒷부분은 그는 하나님의 창조를 넘어선다는 것을 확증한다. 헬라어 본문에서 "모두"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남성인지 또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중성인지 확실하지 않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땅에 속한 그는 땅으로부터 와서 땅의 것을 말한다"**
뉴킹제임스역(NKJV)	**"땅에 속한 그는 세상적이고 땅의 것을 말한다"**
신개정표준역(NRSV)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였고 땅의 것들에 관하여 말한다"**
현대영어성경(TEV)	**"땅에서 온 그는 땅에 속하였고 땅의 것들에 관하여 말한다"**
신예루살렘성경(NJB)	**"땅에 속한 자는 그 자신이 땅의 것이고 땅의 방법으로 말한다"**

이것은 요한에 관한 부정적인 진술이 아니다. 여기에서 땅을 말하는 이 단어는(*게*, 12:32; 17:4; 요일 5:8; 계시록에서 76 번 나옴) 요한이 부정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세상"(*코스모스*)이란 단어와 다르다. 모든 인간이 그들이 아는 땅에 대하여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아는 하늘에 대하여 말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은 어떤 땅의 선지자나 설교가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3: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 절에서 동사의 시제가 하는 역할을 살펴보면: (1) "본(seen)"은 완료형 시제이다 (2) "들은"은 부정과거형 시제이다 (3) "증거하다"는 현재형 시제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시다(참조, 고전 8:6; 골 1:13-20; 히 1:2-3). 그는 (1) 성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과 (2) 그 자신의 신성을 말한다.

▣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동양적인 표현으로서 과장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23-26 절은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왔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지금 당면한 문맥에 대해서가 아니라 유대주의 전체를 의미한다.

3:33 "자는(He who)"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방해물도 없다;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고 믿어야 한다(참조, 막 1:15; 행 20:21), 하지만 그 초청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참조, 1:12; 3:16-18; 겔 18:23, 32; 딤전 2:4; 벧후 3:9).

▣ **"그의 증언을 받는"** 33 절은 부정과거형 분사이다. 반면에 36 절은 현재형 분사이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처음에 하는 결심일 뿐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말한다. 영접해야 하는 동일한 확언은 1:12 와 3:16-18 두 곳에서 이미 진술 되었다. 증언을 받고(33 절)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걷는 것(36 절)에 대한 이분법을 주목하라. "믿음"이란 단어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임"이란 단어는 신약에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받고 그 안에서 걷는 것 (2) 복음 속에 포함된 진리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참조, 유 3, 20).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하나님이 참이시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 인쳤느니라"**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하나님이 참이시다는 것을 보증하였느니라"**
현대영어성경(TEV)	**"이것으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확인하느니라"**
신예루살렘성경(NJB)	**"하나님이 참이시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있느니라"**

믿는 자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신뢰를 그리스도께 두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자신, 세상,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가 참임을 확언한다(참조, 롬 3:4).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3:33; 7:28; 8:26; 17:3; 요일 5:20).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진리이시다(참조, 3:7, 14; 19:11).

3: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34 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두 개의 평행되는 구절이 있다: (1)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2) 그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가지고 있다.

▣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여기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을 믿는다 (1)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참조, 4:10-14; 7:37-39) (2) 성령의 충만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참조 35 절). 랍비들은 "분량"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감동하시는 것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랍비들은 어떤 선지자도 성령의 완전한 분량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다(참조, 히 1:1-2).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시다.

3: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확언은 5:20 과 17:23-26 에서 반복된다.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초한다. 이 문맥에서 왜 인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신뢰해야만 하는지 기록한 많은 이유들을 주목하라: (1) 그가 위로부터 오셨고 모든 다른 것들 위에 계시기 때문에(31 절) (2) 그는 구속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기 때문에(34 절) (3)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 충만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34 절) (4)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5)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두셨기 때문이다(35 절).

▣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이것은 완료형 능동태 직설법이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있는 구절이며 여러 개의 평행구를 가지고 있다(참조, 요 13:3; 17:2; 마 11:27; 28:18; 엡 1:20-22; 골 3:10; 벧전 3:22).

3:36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뉴킹제임스역(NKJV)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것이다"
신개정표준역(NRSV)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현대영어성경(TEV)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이 없을 것이다"
신예루살렘성경(NJB)	"아들을 믿는 누구나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생명을 볼 수 없다"

여기의 동사들은 모두 계속되는 행동을 말하는 현재형 능동태이다. 믿음은 그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감정적으로 고조됨과 관계없이 단회적인 결심 이상의 것이다(참조, 마 13:20).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참조, 요 12:44-50 과 요일 5:10). 구원은 오로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통해 온다.

이 절에서 "믿다"와 "순종하다"가 대조되는 것은 흥미롭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받아드리는 사람과 진리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도 뜻한다(참조, 눅 6:46; 엡 2:8-10).

▣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곳은 요한의 글(계시록에서의 5 번을 제외하고)에서 "진노"(*올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는 곳이다. 이 개념은 일반적이고 항상 "심판"이라는 단어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현재형 능동태 직설법이다. "믿음," "순종," "진노"는 미래에 완성될 계속적인 현재의 실체이다. "이미" 와 "아직" 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여기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성경의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로마서 1:18-3:20 을 읽으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님의 초기 메시지는 침례(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어떻게 유사한가?
2. 이 침례(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침례(세례)와 같은가?
3. 요한복음의 앞쪽에 있는 장들에서 침례(세례)요한의 말이 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가?
4. 저자 요한이 침례(세례)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대조의 횟수와 종류를 설명하라.
5. 33 절의 "받다"란 단어는 36 절의 "믿다"란 단어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36 절의 "불순종하는"이란 단어는 이 논쟁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6. 왜 사람들이 구원의 단 한 가지 소망으로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지 언급된 이유들을 열거하라 (31-36 절)
7. 36 절에서 "진노하다"라는 동사는 왜 현재형 시제로 사용되었는지 설명하라.

요한복음 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다	예수님과 사마리아인들	예수님과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
4:1-6	4:1-26	4:1-6	4:1-4	4:1-10
			4:5-6	
4:7-15		4:7-15	4:7-8	
			4:9	
			4:10	
			4:11-12	4:11-14
			4:13-14	
			4:15	4:15-24
4:16-26		4:16-36	4:16	
			4:17a	
			4:17b-18	
			4:19-20	
			4:21-24	
			4:25	4:25-26
	희어진 추수밭		4:26	
4:27-30	4:27-38	4:27-30	4:27	4:27-30
			4:28-30	
4:31-38		4:31-38	4:31	4:31-38
			4:32	
			4:33	
	세상의 구원자		4:34-38	
4:39-42	4:39-42	4:39-42	4:39-40	4:39-42
			4:41-42	
관리의 아들을 고치심	갈릴리의 환영	예수님과 이방인들	예수님이 관리의 아들을 고치시다	갈릴리에서의 예수님
4:43-45	4:43-45	4:43-45	4:43-45	4:43-45
	귀족의 아들을 고치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4:46-54	4:46-54	4:46-54	4:46-48	4:46-53
			4:49	
			4:50-51	
			4:52-53	
			4:54	4:54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54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3 장과 4 장에 의도적인 구조가 있다:
   1. "종교 지도자"(니고데모)와 "따돌림 받은 여인"(우물가의 여인)
   2.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한 유대주의(정통의)와 사마리아의 유대주의(이단적인)

나.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에 관한 진리는 다음에 의하여 좀 더 발전되었다
   1.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1-26 절)
   2. 그의 제자들과의 대화(27-38 절)
   3. 마을 사람들의 간증(39-42 절)
   4. 갈릴리 사람들의 환영(43-45 절)
   5.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능력의 표시/기적, 46-54 절.

단어와 구 연구

> ### 개역개정 4:1-6
> **[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 **아신지라 [2](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 **[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 **시쯤 되었더라**

4:1 "주" 요한은, 몇년이 지난 후 그 사건을 그의 마음속에(성령의 의해) 기억하면서, "주"와 "예수"를 같은 문장속에서 한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다.

▣ **"바리새인들"** 1:24 의 설명을 보라.

▣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들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침례(세례)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긴장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셨다. 공관복음서 저자들은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세례)요한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셨다고 말한다(참조, 마 4:12; 막 1:14; 눅 3:20).

4: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이것은 침례(세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설명은 아니지만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본질에 대한 인식이다(참조, 고전 1:17).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초기에(참조, 3:22) 침례를 베푸셨지만, 나중에는 멈추셨다.

4: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이것은 예수님의 지리적 이동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두 개의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이다.

4: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는 3 장(참조, 3:7, 14, 30)에서 여러 번 사용된 헬라어 동사 *데이*이다. 이것은 늘 "~해야만" 또는 "반드시"로 번역된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사용하신 목적이 있다. 이것은 가장 짧은 길이다; 요세푸스는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보통 이 길을 사용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하지만 유대의 유대인 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미워했고 그들의 땅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인 혼열아라고 간주했다.

특별주제: 인종적 우월감

I. 서론.
   가. 이것은 타락한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인간의 자만심이다. 인종적 우월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적인 현상이다. 반면에 민족주의(또는 종족주의)는 좀 더 오래된 표현이다.
   나. 민족주의는 바벨에서 시작되었다(창 11). 원래 그것은 인종이 그들로 부터 유래했다고 불리는 노아의 세 아들과 관계되어 있다(창 10). 그러나 인간이 하나의 근원에서 출발한 것은 성경적으로 분명하다(참조, 창 1-3; 행 17:24-26).
   다. 인종적 우월감은 많은 편견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 어떤 사람들은 (1) 교육적 우월감 (2) 사회-경제적 자만심 (3) 독선적인 종교적 율법주의 (4) 교리적 정치적 소속감

II. 성경적 자료들
   가. 구약
      1. 창 1:27- 인간(남자와 여자)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독특하게 만들어졌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개인적인 가치와 고상함을 보여준다(참조, 요 3:16).
      2. 창 1:11-25- ". . .각기 종류대로. . ."라는 구절이 10 번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종적 분리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됐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에 대해서가 아닌 동물과 식물에 대한 것임이 문맥상 분명하다.
      3. 창 9:18-27- 이것은 인종적 우월을 지지하는 데 사용됐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은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의 아버지인 노아가 술 취한 것이 깬 후 그를 저주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맹세/저주를 승인하셨다는 것을 결코 기록한지 않는다. 설령 그가 하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흑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자들의 조상이었고, 이집트 벽화도 그들이 흑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4. 여호수아 9:23- 이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길 것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됐다. 그렇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은 인종적 그룹에 속한다.
      5. 에스라 9-10 과 느헤미아 13- 이 성경본문은 자주 인종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그 결혼은 인종의 문제(그들은 다 같이 노아의 후손이었다, 창 10)가 아니라 종교적 이유로 비난받았다.
   나. 신약
      1. 복음서
         ㄱ. 예수님은 여러 경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미움을 사용하여, 인종적인 미움이 적당하지 않음을 보여주셨다.
            1)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
            2) 우물가의 여인(요 4:4)
            3) 감사하는 문둥병자(눅 17:7-19)
         ㄴ.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1) 요한복음 3:16
            2) 누가복음 24:46-47
            3) 히브리서 2:9
            4) 요한계시록 14:6
         ㄷ. 천국은 모든 인간이 같이 있을 것이다
            1) 누가복음 13:29
            2) 요한계시록 5

2. 사도행전
   ㄱ. 사도행전 10 장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과 복음의 일반적인 메시지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다.
   ㄴ. 베드로는 사도행전 11 장에서 그의 행동에 대하여 공격을 받았다. 이 문제는 사도행전 15 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 해결 될 때까지 풀리지 않았다.
3. 바울
   ㄱ. 그리스도 안에 아무런 벽이 없다
      1) 갈 3:26-28
      2) 엡 2:11-22
      3) 골 3:11
   ㄴ.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대우 하는 분이 아니다
      1) 롬 2:11
      2) 엡 6:9
4. 베드로와 야고보
   ㄱ. 그리스도 안에 아무런 벽이 없다, 벧전 1:17
   ㄴ. 하나님이 편애하지 않으시므로, 그의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 2:1
5. 요한
   ㄱ. 믿는 자의 책임에 관한 가장 강한 진술은 요한일서 4:20 에서 발견된다.

III. 결론

가. 인종적 우월감과 같은 문제나 어떤 종류의 편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적당하지 않다. 이것은 글로리에타 포럼(크리스천 삶의 사명, 1964 년 뉴멕시코)에서 연설했던 헨리 바넬의 말이다.
“인종적 우월감은 이단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이다.”

나. 이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 용서,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이해심을 나타내기 위한 기회로 주어진다. 이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의 외면은 미성숙을 나타내고 믿는 자들의 믿음, 확신, 성숙을 더디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이 부분은 “인종 관계”라고 제목이 붙여진 크리스천 삶의 사명이란 소책자에서 발췌한 것이다)

“개인적인 수준에서”
★ 인종과 관계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신 자신의 책임감을 받아들여라.
★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 성경공부, 교제를 통하여 당신의 인종적인 편견을 버리도록 노력하라.
★ 특별히 인종에 대한 미움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문제되지 않는 곳에서, 인종에 관한 당신의 확신을 표현하라.

“가정의 삶에서”
★ 다른 인종에 대한 발전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정의 영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라.
★ 인종문제에 관하여 자녀와 부모가 집 밖에서 들은 것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발전시키라.
★ 부모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라.
★ 인종의 선을 넘는 가족적인 친분관계를 만들 기회를 찾아라.

“당신의 교회에서”
★ 인종문제와 관계된 성경적 진리를 설교하고 가르침으로, 회중이 전체 사회에 모범이 되는 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 아무런 인종적 장벽이 없었던 신약의 교회처럼, 교회를 통한 예배, 교제, 봉사가 모두에게 열려있도록 하라(엡 2:11-22; 갈 3:26-29).

“매일의 삶에서”
★ 일하는 현장에서 모든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도록 도우라
★ 사람이 아니라 인종의 문제는 반드시 공격 받아야 함을 기억하며, 모든 종류의 사회 기관을 통해 권리와 기회의 평등을 고수하도록 노력하라. 우리의 목표는 이해를 고양하기 위함이지, 반감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 옳다고 생각되면 일반적인 공공의 교육과 인종관계의 발전적인 특별한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열린 대화를 목적으로 사려 깊은 시민들의 특수한 위원회를 조직하라.
★ 인종적인 공평함을 발기하는 법안이 통과하도록 입법과 입법자를 지지하라. 정책적인 이득을 위해 편견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항하라.

★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하는 법률 집행 공무원을 칭찬하라.
★ 폭력을 피하고, 합법적인 구조가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들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것을 하면서 법을 존중하도록 촉진하라.
★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으로 좋은 모범이 되라.

▣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사이의 커다란 미움은 주전 8 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전 722 년 사마리아에 있던 수도를 포함한 북쪽 10 개의 부족은 앗시리아에 의해 포로가 되었고 메대에게 멸망당했다(참조, 왕하 17:6). 다른 포로가 된 사람들은 북왕국에 다시 정착했다(참조, 왕하 17:24).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 이곳의 이방인들은 남아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종교적 혼열아며 이단으로 간주했다(참조, 스 4:1-4). 이것이 4:9 의 문맥을 설명하는 배경이다.

4: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참조, 창 33:18, 19; 수 24:32).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가를 세겜이라고 생각한다.

4:6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것은 100 피트 정도 깊이의 실제로 판 우물이다. 이것은 흐르는 물(샘)이 아니라 빗물이 모여진 것이다. 구약에는 이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확실하게 본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신 적은 없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예루살렘성경(JB)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영어성경(TEV) "때가 정오쯤 되었더라"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 사용한 시간 계산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요한은 오전 6 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본 것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인 정오에 우물에 계셨던 것 같다.

개역개정 4:7-14

[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4: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왔으매" 이 여자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그들이 오지 않는 시간을 골라 멀리 있는 우물로 혼자 왔다.

▣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어느 정도 급박한 상태를 나타내는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이다.

4:8 이 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의 이단 분파인 배척당한 여인과의 사적인 대화를 하기 위한 장을 만든다.

4:9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양동이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것 조차도 용인되지 않았다(참조, 레 15). 예수님은 두 개의 문화적인 장벽을 무시하고 있다: (1) 사마리아인과 말하는 것 (2) 공공 장소에서 여인에게 말하는 것.

4:10 "만일" 이것은 "사실과의 반대"라고 불리는 조건절의 제 2 유형이다. 거짓인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 거짓된 진술을 만든다.

▣ **"생수"** 이 단어는 구약의 은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참조, 시 36:9; 사 12:3; 44:3; 렘 2:13; 17:13; 슥 14:8). 예수님은 "생수"라는 단어를 "영적인 생명"과 동의어로 사용한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빗물이 모여서 된 우물물과 반대인 흐르는 물을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4:11 "주여" 이것은 헬라어 단어 *퀴리오스*의 호격인 *퀴리에* 이다. 이것은 정중한 표현(선생님)이나 롬 10:13 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의미하는 신학적인 진술(주님)로 사용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4:12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것은 확실히 모순적인 말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인의 혈통인 에브라임과 마낫세로 부터 야곱에 이르기 까지의 혈통 중 가장 위대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놀랍게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바로 그 내용이었다.

4:13-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메시아를 드러내는 표현일 것이다(참조, 사 49:10). 동사의 시제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13 절의 현재형 능동태 분사는 계속적으로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14 절의 부정과거 능동태 가정법은 단 한 번 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4:14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것은 계속적으로 넘치는 의미의 현재형 분사이다(참조, 사 58:11 과 요 7:38).

개역개정 4:15-26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4:15 니고데모와 같이 그 여자는 아직도 예수님을 육체적(문자적)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종종 그의 은유적인 표현을 놓침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참조, 4:31-33; 11:11-13).

4:16 "가서 불러 오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형이 이끄는 현재형 능동태 명령형이다.

4:17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죄는 반드시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예수님은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지만 저주도 하지 않으셨다.

4: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여자를 육체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흔들어 일깨우기 위해 초인간적인 지식을 사용하셨다(참조, 1:48).

4:19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여자는 아직도 메시아적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녀는 찬사를 사용함으로(3:2 에서의 니고데모와 같이) 중요한 문제인 그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켜가려고 노력했다.

다른 주석들은 이것을 신 18:15-22 에서의 메시아적 인용으로 본다.

4:20 "우리 조상들" 이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을 의미한다(참조, 창 12:7; 33:20).

▣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야훼)을 예배해야만 하는 장소로서의 신학적인 논쟁을 의미한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을 강조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모리아산을 강조했다.

요즈음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신학적으로 헷갈리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으로 시도될 수 있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영향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학과 철학을 연구하는 것을 즐긴다(참조, 3:19-21).

4:21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것은 그녀에게 놀라운 말이었음에 틀림없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어디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가 문제다

4:22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것은 메시아의 근원에 대한 확언이다(참조, 창 12:2-3; 롬 9:4-5).

4:23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이것은 말라기 1:11 의 우주적인 예배를 암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와 마찬가지로 살아 계실 동안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틀림 없다. 이 구절은 메시아의 두 번 오심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반영한다. 유대인의 두 세대가 지금 겹쳐졌다. 성령의 새 시대가 현재 존재하지만, 아직 우리는 악함과 죄의 구시대 속에 살고 있다.

▣ **"영과 진리로"** "영"이란 단어는 지역적이거나 육체적이 아닌 예배를 말한다. "진리"란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정신적인 개념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면에 유대 배경에서는 신실함 또는 신뢰할 수 있음으로 사용되었다. 6:55 과 17:3 의 특별주제인 진리를 보라.

▣ **"아버지"** 이것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매우 특이하다.

▣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그 자신의 것인 잃어버려진 인간을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다(참조, 사 55; 겔 18:23, 32).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한의 글에서 하나님의 특성을 묘사하는 여러 짧은 구절들이 있다: (1)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 하나님은 빛이시라 (3)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것은 (1) 육체적인 것이 아님 (2)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님 (3) 시간의 연속성과 관계 없음 (4)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의미할 수 있다.

4:25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 충만함을 드러내기 위해 오실 자로서 메시아를 보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4:26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사야 52:6 을 암시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명백하고 공공연한 확언이다! 이것은 하나님, 야훼(참조, 출 3:12, 14), 을 위한 구약 언약의 이름인 "내가 그라"의 역할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고 명확한 야훼의 자기- 계시를 의미하는 방법인 구약의 하나님 이름을 자신에게 사용했다(참조, 요 8:24, 28, 58; 13:19; 18:5 을 사 41:4; 43:10; 46:4 와 비교하라). 이와 같이 특수화 된 "내가"의 사용은 한정된 명사가 뒤따라 나오는, 요한의 잘 알려진 진술인 "내가," 6:35, 51; 8:12; 10:7, 9, 11, 14; 11:25; 14:6; 15:1, 5 와 다름이 틀림 없다.

개역개정 4:27-30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4:27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문화적으로 이것은 정통파의 유대인으로서는 전혀 하지 않는 일이었다.

4: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목격자인가! 또한 이것은 그 여자가 증거하기 위해 마을로 급히 돌아갈 때 나타낸 흥분을 보여준 역사적인 기록이다(참조, 29-30).

개역개정 4:31-38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32]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삯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4:34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7 장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현이다(참조, 막 10:45; 눅 19:10; 요 6:29).

여기에서의 대조는 하나님 아버지의 현존으로부터, 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그의 대리자로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과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사이에 있다. 이것은 요한의 특징인 수직적인 이원론이다(위와 아래, 영과 육).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용어가 있다: (1) *펨포*(4:34; 5:23, 25, 30, 37; 6:38, 39, 40, 44; 7:16, 18, 28, 33; 8:16, 18, 26, 2; 9:4; 12:44, 45, 49; 14:24; 15:21; 16:5) (2) *아포스텔로*(3:17, 24; 5:36, 38; 6:29, 57; 7:29; 8:42; 10:36; 11:42; 17:3, 18, 21, 23, 25; 20:21). 20:21 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 둘은 동의어이다. 이것은 또한 믿는 자들이 구원의 목적을 위한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잃어버려진 세상으로 보내어 지는 것을 보여준다.

특별주제: 하나님의 뜻(*쎌레마*)

요한복음

-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참조, 4:34; 5:30; 6:38)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시는 것(참조, 6:39)
- 아들을 믿는 모든 자(참조, 6:29, 40)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응답받는 기도(참조, 9:31; 요일 5:14)

공관복음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중요하다(참조, 마 7:21)
-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과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다(참조, 마 12:5; 막 3:35)
- 어떤 것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참조, 마 18:14; 딤전 2:4; 벧후 3:9)
- 갈보리는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마 26:42; 눅 22:42)

바울서신

- 모든 믿는 자들의 성숙과 봉사(참조, 롬 12:1-2)
-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믿는 자들(참조, 1:4)
- 하나님의 뜻은 그의 구속 계획이었다(참조, 엡 1:5, 9, 11)
- 성령충만한 삶을 경험하고 사는 믿는 자들(참조, 엡 5:17)
-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진 믿는 자들(참조, 골 1:9)
- 온전하고 완전하게 된 믿는 자들(참조, 골 4:12)
- 거룩하게 된 믿는 자들(참조, 살전 4:3)
- 모든 것에 감사하는 믿는 자들(참조, 살전 5:18)

베드로 서신

- 옳은 것을 행하는 믿는 자들과(즉, 공민적인 권위에 순종) 잠잠한 어리석은 자들(참조, 벧전 2:15)
- 고통 받는 믿는 자들(참조, 벧전 3:17; 4;19)
-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믿는 자들(참조, 벧전, 4:2)

요한서신

- 영원히 사는 믿는 자들(참조, 요일 2:17)
- 응답받는 기도의 열쇠가 되는 믿는 자들(참조, 요일 5:14)

4:35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은 영적인 반응의 기회가 지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은유적인 구절이다! 부활하신 후 뿐만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를 믿는 자는 구원 받았다.

4:36-38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절들은 선지자들이나 침례(세례)요한의 사역을 의미할 것이다. 고전 3:6-8 은 바울과 아폴로의 사역이 이와 같음을 말한다.

개역개정 4:39-42

39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라 하였더라

4:39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요한은 "믿다"란 동사를 여러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사용했다: "~안에서 믿다"(*엔*), "그것을 믿다"(*호티*)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에 "~속으로 믿다"(*에이스*) 또는 신뢰를 두다(참조, 2:11, 23; 3:16, 18, 36; 6: 29, 35, 40; 7:5, 31, 38, 48; 8:30; 9:35, 36; 10:42; 11:25, 26, 45, 48; 12:11, 37, 42, 44, 46; 14:1, 12; 16:9; 17:20). 처음에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의 증거 때문에 믿었지만(39 절),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듣고 개인적으로 그의 증거를 받아들였다(41-42 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오셨지만, 그의 복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다:

사마리아인들, 시리아-피니시아 여자, 로마 군인들(참조, 롬 10:12; 고전 12:13; 갈 3:28-29; 골 3:11).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여자가 증언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은 이단적이며 부도덕한 여인의 증언을 사용하셨다. 그는 또한 나와 당신을 사용하실 수 있다! 이 절은 개인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1:8 의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4:40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신개정표준역(NRSV) "청하는"
뉴킹제임스역(NKJV) "재촉하다"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조르다"

이것은 강한 헬라어 표현이고 "재촉하다" 또는 "조르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 단어의 고의적 다의성은 그것이 사용된 47 절을 통해 볼 수 있다(참조, 눅 4:38).

4:42 "세상의 구주" 같은 구절이 요일 4:14 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또한 모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보편적인사랑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딤전 2:6; 히 2:9; 요일 2:2). 1 세기에는 이 말이 자주 가이사에게 사용되었다. 로마의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호칭을 예수님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이 호칭은 또한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들을 아들에게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디도서 1:3 — 디도서 1:4; 디도서 2:10 — 디도서 2:13; 디도서 3:4 — 디도서 3:6.

개역개정 4:43-45

[43]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4:43 이 절은 예수님께서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하셨고, 공관복음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보다 좀 더 자주 유대와 갈릴리를 오 가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4:44 이것은 앞의 문맥과 맞지 않는 매우 이상한 절이다. 이것은 갈릴리 사역을 막 시작하시려는 것 같다(참조, 4:3). 이 격언은 마 13:57; 막 6:4; 눅 4:24 에서도 발견된다. 공관복음에서는 이것이 갈릴리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유대를 의미한다.

4:45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들은 이미 먼저의 유월절 기간동안 예루살렘 방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을 경험했다. 이것은 최소한 그들이 어느정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참조, 1:12)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48 절).

개역개정 4:46-54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52]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4:46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신개정표준역(NRSV),
신예루살렘성경(NJB) "왕의 신하"
뉴킹제임스역(NKJV) "어떤 귀족"
현대영어성경(TEV), "정부 관리"

이것은 헤롯의 가족을 섬기는 정부 관리였다.

4:48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강한 이중 부정과 함께하는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복수형으로 취하여 말씀하신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참조, 2:18; 6:2, 30; 마 12:38; 16:1).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헤롯의 하인은 표적이 주어지기 전에 믿었다.

4:50 이 절은 요한복음의 본질을 말한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의 말씀을 믿어라, 그의 행동을 믿어라, 그의 사람 되심을 믿어라!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약속을 보지 않은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인되었다.

4:53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영향을 받는 기사 중 가장 첫 번째의 것이다: 고넬료(행 10:44-48); 리디아(행 16:15); 빌립보 간수(행 16:31-34); 그리스보(행 18:8); 스데바나(고전 1:16). 온 가족의 회심에 관하여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모든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님께서 왜 유대 지역을 떠나셨나?
2. 요한은 로마의 시간을 사용했는가 아니면 유대시간을 사용했는가?
3.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4. 20 절이 오늘날 교파들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5. 26 절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말씀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
6. 갈릴리 사람들은 진실된 믿음을 가졌는가?

요한복음 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못에서 고치심	베데스다 못에서 고침 받은 사람	안식일에 절름발이를 고치심	못에서 고치심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심
5:1-9a	5:1-15	5:1	5:1-6	5:1-9a
		5:2-9a		
			5:7	
			5:8-9a	
5:9b-18		5:9b-18	5:9b-10	5:9b-18
			5:11	
			5:12	
			5:13	
			5:14	
			5:15-17	
	아버지와 아들을 높임		5:18	
아들의 권위	5:16-23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아들의 권위	
5:19-29		5:19-24	5:19-23	5:19-47
	생명과 심판은 아들을 통하여 있다 5:24-30		5:24-29	
		5:25-29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	
5:30		5:30	5:30	
예수님에 대한 증인들	사중 증거			
5:31-40	5:31-47	5:31-38	5:31-40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안을 거부하는 사람을 꾸짖으심		
		5:39-47		
5:41-47			5:41-47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5:1-9a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a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5:1 "명절" 고대 헬라어 언설체 필사본인 ℵ 와 C 에는 "그 명절"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명절"(P^{66}, P^{75}, A, B, D)로 되어 있다. 유대 남자라면 가능한 한 참석해야만 하는 세 가지 명절로서(참조, 레 23): (1) 유월절 (2) 오순절 (3) 초막절이 있다. 만약 여기에서의 명절이 유월절을 가리킨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3 년이 아니라 4 년이 된다(참조, 2:13, 23, 6:4; 12:1). 요한에게 침례(세례)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3 년동안 공생애 기간을 갖으셨다고 전통적으로 믿고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언급된 유월절 횟수에 의해 확인된다.

5:2 "양문 곁에" 이 "짐승의 문"은 예루살렘 벽의 북쪽에 있다. 이것은 느헤미야서에서 도시 벽의 재건축과 재봉헌에 언급되어 있다 (참조, 느 3:1, 32; 12:39).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
신개정표준역(NRSV)	"히브리 말로 벧-자다라 하는"
현대영어성경(TEV)	"히브리 말로 그것은 벧자다라 했다"
신예루살렘성경(NJB)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이 이름은 여러 가지의 철자법으로 표기된다. 요세푸스는 이것을 히브리 말로 예루살렘의 이 지역을 이름하는 "벧자다"라 불렀다. 이것은 또한 헬라어 사본에서 벧사이다"라고 불렀다. 쿰란 동판 문서는 그것을 "자비의 집" 또는 "이중 샘의 집"의 의미를 가진 "베데스다"라 불렀다. 오늘날 그것은 성 안네의 못으로 알려져 있다.

5:4 이 절(3b-4)은 나중에 서기관이 설명을 달아 놓은 것이다: (1) 못 곁에 모든 병자들이 있었던 것 (2) 왜 이 사람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는지의 이유 (3) 누군가가 그를 그 물속에 넣어주기를 원했던 이유, 7 절. 이것은 분명히 유대인의 민간설화이다. 이 부분은 요한 복음서의 원본이 아니다. 이 강한 진술의 증거는: (1) 이것은 P^{66}, P^{75}, ℵ, B, C^{*}, D 의 사본에 없다 (2) 이 본문은 20 개가 넘는 후기 헬라어 사본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다. 이 표는 이 본문이 원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이 짧은 절 속에 요한식의 어투와 다르게 사용된 것이 많이 있다. 이 절은 여러 가지의 초기 헬라어 사본인, A, C^{3}, K, L, 에 들어있다. 이것은 또한 디아테사론(주후 약 180 년), 터툴리안의 글(주후 200 년), 암브로스, 크리소스톰과 시릴에도 들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것이 오래된 것을 보여주지만, 원래 감동된 복음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킹제임스역, 신미국표준역 개정판, 뉴킹제임스역에는 들어있지만, 신개정표준역, 새국제역(NIV)에는 생략되었다.

5:5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거의 요구되지 않는다.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정면 대결을 시작하려는 시도를 하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주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사 35:6 의 종말론적인 구절은 여기의 메시아적 고치심과 연관되어 있다.

5:8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은 일련의 명령이다: (1) 현재 능동 명령형 뒤에 (2) 부정과거 능동 명령형과 (3) 또 다른 현재 능동 명령형이 뒤따른다.

이 자리는 가난한 사람이 사용하는 깔 수 있는 옷이었다. 이것은 병자, 절름발이, 중풍병자를 위해 낮 동안 까는데 사용되었다(참조, 막 2:4, 9, 11, 12; 6:55; 행 9:33).

개역개정 5:9b-18

[9b]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5:9b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 지도자들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기뻐하기 보다는 안식일과 관련된 구전(나중에 탈무드 안에서 성문화된)을 따르지 않은 예수님께 성을 내었다(참조, 16, 18 절; 마 7:1-23).

안식일에 예수님의 병고치심은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예수님은 매일 병을 고치셨으나 안식일날 고친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다 (2) 예수님은 종교적 지도자들을 신학적인 대화에 끌어들여 논쟁을 야기시키기 위해 이 문제를 고르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종종 병자를 고치셨다(참조, 마 12:9-14; 막 1:29-31; 3:1-6; 눅 6:6-11; 14;1-6; 요 5:9-18; 9:14). 예수님은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 내셨다(참조, 막 1:21-28; 눅 13:10-17).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먹는 것을 변호하셨다(마 12:1-8; 막 2:23-28; 눅 6:6-15). 안식일에 예수님은 회당에서 논쟁적인 주제들을 발의 하셨다(참조, 눅 4:16-30; 요 7:14-24).

5:13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다"이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평범한 유대인으로 보였다. 그는 군중 속으로 흡수되셨다.

5:14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신개정표준역(NRSV), 신예루살렘성경(NJB)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뉴킹제임스역(NKJV)	"죄를 더 짓지 말라"
현대영어성경(TEV)	"그러므로 죄 짓는 것을 멈추어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형이다. 이 부정 불변화사는 자주 이미 진행중인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였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1 세기의 유대 신학자들은 죄와 관련하여 병을 보았다(참조, 약 5:14-15). 이것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취급하시는 것과 눅 13:1-4 에서 그의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모든 병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도 이 사람의 영적 생활을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신다. 하지만 신적인 고치심은 삶의 태도와 우선순위에 영적인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 타당한 질문은 "네가 낳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이다.

5: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니라" 유대의 권위자들에게 알린 정확한 동기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경솔하고 하찮은 행동은 병고침이 항상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또는 항상 믿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님을 보여준다.

5:17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것은 두 동사 모두 현재 중간(디포) 직설법을 사용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루도 쉬는 날을 갖지 않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를 실제적으로 확언하는 것이었다(참조, 19-29).

유대인의 유일신(참조, 신 6:4)에 대한 개념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에 대한 설명이 "한 명의 원인자"로써 실제적으로 표현된다(참조, 삿 9:23; 욥 2:10; 전 7:14; 사 45:7; 59:16; 렘 3:33-38; 암 3:6). 모든 활동은 궁극적으로 한 분이시며 진실된 하나님의 활동이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 이중적인 대리자를 주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중적인 신적 인과관계를 주장하신 것이다. 이것은 삼위일체에 대한 어려운 문제이다. 하나님은 한분이면서 삼위로 나타내신다(참조, 마 3:16-17; 28:19; 요 14:26; 행 2:33-34; 롬 8:9-10; 고전 12:4-6; 고후 1:21-22; 13:14; 갈 4:4; 엡 1:3-14; 2:18; 4:4-6; 딛 3:4-6; 벧전 1:2).

5: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두 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예수님은 안식일과 관계된 구전(탈무드)을 공공적으로 지키지 않았다 (2) 그의 진술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주장한다고 그들이 이해했음을 보여준다(참조, 8:58-59; 10:33; 19:7).

개역개정 5:19-23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5:19, 24, 25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멘, 아멘"이다. 이 단어 "아멘"은 히브리어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원래 진실함을 의미했다. 이것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문장의 처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오직 한 분이시다. 그는 중요한 문장을 시작할 때그것을 사용하셨다. 요한은 이 단어의 반복을 기록한 오직 한 사람이다.

5:19 "아들" 다음에 이어지는 절들에서 "아들"이란 단어의 신학적으로 중요한 반복이 있다. 이것은 여기의 짧은 구절에서 8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한 이해 를 보여주고,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반영한다.

▣ **"아들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종종 그렇듯이, 신약은 역설적인 표현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준다. 어떤 본문은 그는 아버지와 하나이다(참조, 1:1; 5:18; 10:30, 34-38; 14:9-10; 20:28); 다른 곳에서는 그는 아버지와 구별된다(참조, 1:2, 14, 18; 5:19-23; 8:28; 10:25, 29; 14:10, 11, 12, 13, 16; 17:1-2), 때때로 심지어 그에게 종속된다(참조, 5:20, 30; 8:28; 12:49; 14:28; 15:10, 19-24; 17:8). 이것은 아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구별되면서도 독특한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나타나신다.

요한 레이몬드가 편집한 주석인 *제롬의 성경주석*에서 좋은 관점이 제시된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인성만을 말하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종속적 의미를 제거해서는 안 된다. . .그렇게 하는 것은 요한의 기독론의 핵심을 놓치게 한다.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절대적으로 조화있는 사역을 예수님은 주장한다. 물론 그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성령을 아들에 연결시키고 있는 16:12 이하에 나온다. 그러나 이 복음서 전체에서 볼 때, 삼위일체를 추상적인 신학이론으로 다룬 것을 우리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 이것은 항상 구원론과의 관련성에서 접근된다"(434 쪽).

▣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인간은 결코 성부를 볼 수 없지만(참조, 37 절과 1:18), 성자는 친밀하고,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성부를 앎을 주장하고 있다(참조, 1:1-3).

▣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본다(참조, 골 1:15; 히 1:3).

5: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여기에서는 계속되는 행동을 말하는 현재 능동 직설법이 두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헬라어 단어 사랑인, *필레오*이다. 어떤 사람은 3:35 에서 처럼 *아가페오*가 사용된 것으로 예상했을 것이다. 사랑을 말하는 이 두 단어는 코이네 헬라어에서 동의어이다.

▣ **"더 큰 일"** 문맥안에서 이것은 죽은 자의 살아나심(21, 25-26 절)과 실행될 심판(22, 27 절)을 의미한다.

5: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아들도" 구약에서 야웨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시다(참조, 신 32:39).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은 야웨와 동등하다는 진술과 같다(참조, 26 절).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참조, 고후 5:17; 골 1:13). 26 절에서 이 생명은 새 시대의 육체안에 나타날 생명과 연결된다(참조, 살전 4:13-18). 요한이 예수님과 오랫동안 가진 만남이 개인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 졌고 또한 미래에 일어날 총괄적인 사건(심판과 구원)이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5:22 강한 이중 부정과 완료시제 동사는 심판이 그 아들에게 위임된 것 사실을 강조한다(참조, 5:27; 9:39; 행 10:42; 17:31; 딤후 4:1; 벧전 4:5). 마지막 날들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반응으로 그들 자신을 심판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 절과 요 13:17 이 분명히 역설한다.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은 그에 대한 개인의 영접이나 거부에 기초한다.

5:23 "모든 사람으로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포괄적인 단어 "모든"은 종말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의미할 것이다(참조, 빌 2:9-11).

▣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진술은 요일 5:12 와 매우 비슷하다. 아무도 그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아들을 공경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찬양할 수 없다!

개역개정 5:24-29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5:24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독특한 반복 (참조, 25 절) 은 중요한 진술에 대한 특별한 안내이다. 1:51 의 설명을 보라.

▣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세 개의 현재 능동태 동사이다. 이것은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강조한다(참조, 요일 5:9-12). 공관복음에서 자주 영생은 믿음안에서 바라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특성상 현재의 실체이다. "듣다"라는 단어는 "순종하기 위해 듣다"의 의미인 히브리 단어 *쉐마*를 말한다(참조, 신 6:4).

▣ **"나 보내신 이"** 동사 *아포스텔로*(부정과거 능동 분사)는 단어 "사도"의 어근이다(참조, 36-37). 이것은 "할당된 사역을 위해 공식적인 대표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랍비들이 사용했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자주 아버지가 아들을 그의 대리로 보내는 것으로 사용된다. 4:34 의 설명을 보라.

▣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과거에 발생한 것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존재하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다(참조, 25-26 절). 25 절은 지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진술이다!

5:25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5 절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하여 말한다; 29 절은 육체적으로 죽은 모든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다. 성경은 세 종류의 죽음을 말한다: (1) 영적인 죽음(참조, 창 3) (2)육적인 죽음(참조, 창 5) (3) 영원한 죽음(참조, 엡 2:2; 계 2:11; 20:6, 14) 또는 불바다, 지옥(*게헤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구절의 드문 사용이다. 이 말이 좀 더 자주 사용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인간 여자들을 아내나 배우자로 취하는 신들(올림푸스 산)에 대한 헬라적 종교관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위치는 성적인 출생이나 시간적인 연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 이것은 유대인 가족에 대한 은유이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구약의 카테고리를 사용하셔서 매우 분명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확증하셨다(참조, 5:21, 26).

5: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것은 본질적으로 출 3:14 에 있는 야웨의 의미이다.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이름의 형태는 히브리어 동사 "~이다"의 원인을 말하는 형태에서 왔다. 이것은 영원히 사시며 홀로 살아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강한 확언이다(참조, 1:4; 요일 5:11).

5:27 예수님께서 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엑수시아*, 권위를 가지다, 참조, 10:18; 17:2; 19:11) 이유는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에는 정관사가 없다(참조, 겔 2:1 과 시 8:4). 그는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참조, 히 4:15);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아신다(참조, 1:18; 5:30).

5: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부정의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형이다.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이전의 말씀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놀라게 한 것처럼, 그의 다음 진술 또한 그들을 완전히 놀라게 만들었을 것이다.

▣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것은 재림 때에 메시아의 외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참조, 살전 4:16). 이것은 고후 5:8 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들의 우주적인 심판과 권위를 확언한다.

이 문맥은 주로 지금 여기서의 영적인 실체와 관계가 있다(실제적인 종말론). 그러나 이 구절은 또한 미래에 있을 마지막 때의 종말적인 사건을 주장한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은 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특징짓는다.

5:29 성경은 악한자와 의로운자 부활에 대해 모두 말한다(참조, 단 12:2; 마 25:46; 행 24:15). 대부분의 구절들은 의로운 자의 부활에 대해서만 강조한다(참조, 욥 19:23-29; 사 26:19; 요 6:39-40, 44, 54; 11:24-25; 고전 15:50-58).

이것은 행위에 기초를 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의 생활양식에 기초를 둔 심판이다(참조, 마 25:31-46; 갈 5:16-21). 하나님의 말씀, 세상, 그들이 뿌린씨에 대한 거둠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다(참조, 잠 11:24-25; 갈 6:6). 또는 구약의 인용,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과 같다(참조, 시 62:12; 28:4; 욥 34:15; 잠 24:12; 마 16:27; 롬 2:6-8; 고전 3:8; 고후 5:10; 엡 6:8; 골 3:25).

개역개정 5:30

[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5:30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아버지께 복종하고 순종하셨다. 순종에 대한 강한 강조는 또한 19 절에서 분명히 나타난다("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아들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구별되는 세 위격인 아버지, 아들, 성령 중 아들에게 위임했다는 뜻이다.

개역개정 5:31-47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2]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35]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5:31 구약에서 어떤 문제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다(참조, 민 35:30; 신 19:15). 이 문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5 명의 증인을 거론한다: (1) 아버지(32, 37 절) (2) 침례(세례) 요한(33 절, 참조, 1:19-51) (3) 예수님 자신의 일(참조, 36 절) (4) 성경(참조, 39 절) (5) 신 18:15-22 를 반영하는 모세(참조, 46 절).

▣ **"만일"** 이것은 가능성있는 행동을 말하는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이것은 8:14 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문맥은 두 개의 진술이 다른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다른 증인들이 있는가를 보여주지만, 8:14 에서 그는 단지 그의 증언만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한다!

5:32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이것은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말한다(참조, 요일 5:9). *알로스*는 *헤테로스*와 대비되는 "같은 종류의 다른"을 의미한다.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하나"를 의미한다.1:8 에 있는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 을 보라.

5:33 "요한" 이것은 침례(세례) 요한을 의미한다.

5:34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이다. 여기의 수동태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의 대리자를 의미한다(참조, 6:44, 65). 복음은 전도적인 선포이지 역사적 전기가 아님을 기억하라. 기록된 모든 것에는 전도적 목적이 있다(참조, 20:30-31).

5:35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참조, 1:6-8).

5:36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 그의 시대에 유대인은 이런 기적—소경을 고치심, 가난한 자를 먹이심, 절름발이를 회복시키심을 인식해야만 했다(참조, 사 29:18; 32:3-4; 35:5-6; 42:7).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능력, 의의 생활양식, 동정, 위대한 기적들(참조, 2:23; 10:25, 38; 14:11; 15:24)은 그가 누구이며, 그는 어디서 왔고, 누가 그를 보냈느지를 명확하게 증거하기에 충분하다.

5:37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비록 유대인이 성경과 예배에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예수님은 주장하셨다(참조, 사 6:9-10; 렘 5:21).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죽음을 야기한다고 생각했다. 야웨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단 한 사람은 모세였지만 그도 역시 구름의 베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많은 사람들은 출 33:23 과 요 1:18 이 모순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출애굽기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물리적 모양이 아닌 "영광을 따라서"를 의미한다.

5: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이것은 요한의 글에 있는 두 개의 강력한 은유이다. 하나님의 말씀(*로고스*)은 받아들여야만 하고,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이 남아 있어야만 한다(거주하다, 참조, 요 8:31; 15:4, 5, 6, 7, 10; 요일 2:6, 10, 14, 17, 24, 27, 28; 3:6, 14, 15, 24).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다(참조, 요 1:1-18; 빌 2:6-11; 골 1:15-17; 히 1;1-3). 구원은 계속적인 관계(히브리식 감각의 "알다," 참조, 창 4: 1; 렘 1:5)와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헬라식 감각의 "알다," 참조, 요이 9)으로 확인된다.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인내하며 지속하는 것에 사용된다. 거주하는 것은 참된 구원의 조건이다(참조, 15 장)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다양한 감각으로 사용되었다:

1. 아버지 안에 있는 아들(참조, 10:38; 14:10, 11, 20, 21; 17:21)
2.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참조, 10:38; 14:10, 11, 21; 17:21, 23)
3. 아들 안에 있는 믿는 자들(참조, 10:56; 14:20, 21; 15:5; 17:21)
4.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는 믿는 자들(참조, 14:23)
5. 말씀안에 있는 믿는 자들(참조, 5:41; 8:31; 15:7; 요일 2:41).

요일 2: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5:39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나 현재 능동 명령형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거부했던 증거의 목록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설법일 것이다.

여기에 유대 지도자들의 비극이 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읽었고, 그것을 연구했으며, 그것을 암송했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그 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성령이 없이는, 심지어 성경도 영향을 주지 못한다!

▣ **"이것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참조, 행 3:18; 10:43)와 바울(참조 행 13:27; 17:2-3; 26;22-23, 27)이 초기에 했던 대부분의 설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됨을 증거하는 성취된 예언을 사용한다. 신약에서 발견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구절(참조, 고전 2:9-13; 살전 2:13; 딤후 3:16; 벧전 1:23-25; 벧후 1:20-21)중 한 구절(벧전 3:15-16)만 구약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이며 목표(그리고 올바른 해석자로, 참조, 마 5:17-48)로서 명백하게 자신을 보셨다. 1:8 의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5:41-44 이 절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동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즐겼던 사실을 반영한다. 그들은 과거의 랍비들을 거론하는 것으로 뽐내었지만, 영적으로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계신 모든 선생들보다 가장 뛰어난 분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것은 1 세기의 랍비적 유대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강하고 공공연한 비난중 하나이다.

5:41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신개정표준역(NRSV)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뉴킹제임스역(NKJV)	**"나는 사람에게서 명예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현대영어성경(TEV)	**"나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신예루살렘성경(NJB)	**"인간의 영광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니라"**

"영광," *독사*,이란 단어는 일관성있게 번역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영광," *카보드*,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1) 하나님의 빛나고 밝은 현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참조, 출 16:10; 24:17; 40:34; 행 7:2) (2) 하나님의 성품과 행동을 칭송하고 기리기 위해. 벧후 1:17 은 이런 의미를 잘 함축하여 나타낸다.

하나님의 현존과 성품에 대한 빛나는 모습은 다음과 관계가 있다 (1) 천사들(참조, 눅 2:9; 벧후 2:10) (2) 예수님의 뛰어나심(참조, 요 1:14; 8:54; 12:28; 13:31; 17:1-5, 22, 24; 고전 2:8; 빌 3:17 (3) 결과적으로 믿는 자들(참조, 8:18, 21; 고전 2:7; 15:43; 고후 4:17; 골 3:4; 살전 2:12; 살후 2:10; 히 2:10; 벧전 5:1, 4).

요한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의미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참조, 7:39; 12:16, 23; 13:31).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명예"나 "감사"로 번역할 수 있다(참조, 눅 17:18; 행 12:23; 롬 4:20; 고전 10:31; 고후 4:15; 빌 1:11; 2:11; 계 11:13; 14:7; 16:9; 19:7). 이것이 이 문맥에서 사용된 바로 그 방법이다.

5:43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초점은 정해진 신학적인 신조가 아니라 그와의 개인적인 만남이다. 믿음은 그를 신뢰하기로 결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교리적인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을 살기 위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제자도의 개인적인 관계가 성장하는 출발점이다.

5:45-47 예수님은 모세의 글이 그를 계시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신다. 이것은 아마 신 18:15-22 에서 인용했을 것이다. 45 절에서 성경은 고발자로서 의인화 되었다. 이것은 안내자가 되었다는 의미였다(참조, 눅 16:31). 거부된 안내자는 적이 되었다(참조, 갈 3:8-14, 23-29).

5:46, 47 "만일. . .만일" 46 절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사실상 모세의 글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들의 심판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47 절의 "만약"은 진실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조건절의 제 1 유형이다(신국제역은 "~이므로"로 되어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현대 번역본들에서 4 절이 왜 생략되고 있는가?
2. 예수님은 이 특별한 사람을 왜 고쳐 주셨는가?
3.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았는가? 육체적 병고침이 영적인 병고침을 포함하는가?
4. 그의 병은 그의 개인적인 죄와 관계가 있는가? 모든 병은 개인적인 죄와 관계가 있는가?
5.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6. 구약에서 예수님께 적용되는 하나님의 역할을 열거해 보라
7. 영생은 현재의 실체인가 아니면 미래의 소망인가?
8. 마지막 심판은 행위에 기초하는가 아니면 믿음에 기초하는가? 왜 그런가?

요한복음 6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오천 명을 먹이심	오천 명을 먹이심	오천 명을 먹이심	예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시다	떡의 기적
6:1-15	6:1-14	6:1-15	6:1-6	6:1-4
				6:5-15
			6:7	
			6:8-9	
			6:10-13	
			6:14-15	
물 위를 걸으심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다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다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다
6:16-21	6:15-21	6:16-21	6:16-21	6:16-21
생명의 떡이신 예수	하늘로부터 온 떡	예수, 생명의 떡	사람들이 예수를 찾다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설교
6:22-33	6:22-40	6:22-24	6:22-24	6:22-27
		6:25-40	생명의 떡이신 예수	
			6:25	
			6:26-27	
			6:28	6:28-40
			6:29	
			6:30-31	
			6:32-33	
6:34-40			6:34	
	자기자신의 백성들에게 거부됨		6:35-40	
6:41-51	6:41-59	6:41-51	6:41-42	6:41-51
			6:43-51	
6:52-59		6:52-59	6:52	6:52-58
			6:53-58	
			6:59	6:59-63
영생의 말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감		영생의 말씀	
6:60-65	6:60-71	6:60-65	6:60	
			6:61-65	
				6:64-66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6:66-71		6:66-71	6:66-67	
				6:67-71
			6:68-69	
			6:70-71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요한복음 6:1-71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비록 13-17 장에 다락방에서의 대화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주의 만찬자체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생략은 고의적인 것 같다. 2 세기의 교회는 이 규례를 성례적인 의미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례식을 은혜의 통로로서 보았다. 예수님의 침례(세례)와 주의 만찬을 기록하지 않으므로써, 요한은 성례적인 관점에 반대했다.

나. 요한복음 6 장은 오천 명을 먹이신 것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만찬 예식의 관점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한다. 이것은 천주교의 화체설을 주장하는 출처가 된다(53-56 절).
6 장이 어떻게 성만찬과 관련되는가에 대한 질문은 복음서들의 이중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복음서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관계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 년 뒤에 기록되었고, 또한 저자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를 표현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저자가 의도하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1) 성령 (2) 예수님과 처음의 청중 (3) 복음서 기록자들과 그들의 독자.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는가? 오직 유효한 방법은 역사적 배경에 비추어 문맥적, 문법적, 사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다. 우리는 청중이 유대인이었고 문화적 배경으로는"만나"와 같은 출애굽적 경험과 관련하여 모세를 초월하는 메시아에 대한 랍비적 기대가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참조, 30-31 절). 랍비들은 시 72:16 을 이를 증명하기 위한 본문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특별한 진술(참조, 60-62, 66 절)은 군중의 잘못된 메시아적 기대를 바로 잡기 위한 의도였다(참조, 14-15 절).

라. 모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본문이 주의 만찬을 의미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오리겐, 유세비우스는 이 본문을 다룬 그들의 글에서 한 번도 주의 만찬을 언급하지 않았다.

마. 이 본문의 은유는 요한복음 4 장에서 우물가의 여자에게 사용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매우 흡사하다. 이 세상의 물과 떡은 영원한 생명과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은유로서 사용되었다.

바. 떡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은 4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6:1-14

[1]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3]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14]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6:1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이 호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알려졌다. 구약에서는 긴네렛(참조, 민 34:11)으로 불렸다. 눅 5:1 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로, 요 21:1 에서는 디베랴 호수로 불렸다.

6:2 군중이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그 이유를 주시해 보라.

6:3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기 위해 물과 언덕을 이용한 자연적인 확성방법을 사용하셨다. 그가 "앉으신" 사실은 이 일이 제자들에 대한 공적 가르침임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산이 마 5-7 장과 같이 모세 때의 배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종종 군중 가운데 있는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가장 가까이에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 다음에는 호기심 많은 자, 부자들, "그 땅"의 보통 사람들이 자리하고, 그 너머에는 종교적 지도자들(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어쩌면 에세네파도)의 적은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6:4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월절의 기록이다(첫 번째, 2:13; 두 번째, 6:4; 세 번째, 11:55 과 13:1). 만약 요 5:1 또한 유월절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은 최소한 삼년 반에서 사 년까지로 볼 수 있다.

6:6 "이렇게 말씀하심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의 "시험"(*페이라조*)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보통 나쁜 의미를 수반한다(요일 4: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참조, 마 4:1). 이것은 현대 해석가들이 신약의 단어를 하나의 정의로 국한시켜야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코이네 헬라어는 고전적인 헬라어의 문법적 언어적 특성을 많이 잃었다(참조, 5:20 의 설명을 보라).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시고 계셨다. 어떻게 시험하고 계시는가? (1) 그가 예수님을 공급자로 믿고 있는 점을? (2) 구약에 대한 그의 지식(참조, 민 11:13, 모세가 음식의 공급에 관하여 하나님께 가졌던 질문)을? 또는 (3) 그가 군중을 돌보는 점을?

6:7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예루살렘성경(JB)	**"이백 데나리온 가치"**
신개정표준역(NRSV)	**"6 개월의 월급"**
현대영어성경(TEV)	**"은 동전 이백 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참조, 마 20:2)와 군인의 하루치 월급이었다. 이것은 거의 8 개월 치의 월급이었을 것이다.

6:8-9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문맥은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에 대한 안드레의 순수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다.

6:9 "보리떡" 이것은 가장 싸고 별로 좋지 않은 떡을 의미한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었다. 예수님은 비싼 음식을 공급하시기 위해 그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6:10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때의 일반적인 문화는 사람들이 바닥에 앉든지, "유(U)자 모양의 상 앞에 기대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

▣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이것을 "오천 명을 먹이심"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날 거기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천 명은 단순히 남자들의 수를 의미하며 여자와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참조, 마 14:21).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여자와 어린이들이 있었는지 또는 있을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6: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 주시고" 떡의 양이 많아진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 이루어졌음이 틀림없다. 유대인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비추어 볼 때, 모세가 만나를 공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음식을 공급한 이 사건은 그들이 기다리던 표적이었을 것이다.

"축사 하시는"(*유카리스테오*)이란 헬라어 단어는 후에 주의 만찬이라는 이름이 되었다(참조, 고전 10:23-24). 요한은 여기서 미래에 의미할 특별한 사용법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사용했는가? 성만찬을 의미하지않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단어(*율로게오*, 참조, 마 14:19; 막 6:41)를 사용했다. 그들은 *유카리스테오*(참조, 마 15:36; 막 8:6; 눅 17:16; 18:11)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꼭 주의 만찬의 배경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의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 기도를 위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참조, 마 26:27; 막 14:23; 눅 22:17-19). 이러한 사용에 통일성이 없다. 만일 이후의 독자들이 이것을 성만찬의 배경에서 해석하도록 의도한 것이었다면 요한은 그가 암시하는 바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었어야만 했을 것이다!

6:12 "버리는 것" 10:10 의 특별주제: *아폴루미*를 보라

6:13 "이에 거두니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의 "바구니"란 단어는 큰 손바구니를 말한다. 예수님께서 먹고 남은 어떤 음식도 버리지 않았던 것은 중요하다. 그는 그 떡의 본질(형태)을 바꾸지도 않으셨다.

"열 둘"이란 단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규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를 의미한다고 해석되거나(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다) 한 바구니는 각 제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지만(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만족해 하시고 그들을 위해 공급하신다), 그것은 단순히 목격자의 상세한 진술일 수 있다(19 절처럼).

6:14 "그 선지자" 이것은 신 18:15-22 의 메시아적 인용이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식했지만 그의 사역과 표적의 본질을 오해했다.

개역개정 6:15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6:15 군중들은 음식을 공급하신 예수님의 메시아적 기적으로 흥분되었다. 이 절은 마 4:3 의 악한 자의 유혹과 연관될 수 있다.

개역개정 6:16-21

16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6:17 "가버나움" 그의 고향 나사렛에서의 불신 때문에(참조, 눅 4:28-29) 예수님은 이 도시를 그의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로 만드셨다.

6: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실 때 그들은 호수의 절반쯤 건넜다. 마태는 이 이야기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간 것을 포함시켰다.

▣ **"그들이 두려워 하거늘"**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 표적의 종합적인 가치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재 평가하도록 하였다.

6:20 "내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출 3:12-15 에 야웨,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에고 에이미*) "스스로 있는 자"(참조, 4:26; 8:24, 28, 54-59; 13:19; 18:5-6)이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계시, 성육신하신 말씀(로고스)의 하나님, 참이고 오직 하나인 아들이시다.

▣ 제자들의 두려움은 막 6:49 에 표현되어 있다.

6:21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마가복음은 그들이 호수의 절반 정도까지 배를 저어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기적이었다(참조, 22-25 절).

개역개정 6:22-25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6:23 "디베랴" 이 도시는 주후 22 년에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건축되었고 그의 수도가 되었다.

개역개정 6:26-34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6:26, 32, 53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이것은 세 가지 구별되는 용법을 가진 히브리어 구절이다 (1) 구약에서 이 단어는 "신뢰"로 사용되었다. 이것의 비유적인 감각은 "견고한"을 의미하고 야웨에게 둔 믿음을 표현하는데 사용되었다. (2) 예수님의 사용은 진술의 중요성과 중대성을 소개하기 위해 표현되었다. 그 당시에 이런 의미로 사용된 "아멘"의 용법이 없다. (3) 구약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이것은 확언이나 동의의 말이 되었다.

▣ **"떡을 먹은 까닭이로다"** 그들의 동기는 육체적이고 순간적이었지, 영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

▣ **"그리고 배부른"** "포식하다"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종종 동물들에게 사용되었다(특별히 소들).

6:27 "일하지 말고" 이것은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 명령형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동의 멈춤을 의미한다. 이 구절의 구약배경은 사 5 장이다. 이 대화는 요한복음 4 장에 있는 우물가의 여자와의 대화와 많은 유사성이 있다.

▣ **"썩을"** 10:10 의 특별주제: *아폴루미*를 보라.

▣ **"그의 인치신"** 이것은 문자적으로 "인친"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신뢰, 소유, 권위와 안정의 표시였다(참조, 새영어성경 [NEB]과 마 28:18; 요 17:2). 현대영어성경과 새국제역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시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인"으로 번역했다.

6:28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이것은 1 세기 유대주의자들에게 종교적으로 중심되는 질문이었다(참조, 눅 18:18). 종교적 유대인은 다음과 같은 기초위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 (1) 그의 혈통 (2) 구전(탈무드)에 의해 해석된 대로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

6:29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으로서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을 수반한다. "믿다"라는 단어는 구원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 단어의 우선적인 의미는 의지적인 신뢰이다. 헬라어 단어 그룹 *피스티스*는 "믿다," "신뢰," 또는 "믿음"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인간의 믿음에 대한 초점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의 신실성, 헌신, 열성에 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의 직접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이지, 종교적 형식을 기대하는 그에 관한 정통 신학이나 윤리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선적인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인 복수형 "일들"을 단수형 "일"로 바꾸신 것을 주목하라.

6:30-33 이 그룹들이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 단순히 참여했다는 것은 기억돼야만 한다. 그들은 이미 그들의 기적들을 가지고 있었다! 랍비적 유대주의는 메시아가 만나를 보낸 것과 같은 구약의 어떤 일들을 반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참조, 바룩 이서 29:8). 랍비들은 모세보다 뛰어난 메시아에 대한 본문으로서 시 72:16 을 사용했다(참조, 고전 1:22).

29 절의 "그를 믿다"와 30 절의 "당신을 믿다"사이에는 중요한 문법적 특징이 있다. 첫 번째의 것은 요한의 일반적인 표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개인적인 초점이다. 두 번째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주장에 강조점을 두는 내용 중심의 초점이다. 복음은 사람과 메시지 모두인 것을 기억하라.

6:31 "기록된 바" 이것은 설명적인 완료 수동 분사형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성경을 인용했다고 알려주는 표준적 문법 형태였다. 이것은 구약의 영감과 권위를 확언하는 관용구였다. 이 인용 어구는 여러 구약 본문 중 하나를 말하거나 여러 본문이 하나로 결합된 것을 가리킨다: 시 78:24; 105:40; 출 16:4, 15, 또는 느 9:15.

6:32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학에 대해 말씀하신다. 신 18:15, 18 에 근거하여 그들은 메시아가 모세처럼 놀라운 일을 시행해야만 한다고 단언했다.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그들의 가정을 고치셨다: (1)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 (2) 비록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했지만 만나의 출처는 하늘이 아니었다(참조, 시 78:23-25) (3) 하늘의 참 떡은 지나간 일이 아닌 현재의 실체이신 예수님이시다.

6:33 "하늘에서 내려온 것"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3:13). 이것은 그의 수직적인 이원론이다. 예수님의 내려오심은 일곱 번 언급되었다(참조, 6:33, 37, 41, 42 , 50, 51, 58). 이것은 예수님의 선재하심인 신적 기원을 보여준다(참조, 33, 38, 41, 42, 50, 51, 58, 62 절). 이것은 또한 예수님이 참 떡이며 생명의 떡으로서 하늘로 부터 온 만나인것을 나타낸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 부터 내려온 사람"이다. 여기의 남성 현재 능동 분사는 (1) "떡" 이나 (2) 한 사람, 예수를 가리킨다. 요한복음에서 종종 이와 같이 다의성을 가진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두 가지 뜻의 어구).

▣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참조, 3:16). 목표는 잃어버린 자와 반역하는 세상적인 그룹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시대의 생명," "하나님의 것과 같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어떤 특별한 그룹이 아닌(유대인-이방인, 선택된 자-선택되지 않은 자, 보수주의자-자유주의자) 모든 자에게!

6:34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것은 요 4:14 의 우물가의 여자가 한 말과 비슷하다. 이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의 영적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개역개정 6:35-40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6:35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특징적인 "나는~이다"의 진술문 중 하나이다(참조, 6:35, 41, 48, 51; 8:12; 10:7, 9, 11, 14; 11:25; 14:6; 15:1, 5).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에 초점을 맞춘다.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광야에서 한 것처럼 메시아가 사람들을 먹일 것이라는 유대인의 전통과 관계가 있다. 예수님은 음식이 아닌, 그 자신이 참 생명의 열쇠임을 증거하기 위해 이 전통을 사용하셨다. 그는 이집트로부터가 아닌 죄로부터의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는 새 모세이다(즉, 신 18:15 의 "그 선지자").

▣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헬라어에서 두 개의 강한 이중 부정인으로서 "결단코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를 말한다 (참조, 37 절).

"오다"와 "믿다" 사이에 평행적인 관계가 있다(참조, 7:37-38). 그것들은 둘 다 현재 분사형이다. 믿는 자들의 오는 것과 믿는 것은 단회적인 결심이 아니라, 교제, 우정,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양식을 시작하는 것이다.

▣ **"주리지. . .목마르지"** 굶주림과 목마름은 종종 영적 실재를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시 42:1; 사 55:1; 암 8:11-12; 마 5:6).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구절의 근본적인 강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신학적인 진리를 말하는 두 개의 중요한 본문은 롬 9 장과 엡 1:3-14 이다. 두 개의 본문 모두 사람의 반응이 요구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로마서 10 장은 네 번의 "누구든지~하면"의 구절이 나온다. 이것은 또한 엡 2 장의 경우이다. 여기서 1-7 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논의는 8-9 절의 믿음과 연결된다. 예정은 구속을 위한 교리이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대한 장애물이 아니다. 그 교리를 풀기 위한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지 영원한 판결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모든 자는 또한 그에게 "온다"는 것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항상 일을 시작하시는데(참조, 44, 65 절), 이에 인간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참조, 1:12; 3:16).

▣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또 다른 강한 이중 부정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에게 오도록 모든 자를 부르시고 환영하신다는 진리를 강조한다(참조, 겔 18:21-23; 30-34; 딤전 2:4; 벧후 3:9).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시는데(참조, 44, 65), 이에 인간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참조, 막 1:15; 행 20:21). 보호에 대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참조, 롬 8:31-39).

특별주제: 그리스도인의 확신

확신은 성경적 진리이며, 또한 믿는 자의 믿음의 경험과 삶의 양식이다.

가. 확신을 위한 성경적인 기초는
- 1. 성부 하나님의 특성
  - ㄱ. 창 3:15; 12:3
  - ㄴ. 시 46:10
  - ㄷ. 요 3:16; 10:28-29
  - ㄹ. 롬 8:38-39
  - ㅁ. 엡 1:3-14; 2:5, 8-9
  - ㅂ. 빌 1:6
  - ㅅ. 딤후 1:12
  - ㅇ. 벧전 1:3-5
- 2. 성자의 사역
  - ㄱ. 그의 제사장적 기도, 요 17:9-24, 특히 12 절
  - ㄴ. 그의 대속적인 희생
    - 1) 롬 8:31
    - 2) 고후 5:21
    - 3) 요일 4:9-10
  - ㄷ. 그의 계속적인 중재
    - 1) 롬 8:34
    - 2) 히 7:25
    - 3) 요일 2:1
- 3. 성령의 일하심
  - ㄱ. 그의 부르심, 요 6:44, 65
  - ㄴ. 그의 인치심
    - 1) 고후 1:22; 5:5
    - 2) 엡 1:13-14; 4:30
  - ㄷ. 그의 계속적인 중재
    - 1) 롬 8:16-17
    - 2) 요일 5:7-13

나. 믿는 자에게 필요한 언약적인 반응은
- 1. 시작과 계속적인 회개와 믿음
  - ㄱ. 막 1:15
  - ㄴ. 요 1:12
  - ㄷ. 행 3:16; 20:21
  - ㄹ. 롬 10:9-13
- 2. 구원의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
  - ㄱ. 롬 8:28-29
  - ㄴ. 엡 1:4; 2:10
- 3. 확신은 삶의 양식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ㄱ. 야고보서
  - ㄴ. 요한일서
- 4. 확신은 능동적인 믿음과 인내로써 확인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 ㄱ. 막 13:13
  - ㄴ. 고전 15:2
  - ㄷ. 히 3:14
  - ㄹ. 벧후 1:10
  - ㅁ. 유 20-21

6:38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것은 성육신을 의미하는 완료형 시제이다(참조, 요 1:1 이하; 엡 4:8-10).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남아있다. 그것은 또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보여준다(참조, 41, 62 절).

▣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신약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되심과(참조, 14:8-9), 또한 삼위의 각 위격을 단언한다(참조, 14:8-9). 이 절은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계속적인 강조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5:19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6:39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37 절의 중성 단수 "모든"과 39 절의 중성 단수 사이에 분명한 관계가 있다. 요한은 이렇게 특별한 형식을 여러 번 사용했다(참조, 17:2, 24). 이것은 통합된 전체를 명백하게 강조한다(참조, 40, 45 절).

이것은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능력에 대한 크신 약속이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인에게 확신의 근원이 된다(참조, 요 10:28-29; 17:2, 24). 39 절은 완료시제이지만, 37 절의 동사는 현재 시제임을 주목하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구하다! 39 절의 마지막 두 확언은 둘 다 부정과거 능동태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시는 어느 누구도 잃지 않으시며(37 과 39 절) 그는 마지막 날에 그에게 주신 모든 자를 살리실 것이다(참조, 44 절). 이것이 (1) 선택하심과 (2) 인내의 거룩한 약속이다!

▣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날을 의미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말한다(참조, 40, 44, 54 절; 5:25, 28; 11:24; 고전 15 장). 프랭크 스태그는 그의 *신약 신학*에서 이 점에 대하여 도움이 되는 진술을 했다:

> "요한복음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관하여 강조하고(14:3, 18 이하, 28; 16:16, 22), 그것은 '마지막 날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한다(5:28 하반절, 6:39 이하, 44, 53; 11:25; 12:48);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 복음서를 통해 영생, 심판, 부활은 현재 경험하는 실체이다(3:18 이하; 4:23; 5:25; 6:54; 11:23 이하; 12:28, 31; 13:31 하반절; 14:17; 17:26)" (311 쪽).

6:40 "이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은 28 절의 질문인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다. 4:34 의 특별주제: 하나님의 뜻을 보라.

▣ **"아들을 보는 모든 자"** 현재 수동 분사로 된 "보는 것"과 "믿는 것"은 평행을 이룬다(35 절의 "오다"와 "믿다"처럼). 이것들은 한 번 만의 사건이 아닌, 계속되는 행동이다. "보는 것"이란 단어는 어떤 것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 "진지하게 뚫어지게 바라보다"를 의미한다.

▣ **"그를 믿으면"** 구원은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관계이지 신조, 바른 신학, 도덕적인 삶의 양식이 아님을 기억하라(참조, 3:16; 11:25-26). 이 강조점은 믿음의 대상에 있지 믿음의 강도에 있지 않다.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37a, 39, 44, 65 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37b, 40 절에서 인간이 믿음으로 하는 반응의 균형있는 강조를 주목하라. 이와 같은 성경적인 긴장은 계속될 것임에 틀림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성경적인 언약의 양면을 형성할 것이다.

▣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반응은 필수적이다(참조, 요일 5:11). 또한, 39 절은 집합적이고 40 절은 개인적인 것을 주목하라. 이것은 구원의 역설적인 모습이다.

개역개정 6:41-51

[41]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42]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6:41 "유대인들이 수군거려" 이것은 미완료 시제이다. 즉, 그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거나 계속해서 수근거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야시대(참조,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평행을 이루는 점은 인상적이다.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음식을 공급해 주었던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거부했다.

6:42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하신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재하심과 신성하심을 주장하기 위해 예수님은 분명한 유대식 어법을 사용하셨다!

6:43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형으로서 이미 진행 중에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것을 의미한다.

6: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신다(참조, 65 절과 15:16). 모든 영적 결정은 성령님의 간청의 결과이지, 인간의 종교성 때문이 아니다(참조, 사 53:6). 하나님의 주권과 위임된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과 자비에 의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끄심"(특별한 개인)에 대한 균형은 12:32 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신다"(모든 개인)에서 발견된다. 여기서 이끄심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끄시던 방법과는 반대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예: 사 6:9-13; 29:13; 예레미야서).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가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다(참조, 히 1:1-3).

특별주제: 부르심

하나님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믿는 자들이 그에게 오도록 간청하심을 항상 먼저 시작하신다(참조, 12 절; 요 6:44, 65; 15:16; 엡 1:4-5, 11). "부르심"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미에서 사용된다.

가.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루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초청받는다(즉, *클레토스*, 참조, 롬 1:6-7, 이것은 신학적으로 고전 1:1-2 와 딤후 1:9; 벧후 1:10 와 비슷하다).

나. 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즉, *에피칼레오*, 참조, 행 2:21; 22:16; 롬 10:9-13). 이 말은 유대적 예배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초청받는다(즉, *클레시스*, 참조, 고전 126; 7:20; 엡 4:1; 빌 3:14; 살후 1:11; 살후 1:9).

라. 믿는 자들은 사역에 초청받는다(참조, 행 13:3; 고전 12:4-7; 엡 4:1).

6:45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은즉" 이것은 사 54:13 또는 렘 31:34 에서 인용한 것이다.

▣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참조, 요일 5:1-12).

6: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확언은 오직 그를 통하여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다(참조, 요 1:18; 14:6, 9). 심지어 모세도 결코 하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참조, 5:32 의 설명을 보라).

6:47 이 절은 모든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제안을 요약한다("믿는 자," 현재 능동 분사: "영생," 참조, 51, 58 절; 3:15, 16, 36; 5:24; 11:26; 20:31).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계시이며,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오직 참된 문이지만(복음의 배타성), 이것은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에게 가능하다(복음의 포괄성).

6:50 31-35 절과 같이 이 절은 육적인 떡(만나)와 하늘의 떡(예수님)인 떡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육신의 떡은 육체적인 생명을 주고 유지시키지만, 그것은 계속 반복되어야만 하고 결국은 죽음을 막을 수 없다. 하늘의 떡은 영생을 주고 그것을 유지시키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고 양육되어야 하며 영적인 죽음(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죄와 자신과의 친밀한 교제)을 즉각적으로 끝내야 한다.

6:51 "나는 살아 있는 떡이니" 이것은 요한복음의 유명한 진술인 "나는~이다"중 하나이다(참조, 6:35, 48, 51). 이것은 그의 인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예수님의 문학적인 기교였다. 계시와 같이 구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되고 그분과의 사귐이다.

▣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은 어떤 음식의 공급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핵심적인 필요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은유이다.

개역개정 6:52-59

[52]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52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논쟁하다"
뉴킹제임스역(NKJV)	"싸우다"
신개정표준역(NRSV)	"다투다"
현대영어성경(TEV)	"화난 논쟁"
신예루살렘성경(NJB)	"논쟁하는"

미완료 시제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어떤 것이 시작되거나 어떤 것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싸움에 대한 강한 의미의 헬라어 단어이며(참조, 행 7:26; 딤후 2:23-24; 딛 3:9) 고후 7:5 와 약 4:1-2 에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문자적으로는 오해할 수 있는 은유적 표현으로 말씀하신다: (1) 니고데모, 3:4 (2) 사마리아 여자, 4:11 (3) 유대인 군중, 6:52 (4) 제자들, 11:11.

6:53-57 53-54 절의 동사들은 매우 흥미롭다. 53 절의 "먹다"와 "마시다"는 의지적으로 가능성있는 주도적 행동을 말하는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 54 절의 동사 "먹다"와 "마시다"는 계속되는 행동을 강조하는 현재 능동 분사이다(참조, 56, 57, 58 절). 이것은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께 주도적으로 반응하고 계속적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44 절).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피를 마시는 혐오스러운 일로 유대인에게 오해될 수 있다(참조, 레 17:10-14). 광야에서 주신 만나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암시를 받아들이는 것과, 그 암시를 성만찬과 글자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역사적 상황과 문자적 문맥의 완전한 혼동이다.

6:54 "살과 피" 이것은 "마음"과 마찬가지로 전체의 사람을 의미하는 유대식 은유적 표현이다.

6:55 "참된 양식. . .참된 음료" 이것은 참/진리의 단어에 대한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사용이다(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다른 신약의 저자들보다 늦게 기록한 요한은 여러 이단이 일어남을 보았다(침례(세례)요한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성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인간의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영지주의).

특별주제: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또한 17: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어떤 의미에서 요한은 *로고스*에서 그랬던 것처럼(참조, 1:1-14), *알레쎄이아*, "진리"에 대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배경을 결합시킨다. 히브리어에서 *에메쓰*는 참이나 진리를 의미한다(종종 70 인역에서 *피스튜오*와 연합하여). 헬라어에서는 그것은 플라톤의 실재와 실재하지 않는 것, 하늘과 땅과 연합된다. 이것은 요한의 이원론과 부합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아들안에서 그 자신을 계시하셨다(*알레쎄이아*의 어원은 노출하다, 드러내다, 명백히 나타내다).

1. 명사, *알레쎄이아*, 진리
   ㄱ.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다(참조, 1:14, 17 – 구약의 언약적 용어)
   ㄴ. 예수님은 침례(세례) 요한의 증거에 초점이시다(참조, 4:33; 18:37 –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ㄷ.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신다(참조, 8:4, 44, 45, 46 – 계시는 명제적이고 개인적이다)
   ㄹ. 예수님은(*로고스*, 1:1-3) 진리이시다(참조, 17:17)
2. 형용사, *알레쎄스*, 바른, 진리의
   ㄱ. 예수님의 증인들(참조, 5:31-32; 7:18; 8:13-14)
   ㄴ. 예수님의 심판(참조, 8:16)
3. 형용사, *알레씨누스*, 실제의
   ㄱ.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참조, 1:9)
   ㄴ. 예수님은 참 떡이시다(참조, 6:32)

ㄷ.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참조, 15:1)
ㄹ. 예수님은 참 증인이시다(참조, 19:35)
4. 부사, *알레쎄오스*, 진실로
ㄱ.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증거한다(참조, 4:42)
ㄴ. 예수님은 모세 시대의 만나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참 음식이시며 음료이다(참조, 6:55)
진리란 단어와 그것의 파생어는 또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표현한다, *알레쎄스*
ㄱ. 침례(세례) 요한의 증거는 참이다(참조, 10:41)
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군인 중 한 명의 증거는 참이었다(참조, 19:35)
ㄷ. 요한(요한복음서의 저자)의 증거는 참이었다(참조, 21:24)
ㄹ.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보였다(참조 6:14; 7:40)
구약과 신약에서의 진리에 대한 훌륭한 논의를 위해 죠지 라드의 *신학신약*을 보라, 263-269 쪽.

6:56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같은 진리는 요 15:4-7; 요일 2:6, 27, 28; 3:6, 24 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성도의 인내에 대한 신약의 계속적인 강조이다(참조, 갈 6:9; 계 2:7, 11, 17, 26; 3:5, 12, 21). 참된 반응은 계속적인 반응에 의해 증명된다. 인내에 대한 강조는 미국의 복음주의에서 놓치고 있는 요소이다.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시작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마쳐야 한다. 요나단 에드워드는 "선택된 것의 참된 증거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W. T. 코너는 "구원으로 선택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음에 달려있는데, 그 믿음은 인내하고 정복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했다.

6:57 "살아 계신 아버지" 이 구절은 독특하지만, 그 개념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하나님을 일컫는 이 호칭의 근원을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

1.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름(참조, 출 3:12, 14-16; 6:2-3)
2. 하나님에 의한 맹세, "내가 살아 있는 것을 두고" 또는 하나님의 이름안에서, "주가 살아 계시거니와"(참조, 민 14:21, 28; 사 49:18; 렘 4:2)
3. 하나님에 대한 묘사로서(참조, 시 42:2; 84:2; 수 3:10; 렘 10:10; 단 6:20, 26; 호 1:10; 마 16:16; 26:63; 행 14:15; 롬 9:26; 고후 3:3; 6:16; 살전 1:9; 딤전 3:15; 4:19; 히 3:12; 9:14; 10:21; 12:22; 계 7:2)
4. 요 5:26 에서 아버지는 그 안에 생명을 가졌고 아들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과, 5:21 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진술.

6:58 이것은 구약과 신약,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다(히브리서를 보라.)

▣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이것은 혈통을 통한 구원이나(참조, 8:33-39) 모세 율법을 통한 구원을 거부하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질 수 있다.

6:59 예수님은 그의 시대에 유대주의를 경험했다. 회당에서 배웠고, 회당에서 예배드렸으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는 율법의 모든 기대를 이루셨다.

회당은 기본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작되었다(주전 605-538 년).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열 명이 있는 모든 곳에 예배와 가르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시작했다. 이러한 장소들은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지키는 보루가 되었다.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돌아와 성전예식을 다시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러 장소에서 모이는 것을 계속 유지했다.

개역개정 6:60-65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0 "제자 중 여럿이" "제자"라는 단어의 사용은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와 "믿다"는 (1) 진실된 추종자들(68 절) (2) 일시적인 추종자들(64 절, 참조, 8:31-47) 모두에게 사용되었다.

6:62 이것은 미완성 조건절의 제 1 유형 으로서 결론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의미는 그들이 볼지라도 그들이 반응하기를 너무 늦추어서 그 결과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참조, 빌 2:10-11).

▣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이 이 점에 계속되는 강조가 주어진다. 이것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그의 선재하심과,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한 그의 친밀한 교제를 말한다(참조, 17:5, 24).

6:63 6 장의 좀 더 넓은 상황 때문에 이 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 모세와 예수님께 관계될 것이다(참조, 58 절; 고후 3:6; 히브리서에서의 두 언약에 대한 비교).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것은 예수님과 성령님 모두에게 사용한 많은 구절 중의 하나이다: (1)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물이다(7:38-39); 예수님은 살아계신 물이다(4:10-14) (2)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14:17; 15:26; 16:13); 예수님은 진리이시다(14:6) (3)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14:16, 26; 15:26; 16:7) 그리고 예수님은 대언자이시다(요일 2:1). 16 장의 마지막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6:64 겉보기와는 다르게 거짓 추종자였던 사람들은 거짓 추종자들로 밝혀졌다—유다(참조, 70-71; 13:11). 믿음의 단계와 연관되어 참으로 불가사의한 면이 있다.

6:65 이것은 44 절과 같은 진리를 표현한다. 타락한 인간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시작할 수 없다(참조, 연속된 구약의 인용 롬 3:9-18). 6:44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6:66-71

[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6:67 "열 둘"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도에 대한 집합적인 단어로 처음 사용되었다(참조, 6:70, 71; 20:24).

6: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베드로는 열 두 제자의 대변인이었다(참조, 마 16:16). 이것은 그들이 베드로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막 9:34; 눅 9:46; 22:24).

▣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기독교에는 두 가지 진리가 있다 (1) 메시지에 들어있는 진리인 "영생의 말씀" (2) 사람안에 표현된 진리인 예수.

6:69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의 두 동사는 모두 완료형 능동 직설법이다. 53 절의 구원은 과거에 완료된 일을 말하는 부정과거 시제이다. 40, 53, 54, 56, 57 절의 구원은 계속 진행 중임을 의미하는 현재 시제이다. 여기의 구원은 완료 시제로 되어있다. 이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고 그 정점에 이른 행동이 그 결과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임을 의미한다. 참 구원은 헬라어 동사의 모든 시제를 포함한다:

1. "구원받은" – 부정과거, 롬 8:24
2. "구원받고 있는" – 현재, 고전 1:18; 15:2
3. "구원받아진" – 완료, 엡 2:5, 8
4. "구원될" – 미래, 롬 5:9, 10; 10:9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신개정표준역(NRSV), 신예루살렘성경(NJB)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다"
뉴킹제임스역(NKJV)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다"
현대영어성경(TEV)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한 자이다"

여기에 사본의 문제가 있다. 좀 더 짧은 본문(신미국표준역 개정판, 신개정표준역, 신예루살렘역)은 고대 헬라어 사본 P^{75}, א, B, C^*, D, L, W 에 의해 지지된다. 분명한 것은 나중의 서기관이 11:27 의 마르다의 고백에서 또는 16:16 의 베드로의 고백에서 부가적인 말을 삽입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구절은 구약의 메시아적 호칭이다. 이것은 눅 1:35 와 행 3:14 를 암시한다. 이 호칭은 막 1:24; 눅 4:34 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것이다.

6:70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제자들의 신성한 선택에 대한 또 다른 강조이다(참조, 44, 65 절). 67 절의 예수님의 질문을 주목하라. 신성한 선택과 인간의 의지는 성경적인 긴장속에 있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언약적인 관계의 두 면이다.

▣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얼마나 놀라게 하는 말씀인가! 이것은 돌아간 주변의 제자들 중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참조, 66 절), 그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열 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을 말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을 13:2, 또는 27 절에 연관시킨다. 여러 가지 질문이 이 절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관계되어 있다: (1) 왜 예수님은 마귀를 선택하셨나? (2) 문맥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은 예언적인 예언과 관련된다(참조, 17:12; 시 41:9). 예수님은 유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 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궁극적인 예이다. 그는 듣고, 보고, 몇 년 동안 그와 함께 지낸 후에 예수님을 거부했다.

두 번째 질문은 두 가지의 가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유다에게 들어간 마귀(행 13:10 과 계 20:2 에서 관사 없이 사탄을 사용했다)와 연결짓는다(참조, 13:2, 27) 또는 (2) 아마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 같다(딤전 3:11; 딤후 3:3; 딛 2:3 에서처럼 관사가 없다). 유다는 사탄이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소자였다. 그것의 헬라어 단어는 중상자 또는 고자질쟁이를 의미한다. 이 헬라어 단어는 "내 던지다"를 뜻하는 합성어이다.

6:71 "가룟 시몬" 가룟이란 이름의 배후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1) 히브리어로는 키리옷이라는 유다의 한 도시로부터 온 사람을 뜻한다(참조, 수 15:25). 만약 이 가정이 맞다면 유다는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닌 사도였다 (2) 헬라어로는 유대인 암살자들이 사용하던 칼의 이름이다. 그 암살자는 유대의 극단적인 국수주의 그룹인 열심당원이었다. 18:1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팔다"** 이 헬라어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었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지도자들에게 넘길 때와 관련해서, 그것은 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한복음 6 장은 주의 만찬에 관한 논의인가? 왜 그런가 또는 왜 그렇지 않은가?
2.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가?
3. 예수님은 왜 군중을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7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형제들의 불신	예수의 형제들이 믿지 않다	생수이신 예수	예수와 그의 형제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르치시다
7:1-9	7:1-9	7:1-9	7:1-9	7:1
초막절의 예수	하늘의 학자		초막절의 예수	7:2-9
7:10-13	7:10-24	7:10-13	7:10-11	7:10-13
			7:12-13	
		7:14-18	7:14-15	7:14-24
			7:16-19	
		7:19-24		
			7:20	
			7:21-24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그는 메시아인가?	사람들은 메시아의 근원을 논의했다.
7:25-31	7:25-31	7:25-31	7:25-27	7:25-27
			7:28-29	7:28-29
			7:30-31	7:30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보내진 관리들	예수님과 종교지도자들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경비원들이 보내졌다	예수께서 자신이 곧 떠나갈 것을 말씀하다
				7:31-34
7:32-36	7:32-36	7:32-36	7:32-34	
			7:35-36	7:35-36
생수의 강	성령의 약속		생명을 주는 물의 강	생수의 약속
7:37-39	7:37-39	7:37-39	7:37-39	7:37-38
				7:39
사람들의 분열	그는 누구인가?		사람들의 분열	메시아의 근원에 대한 새로운 발견
7:40-44	7:40-44	7:40-44	7:40-44	7:40-44
권력자들의 불신앙	권력자들에게 거부받음		유대 권력자들의 불신앙	
7:45-52	7:45-52	7:45-52	7:45	7:45-52
			7:46	
			7:47-49	
			7:50-51	
			7:52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52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배경

가. 5 장과 6 장의 배경은 유월절이다. 7:1 부터 10:21 의 배경은 초막절이다(7:2 이하).

나. 초막절은 우선적으로 수확에 대한 감사였다(맥추절로 불림, 참조, 출 23:16; 34:22). 이것은 또한 출애굽의 경험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했다(초막절이라 불림, 참조, 레 23:29-44; 신 16:13-15). 이것은 현재의 9 월 하순부터 10 월 초순에 걸쳐있는 티쉬리달 15 일에 일어났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7:1-9

[1]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7:1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함이러라"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종종 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참조, 1:19; 2:18, 20; 5:10, 15, 16; 6:41, 52; 7:1, 11, 13, 35; 8:22, 52,57; 9:18, 22; 10:24, 31, 33; 11:8; 19:7, 12; 20:19). 그들의 미움과 살인적인 의도는 여러 차례 기록되었다(참조, 5:16-18; 7:19, 30, 44; 8:37, 40, 59; 10:31, 33, 39; 11:8, 53).

7: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이것은 또한 장막절이라고 불렸다(참조, 레 23:34-44; 신 16:13-17). 수확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은 들에 나가 유대인들의 출애굽 경험을 기억하며 작은 천막에서 지냈다. 5-6 장의 유월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절기의 의식과 예식은 7:1-10:21 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경을 제시한다.

7:3 "그 형제들" 이것은 2:12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다. 그들이 예수님의 동기, 방법,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하다.

▣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것은 갈릴리을 떠나 예루살렘으로으로 여행하는 연중 순례자(참조, 눅 2:41-44)의 무리를 의미한다.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 사역에 요한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7:4 "공개적으로"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담대함 (*파레시아*)

이 헬라어 단어는 "모두"(*판*)와 "연설"(*르헤시아*)의 합성어이다. 연설에 있어서 자유와 담대함은 종종 반대와 거부하는 가운데에서의 담대함을 의미했다(참조, 요 7:13; 살전 2:2).

요한의 글에서(13 번 사용됨) 이것은 종종 공공적인 선포를 의미한다(참조, 요 7:4, 또한 바울의 글, 골 2:15).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단순하게 "분명히"를 의미한다(참조, 요 10:24; 11:14; 16:25, 29).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그의 계획과 약속에 대하여(참조, 행 2:29; 4:13, 29, 31; 9:27-28; 13:46; 14:3; 18:26; 19:8; 26:26; 28;31)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같은 방법으로(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말한다. 바울은 그가 복음을 담대하게 설교하고(참조, 엡 6:19; 살전 2:2) 복음을 따라 살도록(참조, 빌 1:20) 기도를 요청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둔 종말론적 소망은 그때의 악한 시대에서 그가 복음을 설교하는데 있어서 담대함과 확신을 주었다(참조, 고후 3:11-12). 그는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적절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고후 7:4).

이 단어에 대한 또 한 가지 다른 면이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는(참조, 히 3:6; 4:16; 10:19, 35) 독특한 의미로서 그것을 사용한다. 믿는 자들은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받아들여지고 환영받는다!

▣ **"만약"** 이것은 저자의 관점에서 참인 것을 가정하는 조건절의 제 1 유형이다.

7: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당신이 같은 집에서 성장했을 때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임이 틀림없다(참조, 막 3:20-21). 예수님은 마리아가 낳은 그의 형제 자매를 돌보았다. 그의 부활후 나타나신 것 중의 한 가지 목적은 그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믿게 되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는 둘 다 신약 정경에 포함되는 성경을 기록했다.

▣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예수님은 그들이 4 절에서 사용한 "세상"이란 단어에 대하여 7 절에서 설명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것의 거역과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참조, 3:19-20),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고 공감하기 보다는 배척했다 (참조, 15:18-19; 17:14; 요일 3:13).

7:6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알고 계셨다(참조, 12:23; 13:1; 17:1-5). 이와 같은 복음서의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

7:8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너희들 자신은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
뉴킹제임스역(NKJV)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신개정표준역(NRSV), 신예루살렘성경(NJB)	**"너희들 자신은 잔치에 가라. 나는 이 잔치에 가지 않는다"**
현대영어성경(TEV)	**"너희는 잔치에 가라. 나는 이 잔치에 가지 않는다"**

여러 가지 헬라어 사본들(א와 D)에는 "아직"이라는 부사가 없다(참조, 뉴킹제임스역). 이것은 8 절과 10 절사이의 분명한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초기의 필사(서기)적인 시도로 보인다. 이 부사는 MSS P^{66}, P^{75}, B, L, T, W(뉴킹제임스역, 21 세기 신약성경, 새국제역)에 들어 있다.

개역개정 7:10-13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11] 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7:11 "유대인들" 이 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별개의 4 그룹이 있다: (1) 그의 형제들 (2) 종교적 지도자들을 일컫는 "유대인들" (3) 초막절에 참석하려고 오는 순례자들을 일컫는 "군중" (4) 산헤드린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계획을 아는 지역 사람들인 "예루살렘 사람들."

7: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이것은 복음이 각 군중속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영적 이해가 각기 다른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참조, 7:40-44).

7:13 "유대인들" 전체 군중은 유대인이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적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요한의 특별한 사용을 보여준다. 7:1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7:14-18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7: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이 순간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 순례자들과 도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 대해 토론할 시간을 주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적대심을 공공연히 나타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참조, 13 절).

7:15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느 공식적인 랍비학교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어느 주목되는 랍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람"이라는 말의 사용은 경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참조, 18:17, 29).

(1) 내용 (2) 형식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참조, 막 1:21-22; 눅 4:22). 다른 랍비들은 서로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용한다고 주장했다!

7:16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그의 순종(5:19 의 설명을 보라)뿐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그의 특별한 지식에 다시 주의를 이끄셨다. 그들은 땅의 선생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선생이셨다.

7:17 "만약"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이것은 잠재력있고 가능성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복음의 우주적인 제시와(참조, 1:12; 3:16) 하나님의 주권(참조, 6:44, 65)에 대한 역설이다. 성령께서 마음을 여셔야만 한다(참조, 16:8-13).

7:18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위해 그 자신의 독특성을 주장하셨다: (1) 그는 그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2) 그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3) 그는 참이시다 (4) 그는 죄가 없으시다.

▣ **"자기 영광"** 1:14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7:19-24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7:19 이 문법구조는 "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루살렘에서, 지켜야만 하는 절기에 참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말씀임에 틀림없다.

모세 율법에 계획적인 살인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다. 지역 사람들은 이것은 알았지만 그들의 계획을 멈추게 하려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그것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절의 질문은 종교적 지도자들에게서가 아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전혀 모르는 순례자의 무리에게서 나온 것이다.

종교적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통찰력을 교묘히 둘러대어 피하기 위해 그가 귀신들렸다고 비난했다(참조, 마 9:34; 11:18; 12:24; 막 3:22-30; 요 8:48-52; 10:20-21).

7:20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예수님께서 영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 질문은 그 능력이 어디로서냐? 이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표적/기적"을 부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과 마귀로부터 그 능력이 온다고 주장했다.

이 상황에서 초막절에 참석했던 순례자들의 무리는 같은 말을 사용했지만, 다른 의미였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이성적이고 과대망상적인 행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7:22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에게서가 아니라,조상들에게서라)"**
신개정표준역(NRSV)	**"(물론 이것은 모세에게서가 아니라, 열조들에게서라)"**
현대영어성경(TEV)	**"(비록 이것은 모세가 아닌 그것을 시작한 너희 선조들이었다)"**
신예루살렘성경(NJB)	**"—이것은 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열조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할례의식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시작한 것이 아니라(참조, 출 12:48; 레 12:3) 야웨와 함께 한 특별한 언약의 표시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었다(참조, 창 7:9-14; 21:4; 34:22).

▣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들이 아기가 할례받을 수 있도록 안식일의 규례는 기꺼이 제쳐놓으면서, 사람의 전신이 건강케 되는 일에는 안식일 규례 제쳐놓기를 기꺼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본질이다. 이 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랍비식 유대주의의 논리와 사고 체계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7:2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그의 저술 목적을 위해 사실인 것을 가정한다.

▣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이것은 5:1-9 에 기록된 병 고치심이나 또는 절기 기간동안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병 고치심 모두를 의미한다.

7: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명령형으로서 진행 중인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긴급함을 의미하는 부정과거 명령형이 뒤따라온다. 이것은 사 11:3 을 암시하는 듯 하다.

개역개정 7:25-31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31]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7:25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 질문의 문법구조는 "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참조, 5:17; 7:19). 이것은 36 절까지 이어지는 질문들 중 첫 번째 것이다.

7:26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 줄 참으로 알았다 그렇지 않은가"**
뉴킹제임스역(NKJV)	**"당국자들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정말로 알았는가"**
신개정표준역(NRSV)	**"권위자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을 참으로 알 수 있었는가"**
현대영어성경(TEV)	**"그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참으로 알 수 있었는가"**
신예루살렘성경(NJB)	**"권위자들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해 온 것이 참일 수 있는가"**

이 문법구조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7: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말 3:1 을 기초로 한 랍비식 메시아적 전통을 의미한다. 그들은 메시아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날 것으로 믿었다. 이것은 에녹 I 서 48:6 과 에스라 IV 서 13:51-52 에서 발견된다.

7:28 이 절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내용을 말씀했다: (1)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참조, 3:17, 34; 5:36, 38; 6:29; 7:29; 8:42; 10:36; 11:42; 17:3, 18, 21, 23, 25; 20:21 (2)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참조, 5:42; 8:19, 27, 54-55; 16:3).

▣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아버지는 참이고(참조, 3:33; 8:26; 요일 5:20) 그래서 아들도 참이다(참조, 7:18; 8:16). 6:55 의 특별주제를 보라.

7: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성모독으로 여겨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필요를 확인해 주었다.

7: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이것은 미완료 시제의 동사로서 다음을 의미한다 (1) 그들은 그를 잡으려고 찾기 시작했다 (2) 그들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믿고 있는 순례자들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것은 반복되고 있는 예언적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낸다(참조, 2:4; 7:6, 30; 8:20; 12:23, 27; 13:1; 17:1).

7:31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비록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나타냈다. 아무도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참조,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열 두 제자).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헬라어 문법구조는 "아니오"란 대답을 기대한다.

> *신약신학*에서 죠지 라드는 예수님께 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한 표적의 사용에 대해 흥미있는 설명을 했다:
>
> 그 내용을 다른 두 방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과 표적에 대한 관계성의 질문은 쉽지 않다. 때때로 표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인도하기 위해 계획된다(2:23; 6:14; 7:31; 10:42). 어떤 경우에,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6:27; 11:47; 12:37).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만약 그들이 표적을 보지 않는다면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꾸짖으신 경우도 있다(4:48; 6:30). 표적과 믿음에 대한 얼마간의 긴장에서 그 대답이 발견될 것이다. 표적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참된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된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표적은 단순히 경탄할 일에 지나지 않는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믿음을 확고히 하고 깊게 하는 도구이다. 예수님의 표적이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의 사역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증거가 된다.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들의 죄로 소경된 자들에 대한 저주와 그들의 소경됨을 확인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274 쪽).

개역개정 **7:32-36**

[32]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7:32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것은 산헤드린의 구성원을 의미한다. 오직 한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로마 통치시대 이후로 그 직임은 부유한 여러 유대인 가족들에 의해 거래되는 정치적 이권직이 되었고, 한 가족 구성원에서 가족의 다른 구성원으로 전해졌다.

▣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이것은 레위인들이었던 성전 경비병을 의미한다. 그들은 성전의 바깥 구역만을 담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7:45, 46; 18:3, 12, 18, 22).

7:33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일상적인 문구이다(참조, 12:35; 13:33; 14:19; 16:16-19).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그에게 무슨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알고 계셨다(참조, 12:23; 13:1; 17:1-5).

▣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의 결론적인 사건들을 말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승천, 이미 갖고 계시던 영광의 회복(참조, 17:1-5).

7:34 이것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말씀과 매우 비슷하다(13:33; 참조, 7:36; 8:21).

7:35-36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이 헬라어 구조는 "아니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이것은 또 다른 역설의 사용이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었다(참조, 창 3:15). 초막절 기간동안 70 마리의 숫소가 세상의 민족들을 위하여 드려졌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빛을 나눠주고 기도할 의무가 있었다. 이것은 이

문장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한다. “헬라인”이란 단어는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디스페리아*”라는 단어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을 의미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유적 표현을 군중들이 오해한 또 다른 예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직적인 이원론의 또 다른 예이다. 군중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와 “아래”의 개념 대신 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께로 부터 오셨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개역개정 7:37-39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것이 칠 일 동안의 명절이었는지(참조, 신 16:13), 팔 일 동안의 명절이었는지(참조, 레 23:36; 느 8:17; 마카비 II 서 10:60; 요세푸스)에 대한 질문이 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팔 일 동안의 명절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칠 일 동안 그랬던 것과는 다르게 실로암 못에서 물을 가져오거나 그것을 제단 위에 뿌리지 않았다. 우리는 사 12:3 을 인용한 탈무드의 수카 소책자에서 이 의식에 대해 알 수 있다. 이것은 비와 농작물을 위한 눈에 보이는 기도일 것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가능성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우주적인 초청이다! 7:17 의 설명을 보라.

▣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4:13-15 와 같은 은유를 사용하셨다. 이것은 물을 공급했던 구세주의 바위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고전 10:4). 이것은 분명히 사 55:1-3 에 있는 구약의 초청과 명절 기간 동안 상징적으로 물을 붓는 문화적인 기회와 관계가 있다.

어떤 초기 고대 헬라어 사본은 “나에게”가 생략되었다(참조, MSS P^{66}, $\aleph^{*}$, D). 이것은 P^{66c}, P^{75}, $\aleph^{c}$ 에 포함되었고 문맥으로 암시된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격려한다. 이 복음서는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

7:38 “나를 믿는 자” 이것이 현재 시제의 분사임을 주목하라. 요 15 장의 “거함”과 같이 이것은 믿는 것에 포함된 계속되는 개인적인 관계에 중점을 둔다. 8:31 의 특별주제:인내의 필요를 보라.

▣ **“성경에 이름과 같이”** 이것을 인용하는 특별한 성경구절을 찾기는 어렵다. 사 44:3; 58:11; 겔 47:1; 슥 13:1; 14:8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앞의 대명사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다: (1) 예수님 자신(참조, 초대교회 교부들, 새영어성경) (2)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신뢰해 온 사람들(P^{66}, 오리겐) (3) 예루살렘 시. 아람어에서, “그의”는 “그녀의”를 의미할 수 있고 그 도시를 의미할 수 있다(이것은 랍비들의 의견이다, 참조, 겔 47:1-12; 슥 14:8).

예수님은 그 자신을 생수라고 불렀다(참조, 4:10). 지금 이 문맥에서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안에서 생수를 공급하고 만들어 내시는(참조, 고든 피, *주해의 목적은 무엇인가*? 83-87 쪽) 성령이시다(참조, 39 절). 이것은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성령의 역사와 병행을 이룬다(참조, 롬 8:29; 갈 4:19; 엡 4:13).

7:39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분명히 이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요한이 나중에 생각한 것을 정리했을 것이다(참조, 16:70). 이것은 또한 영광으로 보여지는 갈보리와 오순절의 중요성을 보여준다(참조, 요 3:14; 12:23; 17:1 이하).

개역개정 7:40-44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7:40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이것은 신 18:15, 18 에서 발견되는 모세의 메시아적 약속을 암시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식했다(참조, 4:19; 6:14; 9:17; 마 21:11).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지만, 그의 인성과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슬렘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 칭호를 사용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이해하지 못한다.

7:41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이것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 "메시아"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약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의 표현으로써 기름부음을 받았다.

▣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헬라어 문법구조는 이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사 9:1 은 무엇인가?

7:42 이 질문의 문법적 구조는 "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 **"다윗의 씨"** (참조, 삼하 7 장; 마 21:9; 22:42).

▣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 이것은 또 다른 역설적인 사용이다(참조, 미 5:2-3; 마 2:5-6).

7:43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는 항상 분리를 일으켰다(참조, 7:48-52; 9:16; 10:19; 마 10:34-39; 눅 12:51-53). 이것은 밭에 대한 신비한 비유이다(참조, 마 13 장). 어떤 사람은 영적 귀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참조, 마 10:27; 11:15; 13:9, 15(두 번), 16, 43; 막 4:9, 23; 7:16; 8:18; 눅 8:8; 14:35).

개역개정 7:45-52

[45]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52]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7:46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간증이다: (1)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핑계가 되어 온 군중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언급하지 않았다. (2) 여기의 성전 경비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만장일치였지만, 군중들은 나누어졌다 (3)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명령을 따르는데 익숙했다.

7: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7 절과 48 절 모두 헬라어 문법구조상 "아니오"란 대답을 기대한다. "당국자"라는 단어는 산헤드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우 적대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전체의 산헤드린 구성원) 여기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에 일치한다(참조, 11:47, 57; 18:3).

7: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것은 그들이 구전되는 모든 전통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당하는 "땅의 사람들"(*암 하 아레스*)을 의미한다(참조, 신 27:26).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행동이 율법을 범한다는 50 절의 니고데모의 지적을 통해 요한의 역설은 계속된다.

아, 종교성의 비극이여! 대중을 저주하는 바로 그 사람들 자신이 저주받았다! 만약 빛이 어두움이 되었다면, 얼마나 어두움이 컸단 말인가! 현대의 보수적이고 교육받은 종교주의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7: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헬라어 문법구조는 "아니오"란 대답을 기대한다(참조, 출 23:1; 신 1:16).

7:52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산헤드린의 감정적인 적대심을 보여준다.

▣ **"찾아보라"** "찾다"라는 단어는 유대주의에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의미이다(참조, 5:39). 이것은 다시 요한이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엘리야(참조, 왕상 17:1), 요나(참조, 왕하 14:25), 호세아, 나훔에 대하여는 어떤가? 그들은 신 18:15, 19; 창 49:10; 삼하 7 장에 나오는 "그" 선지자에 대해 말한 것이다.

7:53-8:11 8 장의 처음에 있는 설명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7 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절기적 배경은 무엇인가?
2. "초막절"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라.
3. 종교적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도 적대시 했는가?
4. 이 장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열거해보라.

요한복음 8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한 여인이 세상의 빛을 만나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간음한 여자
7:53-8:11	7:53-8:12	7:53-8:11	7:53-8:10	7:53-8:11
세상의 빛이신 예수	예수께서 자신의 증거를 변호하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	세상의 빛이신 예수	세상의 빛이신 예수
8:12-20		8:12-20	8:12	8:12
				자신에 대한 예수의 증거로 생긴 논의
	8:13-20		8:13	8:13-18
			8:14-18	
			8:19a	8:
			8:19b	
			8:20	8: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께서 자신의 떠나심을 예언하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8:21-30	8:21-29	8:21-30	8:21	8:21
			8:22	8:22-24
			8:23-24	
			8:25a	8:25a
			8:25b-26	8:25b-25
	진리가 너희를 반드시 자유케 하리라		8:27-29	8:27-29
	8:30		8:30	8:30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과 아브라함
8:31-38		8:31-33	8:31-32	8:31-32
			8:33	8:33-38
	아브라함과 사탄의 씨	8:34-38	8:34-38	
너희 아비 마귀	8:37-47			
8:39-47		8:39-47	8:39a	8:39-41a
			8:39b-41a	
			8:41b	8:41b-47
			8:42-47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예수와 아브라함	
8:48-59	8:48-59	8:48-59	8:48	8:48-51
			8:49-51	
			8:52-53	8:52-56
			8:54-56	
			8:57	8:57-58

			8:58	
			8:59	8:59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7:53-8:11 의 본문 배경

가. 요 7:53-8:11 은 요한복음의 원래의 부분은 아니었다.

나. 이 본문이 복음서에서 생략되어진 증거는
 1. 외적 증거
  ㄱ. 가장 오래된 헬라어 사본에서의 부재
   1) 파피루스 - P^{65}(3 세기 초), P^{75}(3 세기)
   2) 언셜체 - ℵ(4 세기), B(4 세기), A 와 C 로부터의 부재의 가능성.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이 손상되었지만, 사본의 남은 부분을 맞추어 보았을 때 이 본문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다.
  ㄴ. 이 본문이 포함된 나중의 많은 헬라어 사본에 이것이 원래의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별표와 같은 특별한 기호나 표로 표시를 해 놓았다.
  ㄷ. 이것은 여러가지 다른 위치에서 다른 후의 사본에서 발견된다.
   1) 요 7:36 다음
   2) 요 7:44 다음
   3) 요 7:25 다음
   4) 눅 21:38 다음
   5) 눅 24:53 다음
  ㄹ. 고대 번역본에서의 부재
   1) 고대 라틴어 번역본
   2) 고대 시리아 번역본
   3) 페쉬타의 초기 사본(후기 시라아 사본)
  ㅁ. 어느 헬라어 교부도 이 본문에 대해 어떠한 비평도 하지 않았다(12 세기 까지)
  ㅂ. 이것은 코덱스 D(베자에), 6 세기의 서방 사본, 라틴 불가타역, 페쉬타의 후기 사본들에 존재한다.
 2. 내적 증거
  ㄱ. 어휘와 형식이 요한복음 보다 누가복음과 비슷하다. 어떤 헬라어 사본에서는 눅 21:38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사본에서는 눅 24:53 다음에 이 절들이 위치한다.
  ㄴ. 이 부분은 초막절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논의에 대한 문맥을 완전히 끊는다, 7:1-52; 8:12-59.
  ㄷ. 공관복음서와 평행되지 않는다.
 3. 완전한 전문적인 토의를 위해 브루스 매츠거의 *신약 헬라어 본문 주석*을 보라, 219-221 쪽

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진짜 구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요 20:30-31). 영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복음서 저자들이다. 후기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이야기를, 심지어 믿을만하더라도 그것이 영감된 원저자에 의해 포함된 것이

아닌 것은, 포함할 권한이 없었다. 원저자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선택하고, 조정하며, 채택할 통찰력을 가졌다. 이 본문은 원래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감되지 않았고 우리의 성경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라. 나는 이 본문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믿기로는 이것이 요한의 펜으로부터가 아니고, 그러므로 영감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심지어 역사적으로도).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8:12-20

[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3]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19]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8:12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군중"은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분명히 초막절은 지나갔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시면서 성전에 남아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명절의 물 의식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때에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명절의 빛 의식을 사용하셨다.

▣ **"나는 세상의 빛이니"** 6-8 장은 이스라엘 역사의 "광야 방랑" 시기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 사용하신 은유의 출처는: (1) 6 장에서는 "만나"와 "생명의 떡"을 사용하셨다 (2) 7 장에서는 "물"과"생수"를 사용하셨다 (3) 8 장에서는 "빛"과 "쉐키나 영광"을 사용하셨다. 빛의 은유는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된다(참조, 1:4-5, 8-9; 3:19-21; 9:5; 12:46).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란들이 있다: (1) 어둠에 대한 고대인의 두려움 (2)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호칭(참조, 시 27:1; 사 62:20; 요일 1:5) (3) 초막절의 배경으로서 여인의 뜰에 있는 가지 달린 등잔의 빛남 (4)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광야 방랑기에서 영광의 쉐키나 구름을 암시 (5) 구약에서 메시아적 호칭(참조, 사 42:6; 49:6; 눅 2:32).

랍비들도 역시 "빛"을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여인의 뜰에 있는 큰 등잔이 빛을 비추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진술의 배경이 되었다. 빛에 대한 메시아적 의미와 1:4, 8 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예수님이 자신의 참 근원을 계속하여 드러내시는데 있어서 성전 예식과 부합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일곱 개의 "나는~이다"의 진술문 중 하나이다(술부가 뒤따라오는)

1. 나는 생명의 떡이니(6:35, 41, 48, 51)
2. 나는 세상의 빛이니(8:12; 9:5; 참조, 1:4, 9; 12:46)
3. 나는 양의 문이라(10:7, 9)
4. 나는 선한 목자라(10:11,14)
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11:25)
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14:6)
7. 나는 참 포도나무요(15:1, 5)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진술문으로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킨다. 요한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는 반드시 그를 신뢰해야만 한다!

▣ **"세상의"** 이 단어는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우주적인 범위를 보여준다(참조, 3:16).

▣ **"나를 따르는 자"**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기독교는 신조나 신학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것은 제자도의 삶의 양식을 따르는 개인적인 관계이다(참조, 요일 1:7).

▣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것은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눈을 가리는" 사탄에 대한 신학적인 개념을 암시한다(참조, 고후 4:4). 더 나아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한 구약의 본문을 암시한다(참조, 시 119:105).

▣ **"생명의 빛"** 예수님은 생명의 빛을 소유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신다(참조 마 5:14).

8:13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은 증거가 법적으로 적합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중시했다(참조, 민 35:30; 신 17:6; 19:15-21). 예수님은 일찌기 이번과 똑 같은 반대에 대하여 말씀하셨고(참조, 요 5:31 이하)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이 문맥에서 그의 증인은 아버지이시다!

8:14, 16 "만일. . .만일" 이것은 둘 다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성을 의미하고, 심지어 가능성있는 행동을 말한다. 8 장에 있는 조건문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형식이다.

▣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선재하심, 그의 사역에 대한 이해와 선지자적 시간표에 대해 알고 계셨다(참조, 1:1-4, 14-18; 7:28-29; 13:1; 17:5).

▣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7 장과 연관되어야만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장소를 몰랐고(참조, 41-42) 그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참조, 7:34-36; 8:21). 1:8 의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8: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것 또한 7 장의 내용을 암시한다(참조, 24).

▣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들은요 3:17 과 9:39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본다.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가 오신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참조, 3:18-21).

8:16-18 법정에서 필요한 두 증인의 문제가 다시 거론된다(참조, 민 35:30; 신 17:6; 19:15).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와 아버지가 하나이심을 확증한다(참조, 7:29; 14:9). 1:8 의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8:19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육체적, 문자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다. 그들의 선입견과 교만으로 가득찬 마음은 진리에 대하여 닫혀있었다(참조, 27 절).

▣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이다. 이것은 종종 "사실과 반대되는" 조건절이라고 불린다. "네가 알지 못했던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알지 못했던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주제는 5:37 로부터 반복된다. 요한복음의 윤곽을 잡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반복되는 양식으로 꾸미는 것이거나 반복되는 가락으로 된 교향곡과 같기 때문이다.

8:20 "그는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 이 헌금함은 분리된 건축물이 아니다. 랍비적 전통에 의하면 거기에 트럼펫 모양의 13 개의 용기가 있었다고 한다. 큰 등잔들이 초막절 기간 동안 비추어지는 여인의 뜰에 이것들이 있었고 각각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참조, 막 12:41)

▣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2:4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8:21-30

[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22]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5]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26]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27]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8:21-22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22 절의 이 질문은 "아니오"란 대답을 기대한다. 이 문맥에서 분명한 것은 비록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더라도(참조, 7:34-36), 그들은 그것을 그의 죽음과 연관시켰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자살은 저승(해데스)의 가장 낮은 곳에 가도록 저주 받는 일이었다. 그들의 질문은 이곳이 예수님이 가야 하는 바로 그 장소로 이해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8:21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너의 죄 가운데에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를 말한다. "죄"라는 단어는 21 절에서는 단수형이고 24 절에서는 복수형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그들의 거부를 우선적으로 의미한다(참조, 24 절). 이것은 공관복음서에서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다.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에서 나오는 위대한 빛의 현존 앞에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

8:23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것은 요한의 수직적인 이원론의 또 다른 예이다(참조, 7:35-36; 18:36). 위에서 난 예수님 자신과 아래에서 난 유대인에 대한 요한의 대조는 복음서들 가운데에서 독특한 이원론을 형성한다. 공관복음서(마태, 마가, 누가복음)는 현재의 악한 세대와 미래의 의의 세대인 유대인의 두 세대를 대조한다. 이 차이점은 수평적인 이원론과 수직적인 이원론의 용어에 의해 묘사된다. 예수님이 이 둘을 서로 다른 경우에 가르쳤는가?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공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적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다.

▣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의 능력 안에 놓여있다(참조, 고후 4:4; 엡 2:2; 요일 5:19).

8:24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너희는 내가 그인 줄 믿는다"**
신개정표준역(NRSV), 예루살렘 성경(JB)	"내가 그인 줄 믿으라"
현대영어성경(TEV)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것을 믿으라"
신예루살렘성경(NJB)	"내가 그인 줄 믿으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강한 진술문 중 하나이다. 그는 구약의 야웨께 대한 호칭을 사용하셨다(참조, 출 3:14 의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나는~이다"의 진술과 다르다. 이것은 술부가 없다(참조, 4:26; 6:20; 8:24, 25, 58; 13:19; 18:5, 6, 8). 2:23 의 특별주제: "믿음"에 대한 요한의 사용을 보라.

8:25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느냐"**
뉴킹제임스역(NKJV)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바로 그 것"
신개정표준역(NRSV)	"도대체 내가 왜 너희에게 말하겠는냐"
현대영어성경(TEV)	"내가 맨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것"
신예루살렘성경(NJB)	"내가 시작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것"

원래 헬라어 사본에는 이것의 단어들 사이에 공간이 없었다. 이 헬라어 글자들은 문맥에 맞게 단어를 만들기 위해 다른 위치에서 나누어 질 수 있다. 번역본들의 차이는 사본의 다양성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선택들이 있다: (1) *호 티* - 내가 왜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하였느냐 (신개정표준역) (2) *호테* -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가 아니냐(신미국표준역, 뉴킹제임스역, 현대영어성경, 신예루살렘성경, 새국제역) (3) 감탄사의 셈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호 티* -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신개정표준역).

"태초에"란 단어가 70 인역의 창 1:1 과 요 1:1 에서 사용된 것은 요한의 단어-유희 중 하나일 것이다. 예수님은 "처음부터"계셨고 처음부터 내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8:26-27 이 주제들은 강조를 위해 요한복음에서 반복되었다: (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참조, 3:17, 34; 4:34; 5:36, 38; 6:29, 44, 47; 7:28-29; 8:16, 26, 42; 10:36; 11:42; 12:49; 14:24; 15:21; 17:3, 18, 21, 23, 25; 20:21) (2) 아버지는 진리이시다(참조, 3:33; 7;28) (3)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께로 왔다(참조, 3:11; 7:16-17; 8:26, 28, 40; 12:49; 14:24; 15;15).

▣ **"세상"** 1:10 의 설명을 보라.

8:28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것은 요 3:14 에서 논의한 신 21:4-9 에 대한 암시이다. 요한복음의 많은 용어들처럼 이 용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의 "들다"와 같은 의미도 되지만, 이것은 종종 행 2:33, 5:31; 빌 2:9 에서처럼 "높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그가 죽기 위해 오신 것을 알았다(참조, 막 10:45).

▣ **"인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르신 호칭이시다. 이것은 랍비적 유대주의 안에서 군사적이나 민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인성(참조, 겔 2:1; 시 8:4)과 신성(참조, 단 7:13)의 두 개념 모두에 연결되므로 이 호칭을 선택하셨다.

8:29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을 계속 지지했다(참조, 8:16; 16:32). 십자가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참조, 막 15:34).

8:30 "많은 사람이 그를 믿더라" 이 본문에서 "믿다"라는 단어가 매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듣는 자들 편에서의 얄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마 13; 막 4). 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그들이 이해한 것을 기초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다. 8:30-58 의 문맥은 그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분명하게 보여준다(참조, 2:23-25). 여러 수준의 믿음이 요한복음에 나타난다. 그러나 모든 수준의 믿음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개역개정 8:31-33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3]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8:31 "너희가 거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계속적인 믿음에 대한 강조는 역시 요 15 장에서 분명하게 표현된다. 이것은 전도적인 복음 선포에서 놓치고 있는 요소이다. 말씀을 믿어야 하고(참조, 5:24), 순종하여야 하고, 그 안에 거하여야 한다. 요일 2:10 의 특별주제인 거함을 보라.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계있는 이 성경적 교리는 그것이 전형적으로 동방 변증법적 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 쌍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둘 다 성경적이다. 서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진리를 선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 진리는 무시하거나 경시한다. 다음의 설명을 보라.

1.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최초의 결심인가 아니면 제자도에 대한 전 생애의 헌신인가?
2.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에 대해 인간이 믿고 회개하는 반응인가?
3.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을 수 없는가? 아니면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가?

견인의 주제는 교회 역사를 통해 의견이 분분했다. 분명하게 상충되는 신약의 본문을 인해 문제가 생겼다.

1. 확신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요 6:37; 10:28-29)
   - ㄴ. 바울의 진술(롬 8:35-39; 엡 1:13; 2:5, 8-9; 빌 1:6; 2:13; 살전 3:3; 딤후 1:12; 4:18)
   - ㄷ. 베드로의 진술(벧전 1:4-5)
2. 인내의 필요에 대한 본문
   - ㄱ. 예수님의 진술(마 10:22; 13:1-9, 24-30; 24:13; 막 13:13; 요 8:31; 15:4-10; 계 2:7, 17, 20; 3:5, 12, 21)
   - ㄴ. 바울의 진술(롬 11:22; 고전 1115:2; 고후 13:5; 갈 1:6; 3:4; 5:4; 6:9; 빌 2:12; 3:18-20; 골 1:23)
   - ㄷ. 히브리서 저자의 진술 (2:1; 3:6, 14; 4:14; 6:11)
   - ㄹ. 요한의 진술(요일 2:6; 요이 9)
   - ㅁ. 성부의 진술(계 21:7)

성경적 구원은 주권자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에서 비롯된다. 성령의 시작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참조, 요 6:44, 65).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일을 이루셨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과 회개로써 처음 시작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한다. 하나님은 언약적인 관계에서 사람들과 일하신다. 이것은 특권이고 또한 책임이다!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제시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타락한 창조물의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 하나님은 길을 주셨고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사랑과 공급에 응답하기를 원하신다.

만약 당신이 캘빈주의가 아닌 관점에서 이 주제를 좀 더 읽기원한다면 다음을 보라

1. 대일 무디, *진리의 말씀*, 어드만스, 1981 (348-365 쪽)
2. 하워드 마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됨* , 베다니 펠로우쉽, 1969
3. 로버트 쉥크,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웨스트코트, 1961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두 가지 문제를 말한다: (1) 열매없이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한 면허증을 갖는 확신 (2) 사역과 개인적인 죄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을 격려 하는 것. 문제는 잘못된 그룹의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지를 취하고 한정된 성경본문 위에 신학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필사적으로 확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경고를 필요로 한다! 당신은 어떤 그룹에 속하는가?

▣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강조했다(참조, 눅 6:46; 요이 9).

8:32 "알찌니" 이것은 구약의 "알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인식적인진리"가 아닌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참조, 창 4:1; 렘 1:5).

8:32, 40, 44, 46 "진리" 이것은 문맥상 중요한 개념이다.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 신뢰감 (2) 거짓 대 참. 두 가지의 의미는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진실임을 말한다. 그는 복음의 내용이고 또한 목표이다. 진리는 우선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 이 절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종종 문맥이 무시된다. 사실들, 진실된 사실들, 심지어 수많은 진실된 사실들도 한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참조, 1:18). 6:55 과 17:3 의 진리에 대한 특별주제를 보라.

8:32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믿는 자들은 율법주의, 형식주의, 성과 중심주의, 인간적인 광적 신앙심에서 자유하다. 자유를 얻은 믿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맨다(참조, 롬 14:1-15:6; 고전 8-10).

8:33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눈먼 민족적 우월감을 이렇게 까지 가질 수 있는 것은 놀랍다. 이집트, 앗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시리아, 로마에게 어떠했는가?

개역개정 8:34-38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8:34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32 절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33 절에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영적 실제로 인도하려고 노력하셨다. 이 절의 말씀은 21 절과 24 절에 있는 예수님의 강하신 힐책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변에서 따르던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비난은 44-47 에서 절정에 달한다.

프랭크 스태그가 *신약신학*에서 말한대로, "사람의 곤경에 대한 예상외의 전개는 속박이 자유롭게 되려고 하는 그의 시도에 대한 결과이다"(32 쪽)라는 것이다.

8:35 이것은 34 절과 직접 관계되지 않고 36 절과 관계된다. 랍비적 유대주의의 모세가 아닌 예수님은 참 아들이시다. 끝이 없는 규칙과 형식의 수행이 아니라, 오직 그를 믿는 믿음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참조, 32 절).

8:36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말한다.

8:37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참조, 5:18; 7:1, 19; 8:37, 40; 11:53).

▣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의 26 가지 번역본*은 연구에 도움을 준다.

1. "나의 말이 네 안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 미국표준역
2. "네 안에 기초가 없으므로" - *신약* 헨리 알포드 저
3. "네 안에서 나아가지 않으므로" - *신약: 새 번역* 제임스 모펠 저
4. "네안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하여" - *강조된 신약: 새 번역* J. B. 로더햄 저
5. "나의 말이 네 마음에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하므로" - *사 복음서* E. V. 리우 저

8:38 "내가 본 것"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재하심과 현재 아버지와 함께 갖는 교제와 관계가 있다(참조, 40, 42 절).

개역개정 8:39-47

[39]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1]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42]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8:39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하셨지만, 사탄의 자녀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셨다(참조, 38, 44 절). 민족적 신분으로가 아닌 개인적인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께 대한 유대인의 권리를 만들었다(참조, 신 6:5, 13; 롬 2:28-29; 9:6).

▣ **"만일"** 이것은 형태상으로 조건절의 제 1 유형이지만(조건문의 전제절에서 - *에이*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직설법)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 역할을 할 수 있다(참조, 19, 42 절). 헬라어 사본의 다양성은 처음의 동사를 미완료 형태로 바꿈으로써 이 복합적인 조건절 형태를 제거하려고 시도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지는 않지만, 만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네가 아브라함이 한것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8:40 "사람" 예수님은 자신을 야웨와 신적 본질이 같은 야웨의 대리자로서뿐 아니라, 참 인간으로서 이해하셨다. 이 주장은 영지주의에 속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인 영과 육의 것에 대한 영원한 이원론을 반대했다(참조, 요일 1:1-4; 4:1-4).

8:41

신미국표준역 개정판(NASB), 뉴킹제임스역(NKJV)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신개정표준역(NRSV)	**"우리가 불법의 자녀가 아니다"**
현대영어성경(TEV)	**"우리는 참 자녀이다"**
신예루살렘성경(NJB)	**"우리는 불법으로 나지 않았다"**

이것은 48 절의 비난과 연결될 수 있다("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한 유대 혈통이 아닌 불법적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중의 랍비적 출처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로마 군인이라고 말했다.

▣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은 부계적인 용어에서 설명되는(참조, 신 32:6; 사 1:2; 63:16; 64:8) 구약의 유일신 사상을 반영한다(참조, 신 4:35, 39; 6:4-5). 여기에 난제가 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참조, 신 6:4-5) 모세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참조, 신 6:13, 17, 24-25) 이끌어 왔다고 주장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율법 준행에 기초를 둔 것이아니라, 그 안에 둔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주장하셨다. 그들의 혼동과 내키지 않음은 이해할만하지만, 성령의 통찰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이 믿음을 가져오는 장소가 바로 여기이다!

8:42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 "사실에 반대되는"이라 불린다. "사실은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참조, 47 절).

8:43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것은 영적 수용성과 이해력을 의미한다. 그들은 영적인 귀가 없었다(참조, 사 6:9-10; 마 11:15; 13:9, 15-16, 43; 막 4:9, 23; 7:16; 8:18; 눅 8:8; 14:35; 행 7:51; 28:26-27).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겠는가(참조, 47 절). 가족적 특성을 말하는 이 개념은 히브리어식 어법인 "~의 아들"로 표현되었다(참조, 마 13:38; 행 13:10; 요일 3:8, 10).

▣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것은 악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뱀 안에 거하던 거짓영의 대리자에 의해 아담과 하와의 영적 죽음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참조, 창 3 장).

8: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것은 문맥상 거짓 증거를 말한다. 사탄은 거짓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반대해 보라고, 그가 거짓된 것을 증명해 보라고 도전하신다! 문맥상 이 진술이 신학적 교리로 예수님께서 죄없으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죄"는 죄의 특별한 행동이라기 보다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서의 악의 원리를 말한다.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이 죄이다. 궁극적인 "죄"는 불신앙이다(참조, 16:9).

개역개정 8:48-59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50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52]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 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 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8:48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이것의 참된 의미는 아람어로 "마귀의 대장"을 의미하는, "사마리아인"일 수 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악한 초인간적 근원에서 온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비난하는 것과 들어 맞는다. 마귀들렸다고 말하는 것은 그사람이 거짓을 말한다고 의미할 수도 있다(참조, 52 절).

만약 그 의미가 "사마리아인"이라면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유대인이 아닌 것과 같이(그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아님)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마리아인"은 치욕과 경멸의 용어였다.

▣ **"나의 영광"** 1:14 의 설명을 보라.

8:51, 52 "만일. . .만일" 이것은 둘 다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순종은 믿음에 연결되는 것을 주목하라(참조, 14:23; 15:20; 17:6).

▣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강한 이중 부정이다. 이것은 분명히 육체적 죽음(참조, 5:24; 6:40, 47; 11:25-26)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의미한다(참조, 21, 24 절). 이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고전 15:54-57).

8:52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51 절). 그들은 이것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했다.

8:53 이 질문은 "아니오"란 대답을 기대한다.

▣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중심을 말한다! 예수님은 54 절과 58 절에서 분명하게 결론을 말씀하셨고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다(참조, 59 절).

8:54 "만일" 또 다른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 **"영광"** 이것은 여기서 영광의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롬 1:21; 고전 12:26).

8:55 "알다. . .알다" 이 절에서 문맥상으로 동의어로 보이는 두 헬라어 단어인 *기노스코*와 *오이다*를 영어의 단어 "알다"로 번역했다(참조, 7:28-29).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를 나타내셨다. 세상(심지어 유대인들도)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다(참조, 1:10; 8:51; 10:3; 17:25).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것은 놀라운 진술이다. 예수님은 "유대인", "율법"(참조, 8:17), "성전", 심지어 조상 아브라함에서 자신을 멀리 하셨다. 이것은 옛 언약에서의 분명한 단절이다!

▣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이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나 메시아에 대하여 이해했을까? 여러 가지 번역본은 이것을 미래의 의미로 번역했다. 아래의 예들은 *성경의 26 가지 번역본*에서 발췌했다.

1. "그가 보아야만 하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 – *강조된 신약: 새 번역* J. B. 로더햄 저
2. "그는 나의 때 보는 것을 즐거워했다" 표준번역 개정판
3. "볼 것에 대한 기대로 극도로 기뻐했다" – *신약의 버클레이역* 게릴 버켈 저
4. "내가 오는 것을 보는 것" *신약: 미국역* 에드가 J. 굳스피드 저
5. "나의 날을 아는 것을 기뻐했다" *오늘날의 언어에서의 신약* 윌리암 F. 백 저

또한, 해롤드 K. 물톤이 편집한 *분석적인 헬라어 사전 개정판*은 70 인역에서 이 동사의 뜻으로 "열렬하게 바람"을 제시한다(2 쪽).

▣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한다: (1) 그의 일생에서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비젼을 가진 것(참조, 에스드라서 이서 3:14) 또는 (2) 아브라함은 살았고(천국에) 이땅에서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참조, 히 11:13).

8:58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었고 그들은 예수께 돌을 던지려 했다(참조, 출 3:12, 14). 그들은 예수님이 선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참조, 4:26; 6:20; 8:24, 28, 54-59; 13:19; 18:5, 6, 8).

8:59 이것은 해석가들이 다음과 같이 추측하게 했던 구절 중 하나이다 (1) 이것은 기적이었다(참조, 눅 4:30 과 이 절에서 첨가된 본문) 그렇지 않으면 (2) 예수님은 참석했던 다른 유대인들과 같아 보였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흡수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언제, 어디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 7:53-8:11 은 요한복음의 원래의 부분인가?
   왜 그런가 아니면 왜 그렇지 않은가?
2.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은 무엇인가?
3.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적대시 했는가?
4. 30 절의 "믿다"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하여 뒤따르는 문맥의 관점에서 설명하라.

요한복음 9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날 때 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날 때 부터 소경된 자가 다시 보게 됨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냄	예수께서 날 때 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심	예수께서 날 때 부터 소경된 자의 치유
9:1-12	9:1-12	9:1-12	9:1-2	9:1-5
			9:3-5	
			9:6-7	9:6-7
			9:8	9:8-12
			9:9a	
			9:9b	
			9:10	
			9:11	
			9:12a	
			9:12b	
바리새인들이 병고침을 조사하다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은 자를 출교시키다		바리새인들이 병고침을 조사하다	
9:13-17	9:13-34	9:13-17	9:13-15	9:13-17
			9:16a	
			9:16b	
			9:17a	
			9:17b	
9:18-23		9:18-23	9:18-19	9:18-23
			9:20-23	
9:24-34		9:24-34	9:24	9:24-34
			9:25	
			9:26	
			9:27	
			9:28-29	
			9:30-33	
			9:34	
영적 소경됨	참 시력과 참 소경됨		영적 소경됨	
9:33-39	9:35-41	9:35-41	9:35	9:35-39
			9:36	
			9:37	
			9:38	
			9:39	

9:40-41	9:40 9:41	9:40-41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41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자주 나오는 기적인 소경을 고치시는 일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나. 소경을 고치신 일은 메시아적 표적이다(참조, 사 29:18; 35:5; 42:7; 마 11:5). 이 기적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바로 밝히신 문맥에서 드러난다(참조, 8:12; 9:5).

다. 이 장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과 동시에 하나의 비유로서 한 사람의 육체적 소경됨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소경됨을 나타낸다(참조, 39-41 절; 마 6:23).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9:1-12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9:1 "날 때 부터 맹인 된" 이 사건은 이런 유형의 치유에 속하는 유일한 경우이다. 거짓된 증언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

9:2 "그의 제자들이" 6 장이후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이다. 이것은 (1) 7:3 에 나오는 유대인 제자들 혹은 (2) 열 두 제자를 일컫는다.

▣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은 많은 신학적 논란을 야기한다. 우리는 동방의 종교들이 아닌 고대 유대교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여러 가능한 대답은 (1) 이

질문이 유대 랍비들이 창 25:22 에서 이끌어 낸 부모의 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거나 (2) 이 질문이 부모나 혹은 바로 이전 세대의 죄가 태어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하거나(참조, 출 20:5; 신 5:9) (3) 혹은 이 질문이 랍비들의 가르침에서 흔하게 나타나듯이 죄와 질병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다(참조, 약 5:15-16; 요 5:14)고 보는 것이다.

이 내용은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카르마*의 수레바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유대적 배경에서 이해해야한다. 제임스 사이어의 *왜곡된 성경*(127-144 쪽)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9:3 이 절에서 예수님은 2 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주신다. 여러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는데 (1) 죄와 질병은 자동적으로 관련되지 않고 (2) 인생의 문제는 종종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다.

9:4 "나를 . . . 우리가 하여야 하 리라" 여기의 대명사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여러 헬라어 사본들이 어느 한 쪽을 변형하여 이 둘을 서로 일치시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신학적 사고를 나타내는 것 같다.

◘ **"밤이 오리니"** 5 절과의 비교에서 이 말씀의 비유적 모습은 명백히 드러난다. 여기서 밤은 (1) 다가오고 있는 심판 (2) 기회가 닫혀져 버림 혹은 (3)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박음을 뜻할 수 있다.

9:5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은 영적 실제를 나타내기 위하여"빛" 과 "어두움"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참조, 1:4-5, 8-9; 3:17-21; 8:21; 9:5; 12:46)이라는 내용은 구약에서의 메시아와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참조, 사 42:6; 49:6; 51:4; 60:1, 3).

9:6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침은 유대인 가정에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었다. 안식일에는 이러한 방법이 금해졌다 (참조, 14 절).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신 일이 세 번 기록되어 있다(참조, 막 7:33; 8:23; 이 곳).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그것이 기대되기도 했던 치료방법의 사용을 통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격려하고 있다.

9:7 "실로암 못"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 연못은 초막절 의식 때 사용되었다. "보냄을 받은"이라는 말은 실로암 못의 물이 예루살렘성벽 바깥 쪽에 있는 기혼 샘으로부터 연결된 통로를 통하여 성안으로 물이 공급된 사실을 뜻한다. 랍비들은 "보냄을 받은"이라는 말을 메시아적 의미로 이해했다.

◘ **"씻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구원을 얻는 믿음"(참조, 11, 17, 36, 38 절)은 아니었다. 믿음은 과정이다. 복음서에서 요한은 믿음의 "단계들"을 말한다. 8 장에는 어떤 "믿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아니었다(참조, 마 4; 막 13; 씨 뿌리는 비유).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구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헬라어 동사 시제

구원은 산물이 아니라 관계이다. 이것은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을 가져온다! 구원은 화재보험에 드는 것이나 천국으로의 입장표를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나타나는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뜻한다.

완성된 행동으로서의 구원(부정과거)

- 행 15:11
- 롬 8:24
- 딤후 1:9
- 딛 3:5
- 롬 13:11(부정과거형이 미래형과 함께 사용됨)

상태로서의 구원(완료)

- 엡 2:5, 8

계속되는 과정으로서의 구원(현재)

- 고전 1:18; 15:2
- 고후 2:15

- 벧전 3:21; 4:18

미래에 완성될 구원(동사의 미래시제 또는 문맥)

- (마 10:22; 24:13; 막 13:13 에 내포됨)
- 롬 5:9, 10; 10:9, 13
- 고전 3:15; 5:5
- 빌 1:28
- 살전 5:8-9
- 딤전 4:16
- 히 1:14; 9:28
- 벧전 1:5, 9

이와같이 구원은 처음의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된다(참조, 요 1:12; 3:16; 롬 10:9-13). 그러나 이 구원은 생활속의 믿음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롬 8:29; 갈 4:19; 엡 1:4; 2:10). 이것은 어느 날 볼 수 있도록 완성될 것이다 (참조, 요일 3:2). 이 마지막 과정은 영화라고 불린다.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면

1. 시작된 구원──칭의(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2. 진행중인 구원──성화(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
3. 최종 구원──영화(죄의 실재로부터의 구원).

9:8 "이웃 사람들" 이 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행해진 기적을 증거한다: (1) 그의 이웃 사람들(8 절) (2) 그 사람 자신(11 절) (3) 그의 부모(18 절). 이 치유를 놓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처럼 그의 이웃 사람들 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헬라어 질문은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하고 있다.

9:9 "내가 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4:26; 6:20; 8:24, 28, 58; 13:19; 18:5, 6, 8 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헬라어의 관용적 표현이다. 문맥에서 이 표현 자체가 신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장에서는 이와 비슷하게 고의적 다의성의 경우로서 *주님*의 칭호(36 절에서는 선생님, 38 절에서는 주님)가 사용되었다.

9:11-12 이 대화는 이 사람의 병고침이 즉각적으로 영적구원을 수반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 사람의 믿음이 자랐다(참조, 35 절).

개역개정 9:13-17

[13]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 바라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17]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9:13 "그들이" 이것은 그의 이웃 사람들을 가리킨다.

▣ **"바리새인들"** 요한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두 가지 용어로써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보통 "유대인들"로 말해진다(참조, 18, 22 절). 그러나 이 장의 13, 15, 16, 40 절에서 그들은 바리새인들로 불려진다.

9: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율례(탈무드에 나오는 경전화된 구전)를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의 필요에 앞섰다(참조, 5:9; 9:16; 마 23:24). 이 지도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갖기 위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으로 보인다. 5:9 의 설명을 보라.

9:16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대한 판단을 신 13:1-5 에 근거하여 한 것으로 여겨진다.

▣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예수님은 항상 이것을 야기시킨다(참조, 6:52; 7:43; 10:19; 마 10:34-39).

9:17 "그는 선지자니이다" 이 장은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참조, 36, 38 절).

개역개정 9:18-23

[18]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20]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 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23]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 보소서 하였더라

9:22-23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다. 그 부모는 이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다. 이번의 치유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 (1) 이웃 사람들 (8-10 절) (2) 그 자신(11-17, 24-33 절) (3) 그의 부모(18-23 절).

특별주제: 고백

가. 같은 어근에서 나온 헬라어의 두 가지 단어가 고백과 시인의 의미로 쓰였다(*homolege* 와 *exomologe*). 야고보서에 이 합성어가 쓰였는데, 같다는 의미의 *호모*, 말하다는 의미의 *레고*, 밖으로라는 의미의 *엑스* 라는 요소로 구성된다. 기본의미는 같은 것을 말한다 혹은 동의한다 이다. 덧붙여진 말 *엑스* 는 공적으로 시인함을 뜻한다.

나. 영어성경에서 이 단어는 아래와 같이 번역되었다
   1. 찬송
   2. 동의
   3. 선언
   4. 인정
   5. 고백

다. 위의 단어들은 서로 상반되는 것 처럼 보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 찬송하기(하나님)
   2. 죄를 인정하기

라.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의 사용은
   1. 약속하기(참조, 마 14:7; 행 7:17)
   2. 동의를 나타내기(참조, 요 1:20; 눅 22:6; 행 24:14; 히 11:13)
   3. 찬송하기(참조, 마 11:25; 눅 10:21; 롬 14:11; 15:9)
   4. 시인하기
      ㄱ. 사람을(참조, 마 10:32; 눅 12:8; 요 9:22; 12:42; 롬 10:9; 빌 2:11; 계 3:5)
      ㄴ. 진실을(참조, 행 23:8; 고후 11:13; 요일 4:2)
   5. 공적 선언을 하기(종교적 신념을 나타내기 위해, 참조, 행 24:14; 딤전 6:13)
      ㄱ.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참조, 딤전 6:12; 히 10:23)
      ㄴ. 죄를 인정하는 경우(참조, 마 3:6; 행 19:18; 히 4:14; 약 5:16; 요일 1:9)

9:22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의 부모는 출교되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다(참조, 7:47-49). 이 관습의 유래는 에스라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참조, 10:8). 우리는 랍비들의 저작을 통해 세 가지 종류의 출교가 있었음을 안다 (1) 일주일 동안의 출교 (2) 한 달 동안의 출교 (3) 평생 동안 계속되는 출교이다.
▣ **"시인함"** 이는 "같은"과 "말하다"의 합성어이다.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선언하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을 일컫는다.

▣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참조, 12:42; 16:2).

개역개정 9:24-34

[24]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32]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9:24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말은 맹세를 하는 형태로서 진실됨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수 7:19).

9:25 그의 대답은 16 절과 상응한다. 신학적 논쟁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되어진 일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9:27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헬라어 문장에서 이말은 "아니다"라는 답을 암시한다. 이 질문은 그들의 난처한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또한 소경 거지의 재치를 보여준다.

9:28 상 "너는 그의 제자이나" 이 장에서 그가 어느 시점에서 믿는 자가 되었는지는 중요한 질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일은 즉각적으로 그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였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일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신다(참조 36-38 절). 이 사건은 육체적 치유가 반드시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음을 말해준다.

9:28 하-29 이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들은 구전으로 전해 진 자세한 항목으로 이루어진 해석(탈무드)을 모세에게 증거된 계시와 동일시하려고 애썼다. 그들의 눈은 신학적인 편견으로 인해 가리워졌다(참조, 마 6:23).

9:30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거부할 때 드러난 소경 거지의 번득이는 기지와 재치어린 비꼼을 보여준다.

9:31-33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경 거지는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더 낫고 일관성 있는 신학을 가졌다!

9:33 "(만일) . . . 오지 않았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에 속하며, "사실에 반대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만 한다: "이 분은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셨다. 만일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면 이분은 자신이 행했던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었다."

9:34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유대교 랍비들에게 "원죄"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흥미롭다(참조, 욥 14:1, 4; 시 51:5). 유대 랍비들은 창세기 3 장에 나오는 인류의 범죄와 타락은 전혀 강조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각 사람에게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yetzer*)가 있다고 가르쳤다. 바리새인들은 고침을 받은 자의 간증과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사실 자체가 명백히 그의 죄인됨을 입증한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그를 밖으로 쫓아보냈다"라는 뜻이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1) 지역에 있는 회당의 회원권과 출석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거나 (2) 그들의 모임에서 내쫓아 보낸 것이다. 문맥상 두 번째의 해석이 더 적합하다.

개역개정 9:35-41

[35]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4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9:35
신미국표준역(NASB),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네가 인자를 믿느냐?"
뉴킹제임스역(NKJV)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대문자로 된 고대 헬라어사본인 A 는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 있는 반면, P^{66}, P^{75}, ℵ, B, D 는 "인자"로 되어 있다. 요한의 용법과 사본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인자"가 더 적절한 표현이며, 아마도 원래의 표현에 속한다. 문법적으로 이 질문은"네" 라는 대답을 예상한다.

9:36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주님"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인의 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선생님"

이 장에서 그가 예수님을 일컫는 칭호가 계속 바뀌어 가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이 점점 신학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본다: (1) 한 사람—11 절 (2) 선지자—17 절 (3) 경의를 표하는 용어인 "선생님"—36 절 (4) 신학적으로 가장 커다란 의미가 있는 "주님"—38 절. 36 절과 38 절의 용어로서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 오직 문맥이 그 정확한 의미를 밝혀준다.

9:38 고침을 받은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한, 이 부분은 사건 전체의 절정에 속한다. 이 절이 몇 고대 헬라어 사본(P^{75}, ℵ, W)과 디아테사론(초기의 4 복음서 모음)에서 빠져있는 것은 놀랍다. 이 절에는 두 가지 드문 용어가 있는데, (1)이곳과 1:23 에만 나오는 "그가 말했다"와 (2) 요한복음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된 "그가 경배했다"는 표현이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에 포함되어 있다.

9:39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5:22, 27 과 연결되며, 마지막 때에 있을(종말론 적)심판에 대한 언급이다. 그러나, 이것은 3:17-21 과 12:47, 48 의 말씀과 들어맞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구속을 위해서 오셨다는 점과 주님의 제안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함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다.

▣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특별히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의 이중적 성취이다: (1) 교만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나(참조, 사 6:10; 42:18-19; 43:8; 렘 5:21; 겔 12:2) (2) 가난하고 소외되고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은 회개와 겸손함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참조, 사 29:18; 32:3-4; 35:5; 42:7, 16). 예수님은 보는 것을 선택한 모든 자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신다(참조, 1:4-5, 8-9).

9:40 "우리도 맹인인가?" 헬라어 구문은 "아니다"라는 답을 예상하고 있다(참조, 마 15:14, 23-24). 이 장의 마지막 절들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과 동시에 고침을 받을 수 없는(즉, 용서받을 수 없는 불신앙의 죄로서) 영적 소경됨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육체적 소경됨에 대한 비유이다.

9:41 이 절은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낸다(참조, 15:22, 24; 롬 3:20; 4:15; 5:13; 7:7, 9).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이 장은 육체적 치유와 영적 치유 또는 육체적 소경과 영적 소경에서 어느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2. 어떻게 이 사람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죄를 지었는가?
3. 이 장의 어떤 단계에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가?
4.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가?
5. “인자”라는 용어의 배경을 설명하라.
6. 소경되었던 사람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재치있게 대답한 점들을 말해보라.

요한복음 10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양의 우리의 비유	참 목자 예수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	선한 목자의 비유	선한 목자
10:1-6	10:1-6	10:1-6	10:1-5	10:1-5
			10:6	10:6
선한 목자 예수	선한 목자 예수		선한 목자 예수	
10:7-18	10:7-21	10:7-10	10:7-10	10:7-18
		10:11-18	10:11-16	
			10:17-18	
10:19-21		10:19-21	10:19-20	10:19-21
			10:21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예수	목자는 자기 양을 앎		배척당한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주장함
10:22-30	10:22-30	10:22-30	10:22-24	10:22-30
	예수께 돌을 던지려는 재시도		10:25-30	
10:31-39	10:31-39	10:31-39	10:31-32	10:31-38
			10:33	
			10:34-38	
			10:39	10:39
	요단건너편의 신자들			예수께서 요단강 저편으로 물러가심
10:41-42	10:41-42	10:41-42	10:41-42	10:41-42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0:1-6

[1]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10:1 "진실로 진실로" 1:49 의 설명을 보라.

▣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더러는 선한 목자에게 속하지 않은 양우리에 속해 있음을 주목하라(참조, 7:21-23 과 "좋은 씨와 거라지의 비유," 마 12:24-30).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로 주시는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으려 한다는 점에 있다(참조, 3:14-16).

10:2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장에는 매우 뚜렷한 은유가 나타난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며, 7 절, 양의 목자이다(11, 14 절). 하지만, 이 은유들은 요한의 글과 신약에서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1)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면서 떡을 주는 분이시다(참조, 6:35, 51) (2) 예수님은 진리이고 진리를 말하는 분이시다(참조, 8:45-46 과 14:6) (3) 예수님은 길이요 또한 길을 보여주신다(14:6) (4) 예수님은 희생제물이시며 또한 희생을 드리는 분이시다(참조, 히브리서).

"목자"라는 직책은 구약에서 하나님과 메시아를 지칭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참조, 시 23; 80:1; 사 40:10-11; 벧전 5:1-4). 유대 지도자들은 렘 23; 겔 34, 사 56:9-12 에서 "거짓 목자들"로 불린다. "목자"는 "목회자"와 관련되는 용어이다(참조, 엡 4:11; 딛 1:5, 7).

10:3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다

▣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하나 하나 개인적으로아신다. 목자들은 종종 자신의 동물들에게 별명을 붙여 주는 데, 큰 무리를 가진 경우에도 그러하다.

▣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것은 구원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의 인도하심도 뜻한다(참조, 4, 9 절).

10:4 이것은 밤에 여러 그룹의 떼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관습을 가리킨다. 아침에 목자는 자기 양을 불러 자기에게 오게 하였다.

10:5 교회에는 항상 거짓 목자의 문제가 있었다(참조, 딤전 4:1-3; 딤후 4:3-4; 요일 4:5-6).

10:4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비유"로 번역된 이말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같은 어원을 지닌 단어에서 왔다. 이 형태의 단어는 이곳과 16:25, 29 그리고 벧후 2:22 에서만 사용되었다. 비록 다른 형태를 가졌지만, "비유"를 뜻하는 보다 일반적인 단어와 같은 뜻을 지녔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비유"는 보통 영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면에서의 뜻도 갖고 있다. 한편, 이 단어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로 부터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었다(16:29; 막 4:11-12).

▣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만일 10 장이 시간적으로 9 장과 연결되고 있다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개역개정 10:7-10

[7]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0:7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일곱 가지 잘 알려진 선언의 하나이다. 이 은유는 예수님이 유일한 참 길 되신다는 진리를 강조한다(참조, 8, 10 절; 14:6). 이것은 복음서의 배타성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종종 놀람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참조, 행 4:12; 딤후 2:5).

10: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9 장과 10 장의 배경이 되는 하누카 봉헌축제(참조 10:22)를 고려할 때, 이것이 신구약 중간시대에 있었던 마카비와 그의 후손들이 메시야로서 행세했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오는 거짓 목자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참조, 렘 23, 겔 34).

이렇듯 매우 상징적 용어이면서도 애매모호한 대상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점은 초기의 서기관들로 하여금 이 말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본문을 바꾸거나 확장시켰다. 한 사본(D)은 모두를 뜻하는 “다”라는 단어를 생략했고, 어떤 사본들(P^{45}, P^{75}, ℵ)은 “나보다 먼저”라는 용어를 생략했다.

10:9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것은 미래 수동태의 동사와 쓰인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14:6). 문맥에서 “구원을 받고”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육체적으로 건짐을 받는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렇지만 요한은 종종 두 가지 의미가 겹쳐지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맥에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는 개념이 빠져있지 않다(참조, 42 절).

10:10 “도적” 이것은 거짓 목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준다. 이것은 또한 악한 자의 목적도 보여준다! 삯군의 주의 깊지 않은 태도는 12-13 절에서 볼 수 있다.

▣ **“멸망시키고”**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멸망(*아폴루미*)

이 용어는 넓은 의미를 갖고있어서, 이로 인해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데 신학적 개념과 관련되어서는영원한 심판과 멸절시킴의 경우가 있다. 글자적인 기본의미는*아포*(으로부터)와 *올루미*(파괴하다, 멸망시키다)에 기초한다.

이 용어의 상징적인 용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은 로우와 니다의 *의미적 개념에 기초한 신약헬라어-영어사전*, 제 2 권 30 쪽에서 잘 다루고 있다. 이 사전은 이 단어가 지닌 여러 가지 뜻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멸망시키다(예, 마 10:28; 눅 5:37; 요 10:10; 17:12; 행 5:37; 롬 9:22, 제 1 권 232 쪽에서)
2. 얻지 못하다(예, 마 10:42, 제 1 권 566 쪽)
3. 잃다(예, 눅 15:8, 제 1 권 566 쪽)
4. 장소를 모르다(예, 눅 15:4, 제 1 권 330 쪽)
5. 죽다(예, 마 10:39, 제 1 권 266 쪽)

게르하르트 킷텔, *신약신학사전*, 제 1 권 394 쪽, 은 다른 용법을 4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1. 멸망시키다 혹은 죽이다(예, 마 2:13; 27:20; 막 3:6; 9:22; 눅 6:9; 고전 1:19)
2. 잃다 혹은 손해보다(예, 막 9:41; 눅 15:4, 8)
3. 망하다(예, 마 26:52; 막 4:38; 눅 11:51; 13:3, 5, 33; 15:17; 요 6:12, 27: 고전 10:9-10)
4. 잃어버려지다(예 마 5:29-30; 막 2:22; 눅 15:4, 6, 24, 32; 21:18: 행 27:34)

킷텔은 이어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2 번과 4 번 항목이 공관복음에서 쓰인 이 단어 용법의 기초가 되는 한편, 1 번과 3 번 항목은 바울서신과 요한복음에서의 용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말 할 수 있다(394 쪽).

여기에 혼동의 여지가 있다. 이 용어는 서로 다른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이렇듯 넓은 의미의 용법을 갖는다. 나는 로버트 거들스톤의 *구약의 동의어들*(275-277 쪽)을 좋아한다. 그는 이 용어를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도덕적으로 멸망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 연관시키고 있다. 한편의 사람들은 “구원받았고” 다른 한편의 사람들은 멸망받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용어가 멸절됨을 뜻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마 25:46 에서 이 용어 “영원한”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생명 양쪽을 의미한다. 하나를 경시하는 것은 둘 다 경시하는 것이다!

▣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절은 종종 물질적인 약속으로 말해지지만, 이 문맥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축복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된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생명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듯이, 요한은 영생에 예수님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개역개정 10:11-18

[11]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0:11, 14 "나는 선한 목자라" 이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참조, 겔 34:23; 슥 11:1; 벧전 5:4)와 여호와를 일컫는 칭호이다(참조, 시 23:1; 28:9; 77:20; 78:52; 80:1; 94:7; 100:3; 사 40:11; 렘 23:1; 31:10; 겔 34:11-16).

"선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 헬라어 용어가 있다: (1) *아가소스*, 요한은 사물에 대해서 이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2) *칼로스*, 70 인역에서 악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사용했다. 신약에서 "아름다운," "고상한," "도덕적인," "가치있는" 등의 뜻을 나타낸다. 눅 8:15 에서 이 두 용어는함께 나온다.

10:11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나타낸다(참조, 11, 15, 17, 18 절). 그는 자원함으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참조, 사 52:13-53:12; 막 10:45; 고후 5:21). 참 생명, 풍성한 삶은 오직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브루스 메츠거의 *헬라어 신약 본문주석*은 이 절에서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몇 사본(P^{45}, ℵ*, D)은 요한의 특징적인 표현인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10:15, 17; 13:37, 38; 15:13; 요일 3:16) 대신에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자신의 생명을 주다" 로 대신하고 있다(마 20:28; 막 10:45)" (230 쪽).

10:14 (참조, 3-5 절)

10: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이다. 예수님은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행동과 말씀에서 드러내셨다.

14-15 절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아들이 누리는 친밀함에 대한 놀라운 유추는 아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있는 친밀감과 비교되고 있다(참조, 14:23). 요한은 "안다"는 것을 인식적인 영역이 아닌 친밀한 교제로 사용하는 히브리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안다!

10:16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것은 사 56:6-8 에 대한 암시이다. 문맥은 (1) 사마리아인들(참조, 4:1-42) 혹은 (2) 이방인 교회(참조, 4:43-54)를 가리킨다. 이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됨을 뜻한다. 밤에 여러 그룹의 떼들을 한 곳에 모아두는 관습을 가리킨다. 아침에 목자는 자기 양을 불러 자기에게 오게 하였다.

▣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이었다(참조, 창 3:15; 12:3; 출 19:5-6). 이 연합의 신학적인 측면은 엡 2:11-3:13 과 4:1-6 에서 논의되고 있다.

10:17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듯이 아버지도 자기 아들을 주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 이것을 인간 예수의 순종에 대한 아버지의 보상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이 이단은 종종 양자론으로 불린다).

▣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것은 부활을 암시한다. 대개 신약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데(참조 18b) 그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표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말씀한다.

이 표현은 신약에서 종종 구속사역에 3 위 하나님이 모두 관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1)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참조, 행 2:24; 3:15; 4:10; 5:30; 10:40; 13:30, 33, 34, 37; 17; 31; 롬 6:4, 9; 10:9; 고전 6:14; 고후 4:14; 갈 1:1; 엡 1:20; 골 2:12; 살전 1:10) (2) 성자 하나님이 자신을 일으키셨다 (참조, 요 2:19-22; 10:17-18) (3)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참조, 롬 8:11).

10:18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것은 1:12 절에 사용된 것과 같은 용어이다. 이것은 "권위," "법적 권리," 혹은 "능력"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 절은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낸다.

개역개정 10:19-21

[19]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10:19 예수님에 대해 나누어진 견해는 요한복음에서 계속되는 주제이다(6:52; 7:12, 25; 9:8-9, 16; 10:19-21; 11:36-37). 어떤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는 이를 거부하는 수수께끼는 예정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긴장을 보여준다.

10:20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이러한 일상적 비방은 예수에 대한 두개의 다른 견해를 나타낸다: (1) 이 절과 7:20 에서 보듯이 예수께서 정신병을 갖고 있다는 말이고 (2) 예수의 능력의 원천을 설명하려는 바리새인들의 비방과 같은 내용이다(참조, 8:48, 52; 10:21).

10:21 소경을 고친 것은 메시아의 표징이다(참조, 출 4:11; 시 146:18; 사 29:18; 35:5; 42:7). 9 장에서와 같이 이것은 이스라엘의 눈 먼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참조, 사 42:19).

개역개정 10:22-30

[22]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25]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26]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10:22 "수전절" 요세푸스는 이것을 "빛의 축제"라고 불렀다. 이것은 오늘날 하누카로 알려져 있다. 12 월 중순 경에 8 일동안 있는 축제이다. 주전 164 년에 유다 마카비우스의 군사적 승리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 봉헌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전 168 년 셀루시드 지도자인 아티오커스 IV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에게 헬라문화를 강요했다(참조, 단 8:9-14).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신전으로 만들고, 성소에 제우스를 섬기는 제단을 세우기까지 했다. 모딘의 제사장의 여러 아들중의 하나인 유다 마카비우스는 이 시리아 군주를 격퇴하고 성전을 깨끗이 한 후 재 봉헌했다.

▣ **"솔로몬 행각"**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던 장소인 여자들의 구역의 동편에 위치하며 지붕으로 덮여있었다. 요세푸스는 이 행각들이 주전 586 년에 있은 바벨론 사람들로 인한 파괴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10:24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견지에서 사실이거나 문학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다. 여러 곳에서 조건절의 제 1 유형이 이런 맥락으로 사용되었다(참조, 24, 35, 37, 38 절). 24 절에서의 용법은 문학적인 의도에서 사용된 경우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할 뿐이었다.

▣ **"밝히 말씀하소서"** 이절에는 토의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 첫 째로, 예수께서 비유, 묘사적인 언어, 고의적으로 이중적인 선언을 사용하여 가르치셨다. 성전에 있던 군중들은 예수께서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길 원했다. 7:4 의 특별주제: *파레시아*를 보라.

둘째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와 하나님과의 하나이심을 여러 차례 암시하였지만(참조, 8:56-59), 그들은 이상황에서 특별히 메시아이심에 대해 밝혀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모세처럼 행동할 것을 기대했다(참조, 신 18:15, 19). 6 장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의 일 특히 소경을 고치신 일(9 장)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음을 보인다.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었다. 문제는 예수께서 그들의 전통적인 관념인 군사적, 국가적 기대에 부응하는 메시아상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10:25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자신의 하는 일이 자신의 주장을 증거한다고 주장했다(참조, 2:23; 5:36; 10:25, 38; 14:11; 15:24).

10:28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은 양과 질을 가진다. 이것은 새 시대의 삶이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참조, 3:36; 11:24-26).

▣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과거 중간태 가정법과 쓰인 이중 부정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성도를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귀절 중의 하나이다(참조, 6:39).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임을 보여준다(참조, 롬 8:38-39; 갈 5:2-4). 확신은 반드시 인내와 함께 가야한다. 확신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 행하심에 근거해야 한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신뢰하는 자들의 확신을 주장한다. 이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있는 삶으로 이어진다. 신학적인 문제는 이 개인적인 관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한번 구원받아, 계속 구원받은”)상태로 언제 바뀌어 지는 가이다. 계속적인 믿음은 참된 구원의 증거이다(참조,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서).

10:29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신개정표준역(NRSV)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은 모든 것보다 크다”
현대영어성경(TEV)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것은 어느 것보다 크다”
신예루살렘성경(NJB)	“그가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내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크시다”

문제는 무엇이 “더 큰”가 이다: (1)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NRSV, TEV) (2) 하나님 자신(NASB, NKJV, NJB). 이 절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낚아채려는 자들을 암시한다. 신학적으로 두 번째 것이 더 맞다. 6:37 의 특별주제 확신을 보라.

이것은 아버지의 능력에 근거한 믿는 자들의 확신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다! 성도에 대한 보호하심은 성경의 다른 진리들과 같이 긴장으로 가득 찬 계약적인 용어로 제시되고 있다. 믿는 자들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 그의 자비와 은혜에 기초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안에 계속 있어야 한다. 구원은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행해진 회개와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반드시 계속적인 회개, 믿음, 순종, 인내로 이어져야만 한다! 구원은 결과(생명보험, 천국행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갖는 성장하는 인격적인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결정적인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믿음과 섬김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다(참조, 마 7).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참조, 고전 2-3)을 지지하는 성경적인 증거는 희박하다. 규범은 현재 그리스도와 같게됨을 위한 것이지, 죽은 이후의 천국을 위한 것은 아니다. 죄안에서 자라고, 죄를 섬기고, 죄와 씨름하는 자들을 위한 성경적인 안전과 확신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뿌리가 없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참된 구원은 “착한 행실들”을 맺을 것이다(참조, 엡 2:10; 약 2:14-26).

10:30-33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 . .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신성을 강하게 선언하는 내용이다(참조, 1:1-14; 8:58; 14:8-10). 유대인들은 그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아들었고 그말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다(참조, 33 절; 8:59). 그들은 레 24:16 에 기초하여 그에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

개역개정 10:31-39

[32]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7]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39]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10:31 이절은 30 절에 있는 예수님의 선언과 관련된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죄에 대해 매우 특이한 랍비적 논리로써 대답하셨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용어(참조, 창 1) *엘로힘*에 근거한 언어유희적 답변이다. 이것의 복수형은 천사들이나 인간 지도자들(사사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다.

10:32 선한(*칼로스*) 목자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선한(*칼로스*) 일을 한다.

10:33 “신성모독” 예수님은 그들이 아버지와 하나라는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이해했음을 아셨다.

10:34 “너희 율법에” 예수님은 시편에서 이 귀절을 인용하시되, 그것을 “율법”으로 칭하신다(참조, 12:34; 15:25; 롬 3:9-19). 율법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모세의 책(토라, 창세기-신명기)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구약 전체를 말할 때도 사용되었다.

▣ **"너희는 신이다"** 예수님은 시편 82:6 을 인용했다. 여기서 *엘로힘*은 인간 재판관들을 말한다. 그들은(비록 악했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들"로 불리운다. 이 유대인들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인 것으로 말씀함을 인해 그를 공격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들(참조, 출 4:16; 7:1; 22:8, 9; 시 82:6; 138:1)도 "신들"로 불렸다.

예수의 랍비적 논쟁은 이런 요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진실되다, 사람들이 *엘로힘*으로 불리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고 왜 나를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말하는가? 히브리어 *엘로힘*은 복수형이지만 단수로서 취급되었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일컬을 때 단수형의 동사를 사용했다. 이것은 요한의 대표적인 언어유희에 속한다: (1) 두 가지 의미를 갖는 용어의 사용이라는 점과 (2)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하는 헬라어 질문이라는 점 때문이다.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요한은 종종 예수님의 대화를 설명한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요한의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둘 다 똑같이 감동받았기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인용의 핵심은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과 구약에 대한 그들의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참조, 마 5:17-19; 고전 2:9-13; 살전 2:13; 딤후 3:16; 벧후 1:20-21; 3:15-16).

주교 H. C. G. 물은 *주교 물의 생애*에서 말하기를,

"그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성경을 신뢰했다. 따라서, 비록 그 안에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 자주 당황하게 되지만, 그 분 때문에 나는 눈 먼자세가 아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신뢰한다"(138 쪽).

10:36 이 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를 택하셨고(또는 "신성하게 했고" 혹은 "거룩하게 했고") 그를(메시아로서) 보내셨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 질 권리를 가졌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대표하였듯이(참고, 시 82:6), 그는 말과 행위로 아버지를 대표하고 계신다.

10:37 이것은 19-21 에 있는 말씀 그대로이다. 예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낸다.

10:37, 38 "만일 . .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했다. 만일 그렇다면, 그 땐 그들은 그와 아버지는 하나임(30, 38 절)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그를 믿어야 한다. 요일 2:10 의 특별주제: 거함을 보라.

10:39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한 사람들을 피한 몇 경우 중 하나이다(참조, 눅 4:29-30; 요 8:59). 어떻게 위험을 피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1) 기적의 사용 혹은 (2) 예수께서 사람들과 같은 육체를 가짐으로 인해 군중속에 섞여 피함.

개역개정 10:40-42

[40]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41]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10:40 이것은 베다니로 불리는 도시 가까이에 있는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지역을 뜻한다.

10:42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반면, 매우 많은 백성들이(땅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왔다(참고, 2:23; 7:31; 8:30).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요한은 자주 여러 개의 은유를 함께 사용하는가(예: "예수님은 양의 문이면서 선한 목자이다")?
2. 요한복음 10 장의 구약적 배경은 무엇인가?
3. 예수께서 "자기 생명을 내버리심"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4. 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귀신들렸다고 비난했는가?
5. 왜 예수님의 사역은 중요한가?
6.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의 안정성"을 "성도의 견인"과 연결시킬 것인가?

요한복음 1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를 살리심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의 부활
11:1-16	11:1-16	11:1-6	11:1-3	11:1-4
			11:4	
			11:5-7	11:5-10
		11:7-16		
			11:8	
			11:9-11	
				11:11-16
			11:12	
			11:13-15	
			11:16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11:17-27	11:17-27	11:17-27	11:17-19	11:17-27
			11:20-22	
			11:23	
			11:24	
			11:25-26	
			11:27	
예수께서 우심	예수와 마지막 원수인 죽음		예수께서 우심	
11:28-37	11:28-37		11:28-31	11:28-31
			11:32	11:32-42
			11:33-34a	
			11:34b	
			11:35-36	
			11:37	
나사로가 생명을 얻다	죽은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		나사로가 생명을 얻다	
11:38-44	11:38-44	11:38-44	11:38-39a	
			11:39b	
			11:40-44	11:43-44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예수에 대한 음모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죽임을 결의함
11:45-53	11:45-57	11:45-53	11:45-48	11:45-54
			11:49-52	
			11:53-54	
11:54		11:54		유월절이 가까와 옴
11:55-57		11:55-57	11:55-57	11:55-57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1:1-16

**1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3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7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1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13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14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16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1: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것은 미완료형이다. 이 시제는 그가 오랜 기간동안 병들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한편, 미완료시제는 "아프기 시작했다"로 해석할 수 있다.

▣ **"나사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또는 "하나님이 도움자이시다"라는 뜻의 히브리 이름인 "엘리에셀"이다. 요한은 그의 독자들이 예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친분이 있으셨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참조, 눅 10:38-42 은 공관복음에서 그들에 대한 유일한 언급이다).

▣ **"배다니"** 이것은 1:28 과 10:40 에 나오는 요단강가 여리고에 가까이 위치한 베다니와는 다른 장소이다. 이 베다니는 감람산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동남쪽으로 약 3 킬로미터 떨어진 지역에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머물렀던 곳 중의 하나이다.

▣ **"마리아"** 이것은 히브리 이름 "미리암"을 말한다.

▣ **"마르다"** 이것은 아람어의 "여주인"을 뜻한다. 가장 연장자인 마르다의 이름이 맨 처음 언급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이것은 눅 10:38-42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기사(참조, 12:2-8) 는 마태복음(참조, 26:6-13)과 마가복음(참조, 14:3-9)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눅 7:36 이하에서 어떤 여자가 기름부은 유사한 사건은 다른 여자의 사건이다.

이절은 복음서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사건을 보여 준다. 이것은 12 장에 기록되었다.이 기록은 요한이 그의 독자들이 다른 기록을 통해 이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한다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특별주제: 성경에서의 기름 부음

가. 미용을 위해 사용(참조, 신 28:40; 룻 3:3 삼하 12:20; 14:2; 대하 28:1-5; 단 10:3; 암 6:6; 미 6:15)
나. 손님을 위해 사용(참조, 시 23:5; 눅 7:38, 46; 요 11:2)
다. 병고침을 위해 사용(참조, 사 6:1; 렘 51:8; 막 6:13; 눅 10:34; 약 5:14) [위생을 위해서는 겔 16:9]
라. 장례의 준비를 위해 사용(참조, 창 50:2; 대하 16:14; 막 16:1 요 12:3, 7; 19:39-40)
마. 종교적 목적을 위해 사용(물건, 참조, 창 28:18, 20; 31:13 [기둥]; 출 29:36 [제단]; 출 30:36; 40:9-16; 레 8:10-13; 민 7:1 [회막])
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사용
  1. 제사장
    ㄱ. 아론(참조, 출 28:41; 29:7; 30:30)
    ㄴ. 아론의 아들들(참조, 출 40:15; 레 7:36)
    ㄷ. 일반적 표현이나 칭호(참조, 민 3:3; 레 16:32)
  2. 왕
    ㄱ. 하나님에 의해(참조, 삼상 2:10; 삼하 12:7; 왕하 9:3, 6, 12; 시 45:7; 89:20)
    ㄴ. 선지자에 의해(참조, 삼상 9:16; 10:1; 15:1, 17; 16:3, 12-13; 왕상 1:45; 19:15-16)
    ㄷ. 제사장에 의해(참조, 왕상 1:34; 39; 왕하 11:12)
    ㄹ. 장로에 의해(참조, 삿 9:8, 15; 삼하 2:7; 5:3; 왕하 23:30)
    ㅁ. 메시아적 왕인 예수님의(참조, 삼 2:2; 눅 4:18 [사 61:1]; 행 4:27; 10:38; 히 1:9 [시 45:7])
    ㅂ.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참조, 고후 1:21; 요일 2:20, 27 [*크리스마*])
  3. 아마도 선지자들의(참조, 사 61:1)
  4. 신적 구원을 위한 믿지 않는 자들
    ㄱ. 고레스(참조, 사 45:1)
    ㄴ. 두로 왕(참조, 겔 28:14)
  5. "메시아" 칭호나 용어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뜻함

11:3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은 요단 건너 편 베뢰아에 있던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가족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 이것을 나타내는 헬라어 용어는 *필레오*이다. 한편 코이네 헬라어에서 *필레오*와 *아가파오*는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용어이다(참조, 5 절; 3:35; 5:20).

11:4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셨음을 암시한다. 그는 나사로가 죽도록 하여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아버지께서 그의 능력을 자신을 통하여 나타내시도록 하신 것이다. 때때로 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다(참조, 욥기; 고후 12:7-10).
▣ **"하나님의 영광"** 1:14 절의 설명을 보라.

▣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소유격인 "하나님의"는 고대 헬라어 파피루스 사본인 P^{45} 나 P^{66} 에 빠져있다. 병듦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복음서 전체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의 영광으로 말한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유대 지도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필요로하게 할 것이다.

11:6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출발을 연기했다! 예수님은 사사로운 인정에 이끌리지 않았다. 이 질병에는 신적인 목적이 있었다(참조, 15 절).

11: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후의 대화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기를 꾀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참조, 8 절; 8:54; 10:39). 제자들은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특이한 상태를 보인다(참조, 16 절). 도마는 종종 의심많은 제자로 여겨지지만, 여기서는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하고 있다.

11:9-10 이것은 8:12 과 9:4-5 과 연결될 수 있다(참조, 12:35).

▣ **"만일"** 이것은 행동의 가능성을 뜻하는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11:11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동사는 직설법 완료 수동태이다. 제자들은 종종 예수의 말씀을 글자그대로 이해함으로써 예수를 오해했다 (참조, 13 절). 죽음에 대한 예수의 이 은유는 구약에서의 용법을 반영한다 (참조, 신 31:16; 삼하 7:12; 왕상 1:21; 2:10; 11:21, 43; 14:20 등). 영어의 "묘지"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잠을 잠"이라는 용어와 같은 어원에서 왔다.

11:12 "만일" 이것은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이거나 문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절의 제 1 유형이다.

▣ **"그가 낫겠나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육체적 구조"로서 "구원 받은 것"을 뜻하는 구약적 표현이다(참조, 약 5:15).

11:14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7:4 의 특별주제 *파레시아*를 보라.

11: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주님과 나사로와의 친분 때문도 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 때문도 아니요,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위함이고(14 절) 또 유대인 군중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음을 밝힌다(42 절).

11:16 이 절은 도마의 믿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기꺼이 예수와 죽으려 했다. 제자들은 인류의 아주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기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해야 했다.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를 뜻하는데 헬라어 디디머스와 같은 의미이다. 공관복음은 그를 사도 가운데 한 명으로 언급한다(참조, 마 10:3; 막 3:18; 눅 6:15); 요한복음은 종종 그에 대해 언급한다(참조, 1:16; 14:5; 20:24-29; 21:2).

개역개정 11:17-27

**[17]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18]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19]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27]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11:17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랍비들은 사람의 영혼이 3 일 동안 죽은 육체 가까이 머물러 있다고 가르쳤다. 랍비들의 모든 희망이 남지 않고 나사로가 정말 죽었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예수님은 4 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렸다.

11:18 "한 오리쯤 되매" 글자대로는 "15 퍼롱"를 뜻한다(한 퍼롱은 대략 200 미터이다).

11: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 . . 위문하러 왔더니" 요한복음에서 일반적으로 예수의 적들을 가리키는 용어 "유대인"은 여기서 보통의 중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문맥에서 이들은 이 가족을 알고 있던 예루살렘 주민을 단순히 뜻한다(참조, 31, 33, 45).

11:20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바닥에 앉아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슬픔을 나타내는 장소에 있음을 뜻한다.

11:21, 32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사실의 반대"를 나타내는 조건절의 제 2 유형이다. 따라서 이 말은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는데 만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뜻이다. 마르다와 마리아가(참조, 32 절) 예수께 한 말은 매우 유사하다. 그들은 이 4 일 동안의 곡하는 기간동안 이런 내용을 서로 나누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일찍 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추어진 실망감을 표현함으로써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

11: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 예수께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말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왜냐하면 39 절에서 그녀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1:23-24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사후에 있을 일에 대해,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의 부활을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학적 견해를 가졌다. 제한적이지만 구약의 몇 귀절들은 이런 생각을 지지한다(참조, 단 12:2; 욥 14:14; 19:25-27). 예수님은 교리적인 진술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다(참조, 14:6).

11:24 "마지막 날에" 비록 요한이 즉각적인 구원(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날에 있을 완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1. 심판/부활의 날(참조, 5:28-29; 6:39-40, 44, 54; 11:24; 12:48)
2. "시간"(참조, 4:23; 5:25, 28; 16:32)
3. 그리스도의 재림(참조, 14:3; 14:18-19, 28 과 16:16, 22 이 종말론적 재림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후 나타나심과 관련이 되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예수님의 "나는"으로 시작되는 7 가지 선언의 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에 직면하여, 마르다는 그가 살 수 있음을 믿도록 격려받았다. 이 소망은 아버지와 예수의 인격과 능력에 기초한다(참조, 5:21).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본문에서 구문적으로 중요한 점들이 여러 가지있다: (1) 포괄적인 대명사 "모든" (2) 계속적인 믿음(25, 26 절)의 필요를 말하는 현재형 분사 (3) 죽음과 연관된 강한 이중부정인 "결코, 결코 죽지 않는다" 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영적 죽음을 분명히 말한다. 영생은 믿는 자들의 현재적인 실재이지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이 아니다.

11:27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완료시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대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고백이다. 이것은 가이사랴에서 베드로가 한 고백과 신학적으로 같은 종류의 것이다(참조, 마 16).

그녀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1.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
2. 하나님의 아들(메시아를 일컫는 구약 칭호)
3. 오실 자(의의 새 시대를 가져 올 하나님의 약속 된 자를 가르키는 또 다른 구약 칭호, 참조 6:14)

요한은 진리를 전달하는 문학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사용하고 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여러 가지 신앙고백이 나온다(참조, 1:29, 34, 41, 49; 4:42; 6:44, 69; 9:35-38; 11:27). 2:23 의 특별주제인 요한이 사용하는 믿음의 의미를 보라.

개역개정 11:28-37

28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31**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34**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11:30 이것은 사도인 저자의 목격자로서의 또 다른 진술이다.

11:33

신미국표준역(NASB)	"그가 심령에 깊이 감동이 되어 고통을 받으시고"
뉴킹제임스역(NKJV)	"그가 심령에 신음하며 고통을 받으시고"
신개정표준역(NRSV)	"그가 심령에 크게 산란하게 되며 감동을 받으시고"
현대영어성경(TEV)	"그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감격하여"
신예루살렘성경(NJB)	"예수께서 크게 산란하게 되어, 깊은 한숨으로"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심령에 거세게 숨을 쉬는 것"을 말한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화를 내는 것을 가리킨다 (참조, 단 11:30 [70 인역]; 막 1:43; 14:5).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정서적으로 깊이 감동이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함이 더 좋다(참조, 38 절). 비록 어떤 주석가들은 노함을 나타냈을 이 강한 감정이 죽음에 대한 것이었을 것이라고 보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단호한 인간적 감정을 가지셨고(참조, 33, 35, 36, 38 절) 또한 이것을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드러내고 계신다.

11:37 이 질문은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한다.

개역개정 11:38-44

[38]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11:38 "무덤" 이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1) 절벽처럼 파내어 고랑을 따라 둥그런 돌을 굴려 막은 굴이거나 (2) 땅 밑에 파낸 구덩이로서 큰 돌들을 덮은 형태였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연구를 통하여 볼 때 (1) 번 항의 형태가 더 잘 들어 맞는다.

11:39 "돌을 옮겨 놓으라" 홈을 따라 큰 돌을 굴려 무덤을 막는 방법이 쓰였다.

▣ **"(그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이것은 헬라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글자대로는 "4 일된 사람"을 뜻한다.

11:40 "만일" 이것은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이 절은 "그렇다"라는 답을 기대한다.

▣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행하시는 일들에서 드러났다(참조, 4 절). 1:14 절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11:41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자세는 두 손을 들고 (뜬)눈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었다.

11:42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기적을 행하심의 목적을 나타낸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북돋기 위해 종종 기적을 행하셨다. 이번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의 믿음이 생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위와 우선권을 다시 한번 드러내신다(참조, 5:19, 30; 8:28; 12:49; 14:10). 이 기적은 예수께서 가지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11:43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만일 예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특별히 지목하여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곳의 무덤에 있던 자 모두가 무덤 밖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말해진다!

11:44 장례를 위해 그들은 시신을 물로 씻고, 그 후에는 향료를 흩 뿌린 아마 천 띠로 싸 매어 냄새가 새어 나가지 못하게 했다. 유대인들은 시신에 방부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시신을 24 시간안에 매장했다.

특별주제: 장례 관습

I. 메소포타미아
   가. 행복한 내세를 위해 적절한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
   나. 메소포타미아인들의 저주의 한 예는, "땅이 당신의 시체를 받아주지 않기를 . . . " 이었다.

II. 구약
가. 적절한 장례는 매우 중요했다(참조, 전 6:3).
나. 매우 신속히 진행되었다(참조, 창 23 장에서의 사라와 창 35:19 에서의 라헬의 경우와 신 21:23 의 주의사항).
다. 부적절한 장례는 거부됨과 죄의 표식이었다.
1. 신 28:26
2. 사 14:2
3. 렘 8:2; 22:19
라. 가능하다면 장례는 집 근처에 있는 가족 묘지나 굴에서 행해졌다.
마. 이집트에서와 같은 방부처리는 하지 않았다. 사람은 흙에서 왔기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예, 창 3:19; 시 103:14; 104:29).
바. 랍비적 유대교에서 시신에 대한 적절한 존경과 취급을 하는 일과 죽은 자의 몸에 접촉됨으로서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하게 되는 개념을 조화시키는 일은 어려웠다.

III. 신약
가. 장례는 임종 후에 신속히 진행되었는데, 대개 24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 유대인들은 종종 무덤을 3 일간 지켰는데, 그 이유는 이 기간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 올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참조, 요 11:39).
나. 장례를 위해서 시신을 씻는 일과 향신료를 사용하여 감싸는 과정을 거쳤다(참조, 요 11:44; 19:39-40).
다. 1 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행해진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독특한 장례 방법이나, 혹은 독특하게 무덤안에 넣어 두는 물품의 사용은 없었다.

개역개정 11:45-46

[45]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11:45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것은 복음서의 명시된 주제이다(참조, 20:30-31). 이 구절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 되고 있다(참조, 2:23; 7:31; 8:30; 10;42; 11:45; 12:11, 42). 그러나, 다음의 사실은 다시 강조되어야만 한다. 즉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여러 단계로 되어 있고 언제나 구원받는 믿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2:23-25; 8:30 이하).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11:46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듯 놀라운 가르침과 능력있는 기적들을 대하면서도 심각한 영적 소경이라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다. 한편 예수께서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자신을 믿으러 오는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누셨다. 이번 같이 놀라운 기적도 모든 이를 믿게하지는 않았다(참조, 눅 16:30-31).

개역개정 11:47-53

[47]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그 중의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못하는도다 [50]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53]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11:47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의 최고법률기관인 산헤드린을 말한다. 70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으로 알려진 정치적, 종교적 종파로서, 모세오경만 받아들였고 부활은 부인했다. 바리새인들은 보다 더 대중적이고 규범적인 종교인들로서 (1) 모든 구약 (2) 천사들의 사역 (3) 사후세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칭한 것은 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경멸을 나타내는 방법에 속한다. 나사로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큰 기적을 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선입견으로 왜곡된 생각이 그들의 눈을 이렇듯 완전하게 감기고 있는 점은 놀랍다(참조, 고후 4:4).

11:48 "만일" 이것은 잠재력을 나타내는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신학적인 이견뿐만 아니라 시기심도 예수께 대한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의 원인이었다. "모든"이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정치적 이유도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모순적인 예언가운데 하나인데, 그 이유는 주후 70 년에 로마 장군(후에 황제가 된) 티투스에 의해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로마가 지배하는 정치적 실재는 유대인의 마지막 때(종말론적)의 희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사와 같은 종교적/군사적 인물을 보내주셔서 로마의 지배로부터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해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이루기 위해 팔레스타인에서 반란을 주도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국이 시간과 정치적 영역에 속하지 않고, 영적인 왕국으로서 장차 전 세계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문자적이거나 유대적 국수적의미에서가 아니라 구약의 성취임을 주장했다. 이 이유로 인해서 그는 당시의 대부분의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았다.

11:49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제사장직은 평생직으로서 아들에게 승계되었다. 하지만 로마가 정복한 이후에는, 감람산과 성전 지역에서의 돈 벌이가 되는 장사가 가능하기에 그 직분은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가야바는 주후 18-36 년에 대제사장이었다.

11:50-52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이것은 요한이 사용한 풍자법의 또 다른 예이다. 가야바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11:52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은 10:6 과 병행되는 내용으로 요한의 추가적인 설명으로 보인다. 그들은 (1) 팔레스타인이 아닌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2)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혼혈 유대인들 (3) 이방인들을 가리킬 수 있다. (3)번 항목이 바른 설명으로 여겨진다.

11:53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5:18; 7:19; 8:59; 10:39; 11:8).

개역개정 11:54

[54]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11: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2 장은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 시도한 마지막 대면을 기록하고 있다.

▣ **"에브라임이라는 동네"** 이 동네는 사마리아지방의 벧엘에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참조, 대하 13:19).

개역개정 11:55-57

[55]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11:55-57 이절들은 11 장 과 12 장을 연결하고 있다.

11:55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이것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씻는예식을 말하고 있다. 얼마동안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서 가르치셨고 설교했으며 사역했는지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공관복음은 1 년 이나 2 년 동안 사역하신

구조를 보인다. 한편, 요한은 여러 번의 유월절(1 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인)을 기록하고 있다. 3 번이 확실하게 기록되었고(참조, 2:13; 6:4; 11:55), 그 외에 4 번 째로 보이는 "축제"가 5:1 에 나온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나?
2. 기적은 누구에게 초점이 두어지고 있는가?
3. 부활과 소성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4. 왜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인해 당혹해 했는가?

요한복음 12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기름부음을 받다	베다니에서의 기름부음
12:1-8	12:1-8	12:1-8	12:1-6	12:1-8
			12:7-8	
나사로에 대한 음모	나사로를 죽이려는 음모		나사로에 대한 음모	
12:9-11	12:9-11	12:9-11	12:9-11	12:9-11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	승리의 입성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다
12:12-19	12:12-19	12:12-19	12:12-13	12:12-19
			12:14	
			12:15	
			12:16	
			12:18-19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음	열매맺는 밀알	공적사역을 마치신 예수	어떤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음	예수께서 미리 자신의 죽음과 영광을 말하심
12:20-26	12:20-26	12:20-26	12:20-21	12:20-28a
			12:22-26	
인자가 반드시 들려야 함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미리 말씀하다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다	
12:27-36a	12:27-36	12:27-36a	12:27-28a	
			12:28b	12:28b
			12:29	12:29-32
			12:30-33	
				12:33-36a
			12:34	
			12:35-36a	
유대인들의 불신앙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을 것인가?		사람들의 불신앙	
12:36b-43		12:36b-43	12:36b-38	12:36b
				결론: 유대인들의 불신앙
	12:37-41			12:37-38
			12:39-40	12:39-40
			12:41	12:41

	빛 안에서 걷기		12:42-43	12:42-50
예수의 말씀의 심판	12:42-50		예수의 말씀의 심판	
12:44-50		12:44-50	12:44-50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50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네 복음서는 모두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마 26:6-13; 막 14:3-9; 요 12:2-8 은 그녀를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로 알려주는 한편, 눅 7:36-50 은 그녀를 갈릴리의 죄인인 여자로 말한다.

나. 12 장은 예수의 공적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거듭 거듭 시도했다. 11 장은 예루살렘 주민을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시도한 그의 노력을 보여준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2:1-8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 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2:1 "유월절 엿새 전에" 이것은 마 26:2 에 나타난 사건의 순서와 다르다. 복음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초점이 사건의 연대기를 제공하는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의 인성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는 예수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2:2 "그들이"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기념하여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게 저녁을 제공한 베다니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마 26:6 에서는 이 일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

12:3 "한 근" 이것은 라틴어로 로마의 파운드를 가리키는데, 그 무게는 약 360 그램이다. 이 비싼 향유는 아마도 마리아가 결혼 지참금으로 받은 예물이었을 것이다. 많은 미혼 여성들은 이런 종류의 향유를 목 주위에 있는 통에 지녔다.

▣

신미국표준역(NASB)	"순전한 나드의 지극히 비싼 향유 한 근"
뉴킹제임스역(NKJV)	"지극히 비싼 감송 기름 한 근"
신개정표준역(NRSV)	"순전한 나드로 만든 지극히 비싼 한 근의 향유"
현대영어성경(TEV)	"순전한 나드로 만든 지극히 비싼 향유 한 병"
신예루살렘성경(NJB)	"순전한 나드인 지극히 비싼 한 근의 향유"

형용사로 쓰인 단어의 뜻에 대하여: (1) 순전한 (2) 액체의 (3) 지역이름이 추측되고 있다. 향유자체는 히말라야에서 자라는 식물의 향기나는 뿌리에서 얻은 것으로서 매우 비쌌다.

▣ **"예수의 발에 붓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인이 그의 머리에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리아는 분명히그의 머리에서 시작하여 발까지 온 몸에 기름을 부었다. 예수의 발이 노출된 이유는 그가 왼쪽 팔꿈치에 기대어 낮은 식탁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요한의 이중의미 가운데 하나이다. 이 향료는 보통 장례를 위해 시신을 준비하는데 쓰였다(참조, 19:40).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제자들보다 더 잘 깨달았던 것 같다(참조, 7 절). 11:2 에 있는 기름부음에 대한 특별주제를 보라.

12:4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어원을 가진다: (1) 유다의 도시(키르옷, 참조, 수 15:25) 혹은 (2) "암살자의 칼."

▣ **"잡아 줄"**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이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글자대로는 "손에 넘기다," 법정에서 "넘기다" 또는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다를 의미한다.

12:5 "삼백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군인이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금액은 거의 일 년의 임금에 해당했다.

12:6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돈 상자"
신개정표준역(NRSV)	"공동의 지갑"
현대영어성경(TEV)	"돈 자루"
신예루살렘성경(NJB)	"공동 자산"

이 단어는 "작은 상자"를 뜻한다. 원래는 음악가가 자신의 악기를 부는 부분을 담아 다니는 통으로 사용했다.

▣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헬라어 단어는 "지님"을 뜻한다. 이 것은 두 가지 다른 의미를 갖는다: (1) 그는 상자를 갖고 다녔다 (2) 그는 또한 상자 안의 물건을 꺼내어 다녔다. 이 내용은 5 절의 유다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사는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챙기려는 술수였음을 보이기 위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2:7 이것은 이상한 절이다. 이것은 분명히 이 아낌없고 헌신적인 행동을 그의 장례에서 이루어진 비슷한 과정을 분명히 연결하고 있다(참조, 19:40). 이는 요한의 예언적 행동의 또 다른 예이다.

12: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것은 신 15:4, 11 과 관련된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얕보는 말이 아니라 메시아의 현존에 대한 강조이다. 구약은 가난한 자의 권리, 그들에 대한 돌봄에 대한 고대 근동의 자료가운데 매우 독특한 내용을 제공한다.

개역개정 12:9-11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12: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다. 이 말은 보통 예수께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1:19, 45; 12:17 에서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나사로의 친구들로서 그의 장례식에 왔던 자들이다.

12: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원했다! 그들의 동기는 두려움(참조, 18:48)과 시기(참조, 11:48; 12:11)였다.

12:11 이것은 11:45 과 연결된다. 2:23 에 있는 특별제목: 요한의 "믿다"라는 동사사용을 보라.

개역개정 12:12-19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 데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12:12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유대인 남자들은 세 명절을 참석하도록 요구되었다(참조, 출 23:14-17; 레 23; 신 16:16). 팔레스타인 외부(디아스포라)에 살던 유대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있는 명절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명절기간에는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상시의 3 배에서 5 배로 늘어났다. 이 구절은 예수에 대해 들어서 그를 만나기 원하던 호기심 가득한 많은 순례자들을 일컫는다.

12:13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일컫는 일상적인 헬라어가 아니다. 어떤 이는 한 때 감람산 비탈에 종려가 자랐다(즉, 요세푸스)고 믿고, 다른이는 종려나무 가지가 여리고에서 부터 가져온 것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승리난 개선의 상징이었다(참조, 계 7:9). 그것은 해마다 초막절과 유월절 때 사용되었다.

▣ **"외치되"** 이것은 미완료시제로서 (1) 과거에 반복된 행동 혹은 (2) 과거에 어떤 일이 시작된 것을 나타낸다.

▣ **"호산나"** 이 용어는 "지금 구원하소서" 또는 "제발 구원해 주소서" 라는 뜻이다(참조, 시 118:25-26). 유월절 의식 기간동안에 순례자들은 성전으로 가는 동안 힐렐시편(참조, 시 113-118)을 암송했다. 이 일들과 암송은 유월절 기간동안 해마다 계속되어왔다. 하지만 그들은 이 특별한 해에 그것들의 궁극적인 의미를 예수님안에서 발견했다! 무리가 이 사실을 감지했다. 그들이 외친 소리가 이것을 의미한다.

▣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것은 예수께서 주장해 온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는 보내심은 받은 자였다! 그는 하나님을 대표한다.

▣

신미국표준역(NASB) "이스라엘의 왕까지"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이스라엘의 왕"

이 표현은 시편에는 없지만 무리가 덧붙인 내용이다. 이것은 삼하 7 장에 약속된 메시아적 왕으로 예수를 일컫는 직접적인 언급이다(참조, 막 11:10).

12:14 "한 어린 나귀" 나귀는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시 사용했다(참조, 왕상 1:33, 38, 44). 오직 왕만이 자신의 나귀를 탔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전에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를 타신 것은 매우 중요하다(참조, 막 11:2).

12:14-15 "기록된 바" 이것은 슥 9:9 의 인용이다. 나귀 새끼는 메시아적 왕인 것 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기대처럼 군사적으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신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12: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것은 계속 나오는 내용이다(참조, 2:22; 10:6; 16:18; 막 9:32; 눅 2:50; 9:45; 18:34).

▣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 . . 생각났더라"** 기억하는 일은 성령의 사역중의 하나이다(참조, 14:26; 2:22).

이절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였음을 보여준다. 공관복음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예수를 드러내되 그 절정에 이를 때 까지 그의 영광을 가리는 반면, 요한은 그의 복음서 전체를 영광받으신 메시아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복음서들은 이런 나중의 기억들을

반영하며, 믿음 공동체는 이같은 영감받은 자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두 가지 역사적 배경(요한과 그들의)이 있는데 둘 다 영감되었다.

▣ **"영광을 얻으신"** 1:14 의 설명을 보라.

12:17 1:8 의 특별제목: 예수께 대한 증거를 보라.

12: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또 하나의 예언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1) 11:48; 12:11 의 유대인들 (2) 20-23 절의 이방인들과 관련된다. 이것은 두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다: 예수의 생애와 초대교회.

개역개정 12:20-26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12:20 "헬라인 몇이" 이것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사용되었고, 헬라인들을 특별히 지칭하지는 않는다.

▣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현재형은 그들이 명절에 계속하여 올라온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거나 (2)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첫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회당에서의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석했고 두 번째 경우는 공식적으로 유대교 신앙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12:21 "청하여 이르되" 이것은 미완료시제로서 (1) 그들이 거듭해서 요청한 점 또는 (2) 그들이 요청하기를 시작한 점을 의미한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사적인 면담을 원했다. 이일은 분명히 예수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언적 시간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났다(참조, 23 절).

12:22 빌립과 안드레는 둘 다 헬라어 이름이다. 이점은 이 헬라인들이 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좀 더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12:23 "때가 왔도다" 이것은 완료시제이다. 요한은 자주 "때"라는 용어를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기 위해 사용했다(참조, 12:27; 13:1, 32; 17:1).

▣ **"인자"** 이것은 단순히 "인간"을 뜻하는 아람어이다(참조, 시 8:4; 겔 2:1). 한편 단 7:13 에서는 신적의미를 더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일컫기 위해 사용한 용어로서 그의 두 모습인 인성과 신성을 드러낸다(참조, 요일 4:1-6).

▣ **"영광을 얻을"** 예수님의 죽음은 항상 "그의 영광"을 가리킨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 의미로 여러번 사용되었다(참조, 28[2 회], 32, 33 절). 이것은 종종에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낸다(참조, 13;1, 32; 17:1). 1:14 의 설명을 보라

12:24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것은 사물이나 현상을 오감으로 알 수있게 나타내고 설명하는 표현이다. 한 알의 씨는 많은 씨를 맺는다(참조, 고전 15:36). 그의 죽으심은 많은 이들을 참된 생명으로 이끄셨다(참조, 막 10:45).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이 문맥에서는 가능성이나 있음직한 행동을 말한다(참조, 24, 26, 32, 47 절).

12: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인간의 인격이나 삶의 힘의 정수를 뜻하는 헬라어 *프쉬케*를 사용한 언어유희에 속한다(참조, 마 10:39; 16:25).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는 즉시 새생명을 받는다. 이 새생명은 섬김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신의 개인적 용도를 위한 것이 아니다. 믿는자들은 이 새생명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죄의 노예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참조, 롬 6:1-7:6).

▣ **"잃어버릴 것이요"**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 용어는 "멸망시키다"는 뜻이다. 이것은 "영생"의 반의어이다. 만일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결과는 오직 이것뿐이다. 이 멸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상실이다.

▣ **"미워하는"** 이것은 비교를 뜻하는 히브리어 관용법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선순위에 있어야한다(참조, 야곱의 아내들; 창 29:30, 31; 신 21:15; 에서와 야곱, 말 1:2-3; 롬 10-13; 자신의 가족, 눅 14:26).

▣ **"생명"** 이것은 헬라어의 *조에*이다.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로서 (1) 영적 생명 (2) 영생 (3) 새 시대의 삶 (4) 부활한 삶을 뜻한다.

12:26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가능한 행동을 의미한다.

▣ **"나를 따르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계속적인 관계를 말한다(참조, 요 15). 이것은 소홀히 여겨진 인내라는 성경적 주제이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사이의 신학적 긴장에 의해 종종 혼동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구원을 언약적인 경험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시작하시고(참조, 6:44, 65) 내용을 이루시지만, 그는 또한 인간이 그의 제안에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기를 요구하신다(참조, 막 1:15; 행 20:21). 회개와 믿음은 초기의 결단이요 일생동안 이루어지는 제자됨의 삶이다. 인내는 우리가 그를 안다는 증거이다(참조, 마 10:22; 13:20-211; 갈 6:9; 요일 2:19; 계 2:7, 11, 17, 26; 3:5, 12, 21).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교리는 종종 서로 역설적이고 긴장이 가득한 짝으로 이루어진다. 동양의 문학은 이런 회화적이고 대립적인 사고유형의 특징을 가진다. 오늘날 서구 독자들은 둘 다/그리고의 역설적인 진리를 어느 한쪽만/또는의 선택적인 내용으로 종종 이해한다.

개역개정 12:27-36 상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12:27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아버지, 사탄, 환경 등) 언급되지 않았다. 이 용법의 강조점은 신약에서 여러번 나온다:

1. 헤롯의 두려움(마 2:3)
2. 제자들의 두려움(마 14:26)
3. 예수의 가라앉지 않는 걱정(요 12:26; 13:21)
4. 예루살렘교회(행 15:24)
5. 갈라디아교회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방해(갈 1:7)

요한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상해에 대한 인간 예수의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한다(참조, 막 14:32 이하). 요한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고뇌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말의 의미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이것은 기도인가? 이것은 되어서는 안 될 일에 대하여 놀란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펼쳐졌고(참조, 눅 22:22; 행 2:23; 3:18; 4:28) 그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했다(참조, 마 20:28; 막 10:45).

12:28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성부 하나님은 28 절 하반절에서 대답하신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용어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1) 창세 이전부터의 영광(참조, 17:5) (2) 예수께서 아버지를 계시함(참조, 17:4) (3)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참조, 17:1)을 의미할 수 있다. 1:14 의 설명을 보라.

▣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랍비들은 이것을 *밭-콜*이라고 불렀다. 말라기 이후부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로서 확인될 것이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 번 기록되어있다: (1) 예수님의 침례(세례)시에, 마 3:17 (2) 변화산상에서, 마 17:5 (3) 여기에서.

12: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일어난 일에 대한 두가지 해석은 (1) 이것이 천둥이었다는 해석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되곤 했다(참조, 삼하 22:14; 욥 37:4; 시 29:3; 18:13; 104:7 (2)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행 9:7; 22:9 의 사울의 경험에 대한 혼동과 유사하다.

12: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말은 셈어적인 비교의 방법이다. 이 의미는 이것이 오직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로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뜻이다(참조, 11:42).

12: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것은 다음 귀절("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과 평행을 이룬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 **"이 세상의 임금"**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사탄" 또는 "적대자"로, 헬라어로는 "악마" 또는 "참소자"로 알려진 개인적인 악의 세력(참조, 14:30; 16:11)을 말한다(참조, 마 4:1, 5, 8, 11; 13:39; 25:41; 요 6:70; 8:44; 13:2; 고후 4:4; 엡 2:2). 이 두 가지 이름은 마 4:1-11 과 요 13:2, 27 에서 동의어적으로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개인적인 악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매우 어려운 주제이다

1. 구약은 선에 대한 큰 원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인간에게 다른 쪽의 여지를 제공하거나 사람들의 불의를 고발하는 야웨의 종을 말한다.
2. 하나님께 대항하는 옛 원수의 개념은 신구약 중간시대(정경이 아닌)의 글에서 페르시아 종교(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 발전했다. 이러한 사상은 이어서 랍비적 유대교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3. 신약은 구약의 주제들을 놀랍도록 뚜렷하면서도 선택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켰다.

만일 누구든지 악의 문제를 성경신학의 관점(각 책 또는 저자별, 장르별로 연구하고 개요를 구별하는)에서 접근한다면, 그때는 매우 상이한 견해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외의 자료를 가지고 악에 대해 연구하거나 세계종교에 대한 성경이외의 자료나 동방종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그리스-로마의 강신술에 의해 신약의 많은 부분이 설명되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신적권위를 받아들이는 전제를 갖고 있다면,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념의 발전은 반드시 점진적인 계시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민속전승이나 서양문학(즉, 단테, 밀돈)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단단히 해야한다. 계시에는 어느 정도 신비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대해, 악의 기원에 대해, 악의 목적에 대해 모든 면을 다 알도록 하지 않으셨으나, 그는 악의 패배를 계시하셨다!

구약에서 사탄 혹은 고발자는 세 가지 종류로 사용된 것 같다

1. 사람인 고발자(삼상 29:4; 삼하 19:22; 왕상 11:14, 23, 25; 시 109:6)
2. 천사인 고발자(민 22:22-23; 슥 3:1)
3. 악령인 고발자(대상 21:1; 왕상 22:21; 슥 13:2)

신구약중간시대에 이르러서야 창 3 장의 뱀은 사단으로 알려졌다(지혜서 2:23-24; 에녹 2 서 31:3), 하지만 그 이후에서도 이러한 해석은 랍비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했다(참조, *Sot 9b* 와 *Sanh. 29a*). 창 6 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녹 1 서 54:6 에서 천사로 이해되었다. 내가 이말을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해석의 정확성에 대해 논란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발전되어 온 것임을 밝히려는 이유에서다. 신약의 고후 11:3; 계 12:9 에서 이러한 구약의 모습은 천사들의 개인적인 악(즉, 사탄)으로 설명되고 있다.

개인화된 악의 기원을 구약에서 결정짓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당신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이유의 하나는 이스라엘의 강한 유일신 사상때문이다(참조, 왕상 22:20-22; 겔 7:14; 사 45:7; 암 3:6). 모든 것의 원인은 야웨께로 돌려져 그의 유일하심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참조, 사 43:11; 44:6, 8, 24; 45:5-6, 14, 18, 21, 22).

가능한 정보로는 (1) 욥 1-2 장으로서 여기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중 하나로 나온다 (2) 사 14; 겔 28 장인데 사탄의 자긍심에 비유된 근동 왕들(바벨론과 두로)의 교만이 나온다(참조, 딤전 3:6). 나는 이러한 접근에 대해 교차되는 느낌을 갖는다. 에스겔은 사탄으로써 두로왕을 표현하고(참조, 겔 28:12-16) 이집트왕을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에 비유함(겔 31) 으로써 에덴동산의 비유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사야 14 장 특히 12-14 절은

교만으로 일어난 천사의 반란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하나님께서사탄의 특별한 정체와 기원에 대해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면 이 간접적인 본문은 그것을 다루기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조직신학의 경향인, 신구약의 명확하지 않은 부분, 다른 저자, 다른 책, 다른 장르에서 취한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신적인 퍼즐의 조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

알프레드 에더샤임(메시아이신 예수의 생애와 시간, vol. 2,부록 XIII [748-763 쪽]와 XVI [770-776 쪽])은 랍비적 유대교는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추론적인 귀신론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랍비들의 저술은 이 부분에서 유용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회당에서의 가르침과 달랐다. 나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는 일에 있어서 천사의 중재적인 역할과 반대에 대한 랍비적인 관념이 야웨와 인간의 적인 천사장의 개념으로 연결되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생각한다.

이란(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에 나오는 두 높은 신들에, *아키만* 과 *올마자*, 선 과 악, 기초한 이원론은 야웨와 사탄으로 표현된 유대적으로 축소된 이원론으로 발전되었다.

신약에는 악의 발전에 대한 점진적인 계시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랍비들의 저술이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좋은 예는 "하늘에서의 전쟁"이다. 사탄이떨어진 것은 논리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록된 내용도 묵시적 장르로 가려져 있다(참조, 계 12:4, 7, 12-13). 비록 사탄이 패하여 땅으로 쫓겨났지만, 그는 아직 야웨의 종으로서 역할을 한다(참조, 마 4:1; 눅 22:31-32; 고전 5:5; 딤전 1:20).

우리는 이 영역에서 우리의 호기심을 제어해야만 한다. 유혹과 악에 대한 존재가 있지만,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여전히 책음을 져야 한다. 구원의 이전과 이후 양쪽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통하여서만 승리가 온다. 악은 패배하였고 제거될 것이다!

▣ **"쫓겨나리라"** 이것은 미래 수동 직설법이다. 성경은 언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정확한 시간을 말하지 않고 있다. 사탄은 사 14 장과 겔 28 장에서 이차적으로 다룰 수 있겠다. 이 예언의 귀절은 바빌론과 두로의 교만한 왕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그들의 죄로 가득찬 교만은 사탄의 모습을 반영한다(참조, 사 14:12, 15; 겔 28:16). 그러나 예수님은 칠십인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사탄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말씀한다(참조, 눅 10:18).

구약 전체에 걸쳐 사탄에 대한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 원래 그는 섬기는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한 훌륭한 논의는 A. B. 데이빗슨의 *구약신학* 300-306 쪽에 있다.

12: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가능한 행동을 나타낸다. 이 표현은 (1) 들리는 것 (참조, 3:14) (2)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참조 8:28), 승귀(참조, 행 2:33; 5:31) 또는 높임을 받는 것(참조, 빌 2:9)을 뜻할 수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 표현(이중 의미)의 사용은 요한복음을 특징짓는다.

▣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것은 "새언약"(참조, 렘 31:31-34)의 말씀에 드러나듯이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사랑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과 행동으로써 간청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은유적 사용법은 요 6:44 에 나오고 6:65 에서 설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 이에 대한 구속으로의 초청과 약속이다.

중요한 사본적 차이들이 이 구절에 나타난다. "모든"을 남성형으로 취하면 "모든 남자"로 번역되는데, 고대 헬라어사본 $P^{75(VID)}$, $\aleph^2$, B, L, W 에서 발견된다. 이것을 중성으로 취하면 "모든 것"으로 번역되는데, P^{66} 과 $\aleph$에서 발견된다. 만일 이 단어가 중성이라면 골 1:16-17 과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속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되는데, 이 절은 요한 1 서에서 뚜렷하게 나오는 영지주의 이단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12: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 받은 자"라고 신 21:23 과 연결된다.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돌로 치지 않고 십자가에 못박기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다(참조, 갈 3:13).

12: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 . .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이것은 시편 89 편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구약은 한 명의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통치를 팔레스타인에 이루실 것을 기대했다(참조, 시 100:4; 사 9:7; 겔 37:25; 단 7:14).

12:35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이것은 "걸음"의 은유적 표현이다. 현재 능동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믿음이 계속적인 관계이지 단지 처음의 결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 말씀의 강조점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12:36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주제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요 강조점중의 하나이다(참조, 1:4, 5, 7, 8, 9; 3:19, 20, 21; 5:35; 8:12; 9:5; 11:9, 10; 12:35, 36, 46). 사해사본에서 어두움과 빛은 서로 반대되는 영적 실재이다.

개역개정 12:36 하-43

[36]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38]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41]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12:38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것은 사 53:1 에 있는 고난받는 종에서 인용한 말씀이다.

12:39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것은 미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과 현재 능동 명령이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다. 그의 기적은 그들이 예수께 관심을 갖게는 하였지만,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믿는 구원으로는 인도하지 못했다.

▣ **"이사야가 다시 이르되"** 사 6:10; 43:8 은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말하고 있다(참조, 렘 5:21; 겔 12:2; 신 29:2-4)
.

12:40 "마음" 다음의 특별제목을 보라.

특별주제: 마음

70 인역과 신약에서 헬라어 *카르디아* 는 히브리어 *렙* 을 가르키는 단어로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참조, 바우어, 알드트, 깅그리치, 댄커, 헬라어-영어 사전, 403-404).

1. 사람에 대한 은유로서 육체적 생명의 중심(참조, 행 14:17; 고후 3:2-3; 약 5:5)
2. 영적(도덕적) 삶의 중심
    ㄱ.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참조, 눅 16:15; 롬 8:27; 고전 14:25; 살전 2:4; 계 2:23)
    ㄴ. 인간의 영적인 삶을 나타냄(참조, 마 15:18-19; 18:35; 롬 6:17; 딤전 1:5; 딤후 2:22; 벧전 1:22)
3. 생각의 중심(즉, 지성, 참조, 마 13:15; 24:48; 행 7:23; 16; 28:27; 롬 1:21; 10:6; 16:18; 고후 4:6; 엡 1:18; 4:18; 약 1:26; 벧후 1:19; 계 18:7; 고후 3:14-15 과 빌 4:7 에서 마음과 동의어로서)
4. 의지의 중심(즉, 뜻, 참조, 행 5:4; 11:23; 고전 4:5; 7:37; 고후 9:7)
5. 감정의 중심(참조, 마 5:28; 행 2:26, 37; 7:54; 21:13; 롬 1:24; 고후 2:4; 7:3; 엡 6:22; 빌 1:7)
6. 성령이 활동하는 특별한 장소(참조, 롬 5:5; 고후 1:22; 갈 4:6[즉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 엡 3:17])
7. 마음은 한 사람 전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참조, 마 22:36, 신 6:5 의 인용임). 마음으로 말해지는 생각, 동기, 행동은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충분히 드러낸다. 구약은 이 용어의 특징적인 용례를 보인다
    ㄱ. 창 6:6; 8:21,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셨다" (또한 호 11:8-9 의 설명을 보라)
    ㄴ. 신 4:29; 6:5,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ㄷ. 신 10:16, "할례받지 못한 마음"과 롬 2:29
    ㄹ. 겔 18:31-32, "새 마음"
    ㅁ. 겔 36:26, "새 마음" 대 "심비"

12: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주장한다(참조, 눅 24:27). 1:14 의 "영광"에 대한 설명을 보라.

12:42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었다(참조, 11 절; 행 6:7).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참조, 9:22; 16:2).

12:43 이것은 참된 믿음도 약하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요한의 복음은 믿는다(*피스튜오*)를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데, 감정적으로 반응을 나타내는 초기 단계의 다가옴부터 구원받는 참된 믿음까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개역개정 12:44-50

44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12:44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믿음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아버지께 있어야 한다(참조, 고전 15:25-27). 이것은 자주 나오는 주제이다(참조, 마 10:40; 5:24). 아들을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참조, 요일 5:10-12).

12: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가리킨다. 계속적인 순종은 우리가 믿음으로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확신은 변화되어 순종과 인내로 계속 변화되고 있는 삶에서 나온다(참조, 야고보서와 요한 1 서).

12:47-48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무엇보다도 예수는 세상을 속량하려고 오셨다. 그가 오신 사실은 사람들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만일 그들이 그를 거부한다면, 그들 스스로 자신을 심판한다(참조, 요 3:17-21).

12:49-50 예수는 자기 자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셨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왜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었는가?
2. 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태, 마가, 요한은 왜 조금씩 서로 다른가?
3.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한 일과 시편 118 편의 인용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4.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기를 요청한 것에 왜 감동을 받았는가?
5. 예수님의 심령은 왜 그렇게 깊이 민망하게 되었는가? (참조, 27 절)
6. 요한이 "믿다"라는 용어를 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지 설명하라.

요한복음 1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제자들이 발을 씻기심	주인이 종이되다	최후의 만찬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	발을 씻기심
13:1-11	13:1-11	13:1-11	13:1	13:1
			13:2	13:2-5
				13:6-11
			13:7	
			13:8a	
			13:8b	
			13:9	
	우리도 섬겨야 한다		13:10-11	
13:12-20	13:12-30	13:12-20	13:12-17	13:12-16
				13:17-20
			13:18-20	
예수께서 그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그의 배신을 예언하시다	미리 말씀한 유다의 배반
13:21-30		13:21-30	13:21	13:21-30
			13:22-24	
			13:25	
			13:26-29	
			13:30	
새 계명	새 계명		새 계명	고별설교
13:31-35	13:31-35	13:31-35	13:31-35	13:31-35
베드로의 부인을 미리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다	
13:36-38	13:36-38	13:36-38	13:36a	13:36-38
			13:36b	
			13:37	
			13:38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3:1-38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요한은 공관복음서와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만찬(성찬)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는 유일하게 그날 밤 다락방에서 있었던 대화를 알려준다(13-17 장). 어떤 이는 이러한 생략이초대교회에서 점점 커지고 있던 성례전에 대한 강조점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본다. 요한은 예수의 침례(세례)나 주님의 만찬을 결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나. 요한복음 13 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눅 22:24 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에 대해 논란중이었다.
다. 13-17 장의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던 다락방인데, 아마도 요한 마가의 집이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당했다.
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데에는 두 가지 커다란 목적이 있는 것 같다:
   1. 6-10 절에서 그의 사역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임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2. 12-20 절에서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다(눅 22:24 에 비추어 볼 때).
마. 요한복음은 12 장에서 예수의 마지막 기적을 다룬다. 13 장은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을 시작한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3:1-11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3:1 "유월절 전에"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이 일이 유월절식사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인지 혹은 유월절 식사였는지 서로 일치하지않고 있다. 사복음서는 모두 식사는 목요일에, 십자가 처형은 금요일에 일어난 것으로 말한다(참조, 19:31; 막 15:43; 눅 23:54).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식사였다(참조 출 12). 요한은 이 사건이 정규적인 유월절 식사보다 하루 전에 일어난 것임을 주장한다(참조, 18:28; 19:14, 31, 42).

▣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요한은 세상(*코스모스*)이라는 용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1) 지구(참조, 1:10; 11:9; 16:21; 17:5, 11, 24; 21:25) (2)) 인류(참조, 3:16; 7:4; 11:27; 12:19; 14:22; 18:20, 37) (3) 반역하는 인간(참조, 1:10, 29; 3:16-21; 4:42; 6:33; 7:7; 9:39; 12:31; 15:18; 17:25).

▣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이다(3 절과 같이). 예수는 자신과 아버지와의 독특한 관계를 적어도 12 살 때 부터 아셨다(눅 2:41-51). 12:20 이하에서 헬라인들이 예수께 나아온 일은 예수께 그의 죽음과 영광의 때가 이미 왔음을 보였다(참조, 2:4; 12:23, 27; 17:1).

요한복음은 위 와 아래의 수직적인 이원론를 강조한다(참조, 3 절). 예수는 아버지로 부터 보냄을 받았고(참조, 8:42)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공관복음은 예수께서 수평적인 이원론을 가리키는 것으로 묘사한다. 유대인의 수평적인 이원론은 두 가지 세대, 곧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뜻한다.

복음서에는 현대인들이 알아야 하는 많은 질문을 다루고 있는데, 이 거룩한 책들이 말하고 쓰여짐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제시한다.

1. 한 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2. 그의 특별한 창조물인 인간은 죄를 짓고 반역했다
3.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구속자를 보내셨다
4. 인간은 반드시 믿음, 회개, 순종, 인내로 반응해야 한다
5. 악은 하나님과 그의 뜻에 반역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6. 모든 의식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 헬라어 표현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에서 "가까운 친족"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참조, 눅 8:19-21).

▣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은 헬라어로 "*텔로스*"로 되어 있는데, 목적한 바를 이룬다는 뜻이다. 이 단어는 예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가리킨다. 예수께서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를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로 하셨는데(참조, 19:30), 그 말은 "다 이루었다"이다. 이 단어는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값을 충분히 치루었다"라는 뜻을 가진다!

13:2 "저녁 먹는 중" 이 시점에 대하여 여러 문서들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가능한 뜻으로는 (1) 저녁 후에 (2) 첫 번째 축복의 잔 후 손 씻는 때에 (3) 세 번째 축복의 잔 후가 있다.

특별주제: 1 세기 유대교에서의 유월절 의식 순서(출 12 장)

가. 기도
나. 포도주 잔
다. 주례자가 손 씻고 대야를 모두에게 전해 줌
라. 쓴 나물과 소스에 찍기
마. 양과 식사
바. 기도후 쓴 나물과 소스에 두 번째로 찍기
사. 두 번째 포도주 잔과 더불어 자녀들과 갖는 질의응답의 시간
아. 할렐 시편의 첫 번째 부분인 시 113-114 로 찬송하고 기도
자. 주례자가 자기 손을 씻은 후 각 사람을 위해 포도주에 적신 빵을 준비함
차. 배 부를 때 까지 먹고, 양고기로 끝냄
카. 손 씻은 후 세 번째 포도주 잔
타. 할렐 시편의 두 번째 부분인 시 115-118 로 찬송
파. 네 번째 포도주 잔

주의 만찬규례가 "카"의 단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이다. 예수는 유다를 처음부터 아셨다(참조, 6:70). 마귀는 오랫동안 유다를 유혹하여 왔다(참조, 27 절). 12:40 의 특별주제인 마음을 보라. 18:1 에 있는 유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13:3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 . . 을 아시고" 이것은 1 절과 마찬가지로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이끄는 완료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진술 중의 하나이다(참조, 3:35; 17:2; 마 28:18). 부정과거시제가 두드러진다.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아버지는"모든 것"을 예수께 주셨다. 그들은 단지 예수의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그분 되심을 인하여 주어졌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고, 자신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로 다투고 있는 자들의 발을 닦으셨다!

13: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은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왼쪽 팔꿈치에 의지해서비스듬히 누워 발을 바깥쪽으로 두었던 것을 기억하라.

▣ **“겉옷을 벗고”** 복수형으로 된 옷은 예수의 겉옷을 지칭한다(참조, 19:23; 행 8:16). 같은 동사가 10:11, 15, 17, 18 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음(참조, 37 절)을 의미하는 것은 흥미롭다. 이것은 요한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이다. 발씻음은 겸손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 이상의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참조, 6-10 절).

13:5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 헬라어는 “몸의 한 부분을 씻음”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10 절에서 몸 전체를 씻는 것을 뜻한다. 발을 씻는 일은 노예가 하는 일에 속했다. 랍비들도 자기 제자들에게 이 일을 기대하지 않았다. 자신의 신성을 아셨던 예수께서는 이 시기심과 욕심많은 제자들의 발 씻기를 자원하셨다.

13:6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의 행동을 거부하는 수사적인 표현이다. 베드로는 종종예수께서 하셔야 할 일과 하지 마셔야 할 일을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다(참조, 마 16:22).

13:7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은 예수의 행동과 가르침을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다(참조, 2:22; 12:16; 16:18).

13:8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것은 강력한 이중 부정으로서,”어떤 상황에서도 결단코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이 절은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가르침 이상의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6-10 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죄용서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 구절은 유업과 관련된 구약적 표현일 수 있다(참조, 신 12:12; 삼하 20:1; 왕상 12:12). 이것은 매우 강한 어조의 배제를 뜻한다.

13:9 헬라어의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 “아니다”(*메*)는 명령인 “씻어라”를 가리킨다.

13:10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는 은유적으로 구속을 말씀하고 계신다. 베드로는 목욕한 자로서(구원받은, 참조 15:3),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백을 계속해야 한다(참조, 요일 1:9).

문맥적으로 또 다른 가능성은 예수님이 유다의 배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이다(참조, 11, 18 절). 따라서 목욕의 은유는 (1) 베드로의 몸 혹은 (2) 사도들의 그룹을 말한다.

13:11 현대영어성경(TEV)은 이 절을 저자의 의견으로 해석하여 괄호안에 넣고 있다.

개역개정 13:12-20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3:12-20 6-10 절과 대조적으로 여기서 예수는 자신의 행동을 겸손의 본으로 말씀하신다. 사도들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참조, 눅 22:24). 이 문맥에서 예수는 종의 일을 행하셨다.

13:14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사실인 것을 말한다.

13:14-15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겸손의 행동원리가 교회의 3 번째 규율이 된다는 의미인가? 많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1)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느 교회에서도 이 같은 것을 가졌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2) 이 같은 규율의 제정을 신약의 어느 책에서도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 침례(세례)예식 (참조, 마 28:19)과 성찬예식(참조, 고전 11:17-34)처럼 계속 지켜져야 할 규율로 더 이상 말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겸손의 행동원리가 예배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13: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것은 글자대로는 “아멘, 아멘”이다. 이 말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참조, 합 2:4). 예수는 이 표현을 자신의 말 서두에 사용한 유일한 분 이시다(헬라어로 된 문서에서).어떤

진술이나 행동에 동의하고 그것을 확인해주기 위해 이 단어를 맨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이다. 이 단어를 말의 서두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다.

13: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먼저 나오는 "만일"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인 것을 가정하고 있다. 나중에 나오는 "만일"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있음직한 행동을 말한다. 만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참조, 마 7:24-27; 눅 6:46-49; 롬 2:13; 약 1:22-25; 4:11)! 지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목적이다.

13:18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유다에 대한 부분이다(참조, 17:12;19:24, 36; 15:25; 18:32).

▣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것은 시 41:9 의 인용이다. 동양에서는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 친구 됨이나 언약의 표식이었다는 점은 유다가 한 잘못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근동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발바닥을 다른 이에게 보이는 것은 그를 경멸한다는 의미였다.

13:19 이 절은 예수의 기적인 표적과 예언의 목적을 나타낸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자라고 계속되는 경험이다. 예수는 사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하셨다!

▣ **"내가 그인 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야웨"에 대한 말씀이다. 이 이름의 기원은 ". . . 이다"라는 히브리어에서 기원한다(참조, 출 3:14 의 "나는. . ."). 신적의미를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명백하게 주장하고 계신다(참조, 4:26; 6:20; 8:24, 28, 58; 13:19; 18:5, 6, 8).

13:20 "이미 목욕한 자는" 일반적으로 요한은 "믿다"(*피스튜오*), ". . . 를 믿다"(*피스튜오 에이스*), "그것을 믿다"(*피스튜오 호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지만, 그는 또한 "영접하다" 혹은 "환영하다"(참조, 1:12; 5:43; 13:20) 같은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복음은 한 분을 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성경적인 진리와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개역개정 13:21-30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13:21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정말 곤혹스럽게 했다(참조, 12:27). 예수님이 유다를 선택한 것은 그의 영적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참조, 18 절).

13:23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 말은 요한 자신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13:23, 25; 19:26-27, 34-35; 20:2-5, 8; 21:7, 20-24). 요한의 이름은 이 복음서에 결코 나오지 않는다.

13:25 이것의 배경은 1 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식사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들은 낮고 말굽모양으로 되어있는 상을 앞에 놓고서 제자들은 자신의 왼쪽 팔꿈치에 의지하고 발은 뒤로 한 채로 비스듬히 누워 오른손을 사용하여 식사를 했을 것이다. 요한은 예수의 오른쪽에 유다는 왼쪽에(명예스런 자리인) 있었다. 요한은 뒤로 기대어 예수께 질문을 했다.

13:26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것은 영예의 표식이었다(참조, 룻 2:14). 유다는 명예스런 자리인 예수의 왼쪽에 누워있었다. 예수는 아직도 유다에게 향한 사랑을 놓치 않고 계셨던 것이다!

13:27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요한복음에서 이곳은 유일하게 "사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곳이다. 그 뜻은 히브리어로 "대적자"를 뜻한다(참조, 눅 22:3; 요 13:2).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기에 유다는 잘못이 없는가? 성경에는 영적 영역에서의 행동(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신일)과 물리적인 영역에서의 인간의 책임성 사이에 긴장이 나타난다. 인간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철저히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 모두는 역사, 경험,

유전에 따른 제한을 갖고 있다. 이런 물리적인 요인들 외에 영적 환경(하나님, 영, 천사, 사탄, 악령)이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신비이다! 그러나 인간은 로보트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선택, 그로 인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유다는 행동했다! 그는 혼자 행동한 것은 아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유다의 배신은 미리 예고 되었다. 사탄은 그 일을 교사했다. 유다가 예수를 결코 충분히 "알지" 못했거나 신뢰하지 못한 것은 비극이다.

13:29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유다는 그룹의 재정을 관리했다(참조, 12:6). 18:1 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13:30 "밤이러라" 이것이 시간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인가? 요한은 종종 이렇듯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고의적 다의성에 속하는 표현을 사용했다(참조, 3:2; 19:39).

개역개정 13:31-35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331-38 이 절들은 제자들로 부터의 연속적인 질문이 있는 큰 단락의 한 부분이다(참조, 13:36; 14:5, 8, 22; 16:17).

13:31 "인자"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지칭하는호칭이다. 이 용어의 배경은 겔 2:1 과 단 7:13 에 있다. 이 호칭은 인성과 신성을 내포한다. 예수님은 이것이 랍비적 유대교에서 사용되지 않았기에 이것을 사용하셨다; 따라서 이 호칭은 국수주의적이거나 군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그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나타낸다(참조, 요일 4:1-6).

▣ 이 절에 있어서 헬라어 사본은 차이점이 나타난다. 긴 본문이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에 나타난다. א, A, P^{66}, K 사본과 공인 본문이 이것을 지지한다. 이것은("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P^{66}, $א^{*}$, B, C^{*}, D, L, W, X 사본에 남아 있다. 이것들은 좀 더 나은 사본들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서기관이 평행 구절 때문에 혼동되었거나 처음 구절을 단순히 삭제한 것일 수 있다.

▣ **"영광된"** 이 단어는 31-32 절에서 4-5 번 사용되었다—부정과거 시제로 2-3 번 사용되었고 미래시제로 2 번 사용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을 의미한다(참조, 7:39; 12:16, 23; 17:1, 5). 이 절에서 이것은 예수님 생애에서 닥쳐올 사건을 말한다. 그것들이 발생할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과거에 일어난 사건(부정과거)처럼 표현되었다. 1:14 의 설명을 보라.

13:33 "작은 자들" 에베소 지역에서 노인이 되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그의 청중/독자들에게 요일 2:1, 12, 28; 3:7, 18; 4:4; 5:21 에서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의 은유는 그와 아버지의 동일함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이다. 그는 아버지, 형제, 구원자, 친구, 주가 되신다. 다시 말하면, 그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내재하시는 친구이시다.

▣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 .내가 유대인들에게. . .말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여러 달 전에 말씀하셨다(참조, 7:33); 지금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참조, 12:35; 14:9; 16:16-19). 그러므로 시간 요소가 어느 정도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다.

▣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유대 지도자들은 아무도 올 수 없다(참조, 7:34, 36; 8:21). 제자들은 그들이 죽기까지 그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죽음, 또는 휴거는 그의 추종자들과 예수님을 하나되게 한다(참조, 고전 5:8; 살전 4:13-18).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 아니었다(참조, 눅 19:18). 새로운 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참조, 15:12, 17; 요일 2:7-8; 3:11, 16, 23; 4:7-8, 10-12, 19-20; 요이 5 장).

복음은 환영받아야 할 분, 믿어야 할 진리의 핵심, 살아야 할 삶이다(참조, 14:15, 21, 23; 15:10, 12, 요일 5:3; 요이 5, 6 절; 눅 6:46). 복음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살아 지는 것이다!

나는 성경 해석학 책인 *성경적 해석을 위한 기초*에 있는 브루스 코레이의 "신약의 성경적 신학'이라는 글에 있는 그의 진술을 좋아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은혜의 존재 여부가 사랑의 의무감과 연결되는 사랑의 윤리에 의하여 특성지워진다(참조, 갈 5:6, 25; 6:2; 약 3:17-18; 요 13:34-35; 요일 4:7)"(562 쪽).

13:35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사탄이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 특성이다. 믿는 자들은 사랑에 의해 특성되어진다(참조, 요일 3:14; 4:20).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증한다(참조, 요일 2:9-11; 4:20-21).

개역개정 13:36-38

[36]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13:36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은 31-35 절에 있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 제자들이 하는 질문 중 처음 것이다(참조, 13:36; 14:5, 8, 22; 16:17).

13:37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는 이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헌신하시고 계신지를 보여준다!

13:38 "진실로 진실로" 1:51 의 설명을 보라.

▣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로마인의 닭이었음에 틀림없다. 유대인들은 도시가 거룩하다고 생각했으므로 동물들이 도시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부분의 부자가 도시 벽 바깥에 있는 감람산에 정원(비료가 필요한)을 가진 이유이다. 겟세마네 동산은 그런 정원 중의 하나였다.

예수님은 그를 믿도록 격려하기 위해 예언을 사용하시고 있다. 심지어 이처럼 부정적으로 말한 것도 그의 지식과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그의 권위를 드러낸다(참조, 18:17-18, 25-27; 마 26;31-35; 막 14:27-31; 눅 22:31-34).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한은 실제 의식으로서의 주의 만찬을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2.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나?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야만 하는가?
3. 예수님은 왜 유다를 그의 제자로 선택하셨나?
4. 그리스도인인 것을 실제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아버지께 가는 길인 예수	길, 진리, 생명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	아버지께 가는 길인 예수	고별 설교
14:1-14	14:1-6	14:1-7	14:1-4	14:1-4
			14:5	14:5-7
	드러나신 아버지		14:6-7	
	14:7-11			
		14:8-14	14:8	14:8-21
	응답된 기도		14:9-14	
	14:12-14			
성령의 약속	예수께서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다		성령의 약속	
14:15-24	14:15-18	14:15-17	14:15-17	
	아버지와 아들의 거하심	14:18-24	14:18-20	
	14:19-24			
			14:21	
			14:22	14:22-31
	그의 평화의 선물		14:23-24	
14:25-31	14:25-31	14:25-31	14:25-26	
			14: 27-31a	
			14:31b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4:1-31 의 본문 배경

가. 요 13-17 장은 문학적으로 한 단위이기 때문에 장으로 나누어져서는 안된다. 떠나시는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이 생기게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 상황은 예수의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오해 로 생긴 많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 베드로(13:36)
2. 도마(14:5)
3. 빌립(14:8)
4. 유다(가롯이 아닌)(14:22)
5. 그의 몇몇 제자들(16:17)

나. 이 질문들은 아직까지도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1. 예수님과 육적으로 함께 지냈던 사도들도 그를 항상 이해한 것은 아니다.
2.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여 솔직하게 물어오는 질문에 대한 답에서 예수님의 귀중하고 심오한 말씀의 일부가 말해졌다.

다. 13-17 장은 주의 만찬 저녁에 다락방에서 있었던 대화를 하나의 문학 형태로 구성하였다.

라. 14 장은 오실 "보혜사"에 대한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1. 다락방 담화에서 성령에 대한 예수의 발언은 그의 떠날 것을 염려하는 제자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2. 성령의 사역에 대한 담화는 범위가 제한되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 이 문맥에서 전혀 나누지 못한 매우 많은 중요한 면들이 있다.
3. 성령의 사역은 (1) 진리의 계시자 (2) 인격적인 위로자로서 강조되었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4:1-7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4:1 "~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수동 명령이다.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로서, "너희 마음이 근심하게 하는 것을 멈추게 하라"이다. 떠날 것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엄청난 염려를 일으켰다.

▣ **"마음"** 복수인 것에 주목하라. 예수는 열 한 명의 제자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마음"의 히브리적 용법은 인간의 전체를 말한다: 마음, 뜻, 감정(신 6:5; 마 22:37). 12:4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은 둘 다 현재 능동 명령(참조, 막 11:22)이거나 둘 다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믿음은 계속적이고 습관적이다. 문법적으로 균형이 갖추어진 이 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유대인은 유일신에 전념한 것과(참조, 신 6:4-6) 그들이 예수님의 진술한 바를 인식했음을 기억하라. 지존자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이 구절은 교리적 신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분에게 초점을 맞춘다.

14:2 "내 아버지 집에" "집"은 구약에서 성막 이나 성전에 대하여 사용되었다(참조, 삼하 7 장); 그러나 이 문맥에서는 그것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가족적인 거처를 말한다.

▣ **"거할 곳"** 킹제임스역의 "맨숀"은 헷갈리게 만든다. 헬라어 단어는 사치스러운 의미가 없는 "영구히 거하는 장소"를 의미한다(참조, 14:23). 그것의 의도는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모두 그들 자신의 방을 가진다는 것이었다(참조, 현대영어성경, 신예루살렘성경).

이것이 요한복음의 중심 개념(참조, 15 절)인"거주하다"와 같은 헬라어 어원에서 왔다는 것 역시 흥미롭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거처는 거함으로 시작된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의 한 부분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절이라고 불린다. 거기에는 가능성있는 많은 여지가 있다. 이 구절은 번역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신미국표준역(NASB)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뉴킹제임스역(NKJV)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현대영어성경(TEV)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예루살렘성경(NJB)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직역성서(YLT)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새버클레이역(NBV)	**"만일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윌리엄스역(WT)	**"만일 아니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14: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어떤 행동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가 곧 아버지께로 돌아 갈 것과 그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에 대해 뉴맨과 와이더가 쓴 바이블 성서공회의 "번역을 위한 도움" 시리즈는 이 절을 "내가 간 후에," "내가 갈 때," "내가 간 이래로"란 시간적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456 쪽).

▣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리라"** 이것은 물리적 의미의 천국이 이전에 예비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죽음이 죄인된 인간을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안내자와 선구자로서 믿는 자들 보다 먼저 가신다(참조, 히 6:20).

▣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것은 두 번째 오심이나 죽음을 의미한다(참조, 고후 5:8; 살전 4:13-18). 예수님과 대면하여 갖는 이와 같은 교제는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교제를 연상시킨다(참조, 1:1, 2).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아버지가 나누는 가까운 교제에 참여할 것이다(14:23; 17:1 이하).

여기서 사용된 동사, 영접하다(*파라람바노*)), 는 "~안으로 영접하다"를 의미한다. 이것은 1:12(*람바노*)와 다르다. 정확하게 의미론적으로 중복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종종 동의어로 사용된다.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참조, 17:24)! 천국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실제로 대면하는 곳이다!

14:4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의 진술은 도마가 그 길을 아는 것에 대한 의심을 표현하게 한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종종 사용된 세 단어로 대답하셨다.

14:6 "내가 곧 길이요" 구약에서는 생활양식의 길로서 성경적 믿음을 말했다(참조, 신 5:32-33; 31:29; 시 27:11; 사 35:3).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을 "그 길"이라고 했다(참조, 행 9:2; 19:9, 23; 24:14, 22). 예수님은 오직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었고 지금도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셨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신학적 핵심이다! 선한일을 하는 생활양식은 개인적인 믿음의 증거지만(참조, 엡 2:8-9, 10), 의로움의 도구는 아니다.

▣ **"진리요"** 헬라 철학에서 "진리"는 "참" 대 "거짓" 또는 "실제" 대 "환상"의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아람어를 사용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실함" 이나 "충성"을 말하는 진리의 구약적인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참조, 시 26;3; 86:11; 119:30). "진리"와 "생명"은 둘 다 "그 길"로 특성지워 진다. "진리"라는 단어는 자주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표현한다(참조, 1;14; 4;23-24; 3:32; 14:17; 15:26; 16:13; 17:17, 19). 6:55 와 17:3 의 진리에 대한 특별주제를 보라.

▣ **"생명이니"** 구약에서 믿는 자의 믿음의 생활양식은 인생에 대한 길로서 말하여진다(참조, 시 16:11; 잠 6:23; 10:17). 이 세 가지 단어는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발견되는 믿음의 생활양식과 관계가 있다.

▣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주장인가!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오직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믿으셨다는 것 또한 매우 분명하다. 이것은 종종 기독교에 대한 배타적인 반감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중간 장소는 없다. 이 진술이 참이거나 아니면 기독교는 거짓이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요 10 장과 비슷하다.

14:7 "만일" 조건절의 형식에 관계된 사본의 다양성이 있다. 미국성서공회 헬라어 본문은 고대 헬라어 사본 P^{66}, **א**, D 와 같이 조건절의 제 1 유형을 지지한다. 이것은 "만약 너희가 나를 안다면 그리고 너희는 알 것이다. 그때 너희는 너희가 아는나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다"로 번역될 것이다.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 "사실과 반대되는"이라고 종종 불린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지만, 만약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의 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이것은 A, B, C, D[b], K, L, X 사본들에 의해 지지된다.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진술문이다. 이 새롭고 궁극적으로 배타적인 진리는 그들이 이해하기에 매우 어려운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문맥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28 절의 같은 상황을 주목하라.

▣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다시 전체 사도그룹에게 말씀하고 계신다(참조, 9 절). "알다"라는 단어는 인식적인 지식이 아니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는 구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창 4:1; 렘 1:5).

▣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참조, 요 1:14-18; 5:24; 12:44-45; 고후 4:4; 골 1:15; 히 1:3)!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아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참조, 요일 5:9-12).

개역개정 14:8-14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8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분명한 것은 빌립이 모세, 이사야,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신의 현현)을 보기 원했다. 예수님은 빌립이 그를 보았고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아는 것이라는 확언으로 대답하셨다(참조, 골 1:15; 히 1:3)!

▣

신미국표준역(NASB)	"그것은 우리에게 충분하다"
뉴킹제임스역(NKJV)	"그것은 우리에게 넉넉하다"
신개정표준역(NRSV)	"우리는 만족할 것이다"
현대영어성경(TEV)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신예루살렘성경(NJB)	"그때 우리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과 똑같이 어떤 형태의 확인을 원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적인 것에 대하여 보는 것(참조, 고후 4:18; 5:7)에 의존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야만 한다. 믿음이 중요하다!

14:9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이것이 복수형인것을 주목하라. 빌립은 그들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것을 질문했다.

▣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와 완료 능동 동사로서 "보아 왔고 계속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신성을 완전히 나타내시고 있다(참조, 골 1:15; 히 1:3).

14:10 헬라어에서 이 질문은 "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 **"네가. . .너희에게"** 처음의 "네가"는 빌립을 가리키는 단수형이다. 두 번째의 "너희에게는 사도들을 말하는 복수형이다(참조, 7, 10 절). 요일 2:10 의 특별주제: 거함을 보라.

▣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버지를 위해 하셨다(참조, 24 절; 5:19, 30; 7:16-18; 8:28; 10:38; 12:49).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의 말씀 바로 그것이었다(참조, 24 절).

▣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17 장에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강조된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는 15 장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기초가 되고 있다. 요한복음은 구원을 (1) 교리 (2)교제 (3)순종 (4) 인내로서 나타낸다.

14:11 "믿어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 또는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참조, 14:1).

이 절의 처음 부분에는 약간의 사본적인 다양성이 있다. 몇몇 초기의 헬라어 본문(P[66] 과, P[75] 과, א, D, L, W)은 동사인 "믿다"와 뒤따르는 "절"(*호티*)이 있다. 그 절은 그들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었다는 내용을 내포한다. 다른 고대 본문은(A 와 B) 믿음의 개인적 대상을 나타내는 "나에게"란 대격을 더한다. 미국성서공회의 헬라어 학자들은 첫 번째의 경우가 원래의 것이라고 믿는다(참조, 브루스 M. 메츠거의 *헬라어 신약성경 본문주석*은 여기에 "B"등급을 주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 번역본은 "나에게"를 넣고 있지만 (믿어야 할 내용을 말하는)절을 추가한다.

▣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예수님은 그의 일을 믿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참조, 요 5:36; 10:25, 38). 그의 일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다. 그의 일은 그가 누구인지 나타내셨다! 우리 모두와 같은 사도들은 믿음이 자라야만 했다.

14:12 "믿으면. . . 그도 할 것이요" 믿는 것은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행동–중심의 말이다. "그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은 미래 능동 직설법으로 "그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지리적 범위 (2) 이방 선교 (3) 모든 믿는 자와 함께 하는 성령. 요일 3:22 의 특별주제: 제한이 없으면서도 제한이 있는 기도를 보라.

14:13-14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께서 그의 인격을 걸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주장을 주목하라. 행 7:59 에서 스데반은 예수께 기도한다. 고후 12:8 에서 바울은 예수께 기도한다. 요 15:16 과 16:23 에서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 말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끝에 말하는 요술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과 인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주제에 대한 교의적 진술을 만들기 전에 평행되는 구절을 참고해야 하는 필요성의 좋은 예이다.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에 균형을 가져야 한다 (1) "내 이름으로"(요 14:13-14; 15:7, 16; 16:23) (2) "구하는 것을 계속하라"(마 7:7-8; 눅 11:5-13; 18:1-8) (3) "둘의 합심"(마 18:19) (4) "믿는 것"(마 21:22) (5) "의심없이"(막 11:22-24; 약 1:6-7) (6) "이기적이 아닌"(약 4:2-3) (7) "그의 명령을 지키라"(요일 3:22) (8) "하나님의 뜻을 따라"(마 6:10; 요일 5:14-15).

예수님의 이름은 그의 인격을 대표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의미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종종 나타난다(참조, 14:13-14, 26; 15:16; 16:23-26). 예수님과 같아질수록 기도는 더욱 더 확정적으로 응답되어진다. 대부분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가장 나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은 그들의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요일 3:22 의 설명을 보라.

특별주제: 효과적인 기도

- 가.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에 관계됨
  1. 아버지의 뜻에 관계됨
     - ㄱ. 마 6:10
     - ㄴ. 요일 3:22
     - ㄷ. 요일 5:14-15
  2. 예수 안에 거함 – 요 15:7
  3.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
     - ㄱ. 요 14:13, 14
     - ㄴ. 요 15;16
     - ㄷ. 요 16:23-24
  4. 성령안에서 기도함
     - ㄱ. 엡 6:18
     - ㄴ. 유 20
- 나. 개인적인 동기와 관계됨
  1. 흔들리지 않음
     - ㄱ. 마 21:22
     - ㄴ. 약 1:6-7
     - ㄷ. 요일 5:14-15
  2. 잘 못 구하는것 – 약 4:3
  3. 이기적으로 구하는 것 – 약 4:2-3
- 다. 개인적인 선택과 관계됨
  1. 인내
     - ㄱ. 눅 18:1-8

ㄴ. 골 4:2
ㄷ. 약 5:16
2. 가정의 불화 – 벧전 3:7
3. 죄
ㄱ. 시 66;18
ㄴ. 사 59:1-2
ㄷ. 사 64:7

모든 기도는 응답되어 지지만 모든 기도가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기도는 양쪽의 관계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나쁜 것은 믿는 자들의 합당치 않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골 4:3 의 중보기도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개역개정 14:15-17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말한다. 순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참조, 8:51; 14:23-24; 15:10; 요일 2:3-5; 3:22, 24; 5:3; 요이 6 절; 눅 6:46). 21, 23, 24 절 역시 이와 같은 진리를 강조한다. 순종은 진실된 회개의 증거이다(참조, 야고보서; 요한 이서).

14:16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현대영어성경(TEV) "다른 돕는자"
신개정표준역(NRSV) "다른 변호자"
신예루살렘성경(NJB) "다른 보혜사"

"다른"은 헬라어(*알로스*)로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을 의미한다. 성령은 "다른 예수"로 불리운다(G. 캠프벨 몰간).

두 번째 단어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오스*"이다. 이것은 요일 2:1(중보자로서)에서 예수께 대하여 사용되었고 요 14:26 과 16:7:14 에서는 성령께 대하여 사용되었다. 이것의 어원은 법적 의미로 "옆에서 돕도록 불리운 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변호자"로 이 단어를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같은 헬라어 어근의 형태인 "위로하다"(*파라클레오*)는 고후 1:3-11 에서 아버지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특별주제: 예수와 성령

성령과 예수의 사역사이에는 유동성이 있다. G. 캠프벨 몰간은 성령의 가장 적합한 이름을 "다른 예수"라고 했다. 다음은 아들과 성령의 사역과 호칭을 비교한 개요이다.

1. 성령은 "예수의 영"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불렸다(참조, 롬 8:9; 고후 3:17; 갈 4:6; 벧전 1:11)
2. 둘 다 같은 단어로 불렸다
   ㄱ. "진리"
      1) 예수(요 14:6)
      2) 성령(요 14:17; 16:13)
   ㄴ. "변호자"
      1) 예수(요일 2:1)
      2) 성령(요 14:16, 26; 15:26; 16:7)
   ㄷ. "거룩"
      1) 예수(눅 1:35; 14:26)
      2) 성령(눅 1:35)
3. 둘 다 믿는 자 안에 거한다
   ㄱ. 예수(마 28:20; 요 14:20, 23; 15:4-5; 롬 8:10; 고후 13:5; 갈 2:20; 엡 3:17; 골 1:27)
   ㄴ. 성령(요 14:16-17; 롬 8:9-11; 고전 3:16; 6:19; 딤후 1:14)
   ㄷ.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요 14:23; 고후 6:16)

▣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 가지의 다른 전치사가 성령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1) " 함께"와 같은 의미인 "*메타*"(16 절) (2) "곁에"의 의미인 "*파라*"(17 절) (3) "안에"의 의미인 "*엔*"(17 절). 성령은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주목하라.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시다(참조, 14:16-17, 26; 16:-11).

성령이 "그"라고 불린 것에 주목하라. 이것은 성령이 인격체이심을 의미한다. 킹제임스역에서 종종 성령을 "그것"으로 불렀다. 그 이유는 헬라어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중성이기 때문이다(참조, 요 14:17, 26; 15:26). 그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시다. 삼위일체는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한 위격이시라면 삼위가 일체가 되는 의미가 느껴진다.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본질이시지만 세 영원한 위격의 나타나심이다(참조, 마 3:16-17; 28:19; 행 2:33-34; 롬 8:9-10; 고전 12:4-6; 고후 1:21-22; 13:14; 엡 1:3-14; 2:18; 4:4-6; 딛 3:4-6; 벧전 1:2).

14:17 "진리의 영" 여기의 "진리"는 6 절의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참조, 15:26; 16:13; 요일 4:6). 이 구절은 (1) 하나님 또는 (2) 아버지의 신성을 드러내심으로 성령을 묘사했다. 6:55 와 17:3 의 진리에 대한 특별주제를 보라.

▣ **"그를"** 이것은 "영"(*프뉴마*)과 성이 일치되는 중성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남성 대명사로 사용되었다(참조, 26 절, 15:26; 16:7, 8, 13, 14). 성령은 실제로 남성이나 여성이 아니다; 그는 영이시다. 그가 또한 명백한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참조, 엡 4:3; 살전 5:19).

▣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소유할 수 있다(참조, 1:10-12). 그는 믿는 자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참조, 롬 8:1-11). 불신의 세상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참조, 고전 2:14).

▣ **"알지도. . .아나니"** 이것은 요한복음의 또 다른 두 가지 뜻의 어구일 것이다. 히브리어로는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창 4:1; 렘 1:5). 헬라어의 의미는 지식을 말할 것이다. 복음은 개인적인 것과 지식적인 것 둘 다이다.

▣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거함은 요한의 글에서 중심된 개념이다. 요일 2: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아버지는 아들 안에 거한다; 성령은 믿는 자들 안에 거하고 믿는 자들은 아들 안에 거한다. 거함은 현재 시제로서 단회적인 결심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다.

▣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것은 "너희 중에"(복수, 참조, 신개정표준역 각주)나 "너희 안에"(복수, 참조, 신미국표준역, 뉴킹제임스역, 현대영어성경, 신예루살렘역)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약속이다. 신약은 삼위일체의 삼위 모두가 믿는 자와 거하신다고 주장한다.

가. 예수님(마 28:20; 요 14:20, 23; 15:4-5; 롬 8:10; 고후 13:5; 갈 2:20; 엡 3:17; 골 1:27)
나. 성령님(요 14;16-17; 롬 8:11; 고전 3:16; 6:19; 딤후 1:14)
다. 아버지(요 14:23; 고후 6:16)

개역개정 14:18-24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그가 부활하신 후 유월절 후 주일 저녁에 다락방에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다 이루셨다. 그러나 어떤 주석가들은 이 문맥이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14: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20 절은 이것이 부활 후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22 절에서 유다가 예수님께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든 진술이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메시아적 왕이 될 것을 기대했고 그래서 그들은 그가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을 때 매우 혼동되었다. 23 절과 24 절에서 유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가 각각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러므로 세상은 그들을 통해 그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그의 증거이다(참조, 롬 8:9-11; 고전 15 장)

14:20 "그 날에는" 이 구절은 언제나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부활 후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오순절에 충만하신 성령의 오심을 의미할 것이다..

▣ **"너희가 알리라"** "알다"는 종종 히브리어로 개인적인 교제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지각적인 내용임을 명백히 설명하는 "절"(*호티*)이 뒤따라온다. "믿다"와 같이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한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종류의 단어를 선택한다. 믿는 자들은 그를 알지만(그를 믿는다), 또한 그에 대한 사실들을 안다(그것을 믿는다).

▣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요한은 종종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됨을 강조한다(참조, 10:38; 14:10-11; 17:21-23). 아버지와 예수님이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그의 추종자들도 역시 그렇다는 진리를 요한은 첨가했다!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은 두 개의 현재 분사들이다. 순종은 중요하다(참조, 15:10; 눅 6:46; 요일 5:3; 요이 6 절). 이것은 진실된 회심의 증거이다(참조, 23 절).

사도들은 유대인이었고 종종 셈족 관용어를 그들의 글에 사용하였다. 모든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유대식 기도는 행하기 위해 들으라는 의미인 *쉐마* 라고 불리는 신 6:4-5 였다! 이것이 요한이 설명하려고 하는 주요 골자이다(참조, 약 2:14-26).

▣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은 (1) 부활후의 나타나심 혹은 (2)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형성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심(참조, 26 절; 롬 8:29; 갈 4:19)을 뜻한다.

▣ 예수님은 그가 아버지를 (1) 대표하시고 (2) 위해 말씀하시고 (3)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장하셨다.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목적에 관한 명백한 정보를 주는 유일한 출처이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성경의 권위가 궁극적인 권위임을 믿는다; 이성, 경험, 전통은 도움을 주지만, 궁극적이지는 않다.

성령과 예수의 사역 사이에는 유동성이 있다. G. 켐프벨 몰간은 성령의 가장 적합한 이름을 "다른 예수"라고 했다. 다음은 아들과 성령의 사역과 호칭을 비교한 개요이다.

1. 성령은 "예수의 영" 또는 비슷한 표현으로 불렸다(참조, 롬 8:9; 고전 15:45; 고후 3:17; 갈 4:6; 벧전 1:11)
2. 둘 다 같은 단어로 불렸다
   ㄱ. "진리"
      1) 예수(요 14:6)
      2) 성령(요 14:17; 16:13)
   ㄴ. "변호자"
      1) 예수(요일 2:1)
      2) 성령(요 14:16; 16:7)
   ㄱ. "거룩"
      1) 예수(눅 1:35; 14:26)
      2) 성령(눅 1:35)
3. 삼위일체의 모든 삼위는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
   ㄱ. 예수, 마 28:20; 요 14:20, 23; 15:4-5; 롬 8:10; 고후 13:5; 갈 2:20; 엡 3:17; 골 1:27
   ㄴ. 성령, 요 14:16-17; 롬 8:9-11; 고전 3:16; 6:19; 딤후 1:14
   ㄷ. 아버지, 요 14:23; 고후 6:16

14:22 19 절의 설명을 보라.

▣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것은 다대오의 다른 이름이다(참조 마 10:3; 막 3:18).

14:2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말한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은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보여진다.

개역개정 14:25-31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 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4:15 "이 말" 이것은 다락방의 가르침을 의미해야만 한다(참조, 15:11; 16:1, 4, 6, 25, 33).

14:26 "성령" 삼위일체의 제 삼위에 해당하시는 이 호칭은 요한복음에서 여기와 1:33 에만 있다. 그러나 그는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보혜사, 진리의 성령, 성령).

신약에서 성령을 인격체의 단어로 부르는 여러 구절이 있다(참조, 막 3:29; 눅 12:12; 요 14:26; 15:26: 16:7-15). 다른 본문에서 성령에 대하여 중성 대명사로 사용되어 지는데 그것은 헬라어 단어로 영(*프뉴마*)이 중성이기 때문이다(참조, 14:17; 롬 8:26).

또한 여기서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본문에서 한 분이신 참 하나님에 대한 세 위격의 명시가 함께 보여진다(참조, 마 3:16-17; 28:19; 요 14:26; 행 2:32-33, 38-39; 롬 1:1-4; 5:1, 5; 8:1-4, 8-10; 고전 12:4-6; 고후 1:21-22; 13:14; 갈 4:4-6; 엡 1:3-14, 17; 2:18; 4:4-6; 살후 2:13; 딛 3:4-6; 벧전 1:2).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한 위시라면 우리가 유일신론자들(참조, 신 6:4-6)로서 삼위가 일체인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점진적인 나타내심이 아니라 영원한 위격들이시다!

특별주제: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의 활동을 주목하라. 터툴리안이 처음으로 사용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개념은 널리 퍼져있다.

1. 복음서들
   ㄱ. 마태복음 3:16-17; 28:19(그리고 평행구절들)
   ㄴ. 요한복음 14:26
2. 사도행전 – 사도행전 2:32-33, 38-39
3. 바울
   ㄱ. 로마서 1:4-5; 5:1, 5; 8:1-4, 8-10
   ㄴ. 고린도전서 2:8-10; 12:4-6
   ㄷ. 고린도후서 1:21; 13; 14
   ㄹ. 갈라디아서 4:4-6
   ㅁ. 에베소서 1:3-14, 17; 2:18; 3:14-17; 4:4-6
   ㅂ. 데살로니가전서 1:2-5
   ㅅ. 데살로니가후서 2:13
   ㅇ. 디도서 3:4-6
4. 베드로 – 베드로전서 1:2
5. 유다서 – 20-21 절

이것은 구약에서 암시된다

1. 하나님께 대한 복수형들의 사용
   ㄱ. *엘로힘*이란 이름은 복수형이지만, 하나님에 대해 사용할 때 항상 단수형 동사를 사용했다
   ㄴ. 창세기 1:26-27; 3:22; 11:7 에서의 "우리"
   ㄷ. 신 6:4 의 *쉐마*에서 "하나"는 복수형이다(창 2:24; 겔 37:17 에서와 마찬가지로)
2.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주의 천사
   ㄱ. 창세기 16:7-13; 22:11-15; 31:11, 13; 48:15-16
   ㄴ. 출애굽기 3:2, 4; 13:21; 14:19
   ㄷ. 사사기 2:1; 6:22-23; 13:3-22
   ㄹ. 스가랴 3:1-2
3. 하나님과 성령은 별개이다, 창 1:1-2; 시 104:30; 사 63:9-11; 겔 37:13-14
4. 하나님(야웨)과 메시아(*아돈*) 는 별개이다, 시 45:6-7; 110:1; 슥 2:8-11; 10:9-12
5. 메시아와 성령은 별개이다, 슥 12:10
6. 사 48:16; 61:1 에 삼위 모두가 언급되었다.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의 위격으로서의 존재는 엄격한 유일신적 초기 신자들에게 문제를 야기시켰다:

1. 터툴리안 – 아들을 아버지께 종속시킴
2. 오리겐 – 아들과 성령의 신적 본질을 하위에 둠
3. 아리우스 – 아들과 성령의 신성을 부인함
4. 모나키안주의 –하나님의 나타남을 연속성 안에서 믿음

삼위일체론은 역사적으로 발전된 이론으로서 성경적 자료들에 의해 소개된다

1.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은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주후 325 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 의해 확정되었다
2.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성령의 완전한 위격으로서의 존재와 신성은 콘스탄틴노플 회의(주후 381)에서 확정되었다
3. 삼위일체의 교리는 어거스틴의 글 *데 트리니타테*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

여기에 참으로 신비함이 있다. 하지만 신약은 하나의 신적 본질이 세 영원한 위격으로 나타나심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아버지께로 왔는가(참조, 요 3:34; 행 2:33) 아니면 아들에게서 왔는가(참조, 요 15:26; 16:7; 눅 24:49)에 대해 초기 교회(4 세기)에서 커다란 논쟁이 있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가 논쟁한 신학적인 쟁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사이의 완전하고 영원한 신성과 동등성의 문제였다.

▣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것은 자격이 주어졌음이 틀림없다. 성령은 지식의 모든 부분을 가르치지 않지만 영적 진리에 대하여, 특별히 복음인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과 관계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치신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목적은 (1) 인간이 죄를 회개하도록 (2) 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3)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세례)받도록 (4) 그들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참조, 16:7-15). 그는 또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사도들이 명확하게 하도록 도울 것이다. 또한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관하여 예수님 자신이 부활 후에 사도들을 지도하셨다(참조, 눅 24:13 이하).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믿는 자의 평안은 환경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과 그의 현존에 기초를 둔 고요함이다(참조, 16:33; 빌 4:7; 골 3:15).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을 말하는 객관적인 의미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의 안전이나 안정의 느낌인 주관적인 의미에서 사용되어진다. 이것은 문제의 부재와 만족의 실재를 의미하는 유대인의 인사, *샬롬*,을 나타낸다(참조, 20:19, 21, 26; 요삼 14 절).

특별주제: 그리스도인과 평화

I. 서론

가. 우리의 믿음과 실천의 유일한 출처인 성경에는 평화에 대한 결정적인 구절이 없다. 사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구약은 평화에 대한 접근으로서 군사적인 것을 암시 할 것이다. 그러나 신약은 빛과 어두움의 영적인 용어로 그 갈등을 제시한다.

나. 과거와 현재의 세계 종교들과 같이 성경적 믿음도 전쟁이 없는 번영의 황금시대를 찾았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1. 이사야 2:2-4; 11:6-9; 32:15-18; 51:3; 호세아 2:18; 미가 4:3
2. 성경적 믿음은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사역을 예언한다, 사 9:6-7

다. 그러나 이 갈등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들의 죽음에서 중세 시대까지 연대기적으로 발전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기본적인 반응이 있었다.

1. 평화주의, 비록 고대에서는 드물었지만, 이것은 로마의 군대사회에 대한 초대교회의 반응이었다.
2. 정당한 전쟁, 콘스탄틴의 회심 이후에 계속되는 야만인의 침략에 대한 반응으로 교회는 기독교 국가의 군사적인 지지를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헬라인의 입장이었다. 이 입장은 암브로스에 의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되었고 어거스틴에 의해 확장되고 발전되었다.
3. 십자군, 이것은 구약의 거룩한 전쟁의 개념과 비슷하다. 이것은 "성지"와 북아프리카, 소아시아, 동로마제국과 같은 고대 기독교 지역에 이슬람이 접근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중세시대에 발전되었다. 이것은 국가를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교회의 후원아래 교회를 위해 있었다.
4. 이와 같은 세 가지 관점은 기독교인들이 타락한 세상의 조직에 어떻게 관계해야 하는지에 대해 기독교 상황에서 여러 관점으로 발전되었다. 각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성경 본문을

강조했다. 평화주의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정당한 전쟁"의 반응은 악한 세상을 제어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옹호했다(마틴 루터). 십자군의 입장은 교회가 타락한 세상의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옹호했다.

4. 로날드 H. 배인톤은 아빙돈사가 발행한 그의 책, *전쟁과 평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15 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종교개혁은 세 가지 역사적 입장을 재현하는 종교전쟁을 촉진했다: 루터주의자와 영국 국교회 중에서의 정당한 전쟁, 개혁 교회에서의 십자군, 재침례파와 후기 퀘이커 교도들 중의 평화주의. 이론과 실천에서 18 세기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 평화사상을 부활시켰다. 19 세기는 상대적인 평화의 시대였고 또한 전쟁의 제거를 위한 거대한 동요의 시대였다. 20 세기에는 두 번의 세계 전쟁이 있었다. 이 시기에 다시 세 가지 역사적 입장이 되풀이 되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특별히 제 1 차 세계대전에 대하여 십자군적 태도를 취했다; 두 전쟁 사이에서는 평화주의 사상이 우세했다; 제 2 차 세계대전의 분위기는 정당한 전쟁의 그것과 비슷했다."

라. "평화"의 정확한 정의는 논란되어왔다.

1. 헬라인에게 이것은 사회적 질서와 일관성을 의미한다.
2. 로마인에게 이것은 국가의 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했다.
3. 히브리인에게 평화는 인간이 야웨께 바르게 응답함으로 누리는 야웨의 선물이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농업적 용어로 표현되었다(참조, 신 27-28). 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보호도 포함했다.

II. 성경적 자료

가. 구약

1. 거룩한 전쟁은 구약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히브리어에서 출 20:13 과 신 5:17 의 "살인하지 말라"(킹제임스역)는 구절은 계획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지 사고, 감정의 폭발, 전쟁에 의한 죽음이 아니다. 심지어 야웨는 그의 백성을 위한 용사로 표현되었다(참조, 여호수아 – 사사기와 사 59:17 는 엡 6:14 에 암시되어 있다).
2. 하나님은 또한 그의 고집센 백성을 처벌하는 도구로 전쟁을 사용했다: 앗시리아는 이스라엘을 추방한다(주후 722); 신바빌론은 유다를 추방한다(주후 586)

나. 신약

1. 복음서들에서 군인들은 저주없이 언급되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자주 언급되었고 보통 귀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2. 심지어 믿는 군인들이 그들의 직업을 포기하도록 요구되지 않았다(초대교회)
3. 신약은 정치적 이론이나 행동으로써 사회 악을 해결하도록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 구속을 지지한다. 초점은 빛과 어둠, 선과 악, 사랑과 미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싸움이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다(엡 6:10-17).
4. 평화는 세상의 문제 한복판에서 갖는 마음의 태도이다. 이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와 갖는 관계이지(롬 5:1; 요 14:27), 상태가 아니다. 마 5:9 의 화평케하는 자는 정치자가 아닌, 복음 선포자이다! 투쟁이 아닌 교제가 교회를 위해 또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교회 생활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이것은 부정의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수동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참조, 14:1).

14:28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이것은 7 절과 같이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라고 불린다. 이것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갔고 성령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일 것이다.

▣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것은 아들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둔 진술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에 관계된 삼위일체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참조, 10:29-30). 아들의 종속은 계시와 구속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오직 이 땅 위에 그가 머무르는 동안의 시간(이 세상에서의 그의 삶) 을 위한 것이다(참조, 17:4-5; 빌 2:6-11). 그러나 보내신 자인 아버지가 우선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참조, 13:16; 고전 15:27-28; 엡 1:3-14).

14:29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것은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일 것이다(참조, 13:19; 16:4).

14:30

신미국표준역(NASB) "세상의 통치자"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영어성경(TEV) **"이 세상의 통치자"**
신예루살렘성경(NJB) **"이 세상의 왕"**

이것은 지금 이 세상이 그의 활동영역인 사탄을 의미한다(참조, 12:31; 엡 2:2; 고후 4:4). 예수님은 사탄이 오는 것으로서 유다가 오는 것을 보셨을 것이다(참조, 13:27).

▣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그는 나를 지배할 수 없으니"**

사탄은 예수님을 비난할, 지배할, 또는 예수님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음을 의미한다. 제임스 모펱은 이것을 "그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로 번역했다; 윌리엄 F. 벡은 "그는 내게 아무 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새영어성경은 "나에게 권리가 없다"; 20 세기신약성경은 "나와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로 번역했다.

14:31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인간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사탄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

▣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 명령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구절이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유다와 하속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락방의 상황(13-17 장)으로 사용된 정확한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예수님은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가르치고 계셨을 것이다(참조, 18:1).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 절에 기초하여 유신론, 이신론, 기독교의 차이점을 설명하라.
2. 5 절에서 발견되는 세 명사에 대한 구약의 배경을 설명하라.
3. 13 절만 가지고도 기도의 신학을 세울 수 있는가?
4. 성령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잃어 버린 자와 구원받은 자 모두에게)
5. 사탄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요한복음 1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참 포도나무인 예수	참 포도나무	믿는 자의 삶의 양식	진짜 포도나무인 예수	참 포도나무
15:1-10	15:1-18	15:1-11	15:1-4	15:1-17
	사랑과 완전한 기쁨		15:5-10	
	15:9-17			
15:11-17			15:11-17	
		15:12-17		
세상의 미움	세상의 미움		세상의 미움	제자들과 세상
15:18-16:4a				15:18-16:4a
15:18-25	15:18-25	15:18-25	15:18-25	
	다가오는 거부			
15:26-16:4a	15:26-16:4	15:26-27	15:26-16:4a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5:1-27 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이것은 놀라우면서도 걱정을 주는 구절이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격려하고 유효한 약속을 주지만, 또한 무서운 경고를 준다! 신학적 전통은 이 내용을 논의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주석가 중의 한 사람인, F. F. 브루스의 책 *질문에 대한 답*에서 다음을 인용하겠다.

> "요한복음 15:4, 6. 요한복음 15:4, 6 의 "너희가 거하지 아니하면"과 "만약 사람이 거하지 아니하면"이란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 "이와 같은 구절들은 그것 자체로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우리의 신학을 위한 기초로 이 절들을 사용하는 대신, 이 절들과 다른 귀절들을 우리의 신학에 맞추려고 시도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그 순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실패한 명백한 예가 있었다—방금 그들을 떠난 가룟 유다. 유다는 열 한 명의 동료들과 같이 선택되었다(눅 6:13; 요 6:70); 제자들과 주님의 교제에서 유다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떤 특권도 다른 제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성도의 마지막 인내를 가르치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배교의 위험을 말하는 똑 같이 명백한 말씀을 적당히 조절하기 위한 구실로써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71-72 쪽).

나. 신학적으로 현재 시제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 문맥에서 그렇게 많은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된 것은 놀랍다. 이 부정과거는 한 사람의 모든 생애를 요약하고 전체로서 그것을 보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 같다.

다. 15 장의 문단 구분은 불확실하다. 요한 1 서와 같이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색채로 장식되어 있다. 그 양식들은 계속 나타난다.

라. "거하다"(*메노*)라는 단어는 신약에 약 112 번 사용되었다. 40 번이 요한복음에서 26 번이 그의 서신에 나타난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중요한 신학적 용어이다. 비록 15 장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 명령의 고전적인 표현이지만, 이 용어는 요한복음에서 광범위한 초점을 가지고 있다:

1. 율법은 영원하다(마 5:17-18) . 그리스도도 역시 그렇다(12:34).
2. 히브리서는 계시의 새로운 도구를 가리키지만, 종을 통해서가 아닌 거하는 아들을 통해서이다(히 1:1-3, 요 8:35 도 역시).
3. 예수님은 계속있는 양식을 공급하고(6:27) 계속있는 열매를 공급하는(15:16) 분으로 말해진다. 이 두 가지 은유는 같은 진리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우리의 필요를 표현한다: (1) 처음의 필요 (2) 계속적인 필요(참조, 6:53; 15:3).
4. 침례(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침례(세례)때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1:32).

마. 요일 2:10 의 특별주제: 거함을 보라

바. 11-16 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이 약속되었다. 반면에 17-27 절에서 제자들에게 박해가 약속되었다. 박해에 대한 문맥은 16:4a 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박해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5:1-11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이것은 요한복음에 있는 "나는~이다"라는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이다(참조, 4:26; 6:35; 8:12; 10:7, 9, 10, 11, 14; 11:25; 14:6).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다(시 80:8-16; 사 5:1-7; 렘 2:21; 겔 15 장; 19:10; 호 10:1; 신약, 마 21:33 이하; 막 12:1-12, 롬 11:17 이하). 구약에서 이런 예들은 항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고 확언하신다(참조, 사 53).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은유로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건물을 사용했듯이, 요한은 포도나무의 은유를 사용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는 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참조, 갈 6:16; 벧전 2:5, 9; 계 1:6). 6:55 와 17: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다시 아버지와 그와의 친밀한 관계를 증거하시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의 종속됨을 확언하신다.

15: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이 절에 현재 수동 분사가 두 번 있다. 발아가 아니라 열매 맺음이 구원의 증거이다(참조, 마 7:16, 20; 13:18 이하; 21:18-22; 눅 6:43-45). 이 문맥은 예수님이 (1) 유다의 배신(참조, 6 절; 13:10; 17:12) 이나 (2) 거짓 제자들(참조, 2:23-25; 8:30-47; 요일 2:19)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여러 단계에 대해 말한다.

▣ **"그가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청결하게 하다"이다.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고통은 믿는 자들의 삶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다(참조, 17-22 절). 이것은 열매맺는 것을 극대화하고, 거짓을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참조, 마 13:20-23; 롬 8:17; 벧전 4:12-16). 이러한 어려운 주제를 실제적으로 다룬 좋은 책은 마일 스탠포드가 집필한 *영적성장의 원리*이다.

13-17 장의 문맥상, 여기에서 깨끗하게 함이 13 장의 발을 닦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목욕했지만(구원받음) 그들의 발은 씻겨질 필요가 있었다(계속적인 용서). 제자들에게 말해진 현재 시제는 요일 1:19 처럼 확증하기 위한 용법으로 보인다. 그것은 거함을 요구하는 순종뿐 아니라 계속되는 회개도 말한다!

믿는 자들의 인생에서 겪는 고통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1)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참조, 히 5:8) (2) 죄에 대한 일시적 처벌 (3) 타락한 세상에서 겪게 되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일은 늘 어렵지만 (1) 번의 목적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15:3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2 절에 있는 "제거하다"(*카싸리오*)란 단어는 "깨끗이 하다"(*카싸로스*)와 헬라어 어근이 같다. 이 전체 문맥은 참 제자도의 증거를 함축한다. "이미"라는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 남은 열 한 제자에게 그들의 안전한 위치에 대한 확인을 주는 헬라어 본문에서 강조된다(13:10 의 가롯 유다에게 사용된 같은 어근과 비교하라).

▣ **"내가 일러준 말로"** (참조, 17:17; 엡 5:26; 벧전 1:23).

15:4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신개정표준역(NRSV)	"내가 너희 안에 거한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현대영어성경(TEV)	"나와 하나되어 남아 있어라, 그리고 나도 너희와 하나되어 남아 있을 것이다"
신예루살렘성경(NJB)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남아 있어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 복수형이다(참조, 요 6:56; 요일 2:6). 문법적 질문은 두 번째 구가 설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비교를 위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본문에서 참 성도의 인내에 대한 신학적 교리의 강조는 수차례 역설되었다(참조, 4, 5, 6, 7, 9, 10, 14; 막 13:13; 고전 15:2; 갈 6:9; 계 2:7, 11, 17, 26; 3:5, 12, 21; 21:7). 참 구원은 시작과 계속적인 반응 둘 다를 말한다. 이와 같은 신학적 진리는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에 대한 우리의 열심으로 자주 무시된다. 성경적 확신은 (1) 인내하는 믿음 (2) 회개하는 삶의 양식 (3) 계속적인 순종(참조,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4) 열매맺는 삶(참조, 마 7:13)에 연결된다. 요일 2:10 의 특별주제인 거함을 보라.

▣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5 절의 "과일"에 대한 설명을 보라.

▣ **"그것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너희도 있지 아니하면"** 이것은 둘 다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적인 효력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연결된다.

15:5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 따라오는 현재 능동 분사이다. 계속적인 교제가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원이다. 열매는 믿는 자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도 의미할 수 있다(참조, 마 7:15-23 을 갈 5:22-23 과 고전 13 장과 함께 보라). 만약 믿는 자들이 거하면 그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약속된다(참조, 16 절). 8:31 의 특별주제인 인내를 보라.

▣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은 강한 이중 부정이다. 이것은 5 절과 빌 4:13 의 명백한 진리에 대한 부정적 진술이다.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포도나무 가지는 가정내의 목적(장작)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 이것은 너무 빨리 타고 너무 뜨겁기 때문이다(참조, 겔 15). 이것은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스라엘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잘못된 믿음을 의미할 것이다(참조, 마 13:41-42; 요일 2:19).

▣ **"불"** 다음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불

불은 성경에서 긍정적 의미뿐만아니라 부정적 의미도 갖는다.

가. 긍정적

1. 따뜻하게 한다(참조, 사 44:15; 요 18:18)
2. 밝게 한다(참조, 사 50:11; 마 25:1-13)
3. 음식을 익힌다(참조, 출 12:8; 사 44:15-16; 요 21:9)
4. 깨끗하게 한다(참조, 민 31:22-23; 잠 17:3; 사 1:25; 6:6-8; 렘 6:29; 말 3:2-3)
5. 거룩함(참조, 창 15:17; 출 3:2; 19:18; 겔 1:27; 히 12:29)
6. 하나님의 인도하심(참조, 출 12:21; 민 14:14; 왕상 18:24)
7. 하나님의 권한주심(참조, 행 2:3)
8. 보호하심(참조, 슥 2:5)

나. 부정적
1. 태우다(참조, 수 6:24; 8:8; 11:11; 마 22:7)
2. 파괴하다(참조, 창 19:24; 레 10:1-2)
3. 화(참조, 민 21:28; 사 10:16; 슥 12:6)
4. 형벌(참조, 창 38:24; 레 20:14; 21:9; 수 7:15)
5. 거짓 종말론적 표(참조, 계 13:13)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 은유로 표현되었다.
1. 그의 진노는 태우신다(참조, 호 8:5; 습 3:8)
2. 그는 불을 쏟으신다(참조, 나 1:6)
3. 영원한 불(참조, 렘 15:14; 17:4)
4. 종말론적 심판(참조, 마 3:10; 13:40; 요 15:6; 살후 1:7; 벧후 3:7-10; 계 8:7; 13:13; 16:8)

라. 성경의 많은 은유들과 같이(즉, 누룩, 사자) 불은 문맥에 따라 축복이나 저주가 될 수 있다.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안에 거하는 은유에서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바꾸신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또 그렇게 아버지의 가르침을 드러내신다. 이 둘은 계시의 원천이다. 복음은 그분과 메시지 둘 다이다.

▣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부정과거 중간태 명령이다(참조, 16 절). 이 구절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절로 잘못 사용되어 왔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알려고 힘쓰고 또한 본문을 따로 떼어 강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참조, 14:13 의 설명). 요일 3:22 의 특별 주제: 기도, 제한이 없으면서도 제한이 있음을 보라.

15:8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이 참 제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요 13:31-32; 14:13; 17:4; 마 9:3; 15:31 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사역으로 영광을 받으셨고, 지금은 믿는 자들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참조, 마 5:16). 1:14 의 설명을 보라.

15: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의 관계에 대한 이 고리는 하나님 가족의 특성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은 그의 추종자들을 사랑하고, 그의 추종자들은 서로 사랑한다.

▣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믿는 자들이 (1) 기도(7 절; 14:14) (2) 순종(10, 20 절; 14:15, 21, 23, 24) (3) 기쁨(11 절) (4) 사랑(12 절; 14:21, 22, 24)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한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증거이다. 요일 2:10 의 특별주제: 거함을 보라.

15:10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말한다. 순종은 참 제자도의 증거이다(참조, 8:31; 14:15-21, 23-24; 눅 6:46).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그의 충성의 예로 순종을 사용하셨다.

▣ **"사랑"** 사랑(*아가페*)의 헬라어 단어는 교회가 특수한 의미로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까지, 고전적 또는 코이네 헬라어 문학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은, 충성스러운, 활동적인 사랑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랑은 행동이지, 감정이 아니다(참조, 3:16). 신약의 용어 *아가페*는 언약적인 사랑과 충성을 의미하는 구약의 단어 *헤세드*와 신학적으로 유사하다.

▣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하나됨이 있다. 이것은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이 하나됨이 재생산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14:23).

15:11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있다(참조, 17:13). 기쁨은 참 제자도의 또 다른 증거이다(참조, 15:11[2 번]; 16:20, 21, 22, 24; 17:13).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위기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 충만한 기쁨, 그의 기쁨이 있다.

개역개정 15:12-17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5:12 "이것이 내 계명이니라" 예수님은 이 주제를 자주 반복하신다(참조, 13:34; 15:17; 요일 3:11, 23; 4:7-8, 11-12, 19-21; 요이 2,5).

▣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계속적인 명령을 말한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다(참조, 갈 5:22).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것은 실제적인 용어로 정의된다(참조, 갈 5:22-23; 고전 13 장).

▣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상징적인 인용일 수 있다(참조, 13 절).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만 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은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었다(참조, 고후 5:14-15; 갈 2:20; 요일 3:16).

15: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은 예수께서 대신하여 대속하신 속죄를 의미한다(참조, 10:11; 롬 5:7-8).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낸 사랑이다!

15:14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것은 헬라어 명사 *필로스*이다. 이것은 종종 친구사이의 사랑을 연상하게 한다(*필레오*). 코이네 헬라어에서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동의어 동사이다(11:3[*필레오*]와 11:5[*아가파오*]를 비교하라); 5:20 에서 *필레오*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용되었다.

▣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이다. 이것은 우정의 조건인 순종이다(참조, 14:15, 23-24; 15:10; 눅 6:46).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의 제자들도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15:1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 하나님에 관한 진리들 (2) 미래의 사건들을 알려 주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과 신뢰 안에서 성장하도록 그의 힘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들을 제자들과 나누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만 했다(참조, 28:20).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여기에는 여러 중요한 문법적인 것들이 있다: (1) 부정과거 중간태 직설법—예수님 자신이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선택하셨다 (2) 강한 반대의 의미 "*알라*"(그러나) (3) 강조의 "*에고*" 또는 "나는" 진술문! 여기에 인간의 응답과 선택의 균형이 있다. 둘 다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시지만(참조, 6:44, 65; 15:16, 19), 인간은 응답해야만 한다(참조, 1:12; 3:16; 15:4, 7, 9). 하나님은 인간을 다루실 때 언제나 언약적인 관계로 하신다("만일. . .그러면"). 6:44 의 특별주제:부르심을 보라.

▣ **"너희를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이것은 세 개의 현재 능동 가정법을 사용했다: (1) 가라 (2) 열매를 맺어라 (3)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거하다). 믿는 자들은 받은 바 사명을 따라 산다(참조, 마 28:19-20). "세웠다"의 신학적인 뜻은 행 20:28; 고전 12:28; 딤후 1:11 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믿는 자들의 믿음 위에 세워졌다(참조, 10:11, 15, 17-18; 15:13).

▣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인격을 재 생산해야 한다. 이 구절은 요 5:14 의 "하나님의 뜻"과 동의어이다. 사랑과 응답받는 기도는 14:13-14 에서 처럼 여기서도 연결된다.

특별주제: 주의 이름

이것은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 존재와 활동적인 힘에 대한 일반적인 말이다. 이것은 마술적 상투어가 아닌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은 자주 주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한다(참조, 빌 2:11)

1. 침례(세례)에서 예수께 대한 믿음을 공언할 때(참조, 롬 10:9-13; 행 2:38; 8:12, 16; 10:48; 19:5; 22:16; 고전 1:13, 15; 약 2:7)
2. 귀신을 쫓아낼 때(참조, 마 7:22; 막 9:38; 눅 9:49; 10:17; 행 19:13)
3. 병을 고칠 때(참조, 행 3:6, 16; 4:10; 9:34; 약 5:14)
4. 사역을 할 때(참조, 마 10:42; 18:5; 눅 9:48)
5. 교회적인 징계를 할 때(참조, 마 18:15-20)
6. 이방인에게 설교할 때(참조, 눅 24:47; 행 9:15; 15:17; 롬 1:5)
7. 기도할 때(참조, 요 14:13-14; 15:2, 16; 16:23; 고전 1:2)
8. 기독교를 일컫는 방법으로(참조, 행 26:9; 고전 1:10; 딤후 2:19; 약 2:7; 벧전 4:14)

복음 선포자, 사역자, 돕는 자, 병고치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자 등등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의 인격, 예수의 힘, 예수의 공급 안에서—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5: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2 절의 설명을 보라. 응답받는 기도는 사랑과 선교에 연결된다!

개역개정 15:18-25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25]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15:13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집필의 목적에서 사실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타락한 인간의 조직인 세상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미워한다.

▣ **"세상"** 요한은 이 용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했다: (1) 모든 인간에 대한 은유로서의 행성(참조, 3:16) (2) 하나님을 떠난 인간사회의 구조(참조, 10:8; 요일 2:15-17).

▣ **"너희를 미워하면"** 이것은 능동 직설법으로서, 세상은 계속 미워한다는 뜻이다(참조, 20 절).

▣ **"너희는. . .알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신약의 진리를 믿는 자들의 지식은 그들이 타락한 세상의 박해를 대면하도록 도울 것이다.

▣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대명사 "나를"은 강조법이다(참조, 7:7). 이것은 하나님, 메시아, 그의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적대를 나타낸다(참조, 17:14; 요일 3:13).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박해에서 하나이다. 그리스도와 하나 됨은 평화, 기쁨, 박해, 심지어 죽음까지도 가져다 준다!

15:19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라고 불린다. 이것은 "만약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해야 한다.

15:20 "기억하라" 이것은 18 절과 같이 현재 능동 명령이거나 아니면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내 말을 지켰은즉"** 이것은 두 개의 조건절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에서 사실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박해하다"란 단어는 사나운 동물처럼 쫓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다(참조, 8:17; 고후 1:5, 7; 빌 3:10; 딤후 2:12; 벧전 4:12-19).

15:21 "그들이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를 의미한다. 이것은 이방인처럼 유대인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을 내포한다. "알다"는 셈족어(구약)로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사용되었다(참조, 창 4:1; 렘 1:5). 잃어버려진 세상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 왜냐하면 (1) 믿는 자들이 잃어버려진 세상이 박해하는 예수께 속했고 (2) 잃어버려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15:22 "만일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라고 불린다. 이것은 "만일 내가 오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죄가 없었겠지만, 내가 와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가 있다"로 해석해야 한다. 책임감은 지식과 관계된다. 이 문맥에서 과일이 없는 가지는 자연적 계시만을 가진 자들 보다 지식을 얻을 막대한 기회가 있었다(참조, 시 19:1-6; 롬 1:18-20 또는 2:14-15).

15:23 예수께 대한 계속적인 반대는 하나님께 대한 계속적인 반대이다(참조, 24 절; 요일 5:1).

15:24 "만일" 이것은 또 다른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라고 불린다. 이것은 "만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그들은 죄가 있다"로 해석해야 한다.
빛은 책임감을 가져온다(참조, 1:5; 8:12; 12:35, 46; 요 1:5; 2:8, 9, 11; 마 6:23).

▣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것은 둘 다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요일 5:9-13).

15:25 "율법" 이나 "토라"가 시편 35:19; 69:4 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은 놀랍다. 보통 그 용어는 모세의 글인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사용되었다.
그런 분명한 계시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불가사의한 행동은 고의적인 불신앙으로 여겨진다(참조, 사 6:9-13; 렘 5:21; 롬 3:9-18).

개역개정 15:26-27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15:26 "내가…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오실 때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셨다(참조, 14:15, 26; 15:26; 16:7). 구속의 일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함께 하시는 일이다.

▣ **"진리의 성령"** 이것은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서의 성령을 의미한다(참조, 14:17, 26; 15:26; 16:13). 6:55 과 17:3 의 특별주제인 진리를 보라.

▣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사역은 예수와 그의 사역을 증거하는 것이다(참조, 14:26; 16:13-15; 요일 5:7).

15:27 "너희도…증언하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그와 함께 있었던 신약 저자의 감동을 의미한다(참조, 눅 24:48). 1:8 의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거함"은 무엇을 포함하는가?
2. 믿는 자가 거하는 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믿는 자가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3. 참 제자도의 증거를 열거하라
4. 만약 고통이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이라면,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5. 16 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해보라

요한복음 16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세상의 미움	다가오는 거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제자들과 세상
(15:18-16:4a)	(15:26-16:4)		(15:18-16:4a)	(15:18-16:4a)
성령의 사역		16:1-4a	성령의 사역	보혜사의 오심
16:4b-11	성령의 사역	16:4b-11	16:4b-11	16:4b-15
	16:5-15			
16:12-15		16:12-15	16:12-15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슬픔과 즐거움	곧 돌아오실 예수
16:16-24	16:16-24	16:16-24	16:16	16:16
			16:17-18	16:17-28
			16:19-22	
			16:23-24	
나는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셨다		세상을 이기심	
16:25-33	16:25-33	16:25-28	16:25-28	
		16:29-33	16:29-30	16:29-33
			16:31-33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요한복음 **16:1-33** 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이 단락은 15:18-16:4a 에 이어진다. 장의 구분은 감동되지 않았고 문단 나누기, 대문자 사용, 구두점, 절의 구분과 같이 나중에 추가되었다.

나. 잃어버려진 자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은 8-11 절에 정의 되어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사역은 12-15 절에 있다. 사무엘 J. 미콜라스키는 *강해성경주석* 1 권에 있는그의 글 “신약신학”에서 성령의 활동에 대한 흥미로운 요약을 했다:

"성화"의 신약적 교리는 칭의와 거의 유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르다. 구약에서처럼 성화는 첫째,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한 초월성— 둘째, 거룩한 도덕적인 삶의 내용과 관계를 말한다. 성화는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신약의 용어는 성령의 침례(세례)(고전 12:13); 성령의 인치심(엡 1:13, 14; 4:30); 성령의 거하심(요 14:17; 롬 5:4; 8:9-11; 고전 3:16; 6:19; 딤후 1:14); 성령의 지도하심(요 14:26; 16:12-15); 성령의 채우심(엡 5:18); 성령의 열매(갈 5:22, 23)를 말한다. 성화는 하나님 앞에 서게하는 칭의와 연결되고(히 10:10), 새로운 이상을 가져오는 발전으로 여겨질 수 있다"(474 쪽).

다. 13:36; 14:5, 8, 22 와 같이 16:17 절은 제자들의 또 다른 질문이다.

라. 14:31; 18:1 의 말씀을 따라 15-17 장이 다락방에서가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6:1-4

[1]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3]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16:1
신미국표준역(NASB) "너희를 실족함으로부터 지키려 함이니"
뉴킹제임스역(NKJV) "너희가 실족하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신개정표준역(NRSV) "너희로 실족하는 것으로부터 막기 위해"
현대영어성경(TEV) "너희로 너희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신예루살렘성경(NJB) "너희로 떠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이다. 이것의 헬라어 단어는 동물을 잡기 위한 미끼있는 덫에 대해 사용했다(참조, 6:61). 문맥에서 이것은 유대인,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에 의해 믿는 자들이 부지중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마 11:2-6 에서 침례(세례) 요한의 믿음에 대해 이것을 사용했다.

16:2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이것은 유대주의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한다(참조, 9:22, 34; 12:42). 유대인의 추방 절차에 대하여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회당의 예배로부터 일시적이고 영구적인 두 가지의 제외가 있었다. 1 세기 말 팔레스타인에서, 랍비들은 회당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을 내쫓기 위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저주서약"을 발전시켰다. 결국 그리스도의 추종자들과 지역의 유대인 회당 사이를 강제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이것이다.

16:3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초월적인 존재에게 성실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 죄, 광신이 일어난다.

▣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알다"라는 용어는 구약의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참조, 창 4:1; 렘 1:5).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부라는 것을 강하게 단언한다(참조, 8:19; 15:21; 요일 5:9-12).

요한은 종종 세상의 영적 소경됨과 무관심을 주장한다(참조, 1:10; 8:19, 55; 15:21; 16:3; 17:25). 그러나 아들의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고 아버지를 나타냄으로 아들을 통해 세상이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참조, 17:23).

16:4 예수님의 예언은 제자들이 박해와 거부를 받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기 위한 도구로서 주어졌다(참조, 13:19; 14:29).

개역개정 16:5-11

[5]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6:5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13:36 에서 베드로가 같은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는 고통과 앞으로 그들에게 어떤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즉시 마음이 어수선해졌다. 요한복음 14:1-3 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참조, 행 1:9-11).

이것은 복음서들이 축어적으로, 말 그대로, 베껴논 예수님과의 대화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좋은 부분이다. 복음서들은 수십년이 지난후 신학적 목적을 위해 요약한 것이다. 감동받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고르고, 정리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가졌다. 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어내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지 않는다. 목표로 하는 청중에게 복음전파를 위한 예수의 말씀, 가르침, 활동에 대한 신학적 구조는 복음서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6:6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다락방의 경험은 슬픈 일이었다(참조, 14:1; 16:6, 22). "마음"이란 단어는 한 사람의 전체—이성, 느낌, 뜻을 가리키는 히브리식 의미로 사용되었다. 12:40 의 특별주제: 마음을 보라.

16:7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의 육체는 한 번에 오직 한 장소 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모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한 사역하기에 그의 능력은 제한되었다. 또한 예수의 공생애 기간동안 그는 이스라엘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성령의 오심은 확장된 사역이 시작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었다(참조, 엡 2:11-3:13).

"유익"이라는 단어는 "수단"을 의미하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는 11:50 과 18:14 에서 사용되었다. "떠나다"란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모든 사건을 포함할 수 있다.

▣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절에는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두 개의 조건절 제 3 유형이 있다. 예수는 성령의 오심을 위해 떠나셔야만 했다!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는 "변호자," "위로자," 또는 "돕는자"이다(참조, 14:16, 26; 15:26). 헬라어 문학에서 이것은 곁에 불려진 변호인이 도움을 주는 말을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8-11 절에서 성령은 세상의 기소자로서 활동하신다; 그러나 12-15 절에서 성령의 변호는 믿는 자를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요일 2:1 에서 같은 단어인*파라클레토스*가 아들에게 사용되었다. 헬라어 어근은 그것을 "위로자"로 번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로 고후 1:3-11 에서는그것이 아버지에게 사용된다.

▣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은 아버지와 또한 아들로부터 오셨다(참조, 14:26).

16:8 "그가 와서. .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의 증거에 대한 세 가지 영역은 인간의 필요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계된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인 "반대심문"을 말한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타락한 인간의 사회 조직과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의미한다. 15:18 의 설명을 보라.

16:9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복음은 모든 인간의 죄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과 하나님의 의를 위한 필요에서 출발한다(참조, 롬 3:9-18, 23). 갈보리 구원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은 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분과 그의 사역에 대한 불신앙이다(참조, 요 3:6-21). "믿음"이란 단어는 지각적이고 감정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것이다. 이것의 초점은 믿는 자의 가치나 공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과 약속에 대한 믿는 자들의 회개하는 믿음의 반응이다(참조, 롬 3:21-30).

16: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것은 (1) 갈보리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구속 사역, 부활과 승천을 모두 일컫는다(참조, 10 절) 또는 (2)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인 것이 실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다.

16: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천사와 죄인된 인간이 서게 될 날이 올 것이다(참조, 빌 2:6-11). 사탄은 아직 세상에서 막강한 힘을 쓰고 있지만(참조, 12:31; 14:30; 고후 4:4; 엡 2:2; 요일 5:19) 이미 참패한 적이다(완료 수동 직설법). 사탄의 자녀들은(참조, 8:44; 마 13:38; 요일 3:8-10) 하나님의 진노를 거둘 것이다!

개역개정 16:12-15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6:12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감당하다"라는 단어는 짐승이 물리적인 짐을 나를 때 사용되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1) 그리스도의 고난 (2) 그리스도의 부활 (3) 교회의 세계선교이다.

현대 독자들은 여러 면에서 신약이 과도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활 후의 나타나심과 오순절에 충만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사도들은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들이 여러 해 후에 전도를 목적으로 목표로 하는 청중에게 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중에, 정리된 신학을 반영했다.

16:13 "진리의 성령" 진리(*알레쎄이아*)는 구약에서 신뢰감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진실성의 의미는 2 차적인 의미였다. 예수님은 14:6 에서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성령에 대한 이 호칭은 예수의 계시자로서의 그의 역할을 강조한다(참조, 14:17; 15:26; 16:13; 요일 4:6; 5:7). 6:55 의 설명을 보라.

▣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의 절대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진리와 예수의 가르침(즉, 복음)에 대한 영역에서의 절대적인 진리를 말한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신약성경 저자들이 받을 영감을 의미한다. 성령은 그들을 특별하고, 권위있는(영감된)방법으로 인도하셨다. 부차적인 의미에서 이것은 쓰여진 진리의 성경을 읽을 나중의 독자들에게 조명하실 성령의 사역과 연결된다. 6:55 와 17:3 의 특별주제인 진리를 보라.

▣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은 구속의 사건들을 의미한다: 갈보리, 부활, 승천, 오순절. 장래 일을 알리시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될 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진리를 받을 것이고, 예수께서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성령의 메시지 내용만이 아니라 그 방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의 역할이 뛰어나다(참조, 고전 15:27-28).

16:14-15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설명하는 것이다(참조, 15 절). 성령은 자신이 주목을 받지 않으시고, 항상 예수께 그것을 돌리신다(참조, 14:26).

▣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주장인가(참조, 3:35; 5:20; 13:3; 12:10; 마 11:27). 이것은 마 28:18; 엡 1:20-22; 골 2:10; 벧전 3:22 과 유사하다.

삼위일체 안에 동등하지 않은 기능적 서열이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반영하고, 성령은 예수를 반영한다.

개역개정 16:16-24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3]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16 "조금 있으면" 이 구절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난다(참조, 7:33; 12:35; 13:33; 14:19).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다: (1) 부활 후의 나타나심 (2) 재림 (3) 성령 안에 그리고 성령을 통해 예수의 오심. 문맥으로 볼 때 (1) 번만 가능하다(참조, 22). 이 구절은 제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참조, 17-18).

16: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이것은 13:36; 14:5, 8, 22 처럼 또 다른 질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확신하도록 그리고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질문들을 하셨다.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대화를 사용하는 것은 요한 복음의 특징이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또는 그에 관한 대화가 27 번 있다.

▣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16:5 에서 하셨고, 16:10 에서도 "잠시 후면"의 구절에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메시아적 인용이다(참조, 13:1, 3, ; 16:28; 17:24).

▣ **"조금 있으면…보지 못하겠고…보리라"** 16-17 절에 "보다"라는 두 개의 다른 단어가 있다. 그것들은 동의어로 보인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아침 사이의 시간을 의미할 수 기간은 오직 하나 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두 동사와 구절이 육체적인 시각과 영적인 시각을 의미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1) 갈보리와 주일 아침 사이의 시간 또는 (2)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의미한다.

16 절과 17 절에 있는 처음의 동사(*쎄오레오*)가 현재 시제이고 16 절과 17 절에 있는 두 번째 동사(*호라오*)가 미래 시제라는 사실은 동의어 이론을 지지한다.

16:18 "또 말하되"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1) 그들은 계속 말하고 있다 또는 (2)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다를 의미할 수 있다.

▣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와 같이 있었고, 그의 말씀을 들었고, 그의 기적을 본 자들이 항상 그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참조, 8:27, 43; 10:6; 12:16; 18:4). 이것이 성령이 감당하시는 사역이다.

16: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종종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다(참조, 2:25; 6:61, 64; 13:11). 이것이 그의 신적 본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둘 다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16: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아멘, 아멘"이다(참조, 1:51). "아멘"은 "믿음"(참조, 히 2:4)을 말하는 구약 용어이다(*아만, 에메쓰, 에무나*). 이것의 중요한 어원은 "견고한 것" 또는 "확실한 것"이다. 이것은 믿음/충실의 성경적 개념의 배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문장의 처음에 이 용어를 쓴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이것은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문장이니, 주의 깊게 들어라"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것은 유대인의 슬픔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큰 소리로 근심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11:31, 33; 20:11). 제자들의 근심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강조적인 복수형 "너"를 세 번 사용하셨다(20 절[두 번]과 22 절). 지도력은 (1) 종의 도 (2) 세상에 의해 거부됨 (3) 주님과 같이 박해받음을 의미한다.

▣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혼란스러운 마음과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핵심그룹의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저녁 예수께서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다 이루셨다: (1) 예수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참조, 16:19) (2) 그는 그들에게 올 것이다(참조, 16:19) (3)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참조, 16:19) (4) 그는 그들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참조, 16:22; 20:20).

16: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하는 여자의 은유는 신약과 구약에서 일반적인 것이다. 보통 그것은 출산의 갑작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지만, 여기서는 아이를 낳기 전과 낳은 후의 어머니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은유는 종종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출산의 고통"과 연결된다(참조, 사 26:17-18; 66:7 이하; 막 13:8). 이것은 예수께서 의미하는 바로 그것이었고, 아직 십자가, 부활, 승천을 모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정확한 이유였다!

16:23 "그 날에는" 이것은 히브리말의 또 다른 관용적 구절이다(21 절의 해산처럼).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새 시대와 관련된다(참조, 14:20; 16:25, 26).

▣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절에는 두 개의 다른 단어 "질문하다"와 "묻다"가 있다(참조, 26 절). 처음 것은 "질문을 하다"를 의미한다(참조, 16:5, 9, 30). 만약 이것이 적합한 번역이라면, 예수님은 13-17 장의 문맥에서 표현된 그들의 모든 질문을 의미하셨다(참조, 13:36; 14:5, 8, 22; 16:17-18). 두 번째의 단어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실 성령의 오심을 의미할 것이다(참조, 14;16-31; 15:26-27; 16:1-15).

▣

신미국표준역(NASB)	"만일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뉴킹제임스역(NKJV)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신개정표준역(NRSV)	"만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현대영어성경(TEV)	"아버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에게 구하는 어떤 것이라도 주실 것이다"
신예루살렘성경(NJB)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것은 조건절이 아닌 부정 관계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마무리 지을 때 사용하는 의식적인 공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과 인격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참조, 요일 5:13). 15:16 의 설명을 보라. 요일 3:22 의 특별주제: 기도의 무한성과 유한성을 보라.

"내 이름으로"의 구절과 관계된 사본의 다양성이 있다. 그것은 "요청하다"나 "주다" 또는 둘 다를 수반하는가? 이것은 기도의 문맥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요청하다"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내 이름," 참조, 14:13, 14; 16:15, 24, 26). 15:16 의 특별주제: 주의 이름을 보라.

16:24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다"는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끈질기고 계속적인 믿는 자들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의미에서 믿는 자는 단지 믿음으로 한 번 구하면 된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기도는 계속적인 교제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드리는 계속적인 요청이다(참조, 마 7:7-8; 눅 11:5-13; 18:18).

▣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완곡한 완료 수동 분사이다(참조, 요일 1:4).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 기쁨의 이유이다! 기쁨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다(참조, 15:11; 16:20, 21, 24; 17:13).

개역개정 16:25-28

[25]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28]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16:25 "비유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중의 효과가 있었다: (1) 그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 그들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참조, 막 4:10-11; 사 6:9-10; 렘 5:21). 듣는 자들의 마음이 효과적인 이해의 열쇠이다. 그러나 수난 주간 후의 사건들이 있기까지 구원받은 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실이다(십자가의 처형, 부활, 부활 후의 나타나심, 승천, 오순절).

부활 후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에게 나타나심은(참조, 눅 24:13-35) 예수께서 사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 단서를 준다(참조, 25-27, 32). 예수님 자신이 부활 후에 나타나심을 통해 구약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한 그의 사역에 대하여 구약이 어떻게 예시했는지 보여주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설교의 모본이 되었다(*케리그마*).

▣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7:4 의 특별주제: *파레시아*를 보라.

16: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 절은 중요한 진리를 표현한다.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 그러나 성경은 (1) 성령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다(참조, 롬 8:26-27) (2) 요일 2:1 에서 아들은 믿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신다 (3)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도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16:27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5:20 에 사용되었다. 요 3:16(*아가파오*)을 강화하는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가! 마지못해 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진정 시켜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
신미국표준역(NASB) "아버지께로부터"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하나님께로부터"

헬라어 사본에서 두 가지가 제시된다: (1) "하나님" 또는 "아버지" (2) 관사의 있음과 없음. "하나님"은 P[5], ℵ[2], A, N 에 나타나는 반면에 "그 하나님"은 C[3] 와 W 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좀 더 어렵고 일반적이지 않은 어법이다. 여기가 가장 어렵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본문을 원본으로 보는 본문 비평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곳이다. 서기관들은 그런 곳을 바꾸는 경향이 있었다. 세계성서공회의 헬라어 신약성경은 그것에 "C"등급을 준다. 그러나 "아버지"는 ℵ[1] 에 "그 아버지"는 B, C[*], D, L 에 나타난다. 이것은 문맥상 가장 적합하다.

▣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온 줄 믿었으므로"** 두 개의 완료 능동 직설법이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은 아버지와 교제를 위한 장을 마련한다. *요한복음의 번역가 핸드북*에 바클래이 뉴맨과 유진 니다의 진술은 매우 흥미롭다:

"이 진술은 요한복음에서 사랑, 순종, 믿음의 개념은 아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518 쪽).

2:23 의 특별주제: "믿다"에 대한 요한의 사용을 보라.

16:28 "내가…나와…왔고" 이것은 완료형이 뒤따라 오는 부정과거 시제이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성육신) 그의 오심의 결과는 계속 지속한다(참조, 마 28:20).

▣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것은 승천하실 것과 보혜사 사역의 시작과 예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한다(참조, 요일 2:1). 요 1:1 에서 선재하심을 주장한 것과 같이 이 절에서 예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주장한다(참조, 17:5, 24).

개역개정 16:29-33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6:29 "밝히 말씀하시고" 7:4 의 특별주제: *파레시아*를 보라.

16:30 이 문장은 19 절의 제자들의 질문을 아시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제자들에 의한 이 진술은 그들의 성장을 반영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믿음은 아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보아 왔고 들어 왔다; 이 사건(참조, 19 절)이 제자들의 이해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으로서 기능을 하였는가?

16:31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질문이 될 수도 있고 진술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현대 영어 번역본은 이것을 질문으로 이해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사도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않았다. 현대 믿음의 초보자들이 비록 믿음은 약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께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도 역시 받아 주신다. 제자들의 약한 믿음은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기간 동안 그들이 예수를 떠남에서 분명히 보여진다.

16: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분명한 것은 오직 요한만 심판과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남아 있었다(참조, 마 26:31, 슥 13:7 로부터). 요 21:1-3 은 사도들의 많은 수가 직업으로서 고기를 잡으로 돌아 갔었다고 말한다.

예수께서 인간의 우정은 잃었지만(참조, 마 26:38, 40-41, 43-45), 하나님의 동료애(참조, 8:16, 29)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던, 십자가의 처형까지 결코 잃지 않으셨다(참조, 마 27:45-46).

16:33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참조, 14:27).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지속된다.

▣ **"세상"** 이 문맥에서 요한은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조직된 인간사회라고 말한다.

▣ **"담대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참조, 마 9:2, 22; 14:27; 막 6:50; 10:49; 행 23:11).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같다(참조, 1:6, 9, 18; 10:25).

▣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심지어 겟세마네 앞에서도, 갈보리 앞에서도, 빈 무덤앞에서도 승리는 확신된다! 궁극적인 이원론은 없다. 하나님이 다 주장하신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믿는 자들도 역시 그를 통하여 승리한다(참조, 요일 5:4-5).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5 장과 16 장 사이의 연결점은 무엇인가?
2. 5 절과 관련해서 13:36 을 어떻게 이해해야 겠는가?
3. 잃어 버린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4. 믿는 자를 향한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5. 오늘날의 교파적 경향에 비추어 볼 때 26-27 절의 중요한 진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7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기도	예수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다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예수의 기도
17:1-5	17:1-5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17:1-5	17:1-5	17:1-23
17:6-19	17:6-19 예수가 모든 믿는 자를 위해 기도하시다	17:6-19	17:6-8	
			17:9-19	
17:20-26	17:20-26	17:20-24	17:20-23	
			17:24-26	17:24-26
		17:25-26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26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역사적 배경
1. 이 장은 예수 자신(1-5 절), 그의 제자들(6-19 절), 미래의 추종자들(20-26 절)을 위한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이다. 이것은 단념이 아닌 확신의 상황에서 주어졌다(참조, 16:33).
2. 이것은 기록된 가장 긴 예수의 기도이다.
3. 이 장은 같은 내용이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어서 주제별로 나누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마치 반복되는 양식의 장식과 같다. 중심 단어는 "영광," "주다," "알다," "보내다," "세상," "하나"이다.
4. 이 장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 14-16 장에서는 성령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나. 6-19 절에서 제자들의 특징
1. 그들은 선택된 자들이다
2. 그들은 순종한다
3.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안다
4.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인다
5.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6. 그들은 세상에 거주한다

7. 그들은 그의 능력으로 지켜진다
8. 그들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된다
9. 그들은 그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
10. 그들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11. 그들은 진리로 깨끗해진다
12. 그들은 예수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보내어진다
13. 그들은 아버지가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받는다

다. 요한복음에서 "영광"
1. 70 인역(LXX)에서는 적어도 25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헬라어 단어 *독사*로 번역되었다. 주요한 구약 용어인 *카보드*는 "다른," "무게," "무거움," "훌륭함," "평판," "명예," "밝음/빛남"의 뜻을 가지고 있다(참조, 브라운, 드라이버, 브릭스 458 쪽).
2. 헬라어 *독사*는 평판의 의미로 "생각하다"라는 동사에서 왔다.
3.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ㄱ. 하나님의 영광(참조, 5, 24 절; 1:14; 12:40; 12:16)
   ㄴ. 예수님의 표적, 가르침, 수난주간의 사역들을 통한 아버지에 대한 계시(참조, 4, 10, 22 절; 1:14; 2:11; 7:18; 11:4, 40).
   ㄷ. 특히 십자가(참조, 1, 4 절; 7:39; 12:23; 13:31-32)
   이 용어들의 사용법에는 유동성이 있음이 분명하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의 사역에서 드러나셨다는 것이 중심진리이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7:1-5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13-16 장에 있는 다락방의 말씀을 가리킨다.

▣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눈을 뜨고 손과 머리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린다(참조, 11:41; 막 7:34; 시 123:1). 예수님은 자주 기도하셨다. 눅 3:21; 5:16; 6:12; 9:18, 28; 11:1; 22:41-45; 23:34 에서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 **"아버지여"**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이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셨다(참조, 11:41; 12:27, 28; 마 11:25-27; 눅 22:42; 23:34).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 단어는 *아바*였다. 이것은 집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와 같은 것이다(참조, 14:36).

▣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사역의 목적과 시간대를 알고 계셨음을 보여준다(참조, 2:4; 7:6, 8, 30; 8:20; 12:23; 13:1).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환경에 지배되지 않으셨다.

▣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항상 비슷한 단어들로 그의 죽음을 의미하셨다(참조, 4 절; 7:39; 12:23; 13:31-32). 이 단어는 또한 예수님의 선재적 신성과 관계가 있다(참조, 1:14; 4, 24 절). 예수님의 활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는 서로 상호관계에 있다! 1:14 의 설명을 보라.

17:2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시골 목수가 한 경이로운 말이다(참조, 요 5:27; 마 11:27; 28:18; 눅 10:22). "권세"(*엑쑤시아*)는 1:12; 5:29; 19:10, 11 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이것은 "법적 권리," "권위," 또는 "능력"으로 번역될 수 있다. "만민"은 단수형이다(히브리어 어법으로는 인류를 의미한다, 참조, 창 6:12; 시 65:2; 145:21; 사 40:5; 66:23; 욜 2:28).

▣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사람"은 중성 단수(참조, 7, 24 절)로서 개인이 아닌 예수님의 몸인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 동사는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영속적인 선물을 말한다! 이것은 미리아심과

선택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의미한다(참조, 6, 9, 12 절; 6:37, 39; 롬 8:29-30; 엡 1:3-14). 구약에서의 선택이 봉사를 위한 것이었고, 신약에서의 선택은 영적이고 안전하며 영원한 구원을 위한 것이다. 믿는 자들은 또한 봉사를 위해 부름받았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다. 이것은 죽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생명에 맞춘 것이다! 믿는 자들은 거룩함(참조, 엡 1:4; 2:10)을 위해서이지, 특권적인 지위를 위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 구절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참조, 5:21, 26; 6:40, 47; 10;28; 요이 2:25; 5:11).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새 시대의 생명," 또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한다. 이것의 우선순위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참조, 10:10).

17:3 "영생은" 이것은 요한에 의해 삽입된 "영생"의 개념이다. 이 절은 기독교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다: (1) 유일신주의(참조, 신 6:4-6) (2) 다윗의 자손인 신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참조, 삼하 7 장).

▣ **"그들이 당신을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비록 확인된 진리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각적인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셈어의 의미로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 사용된다. 예수님이 오직 한 분이신 참된 하나님의 충분하고 완전한 계시인 메시아라는 것이 진리이다(참조, 1:12, 14; 골 1;15; 히 1:3). 또한 진리는 각 개인이 믿고, 영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인내해야만 하는 것이다.

▣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구약의 주장은 독특하다(참조, 출 8:10; 9:14; 신 4:35, 39; 6:4; 33:26; 삼상 2:2; 삼하 7:22; 왕상 8:23; 사 37:20; 44:6, 8; 45:6-7, 14, 18, 21, 22; 46:9; 요 5:44; 고전 8:4, 6; 딤전 1:17; 유 25).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이심에 대한 구약의 주장은 많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다(참조, 15:11; 신 3:24; 시 86:8; 89:6).

어떤 점에서 구약의 구절들이 단일신교를 반영하는 것도 있다(많은 신 중에서[*엘로힘*], 나를 위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세는 다른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인식했다. 이것은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실제였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뜻이 아니라, 마귀들이 물리적 우상들의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고전 10:19-20).

또 다른 형용사 "참"(*알레씨노스*)이 있다. 이 단어와 그것과 관계있는 단어(*알레쎄스*)는 요한의 글에서 자주 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의미론적 분야). 구약의 은유적 배경은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충성스러운(*에메쓰*로부터)의 의미가 될 수 있다. 헬라어 배경에서는 감추어 지지않은, 확실한, 명백하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참 대 거짓이다(참조, 딛 1:2). 헬라어 단어(*알레씨노스*)의 끝 어절 *이노스*는 어떤 것이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표시한다. 다음의 사용법들은 그 단어들에 대해 일반적인 느낌을 줄 것이다.

특별주제: 요한의 책에서의 "참"(또한 6:55 의 특별주제를 보라)

1. 성부 하나님
   ㄱ. 하나님은 참/신뢰할 수 있는 분 이시다(참조, 요 3:33; 7:18, 28; 8:26; 17:3; 롬 3:4; 살전 1:9; 요일 5;20; 계 6:10)
   ㄴ. 하나님의 길은 참되시다(참조, 계 15:3)
   ㄷ.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다(참조, 계 16:7; 19:2)
   ㄹ.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참조, 계 19:11)
2. 성자 하나님
   ㄱ. 아들은 참/진리이시다
      1) 참 빛(참조, 요 1:9; 요일 2:8)
      2) 참 포도나무(참조, 요 15:1)
      3)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참조, 요 1:14, 17)
      4) 그는 진리이시다(참조, 요 14:6; 8:32)
      5) 그는 참이시다(참조, 계 3:7, 14; 19:11)
   ㄴ. 아들의 증언/증거는 참되시다(참조, 요 18:37)
3.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ㄱ. 모세의 법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참조, 요 1:17)
   ㄴ. 광야에서의 회막과 하늘의 성막(참조, 히 8:2; 9:1)
4. 요한복음에서 자주 그런 것처럼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묘사하기 위해 요한은 위격으로서, 말하는 분으로서, 또한 아버지와 아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달될 메시지로서 이 모두를 사용했다(참조, 요 4:13; 19:35; 히 10:22; 계 22:6).

5. 요한복음에서 이 절의 두 형용사는 한 분이시고 오직 믿을만 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를 묘사한다(참조, 5:44; 요일 5:20). 또한 단순한 지식적이고, 사실적이 아닌 구속의 목적을 위한 참되고 완전한 계시로서 예수님을 묘사한다!

▣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로 "보내신" 자로서의 예수에 대한 강조는 요한복음 에서 반복되는 수직적 이원론이다(참조, 3:17, 34; 5:36, 38; 6:29, 38, 47: 7:29; 8:42; 10:36; 11:42; 17:3, 8, 18, 21, 23, 25; 20:21). 랍비들은 *아포스텔로*란 단어를 공식적인 대표자로서 보냄을 입은 자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17:4 "내가...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13:31-32 의 설명을 보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1) "영광을 주다" (2) "영광을 드러내다"의 의미에서 사용될 수 있다. 6 절은 (2)번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중의 하나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참조, 1:14, 18).

▣ **"일을 내가 이루어"** 헬라어의 어근인 *텔로스*는 "완전히 완성하다"라는 뜻이다(참조, 4:34; 5:36; 19:30). 이 일은 삼중적 의미를 가진다: (1) 아버지의 계시(참조, 1:14, 18) (2) 타락한 인간의 구속(참조, 막 10:45; 고후 5:21) (3) 참된 인간성의 모범(참조, 13:31; 벧전 2:21). 또한 예수님은 중보의 일을 계속하신다(참조, 요일 2:1).

17:5 "영화로써. .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절은 그리스도의 선재를 강조한다(참조, 1:1, 15; 6:62; 8:58; 16:28; 17:11, 13, 24; 고후 8:9; 빌 2:6-11; 골 1:17; 히 1:3; 10:5-8). 예수님은 그의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영광"을 이미 나타내셨다(참조, 1:14; 2:11; 11:4, 40; 12:28). 여기서의 궁극적인 "영광"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 하늘의 영광으로 돌아가시는 승천일 것이다(참조, 24 절; 빌 2:5-6). 1:14 의 "영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7:6-19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7: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히브리어의 이름은 그것의 특성을 의미했다(참조, 11, 12, 25-26 절; 시 9:10). 이 절은 또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신학적으로 주장한다(참조, 요 1:18; 14:8-11; 골 1:15; 히 1:3).

▣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신학적으로 이것은 선택에 대해 말하고 있다(참조, 2, 9, 24 절; 6:37, 39).

▣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순종은 중요하다(참조, 8:51, 55; 14:23; 15:10, 20). 이것은 구약의 "결백한"과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노아, 창 6:9; 아브라함, 창 17:1; 이스라엘, 신 18:13; 욥, 욥 1:1). 이것은 완벽한 순종이나 죄 없음이 아니라, 계시된 모든 것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

17:7 "그들은. . . 알았나이다" 이것은 (*호티*)"절"이 따라오는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메시지의 내용을 말한다.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드러낸 것을 말씀하셨다(참조, 8 절; 7:16; 12:48-49).

17:8 "그들은 이것을 받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 이 문장에는 직접 목적어가 없다. 1:12 에서 영접하다/받아들이다의 직접 목적어는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말한다(참조, 4 절). 이것은 복음의 두 면을 강조한다 (1) 예수님 자신 (2) 메시지.

▣ **"그들은 이것을 받고. . .믿었사옵나이다"**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다. 이 진리는 예수님의 신적 근원과 메시지를 가리킨다(참조, 5:19; 6:68-69; 12:48-49; 16:30; 17:18, 21, 23, 25).

17: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변호자이시다(참조, 요일 2:1). 아버지(참조, 16:26-27) 역시 성령님과 같이(참조, 롬 8:26-27) 이 사역에 관련되신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 모두 구속의 모든 면에 참여하신다.

▣ **"세상"** *코스모스*는 이 장에서 18 번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1) 행성으로서의 지구(참조, 17:5, 24) (2) 세상의 타락에 대한 믿는 자들의 관계(참조, 1:10; 17:6, 9, 11, 13, 14, 15, 16, 17, 18, 21, 23)에 관심을 가지신다. 요한의 글에서 이 단어는 독특하게 "하나님을 떠나 조직된 인간사회"를 말한다. 때때로 이것은 (1) 지구 (2) 지구 위의 모든 생명 또는 (3) 하나님을 떠난 삶을 내포한다.

17: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나타낸다(참조, 11, 21-23 절; 16:15).

▣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제자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책임있는 일인가!

17: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 가실 때를 말하는 속히 다가올 미래(승천)를 가리킨다(참조, 행 1:9-10).

▣ **"거룩하신 아버지여"** 구약과 다르게, 신약에서는 "거룩"을 아버지에 대하여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참조, 벧전 1:16; 계 4:8). 형용사인 (*하기오스*)는 성령을 가리킨다. 같은 헬라어 어원은 17 절에서 제자들(*하기아스모스*)에게 19 절에서는 예수(*하기아조*)께 사용되었다.

이 어근의 기본 어원은 "나누어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독점적으로 주어진 사람들, 장소들, 물건들에 사용했다. 이것은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타락한 것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뛰어나신 특성을 묘사한다(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더욱 더 그와 같아질 때 그들 역시 "거룩함"을 나타낸다. "성도"의 어근은 헬라어 용어 "거룩"에서 왔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를 위해, 예수처럼, 예수께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 거룩하게 된다.

▣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은 현재 가정법이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인 하나됨을 말한다(참조, 21, 22, 23 절).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놀라운 요구와 책임감이다! 우리 시대에 이것이 부족하다(참조, 엡 4:1-6). 동일성이 아닌, 하나됨이 열쇠이다.

17:12 "내가. .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처음 동사는 미완료 시제이고 다음 것은 부정과거 시제이다. 이 동사들은 동의어이다. 이 구절의 목적은 예수님의 계속적인 보호이다(참조, 벧전 1:3-9).

신약단어연구 1 권에서 M. R. 빈센트는 여기의 두 단어를 구별했다. 처음 것(*테레오*)은 보존하다를 다음 것(*풀라소*)은 감시하다를 의미한다고 말했다(496 쪽).

▣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보여준다(참조, 6:37, 39; 10:28-29).

(*아폴루미*)라는 용어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번역하기가 어렵다. *신약신학사전* 1 권에서 게르하르트 키텔은 이 단어에 대해 "일반적으로 b 와 d 항은 공관복음에서처럼 현재 세상에 대한 진술을 뒷 받침하는 반면에, a 와 c 항은 바울서신과 요한의 글에서처럼 다음 세상에 대한 진술을 뒷 받침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394 쪽. 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멸망시키다 또는 죽이다"
b. "잃다 또는 손해를 입다"
c. "멸망하다"
d. "잃어 버리다"

이 용어는 종종 전멸의 교리를 주장하는데 사용되었다(참조, 훠지, *소멸하는 불*). 즉,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 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 12:2 절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또한 공관복음에서 사용된 의미와,

요한과 바울이 은유적으로 사용한 영적 잃어버림에 대한 물리적 멸망이 아닌 의미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 10:10 의 특별주제인 멸망(*아폴루미*)을 보라.

▣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것은 분명히 가룟 유다를 가리킨다. 같은 구절이 살후 2:3 에 "불법의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이것은 "잃어버리도록 정해진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식 관용법이다. 이것은 12 절에서 사용된 "잃어버리다"라는 용어에 대한 언어유희이다 :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특별주제: 배교(*아피스테미*)

헬라어 용어 *아피스테미*는 광범위한 어원론적 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어 단어인 "배교"는 이 용어로부터 파생되었고 그 단어의 사용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한다. 늘 그렇듯이 문맥이 열쇠이지, 정해진 정의가 열쇠는 아니다.

이것은 "~로부터" 또는 "~을 떠나서"의 의미인 전치사 *아포*와 "앉다," "서있다," 또는 "고치다"의 의미인 *히스테미*의 합성어이다. 다음의 사용법을 주목하라(신학적이지 않은):

1. 물리적으로 옮기다
   ㄱ. 성전으로부터, 눅 2:37
   ㄴ. 집으로부터, 막 13:34
   ㄷ. 사람으로부터, 막 12:12; 14:50; 행 5:38
   ㄹ. 모든 것으로부터, 막 19:27, 29
2. 정치적으로 옮기다, 행 5:37
3. 이성적으로 옮기다, 행 5:38; 15:38; 19:9; 22:29
4. 법적으로 옮기다(이혼), 신 24:1, 3(70 인역)과 신약, 마 5:31; 19:7; 막 10:4; 고전 7:11
5. 빚을 옮기다, 마 18:24
6. 떠남으로 무관심을 보이다, 마 4:20; 22:27; 요 4:28; 16:32
7. 떠나지 않음으로 관심을 보이다, 요 8:29; 14:18
8. 허락하거나 승인하다, 마 13:30; 19:14; 막 14:6; 눅 13:8

신학적 의미에서 동사는 또한 여러 가지 사용법을 가지고 있다

1. 죄의 잘못을 무효로하다, 용서하다, 사면하다, 출 32:32(70 인역); 민 14:19; 욥 42:10 과 신약, 마 6:12, 14-15; 막 11:25-26
2. 죄에서 떠나다, 딤후 2:19
3. 떠남으로 버리다
   ㄱ. 율법, 마 23:23; 행 21:21
   ㄴ. 믿음, 겔 20:8(70 인역); 눅 8:13 살후 2:3; 딤전 4:1; 히 2:13

오늘날 믿는 자들은 신약의 저자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을 한다. 그것들 중의 하나는 믿음과 신실함을 나누는 현대의 경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이 있다.

I. 구약
   가. 고라, 민 16 장
   나. 엘리의 아들들, 삼상 2, 4 장
   다. 사울, 삼상 11-31 장
   라. 거짓 선지자들(예들)
      1. 신 13:1-5; 18:19-22
      2. 렘 28 장
      3. 겔 13:1-7
   마. 거짓 여 선지자들
      1. 겔 13:17
      2. 느 6:14
   바.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예들)
      1. 렘 5:30-31; 8:1-2; 23:1-4
      2. 겔 22:23-31
      3. 미 3:5-12
II. 신약
   가. 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아포스타시즈*이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재림 전에 악과 거짓된 가르침이 횡횡할 것을 말한다(참조, 24:24; 막 13:22; 행 20:29, 30; 살후 2:9-12; 딤후 4:4). 이 헬라어

단어는 눅 8:13 에 있는 밭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다. 거짓 선생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나타난다(참조, 행 20:29-30; 요일 2:19); 진실되지만 미성숙한 신자들을 그들이 유혹하고 사로잡을 수 있다(참조, 히 3:12).

신학적 질문은 거짓 선생들이 믿는 자들이었을까 라는 점이다. 지역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참조, 요일 2:18-19). 종종 우리의 신학적, 교파적 관습은 (자기의 편견을 입증할 목적으로 문맥을 무시하고 어떤 절을 인용하는 방법외에는) 명확한 성경 본문에 근거하지 않고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한다

나. 외관상의 믿음
1. 유다, 요 17:12
2. 마술사 시몬 , 행 8 장
3. 마 7:21-23 에서 말하는 사람들
4. 마 13 장에서 말하는 사람들
5. 알렉산더와 후메내오, 딤전, 1:19-20
6. 후메내오와 빌레도, 딤후 2:16-18
7. 데마, 딤후 4:10
8. 거짓 선생들, 벧후 2:19-20; 유 12-19
9. 적그리스도, 요일 2:18-19

다. 열매없는 믿음
1. 마 7 장
2. 고전 3:10-15
3. 벧후 1:8-11

우리의 조직신학(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등)이 정해진 반응을 일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본문들에 관하여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주제를 꺼냈다고 미리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관심은 바른 성경해석학적 과정에 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해야지, 미리 설정된 신학에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자주 고통과 놀라움을 안겨준다. 왜냐하면 신학의 많은 부분이 성경적이 아니고 교파적, 문화적, 관계적(부모, 친구, 목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예, 롬 9:6).

▣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 13:18; 6:70-71 은 시 41:9 에서 인용되었다.

17:13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과 완료 수동 분사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참조, 15:11; 16:24). 요한은 똑 같은 구절을 요일 1:4 와 요이 12 절에서 사용한다.

17: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여기서 "말씀"이란 단어는 *로고스*이다. 헬라어의 동의어 *레마*는 8 절에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 가르침, 모범을 통하여 신적인 계시를 확언한다.예수님은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시다. 말씀은 그 분이시며 또한 인식해야 할 내용이다. 우리는 복음이신 그 분을 환영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다!

▣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에게 거부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표식이다(참조, 요 15:18-20).

▣ **"이는. .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는 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것은 아니다(참조, 16 절; 요일 2:15-17).

▣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은 인간과 천사의 반역에 대한 타락한 세대를 의미한다(참조, 8:23).

17: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참조, 18 절; 마 28:19-20; 행 1:8). 그들이 집에 갈 시간은 지금이 아니다!

▣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악한 *자*"
신개정표준역(NRSV)	"악한 자"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악한 자"

이 단어는 중성이거나 남성이다. 이 단락은 종종 악의 힘을 언급하고 있다(참조, 12:31; 13:27; 14:30; 16:11); 그러므로 마 5:5-37; 6:13; 13:19, 38 같이 이 구절은 "악한 자"로 이해하여야 한다(참조, 살후 3:3; 요일 2:13-14; 3:12; 5:18-19).

17:17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으로서 어근이 "거룩한"(*하기오스*)이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도록 부름을 받았다(참조, 19 절; 롬 8:24; 갈 4:19; 살전 5:23). 이것은 살아 있는 말씀(예수님, 참조, 10:36)이며 쓰여진 말씀(성경, 참조, 15:3)인 진리의 지식을 통해 일어날 수 있다.

▣ **"진리로. .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의미한다(참조, 8:31-32).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로고스*, 참조, 1:1, 14)와 진리(참조, 14:6)라고 불렸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종종 일컬어졌다(참조, 14:17; 15:26; 16:13). 믿는 자들은 또한 진리(참조, 19 절, 완료 수동 분사)와 성령(참조, 벧전 1:2)에 의해 성화된다는 것을 주목하라. 헬라어 어근 "참, 진리"에 대한 깊은 토론을 위해 6:55 와 17:3 의 특별주제를 보라.

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순종과 봉사,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신 예수님의 생애는(고후 5:14-15; 갈 2:20; 요일 3:16)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모범이 된다(참조, 19 절). 예수님은 그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요 20:21) 잃어버린 세상에서 그의 제자들이 사역하도록 보낼 것이다. 그들은 세상으로 부터의 은둔생활이 아닌 세상에서의 사역을 위해 애써야만 한다.

17:19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문맥으로 볼 때 이것은 갈보리를 의미한다!

▣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완곡한 완료 수동 분사와 함께 쓰인 *히나*절이다. 이것은 그 결과가 이미 발생했고 힘있게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음에 기초한 부수적인 요소가 있다 (1)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 이루실 일 또는 (2)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계속적으로 회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6:55 와 17:3 의 특별주제인 진리를 보라.

개역개정 17:20-24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7:20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은 미래로서 현재 시제 기능을 한다. 이것은 뒤이어 일어날 모든 믿는 자들과 10:16 에 있는 이방 민족의 믿는 자들을 의미한다.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것은 *로고스*를 가리킨다. 14 절의 사용과 8 절의 동의어 *레마*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메시지를 제자들이 전달함을 의미한다.

17:21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 하나됨은 다름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됨이다(참조, 11, 22, 23 절; 엡 4:1-6).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따를 수 <u>없는</u> 그의 가르침 중 하나이다.

▣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하나됨의 목적은 복음전도이다. 23 절은 이것과 거의 같은 구조와 강조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 기도의 긴장감이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지만(참조, 9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메시지와 함께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그들이 박해 받게 될 세상으로 보낸다(참조, 21, 23 절; 3:16).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하신다(참조, 딤전 2:4; 딛 2:11; 벧후 3:9).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그와 닮게 지으신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17: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둘 다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영광은 계시의 메시지를 의미해야 한다. A. T. 로벗슨은 그의 책 *신약워드픽쳐* 5 권에서 "이것은 성육신한 말씀의 영광이지(참조, 1:14; 2:11), 17:24 에서 언급된 영원한 말씀의 영광이 아니다"(280 쪽)라고 말했다. 1:14 의 "영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라.

17:23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것은 19 절과 같이 완곡한 완료 수동태와 함께 쓴 *히나* 절이다. 그러나 19 절처럼 여기에는 다음에 기초한 부수적인 요소가 있다 (1) 그리스도가 이루실 사역 또는 (2) 그들의 계속될 믿음. 이것은 그들이 이미 예수님의 일에 의해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뜻이다! 하나됨의 목적은 복음전도이다.

▣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이것은 약속(참조 16:27; 14:21, 23)이지만, 조건이 있다.

17:24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한 장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참조, 14:1-3). 이 세상은 예수님의 집이 아닌 것처럼 역시 우리의 집도 아니다! 이것은 그의 창조물이고 회복될 것이다.

▣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분명한 것은 이 절에서의 "영광"이 22 절의 그것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여기서는 선재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위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이미 구속의 일을 하셨다. 이 구절은 신약에서 여러번 사용되었다(참조, 마 25:34; 눅 11:50; 엡 1:4; 히 4:3; 9:26; 벧전 1:20; 계 13:8; 17:8).

개역개정 17:25-26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7: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것은 11 절의 "거룩하신 아버지여"와 평행을 이룬다. 이것은 "측정하는 갈대"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시다!

▣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조직화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사회인 세상은 하나님(참조, 17:25)도 모르고 그의 아들(참조 1:10)도 모른다. 이것은 악하고 나쁘다(참조, 3:19-20; 7:7).

▣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높고 순수한 정보의 근원이 되신다(참조, 1:18; 3:11).

17: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이것은 아버지의 특성과 인류의 구속계획에 대한 아버지의 계시를 말한다(참조, 6, 11, 12 절). "알려진"이란 단어는 25-26 절에 5 번 사용되었다.

▣ **"또 알게 하리니"** 이것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백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계속되는 예수님의 계시 또는 (2) 일어나려고 하는 구원(수난 주간)의 사건들. 이 구절의 문맥상 이것은 (1)번을 뜻한다. 구원은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 시작하는 믿음과 계속되는 믿음인 결심과 삶의 양식를 포함한다. 이것은 헬라어의 "알다"의 의미와 히브리어의 "알다"의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7 장의 기도가 신학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가?
2. 유다는 은혜에서 떨어진 신앙인이었는가?
3.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인가?
4. 예수님의 선재하심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5. 다음의 핵심되는 단어들을 문맥 안에서 정의해 보라:
   ㄱ. "영광돌리다"
   ㄴ. "주다"
   ㄷ. "알다"

ㄹ. “보내진”
ㅁ. “이름”
ㅂ. “세상”

요한복음 18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배반과 예수의 잡히심	배반과 겟세마네에서 잡히심	예수의 잡히심, 재판, 십자가의 처형, 장사	예수의 잡히심	예수의 잡히심
		(18:1-19:42)		
18:1-11	18:1-11	18:1-11	18:1-4	18:1-9
			18:5a	
			18:5b	
			18:5c-7a	
			18:7b	
			18:8-9	
			18:10-11	18:10-11
대제사장 앞의 예수	대제사장 앞		안나스 앞의 예수	안나스와 가야바 앞의 예수, 베드로가 그를 부인하다
18:12-14	18:12-14	18:12-14	18:12-14	18:12-14
예수에 대한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다	
18:15-8	18:15-18	18:15-18	18:15-17a	18:15-18
			18:17b	
			18:18	
대제사장이 예수를 심문하다	대제사장에 의하여 심문 받은 예수		대제사장이 예수를 심문하다	
18:19-24	18:19-24	18:19-24	18:19-21	18:19-24
			18:22	
			18:23	
			18:24	
베드로가 예수를 다시 부인하다	베드로가 두 번 더 부인하다		베드로가 예수를 다시 부인하다	
18: 25-27	18: 25-27	18: 25-27	18:25a	18:25-27
			18:25b	
			18:26	
			18:27	
빌라도 앞의 예수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 앞의 예수	빌라도 앞의 예수
18:28-38a	18:28-38	18:28-32	18:28-29	18:28-32
			18:30	
			18:31a	
			18:31b-32	
		18:33-38a	18:33	18:33-19:3
			18:34	
			18:35	
			18:36	

			18:37a
			18:37b
			18:38a
사형선고를 받으신 예수	바라바의 자리에 섬		예수가 사형선고를 받으시다
(18:38b-19:16c)			(18:38b-19:16a)
18:38b-19:7		18:38b-19:7	18:38b-39
	18:39-40		
			18:40-19:3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8:1-40 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요한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생략했다. 이것은 모든 상황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역동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참조, 10:11, 15, 17, 18).

나. 이 장에 있는 사건의 순서는 공관복음과 다른 점이 있다. 이 모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인다 (1) 목격자 진술의 성격 또는 (2) 저자의 신학적 목적. 복음서의 영감된 저자들은 예수님 생애의 말씀과 사건을 영감을 받아 수정하고, 선택하고, 정리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 이 장에 대한 좋은 참조가 되는 책은 A. N. 쉐윈-화이트의 *신약에서의 로마사회와 로마법*이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8:1-11**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3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8:1 "기드론 시내" "시내"는 "겨울-시내" 또는 "강"을 의미한다. "기드론"은 (1) 백향목또는 (2) 검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름에 완전히 말라있지만 겨울에는 물이 흐르는 강이었다. 이것은 희생제물의 피가 배수되는 곳이었다. 이것은 "검은 것"을 설명하는 출처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모리아 산과 감람산 사이에 있었다(참조, 70 인역 삼하 17:23; 왕하 23:4, 6, 12; 대하 15:16; 29:16; 30:14; 렘 31:40).

이 점에서 헬라어 사본의 다양성이 있다:

1. "백향목들의"(*케드론*)는 א[c], B, C, L 과 여러 대문자체 사본에
2. "백향목의"(*케드루*)는 א*, D, W 에
3. "키드론의"(*케드론*)는 A, S 에

세계성서공회의 네 번째 개정판에서는 3 항을 사용했다.

▣ **"동산"** 이 장은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완전히 생략했지만, 동산에서 잡히시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곳은 예수께서 즐겨 쉬시던 장소였다(참조, 2 절; 눅 22:39). 예수님은 분명히 생애의 마지막 주간 동안 이곳에서 주무셨다(참조, 눅 21:37).

사용되는 비료들이 동산을 더럽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동산들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많은 부자들은 감람산에 포도원, 과수원 등을 가지고 있었다.

▣ **"유다"** 유다와 그의 동기에 대하여 많은 추측이 오간다.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주 언급되고 비난받는다(참조, 6:71; 12:4; 13:2, 26, 39; 18:2, 3, 5). 현대 연극 "수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에서 유다를 신실하지만 환멸을 느끼는 추종자로 그린다. 그는 예수가 유대 메시아의 역할을 완수하도록 강요한다—즉, 로마를 전복시키고, 사악한 자를 처벌하며 예루살렘을 세계의 수도로 세우는. 그러나 요한은 유다의 동기를 욕심과 악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낸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이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유다를 조종하셨는가? 만약 사탄이 유다를 지배하거나 하나님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정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했다면 유다의 행동에 대해 그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는 미래의 사건을 아시지만, 인간은 선택하고 행동하는데 책임이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조작하여 다루지 않으신다.

유다를 방어하려는 새로운 책이 있다—*유다는 예수의 배반자인가 아니면 친구인가?* 윌리엄 클래센 저, 포트레스 출판사, 1996. 유다에 대한 요한의 증거를 경시하므로 나는 이 책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은 매우 흥미롭고 생각하게 만든다.

18:3

신미국표준역(NASB)	"로마 보병대"
뉴킹제임스역(NKJV)	"군대의 *파견대*"
신개정표준역(NRSV)	"군인의 파견대"
현대영어성경(TEV)	"로마 군인의 일단"
신예루살렘성경(NJB)	"보병대"

이것은 로마군대의 단위로서, 한 군단을 10 등분한 것으로 한 부대가 600 명까지 이르는데, 성전 옆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에 주둔했다(참조, 행 21:31, 33). 큰 군대가 왔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명절 기간 동안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폭동을 대비하였다. 뱃길로써 가이사랴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만일에 필요한 예방책을 삼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유대인들이 원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예수님의 재판에 연루되었다. 이것은 보통 여러 날이 걸렸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허락과 협조가 있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었다.

▣ **"대제사장들. . .에게서. .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레위 성전 경비병들은 로마의 수비대를 동반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이미 한 번 실패했었다(참조, 7:32, 45).

18:3 "무기" 로마 군인들이 칼들을 가져왔고(참조, 6:64; 13:1, 11) 몽치들은 성전 경비대가 가져왔다(참조, 마 26:43; 막 14:43; 눅 22:52).

18: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지식과 그의 잡히심, 재판,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주권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다(참조, 10:11, 15, 17, 18).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참조, 막 10:45).

18:5

신미국표준역(NASB), 신예루살렘성경(NJB)　　"나사렛 사람 예수"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현대영어성경(TEV)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 단어의 어원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이것은 (1) 나사렛 사람 (2) 나실인(참조, 민 6 장) 또는 (3) 나사렛으로부터를 의미할 수 있다. 신약의 사용법(참조, 마 2:23)은 (3)항을 확증한다.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 자음 *nzr* 을 메시아적 호칭인 "가지"(*nezer*, 참조, 사 11:1; 14:19; 60:21)와 연결짓기도 한다.

▣ **"내가 그니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나는 ~이다"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 야웨(참조, 출 3:14; 사 41:4)와 관련짓는 원인을 야기시키는 형태의 히브리어 동사 "~이다"를 말한다. 예수님은 4:26; 8:24, 28, 58; 13:19 에서 완전히 똑같은 문법적 방법(*에고 에이미*)으로 신성의 놀라운 주장을 하셨다. 이것은 강조를 위해 이 문맥에서 세 번 반복된다(참조, 6, 8 절).

18:6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것은 예수님의 역동적인 특성과 현현을 강조하기 위한 요한의 방법이다. 이것은 존경심(사람앞에 절을 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18:7 "이에 다시. . .물으신대"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의를 집중시켜 제자들로부터 이목이 멀어지게 하시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것은 인접한 문맥인 8 절과 부합된다.

18:8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이다; 그들은 예수를 찾고 있었다.

▣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슥 13:7 의 예언이다(참조, 마 26:31; 요 16:32).

18:9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것은 16:32 에서 인용된 것처럼 보이지만, 17:12 을 인용한 것이다.

18: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베드로는 그의 귀를 목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였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한 것을 보여준다. 베드로의 행동은 눅 22:36-38 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기인한 것 같다. 눅 22:51 은 예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만지심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것은 목격자의 증언임을 보여준다.

18:11 "잔" 이것은 구약에서 인간 종말의 상징으로서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은유이다(참조, 시 11:6; 60:3; 75:8; 사 51:17, 22; 렘 25:15, 16, 27-28).

예수님의 질문의 문법적 구조는 "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좋은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베드로가 또 다시 행동하고 있다(참조, 마 16:22; 요 13:8).

개역개정 18:12-14

[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18:12 "예수를. . .결박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두려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과정으로 보인다(참조, 24 절).

18: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있었던 재판의 순서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24 절이 요한복음에서 각주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재판은 공관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참조, 마 26:57; 막 14:53).

구약에서 대제사장직은 평생직이었고 아론의 계보에 속한 것이었다. 레위인들이 돈을 주고 사는 정치적 자리로 로마인들이 이 직분을 바꾸었다. 대제사장은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총괄하고 관리했다. 예수님의 성전 청결은 이 가족들을 화나게 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안나스는 주후 6-14 년에 걸쳐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시리아의 통치자, 퀴리니우스에 의하여 임명되었고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파면되었다. 그의 친척들(5 명의 아들과 1 명의 손자)이 그의 대를 이었다. 그의 사위(참조, 요 18:13) 가야바(주후 18-36)가 그의 바로 다음 후계자였다. 안나스는 이 직임의 배후에 있는 실세였다. 요한은 예수께서 그에게 처음으로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다(참조, 18:13, 19-22).

18:14 "가야바" 가야바에 대한 요한의 중점적인 관심은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도 모르게 예언했다는 것이다(참조, 11:50). 그는 안나스의 사위였고, 대제사장이었다(주후 18-36). 11:49 의 설명을 보라.

개역개정 18:15-18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16]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 그 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8: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또 다른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1) 전통적 견해로는 요한이 20:2, 3, 4, 8 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것 때문에 이 제자를 사도 요한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요한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한 요 19:25 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그녀는 마리아의 자매였을 가능성이 많다. 즉, 그 제자는 레위인이고 그러므로 제사장이었을 것이다(참조, 폴리갑의 증언). (2)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을 아는 것으로 보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추종자일 수 있다(참조, 15-16).

▣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것은 "아는 사람"이란 매우 강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가까운 친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2:44; 23:49). 요한복음에서 이 내용은 아마도 고기잡는 그의 직업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가족은 예루살렘에 정규적으로 물고기를 가져왔을 것이다.

18:17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이것은 25 절과 같이 문법구조상 "아니오"란 답을 기대한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경멸을 나타낸다. 그녀가 이렇게 물은 이유는 (1) 베드로와 요한과의 관계 또는 (2) 베드로의 갈릴리 억양 때문일 것이다.

▣ **"나는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준비했지만, 그는 계집 종의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 공관복음서에서는 3 번의 부인이 같이 기록되었지만, 요한복음에는 안나스가 예수께 질문하는 것(참조, 24 절)에 의해 3 번의 부인이 나누어져 있다.

18:18 이 이야기는 생생하고 상세하게 알려져 있다. 18 절과 25 절 둘 다 두 개의 완곡한 미완료형을 가지고 있다.

개역개정 18:19-24

[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18: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이것은 안나스를 가리키는 것이지 가야바가 아니다. 안나스는 권세 뒤에 있는 실세였다. 그는 주후 6 년부터 15 년까지 그 직을 수행했다. 그의 사위가 바로 그의 뒤를 이었고 그 다음에 그의 다섯 아들과 손자가 뒤를 잇는다. 성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안나스는 두 번이나 성전 청결을 한 자를 매우 심문하고 싶었을 것이다. 안나스가 예수의 가르침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진 것은 흥미롭다.

18:20 예수님이 공공적으로 가르치신 것은 확실하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중 많은 것이 일반대중에게 가려져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참조, 막 4:10-12). 중요한 것은 청중들이 영적인 소경이었던 점이다.

18: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20 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한 공공적인 성질을 주장하시고 있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이 유대인의 법에 저촉되는 것임을 그에게 지적하고 계신다.

18:22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이 단어는 원래 "손으로 때리다" 또는 막대로 때리다"의 뜻이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때리다"의 의미에서 왔다. 이것은 사 50:6 을 함축한다. 예수님은 만약 자신이 어떤 것을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를 고소하라; 그렇지 않다면 왜 자신을 치느냐라고 주장하신다.

18:23 "만일.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이 두 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자의 관점이나 집필의 목적에서 사실로 간주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것은 실재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안나스에게 증거를 대라고 도전하신다.

18:24 여기에서의 재판의 순서는 공관복음과 반대이다.

개역개정 18:25-27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18: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누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는가에 관하여 사 복음서들 중에 모순이 있다: (1) 마가복음에서 처음 질문한 사람은 하녀이다(참조, 막 14:69) (2)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른 계집종이었다(참조, 마 26:71) (3) 누가복음에서는 남자이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한 사람이 불 주변에서 질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잇달아 한 것처럼 보인다(참조, 18 절).

▣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17 절과 25 절에 있는 두 질문은 처음 질문과 다르게 문법적 구조상 "네"라는 대답을 기대한다.

18: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우리는 막 14:71; 마 26:74 를 통해서 베드로가 저주와 맹세로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곧 닭이 울더라"** 사 복음서 모두 이 일들이 밤 12 시에서 새벽 3 시에 일어난 것으로 말한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시 안에 닭을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로마인의 닭이었을 것이다. 눅 22:61 은 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것과, 군인들이 예수를 안나스와의 만남에서 가야바와 산헤드린으로 끌고 간 것으로 추정하게 한다. 이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우리는 이 밤의 재판들의 경위에 관한 절대적인 역사적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어림짐작이다

개역개정 18:28-32

[28]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8:28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예루살렘성경(JB)	"관정에"
신개정표준역(NRSV)	"빌라도의 본부에"
현대영어성경(TEV)	"총독의 궁에"

이것은 라틴어로 로마 통치자가 예루살렘에 거할 때의 공적인 대주택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전이나 헤롯대왕의 궁전 옆에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였을 것이다.

▣ **"새벽이라"** 팔레스타인에 있던 로마의 관리들이 재판을 위해 새벽에 만났다는 로마의 기록이 있다. 산헤드린이 밤에 이루어진 그 불법재판에 어떤 종류의 확실성과 합법성을 주기 위해 만났던 때는 분명히 새벽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빌라도에게 끌고갔다.

▣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여. .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방인의 거주지에 들어가는 일은 그들로 유월절 음식을 먹는데 부정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예식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결벽하면서,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음에 몰아넣는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이 없었다는 것은 역설적이다.

이 절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분명한 역사적 모순으로 인한 논란의 핵심에 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다는 것을 주장하고(참조, 마 26:17; 막 14:12; 눅 22:1) 요한복음은 그것이 하루 전날(목요일), 전통적인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는 날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유명한 천주교 요한복음 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은 제롬성경주석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 "'역사성'의 관점에서 볼 때 공관복음에 기록된 사건의 순서가 아무런 융통성없이 요한복음의 순서보다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면, 그 다음에 따르는 구절—공관복음의 전통을 알았던 증인의 기록—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보인다. 한편, 만약 개요적인 공관복음의 구조보다 요한복음의 목격자적 증언이 사실에 더 가깝다고 여긴다면, 이 구절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된다"(458 쪽).

또한, 유월절을 지키는 두 개의 다른 날(목요일과 금요일)의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유월절" 용어가 하루만의 명절일 수도 있고 팔일 간의 명절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추가된다(유월절은 무교절과 합하여 사용되었다, 참조, 출 12 장).

▣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주의 만찬의 정확한 날짜에 대한 것이 아직 논란되고 있다. 공관복음은 그것이 유월절 식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요한복음은 공식적인 유월절 식사의 하루 전날에 이루어진 식사로 말한다(참조, 요 19:14 과 18:28). 그 대답은 "유월절"의 용어가 그 주간, 그 식사, 또는 특별한 안식일을 의미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달려있다.

18:29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바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빌라도의 성격을 사용하셨다. 빌라도는 주후 26 년에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안나스를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게 했던)발레리우스 그라투스의 후임자가 되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5 대 총독이었다. 그는 아켈라우스(헤롯 대왕의 아들)가 다스리던 왕국을 다스렸다. 그것은 사마리아, 유대, 가자, 사해를 포함한다. 빌라도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는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서 얻은 것이다.

특별주제: 본디오 빌라도

I. 출신
- 가. 태어난 장소와 때는 알려지지 않음
- 나. 기병대 출신(로마사회의 중상층)
- 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음
- 라. 이전의 행정적인 지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음

II. 인물
- 가. 두 가지의 다른 관점
  1. 필로(*레가티오 인 가이윰*, 299-305)와 요세푸스(*유대고대사*. 18.3.1 과 *유대전쟁사* 2.9.2-4)는 그를 잔인하고 동정심이 없는 독재자로 묘사했다.
  2. 신약(복음서들, 사도행전)은 그를 약하고 쉽게 다루어지는 로마 총독으로 표현했다
- 나. 바울 바네트(*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발생*, 143-148 쪽)는 이 두 관점에 관한 그럴듯한 설명을 주고 있다.
  1. 빌라도는 주후 26 년 친-유대주의자였던 티베리우스에 의해 총독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참조, 필로, *레가티오 인 가이윰*, 160-161), 티베리우스의 반-유대적 고문관인 세자누스에 의해 임명되었다
  2. 티베리우스는 집정관으로서 권력의 배후에 있었고 유대인을 미워했던 L. 아엘리우스 세자누스에게 정치적인 손해를 입었다(필로, *레가티오 인 가이윰*, 159-160).
  3. 빌라도는 세자누스의 보호를 받았고 그에게 감동을 주려고 노력했다:
     - ㄱ. 다른 집정관들이 하지 못했던 로마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옮겨 옴(주후 26 년). 로마 신들의 상징은 유대인을 격노하게 했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3.1; *유대전쟁사* 2.9.2-4).
     - ㄴ. 로마인들이 숭배한 형상들을 새긴 동전을 찍어냄(주후 29-31). 요세푸스는 그가 유대인의 법과 관습을 의도적으로 전복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4.1-2).
     - ㄷ. 예루살렘에 도수관을 건설하기 위해 성전의 보물을 취함(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3.2; *유대전쟁사* 2.9.3).
     - ㄹ.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을 죽게 함(참조, 눅 13:12).
     - ㅁ. 주후 31 년 예루살렘 안에 로마인의 방패를 가져옴. 헤롯대왕의 아들은 그에게 그것을 치워달라고 간청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티베리우스에게 편지를 썼고 그는 바닷가에 있는 가이사랴에 그것들을 옮기도록 명령하였다(필로, *레가티오 인 가이윰*, 299-305).
     - ㅂ.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이 잃어버린 종교적인 신성한 물건들을 찾고 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라심산에서 죽게 함(주후 36/37 년). 이일은 빌라도의 상관(시리아의 장관

비텔리우스)으로 하여금 그를 쫓아내어 로마로 보내게 했다(참조, 요세푸스의 *유대고대사*. 18.4.1-2).

ㅅ. 세자누스는 주후 31 년에 처형되었고 티베리우스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므로 ㄱ-ㄹ항까지는 빌라도가 세자누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이루었을 것이다. ㅁ과 ㅂ항은 티베리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 시도한 것이지만, 불리한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ㅇ. 친-유대적 황제가 복위하여 유대인에게 친절히 하라는 공식적인 서신이 티베리우스로부터 집정관에게 보내어져서((필로, *레가티오 인 가이움*, 160-161), 예루살렘의 유대지도자들이 티베리우스와의 관계에서 빌라도의 정치적 취약성을 이용하였고 그를 조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한것은 명백하다. 바네트의 견해는 빌라도에 대한 두 관점을 적절하게 제시한다.

III. 그의 운명

가. 그는 소환된었고 티베리우스가 죽은 직후 로마에 도착했다(주후 37 년).

나. 그는 다시 임명되지 않았다.

다. 이후의 그의 생애는 알려지지 않았다. 많은 추측이 있지만,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8:30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라고 불린다. 예수님은 행악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남의 흠을 잡아내는 유대인의 종교적 고발을 만족시키기를 거부했던 빌라도를 비꼬는 말이었다.

"넘기다"란 동사는 일반적으로 "배반하다"로 번역되었던 것으로서 유다에게도 사용되었다(참조, 6:68, 71; 12:4; 13:2, 11, 21; 18:2, 5).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누구를 권위에 넘기다" 또는 "관습을 전하다"란 의미이다. 유다와의 관계에서 영어 번역가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강화 시켰다.

18:31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비난했지만, 그들은 소요죄를 사용하여 예수를 로마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도록 했다. 신명기 21:23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했다. 32 절; 3:14; 8:28; 12:32, 33(갈 3:13 을 보라)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예언하셨다.

18:32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왜 유대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을 원했나? 사도행전 7 장은 분명히 그들이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을 즉시 돌로 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신 21:22-23 에 있는 구약의 신성한 저주와 관계될 것이다. 원래 이것은 죽은 후에 공적으로 말뚝으로 찌르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당시의 랍비들은 이 절을 로마의 십자가 처형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메시아로 자처하는 예수를 하나님에 의해 저주받기를 원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는 대속물로 그 자신을 드렸다(참조, 사 53 장; 고후 5:21).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참조, 갈 3:13).

개역개정 18:33-38b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18:33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반역죄로 고소되었다(참조, 마 27:1; 마 15:2; 눅 23:2; 요 19:3, 12, 15, 19-22).

18: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만일 빌라도가 정치적 왕위에 관계된 질문을 했더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셨을 것이다. 만일 유대인들이 그것을 제시했다면,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셨을 것이다. 빌라도가 유대 종교적 사상의 복잡함을 토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참조, 35 절).

18:35 이 질문은 "아니오"란 대답을 기대한다. 빌라도는 유대 종교에 대한 그의 경멸감을 표현하고 있다.

18:36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라고 불린다. 이것은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면 내 종들이 싸울 것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로 번역해야 한다. “내 종들”이란 구절은 (1) 제자들 혹은 (2) 천사들(참조, 마 26:53)을 의미할 수 있다.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님과 그의 영적 왕국을 대면하면서, 세상적 권력의 상징인 그가 입술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커다란 아이러니이다.

▣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처음 구절은 그것의 모호함 때문에 번역하기에 어렵다. 이것은 자격을 확언하는 것이다(참조, 마 27:11; 막 15:2; 눅 23:3). 예수님은 그가 누구인지 아셨고(두 완료 시제 동사들) 그가 왜 오셨는지 아셨다(참조, 요 13:1, 3; 눅 2:49; 마 16:22 이하).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18: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는 이 질문을 했지만, 그는 대답을 얻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난 것이 분명하다.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정부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라도 자신이 확인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것을 했다. 그는 유월절 기간 동안에 있는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예수를 풀어주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참조, 39 절; 마 27:15). 누가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요한도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쓰고 있다.

개역개정 18:38b-40

[38b]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18:39 “전례가 있으니” 이것은 마 27:15 와 눅 23:17 에서 설명하고 있다.

18:40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분명히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과 같은 죄목으로 고소된 것은 역설적이다(참조, 마 15:7; 눅 23:19, 25). 군중들은 분명히 그들의 민족적 영웅을 지지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대관원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죄를 하기 위해 이 기회를 사용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예수님은 왜 유다가 그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로 가셨는가?
2. 요한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고통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산헤드린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는가?
4. 요한복음과 공관복음 사이에 있는 사건의 순서가 왜 그렇게도 혼동을 주는가?
5.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 주려고 애쓴 것을 왜 설명했는가?

요한복음 19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사형선고를 받은 예수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다		예수가 사형선고를 받다	빌라도 앞의 예수
(18:38b-19:16a)		(18:38b-19:7)	(18:38b-19:16)	(18:28-19:11)
18:38b-19:7		18:38b-19:7		18:33-19:3
			18:40-19:3	
	19:1-4			
	빌라도의 결정		19:4-5	19:4-7
	19:5-16			
			19:6a	
			19:6b	
			19:7	
19:8-12		19:8-12	19:8-9a	19:8-11
			19:9b-10	
			19:11	
			19:12	예수가 사형으로 정죄되다
				19:12-16a
19:13-16a		19:13-16a	19:13-14	
			19:15a	
			19:15b	
			19:15c	
			19:16a	
예수의 십자가 처형	십자가 위의 왕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히다	십자가 처형
19:16b-22		19:16b-25a	19:16b-21	19:16b-22
	19:17-24			
			19:22	예수의 옷을 나누다
19:23-27			19:23-24	19:23-24
	너의 어머니를 보라			예수와 그의 어머니
	19:25-27	19:25b-27	19:25-26	19:25-27
			19:27	
예수의 죽음	다 이루었도다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19:28-30	19:28-30	19:28-30	19:28	19:28
			19:29-30a	19:29-30
			19:30b	
예수의 옆구리를 찌름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다		예수의 옆구리를 찌르다	찔린 옆구리
19:31-37	19:31-37	19:31-37	19:31-37	19:31-37

예수의 장사	예수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다		예수의 장사	장사
19:32-42	19:32-42	19:32-42	19:32-42	19:32-42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9:1-7

**[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5]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19: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 채찍질(매질)의 시간적 순서는 확실하지 않다. 십자가형에 정죄된 모든 죄수들은 채찍질을 당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은 매우 야만적인 경험이었다. 그러나 문맥상 빌라도는 예수가 풀려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정심을 유발시키기 위해 예수를 채찍질 한 것으로 보인다(참조, 눅 23:16, 22; 요 19:12). 이것은 사 53:5 에 있는 예언의 성취였다.

로마의 채찍질은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무시무시하게 고통스럽고 야만적인 형벌이었다. 가죽끈 끝에 뼈나 쇠조각을 묶은 채찍은 낮은 말뚝에 손이 묶여져 몸을 구부리고 있는 사람을 때리는데 사용되었다. 때리는 횟수는 명령되지 않았다. 이것은 보통 십자가에 못박기 전까지 시행되었다(참조, 리비우스 33:36).

19:2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이 가시관은 조롱과 고문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월계관(스테파노)은 왕에게 씌어졌지만 왕 중의 왕은 가시관을 쓰셨다!

▣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은 왕족의 표시였다. 연체동물의 껍질에서 추출되는그 물감은 매우 비쌌다. 주홍빛은 로마 관리들의 겉옷 색이었다. 주홍색은 참나무에서 발견되는 곤충의 껍질에서 추출되었다. 이 옷은 왕의 자색 옷을 암시했지만 실제로 이것은 로마 관리의 낡은 주홍빛 외투였을 것이다(참조, 마 27:18).

19:3
신미국표준역(NASB)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로 다가와 말하기 시작했다"

뉴킹제임스역(NKJV) “그때 그들은 말했다”
신개정표준역(NRSV) “그들은 그에게로 계속 다가와, 말하기를”
현대영어성경(TEV) “그리고 그에게로 다가와 말했다”
신예루살렘성경(NJB) “그들은 그에게로 계속 다가와서 말하기를”

이것은 미완료 시제이다. 분명히 군인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잇달아 했다. 이 조롱은 특별히 예수님께 향한 것이기보다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욕적인 것이었다. 빌라도는 이것이 예수께 대한 동정심을 일으키길 원했지만,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 **“손으로 때리더라”** 이 단어는 원래 “막대로 때리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손바닥으로 때리다”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야만적으로 얼굴을 때린다기보다 왕께 인사하는 경멸적인 몸짓이었을 것이다.

19:4
신미국표준역(NASB)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뉴킹제임스역(NKJV)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다”
신개정표준역(NRSV) “나는 그에 대해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한다”
현대영어성경(TEV) “나는 그를 정죄할 어떤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신예루살렘성경(NJB) “나는 그에 대해 아무 죄목도 찾지 못한다”

요한복음의 목적 중의 하나는 기독교가 로마정부나 그것의 직무상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차례 놓아주려고 노력한 것을 기록한다(참조, 18:38; 19:6, 12).

19:5 (1) 조롱하는 왕의 복장과 (2) 심하게 맞고 있는 예수님은 유대지도자들의 폭동에 대한 고소가 터무니없는 사실임을 보이려는 빌라도의 시도였다.

19:6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유대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려는 이유는 신 21:23 의 저주가 효과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되심에 대해 바울이 그렇게 큰 의심을 가졌던 한 가지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갈 3:13 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저주를 짊어지셨다(참조, 골 2:14).

▣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이것을 세 번 말한다(참조, 18:38; 19:4).

19:7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셨다. 그의 진술을 듣고 그 말의 의도를 이해한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에 의심이 없었다(참조, 5:18; 8:53-59; 10:33). 예수님에 대하여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신성모독자들이었다(참조, 마 20:6, 65). 신성모독죄는 돌로 처벌되어야 마땅했다(참조, 레 24:16).

개역개정 19:8-12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9: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미 그에게 경고했었고(참조, 마 27:19) 지금 유대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고발하고 있다. 신비적인 공포에 사로잡힌 빌라도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헬라와 로마의 신들이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을 방문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었다.

19:9 빌라도는 예수님의 대답을 꼭 기억했어야만 했다(참조, 18:37)!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사 53:7 의 성취로 본다.

19:10 “내가 너를. .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그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정치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어하기 어려운 폭도들의 얼굴에 못이겨 그는 이 권리를 그들의 뜻에 양도했다.

19:11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라고 불린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겁먹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며 자신이 왜 왔는지 알고 계셨다! 성경은 모든 인간의 권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단언하고 있다(참조, 롬 13:1-7).

▣ **"나를 네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처음에는 이것이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참조, 6:64, 71; 13:11)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로마에 넘긴 가야바를 가리킨다고 믿는다. 이 구절은 집합적으로 (1) 유대지도자들 또는 (2) 유대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19:12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에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그는 여러 차례 노력했다.

▣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 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유대지도자들은 만약 빌라도가 그들의 바램대로 예수를 사형으로 정죄하지 않으면 그를 로마에 있는 그의 상급자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가이사의 충신(친구)"이란 구절은 로마 황제에 의해 주어지는 영예로운 호칭을 의미하는 관용구였다(아우구스투스와 베스파시안에 의해 시작되었음)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였다. 이것은 율리우스 가이사로부터 왔고 아우구스투스에 의하여 채택되었다.

개역개정 19:13-16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14]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19: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본문은 재판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윌리엄스와 굿스피드 번역은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놀림당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문맥은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빌라도를 의미한다.

▣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신예루살렘성경(NJB)	"포장된 뜰이라 불리지만 히브리 말로는 가바다"
신개정표준역(NRSV)	"돌을 깐 뜰이라 불리거나, 또는 히브리 말로 가바다"
현대영어성경(TEV)	"'돌을 깐 뜰'이라 불리는 (히브리 말로 그 이름이 '가바다' 이다)"

히브리어/아람어 단어를 사용하여 정의를 내린 것은 요한복음의 청중이 이방인임을 보여준다(참조, 17 절). 돌로 깐 뜰은 로마의 법적 선언장소였다. 아람어 단어 *가바다*는 "들어올려진 돌들"이란 뜻이다.

19:14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공관복음의 날짜와 요한복음의 날짜 사이에 분명한 모순이 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지만(참조, 막 15:42), 요한복음에서는 예비일인 명절 전날 그 식사를 가졌다. 18:28 의 설명을 보라.

▣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 앞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재판과 십자가에 못박힌 순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빌라도의 판결				제 6 시 19:14
십자가에 못박음		제 3 시 15:25		
어둠이 임하다	제 6-9 시 27:45	제 6-9 시 15:33	제 6-9 시 23:44	
예수께서 소리 지르시다	제 9 시 27:46	제 9 시 15:34		

명시된 시간들을 비교해보면 해석상 두 가지의 경우가 생긴다: (1) 그것들은 같다. 요한은 자정에 시작하는 로마시간을(참조, 글래슨 L. 아쳐, *성경의 난해귀절사전*, 364 쪽) 사용했고, 공관복음은 오전 6 시에 시작하는 유대시간을 사용했다. (2)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서 또 다른 차이점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좀 더 나중의 시간으로 주장하고 있다. 요한은 요 1:39 와 4:6 에서 유대시간과 로마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M. R. 빈센트, *단어연구*, 1 권, 403 쪽).

명시된 시간들은 모든 복음서에서 다음과 관계되는 상징일 것이다 (1)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의 시간(오전 9 시와 오후 3 시, 참조, 행 2:15; 3:1) (2) 니산월 14 일에 정오 직후는 유월절 양을 죽이는 전통적인 시간이었다. 고대 동양의 책인 성경은 현대 서양의 역사적 기록과 같이 역사적 순서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 **“보라 너희 왕이로다”** 5 절이 슥 6:12 을 암시하는 것처럼, 이 구절은 슥 9:9 을 암시한다.

19:15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구절은 세 개의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십자가에 못박다”의 어근은 “들어 올리다” 또는 “높이다”의 의미이다; 이것은 요한이 사용하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 중의 하나일 것이다(참조, 3:14; 8:28; 12:32).

▣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것은 아연실색할 역설이다. 이 유대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바로 그 죄목인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다.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의 백성의 왕이 되신다(참조, 삼상 8 장).

▣ **“그들에게”** 마 27:26-27 과 막 15:15-16 에 있는 이 대명사는 로마 군인들을 의미한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넘겨 주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개역개정 19:17-22

[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19:17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1 세기 팔레스타인의 십자가 형틀의 모양은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대문자 T, 소문자 t, 또는 X 자 형태였을 것이다. 때때로 죄수들은 교수대에 못박혔다. 어떻든 채찍에 맞은 정죄된 죄수는 십자가에 못박힐 장소로 나무 형틀의 부분을 옮겨야만 했다(참조, 마 27:22; 막 15:21; 눅 14:27; 23:26).

▣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이것의 히브리어/아람어 단어가 완전한 두개골처럼 보이는 언덕을 의미하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요한 큰길에 위치한 낮고 벗겨진 언덕을 의미한다. 로마인들은 반역의 억제책으로 십자가에 못박았다. 현대 고고학은 이 고대 도시 벽들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도시 벽의 바깥쪽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19: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어떤 복음서도 로마의 십자가형에 대해 물리적으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는다. 페르시아로부터 그 형을 배운 카르타고인들에게 로마인들은 배웠다. 십자가 형틀의 정확한 모습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야만적이고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을 안다! 이것은 사람이 살아 있어서 여러날 고통당하도록 고안되었다. 죽음은 보통 질식상태에서 발생한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 **“다른 두 사람도”** 이것은 마 27:38; 막 15:27; 눅 23:33 에 기록된 사 53:9 의 예언을 성취했다.

19: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빌라도는 나무 패에 기록했던 이 호칭(*티틀론*)을 손으로 썼을 것이다. 마태는 이것을 “죄패”(*아이티안*, 참조, 마 27:37)라고 불렀고 마가와 누가는 이것을 “패”(에피그라페, 참조, 막 15:26; 눅 23:28)라고 불렀다.

19:20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십자가상 예수님 머리 위에 기록된 죄패에 쓰인 단어들이 복음서에서 서로 다른 것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1. 마 27:37 – “이것은 예수, 유대인의 왕”
2. 막 15:26 – “유대인의 왕”
3. 눅 23:38 – “이것은 유대인의 왕”
4. 요 19:19 – “예수,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

각각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같다. 복음서에서는 많은 역사적 기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각각의 저자들은 약간씩 다른 그들의 기억을 기록했지만, 그것들은 같은 목격자적 진술이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그들이 두려워 했던 바로 그 호칭을 사용하므로 유대지도자들을 화나게 하려 했다.

19:22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구절에는 두 개의 완료 시제 동사가 있다. 그것은 써야 될 것의 완성과 그 결국을 강조하는 것이다.

개역개정 19:23-24

[23]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19:23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겉옷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옷이 어떻게 네 깃으로 나눌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것은 그의 신발, 기도할 때 걸치는 숄(*탈리쓰*), 허리 띠, 겉옷(들)을 말할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터번을 했는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완전히 벌거벗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수치가 되었을 것이다. 24 절은 성취된 예언의 또 다른 인용이다(참조, 시 22:18).

▣ **"속옷"** 예수님의 겉옷은 *히마티아*의 복수형 단어이다. 속에 입은 긴 속옷은 튜닉(*치톤*)이었다. 이 옷들의 특징은 마 5:40 과 눅 6:29 에서 말하고 있다. 도르가는 이런 종류의 옷을 만들었다(참조, 행 9:39). 1 세기의 유대인들은 허리 옷이라고 불리는 속옷을 더 입었던 것이 확실하다. 예수님은 완전히 벗김을 당했다.

개역개정 19:25-27

[25]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19: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절에 이름이 세 개인지 아니면 네 개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이것은 네 명인것 같다. 왜냐하면 두 자매의 이름이 마리아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자매인 살로메의 이름은 막 15:40 과 마 27:56 에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야고보, 요한, 예수님은 사촌간이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 세기의 전통(*헤게시퍼스*)은 글로바는 요셉의 형제였다고 말한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자였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참조, 20:1-2, 11-18; 막 16:1; 눅 24:1-10).

특별주제: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무리를 도우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눅 8:13 이다.
   1. 막달라로 불렸던 마리아(2 절)
      ㄱ. 마 27:56, 61; 28:1
      ㄴ. 막 15:40, 47; 16:1, 9
      ㄷ. 눅 8:2; 24:10
      ㄹ. 요 19:25; 20:1, 11, 16, 18
   2. 구사(헤롯의 청지기, 3 절)의 아내 요안나는 눅 24:10 에도 기록되어있다
   3. 수산나(3 절)
   4.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3 절)
나. 여자의 무리가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언급된다.
   1. 마태복음의 목록
      ㄱ. 막달라 마리아(27:56)
      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27:56)
      ㄷ.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27:56)
   2. 마가복음의 목록
      ㄱ. 막달라 마리아(25:40)
      ㄴ.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15:40)
      ㄷ. 살로메(15:40)
   3. 누가복음은 오직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말한다(23:49)
   4. 요한복음의 목록
      ㄱ.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19:25)
      ㄴ. 이모(19:25)

ㄷ. 글로바의 마리아[KJ 클레오파스, 이것은 글로바의 아내나 글로바의 딸을 의미한다](19:25)
ㄹ. 막달라 마리아(19:25)

다. 여자의 무리가 예수께서 묻히신 장소를 지켜보았다고 말한다.
1. 마태복음의 목록
ㄱ. 막달라 마리아(27:61)
ㄴ. 다른 마리아(27:61)
2. 마가복음의 목록
ㄱ. 막달라 마리아(15:47)
ㄴ.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15:47)
ㄷ. 살로메(15:40)
3. 누가복음은 오직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라고 말한다(23:55)
4. 요한복음은 무덤을 보러 온 여자들의 기록이 없다

라. 여자의 무리가 주일 새벽에 무덤에 왔다
1. 마태복음의 목록
ㄱ. 막달라 마리아(28:1)
ㄴ. 다른 마리아(28:1)
2. 마가복음의 목록
ㄱ. 막달라 마리아(16:1)
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16:1)
ㄷ. 살로메(16:1)
3. 누가복음의 목록
ㄱ. "이 여자들이. . . 무덤에 가서"(24;1-5, 24)
1) 막달라 마리아(24:10)
2) 요안나(24:10)
3)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24:10)
4. 요한복음은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되어있다(20:1, 11)

마. 여자들이 다락방에 있었던 것으로서 언급된다(행 1:14)
1. "여자들"(1:14)
2.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1:14)

바. 이와 같이 각각의 목록에서 다르게 기록된 여인들 사이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막달라 마리아는 분명히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한 좋은 글은 IVP 에서 출판된 *예수와 복음서의 사전*, 880-886 쪽에서 발견된다.

19:26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 복음서에 요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요한이 그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추정한다(참조, 13:23; 19:26; 21:7, 20). 매번 그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20:2 에서 그는 구절은 같으나 *필레오*를 사용했다. 요한복음에서 이 두 가지 단어는 동의어이다; 둘 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3:35 의 *아가파오*와, 5:20 의 *필레오*를 비교해 보라.

19:27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것은 요한이 마리아를 그의 집에 즉시 모시고 왔다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만, 그녀가 마 27:56 과 막 15:40 에서 다른 여인들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 의해 이 구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돌보았고 그 후에 그는 길고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소아시아(특별히 에베소로)로 갔다. 노인이 된 요한은 에베소 장로들의 권유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의 기억을 썼다(즉, 요한복음).

개역개정 19:28-30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19:28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것은 성경이 "내가 목마르다"를 가리키는지 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아셨다"를 가리키는지 구문론적으로 모호하다. 만약 이것이 전통적인 방법을 취한다면, "내가 목마르다"는 시 69:21 을 가리킨다.

19: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이것은 값이 싼 신 포도주이다. 이것은 군인들이나 십자가형에 처해질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십자가형이 좀 더 오래 지속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소량의 포도주가 주어졌다.

▣ **"신 포도주"** 이것은 문자적으로 "식초"이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음료였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주었던 몰약을 탄 포도주를 드시지 않은 것을 주목하라(참조, 막 15:23; 마 27:34). 예수가 이 음료를 받으신 이유는 시 22:15 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너무 목이 말라 말을 하실 수 없었지만 한 가지를 더 말해야만 했다.

▣ **"우슬초에 매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유월절 예배에 사용되는 특별한 상징적인 식물의 사용으로 본다. 다른 사람들은 원래 이것은 "창," "던지는 창," "막대"를 의미하는 단어로 고대 서기관의 실수였다고 믿는다(참조, 새영어성경[NEB], 그러나 개정새영어성경[REB]은 우슬초를 다시 가리킨다). 마 27:48 과 막 15:36 은 갈대로 되어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서기관적 변경으로 보는 이유는 우슬초가 그렇게 긴 줄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오직 60-120 cm), 십자가가 땅 위에서 그렇게 높게 세워지지 않은 것도 기억해야 한다. 높게 세워진 우리의 전통적인 그림은 3:14 에 대한 잘못된 이해일 것이다. 예수님의 발은 지상에서 30-60 c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19:30 "다 이루었다"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했다(참조, 마 15:37; 눅 23:46; 마 27:50). 이것은 마쳐진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이 용어(*텔로스*)의 형태는 "완전히 지불했다"는 상업적 관용어이다.

▣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의 머리를 숙이다"는 "잠들다"의 관용적 표현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에게 조용한 순간이었다. 죽음의 순간 인간의 영적인 면은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추론한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가 있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참조, 고후 5 장; 살전 4:13-18).

요한복음은 마 15:37 과 평행을 이루고 눅 23:46 은 "숨지시니라"라고 했다. 히브리어 단어 "영"과 "호흡"은 같다. 예수의 마지막 호흡은 그의 영이 몸을 떠난 것을 보여준다(참조, 창 2:7).

개역개정 19:31-37

[31]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19:31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특별히 유월절의 큰 안식일에 시체가 땅을 부정하게 하는 것(참조, 신 21:23)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것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1) 유월절 식사일과 안식일이 겹쳐지는 특별한 해였다(유대인들은 음력을 사용했다) 또는 (2) 이 해에 무교절과 안식일이 겹쳤다. 유월절과 무교절(참조, 출 12 장)은 8 일간의 명절이 되었다.

▣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이런 상황은 전에도 발생했던 것이 분명하다. 커다란 나무메가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람들의 다리를 꺾기 위해 사용되었다. 십자가형은 보통 질식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다. 다리를 꺾게 되면 그의 다리를 밀어 호흡하는 것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거의 즉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19:33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것은 출 12:46; 민 9:12; 34:20 의 예언의 성취였다.

19:34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진실로 죽으셨고 구세주이신 예수가 진짜 인간이었음을 확증하는 목격자의 의학적 증언이다. 요한일서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은 확신하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성행하는 시대에 쓰였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만찬과 침례(세례)의 두 예식을 함축하는 것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화적이다.

19:35 이 절은 모든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요한의 설명이다 (1) 밤의 재판들 (2) 로마인의 재판 (3) 십자가에 못박히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 설명은 요한복음의 전도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20:30-31 과 평행을 이룬다(참조, 21:24). 1:8 의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마지막 구절의 동사에 대한 헬라어 사본의 다양성이 있다. 어떤 본문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 만약 그것이 원래 부정과거라면 20:30-31 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현재라면 그것은 계속적이고 발전적인 믿음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요한복음은 두 그룹 모두를 염두에 둔 것 같다.

19:36 이것은 출 12:46; 민 9:12; 또는 시 34:20 의 유월절 양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것은 이 구절이 (1) 찌른 또는 (2) 꺽인을 의미하느냐에 달려있다. 예수님 자신은 부활 후 40 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실 때 초대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참조, 눅 24:27; 행 1:2-3). 초대 교회의 설교는(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구약예언의 성취를 반영한다.

19:37 이것은 커다란 약속들 중 하나인 슥 12:10 의 인용이다 (1) 이스라엘은 어느 날 믿음으로 메시아이신 예수께 돌아올 것이다(참조,계 1:7) 또는 (2)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애통해했다.

이 인용이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 인용된 70 인역에서가 아닌 히브리어 맛소라 사본으로부터인 것이 분명한 것은 흥미롭다. 70 인역은 "조롱하다"이지만 맛소라 사본은 "찌르다"이다.

개역개정 19:38-42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19:38-39 "요셉. . .니고데모" 산헤드린의 일원으로 부자였고 영향력있던 이 두 사람은 위험한 위기의 시기에 공공적으로 자신을 나타낸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다.

19:39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것은 1 세기 유대사람의 전통적 향기로운 장사 향품이었다. 양은 어느정도 지나치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왕으로서의 예수님 장사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참조, 대하 16:14). 11:2 의 특별주제인 기름부음을 보라.

특별주제: 장례향품들

가. 아라비아 나무에서 추출한 향기로운 고무인 몰약
  1. 이 향품은 구약의 지혜서에서 대부분 향유로서 12 번 언급되었다
  2. 박사들이 예수께 드렸던 선물 중 하나였다(참조, 마 2:11)
  3. 이것의 상징은 두드러진다
    ㄱ. "거룩한 관유"에서 사용되었다(출 30:23-25)
    ㄴ. 왕의 선물로 사용되었다(마 2:11)
    ㄷ. 예수님의 장사에서 그에게 부어진 것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요 19:39 과 요 11:2 에서 상직적으로). 이것은 탈무드에 묘사된 유대관습이었다(즉, 브락호쓰 53a).

나. 나무의 향기로운 종류인 침향
  1. 향기로운 향유와 관계가 있다(참조, 민 24:6; 시 45:8; 잠 7:17; 아 4:14)
  2. 이것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몰약과 섞어서 사용하였다
  3.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사에 이것의 많은 양을 가져왔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참조, 요 19:39). 이것은 탈무드에 묘사된 유대관습이었다(즉, 벨샤 6a).

19: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향품들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1) 냄새를 없애기 위해 (2) 시신을 감싼 천이 제자리에 있도록.

19:41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요셉과 니고데모가 서둘러서 행동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수님은 오후 3 시에 돌아가셨고 유대인의 유월절 안식일이 시작되는 오후 6 시까지 무덤에 안치되어야만 했다.

▣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것은 완곡한 완료 수동 분사이다. 마 27:6 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요셉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 53:9 의 성취로서 마 27:57 에 인용되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군인들은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였는가?
2.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 주려고 거듭 시도한 것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3. 15 절에서 유대제사장들의 진술이 그렇게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가?
4. 십자가에 못박히신 내용이 복음서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5. 신 21:23 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요한복음 20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예수의 부활	빈 무덤	부활	빈 무덤	빈 무덤
20:1-10	20:1-10	20:1-10	20:1-10	20:1-2
				20:3-10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다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20:11-18	20:11-18	20:11-18	20:11-13a	20:11-18
			20:13b	
			20:14-15a	
			20: 15b	
			20:16a	
			20: 16b	
			20:17	
			20:18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위임받은 사도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20:19-23	20:19-23	20:19-23	20:19-23	20:19-23
예수와 도마	보는 것과 믿는 것		예수와 도마	
20:24-29	20:24-29	20:24-29	20:24-25a	20:24-29
			20:25b	
			20:26-27	
			20:28	
			20:29	
이 책의 목적	네가 믿을 것		이 책의 목적	첫 번째 결론
20:30-31	20:30-31	20:30-31	20:30-31	20:30-31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29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14-17 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이 부활하신 주의 날 저녁에 이루어졌다. 16:20 의 설명을 보라.

나. 복음서가 부활의 주변 상황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1) 그것들이 목격자의 진술이었기 때문에 (2) 그 사건들이 기록되기 전에 여러 해가 지났기 때문에 (3) 각각의 목표그룹과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이다(참조, 마 28; 막 16; 눅 24).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20:1-10**
>
> [1]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 [2]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둘이 같이
>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또 머리를
>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 못하더라) [10]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20:1 "안식 후 첫날" 이것은 주일이었다. 성전에 첫 열매를 드렸던 유월절 주간의 큰 안식일 후 첫 번째 일하는 날이었다. 예수님은 죽음의 첫 열매이셨다(참조, 고전 15:23). 예수님이 세 번 연속해서 주일 밤에 나타나신 것은 믿는 자들이 주일에 예배드리는 동기가 되었다(참조, 19, 26 절; 눅 24:36 이하; 행 20:7; 고전 16:2).

▣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따랐던 여러 여인들 중 하나였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그녀 속에 있던 여러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다(참조, 막 16:9; 눅 8:2).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방문에 목적을 두고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막 16:1 과 눅 23:56 은 여러 여인들(참조, 2 절)이 예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일찍 왔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 여인들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기름부음을 몰랐거나 아니면 그것에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아직 어두울 때에"** 분명히 그녀와 다른 여인들은 아직 캄캄할 때 집을 떠났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빛이 있었다(참조, 마 28:1; 막 16:2).

▣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것의 홈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다(참조, 마 28:2). 그 돌은 목격자들이 무덤속으로 들어가도록 옮겨진 것이지 예수님이 나오도록 치워진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라. 부활하신 예수의 새로운 몸은 예전의 그의 몸이 가졌던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20:2 "달려가서" 그녀가 예수께서 그 곳에 없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빈 무덤을 속히 떠난 것은 분명하다(참조, 마 28:5).

▣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사랑에 대한 여기서의 헬라어 단어는 "형제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이다. 그러나 코이네 헬라어(주전 300-주후 300 년)에서 이것은 *아가파오*와 함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언급된 제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으로 보인다(참조, 4-8 절; 13;23). 여기서 그는 베드로와 연결된다.

▣ **"사람들이 주님을. . .가져다가"**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완성된 행동을 말한다; 예수님은 사라지셨다. 마리아의 마음에, 사람들은 (1) 유대지도자들 또는 (2) 로마 군인들을 가리킨다. 다락방에 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부활로 놀란 것은 분명하다!

▣ **"우리"**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요안나, 그 밖의 다른 여인들을 포함한다.

20:4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마 요한이 사도들 중 가장 어렸을 것이다.

20:5 "구부려" 이 시기의 무덤은 약 90-120 cm 정도되는 낮은 입구를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구부려야만(참조, 11 절) 그 굴/파놓은 굴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 **"보았으나"**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기 위하여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다"이다. 이것은 아침 햇빛과 어두운 무덤과의 대조 때문이다.

▣ **"세마포 놓인 것"** 헬라어 본문에 세마포가 어디에 어떻게 놓여 있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만약 시신을 훔쳐갔다면, 향품이 풀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마포도 함께 가져갔을 것이다!

20:6 "시몬 베드로" 시몬(*케파스*)는 그의 히브리(아람어) 이름이었고, 베드로(*페트로스*)는 예수님이 그에게 준 헬라어 이름이었다. 헬라어에서 그것은 "분리된 돌 또는 둥근돌"을 의미한다(참조, 마 16:18). 아람어에서 *페트로스*와 *페트라* 사이에 다른 것은 없다.

20:7 "머리를 쌌던" 얼굴은 분리된 다른 천으로 쌌다(참조, 11:44). 손수건으로 (1) 얼굴 위에 놓았다 (2) 얼굴을 쌌다 또는 (3) 턱을 가볍게 묶어서 고정시키는데 사용했을 것이다(참조, 현대어성경).

▣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것은 또 다른 완료 수동 분사로서 그것을 접는데 어떤 사람의 특별한 배려가 취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요한의 주의를 끌고 믿음을 이끌어 낸 것이 확실하다.

20:8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증거를 보았고 부활을 믿었다. 아니면 그가 믿었는가(참조, 11, 19 절)?

20:9 "그들은. .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행 2:27 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인용한 이 말씀은 시 16:10 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 53:10-12 이나 호 6:2 를 가리킬 수도 있다. 산헤드린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을 이해했지만(참조, 마 27:62-66),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얼마나 역설적인가!

이 절은 성령이 아직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지 않았다는 진리를 신학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번 주어진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믿는 자들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다(참조, 2:22; 14:26).

20:10 이것은 (1) 그들이 갈릴리고 갔다(참조, 마 20:37; 28:7, 10, 16; 요 21 장은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는 것을 발견한다) 또는 (2)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부활 후의 경험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2)항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개역개정 20:11-18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20:11 "울고 있더니" 이것은 문자적으로 "울부짖고 있다"(참조, 11:31)이다. 이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과거 시간에 계속되고 있는 행동을 말한다. 동양의 장례관습은 매우 감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20:12 "두 천사" 요한과 누가(24:23)는 그곳에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둘로 기록했던 마태는 오직 한 천사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서 사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점 중의 하나이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영감된)저자들의 신학적 목적과 목표하는 무리에 맞추어 선택, 수정, 결합한 목격자들의 기록이다. 오늘날의 독자들은 "어떤 복음서가 역사적으로 정확한가"와 같은 질문을 자주 한다. 또는, 그들은 개인적으로 영감된 복음서의 저자에 의하여 기록된 것보다 사건이나 가르침에 대해 역사적으로 좀 더 상세한 것을 찾는다. 해석가들은 각 복음서에서 표현된 원저자의 의도를 먼저 찾아야 한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더 상세한 것이 필요없다.

20:14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 가능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눈이 눈물로 젖어 있었다 (2) 그녀는 어두움에서 밝은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3)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달랐다(참조, 마 28:17; 눅 24:15 이하).

20:15 "주여" 이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이다. 여기서 이것은 신학적이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선생님," "남자," "주인," "임자," "남편," "주"를 의미할 수 있다. 마리아는 그녀가 (1) 정원지기 또는 (2) 정원 주인과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화자의 관점에서 사실인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말한다. 그녀는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고 믿고 있었다.

20:16 "마리아야. . .랍오니" 마리아는 문자적으로 미리암이다. 이것은 둘 다 아람어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인격적인 방법으로 그녀의 이름을 말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두 명의 제자와 기도하실 때 같은 방법으로 하셨음이 틀림없다(참조, 눅 24:30-31). 영어 랍오니 뒤에 있는 아이(i)는 "나의 랍비여," "나의 주인님," "나의 선생님"을 말한다.

20:17

신미국표준역(NASB)	"나에게 달라붙는 것을 멈춰라"
뉴킹제임스역(NKJV)	"나에게 달라붙지 말라"
신개정표준역(NRSV)	"나를 붙들지 말라"
현대영어성경(TEV)	"나를 붙들지 말라"
신예루살렘성경(NJB)	"나에게 달라붙지 말라"

킹제임스역(KJV)는 "나를 만지지 말라"로 되어있다.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 명령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들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 이것은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요 20:26 에서 예수님은 도마가 그를 만지도록 허락하셨고 마 28:9 에서 예수님은 여인들이 그의 발을 붙잡는 것을 허락하셨다.

▣ **"내가 아직. .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예수님은 그의 부활 후 40 일이 될 때까지 하늘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참조, 행 1:9).

▣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시고 영광되신 주님께서 군중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셨다(참조, 마 12:50).

▣ **"내가. . . 올라간다"** 이것은 현재 시제이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있은 40 일이 지날 때까지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참조, 눅 24:50-52; 행 1:2-3). 요한은 "위"와 "아래"의 수직적인 이원론을 계속 사용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셔서(선재하심)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영광스럽게 되심).

▣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러나 믿는 자들의 아들됨이 예수님의 아들되심과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명시되어야 함에 틀림없다. 그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를 통하여 가족의 일원이 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며 형제이시다.

20:18 마리아 역시 증인이었다!

개역개정 20:19-23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0:19 "이 날 곧. . .저녁 때에" 유대시간은 황혼에 시작하고 마친다(참조, 창 1:5). 문맥상 이것은 주일 저녁 오후 6 시 정도이다.

▣ **"안식 후 첫날"** 주일은 현재의 월요일처럼, 일하는 첫 번째 날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일이 교회의 모이는 날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3 주를 계속해서 주일 밤에 다락방에 나타나심으로 이 모범을 세우셨다(참조, 19, 26 절; 눅 24:36 이하; 행 20:7; 고전 16:2).

믿는 자들의 1 세대는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 마다 계속모였고 성전에는 정해진 축제일에 모였다. 그러나 랍비들이 회당의 맴버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거부해야하는 "저주의 맹세"를 만들었다. 이 점에서 그들은 안식일 예배를 중단하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부활의 날인 주일에 다른 믿는 자들과 계속 모였다.

▣ **"문들을 닫았더니"**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여기에서 복수형은 아래층과 윗층의 모든 문을 잠구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1)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기 위해 또는 (2) 체포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을 나타내기 위해 언급되었다.

▣ **"제자들"** 도마는 없었다. 열한명의 사도 이외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참조, 눅 24:33).

▣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그들의 놀라움, 또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셨다(참조, 14:27; 15:33; 20:21). 이것은 히브리식 인사법인 *샬롬*에 해당한다.

20:20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요한은 분명히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님 옆구리의 창자국에 초점을 맞춘다(참조, 19:37; 20:25). 예수의 발에 대한 언급은 눅 24:39 과 시 22;15 외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광받으신 예수의 몸은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계셨다(참조, 고전 1:23; 갈 3:1).

▣ **"주"** 여기에서 이 호칭은 완전히 신학적으로 구약의 야웨와 관계있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참조, 출 3:14).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신약 저자들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을 확증하는 한 방법이었다.

20:21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참조, 17:18). 교회는 신성한 명령을 가지고 있다(참조, 마 28:18-20; 행 1:8). 믿는 자들은 또한 희생적인 사명을 위해 보내어졌다(참조, 고후 5:14-15; 요일 3:16).

예수님은 "보내다"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요한복음에서 그것들은 동의어이다. 이것들을 8 장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펨포*는 아버지에 의해 보내어진 예수께 사용되었고(참조, 8:16, 18, 26, 29), *아포스텔로*는 8:42 에서 사용되었다. 5 장과 6 장에서도 이와 같이 사용되었다.

20:22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것은 "숨을 쉬었다"의 단어유희이다. 히브리어의 *루아흐*와 헬라어 *프뉴마*는 "숨쉬다," "바람," "영"을 의미할 수 있다. 같은 동사가 70 인역에서 창 2:7 의 창조역사와 겔 37:5, 9 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대명사 "그들"은 사도들만이 아닌 넓은 무리를 의미한다(참조, 눅 24:33).

▣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이다.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확실하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그가 제자들에게 했던 모든 약속을 이루셨다. 이것은 성령이 예수의 침례(세례)에서 예수님을 준비시킨 것과 같이 예수님이 새로운 사역에 대한 과업을 위해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절은 성령이 아버지로부터냐 아버지와 아들로부터냐라는 질문에 대한 초대교회의 싸움에 사용되었다. 실제로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모든 구속역사에 참여하셨다.

*신약신학*에서, 죠지 래드는 이 구절의 가능한 해석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이 구절은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의 관점에서 어려움을 제기하는데, 이것은 세 가지 중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한이 오순절에 대해 알지 못하여서 이 이야기로 그것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요한이 말하는 오순절이거나; 또는 실제로 성령의 두 가지 선물이 있거나; 또는 제자들에게 내쉰 예수님의 숨은 오순절에 실제로 오실 성령에 대한 약속과 기대를 나타내는 행동의 비유였다"(289 쪽).

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보통 사용되던 *에안*이 아니라 *안*이 조건절 제 2 유형과 같이 사용된다. 여기서는 두 개의 조건절 제 3 유형이 *안*과 사용되었다. 이렇게 섞인 조건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 모두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일들을 강조한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지식을 나누는 것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선택한다. 양쪽 면이 다 요구된다. 이 절은 성직자들에게 독단적인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증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다! 이 권위는 예수님 생애에 70 인의 선교여행에서 증명되어졌다.

▣ **"사하여질 것이요"** 이것의 문법적인 구조는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 수동태는 복음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완전히 가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참조, 마 16:19); 만약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교회를 향한 이 약속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마 18:18 의 "매는 것, 푸는 것"과 비슷하다.

개역개정 20:24-25

[24]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0:24 "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헬라어로 도마는 "쌍둥이"란 뜻이다(참조, 11:16). 사람들은 자주 이 절을 사용하여 도마를 의심많은 사람으로 불러왔지만, 11:16 을 기억하라. 도마는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한다(참조, 11:16; 14:5; 20:24, 26, 27, 28, 29; 21:21).

20:25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않고는"은 강한 이중부정과 함께쓰인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겠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이 요구를 존중하셨다. 예수님은 (1) 그의 기적들 (2) 그의 예언들을 통해 제자들이 믿는 것과 함께 일하셨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근본적으로 매우 새로웠고, 그는 제자들이 복음의 주장과 내용을 이해하고 소화할 시간을 허락하셨다.

개역개정 20:26-29

[26]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20:26 "여드레를 지나서" 이것은 또 다른 주일 저녁이다. 예수님이 세 번 연속해서 주일 밤 다락방에 나타나셨고(아마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것임) 그리스도인 예배의 전례를 만드셨다.

20:27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진행중인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의심과 믿음의 이상한 섞임 속에 있다!

20:28 도마의 혼동은 신학적으로 17 절과 관계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신학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신성으로부터 주의를 흩으리는 것처럼 보인다. 도마에 의해 표현된 신성의 확신은 이 의미를 벌충하는 것 같다.

도마의 고백은 "주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름인 야웨 *엘로힘*이란 호칭을 사용한 구약의 선례에서 나왔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신성의 놀라운 이 확언을 완전히 받아들이셨다. 1 장 1 절 부터 요한복음은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주장하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의 신성을 여러 차례 주장하셨고(참조, 8:58; 10:30; 14:9; 20:28) 요한복음의 저자도 1:1, 14-18; 5:18 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고 있다. 다는 성경저자들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되심을 분명히 주장한다(참조, 빌 2:6-7; 골 1:15-17; 딛 2:13).

20:29 이 구절은 열린 진술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네"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 될 수도 있다. 문법적으로는 분명치 않다. 이것은 17:20 에 있는 축복과 비슷하다(참조, 벧전 1:8).

개역개정 20:30-31

[30]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20:30 30-31 절은 확실히 요한복음의 주제와 목적이다. 이것은 전도용 소책자이다! 영감을 받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선택된 청중들, 유대인,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위대한 진리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그것을 선택하고 정리하고 수정하며 요약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의 탈무드가 아니다.

칼 F. H. 헨리는 *해설자의 성경주석* 1 권의 서론 "성경의 권위와 감동"에서 말하기를:

"성경은 창조의 이야기든 성육신의 역사를 포함한 구원의 역사를 다루든지 간에 사건의 완전한 시간순서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 진술된 목적은 인간의 구속적인 구원과 그의 창조자에 대한 순종적인 섬김을 위해 필요하고 충분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비록 성경저자들이 하나님의 같은 구속역사를 때때로 다양한 각도와 다른 목적에서 볼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을만 하고 타당하다. 마태는 예수님 사역의 시간적 순서보다는 가르침에 적합하게 주제별로 배열하였다. 마가는 순서에 따라 교리문답적 가르침을 지지하는 구조를 갖는다. 누가는 마가복음에 있는 이런 자료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였다(참조, 1:4). 요한은 4 번째 복음서의 기초를 이루는 급진적인 견해에 대한 설명을 공공연하게 말한다(20:30, 31)"(27-28 쪽).

20:31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너희로 믿게 하는"
신개정표준역(NRSV) "너희로 믿는데 나아오게 하는"

초기의 헬라어 사본들, P[66], ℵ*, H, B 와 오리겐이 사용한 헬라어 본문은 현재 가정법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요한이 믿는 자들을 믿음으로 계속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모든 헬라어 사본들은 부정과거 가정법으로서, 요한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쓰고 있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 절은 복음서의 목적을 말하고 있다. 다른 복음서와 같이 요한복음은 전도용 책자이다.

▣ **"그리스도"**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문자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이것은 의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된 다윗의 후손이다. 나사렛 예수(참조, 1:45)는 유대인의 메시아이다(참조, 11:27).

예수님에 대한 이 명칭은 일찍이 복음서에서 발견된다(참조, 1:41). 그러나 이방인을 위한 문맥에서 "메시아"가 아닌 "주"라는 호칭은 예수님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용된 호칭이었다(참조, 롬 10:9-13; 빌 2:9-11).

"메시아"의 개념은 종말론적인 암시를 가지고 있다: (1)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정치적, 국가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 (2) 계시적 유대문학에서 이것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 **"하나님의 아들"** 이 호칭은 공관복음서(이방인들이 잘못 이해할 가능성 때문에)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그리고 일찍이 사용되었다(참조, 1:14, 34, 49). 이것은 예수님과 아버지의 독특한 관계를 주장하는 요한의 방법이다. 요한은 이런 친숙한 은유를 여러 방법으로 사용한다: (1) 호칭 (2) "독생자"와의 관계에서(*모노제네스*, 참조, 1:18; 3:18: 요일 4:9); (3) "아버지"의 호칭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할 때(참조, 20:17).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누가 무덤에 왔는가? 언제? 왜?
2. 제자들은 왜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는가? 그것을 예상한 사람이 있었는가?
3.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인식하지 못했는가?
4.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를 붙잡지 말라고 했는가?
5. 22-23 절을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라?
6. 도마를 의심많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은가?
7. 현재가 아닌 예수님 시대에 "믿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되었는지 정의해보라.

요한복음 2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일곱제자들에게 예수의 나타나심	바닷가에서의 조반	끝맺음	예수가 일곱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티베리우스 해변에 나타나심
21:1-14	21:1-14	21:1-3	21:1-3a	21:1-3
			21:3b-5a	
		21:4-8		21:4-8
			21:5b	
			21:6	
			21:7-10	
		21:9-14		21:9-14
예수와 베드로	예수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다		예수와 베드로	
21:15-19	21: 15-19	21: 15-19	21:15a	21: 15-19
			21:15b	
			21:15c-16a	
			21:16b	
			21:16c-17a	
			21:17b	
			21:17c-19	
예수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	사랑하시는 그 제자와 그의 책		예수와 다른 제자	
21:20-23	21:20-25	21:20-23	21:20-21	21:20-23
			21:22	
			21:23	두 번째 결론
21:24		21:24-25	21:24	21:24
			결론	
21:25			21:25	21:25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1-25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이 복음서가 20:31 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1 장이 추가되었다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그러나 21 장이 생략된 헬라어 사본은 없다.

나. 요 7:53-8:11 이 24 절 다음에 삽입된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25 절이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자주 생각되었다. 또한, 고대 시내사본에서, 서기관들은 원래 25 절을 생략했고 이 부분을 삽입하기 위해 책 끝에 장식된 문양을 지웠다.

다. 비록 요한복음의 완전한 부분이 아닐지라도, 21 장이 사도의 손으로 기록된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두 질문에 대답한다:
1. 베드로는 복귀되었는가?
2. 요한의 장수에 대한 구전은 어떤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21:1-3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21:1 "디베랴 호수" 디베랴는 갈릴리의 로마행정구역의 수도였다. 이것은 또한 "갈릴리 바다"(참조, 6:1) 또는 게네사렛 호수 (참조, 마 14:34; 막 6:35; 눅 5:1)로,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수"(참조, 34:11; 신 3:17; 수 11:2; 12:3; 13:27; 19:35; 왕상 15:20)로 알려져 있다.

▣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 동사는 "완전히 또는 분명하게 나타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참조, 1:31; 2:11; 7:4; 9:3; 요일 1:2; 2:28; 3:2; 4:9). 마태복음에서 갈릴리의 이 모임은 "대 위임"에 대한 배경에서 산에서 이루어졌다(참조, 16:32; 28;7, 10, 16).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랴 바다가 배경이다. 이 만남에서 예수님은 초대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질문을 다루고 계신다: (1) 베드로는 복귀되었는가 (2) 요한의 장수에 대한 구전은 어떤가?

21:2 "세베대의 아들들" 이것은 야고보(야곱)와 요한(요하난, 참조, 마 4:21)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에 이름으로 야고보나 요한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1: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이것은 현재 시제이다.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이 표현에 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1) 이것은 예수님이 정하신 모임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소일하기 위한 고기잡이였다(참조, 마 26:23; 28:7, 10) (2)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었다 또는 (3) 이것은 베드로가 어부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었다. 이 장은 눅 5 장과 매우 비슷하다.

▣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어떤 경우에도 기적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음을 주목하라. 신약에서 이 동사는 고기를 잡는 것으로 어느 곳에도 사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체포할 때 사용된다.

개역개정 21:4-8

[4]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오십 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21:4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다: (1) 너무 어두웠다 (2) 예수님이 너무 멀리 계셨다 (3) 그들은 너무 피곤했다 (4) 예수님은 약간 다르게 보이셨다(참조, 21:12; 마 28:16-17; 눅 24:13 이하) (5)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가리워져 있었다 (참조, 눅 24:16).

21:5 "얘들아" 이것은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어린 아이들"을 위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 여기서 사용한 것(*파이디온*)은 최소로 사용되었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테크니온*)과 다르다.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오직 4:49; 16:21 과 여기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들은 요한일서에서 동의어로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2:13, 18 에서 *파이디온*이 사용되었고 2:1, 12, 28 에서는 *테크니온*이 사용되었다.

▣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단어(*프로스파기온*)는 빵과 함께 먹는 어떤 음식을 실제로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물고기"를 말한다. 이 질문은 "아니오"란 답을 기대한다.

21:6 예수님은 눅 5:1-11 에서 그가 처음에 그들을 부르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하셨다. 이 장의 특징으로서(15 절의 설명을 보라) 두 가지 다른 헬라어 단어들이 사용되었다: 3, 6 절에서 보트(*플로이온*) 그리고 8 절에서 *플로이아론*(작은 보트). 요한은 이 장에서 여러 차례 그의 문학적 다양성을 보여준다.

21:7

신미국표준역(NASB)	**"그가 그의 겉옷을 입었다(그는 일하기 위해 벗고 있었기 때문에)"**
뉴킹제임스역(NKJV)	**"그의 겉옷을 입었다(그는 그것을 벗었었기 때문에)"**
신개정표준역(NRSV)	**"그는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옷들을 입었다"**
현대영어성경(TEV)	**"그는 그의 겉옷으로 그를 휘감았다(그는 그의 옷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신예루살렘성경(NJB)	**"베드로는 그를 그의 겉옷으로 붙들어 매었다(그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 세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겉옷과 몸에 꼭 맞는 긴 속옷을 입었다. 베드로는 그의 겉옷/헐거운 옷을 벗고 그의 속옷을 허리로 접어 내렸다.

▣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것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참조, 13:23; 20:2, 3, 8; 21:20).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절대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 **"주님이시라"**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남자," "선생님," "주인," "임자," "주"이다. 어떤 문맥에서는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말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학적인 확언이다. 이 상황에서 이 어부들은 바닷가에 있는 이 분을 영광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식했다!

이 번역의 출처는 야웨를 주님으로 번역한 구약의 사용법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을 소리내기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큐리오스*와 상응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도나이*를 대신 사용했다.

빌 2:9-11 에서 주님은 모든 이름위에 뛰어난 호칭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초대교회의 침례(세례) 고백의 일부분이었다(참조, 롬 10:9-13).

개역개정 21:9-14

[9]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백쉰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21:9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서 이른 아침 조반의 목적은 교제와 신학적인 숙고를 위한 것이었다. 신학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이 부분은 또 다른 숯불의 배경[참조, 18:18]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다룬다. 이 용어는 여기에서만 사용되었다 (2)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메시아인 예수님의 참 인간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의 이단과 싸우기 위해 쓰였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드셨다.

21:10 이 단락에는 물고기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다: (1) 9, 10, 13 절에 있는 단어는 작은 물고기를 말하는 *옵사리온*이고 (2) 6, 8, 11 절에 있는 단어는 큰 물고기를 말하는 *익쒸스*이다. 여기서는 그것들이 대체되어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21;11 "백쉰세 마리라" 문맥상 이 수는 상징적인 중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목격자의 세부적 진술이다. 그러나 모든 수와 세부 사항을 우화적으로 보았던 초대교회의 잘못된 경향은 이 절에 의미를 부여했다: (1) 시릴은 100 은 이방인을 위한 수이고 50 은 유대인을 3 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했다 (2) 어거스틴은 이 수는

십계명과, 17 과 동등한 성령의 일곱 가지 열매라고 주장했다. 어거스틴은 이것이 율법과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온 전체 사람의 수라고 말했다 또는 (3) 제롬은 153 가지의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 올 모든 민족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우화적 방법은 해석가의 영특한 견해를 말하는 것이지 영감된 원저자의 의도는 아니다!

▣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평범한 목격자의 세부설명이거나 기적을 의미한다.

21:14 "이것은. .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것은 20 장에서 두 번 나타나시고 여기서 한 번 더 나타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개역개정 21:15-19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15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신 것을 주목하라. 베드로는 결코 돌이 아니었다!

▣ **"사랑. . .사랑. . .사랑"** 이것은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삼중 부인과 관계있어 보이는 분명한 삼중 반복이다(참조, 18:17, 25, 27). 이 부분은 여러 가지의 평행과 대조를 이룬다: (1) 사랑(*필레오*) 대 사랑(*아가파오*) (2) 어린양 대 양 (3) 알다(*기노스코*) 대 알다(*오이다*). 이것이 문자적인 다양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용어를 대조시킨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요한은 자주 다양성을 사용했는데, 이 장에서 그렇다("어린이," "보트," "물고기"에 대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함). 이 문맥에서 헬라어 단어 *아가파오*와 *필레오*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코이네 헬라어에서 그것들이 동의어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그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참조, 3:35; 5:20; 11:3, 5).

▣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구문론적으로 이 질문의 목적어가 분명치 않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1) 직업으로서의 어부 (2)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이전 진술들(참조, 마 26:33; 막 14:29; 요 13:37) 또는 (3) 가장 큰 자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참조, 9:46-48; 22:24-27)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한다.

▣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다. 세 번의 모든 진술은 같은 문법적 형태를 갖지만(참조, 16, 17 절), 약간씩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내 양을 치라와 내 양을 먹이라).

21:17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는 조급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는 훌륭한 신학을 표현하고 있다(참조, 2:25; 6:61, 64; 13:11; 16:30).

▣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16 절(*오이다*)과 17 절(*오이다*와 *기노스코*)에 있는 "알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의 변화이다. 이렇게 사용한 정확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단순한 다양성을 의미할 수 있다.

21:18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것은 관용적 사용의 기교일 것이다 (1) 초대교회에서 (2) "십자가형"에 대한 헬라적 문학에서.

21:19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전승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주장한다. *교회의 역사* Vol. 3:1 에서, 유세비우스는 "베드로가 본디오,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믿어진다. 로마에 갔을 때 그는 자신의 요청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처형되었다." 1:14 의 설명을 보라.

▣ **"나를 따르라"** 이것은 22 절과 같이 현재 능동 명령이다. 이것은 베드로를 지도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새로운 갱신과 확신에 관계된다(참조, 마 4:19-20).

개역개정 21:20-23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21:21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것은 13:25 의 내용을 가리킨다. 그를 이와 같이 은밀한 방법으로 나타낸 이유는 불확실하다(참조, 13:23; 19:26; 20:2; 21:7, 20). 가능한 견해는: (1) 1 세기의 전통적인 유대인의 글에서 저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2)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는 너무 어렸다 또는 (3) 재판과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는 동안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였다.

21: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우리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사역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획하신 일에 상관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21 장을 추가한 것에 대한 가능성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오해에 답하는 것이었다. 요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요한은 재림에 대해 말하고 있다, 참조, 14:23; 요일 3:2).

▣ **"나를 따르라"** 이것은 요한복음의 개인적인 초청을 거의 요약하고 있다(참조, 1:43; 10:27; 12:26; 21:19, 22). "그것을 믿어라"는 복음의 내용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이것은 복음의 인격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개역개정 21:24

[24]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1:24 "이 일들을 기록한" 이것은 (1) 20-23 절 (2) 21 장 또는 (3) 요한복음서 전체를 가리키는가? 그 대답은 불확실하다.

▣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대명사 "우리"가 가리키는 특별한 무리는 불확실하다. 요한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있는 다른 무리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들은 아마 에베소의 장로들 이었을 것이다. 그곳은 요한이 살았고, 사역했고, 죽었던 장소이다. 모든 사도들이 죽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일어남으로 인해, 에베소 지도자들은 나이 많은 요한에게 자신의 복음서를 쓰도록 권유했다고 초기 전승은 주장한다. 1:8 의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개역개정 21:25

[25]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1:25 25 절에 대한 두 가지 논란이 있다: (1) 여러 사본에 요 7:53-8:11 이 24 절과 25 절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 (2) 시나이성서사본에(א) 서기관은 책의 마지막에 장식한 것을 지우고 25 절을 나중에 삽입했다. 이것은 영국박물관의 원자외선 조사에 의해 분명해졌다. 이 절은 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했듯이 그들의 기록이 선택적이었다는 것을 특별히 알려준다. 이 해석학적인 질문은 "왜 각각의 복음서 저자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복음서를 기록했는가이다(참조, 고든 피와 더글라스 스튜어트,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 것인가*, 113-134 쪽).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한복음 21 장과 누가복음 5 장은 어떠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2.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는 누구인가?
4.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 물어본 이유는 무엇인가?
5.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주장하셨는가?
6. 24 절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7. 25 절은 원래의 본문인가?

요한일서

요한일서의 개론

이 책의 독창성

가. 요한일서는 개인적인 편지나 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다. 이것은 "본부로부터의 열정적이고 공적인 지시"와 같은 것이다(공동서신).
   1. 전통적인 서론이 없다(누구로부터, 누구에게)
   2. 개인적인 인사말이 처음과 끝 부분에 없다.

나. 개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에베소서나 야고보서처럼 여러 교회에 보내진 서신들로서는 매우 특별한 점이다. 저자의 이름이 없는 신약의 책은 히브리서와 요한일서이다. 그러나 요한일서가 거짓교사들에 대한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에 직접 당면한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진 것은 분명하다.

다. 이 서신은 강력한 신학적인 논설이다:
   1. 중심되신 예수
      ㄱ.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되심
      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신비적인 경험이나 비밀스러운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거짓교사들)
   2. 그리스도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요구(세 가지 시험)
      ㄱ. 형제사랑
      ㄴ. 순종
      ㄷ. 타락한 세상구조에 대한 거부
   3.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알다"를 27 번 사용함)
   4. 거짓교사를 인식하는 법

라. 요한의 저작(특별히 요한일서)은 신약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단순한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과 다르게 그의 책들은 심원한 깊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말한다(즉, 하나님은 빛이시다, 1:5;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4:8, 16;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 4:24).

마.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을 커버하는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1 세기의 영지주의적 이단은 두 책의 배경을 형성했다. 요한복음이 복음전도를 위한 목적이라면, 요한일서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잘 알려진 주석가 웨스트코트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언하고, 요한일서는 그의 인성을 확언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들은 함께 간다!

바. 요한은 흑백논리적(이원론적인) 용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사해사본과 영지주의적 거짓교사들의 특징이다. 문자적 이원론으로 구성된 요한일서는 말에 관한 것이고(빛 대 어둠) 형식에 관한 것이다(긍정적인 진술이 뒤따라오는 부정적인 진술). 이것은 수직적인 이원론을 사용한 요한복음과 다르다(위로부터 대 아래로부터).

사. 요한이 되풀이 되는 주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요한일서의 개요는 매우 다르다. 이것은 서로 반복되는 문양으로 짜여진 진리의 장식천과 같다(참조, 빌 헨드릭스, *진리의 천, 요한서신*).

저자

가. 요한일서의 저자에 대한 문제는 요한의 글 전체에 대한 저자가 누구인가 하는 논쟁의 부분이다—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나. 기본적인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1. 전통적인 견해
      ㄱ. 모든 초대교회의 교부들에 의해 동의되어진 전통은 사랑하시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저자였다고 말한다.
      ㄴ. 초대교회증거의 요약
         1) 로마의 클레멘트(주후 90 년)는 요한일서를 암시했다
         2) 서머나의 폴리갑은 요한일서를 인용했다, *필립피안스* 7 (주후 110-140 년).

3) 순교자 저스틴은 요한일서를 인용했다, *다이어로그* 123:9(주후 150-160)
4) 요한일서를 암시하고 있는 글을 쓴 사람들은
ㄱ)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글을 쓴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대략 주후 100 년 초엽)
ㄴ)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주후 50-60 년 사이에 출생했고 주후 155 년경 순교)
5) 리용의 이레니우스(주후 130-202)는 요한일서를 사도 요한의 서신으로 말한다. 이단을 대항하여 50 권의 책을 쓴 초기의 변증자 터툴리안은 요한일서를 종종 인용하였다
6) 사도 요한을 저자로 간주하는 초기의 글들은 클레멘트, 오리겐, 다이오니시우스(세 사람 모두 알렉산드리아 출신), 무라토리안 단편(주후 180-200)과 유세비우스(3 세기).
7) 제롬(4 세기 후반)은 요한이 저자임을 인정했지만 그의 시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그것이 부인되는 것을 수용했다.
8) 주후 392-428 년에 안디옥 주교였던 몹수에스티아의 세오도레는 요한의 저자권을 부인했다.

ㄷ. 만약 요한이 저자라면, 우리는 사도 요한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1) 그는 세베대와 살로메의 아들이었다
2)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갈릴리 바다의 (아마 여러 척의 보트를 소유한)어부였다
3) 어떤 사람들은 그의 어머니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었다고 믿는다(참조, 요 19:25; 막 15:20)
4) 그는 부자였던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 것을 가지고 있었다:
ㄱ) 고용된 종들(참조, 막 1:20)
ㄴ) 여러 척의 보트
ㄷ) 예루살렘에 있는 집(참조, 마 20:20)
5)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 출입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는 약간은 유명한 사람으로 보인다(참조, 요 18:15-16)
6)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도록 위임받은 사람이었다.

ㄹ. 초대교회전통은 하나같이 요한이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오래살았고, 예루살렘에서 마리아가 죽은 후 그는 소아시아로 이동하여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인 에베소에 정착했다고 증언한다. 이 도시에서 그는 밧모섬으로 추방당했고(해안에 인접한) 나중에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되돌아왔다(유세비우스는 폴리갑, 파피아스, 이레니우스를 인용한다).

2. 현대 학자들의 견해
ㄱ. 현대 학자들의 대부분은 사도 요한이 쓴 모든 글들의 유사성을 인정한다. 특히 말씨의 표현, 어휘사용, 문법적 형태에서의 유사성을 말한다. 이것의 좋은 예는 그의 글들을 특징지우는 완전한 대조이다: 생명 대 죽음, 진리 대 거짓. 이와 같은 완전한 이분법은 그 시대의 다른 글들인 사해사본과 초기의 영지주의 책들에서도 볼 수 있다.
ㄴ. 전통적으로 요한이 쓴 것으로 간주되는 다섯 권의 책들 사이에 상호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다. 어떤 무리의 사람들은 저자가 한 사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등등으로 주장한다. 가장 그럴듯한 견해는 비록 사도 요한의 여러 제자들이 펜을 들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요한의 모든 글들이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ㄷ. 나의 개인적인 믿음은 나이든 요한이 (그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다섯권의 책 모두를 그가 썼다는 것이다.

저작시기—분명히 이것은 저자권과 연결된다

가. 만약 사도 요한이 이 서신들을 썼고, 특별히 요한일서를 그가 썼다면, 이것은 1 세기가 끝나갈 무렵의 어떤 시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영지주의의 거짓 신학/철학체계가 발전한 때, 또한 나이든 요한이 젊은 무리의 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요한일서의 용어(“자녀들아”)에 맞추어지는 시기였을 것이다. 제롬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68 년을 더 살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전통에 맞는 것같다.

나. A. T. 로벗슨은 요한일서가 주후 85-95 년에, 요한복음은 주후 95 년에 쓰였다고 생각한다.

다. *새국제주석시리즈 요한일서* 에서 I. 하워드 마쉘은 주후 60-100 년 사이가 사도 요한의 글들이 쓰여진 때로 현대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에 근접한 시기라고 주장한다.

수신자

가. 전통은 이 책이 로마제국의 소아시아 지역(에베소가 그곳의 대도시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고 말한다.

나. 이 서신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와 같이)거짓교사들의 문제를 겪고 있었던 소아시아의 특수한 그룹의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 가현설적 영지주의 (2) 윤리/도덕성에서 신학을 분리하는 도덕률 폐기론적 영지주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어 졌다고 본다.

다. 어거스틴(4 세기)은 이 서신이 파르티아 사람들(바빌론)을 위하여 쓰인 것이라고 말했다. 카시오도루스가 그의 뒤를 이었다(6 세기). 이것은 아마 벧전 5:13 과 요이 1 장에서 사용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바빌론에 있는 교회”라는 구절에 대한 혼동에서 온 것 같다.

라. 주후 180-200 년 사이에 로마에서 쓰인 신약의 초기 정경목록을 말하고 있는 문서의 하나인 무라토리안 단편은 이 서신이 (소아시아에서)“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주교들의 간곡한 권고 후에” 쓰였다고 주장한다.

이단

가. 이 서신은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반작용하는 형식의 편지였음이 분명하다(참조, “만약 우리가. . .하고. . .” 1:6 이하와, “. . .하면서. . .하는 자는. . .” 2:9; 4:20[통렬한 비판]).

나. 요한일서를 통해 본질적인 증거에 의한 이단의 기본적인 교의를 어느정도 배울 수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
2. 구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됨을 부인
3. 바른 그리스도인 생활양식의 부족
4. 지식을 강조(종종 비밀을 강조)
5. 배타주의적 경향을 가짐

다. 1 세기의 배경
1 세기의 로마는 동방과 서방의 종교사이에서 절충주의를 택한 시기였다. 헬라와 로마의 만신전의 신들은 나쁜 평판을 가지고 있었다. 신비적인 종교들이 그들의 비밀스런 지식과 신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호응이 매우 좋았다. 세속적인 헬라철학은 선호되었고 다른 세계관들을 합병했다. 절충적인 종교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배타적으로 다가왔다(예수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참조, 요 14:6). 이단의 정확한 배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생각의 폭이 넓은 헬라-로마의 청중들에게 기독교의 배타성이 나쁘지 않고 지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시도였다.

라. 요한이 언급한 영지주의 그룹에 관한 가능한 선택들
1. 초기의 영지주의
   ㄱ. 1 세기에 있었던 초기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영과 물질 사이의 존재론적(영원한) 이원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영(높으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의미했고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었다. 이 이분법은 플라톤의 정신적인 것 대 물질적인 것, 하늘의 것 대 땅의 것, 보이지 않는 것 대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 또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비밀스런 지식의 중요성(한 영혼이 천사의 영역[*에온스*]을 지나 높은 신에게 이르기 위해 통과할 수 있는 암호 또는 코드)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했다.
   ㄴ. 분명히 요한일서의 배경이 될 수 있었던 초기 영지주의의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1)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의 참 인간성을 부인하는 그리스도 가현설적 영지주의
      2) 좋고 높은 신과 악한 물질사이에서 많은 *에온스* 또는 천사의 등급의 하나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는 세린티안 영지주의.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침례(세례)때 인간 예수께 내재하였고 그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에 그를 떠났다.
      3) 이 두 무리의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를 좇았고(만약 몸이 무엇을 원하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도덕률 폐기론자였다(만약 몸이 무엇을 원하면, 그것을 주라). 1 세기 영지주의의 발전된 조직에 대하여 기록된 증거는 없다. 2 세기 중엽까지 기록된 증거가 없다. “영지주의”에 대하여 좀 더 알기원하면 다음을 보라
         ㄱ) *영지주의적 종교* 한스 조나스 저, 비콘 출판사
         ㄴ) *영지주의적 복음서* 엘라인 파겔스 저, 랜덤 하우스
         ㄷ) *낙함마디 영지주의 본문과 성경* 안드레 헴볼드 저
2. 이그나티우스는 그의 글 *서머나엔스* iv-v 에서 이단의 또 다른 가능한 출처들을 제시한다. 그들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도덕률 폐기론자의 생활양식으로 살고 있다.
3. 이단에 대한 가능성이 더 낮은 다른 출처는 이레니우스의 글, *이단에 대하여* XXIII 에서 알려진 안디옥의 미앤더이다. 그는 시몬의 추종자였고 비밀스런 지식을 지지하였다.

마. 오늘날의 이단

1. 이러한 이단의 영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다른 생각의 체계와 결합시키려고 시도할 때 나타난다.
2. 이러한 이단의 영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개인적 관계와 믿음의 생활양식을 배제하고 “바른”교리를 강조할 때 나타난다.
3. 이러한 이단의 영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인 지적 엘리트사상으로 변화시킬 때 나타난다.
4. 이러한 이단의 영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금욕주의나 도덕률 폐기론주의로 향할 때 나타난다.

목적

가.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 실제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다
1.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참조, 1:4)
2.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참조, 1:7; 2:1)
3. 그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참조, 4:7-21) 세상을 사랑하지 말것을(참조, 2:15-17) 명령하기 위해(그리고 그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4.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참조, 5:13)

나.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 교리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다
1.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하려는 잘못을 반박하기 위해
2. 영성을 경건한 삶에서 배재하는 지성주의로 바꾸려는 잘못을 반박하기 위해
3.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로부터 격리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잘못을 반박하기 위해

독서의 첫 단계(v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단번에 책 전체를 읽으라. 책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당신 자신의 말로 진술하라.

3. 책 전체의 주제

4. 문학의 형태(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다시 한번 그 책 전체를 단번에 읽으라. 중심 주제에 대한 개요를 만들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1. 첫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2. 두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3. 세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4. 네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5. 기타

요한일서 1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생명의 말씀	들었고, 보았고, 만진바 된 것	서론	생명의 말씀	성육신한 말씀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유함
1:1-4	1:1-4	1:1-4	1:1-4	1:1-4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와 갖는 교제의 기초	죄에 대한 바른 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가운데 행하기
				(1:5-2:28)
1:5-10	1:5-2:2	1:5-10	1:5-7	1:5-7
				첫 번째 조건: 죄를 버리기
			1:8-10	1:8-2:2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을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 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

신학적 배경

가. 이 본문은 창 1:1 과 연관이 되는 요한복음의 서론(1:1-18)과 관계가 있다.

나. 강조점은:
1.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ㄱ. 분사들은 인간의 감각과 관계 되었다: 시각, 소리, 접촉(참조, 1, 3 절). 예수님은 진실로 인간이셨고 육체를 가지고 계셨다.
   ㄴ. 예수님의 호칭들
      1) 생명의 말씀(참조, 1 절)
      2)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참조, 3 절)
2. 나사렛 예수의 신성
   ㄱ. 선재하심(1, 2 절)
   ㄴ. 성육신(2 절)

이와 같은 진리들은 거짓교사들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대항했다.

구문론

가. 1-4 절
1. 헬라어에서 1-3a 는 한 문장으로 되어있다.
2. 본 동사 "전하다"는 3 절에 있다. 이 강조는 사도적 설교의 내용이다.
3. 1 절에는 강조를 위해 사용한 4 개의 관계사절이 있다.
   ㄱ. "태초부터 있는"
   ㄴ. "우리가 들은 바요"
   ㄷ. "눈으로 본 바요"
   ㄹ.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4. 2 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삽입어구처럼 보인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매우 어색하게 보이는 사실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다.
5. 3 절과 4 절은 요한의 사도적 선포 목적을 정의한다: 사귐과 기쁨. 사도의 목격적 기술은 정경으로 되기 위한 초대교회 평가기준의 하나였다.
6. 1 절에 있는 동사 시제의 흐름을 주목하라
   ㄱ. 미완료(선재했다)
   ㄴ. 완료, 완료(거하는 진리)
   ㄷ. 부정과거, 부정과거(특별한 예들)

나. 1:5-2:2 절
1. 1:5-2:2 에 있는 대명사들은 매우 모호하지만, 나는 5 절을 제외하고 거의 모두 아버지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엡 1:3-14 와 비슷함)
2. "만일"은 모두 잠재적 행동을 말하는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 시작한다.
3. 중요한 신학적 다양성이 있다
   ㄱ. "죄를 범하다"라는 동사에서 현재 시제 대 부정과거 시제
   ㄴ. 단수형과 복수형, "죄" 대 "죄들"

이교도들

가. 이교도들의 잘못된 주장은 1:6, 8, 10; 2:4, 6, 9 에서 볼 수 있다.

나. 5-10 절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윤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신학)을 분리하기 위한 신학적 시도와 관계있다. 이것은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과도한 영지주의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들의 생활양식에서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을 드러낸다.

다. 1:8-2:2 는 3:6-9 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것들은 두 가지의 다른 잘못을 막아줄 것이다:
1. 신학적 잘못(죄가 없다)
2. 도덕적 잘못(죄가 문제되지 않는다)

라. 요한일서 2:1-2 은 죄를 너무 가볍게 다루는 것(도덕률 폐기론주의)과 그리스도인 정죄주의, 문화적 율법주의, 또는 금욕주의의 계속 반복되는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시도한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1-4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 "~것" 이 책은 중성 대명사로 시작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두 가지 면을 말한다: (1)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 (2) 예수님 자신의 인성(참조, 1:8, 10; 2:20, 24; 3:11, 14). 복음은 메시지, 인격, 생활양식이다.

▣ **"있었다"** 이것은 미완료 직설법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재를 주장한다(즉, 이것은 요한의 글들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참조, 2 절; 요 1:1, 15; 3:13; 8:57-58; 17:5).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타내신다.

▣ **"태초부터"** 이것은 창 1 장과 요 1 장에 대한 분명한 암시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차선책"이 아니었다. 복음은 언제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참조, 창 3:15; 행 2:23; 3:18; 4:28; 13:29).

요한은 "태초"(*아케*)의 개념을 자주 사용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두 범주로 나누어진다:

1. 창조로부터 또는 적어도 창 1:1-11 로부터:
   ㄱ. 요 1:1, 2(태초에 계신 예수님)
   ㄴ. 요 8:44; 요일 1:1(태초로부터의 예수님)
   ㄷ. 요 8:44; 요일 3:8(태초로부터 살인자이고 거짓말장이인 사탄)
   ㄹ. 계 3:14; 21;6, 12(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
2. 예수님의 성육신과 사역하신 때로부터:
   ㄱ. 요 8:25; 16:4; 요일 2:7[두 번]; 3:11; 요이 5, 6(예수님의 가르침)
   ㄴ. 요 15:27(예수님과 함께)
   ㄷ. 요일 2:13, 24[두 번](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ㄹ. 요 6:64(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특별주제: 요한복음 1 장과 요한일서 1 장 비교

	요한복음	요한일서
1.	태초에(1:1,2)	태초로부터(1:1)
2.	말씀(*로고스*)(1:1)	말씀(*로고스*)(1:1)
3.	생명(*조에*)(1:4)	생명(*조에*)(1:1, 2)
4.	예수 안에 있는 빛(1:4)	하나님 안에 있는 빛(1:4)
5.	드러난 빛(1:4)	드러난 빛(1:4)
6.	어두움(1:5)	어두움(1:5)
7.	빛에 대한 증거(1:6-8)	빛에 대한 증거(1:3, 5)
8.	하나님께로 오게된 사람들	하나님께로 오게된 사람들(1:3)
9.	그의 영광을 보았다(1:14)	그의 영광을 보았다(1:1-3)

▣ **"우리"** 이것은 사도들의 집합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증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합적인 고백이 요한일서의 특징이다. 이것은 최소한 50 번 사용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집합적인 대명사가 "요한의 전통"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으로 본다. 이 단어는 요한의 독창적인 신학에 대한 지지자나 교사들을 의미할 것이다.

▣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것은 둘 다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머무르는 결과를 강조한다. 요한은 1, 3 절에서 오감과 관계된 반복적인 분사의 사용으로 예수님의 인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서 그가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한 목격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 **"자세히 보고. . .만진 바라"** 이것은 둘 다 부정과거 직설법으로서 특별한 사건을 강조한다. "보았다"는 뜻은 "가까이서 관찰했다"는 말이다(참조, 요 1:14); "만졌다"는 뜻은 "가까이서 느낌으로 조사했다"는 말이다(참조, 요 20:20, 27; 눅 24:39).

헬라어 단어 "만졌다" 또는 "손댔다"(*프셀라파오*)는 신약의 오직 두 절에서만 발견된다: 여기와 눅 24:39.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용하였다. 요한일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 같다.

▣ **"생명의 말씀"** *로고스* 단어의 사용은 요한복음의 서언과 마찬가지로(참조, 1:1), 헬라파 거짓교사들의 주의를 끌기 위한 사용이었다. 이 단어는 헬라 철학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참조, 요한복음 10 쪽). 이것은 또한 히브리인들의 삶에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요한복음 9 쪽). 여기에서 이 구절은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인격적인 면 둘 다를 의미한다.

1:2 이 절은 "생명"을 정의하고 있는 삽입구이다.

▣ **"생명"** "*조에*"(2 절에 두 번)는 요한의 글에서 영적 생명, 부활의 생명, 새 시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요 1:4; 3:15, 36[두 번], 29, 39, 40; 6:27, 33, 35, 40, 47, 48, 51, 53, 54, 63, 68; 8:12; 10:10, 28; 11:25; 12:25, 50; 14:6; 17:2, 3; 20:31; 요일 1:1, 2; 2:25; 3:14-15; 5:11, 12, 13, 16, 20). 예수님은 자신을 "곧 생명"이라고 부르셨다(참조, 요 14:6).

▣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단어는 이 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 둘 다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 수동태는 종종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 단어(*파네로오*)는 "이미 존재하는 빛으로 나아오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요한이 좋아하는 단어이다(참조, 요 1:31; 3:21; 9:3; 12:6; 요일 1:2[두 번]; 2:19; 3:5, 8, 10; 4:9). 부정과거 시제는 거짓교사들이 부인하는 성육신을 강조한다(참조, 요 1:14).

▣ **"증언하여"** 이것은 요한의 개인적인 경험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의 증언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요 1:8 의 특별주제: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라.

▣ **"전하노니"** 이것은 요한이 그의 설교와 글에서 드러내고 기록한 믿을 만한 증거를 의미한다. 이것은 두 번 반복된다(2, 3 절).

▣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1 절과 같이 이것은 예수님의 선재를 주장한다. 이 구절은 요 1:1 과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성육신 하셨다(참조, 1:14).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것은 다섯 번째의 관계사절로서 2 절의 삽입구 다음에 1 절의 생각을 다시 계속한다. 이것은 1 절에서 발견되는 지각 동사를 반복한다.

▣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것은 1-4 절의 본 동사이다.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과 함께 쓰인 목적절(히나)이다. "사귐"(*코이노니아*)이란 단어의 뜻은

1. 사람과의 가까운 연합
    ㄱ. 아들과(참조, 요일 1:6; 고전 1:9)
    ㄴ. 성령과(참조, 고후 13:13; 빌 2:1)
    ㄷ. 아버지와 아들과(참조, 요일 1:3)
    ㄹ. 언약관계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과(참조, 요일 1:7; 행 2:42; 갈 2:9; 몬 17)
2. 물건이나 그룹들과의 가까운 연합
    ㄱ. 복음과(참조, 빌 1:5; 몬 6)
    ㄴ. 그리스도의 피와(참조, 고전 10:16)
    ㄷ. 고난과(참조, 빌 3:10; 4:14; 벧전 4:13)
    ㄹ. 어두움과 같이 하지 않는(참조, 고후 6:14)
3. 관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선물이나 기부 (참조, 롬 12:13; 15:26; 고후 8:4; 9:13; 빌 4:15; 히 13:16)

4.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은 수직적인 관계(인간이 창조자에게)에 의해 이루어진 수평적인 관계(인간이 인간에게)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필요와 기쁨을 강조한다. 동사 시제는 공동사회에서 이 경험의 처음과 연속성에 중점을 둔다(참조, 1:3[두 번], 6, 7). 기독교는 공동체이다!

특별주제: 기독교는 공동체이다

가. 바울의 복수형 은유들
   1. 몸
   2. 밭
   3. 건물

나. "성도"는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되었다(빌 4:21 은 예외지만, 그것도 역시 공동체이다)

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믿는 자의 제사장직"에 대한 강조점은 정확히 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의 제사장직이다(참조, 출 19:6; 벧전 2:5, 9; 계 1:6). 믿는 자들은 잃어버려진 세상의 구원을 위한 공동체적 의미에서 "제사장들"이지, 개인의 특권이나 우선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 각각의 믿는 자는 유익을 위해 은사가 주어졌다(참조, 고전 12:7)

마. 오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된다. 사역은 집합적이다(참조, 엡 4:11-12).

▣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구절은 전치사와 정관사로 문법적 평행을 이룬다. 이 구문론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동등하심과 그의 신성을 확언한다(참조, 요 5:18; 10:33; 19:7). 이것은 거짓교사들이 의미하는 것처럼(참조, 요일 2:23; 5:10-12), 아들(성육신한 하나님)없이 아버지(높으신 하나님)를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은 요 14:23 의 서로 "안에 사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1: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저자는 여기에서 그의 목적의 하나를 진술한다(참조, 2:1).

▣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완곡한 완료 수동 가정법이다(참조, 요 15:11; 16:20, 22, 24; 17:13; 요이 12; 요삼 4). 믿는 자들의 기쁨은 아버지, 아들, 성령과의 사귐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것은 거짓교사들에 대한 붕괴의 관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에서 요한이 진술한 목적은: (1)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교제 (2) 기쁨 (3) 확신이다. 부정적인 면에서, 그의 목적은 영지주의 교사들의 잘못된 신학에 대하여 믿는 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개역개정 1:5-2:2

**[5]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1:5 "우리가. . .듣고. . . 소식은" 대명사 "우리"는 요한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에 대하여 듣고 따르던 다른 목격자를 말한다. 요한은 2:1 에서 직접적으로 그의 독자들(너희)에게 말한다. 아마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일컫는 것 같다.

동사 "듣다"는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1:1-4 의 육체적 감각과 관계있는 생생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반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현장에 개인적으로 참여했던 것을 확언하는 것이다. 요한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계시를 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나는~이다"의 진술문들이 예수님의 사적인 가르침에 대한 요한의 기억이었다는 것은 가능하다.

▣ **"그에게서"** "그에게서"는 1:5-2:2 의 전체 단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유일한 대명사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나타내셨다(참조, 요 1:18).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세 가지 목적을 위해 오셨다: (1) 아버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참조, 1:5) (2) 믿는 자들에게 따를 모범을 주시기 위해(참조, 1:7) (3) 죄있는 인간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참조, 1:7; 2:2).

▣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기에는 관사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계시적이며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딤전 6:16; 약 1:17). 영지주의 거짓교사들은 빛은 지식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지만, 요한은 그것이 윤리적인 청결 또한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빛"과 "어두움"은 일반적인 용어이다(또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윤리적 이원론은 사해사본과 초기 영지주의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선하고 악한것, 또한 아마 영지주의 이원론인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사이의 이원론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요한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신학적 주장중의 하나이다. 다른 주장은 (1)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참조, 4:8, 16) (2) "하나님은 영이시라"(참조, 요 4:24)이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가족은 그의 인격을 나타내야만 한다(참조, 마 5:14). 사랑, 용서, 순수성을 가진 삶으로 변화되고 변화 되고 있는 것이 참된 회심의 증거이다.

▣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것은 강조를 위한 이중 부정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인격에 대한 주장이다(참조, 딤전 6:16; 약 1:17; 시 102:27; 말 3:6).

1:6 "만일 우리가. . .하고" 이것은 여러 개의 제 3 유형 조건절 중 처음 것으로서 거짓교사들의 주장을 가리킨다(참조, 1:8, 10; 2:4, 6, 9). 이 진술들은 거짓교사들의 주장을 식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은 초기(시초)의 영지주의에서 나타난다.

추측되는 반대자에 대한 문학적 기교는 통렬한 비난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질문/대답형식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말라기(참조, 1:2, 6, 7, 12; 2:14, 17; 3:7, 14)와 로마서(참조, 2:3, 17, 21-23; 3:1, 3, 7-8, 9, 31; 4:1, 6:1; 7:7)에서 명확하게 보여진다

▣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단들은 사귐이 오직 지식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플라톤의 사상에서 나온 헬라 철학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고 요한은 주장한다(참조, 7 절; 레 19:2; 20:7; 마 5:48).

▣ **"*아직* 어둠에 행하면"** "행하다"는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이것은 도덕적 삶의 양식을 표현하는 성경적 은유이다(참조, 엡 4:1, 17; 5:2, 15). 하나님은 어두움과 함께하지 않는 빛이시다. 그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와 같아져야 한다(참조, 마 5:48).

▣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것은 둘 다 현재 시제 동사이다. 요한은 여러 종류의 종교적인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부른다(참조, 1:10; 2:4, 20; 4:20; 또한 사 29:18 을 보라). 삶의 양식에서 나오는 행동들은 실제로 마음을 나타낸다(참조, 마 7 장). 요 6:55 의 특별주제: 요한의 글에 쓰인 진리를 보라.

1:7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은 또 다른 현재 시제로서 계속되는 행동을 강조한다. "행하다"는 그리스도인 삶을 위한 신약의 은유이다(즉, 엡 4:1, 17; 5:2, 15).

"행하다"와 현재 시제 동사가 얼마나 자주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되는지 주목하라. 진리는 우리가 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는 어떤 것이 아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의 중심 개념이다.

▣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참조, 마 5:48).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잃어버린 세상에 나타내야 한다. 구원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로서 두 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의 연합적 관계를 의미한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삶을 나누는 믿는 자들을 기초로 한다. 만일 우리가 용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랑에 대한 그의 사역을 받아들여야 한다(참조, 요일 3:16). 하나님을 아는 것은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라, 친밀한 교제와 거룩한 삶이다. 기독교의 목표는 우리가 죽은 후의 천국 뿐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도 의미한다. 영지주의적 이단은 배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도 바른 관계를 가질 것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 부족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눈에 띄는 표시이다(참조, 4:20-21; 마 5:7; 6:14-15; 18:21-35).

▣ **"예수의 피"** 이것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서의 죽음을 의미한다(참조, 사 52:13-53:12; 고후 5:21). 이것은 2:2 의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화목 제물)이니"와 매우 비슷하다. 이것은 침례(세례)요한이 말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와 같은 내용이다(참조, 요 1:29).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초기의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참 인간성을 부인했다. "피"에 대한 요한의 사용은 예수님의 참 인간성을 강화한다.

▣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죄"라는 단어는 관사가 없는 단수형이다. 이것은 죄의 모든 종류를 의미한다. 이 절이 한 번의 깨끗해짐(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계속되는 깨끗함(그리스도인의 삶)에 초점을 맞춘 것에 주목하라. 두 가지 모두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부분이다(참조, 요 13:10).

1: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죄는 타락한 세상의 영적인 실재이다. 요한복음은 자주 이 문제를 거론한다(참조, 9:41; 15:22, 24; 19:11). 이 절은 개인적인 도덕의 책임을 부인하는 모든 고대와 현대의 주장을 거부한다.

▣ **“스스로 속이고”** 여기의 헬라어 구절은 개인적인 진리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지, 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거룩한 하나님에 의하여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부인이 아니라 인정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진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인격을 의미할 수 있다(참조, 요 14:6).

1:8, 9 이것은 둘 다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1:9 “자백하면” 이것은 헬라어 단어 “말하다”와 “같은 것”의 합성어이다. 믿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반해 왔다는 것을 계속 인정한다(참조, 롬 3:23). 이것은 현재 시제로서, 계속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자백은 (1)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9 절) (2) 공공적으로 죄를 인정하는 것(참조, 마 10:32; 약 5:16) (3) 특정한 죄에서 돌아서는 것(참조, 마 3:6; 막 1:5; 행 19:18; 약 5:16)이다. 요한일서는 이 단어를 꽤 자주 사용한다(참조, 1:9; 4:2, 3, 15; 요이 7). 예수님의 죽음은 용서에 대한 의미이지만, 죄인인 인간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하고 구원받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응답해야 한다(참조, 요 1:12; 3:16). 요 9:22-23 의 특별주제: 시인함을 보라.

▣ **“우리 죄”** 복수형에 주목하라. 이것은 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 **“그는 미쁘시고”**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참조, 신 7:9; 32:4; 시 36:5; 40:10; 89:1, 2, 5, 8; 92:2; 119:90; 사 49:7; 롬 3:3; 고전 1:9; 10:13; 고후 1:18; 살전 5:24; 딤후 2:13). 이 진리는 우리의 가장 확실한 희망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히 10:23; 11:11). 이것은 또한 죄의 용서를 약속하는 렘 31:34 에 약속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의미할 것이다.

▣ **“의로우사”**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과 관계된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이상하다. 그러나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하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취급하시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방법을 공급하셨기 때문이다. 2:9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용서하여)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의 두 동사는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 이 두 단어는 문맥에서 동의어이다: 그것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계속적으로 깨끗해져야 하는 필요의 두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참조, 사 1:18; 38:17; 43:25; 44:22; 시 103:3, 11-13; 미 7:19). 복음을 부인하는 거짓교사들은 구원이 필요했다.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교제의 회복이 필요하다. 요한이 첫 번째 그룹에게는 암시적으로 두 번째 그룹에게는 설명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다.

1:10 “만일 우리가. . .하면” 1:6 의 설명을 보라.

▣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과거나 현재에 죄를 결코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죄를 짓다”는 단수형이며 일반적인 죄를 가리킨다. 이 헬라어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다”라는 뜻이다. 죄는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 죄를 범하는 것과 또한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교사들은 구원이 삶이 아닌 지식에만 관계된다고 주장한다.

▣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복음은 모든 인간의 죄에 기초한다(참조, 롬 3:9-18, 23; 5:1; 11:32). 하나님(참조,롬 3:4)이 거짓말을 하시고 있거나, 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로고스* 단어의 이중적인 면인 메시지와 인격을 포함한다(참조, 1:1, 8; 요 14:6). 요한은 이것을 종종 “진리”라고 말한다.

2:1 “나의 자녀들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두 가지의 약간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1) *테크니온*(참조, 2:1, 12, 28; 3:7, 18; 4:4; 5:21) (2) *파이디온*(참조, 2:14, 18). 그것들은 신학적으로 의도된 구별이 없는 동의어이다. 이와 같이 애정이 있는 단어들의 사용은 이 글을 쓸 때 요한의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인 것 같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 요한은 습관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생활양식(참조, 3:6, 9)인 현재 시제와, 유혹에 분투하면서 범하게 되는 개인적인 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는 두 가지의 극단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1) 죄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참조, 롬 6:1; 요일 1:8-10; 3:6-9; 5:16) (2) 개인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거칠고 파괴적인 태도. 이 두 극단은 아마 영지주의적 가르침의 두 학파를 반영할 것이다. 한 그룹은 구원이 지적인 문제라고 느꼈다; 몸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영지주의의 다른 그룹 또한 몸은 악하다고 믿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몸의 욕구는 반드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또는 가능한 행동을 말한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범한다(참조, 롬 7 장).

▣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변호자(*파라클레오스*)이신 예수님의 계속적인 중보를 의미한다. 이것은 변호사나 "돕기 위해 옆에 불리워진 사람"이라는 법적용어이다(*파라*는 옆에, *클레오*는 부르다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거주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다락방 설교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참조, 요 14:16, 25; 15:26; 16:7). 그러나 이 단어는 예수님에 대해 오직 한 번 여기서 사용되었다(비록 이것은 요 14:16; 히 7:25; 9:24 에 함축되었지만). 롬 8:34 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일을 위해 같은 개념을 사용했다. 또한 롬 8:26 에서, 바울은 성령의 중보에 대해 같은 구절로 말한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보내신 하늘에 계신 보혜사(예수)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성령)가 우리에게 있다.

▣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9 에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거룩하심, 하나님과 같으심)을 말한다(참조, 3:5; 고후 5:21; 히 2:18; 4:15; 7:26; 벧전 2:22). 예수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다.

2:2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그 자신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신개정표준역(NRSV)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다"**
현대영어성경(TEV)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 위한 방법이다"**
신예루살렘성경(NJB), 개정표준역(RSV	**"그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희생 제물이다."**

*힐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속죄에 대한 은혜의 자리나 장소라고 불리는, 언약궤의 덮개로 70 인역에서 사용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자리에 자신을 놓으셨다(참조, 4:10; 롬 3:25).

헬라-로마의 세계에서 이 단어는 지불된 값에 의해 하나님과의 분리된 교제에 대한 회복의 개념을 의미했지만, 70 인역에서는 이 의미가 아니다. 속죄의 날에 나라의 구속을 얻기 위한 장소인 지성소에 위치한 언약궤의 덮개를 말하는 "은혜의 자리"를 번역하기 위해 70 인역과 히 9:5 에서 이것이 사용되었다(참조, 레 16 장).

이 단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혐오감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그의 적극적 구속의 태도를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이것에 대한 훌륭한 토론은 제임스 스튜어트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214-224 쪽에서 발견된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반영하도록 번역해야 한다; "화목 제물"; "화목의 능력으로."

현대 영어 번역들은 희생 제물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따르다. "화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셨다는 의미이다(참조, 롬 1:18; 5:9; 엡 5:6; 골 3:6).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참조, 롬 3:25; 고후 5:21; 히 2:17).

어떤 학자들은(즉, C. H. 다드) 이교도(헬라)의 개념(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야웨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느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참조, 요 1:29; 3:16)를 다루는 것이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속죄"를 오히려 더 좋아한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성경적으로 진리이다.

▣ **"우리 죄를 위한. .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것은 제한없는 속죄이다(참조, 4:14; 요 1:29; 3:16, 17; 롬 5:18; 딛 2:11; 히 2:9; 7:25). 예수님은 죄를 위해 그리고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참조, 창 3:15). 그러나 인간은 반드시 반응을 시작하고 믿음, 회개, 순종, 인내로 계속 반응해야 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한은 왜 오감에 포함되는 그렇게 많은 동사들을 사용했는가?

2. 7 절 9 절에 발견되는 희생 제물의 용어들을 열거하라.
3. 요한일서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단들의 믿음을 설명해 보라.
4. 영지주의자들과 믿는 자들이 9 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5. "자백"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의를 내려보라.

요한일서 2:3-3:3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우리의 보혜사 그리스도	그와의 사귐의 기초	순종	우리를 돕는 자이신 그리스도	빛 가운데 행하기
	(1:5-2:2)			(1:5-2:28)
	그를 아는 것에 대한 시험		2:1-2	두 번째 조건: 특별히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
	2:3-11	2:3-6	2:3-6	2:3-11
새 계명		서로에 대한 사랑	새 명령	
2:7-14		2:7-11	2:7-8	
	그들의 영적 상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2:9-11	세 번째 조건: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2:12-14	2:12-14	2:12-13	2:12-17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대한 참된 평가	2:14	
2:15-17	2:15-17	2:15-17	2:15-17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속임	참 믿음에 대한 충성	그리스도의 적	네 번째 조건: 적그리스도를 대하여 경계하기
2:18-25	2:18-23	2:18-25	2:18-19	2:18-28
			2:20-21	
	진리가 네 안에 머물게 하라		2:22-23	
	2:24-27		2:24-25	
2:26-27		2:26-27	2:26-27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기
(2:28-3:10)				
2:28-3:3	2:28-3:3	2:28	2:28-29	
				(2:29-4:6)
		2:29		2:29-3:2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2:3-3:3 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반복되는 주제 때문에 요한일서의 개요를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특징인 1 장의 주제가 2 장에서 계속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나. 1 장과 2 장 사이에 구조적인 평행이 있다. 요한은 영지주의의 잘못된 주장과 대조되는 메시지를 제시한다.

1 장	2 장
1. 만일 우리가. . .하면(6, 7 절)	1. ~하는 자는(4-5 절)
2. 만일 우리가. . .하면(8, 9 절)	2. ~하는 자는(6 절)
3. 만일 우리가. . .하면(10 절)	3. ~하는 자는(8-11 절)

다. 다음은 참된 신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시험들과 증거를 열거한다(2:3-25)
1. 기꺼이 죄를 고백함(처음과 계속적으로)(1:5; 2:22)
2. 순종의 생활양식(2:3-6)
3. 사랑의 생활양식(2:7-11)
4. 악한 것과 악한 자를 이김(2:12-14)
5. 세상을 버림(2:15-17)
6. 인내(2:19)
7. 교리(2:20-24)

라. 특별한 신학적 개념들(2:18-19 에서)
1. “마지막 때”(18 절)
   ㄱ. 이 구절과 비슷한 구절인 “마지막 날들”은 예수의 베들레헴 탄생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천국은 도래했지만, 아직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ㄴ. 구약의 사람들은 그들이 당면한 악한 시대와 미래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질 의의 시대인 두 시대를 믿었다. 구약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구원자로서 그리고 두 번째는 완성자로서 오실, 두 번의 메시아의 오심이다. 이 두시대가 겹쳐진다.
   ㄷ. 이것은 지정되지 않은 시간대로서 “시간”이라는 단어의 은유적 사용이다(참조, 요 4:21, 23; 5:25, 38; 16:2).
2. “적그리스도”(18 절)
   ㄱ. 오직 요한만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참조, 2:18, 22; 4:3; 요이 7). 2:18 의 복수형과 단수형의 사용을 주목하라(참조, 요이 7).
      1) 다른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다: (1) 다니엘(참조, 7:7-8, 23-26; 9:24-27 (2) 예수(참조, 막 13; 마 24) (3) 요한(참조, 계 13) (4) 바울(참조, 살후 2 장).
      2) 요한은 또한 종말에 나타날 사람과 언제나 이 세상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 혹은 태도 사이에 구분을 지었다(참조, 2:18; 4:3; 요이 7; 막 13:6, 22; 마 24:5, 24).
      3) 헬라어에서 전치사 *안티*는 (1) 대항하여 또는 (2) ~대신을 의미할 수 있다. 이것은 18 절에서 단수형과 복수형 둘 다 사용되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있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1 항의 의미가 사용된다):
         ㄱ) 에피파네스 안디옥쿠스 4 세(단 8; 11:36-45 의 작은 뿔)
         ㄴ) 네로와 도미티안(메시아적 개념이 없는 하나님을 주장했다)
         ㄷ)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ㄹ) 세상적인 인본주의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2 항의 의미가 사용된다).
         ㄱ) 막 13:6, 22 과 마 24:5, 24 의 거짓 교사들
         ㄴ) 현대 이교종파 지도자들
         ㄷ) 적그리스도(단 7:8; 9:23-27; 살후 2:3; 계 13 장)
      4) 모든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잘못된 교사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메시아를 경험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의 어느 날, 한 특별한 악의 화신은 위의 두 가지를 다 행할 것이다!

3.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19, 24, 27, 29 절)
   ㄱ. 대부분의 현대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결심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확실히 진리이다. 그러나 성경의 강조는 결심이 아니라, 제자도이다(참조, 마 28:19-20).
   ㄴ. 믿는 자의 안전한 교리는 인내의 교리와 단절될 수 없음이 틀림없다. 요 8:31 의 특별주제를 보라.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꼭 해야만되는 성경의 실재이다. 실제로 “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경고이다!
   ㄷ. 거하는 것에 대한 다른 구절은 마 10:22; 13:1-9, 18-23; 막 13:13; 요 8:31; 15:1-27; 고전 15:2; 갈 6:1; 계 2:2, 7,11, 17, 26; 3:5, 12, 21; 21:7 이다. 2:10 의 특별주제: 거함을 보라.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2:3-6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2:3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를 알아온 것을 우리가 안다”이다. 이것은 상처를 입은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구원에 대하여 완전한 확신을 갖을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 완료 능동 직설법이 따라오는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알다”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교제에 대한 히브리식 의미로 사용되었고(참조, 창 4:1 렘 1:5), 어떤 것과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헬라어 의미로 사용되었다. 복음은 인격적인 면과 진리의 내용 둘 다를 말한다. 이 구절에서의 강조는: (1)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2) 우리는 그가 우리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안다 (3)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알 수 있다이다!(참조, 5:13).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확신의 한 가지는 우리의 행동과 동기에 의해 드러내어 진다(참조, 마 7 장;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것은 요한일서의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2:3, 5; 3:24; 4:13; 5:2, 13).

요한의 글에서 “알다” 의 두 가지 헬라어 단어(*기노스코*와 *오이다*)는 자주 사용되었고(요한일서의 다섯 장에서 27 번 사용), 또한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이 단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의미적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단어들의 선택은 문체에 따라서이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 또한 흥미롭다.

요한은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것처럼 믿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것을 쓰고 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신약의 어떤 책들보다 “알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요한일서는 복음의 지식을 기초로 하는 확신과 그에 비례하는 사랑과 순종의 생활양식에 대한 책이다(참조, 야고보서)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조건적인 요소(현재 능동 가정법)를 주목하라. 이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인간의 회개하는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조건으로 한다(참조, 2:3-5; 3:22, 24; 5:2, 3; 요 8:51-52; 14:15, 21, 23; 15:10; 계 2:26; 3:8, 10, 12:17; 14:12). 참된 회심에 대한 증거의 하나는 빛에 대한 순종이다 (예수님과 복음 모두에). 구약에서도 희생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했다(참조, 삼상 15:22; 렘 7:22-23).

2:4 “그를 아노라” 이것은 거짓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다(참조, 1:6, 8, 10; 2:4, 6, 9). 이것은 말라기, 로마서, 야고보서와 비슷한 통렬한 비난이다(“~하는 자는”). 거짓교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했지만(완료 시제) 도덕적인 생활양식에서 구원을 분리하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주장했지만, 그들의 생활양식은 그들의 참 동기를 드러냈다.

▣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습관적 생활양식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적 경향성을 드러낸다. 4 절은 진리를 부정적으로 나타내고, 5 절은 같은 진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한다.

▣ **“거짓말하는 자요”** 제멋대로 속이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다! 순종은 참된 회심의 증거이다. 당신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것이다(참조, 마 7 장).

2: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으로서 습관적 생활양식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말한다. *요한서신서의 핸드북*의 저자(하스, 욘게, 스웰른그레벨)는 이것의 헬라어 구조에 대해 흥미로운 설명을 한다: “헬라 불변화사인 ‘안’ 또는 ‘*에안*’과 함께 쓰인 관계대명사와 뒤따르는 가정법에서의 동사는 3:17, 22; 4:15; 5:15; 요삼

5 에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환경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인다”(40 쪽). 순종은 언약적인 믿음의 중요한 면이다. 이것은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의 중심 내용이다.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말씀과 씌어진 말씀을 죄된 생활양식으로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다!

▣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완성된 행동을 말한다(참조, 4:12, 17, 18). 이것은 여기의 소유격이 문법적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지, 또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완전한”(*텔로스*, 참조, 4:12, 17, 18)이란 단어는 할당된 임무에 대한 성숙한, 완전한, 또는 충분히 준비된이라는 의미로서, 죄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참조, 1:8, 10).

▣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다시,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믿는 자들의 능력을 강조한다. 그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에 대한 개념은(거함, 참조, 6 절) 요한의 글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요 14:20, 23; 15:4-10; 17:21, 23, 26; 요일 2:24-28; 3:6, 24; 4:13, 16). 신약은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주장한다(참조, 요일 5:20). 확신을 강조하고 있는 절에서 조차 “~해야한다”는 말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경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라(참조, 2:6, 현재 부정사, “그의 안에 있다”).

2:6 “산다” 2:10 의 특별주제를 보라.

▣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생활양식의 믿음으로서 “참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강조이다. 믿음은 결심뿐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계속되는 개인적 관계도 말한다. 이것은 1:7 과 평행을 이룬다. 기독교의 목표는 우리가 죽을 때 가는 천국뿐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는 섬기는 것을 위해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 보내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의 삶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한다(참조, 요 3:16).

여기서의 대명사들은 그것들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 6 절의 문맥은 “아들”을 말한다(3:2, 5, 7, 16; 4:17).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요한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개역개정 2:7-11

[7]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2:7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은 자주 그의 독자들을 애정어린 용어로 불렀다(참조, 2:1). 이 용어는 예수께서 침례(세례)받으실 때와 변화되실 때 아버지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것이었다. 이것은 3:2, 21; 4:1, 7, 11; 요삼 1, 2, 5, 11 에서 반복되었다. 공인본문은 “형제들아”라고 했지만, 요한일서는 이것을(형제들아) 3:13 에서만 사용했다. “사랑하는 자들아”는 네 개의 가장 오래된 언셜 헬라어 사본들(א, A, B, C)에 의해 지지된다.

▣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 .옛 계명이니”** 이것은 요한의 글의 특징이다(참조, 요 13:34; 15:12, 17). 이 계명은 시간적 용어의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 용어의 새로움이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되었다(참조, 요 13:34).

▣ **“옛 계명”** 2:3 의 “계명”은 복수이지만 여기서는 단수이다. 이것은 사랑이 모든 다른 계명을 성취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갈 5:22; 고전 13:13). 사랑은 복음의 명령이다.

▣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복음 메시지에 대한 독자의 처음 대면을 의미한다 (참조, 24 절; 3:11; 요이 5-6).

▣ **“들은”** 공인본문은 “태초부터”의 구절을 첨가한다(이 절의 앞 부분에서 사용되었다)

2:8 "그에게. . .참된 것이라" 이 대명사의 성은 7 절의 계명을 말하는 여성에서 전체 복음을 말하는 중성으로바뀐다. 대명사의 비슷한 변화가 엡 2:8-9 에서 발견된다.

▣ **"어둠이 지나가고"** 이것은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다(A. T. 로벗슨의 *신약의 워드픽쳐*, 212 쪽).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시대는 시작되었고 그들의 가슴과 마음에서 계속 밝아지고 있다(즉, 이루어진 종말론).

▣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참조, 요 1:4-5, 9). 이것은 진리, 계시, 도덕적 순결을 위한 성경적 은유이다. 1:7 의 설명을 보라.

2:9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정착되어 계속되는 태도를 말한다. 미움은 어둠의 증거이다(참조, 마 5:21-26).

2: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현재 시제 동사들이 이 문맥을 이끈다. 사랑은 믿는 자들의 구원에 대한 증거이고, 진리와 빛에 대한 개인적 관계를 나타내며, 진리와 빛에 대한 지식을 나타낸다. 이것은 새롭지만, 옛 계명이다(참조, 3:11, 24; 4:7, 11, 21).

특별주제: 요한의 글에서의 "거함"

요한복음은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한다. 이것은 순종과 동등을 기초로한 상호적인 친밀함이다.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본대로 행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다.

이와 같은 친밀한 교제와 종의 도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의 관계를 위한 모본이 되었다. 이런 친밀한 연합은 개인적 도취(동방신비주의 안에서)가 아니라, 윤리적, 도덕적 생활양식의 닮음이다. 교제는 (1) 인식적(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복음에 대한 세계관)이고 (2) 관계적(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배워야 할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이다)이며 (3)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다(경건한 믿는 자들 안에서 재현된 예수의 인격).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시며 인간의 표준이시다. 그는 아담이 되었어야 하고, 될 수 있었던 면을 드러내셨다(인간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1) 하나님을 계시함으로 (2) 우리를 위해 죽으시므로(죄값을 대신하심) (3) 인간들이 본받을 모범을 제공하시므로 회복하셨다. "거함"(*메노*)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목표(참조, 롬 8:29)와 타락의 회복(참조, 창 3)을 반영한다.

교제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과 그의 모든 창조물과 인간의 재 연합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와 사도 요한의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과 상통한다.

요한의 사용법을 주목하라:

1.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함
   ㄱ.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요 10:38; 14:10, 11, 20; 17:21, 23)
   ㄴ. 아버지 안에 계신 아들(요 10:38; 14:10, 11, 20; 17:21)
2. 하나님과 믿는 자들 안에 거함
   ㄱ.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아버지(요 14:20, 23; 요일 3:24; 4:12-13, 15)
   ㄴ. 아버지 안에 있는 믿는 자들(요 14:20, 23; 17:21; 요일 2:24, 27; 4:13, 16)
   ㄷ.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아들(요 6:56; 14:20, 23; 15:4, 5; 17:21, 23)
   ㄹ. 아들 안에 있는 믿는 자들(요 6:56; 14:20, 23; 15:4, 5, 7; 요일 2:6, 24, 27, 28)
3. 거함의 다른 요소들(긍정적)
   ㄱ. 하나님의 말씀
      1) 부정적으로(요 5:38: 8:37; 요일 1:10; 요이 9)
      2) 긍정적으로(요 8:31; 15:2; 요일 2:14, 24; 요이 9)
   ㄴ. 하나님의 사랑(요 15:9-10; 17:26; 요일 3:17; 4:16)
   ㄷ. 하나님의 성령
      1) 아들 위에(요 1:32)
      2) 믿는 자들 안에(요 14:17)
   ㄹ. 순종은 거함이다(요 15:10; 요일 3:24)
   ㅁ. 사랑은 빛 안에 거하는 것이다(요일 2:10)
   ㅂ.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다(요일 2:17)
   ㅅ. 기름부음이 거하다(요일 2:27)
   ㅇ. 진리가 거하다(요이 2)
   ㅈ. 아들이 거하다(요 8:35; 12:34)

4. 거함의 다른 요소들(부정적)
   ㄱ. 하나님의 진노가 거하다(요 3:36)
   ㄴ. 어두움에 거하다(요 12:46)
   ㄷ. 버려져. . .사르느니라(거하지 못하고) (요 15:6)
   ㄹ. 범죄함(거하지 못하고)(요일 3:6)
   ㅁ. 사랑하지 않는 것(거하지 못하고)(요일 3:14)
   ㅂ. 살인자(영생이 거하지 않음)(요일 3:15)
   ㅅ. 죽음에(요일 3:14)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그리고 그의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것이 없다"
신개정표준역(NRSV)	"이와 같은 사람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현대영어성경(TEV)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이 없다"
신예루살렘성경(NJB)	"그 안에는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없다"

이 절에는 가능한 두 가지의 번역이 있다: (1) 사랑으로 행하는 믿는 자들은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참조, 11 절) (2) 사랑으로 행하는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마 18:6; 롬 14:13; 고전 8:13). 둘 다 진리이다! 복음은 믿는 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다른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모두).

2: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현재 능동 직설법(행하다)이 뒤따라오는 현재 능동 분사(미워하다)이다. 미움은 불신앙의 표시이다(참조, 3:15; 4:20). 빛과 어두움, 사랑과 미움이 같은 사람 속에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요한의 흑백진술을 대표한다. 그는 이상적인 것을 표현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종종 편견, 사랑하지 않는 것, 무관심과 씨름한다! 복음은 즉석의 변화와 발전적인 변화 모두를 가져온다.

▣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남아 있는 죄의 본성이나(참조, 벧후 1:5-9), 사탄의 활동을(참조, 고후 4:4) 가리킨다. 인간의 세 가지 원수는: (1) 타락한 세상의 구조 (2) 하나의 천사적 유혹자인 사탄 (3) 아담의 본성인 우리 자신의 타락성(참조, 엡 2:2-3, 16)이다.

개역개정 2:12-14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2:12-14 이 절의 모든 동사들은("내가. . 쓰고 있는" 또는 "내가. . .쓰는") 완료 시제로서, 과거의 행동에 대한 계속적인 결과가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이전의 문맥에서 거짓교사들을 언급한 것처럼, 이 문맥에서는 믿는 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세 가지의 다른 호칭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이다. 이 부분은 확신에 대한 생활양식의 문맥과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세 그룹 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태를 묘사하는 문학적 기교일 수 있다.

믿는 자들이 알아야 되는 네 가지의 것은: (1) 그들의 죄가 용서받은 것, 12 절 (2)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마귀를 이긴 것(13 절) (3) 그들이 아버지(14 절)와 아들(13-14 절)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음을 "아는" 것 (4)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강한 것(15 절)이다. 이 목록들은 문법적으로 (1) "내가 너희에게 쓰는"과 (2) 6 개의 *하티*(왜냐하면) 절로 표현되었다.

▣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를 위한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다(완료 수동 직설법). 히브리식 이해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개성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참조, 3:23; 요삼 7; 롬 10:9-13; 빌 2:6-11).

2:13 "태초부터 계신 이" 요한일서에서 대명사는 매우 불분명하고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 문맥에서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선재하심에 대한 진술이므로 그의 신성을 의미한다(참조, 요 1:1, 15; 3:13; 8:48-59; 17:5, 24; 고후 8:9; 빌 2:6-7; 골 1:17).

▣ **"이기었음이라"**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계속되는 약속이고 경고이다(참조, 2:14; 4:4; 5:4-5, 18-19).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 표현된 것으로서 진행의 완성을 말한다. 여기서 다시 요한은 흑백용어를 쓴다(실현된 종말적 승리는

요한복음을 많이 생각나게 한다). 믿는 자는 승리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긴장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죄, 유혹, 박해와 씨름하고 있다.

▣ **"악한 자"** 이것은 14 절에서 다시 언급하는 사탄을 가리킨다. 13 절과 14 절은 평행을 이룬다.

▣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알다"의 성경적 개념은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말하는 히브리식 의미와(참조, 창 4:1; 렘 1:5) "사실에 대하여"라는 헬라 개념을 포함한다. 복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과, 메시지(교리)를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사는 삶 둘 다이다.

2:14 "너희가 강하고" 그들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에서 나옴을 주목하라. 이것은 엡 6:10-18 에 있는 바울의 경고와 비슷하다. 거함이라는 단어가 복음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인 의미에서 개념적이고 개인적이며, 결심이며 제자도이고, 진리이며 신뢰이다.

▣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개념을 인격화한다(복음, 참조, 24 절). 이것은 요 15 장을 암시한다. 이것은 요 5:38 과 8:37 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것은 참 성도의 인내를 강조한다. 이것은 17, 19, 24, 27, 28 절; 5:18; 요이 9 에서 발견된다. 믿는 자들의 안전에 대한 교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끝까지 인내할 것이라는 진리와의 균형이 필요하다(참조, 계 2:7, 11, 17, 26; 3:5, 12, 21). 요 8:21 의 특별주제: 인내의 필요를 보라.

개역개정 2:15-17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2:15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부정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현재 능동 명령형으로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멈추라는 의미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지주의 거짓교사들이 속한 그룹의 한 특성이었다.

▣ **"세상"** 이 단어는 신약에서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1) 물리적 땅 과/또는 창조된 우주(참조, 요 3:16; 16:33; 요일 4:14) (2) 조직화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사회(참조, 요일 2:15-17; 3:1, 13; 4:45; 5:4-5, 19). 처음 것은 처음의 물리적인 창조(참조, 창 1-2)를 말하고 두 번째는 창조물의 타락을 의미한다(참조, 창 3 장).

특별주제: 인간의 정부

I. 서론
   가. 정의 – 정부는 물리적 필요를 공급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인간 자신이 조직한 구조이다.
   나. 목적 – 하나님은 질서가 혼란보다 좋다는 것을 의도하셨다.
      1. 모세의 율법 중 특히 십계명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것은 예배와 삶에 균형을 이룬다.
      2. 비록 고대 이스라엘의 신권정치가 하늘의 기대되는 형태였지만, 어떤 형식이나 조직의 정부도 성경에서 옹호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는 성경적 진리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이 속한 정부의 조직에서 적합하게 행동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복음전도와 사역이지, 혁명이 아니다.
   다. 인간 정부의 출현
      1. 천주교는 인간 정부가 심지어 타락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라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전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말했고, 정부가 "훌륭한 삶의 조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필역했다.
      2. 특히 개신교의 마틴 루터는 인간 정부가 타락의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 왕국의 타락한 모습이다"라고 불렀다. 그는 "나쁜 사람을 조절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통제 속에 나쁜 사람을 두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3. 칼 마르크스는 정부를 소수의 엘리트가 다수를 통제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그에게는 정부와

종교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

II. 성경적 자료들
- 가. 구약
  1.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활용될 모범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야웨는 왕이었다. 신권정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였다(참조, 삼상 8:4-9).
  2. 인간 정부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다음에서 명확하게 보여진다:
     - ㄱ. 렘 27:6; 스 1:1
     - ㄴ. 역대하 36:22
     - ㄷ. 사 44:28
     - ㄹ. 단 2:21
     - ㅁ. 단 2:44
     - ㅂ. 단 4:17, 25
     - ㅅ. 단 5:28
  3. 침략하고 점령한 정부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종하고 존경해야 한다:
     - ㄱ. 단 1-4 장, 느부갓네살
     - ㄴ. 단 5 장, 벨사살
     - ㄷ. 단 6 장, 다리오
     - ㄹ. 에스라와 느헤미아
  4.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ㄱ. 렘 28:7
     - ㄴ. 미쉬나, 에봇 3:2
- 나. 구약
  1. 예수께서 인간정부에 대한 존중을 보이셨다
     - ㄱ. 마 17:24-27; 성전세를 내셨다
     - ㄴ. 마 22:15-22, 로마의 세금과 로마의 공적 권위를 위한 여지를 인정하셨다
     - ㄷ. 요 19:11, 하나님께서 국가의 권한을 주셨다
  2. 바울은 인간정부와 관계있는 말을 했다
     - ㄱ. 롬 13:1-7, 믿는 자들은 권위자들에게 복종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 ㄴ. 딤전 2:1-3, 믿는 자들은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 ㄷ. 딛 3:1, 믿는 자들은 권위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3. 베드로는 인간정부와 관계있는 말을 했다
     - ㄱ. 행 4:1-31; 5:29, 산헤드린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이것은 정부에 대한 불복종을 보인다)
     - ㄴ. 벧전 2:13-17, 믿는 자들은 권위자에게 복종해야 한다.
  4. 요한은 인간정부와 관계있는 말을 했다
     - ㄱ. 계 17 장, 바빌론의 음녀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정부로 서있다

III. 결론
- 가. 인간의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 정하여 진다. 이것은 "왕들의 신적 권한"이 아닌 정부의 신적 위치이다. 어떤 형태도 다른 것 위에 있지 않다.
- 나. 믿는 자들이 적합한 태도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이다.
- 다. 믿는 자들이 세금을 내고 기도로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인간의 정부는 질서를 목적으로 한다. 그들은 이 일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 마. 인간의 정부는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이 정부는 그 권한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이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한계를 넘을 때 믿는 자들은 양심을 따라 정부의 권한을 부인해야만 한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시*에서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두 영역의 시민이다. 하나는 임시적이고 다른 하나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두 영역 모두에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이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은 개인적이고 공동적인 초점을 가지고 있다.
- 바. 우리는 민주적인 구조 안에서 믿는 자들이 정부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가능한 한 성경의 가르침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사. 사회의 변화는 개인적인 회심이 우선되어야 한다. 실제로 지속하는 종말론적 희망이 정부 안에 없다. 비록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지만 모든 인간의 정부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 조직의 죄성을 표현한다.

이 개념이 요한이 사용하는 "세상"에서 표현되어진다.

▣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것은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참조, 16 절)이나 세상이 주는 것들: 능력, 명성, 영향력 등(참조, 롬 12:2; 약 1:27)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타락한 세상의 구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은 인간을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삶을 구성한다. 우리 모두가 감사히 여기는 기관들이 하나님으로 부터 독립되도록 둘 때 그것들이 우상화 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1) 인간정부조직 (2) 인간교육조직 (3) 인간경제조직 (4) 의료조직 등이 포함된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과 같이, 그의 삶 속에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구멍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채울 수 있다! 독립은 에덴의 저주이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사탄의 것이냐를 증거한다.

2:16 "육신의 정욕"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이기주의적 태도를 말한다(참조, 갈 5:16-21; 엡 2:3; 벧전 2:11).

▣ **"안목의 정욕"** 유대인들은 눈을 영혼의 창이라고 생각했다. 죄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행동으로 나아간다.

▣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자랑을 의미한다(즉, 자신들의 방법을 신뢰함). 천주교의 요한학자인 레이몬드 브라운은 *제롬의 성경주석* 2 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나 야고보서 4:16 에서도 발견되는 *알라조네이아*는 단순한 자랑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교만, 허풍, 자신 과잉의 확신을 나타낸다"(408 쪽).

"생명"을 말하는 헬라어 단어는 *바이오스*이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에서의 세상적, 육체적, 일시적 생명을 가리킨다(인간이 식물, 동물과 함께 공유하는 것, 참조, 3:17).

▣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다: (1) 그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참조, 16 절) (2) 세상은 지나가므로(참조, 17 절).

2:17 "이 세상도. . .지나가되" 이것은 현재 중간태 직설법이다(참조, 2:8). 이것은 유대인의 두 시대와 관계된다. 새롭고 완성될 시대는 오고 있다; 죄와 반역의 구시대는 지나가고 있다(참조, 롬 8:18-25).

▣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것은 16 절의 *바이오스*와 하나님의 생명(*조에*)사이의 일시적인 대조이다. 영원한 생명(즉, 문자적으로 "시대안에 거하다)이 지나간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생활양식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것인지 주목하라(참조, 마 25:31-46; 약 2:14-26). 4:34 의 특별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보라.

개역개정 2:18-25

[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18 "아이들아" 2:1 의 설명을 보라.

▣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관사가 없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 마지막 날들"과 같이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구절 중 하나이다(참조, 요 6:39-40, 44).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대에 매우 많은 해석가들이 C. H. 도드의 "실현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나라가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한이 독특하고 강력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실로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본문은 또한 미래에 완성될 일을 드러내고 있다(사건 또는 시기). 둘 다 사실이다. 이것은 이 시대에 겹쳐지고 있는 유대인의 두 시대인 "이미 그러나 아직"(즉, "오고 있다") 사이의 신약적 긴장(역설)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 **"적그리스도. . .많은 적그리스도"** 이 설명적인 구절은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되어있다; 둘 다 관사가 없다. 신약에서 오직 요한만 이 단어를 사용했다(참조, 2:18, 22; 4:3; 요이 7). 2:3-3:3 의 문맥적인 통찰력 라항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 **"오리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헬라어 동사의 어떤 구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구조가 그들의 기능을 대신했다. 디포 동사는 중간태 또는 수동태의 형태이지만 의미상 능동태로 번역되어진다. 여기서의 현재형은 미래 사건에 대한 확실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단수형의 적그리스도는 올 것이고 많은 거짓교사들이나 그리스도와 유사한 거짓 메시아들이 이미 나타났다(많은 적그리스도).

신학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기회의 순간에 세상의 지도력에 발을 들여 놓을 사람들을 이미 준비하였다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다.

▣ **"일어났으니"**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존재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미래적인 표명이 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이 요한 시대의 로마황제를 말한다고 이해한다. 반면에 다른 주석가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 미래의 세계 황제라고 본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둘 다이다! 성육신 하셨을 때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고 완성(예수님의 재림)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의 거짓 가르침과 잘못된 신앙고백들에 대한 완벽한 예이다(참조, 마 7:21-23; 13:1-9, 18-23). 진리, 사랑, 인내에 대한 그들의 부족함은 그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대부분의 이단은 항상 내부에서 나온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동사 시제를 고르는데 매우 조심한다. 19 절은 그것을 반영한다:

1. 거짓교사들이 나갔다(부정과거)
2. 그들은 참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미완료)
3. 만약 그들이 속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과거완료 동사와 함께 쓰였다)

그들이 은혜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에서 오는 삶의 변화를 결코 체험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고 복음을 믿지 않았으며, 결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들은 거짓목자들이며, 거짓 양이다! 요 17:12 의 특별주제: 배교를 보라.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2 유형으로서 사실과 반대되는 명제라고 불린다. 이것은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머무를 것이지만, 그들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머물지 않았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이것은 과거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과거에 완성된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성도의 인내 교리에 관한 여러 인용문 중 하나이다(참조, 24, 27, 28 절). 참된 믿음은 거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다(참조, 마 13:1-23). 요 8:31 의 특별주제를 보라.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너희"는 복수형이다. 헬라어 본문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떠난 사람들과 대조하여 강조되었다. 영지주의는 동방의 "신비주의"종교에서 영향을 받았고, 지식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같게 되는 특별한 기름부음에 대해 가르쳤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특별한 전수)을 받은 자는 믿는 자들이지,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거룩하신 자는 다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성부 하나님(참조, 수 많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고후 1:21) (2) 성자 하나님(참조, 막 1:24; 요 6:69; 행 3:44) 또는 (3) 성령 하나님(그의 호칭인 "성령", 참조, 요 1:33; 14:26; 20:22). 행 10:38 은 신성의 삼위 모두가 기름부으심을 같이 하시는 절이다. 예수님은 기름 부어지셨다(참조, 눅 4:18; 행 4:17; 10:38). 여기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로 이 개념이 확장된다(참조, 27 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된 것이다! 이것은 적그리스도, 많은 적그리스도와 평행이 될 것이다. 육체에 기름을 붓는구약의 상징(참조, 출 29:7; 30:25; 37:29) 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사람들과 연관된다(즉,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또는 *메시아*로 번역된다. 요 11:2 의 특별주제인 기름 부음을 보라.

▣

신미국표준역(NASB)	**"그리고 너희 모두는 안다"**
뉴킹제임스역(NKJV)	**"그리고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신개정표준역(NRSV)	**"그리고 너희 모두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
현대영어성경(TEV)	**"그래서 너희 모두는 진리를 안다"**
신예루살렘성경(NJB)	**"그리고 모두가 지식을 받았다"**

이것은 영지주의 거짓교사들이 그들의 비밀스러운 지식을 주장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진술이다. 요한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지 (27 절; 요 16:7-14; 렘 31:34), 종교에서나 다른 영역에서 또는 지식에서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참조, 3:2). 진리는 복음이나 성령을 의미할 수 있는 기름 부음과 같이 개념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요한은 말한다.

이 구절은 헬라어 사본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NKJV 는 *판타*를 사용한 A, C, K 사본을 따른다. 이 중성 복수형은 직접 목적어로서 사용했다. 한편 NASB 는 *판테스*를 사용한 ℵ, B, P 사본을 따랐다. 이것은 주어인 "너희 모두"를 강조하는 남성 복수형이다. 거짓교사들의 배타적인 관점에서 나중 것이 적합하다. 기름 부음과 지식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뽑히고, 특별하고, 지적이고, 영적인 소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

2:21 이것은 요한의 독자들이 구속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를 아는 것을 확신하는 많은 절들의 하나이다. 이 절에서 확신은, 복음에 주리고 복음의 지식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기초로 한다.

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 구절은 정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은 다음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다: (1) 특별한 거짓 교사(아마 세린투스) (2) 복음에 대한 "큰 거짓말"과 부인(참조, 5:10). "거짓말 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와 동의어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 기본적인 정의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바꿔치기 하려는 자"이다.

2:22-23 "아들을 부인하는 그" 분명히 영지주의 거짓교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예수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분산시키며, 그의 위치를 깎아내렸다(참조, 4:1-6; 5:11-12; 요 5:23).

주후 2 세기의 영지주의 글들을 기초로 신약과 초대교회 교부들의 언급을 통해 드러난 믿음은:

1. 영지주의 자들은 기독교를 헬라철학(플라톤)과 동방 신비주의적 종교에 결합시키려고 시도하였다.
2. 그들은 영은 선하고 물질(육체)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은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육체적 성육신의 가능성은 없다.
3. 그들은 구원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것을 가르쳤다.
   ㄱ. 하나의 그룹은 천사적 영역(*에온*)의 특별한 지식이 단순한 물리적 육체의 활동과 관계없는 영적 구원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ㄴ. 또 다른 그룹은 육체적 금욕주의를 강조한다(참조, 골 2:20-23). 그들은 육체의 완전한 부정을 원하고 갈구 하는 것이 참 구원을 위해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2:23 공인본문에서 아버지를 일컫는 두 번째의 대구 구절 생략됨으로 이 절은 뜻하지 않게 짧아졌다. 이것은 헬라어 언설체 사본인 ℵ, A, B, C 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되고 있다.

▣ **"시인하는 자"** 이것은 22 절[세 번]; 23 절[한 번]; 26 절[1 번]에서의 "부인하는 자"와 정확하게 반대이다. 요 9:22-23 의 특별주제: 시인함을 보라.

▣ **"아들"** 하나님과의 교제는 오직 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참조, 5:10-12, 13). 예수님은 선택이 아니다! 그는 아버지께 가는 오직 그 길이다(참조, 요 5:23; 14:6).

2:24 "너희는" 이것은 요한의 독자들과, 떠난 거짓교사들 및 그들의 추종자들 사이에 매우 강조된 대조를 보인다(참조, 27 절).

▣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것은 거짓교사들의 메시지와의 대조 안에서 "너희"(헬라어 본문은 너희로 시작한다)를 문법적 강조하는 현재 능동 명령형이다. 이것은 거짓교사들(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위해 주어진 두 가지 이유 중 첫 번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언급된 20 절과 27 절에서 발견된다. 메시지와 그리스도의 인격인 복음은 계속해서 "처음부터"의 구절에 의해 연결된다(참조, 13, 14, 24 절[두 번]).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이고 인격이며, 쓰여 있고 살아있다(참조, 1:8, 10; 2:20, 24)! 2:10 의 특별주제인 거함을 보라.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함"과 관계된 계속적인 경고와 권고이다. 끊임없는 거함은 그들이 결코 나누어져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참조, 2:18-19). 생활양식에서 "거함"의 증거는 확신을 가져온다(참조, 요 15 장). 거함은 듣고 받아들인 메시지이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교제이다(참조, 요 14:23). 이것은 적극적(사랑)이고 또는 부정적(세상을 거부함)인 삶의 선택으로 드러난다.

2: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계속해서 25 절의 대명사는 매우 불확실하며 이것은 성부 하나님 또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킨다. 아마 이것은 의도적일 것이다(벧후 1 장처럼). 분명히 이 진술은 요 3:15-15; 6:40 과 매우 같다. 믿는 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인격과 약속에 있다(참조, 사 45:33; 55:11).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실로 영생의 약속인 소망을 가져다 준다(참조, 5:13). 영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역개정 2:26-27

[26]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26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모든 시대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참조, 마 7:15; 24:11, 24; 요이 7). 그들은 종종 신실한 종교인들일 수 있다.

2:27 "기름 부음" 이것은 기름 부음의 중개자(성령)나 기본적 요소(복음의 진리)가 아닌 그것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름 부음은 구약의 개념으로 특별한 부르심이나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떤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용어는 어원론적으로 "메시아"와 연관된다. 여기에서 이것은 복음에 대한 성령의 깨달음이 믿는 자들의 가슴과 마음에 거하는 결과적인 안정성을 의미한다. 요 11:2 의 특별주제인 기름 부음을 보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즉, 특별한 기름 부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요한은 모든 신자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신뢰할 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으며 성령으로 채우심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을 말한다. 24절에서 "기름 부음"은 "너희가 들은"것과 병행한다. 복음은 반드시 (1) 개인의 믿음으로써(참조, 요 1:12) (2) 진리의 내용으로서(참조, 요이 9-10; 고전 15:1-4) 받아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일은 성령의 중재로 이루어 진다.

▣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27 절은 20 절과 병행된다(즉, 새 언약, 참조, 렘 31:34). 요한은 반복되는 주제를 사용하고 있다(20, 24, 27 절).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궁극적이고 없어서는 안될 선생이시다(참조, 요 14:26). 그러나 이것은 교사의 직분과 은사가 초대교회와 오늘날 활동적이지 않다는 뜻이 아니다(참조, 엡 4:11; 행 13:1; 고후 12:28). 이 말은 단지 구원에 관련된 기초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그들을 도구로 종종 사용하실지라도 어떤 특별히 은사받은 인간 교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점이다.

▣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그의 양심에 성령의 훨터를 갖고 있다. 우리는 진리와 윤리의 영역에서 성령게서 온유하게 이끄시는 것에 민감해야만 한다.

▣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법이다. 요한은 "거함"의 개념을 이 서신에서 그의 독자의 중요한 확신으로 사용한다(참조, 요15). 성경적 믿음은 계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용을 정해 놓으시고 우리는 반드시 반응하며 계속적으로 따르는 것(거함)이다! 거함에는 신적인 측면과 인간의 측면 둘 다 관여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거짓 교사들이 믿고 있는 것을 설명하라.
2. 우리가 참으로 구속받았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말하라.
3. 습관적인 죄와 그렇지않은 죄의 관계를 설명하라.
4. 성도의 견인과 신자의 안전의 관계를 설명하라.
5. 사람의 세 가지 적을 열거하고 정의하라.

요한일서 2:28-3:24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바른 행동으로 표현되는 친분관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2:28-3:3	2:28-3:3			
				(2:29-4:6)
				2:29-3:2
		3:1-10	3:1-3	첫 번째 조건: 죄와의 결별
	죄와 하나님의 자녀			3:3-10
3:4-19	3:4-9		3:4-6	
			3:7-8	
	사랑의 명령		3:9-10	
서로 사랑하라	3:10-15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조건: 계명 특히 생명을 지킴
3:11-18		3:11-18	3:11-12	3:11-24
	사랑으로 수고함		3:13-18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3:16-23	그리스도인의 확신	하나님 앞에서의 용기	
3:19-24	진리의 영과 잘못의 영	3:19-24	3:19-24	
	3:24-4:6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문맥적인 통찰

가. 2 장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특히 예수의 인성을 부인한 도세틱 영지주의) 을 다룬다.
나. 3 장은 구원에서 윤리적 도덕적 요소를 분리시킨 거짓 교사들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다. 또한 3 장은 신자들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

단어와 구 연구

> **개역개정 2:28-3:3**
> **28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3:1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2:28 새 문단이 28 절, 29 절 혹은 3:1 절중 어디에서 시작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주석가 사이에 있다. 27 절 28 절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이 곳을 문단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한다.

▣ **"그의 안에 거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법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인내에 대한 세 번째 현재 명령이다(참조, 19, 24). 요 8:31 의 특별주제를 보라.

▣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29 절과 3:2 의 "그가 나타나시면"과 같은 유형이다. 이것은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은 참 신자가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실 것이다!

▣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담대함"(*파레시아*)을 가리키는 헬라어는 "자유롭게 말하다"는 어근에서 왔다.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자의 지식과 신뢰에 기초한 현재 삶의 양식이다. 이것은 여러가지로 신약에서 사용되었다.

1. 담대함, 대담함, 또는 확신은 다음에 관계된다:
   ㄱ. 사람(참조, 행 2:29; 4:13, 31; 고후 3:12; 엡 6:19)
   ㄴ. 하나님(참조, 요일 2:28; 3:21; 4:12; 5:14; 히 3:6; 4:16; 10:19)
2. 공개적으로 감추지않고, 또는 애매하지 않게 말함(참조, 막 8:32; 요 7:13; 10:24; 11:14; 16:25; 행 28:31)
3. 대중에게 말함(참조, 요 7:26; 11:54; 18:20)
4. 어려운 상황에서 담대하게 설교함을 뜻하기 위해 관련된 동사형태(*파레시아조마이*)를 사용함(참조, 행 18:26; 19:8; 엡 6:20; 살전 2:2)

이 문맥에서 이것은 종말론적 확신이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려워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에 확신에 찬 열성으로 이 날을 기다린다.

▣

신미국표준역(NASB)	**"부끄러워 그로부터 움츠러 도망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뉴킹제임스역(NKJV)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개정표준역(NRSV)	**"그 앞에 부끄럽게 하려 함이라"**
현대영어성경(TEV)	**"그로부터 부끄러워 숨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예루살렘성경(NJB)	**"부끄러워 그로부터 움츠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디포) 가정법으로서 (1) 신자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NASB, TEV, NJB) 또는 (2) 신자가 부끄러움을 당한다(NRSV)로 이해할 수 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뻐하여야한다. 하지만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들은 분명히 그가 나타나심을 인해 놀라고 당황하게 될 것이다! 신자의 심판이 있다(참조, 고후 5:10).

▣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것은 재림에 대한 언급이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요한의 글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는데 곧 있을 왕의 방문을 의미하는 말이다.

특별주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가리키는 신약의 용어

이것은 문자적으로 "*파루시아*까지"로서 "임재"를 뜻하며 왕의 방문을 나타내기 위해 쓰였다. 재림을 뜻하는 신약의 다른 용어들은 (1) *에피라네이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나타남" (2) *아포칼리피스* "베일을 벗김" (3) "주님의 날"과 이와 비슷한 구이다. 이 구절에서 "주"의 선행사는 10 절과 11 절의 야웨와 7, 8, 14 절의 예수이다. 이러한 문법적 모호성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한 신약 저자들의 일반적 기교이다.

신약 전체는 구약의 세계관으로 쓰였으며 다음을 주장한다

1. 반역의 시대인 현재의 악
2. 오고있는 의의 새 시대
3. 이것은 메시아(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일을 통한 성령의 작용으로 초래되었다

신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의 기대를 약간 수정했기 때문에 진보적 계시의 신학적 가정이 요구된다. 군사적, 국가적 중심(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는 것 대신에 두 번의 오심이 있다. 첫 번째 오심은 나사렛 예수의 수태와 태어 나심을 통한 하나님의 성육신이었다. 그는 비군사적, 비사법적인 사 53 장의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셨다; 또한 슥 9:9 의 나귀 새끼(전쟁의 말이나 왕의 노새가 아닌)를 탄 겸손한 분이셨다. 첫 번째 오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이지만, 다를 한편으로는 아직 그것은 멀다. 구약으로부터 보이지 않거나 최소한 분명치 않은 유대인의 두 시대가 겹쳐지는 메시아의 두 번 오심 사이의 긴장이 바로 이것이다. 사실상 두 번 오심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야웨의 약속을 강조한다(참조, 창 3:15; 12:3; 출 19:5; 선지자들의 설교, 특별히 이사야와 요나).

대부분의 예언들이 첫 번째 오심을 의미했기 때문에 교회는 구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고 있었다(참조,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는가*(65-166 쪽). 믿는 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늘에서처럼 이 땅위에, 바라던 의의 새시대가 역사적으로 성취하는 것으로서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요 주 중의 주가 영광스럽게 오심이다(참조, 마 6:10). 구약의 제시는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야웨의 능력과 권위로 다시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오심은 성경적 용어가 아니라 그 개념이 전체 신약의 세계관이며 골격을 형성한다.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바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과의 교제는 회복될 것이다. 악은 심판되어지고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하지도 실패할 수도 없다!

2:29 "만일" 이것은 조건절 제 3 유형으로서 잠재력있는 행동을 말한다. 여기서 이것은 믿는 자들은 서로 나누지만 거짓교사들은 놓치게 되는 당연히 알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 **"너희가. . .알면"** 이것은 계속되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현재 능동 직설법이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현재 능동 명령법이다.

▣ **"그"** 28 절; 2:1: 3:7 은 그가 예수님을 일컫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마지막에 있는 대명사 "그에게서 난"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이란 구절이 자주 사용되었기 때문이다(참조, 3:9; 4:7; 5:1, 4, 18; 요 1:13).

▣ **"의로우신. . . 의"** 이것은 가족의 기대되는 특성이다!

특별주제: 의

"의"는 성경을 배우는 학생이 개인적으로 광범위하게 이 개념을 연구해야하는 매우 중대한 주제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징은 "정당한" 또는 "의로운"으로 묘사되어진다. 메사포타미아 용어로 이것 자체는 벽과 울타리가 수평으로 똑바른가를 판단하는 건축 도구로 사용되어온 강가의 갈대에서 왔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 이 단어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똑바른 자이시다.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마땅하신 것처럼 그의 의로우심을 주장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참조, 1:26-27; 5:1, 3; 9:6).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 창조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무대이고 배경이다. 하나님은 그의 걸작인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랑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셨다! 인간의 충성심은 시험되었고(참조, 창 3 장) 최초의 커플은 그 시험에 실패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참조, 창 3; 롬 5:12-21).

하나님은 교제를 보수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참조, 창 3:15).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것을 하신다. 인간들은 이 분열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참조, 롬 1:18-3:20).

타락한 후에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단계는 그의 초대와 인간의 회개, 성실, 순종의 반응을 기초로한 언약의 개념이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참조, 롬 3:21-31; 갈 3 장).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깨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 시작하셔야만 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이것을 하셨다:

1.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죄있는 인간을 의롭다고 <u>공표하심</u>(법정의 의).
2.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통하여 인간에게 의로움을 <u>거저주심</u>(전가된 의)
3. 인간 안에 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거하심을 <u>공급하심</u>(윤리적 의).
4.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을 회복시키신 그리스도에 의해 에덴동산의 교제를 <u>회복시키심</u>(관계적인 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적 반응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정하시고(즉, 거저 주시겠다) 공급하셨지만, 인간은 <u>반드시</u> 반응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1. 회개
2. 믿음
3. 순종하는 생활양식
4. 인내

그러므로 의는 하나님과 그의 걸작품 사이의 언약적이고 상호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일, 성령님의 능력을 기초로 한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또한 계속적으로 합당하게 반응해야만 한다. 이 개념은 "믿음에 의한 칭의"라 불린다. 이 개념은 복음에 드러나 있지만, 성경에 이 용어는 없다. 이것은 바울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정의되었고, 그는 헬라어 단어 "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100 번 넘게 사용하고 있다.

훈련된 랍비인 바울은 히브리어인 *싸딬*을 헬라 문학이 아닌 70 인역을 따라 *디카이오쉬네*로 표현했다. 헬라문학에서 이 용어는 신적이고 사회적인 기대에 들어맞는 사람을 가리킨다. 히브리어의 의미에서 이것은 항상 언약적인 용어이다. 야웨는 정당하고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의 백성이 그의 인격을 본 받기 원하신다. 구속된 인간은 새 피조물이 된다. 이 새로움은 거룩함의 새 생활양식으로 귀결된다(천주교는 칭의에 초점을 맞춘다).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사회의 기준)과 신성한 것(하나님의 뜻)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표현되는 이 구분은 영어로 "정의"(사회와 관계됨)와 "의"(종교와 관계됨)로 번역된다.

예수님의 복음(좋은 소식)은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바울의 역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무죄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 자비, 은혜를 통하여; 아들의 생명, 죽음,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으로의 성령의 간청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경건을 낳는다(종교개혁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거저주심과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사랑과 신실함의 변화된 삶 모두를 의미하는 어거스틴의 입장). 개혁주의자들의 용어인 "하나님의 의"는 목적격 소유격(즉, 죄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만드는 행동[자격적 성화])이고, 천주교의 이것은 좀 더 하나님처럼 되어지는 과정(경험적이고 점진적인 성화)인 주격 소유격이다. 사실상 이것은 둘 다를 말하는 것이 확실하다!!

나의 견해로, 창 4 장부터 계 20 장까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교제를 회복하시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은 이 땅을 배경으로 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참조, 창 1-2 장)로 시작해서 같은 배경으로 막을 내린다(참조, 계 21-22 장). 하나님의 형상과 목적은 회복될 것이다!

위의 토론을 증명하기 위해 헬라어를 설명하는 다음의 신약 구절들을 주목하라.

1. 하나님은 의로우시다(종종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된다)
   ㄱ. 롬 3:26
   ㄴ. 살후 1:5-6
   ㄷ. 딤후 4:3
   ㄹ. 계 16:5
2. 예수님은 의로우시다
   ㄱ. 행 3:14; 7:52; 22:14(메시아의 호칭)
   ㄴ. 마 27:19
   ㄷ. 요일 2:1, 29; 3:7
3.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의로우시다
   ㄱ. 레 19:2
   ㄴ. 마 5:48(참조, 5:17-20)
4. 의를 공급하고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도구
   ㄱ. 롬 3:21-31
   ㄴ. 롬 4 장
   ㄷ. 롬 5:6-11
   ㄹ. 갈 3:6-14
   ㅁ. 하나님께서 주신것

1) 롬 3:24; 6:23
2) 고전 1:30
3) 엡 2:8-9

ㅂ. 믿음으로 받은 것
1) 롬 1:17; 3:22, 26; 4:3, 5, 13; 9:30; 10:4, 6, 10
2) 고전 5:21

ㅅ. 아들의 사역을 통해
1) 롬 5:21-31
2) 고후 5:21
3) 빌 2:6-11

5. 하나님의 뜻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ㄱ. 마 5:3-48; 7:24-27
ㄴ. 롬 2:13; 5:1-5; 6:1-23
ㄷ. 고후 6:14
ㄹ. 딤전 6:11
ㅁ. 딤후 2:22; 3:16
ㅂ. 요일 3:7
ㅅ. 벧전 2:24

6. 하나님은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ㄱ. 행 17:31
ㄴ. 딤후 4:8

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있는 인간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이시다. 이것은
1. 하나님의 명령
2. 하나님의 선물
3.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나 이것은 또한 열심히 확고부동하게 추구해야만 하는 의롭게 되어지는 과정이다; 이것은 재림의 날에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원받을 때 회복되었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하게 되는 죽음의 순간까지 또는 재림 때까지 삶을 통해 진행된다!

IVP 의 *바울과 그의 서신에 대한 사전*에 다음과 같은 훌륭한 설명이 있다.

"칼빈은, 루터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관계적인 면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의 관점은 무죄판결의 면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은 교제의 놀라운 본질 또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심을 강조한다"(834 쪽).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 가지의 면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1. 복음은 인격이다(동방교회와 칼빈의 강조)
2. 복음은 진리이다(어거스틴과 루터의 강조)
3. 복음은 변화된 삶이다(천주교의 강조)

이것들 모두는 진리이고, 건강하고 바르며 성경적인 기독교를 위해 이 모두를 가져야만 한다. 어떤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경시된다면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되기위해 애써야 한다!

▣ **"난"**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외부의 작인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해진 조건을 의미한다(참조, 요 3:3). 기독교(이것은 가족이다)를 묘사하는 다른 가족적인 은유의 사용을 주목하라. 3:1d 의 설명을 보라.

3:1 "보라. . .어떠한 사랑을" 이곳과 요한일서에 사용된 사랑에 대한 용어는 *아가파오*(동사) 또는 *아가페*(명사, 참조, 2:5, 15; 3:1, 16, 17; 4:7, 8, 9, 10, 12, 16, 17, 18; 5:3). 이 용어는 고전적인 헬라어에 사용되었지만 자주 사용된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을 복음의 관점에서 재정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깊이 거하는 사랑을 나타내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이 *필레오*와 동의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참조, 5:20; 11:3, 36; 12:25; 15:19; 16:27; 20:2; 21:15, 16, 17)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러나 믿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항상 연결지어(요한일서에서) 이것이 사용된것은 흥미롭다. 예수님께 둔 믿음과 그분과의 교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사"**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구원의 선물과 연결되는 이 시제의 사용은 믿는 자들의 안전한 교리를 위한 하나의 성경적인 기초이다(참조, 요 10 장; 엡 2:5, 8; 3:14; 5:1).

특별주제: 개인구원의 신약의 증거

이것은 다음에 기초한다

1. 인간의 공적이나 순종에 대한 보상이나 신조가 아닌, 아버지의 인격(참조, 요 3:16), 아들이 하신일(참조, 고후 5:21), 성령의 사역(참조, 롬 8:14-16)이다
2. 이것은 선물이다(참조, 롬 3:24; 6:23; 엡 2:5, 8-9)
3. 이것은 새 생명, 새 세계관이다(참조,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4. 이것은 지식(복음), 교제(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새 생활양식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는 삶) 모두이지 그것들 중 하나가 아니다

▣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가정법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명예로운 호칭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2:29-3:10 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한 것임을 확실하게 한다(참조, 요 6:44, 65). 요한은 믿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가족적인 용어를 사용한다(참조, 2:29; 3:1, 2, 9, 10; 요 1:12).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요한(참조, 요 3:3)과 베드로(참조, 벧전 1:3, 23)는 "다시 태어남" 또는 "위로부터 난"과 같은 가족적인 은유를 사용하고, 바울은 "양자삼음"의 가족적인 은유를(참조, 롬 8:15, 23; 9:4; 갈 4:15; 엡 1:5), 야고보는 "태어나다"(참조, 약 1:18) 또는 "낳다"의 가족적인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기독교인은 가족이다.

▣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것은 현재 직설법이다. 이 구절은 킹제임스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킹제임스역의 기초가 되었던 후기 헬라어 사본에 이 구절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가장 오래된 여러 사본에 나타난다(P^{47} 과 ℵ, A, B, C).

▣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2:15-17 에서처럼, "세상"이라는 단어가 신학적으로 비슷하게 사용되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조직된 인간사회와 그 기능을 말한다(참조, 요 15:18-19; 17:14-15). 세상의 박해와 거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다(참조, 마 5:10-16).

▣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고 거듭 거듭 말씀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요 8:19, 55; 15:18, 21; 16:3). 요한일서에서의 대명사들은 불분명하다. 이 문맥에서 문법적인 선행사는 아버지이지만, 2 절에서 신학적으로 아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참조, 요 12:45; 14:9)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사용한 것 같다.

3:2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요한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참조, 행 1:7). 이것은 또한 2:27 이 모든 면의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심지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상태에서는 장래 일에 대한 그의 지식도 한계가 있었다(참조, 마 24:36; 막 13:22).

▣ **"그가 나타나시면"** "~면"이란 단어는 조건절의 제 3 유형을 시작한다. 이것이 여기서 재림에 대한 질문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알 수 없는 날임을 표현하고 있다.

▣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의 완성을 포함한다(참조, 고후 3:18; 엡 4:13; 빌 3:21; 골 3:4). 이것은 종종 "성화"라고 불린다(참조, 롬 8:28-30). 이것은 우리 구원의 정점이다! 이 종말적 변화는 하나님과 같게 창조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참조, 창 1:26; 5:1, 3; 9:6).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다시 가능하다!

▣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완전하심 안에서 그를 보는 것은 우리가 그처럼 변화되어질 것을 의미한다(참조, 고전 13:12). 이것은 재림 때 믿는 자들의 영화(참조, 롬 8:29)를 의미한다. 만약 "칭의"가 죄의 처벌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성화"가 죄의 능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면, "영화"는 죄의 존재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3:3 "자마다" 2:29 에서 3:10 까지 헬라어 단어 *파스*는 일곱 번 나타난다.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 요한은 강한 흑백논리에서 진리를 나타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사탄의 자녀이다(참조, 2:29; 3:3, 4, 6[두 번], 9, 10).

▣ **"이 소망"** 바울이 사용하던 용어와 거의 비슷한 이것은 종종 부활의 날을 의미한다(참조, 행 23:6; 24:15; 26:6-7; 롬 8:20-25; 살전 2:19; 딛 2:13; 벧전 1:3, 21). 이것은 이 일의 확실성을 표현하지만, 불분명한 시간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요한은 재림의 "이 소망"에 대해 다른 신약의 저자들과는 달리 자주 말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이곳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함"의 유익과 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그가 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참조, 2:18)과 믿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영화(참조, 3:1-3)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깨끗함은 중요하다(참조, 마 5:8, 48). 요 1:12 이 칭의의 과정에서 우리의 협력을 말하듯이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협력해야만 한다(참조, 고후 7:1; 약 4:8, 벧전 1:22). 우리의 구원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주권)과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 있는 같은 긴장이 겔 18:31 과 36:26-27 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보여질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가지시지만(참조, 요 6:44, 65), 그는 언약의 백성이 회개와 믿음의 시작으로 반응하고, 또한 계속적인 회개, 믿음, 순종, 섬김, 예배, 인내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신다.

3:4-10 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가. 이 구절은 때때로 완전한 성화라고 불린 기독교인 완벽주의(참조, 롬 6)와 계속적인 기독교인의 죄성(참조, 롬 7)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나. 우리가 이 본문을 석의하는데 영향을 끼치도록 우리의 신학적 편견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을 독립적으로 완전히 연구하고, 요한일서 3 장과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요한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확실히 알기 전까지 이 본문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본문을 수용해서는 안된다!

다. 이 본문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진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속함에 대한 열망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같은 생각이 롬 6 장에 나타나 있다. 예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죄없는 삶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 그러나 이 구절은 요한일서 전체의 큰 맥락에 속해야만 한다.
1. 1:8-2:2 를 고려하지 않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2. 요한일서 전체 목적인 거짓교사들을 대항하는 구원의 확신을 무시하고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 역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3. 이 구절은 죄없음이나 죄에 대한 무시를 주장하는 거짓교사들과 관계 있음이 틀림없다. 가능한 것은 1:8-2:2 에서 거짓교사들에 대한 하나의 극단적인 것을 다룬다면, 3:1-10 에서는 그 외의 다른 것을 다룬다. 신약의 서신들을 해석하는 것은 전화통화의 절반을 듣고 있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라.

마. 여기의 두 단락 사이에 역설적인 관계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의 죄는 신약에서 반복되는 문제이다(참조, 롬 7). 이것은 예정과 자유의지 또는 안전과 인내와 같은 변증적인 긴장을 형성한다. 이 역설은 신학적 균형을 갖추게 하고 극단적인 견해를 제지한다. 거짓교사들은 죄의 영역에서 두 가지의 잘못을 나타내고 있다.

바. 전체적인 신학적인 토론은 다음의 것들 사이의 다른 점에 대한 오해를 기초로 한다.
1.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
2. 매일의 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그 입장을 이루려는 우리의 노력
3. 어느 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지만(칭의), 아직 우리는 죄의 능력에 대항하여 분투하고 있으며(점진적 성화) 어느날 우리는 죄의 존재에서 자유할 것이다(영화). 이 책 전체는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가르치고 있다.

사. 요한의 문학적 이원론에 또 다른 선택이 있다. 그는 흑백논리 안에서 썼다(사해사본에서도 이것이 발견된다). 요한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지만, 사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 중간은 없다. 이것은 주변적, 문화적, 부분적, 오직 장례식만, 오직 부활절만의 그리스도인에게 자명종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아.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한 몇 가지 참고자료:
1. 이 귀절에 대한 7 가지 전통적인 해석을 보려면 어드만 출판사에서 발행한 존 스토트의 *틴데일 신약주석*에서 "요한서신"을 보라(130-136 쪽).
2. 완전함에 대한 좋은 설명은 비커 힐 출판사에서 발행한 오론 윌리의 *기독교신학* Vol II, 440 쪽 이하를 보라
3.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계속적인 죄에 대한 교리를 다루는 책으로는 장로교 개혁출판사에서 발행한 B. B. 워필드의 "완전함"을 보라.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3:4-10

[4]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3:4

신미국표준역(NASB)	"죄를 짓는 각 사람이 또한 불법을 행하나니"
뉴킹제임스역(NKJV)	"죄를 짓는 자는 누구든지 또한 불법을 행하나니"
신개정표준역(NRSV)	"죄를 짓는 각 사람은 불법의 죄가 있나니"
현대영어성경(TEV)	"죄짓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죄가 있나니"
신예루살렘성경(NJB)	"죄짓는 자는 누구든지 사악하게 행하나니"

대명사 "누구든지"는 이 곳과 6 절에서 앞에 나와 있다. 이 문맥은 모든 인류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 현재시제 동사들은 2:1-2 에 있는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과는 달리 습관적이고, 계속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행동을 지적한다. 그러나 이 본문의(1:7-10 을 3:6-9 과 비교하라) 신학적 문제는 동사의 시제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과 이 책 전체의 문맥을 고려하는 역사적 배경에 의해 해결된다.

이 본문의 또 다른 특징은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이다. 이것은 반역의 태도 그 이상으로 법을 깨뜨림(모세의 율법이나 사회적 규범)을 말하지 않는다. 살후 2:3, 7 에서 똑같은 단어가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것은 단지 규칙이나 표준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온전한 정의(참조, 요 9:41; 롬 14:23; 약 4:17; 요일 5:17)와 그리스도를 닮음이 아닌 것(참조, 5 절)을 뜻할 수 있다.

3:5 "그가 나타나신 것을"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으로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한다(참조, 8 절; 딤후 1:10). 같은 단어 *파네로오*는 그의 재림을 말하기 위해 2 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다. 그는 처음에 구주로 오셨고(참조, 막 10:45; 요 3:16; 고후 5:21), 다시 오실 때는 완성자로 오신다! 내가 좋아하는 교사중의 하나인 빌 헨드릭스는 그의 주석 *요한의 편지*에서 말하기를:

>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에 대한 두 가지 가장 근본적인 진술은 이 절과 8 절에 나온다. 그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3:5), 악마의 일을 부수기 위해(3:8) 나타나신 바 되었다. 누가는 그의 복음 어디에서든지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었다고 기록한다(눅 19:10).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오심은 그의 양이 풍성한 삶을 얻게하려 함이라고 선언한다(요 10:10). 마태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그의 이름에 대한 해석에서 암시하는 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로 말한다(마 1:21). 이 모든 표현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셨다는 점이다"(79-80 쪽).

▣ **"죄를 없애려고"** 이것은 부정과거 가정법이다. 이 일은 인간의 반응, 회개, 믿음에 의하여 되어진다. 이 진술의 배경은 두 가지 사실에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1) 속죄일(참조, 레 16)에 양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진의 죄를 담당했다(참조, 침례[세례]요한이 요 1:29 에서 사용한 것) 혹은 (2)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참조, 사 53:11-12; 히 9:28; 벧전 2:24).

▣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없으심(참조, 요 8:46; 고후 5:21; 히 4:15; 7:26; 벧전 1:19; 2:22)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심의 기초가 된다.

5 절의 앞 부분에서 “죄”가 복수형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단수형임을 주목하라. 앞의 것은 죄의 행위를 가리키고 뒤의 것은 그의 의로우심을 가리킨다. 그 목적은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치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죄는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질적이다.

3: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3:4 과 같이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 절은 1:8-2:2 와 5:16 과 반드시 대조되어야 한다. 요한일서의 서론에서 문맥적 통찰을 보라.

▣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절에서 한 현재 능동 분사뒤에 두 완료 능동 직설법이 나온다. 계속되는 극악한 범죄는 그가 그리스도를 모르며 결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범죄하는 그리스도인은 (1)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훼방하고 (2)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목적을 방해하고 (3) 자신의 영적 근원을 드러낸다(참조, 요 8:44).

3:7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 부정불변화사와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진행중인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거짓 교사들의 존재(참조 2:26)는 요한일서 전체와 특히 1:7-10 과 3:4-10 의 적절한 신학적 이해를 위한 역사적 상황을 제공한다.

▣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 절의 일반적 문맥을 배제하고 교리적 입장(“의를 이루어라”)을 옹호하거나 정죄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 신약은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반드시 반응해야 한다. 우리의 노력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 (참조, 계 22:11)와 구원 이후의 성숙을 명확히 드러낸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u>아니라</u> 선을 “행하도록” 구원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참조, 엡 2:8-9, <u>10</u>). 모든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그들이 죽을 때 갈 천국만이 아니라(법적 칭의)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잠정적 성화)이다(참조, 마 5:48; 롬 8:28-29; 갈 4:19)! 의에 대한 단어연구를 위해서는 2:29 의 특별주제를 보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탄의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 가에 의해 알게 된다(참조, 3:10; 엡 2:1-3).

▣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계속해서 지었다(참조, 요 8:44). 이것은 창조 혹은 천사들의 반역을 의미하는가?

언제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했는지 결정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어렵다. 욥 1-2; 슥 3; 왕상 22:19-23 은 사탄이 하나님의 종이고 천사적 무리의 하나로 나타내는 것 같다. 동방의 자만심있고 거만하며 야심을 가진 왕들(바벨론, 사 14:13-14 또는 두로, 겔 28:12-16)을 사탄의 반역(외견상으로는 덮는 그룹, 겔 28:14, 16)을 말하기 위해 인용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눅 10:18 에서 예수님은 그가 사탄이 하늘로서 빛같이 떨어짐을 보았다고 말했는데, 이 본문은 정확히 언제 그 일이 일어난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악의 기원과 발전에 대하여는 그것이 충분히 계시되지 않았기에 불확실한 것으로 남아 있다. 애매하고 상징적인 본문을 문맥에서 떼어내어 조직화하고 교리화하는 것을 조심하자! 사탄이 종에서 사악한 적으로 발전해 간 것에 대한 구약의 훌륭한 논의는 티앤티 클락사 간행의 A. B. 데이빗슨의 *구약신약* 300-306 쪽에 있다.

▣ **“하나님의 아들”** 아래의 특별주제를 보라.

특별주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주요한 칭호 가운데 하나이다. 가족과 관련된 예수님의 칭호로는 “아들” 또는 “내 아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아버지”가 사용되었다. 이 칭호는 신약에서 124 회 이상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칭하신 “인자”는 단 7:13-14 의 신적 의미를 갖는다.

구약에서 “아들”은 세 그룹에 사용되었다.

1. 천사들(대개 복수형, 참조, 창 6:2; 욥 1:6; 2:1)
2. 이스라엘의 왕(참조, 삼하 7:14; 시 2:7; 89:26-27)
3. 이스라엘 나라 전체(참조, 출 4:22-23; 신 14:1; 호 11:1; 말 2:10)
4. 이스라엘 재판관들(참조, 시, 82:6)

이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두 번째 용법이다. 이 의미에서 “다윗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모두 삼하 7; 시 2, 89 편과 관련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종말론적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경우 외에는 결코 메시아를 가리키지 않는다. 그러나 사해사본에서는 메시아적 의미가 널리 나타난다(*예수와 복음서의 사전*, 770 쪽의 자세한 설명을 보라).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신구약 중간시대에 속한 유대문시문학의 두 책에서 메시아적 호칭으로 사용된다(참조, 에스드라스 상 7:28; 13:32, 37, 52; 14:9 과 에녹 1 서 105:2).

예수님께 사용된 이 호칭의 신약적 배경은 여러 경우로 요약된다:

1. 그의 선재하심(참조, 요 1:1-18)
2. 그의 독특한(처녀) 출생(참조, 마 1:23; 눅 1:31-35)
3. 그의 침례[세례](참조, 마 3:17; 막 1:11; 눅 3:22. 하늘에서의 소리는 시 2 편의 왕의 지위와 사 53 장의 고난받는 종을 하나로 연결한다)
4. 사탄으로부터 받은 시험(참조, 마 4:1-11; 막 1:12, 13; 눅 4:1-13. 예수는 자신이 아들됨을 의심하도록 혹은 적어도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유혹받았다).
5.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ㄱ. 귀신들(참조,막 1:23-25; 눅 4:31-37; 막 3:11-12)
   ㄴ. 불신자들(참조,마 27:43; 막 14:61; 요 19:7)
6. 제자들에 의해 신분을 확인 받음
   ㄱ. 마 14:33; 16:16
   ㄴ. 요 1:34, 49; 6:69; 11:27
7. 자신의 확인
   ㄱ. 마 11:25-27
   ㄴ. 요 10:36
8.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가족적 은유의 사용
   ㄱ. 하나님을 "아바"로 부르심
      1) 막 14:36
      2) 롬 8:15
      3) 갈 4:6
   ㄴ. 자신의 신적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버지(*파이테르*)를 종종 사용하심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구약과 구약의 약속과 용법을 아는 자들에게 신학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신약의 저자들은 이방인들의 "신들"이 여자에게 말을 하고 그 결과 "타이탄" 혹은 "거인"들을 낳게 되는 그들의 이교도적 배경때문에 이 칭호의 사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다.

▣ **"나타나신 것은"** 이것은 헬라어 *파네로오*로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빛으로 가져오다"라는 뜻이다. 5 절과 8 절은 병행되며 둘 다 수동태로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육신에 의해 참으로 드러내셨음을 말한다(참조, 1:2). 거짓 교사들이 가진 문제점은 불확실한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학적/철학적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려 했다는 점이다.

▣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때가 되어 육체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목적은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뤼오*의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 이 동사는 마귀의 일을 "느슨하게 하다", "풀다," 혹은 "멸하다"를 뜻한다.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이 일을 다 하셨지만,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그를 영접함으로써 그가 성취하시고 거저 주시는 선물에 반응해야 한다(참조, 요 1:12). 신약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은 또한 악마를 멸망시키는 것에도 나타난다. 마귀는 패배했지만,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3:9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 아니하나니"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참조, 9c; 2:29; 5:18 사이에 있는 병행)로서 외부적 요인(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을 말한다.

▣ **"죄를 짓지"**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 두 번 사용된 2:1 과 상반된다. 이 진술의 중요성에 대해 두 가지 이론이 있다: (1) 이것은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특히 구원을 지적인 개념으로 전락시킴으로서 도덕적 삶의 양식의 필요성을 제거해 버린 분파들에 관련이 있거나 (2) 현재시제인 동사는 계속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행동(참조, 롬 6:1)을 강조하지 그렇지 않은 죄를 강조함은 아니다(참조, 롬 6:15)는 설명이다. 이 신학적 차이점은 롬 6 장(그리스도안에서 죄없는 삶의 가능성)과 롬 7 장(신자가 죄를 덜 짓기 위해 계속해서 씨름하는 것)에서 나타난다. 역사적인 접근인 (1)항이 더 적절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에도 (2)항이 뜻하는 진리를 적용해야 할 필요를 갖는다. 이 어려운 절에 대한 좋은 논의는 왈터 카이저, 피터 데이비스, F. F. 브루스, 맨 프렌 브라우치가 공저한 *성경의 어려운 말들*, 736-739 쪽을 참조하라.

▣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그의 씨"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가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다. (1) 어거스틴과 루터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다(참조, 눅 8:11; 요 5:38; 약 1:18; 벧전 1:23) (2) 칼빈은 이것을 성령으로 보았다(참조, 요 3:5, 6, 8; 요일 3:24; 4:4, 13) (3) 다른 이들은 이것을 신적 성품 혹은 새 삶으로 보았다(참조, 벧 후 1:4; 엡 4:24) (4) 아마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참조, 갈 3:16) (5) 어떤 이는 "하나님으로 부터 남"의 동의어적 표현으로 본다(참조, 눅 1:55; 요 8:33, 37) (6) 영지주의자들은 분명히 이것을 모든 인간에 있는 신적 불꽃으로 보았다. 민수기 4 장은 이 모든 이론에 대한 가장 적절한 상황적 자료이다.

3:10 이것은 4-9 절의 요약이다. 이것은 두 현재 능동 직설법와 진행중인 행동을 말하는 두 현재 능동 분사로 되어 있다. 신학적으로 이것은 예수의 산상수훈과 병행을 이룬다(참조, 7:16-20). 사람이 어떻게 사는 가는 그의 마음 속 깊은 생각과 그의 영적 경향을 드러낸다.

▣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것은 요한의 셈어족 배경을 드러낸다.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에서는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고 "~의 자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낸다.

개역개정 3:11-12

[11]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3:11 "소식" 이 헬라어 단어(*아겔리아*, 대개 *앙겔리아*로 소리남)는 오직 요일 1:5 과 3:11 에서만 사용되었다. 처음 경우에는 교리적으로 두 번째 경우에는 윤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요한의 균형잡힌 모습을 보여준다(참조, 1:8, 10; 2:20, 24; 3:14).

▣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이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참조, 요 1:1)이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심(참조, 1:1; 2:7, 13, 14, 24; 요이 5, 6)을 연결시키는 문학적 기교이다.

▣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신자가 진정으로 거듭남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참조, 10, 14 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한다(참조, 요 13:34-35; 15:12, 17; 요일 3:23; 4:7-8, 11-12, 19-21).

3:12 "가인" 가인의 삶은 창세기 4 장에 기록되어 있다. 가인과 아벨의 예물이 대조되는 것은 4:4(참조, 히 11;4)에 나온다. 가인의 행동은 인류의 타락이 미친 영향을 드러낸다(참조, 창 4:7; 6:5, 11-12, 13b). 유대교와 기독교에 있어서(참조, 히 11:4; 유 11) 가인은 악한 반역의 보기로 말해진다.

▣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 문법적 구조는 남성 단수(악한 자, 참조 10 절) 혹은 중성 단수(악인의)이다. 이러한 문법적 애매성은 마 5:37; 6:13; 13:19, 38; 요 17:15; 살후 3:3; 요일 2:13, 14; 3:12; 5:18-19 에서 발견된다. 여러 경우에 문맥은 사탄을 가리킨다(참조, 마 5:37; 13:38; 요 17:15).

개역개정 3:13-22

[13]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14]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19]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20]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21]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3:13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법과 부정 불변화사가 함께 나타난 것으로서 종종 이미 진행중인 행동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꾀 좋은 세상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세상이 아니다!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그의 저작목적에 비추어 사실인 것을 가정한다.

▣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세상은 예수를 미워했다;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공통적인 주제이고(참조, 요 15:18; 17:14; 마 5:10-11; 딤후 3:12), 한 사람이 신자인지에 대한 또 다른 증거이다.

3:14 “알거니와”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오이다*는 완료형이나 현재형의 의미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공통적 주제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확신은 (1) 마음의 변화와 (2) 행동의 변화에 관련이 있는데 이 둘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회개”를 뜻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이다.

▣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이것은 또 다른 완료 능동 직설법(참조, 요 5:24)이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것에 대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다. 다른 증거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함이다.

▣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족의 주요 특징이다(참조, 요 13:34-35; 15:12, 17; 요이 5: 고전 13; 갈 5:22).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이다(참조, 4:7-21). 사랑은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의 기초가 아니라 그 결과이다. 사랑은 구원의 기초가 되지 않고 구원의 또 다른 증거이다.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현재 분사가 현재 능동 직설법의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신자가 사랑에 계속 거하듯이 불신자는 미움에 거한다. 사랑처럼 미움은 한 사람의 영적 경향을 말해주는 지표이다.

3:15 “자마다” 요한은 이 용어(*파스*)를 2:29 이후부터 8 번 사용한다. 이 말의 중요성은 요한의 말에서 예외가 없다는 점이다.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과 미워하는 자들이다. 요한은 인생을 파스텔화처럼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검정과 흰색처럼 분명한 구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것은 현재 분사이다(즉, 계속적이고 정착된 미움). 죄는 처음에 생각 속에서 일어났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미워함을 살인과 같은 것으로, 음란한 생각을 간음과 같은 것으로 가르치셨다(참조, 마 5:21-22).

▣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것은 살인을 범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삶의 행동은 마음을 드러낸다. 이말은 습관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사랑과 미움은 근본적으로 드러나게 되있다! 미움은 생명을 가져가지만, 사랑은 생명을 준다.

3:16 “우리가 알고”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15 절에서 헬라어 단어는 *오이다*이고 여기서는 *기노스코*이다. 이것들은 요한의 저작에서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 **“이로써 사랑을”** 예수님은 사랑이 무엇과 같은 지에 대해 최고의 모본은 보이셨다. 신자들은 그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참조, 고후 5:14-15).

▣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시제로서 예수님 자신의 말을 사용하여 갈보리사건을 의미한다(참조, 요 10:11, 15, 17, 18; 15:13).

▣ **“마땅하니라”** 신자들은 예수님의 본에 묶여 있다(참조, 2:6; 4:11).

▣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는 모본이다. 그가 다른 이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한다. 자기 중심적 삶에 죽음을 선언함은 타락과 정반대 방향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협력하여 선을 구하며 사는 삶의 회복이다(참조, 고후 5:14-15; 빌 2:5-11; 갈 2:20; 벧전 2:21).

3:17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현재 가정법이 사용되었다. 16 절의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가능하면서도 실제적으로 형제를 돕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절들은 야고보서에서와 마찬가지로 옳다(참조, 약 2:15, 16).

▣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 마음이란 단어는 글자대로는 “창자”로서 느낌을 나타내는 히브리 표현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아버지를 드러낸다.

3:18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은 말보다 더 소리가 크다(참조, 마 7:24; 약 1:22-25; 2: 14-26).

▣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은 놀라운 용어이다. 우리는 "행위"처럼 "행동"의 동의어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 용어는 진실한(NJB) 혹은 참된(TEV)을 말하는데 1:5 과 3:11 에서의 "메세지"와 같은 용법이다. 이것은 교리와 삶의 양식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이곳에서 "진실함"도 같은 강조점을 지닌다. 행동과 동기는 반드시 자신을 주는 사랑(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시작되어야 하고 결코 공급하는 사람 혹은 주는 사람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 겉으로 생색내는 행동이어서는 안된다.

3:19 "이로써 우리가 알고"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사랑하는 행동을 뜻한다. 이것은 미래 중간태(디포) 직설법으로서 한 사람의 참된 회심의 또 다른 증거이다.

▣ **"진리에 속한 줄을"** 신자의 사랑하는 삶은 두 가지 사실, (1) 그들이 진리의 편에 있음과 (2) 그들의 양심이 깨끗함을 보인다.

3:19-20 이 두절의 헬라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혼동이 있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하는것이다. 이 문맥에서 두 번째 해석이 더 적합하다.

3:20-21 두절 다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3:20

신미국표준역(NASB)	"무엇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뉴킹제임스역(NKJV)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신개정표준역(NRSV)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현대영어성경(TEV)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한다면"
신예루살렘성경(NJB)	"우리 느낌이 혹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모든 신자는 그들이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인해 속으로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양심으로부터의 이러한 아픔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거나(회개케 하기 위해) 또는 사탄으로부터 온다(자기 멸망이나 증거가 되지 못하는 삶을 가져 온다). 이것은 적절한 죄의식이면서 부적절한 죄의식이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책을 읽음으로써(혹은 그의 사자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차이를 안다. 요한은 사랑의 기준에 의해 살고 있으면서 죄와 아직 씨름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헌신과 간과). 요 12:40 의 특별제목인 마음을 보라.

▣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동기를 아신다(참조, 삼상 16:7; 왕상 8:39; 대상 28:9; 렘 17:10; 눅 16:15; 행 1:24; 롬 8:26, 27; 고전 4:4).

3:21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이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죄와 자아로 인해 씨름하고 있다(참조, 2:1; 5:16-17). 그들은 이직 유혹에 직면하며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하게 행동한다. 종종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정죄한다. 한 감리교 찬송(제목과 작사가가 알려져 있지 않다)은 노래하기를:

"그리고 아무도 완전한 쉼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왜냐하면 아무도 온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한 그들이 주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데
그들 안에 커다란 잘못을 느끼고 있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부의 전지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먼지를 깨끗이 치운다!

▣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자유롭게 나아감을 말한다. 이 표현은 요한이 자주 쓰는 말이다(참조, 요일 2:28; 3:21; 4:17; 5:14; 히 3:6; 10:35). 이 표현은 확신의 두 가지 유익을 소개한다: (1) 신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확신을 가진다 (2) 그들은 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3: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과 현재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마 7:7; 18:19; 요 9:31; 14:13-14; 15:7, 16; 16:23; 막 11:24; 눅 11:9-10 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영한다. 성경의 이 약속은 많은 신자들의 기도생활에서 다른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 절은 제한 없이 응답받는 기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곳은 관련된 다른 본문과의 비교에 의하여 신학적인 균형을 갖게 되는 제목이다.

특별주제: 기도, 제한이 없으면서도 제한이 있음

가. 공관복음
1. 신자들이 기도에 인내할 것이 요청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마) 혹은 "그의 성령"(눅; 마 7:7-11; 눅 11:5-13)을 주실 것이다.
2. 교회생활에 대한 문맥에서 신자들(두 명)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요청받는다(마 18:19)
3. 유대교에 대한 판단의 문맥에서 신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것을 요청받는다(마 21:22; 막 11:23-24)
4. 두 비유의 문맥에서(1-8 절, 불의한 재판관, 9-14 절, 바리새인과 죄인) 신자들은 경건치 않은 재판관과 자기 의로 가득찬 바리새인과 다르게 행할 것이 요청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를 들으신다(눅 18:1-14)

나. 요한의 글
1. 예수께서 고치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에 대한 문맥에서, 바리새인들의 참 소경됨이 드러났다. 예수님의 기도는(다른 사람들의 경우처럼) 응답되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었다(요 9:31).
2. 요한복음의 다락방에서의 말씀
   ㄱ. 14:12-14—믿음의 기도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신자의 기도
      2)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
      3) 성부께서 영광받으시기를 소원함
      4) 계명을 지킴(15 절)
   ㄴ. 15:7-10—신자의 기도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예수 안에 거함
      2) 그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함
      3) 성부께서 영광받으시기를 소원함
      4) 많은 열매를 맺음
      5) 계명을 지킴(10 절)
   ㄷ. 15:15-17—신자의 기도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선택받은 자들임
      2) 그들의 열매 맺음
      3)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
      4) 서로 사랑함의 계명을 지킴
   ㄹ. 16:23-24—신자의 기도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예수의 이름으로 구함
      2)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함
3. 요한의 첫 편지(요일)
   ㄱ. 3:22-24—신자의 기도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그의 계명을 지킴(22, 24 절)
      2) 적합하게 삶
      3) 예수를 믿음
      4) 서로 사랑함
      5) 그 안에 거하고 그는 우리 안에 거함
      6) 성령의 은사를 가짐
   ㄴ. 5:14-16—신자의 기도는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1) 하나님께 둔 확신
      2) 그의 뜻을 따라
      3) 신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

다. 야고보
1. 1:5-7—온갖 시험을 직면하고 있는 신자는 의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도록 요청받는다
2. 4:2-3—신자는 반드시 적절한 동기를 갖고 구해야 한다
3. 5:13-18—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신자에게는 다음의 사항이 요청된다
   ㄱ. 장로를 청하여 기도를 부탁한다
   ㄴ.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구원을 이룬다
   ㄷ.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구해야 한다.
   ㄹ. 죄를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요일 5:16 과 비슷하다)

효과적인 기도생활의 열쇄는 그리스도를 닮음이다. 이것이야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 주실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은 그들이 이기적으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부분은 신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하는 사실에 있다.

▣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

1. 순종
2.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행함(참조, 요 8:29).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의 책이다.

개역개정 3:23-24

[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계명"이 동사의 두 가지 상을 가진 단수임을 유의하라. 첫 번째 상은 개인적인 믿음을 말하는 "믿다"라는 동사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라는 점이다(참조, 요 6:29, 40). 두 번째 상은 윤리적인 면을 말하는 동사 "사랑하다"가 현재 능동 가정법이라는 점이다(참조, 3:11; 4:7). 복음은 믿어야 할 말씀이고, 영접해야 할 분이고,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이다!

▣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믿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다. 구약에서 아멘은 "충성," "믿을 수 있음," "의뢰할 만 함," 혹은 "신실함"을 뜻한다. 신약에서 헬라어(피스튜오)는 세 가지 다른 용어로 번역되었다: 믿다, 믿음을 갖다, 혹은 신뢰하다. 이 용어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영한다.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계시와 약속이지, 그들이 구속함을 받았을지라도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에게 있는 충성됨이나 신실함이 아니다!

"이름"을 믿는 것과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근동에서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점을 반영한다

1. 예수 마 1:21, 23, 25; 2:22; 10:22; 12:21; 18:5, 20; 19:29; 24:5, 9; 요 1:12; 2:23; 3:18; 14:26; 15:21; 17:6; 20:31 에서
2. 성부 마 6:9; 21:9; 23:29; 요 5:43:10:25; 12:13; 17:12 에서
3. 삼위일체 마 28:19 에서

이 절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기술적인 설명. A.T.로벗슨은 *신약의 워드픽쳐*(228 쪽)에서 "믿다"라는 동사와 관련하여 헬라어 사본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인 B, K, L 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으로 나타내는 반면, ℵ, A, C 는 현재 능동 가정법으로 나타낸다. 둘 다 문맥과 요한의 스타일에 들어맞는다.

3:24 "지키는 자는 ~ 거하고" 이것은 모두 현재형이다. 순종은 거함과 관련된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의 증거이다(참조, 4:12, 15-16; 요 14:23; 15:10). 2:10 의 특별주제인 거함을 보라.

▣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참 신자를 알기위하여 어떤 증거를 말하고 있다(참조, 롬 4:13; 8:14-16). 두 가지 사실이 성령과 관련된다: (1) 예수를 고백함(참조, 롬 10:9-13) (2) 그리스도를 닮은 삶(참조, 요 15; 갈 5:22; 약 2:14-26).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11-24 절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무엇인가?(참조, 요 2:7-11)?
2. 16 절과 17 절의 관계를 설명하라. 어떻게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형제를 돕는 것과 관계가 있는가?
3. 19-20 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을 강조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강조하는가?
4. 22 절에서 기도에 대해 요한이 말한 것을 어떻게 우리의 매일의 경험에 연결시킬 수 있는가?
5. 그리스도인이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하며 또한 죄없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상반되게 보여지는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6. 왜 요한은 이렇듯 삶의 양식에 커다란 강조점을 두는가?
7. "거듭남"과 관련된 신학적 진리를 설명하라.
8.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에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요한일서 4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과 잘못됨의 영	진리와 잘못의 분별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	제 3 의 조건: 적그리스도와 세상에 대하여 주의함
	3:24-4:6			
4:1-6		4:1-6	4:1-3	4:1-6
			4:4-6	사랑과 믿음의 원천
				(4:7-5:13)
하나님은 사랑이심	사랑안에서 하나님을 앎	사랑함의 축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원천
4:7-12	4:7-11	4:7-12	4:7-10	4:7-5:4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봄		4:11-12	
	4:12-16			
4:13-16a		4:13-16a	4:13-16a	
4:16b-21	사랑으로 성취함	4:16b-21	4:16b-18	
	4:17-19			
	믿음으로 순종함		4:19-21	
	4:20-5:5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4:1-21 절에 대한 문맥적인 통찰

1. 요일 4 장은 하나님을 대변하여 말한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사실을 알 수 있는가를 다룬 매우 특별한 문학적 단위이다. 이 본문은 (1) 적그리스도들로 불리는 거짓 선지자들(참조, 2:18-25) (2)

속이려는 자들(참조, 2:26; 3:7)과 (3) 특별한 영적 진리들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과 관계가 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처한 어려운 상태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고전 12:10; 14:26-33; 살전 5:20-21; 요일 4:1-6). 영적분별은 교리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한다(참조, 약 3:1-12).

2. 요한일서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들로 인해 구조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은 4 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4 장은 믿는 자가 서로 사랑해야하는 주제와 같이 이미 앞에 있는 장에서 다룬 진리를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진다(참조, 7-21 절; 2:7-12; 3:11-24).
3. 요한은 거짓 교사들을 대항하기 위해 또한 참된 신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고 있다. 그는 여러가지 시험을 사용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
   ㄱ. 교리적 시험(예수를 믿음, 참조, 요일 2:18-25; 4:1-6, 14-16; 5:1, 5, 10)
   ㄴ. 생활양식의 시험(인내, 참조, 요일 2:3-7; 3:1-10, 22-24)
   ㄷ. 사회적 시험(사랑, 참조, 요일 2:7-11; 3:11-18; 4:7-12, 16-21; 5:1-2)

   성경의 여러 곳에서 여러 거짓 교사에 대해 말한다.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로 인한 이단에 대해 말한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진리가 아닌 다른 그룹에 대해 말한다(참조, 요 1:13; 롬 10:9-13; 고전 12:3). 어떤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문맥을 따로 연구해야 한다. 잘못된 가르침의 출처는 다양하다:
   ㄱ. 유대교 율법주의자
   ㄴ. 헬라 철학가
   ㄷ. 헬라 도덕률 초월론 자
   ㄹ. 특별한 영적 계시나 경험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자들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4:1-6

[1]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2]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4:1 "믿지 말고" 이것은 현재 명령형이 부정의 뜻을 지닌 불변화사와 쓰여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경향은 강한 성격의 사람들, 논리적 논쟁, 혹은 기적적인 일을 하나님으로 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분명히 거짓교사들은 (1)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거나 (2)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특별주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판단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첫째로, 믿는 자들은 서로 판단하지 말도록 가르침을 받는다(참조, 마 7:1-5; 눅 6:37, 42; 롬 2:1-11; 약 4:11-12). 한편, 믿는 자들은 지도자들을 평가하도록 권면받는다(참조, 마 7:6, 15-16; 고전 14:29; 살전 5:21; 딤전 3:1-13; 요일 4:1-6).

적절한 평가를 위해 유용한 몇 가지 판단 기준
1. 평가는 긍정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요일 4:1 –"시험"이 인정을 하기 위한 목적임)
2. 평가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참조, 갈 6:1)
3. 평가는 개인적인 편향에 맞추어 해서는 <u>안된다</u>(참조, 롬 14:1-23; 고전 8:1-13; 10:23-33)
4. 평가는 교회나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지도자들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참조, 딤전 3)

▣ **"모든 영"** 영이 인간의 관점에서 사용되었다. 4:6 의 설명을 보라. 이것은 하나님께로 부터 온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을 가리킨다. 이단은 교회안에서 시작되었다(참조 2:19).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요한은 인간의 말과 행동에 두 가지 영적 배경, 곧 하나님 혹은 사탄이 있음을 주장했다.

▣ **"그러나 영들을 분별하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법이다. 이것은 영적선물이며(참조, 고전 12:10; 14:29) 또한 기도, 전도, 넘치는 구제처럼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헬라어 *도키마조*는 "인정하기 위해 시험함"의 뜻을 지닌다. 신자들은 가장 나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가장 좋은 쪽으로 보아야 한다(참조, 고전 13:4-7; 살전 5:20).

특별주제: "시험"을 뜻하는 헬라어 용어와 그 의미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나타내는 두 가지 헬라어 용어가 있다.

1. *도키마조, 도키미온, 도키마시아*

   이 용어는 불로 어떤 물건(은유적으로는, 어떤 사람)의 참됨을 시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야금학의 용어이다. 불은 덩어리를 불로 태워(정화하여) 진짜 금속을 드러내게 한다. 이런 물리적인 과정이 하나님께서/ 혹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점검하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이 되었다. 이 용어는 받아들일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인 면만을 말한다.

   이것은 신약에서 다음을 시험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ㄱ. 소, 눅 14:19
   ㄴ. 우리 자신, 고전 11:28
   ㄷ. 우리의 믿음, 약 1:3
   ㄹ. 하나님, 히 3:9

   이러한 시험의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 예견되었다(참조, 롬 1:28; 14:22; 16:10; 고후 10:18; 13:3; 빌 2:27; 벧전 1:7). 그러므로 이용어는 시험받은 사람으로 부터 다음의 모습을 밝힌다

   ㄱ. 믿음직 함
   ㄴ. 선함
   ㄷ. 진실됨
   ㄹ. 가치있음
   ㅁ. 존귀함

2. *페이라조, 페이라스모스*

   이 용어는 잘못을 찾거나 거부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시험을 뜻한다. 이것은 종종 예수의 광야시험과 관련되어 사용된다.

   ㄱ. 이것은 예수를 함정에 걸리게 하는 시도를 말한다(참조, 마 4:1; 16:1; 19:3; 22:18, 35; 막 1:13; 눅 4:2; 10:25; 히 2:18).
   ㄴ. 이 용어(*페이라조*)는 마 4:3; 살전 3:5 에서 사탄의 칭호로서 사용된다.
   ㄷ. 이것은(합성어 형태인 *엑페이라조*)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예수의 말씀에 사용되었다(참조, 마 4:7; 눅 4:12; 또한 고전 10:9)
   ㄹ. 이것은 믿는 자의 유혹과 시험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고전 7:5; 10:9, 13; 갈 6:1; 살전 3:5; 히 2:18; 약 1:2, 13, 14; 벧전 4:12; 벧후 2:9).

▣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참조, 렘 14:14; 23:21; 29:8; 마 7:15; 24:11, 24; 행 20:28-30; 벧후 2:1; 요일 2:18-19, 24; 3:7; 요이 7). 이것이 뜻하는 바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음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4:2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것의 문법적 형태는 현재 능동 직설법이나(진술) 완료 능동 명령법이다(명령). 성령은 항상 예수를 높인다(참조, 요 14:26; 15:26; 16:13-15). 같은 시험이 고전 12:3 에 있는 바울의 글에서 나타난다.

▣ **"시인하는 영마다"**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믿음에 대한 계속적인 시인을 말하지 이전의 시인을 뜻하지 않는다. 헬라어의 "시인하다"는 "같은 것"과 "말하다"의 합성어로서 "같은 것을 말하다"를 뜻한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요일 1:9; 2:23; 4:2-3; 4:15; 요 9:22; 요이 7).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개인의 확인과 헌신을 특별하게, 공개적으로, 소리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 9:22 의 특별주제를 보라.

신약의 고대 라틴역본과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이레니우스, 터툴리안이 *루이*(풀다)란 것을 사용한 것은 신학적으로 흥미롭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영과 분리된 신적 영으로 "예수를 분리시키는 것"을 뜻하는데 2 세기의 영지주의적 글을 특징짓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첨가된 본문으로서 이단과의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임했던 초대교회의 삶을 반영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것은 완료 능동 분사이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즉, 영지주의자)에 대한 교리적 시험으로서 요한은 이 책에서 그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의 근본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인간(즉, 육체)이시라는 확인이다(참조, 1:1-4; 요이 7; 요 1:14; 딤전 3:16). 완료시제는 예수의 인성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말한다. 이것은 사소한 내용이 아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4:3 "적그리스도의 *영*" 여기서 이것은(참조, 2:18-25)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 시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를 부인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다.

▣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요한이 이 주제를 가지고 그들과 이전에 논의하였음과 그것에 이 사실이 관련있음을 뜻한다. 헬라어 대명사 "그것"은 중성으로 표현된 "영"을 가리킨다. 2:18 에서와 같이 이 표현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왔고 또 올 것임을 반영한다. 이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은 창 3 장에 나오는 악한 자로부터 악의 화신의 출현과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거짓된 정보, 거짓된 삶의 양식, 거짓된 고백의 띠를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룬다.

4:4-6 "너희…그들…우리" 이 모든 대명사들은 강조되어 나타난다. 세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 내용이 말해진다: 참 신자들(요한과 그의 독자들), 거짓 신자들(영지주의적 교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 요한의 선교팀. 같은 세 그룹의 사람들이 히 6 장 10 장에 나온다.

4:4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교리적인 논쟁과 그리스도인의 승리적 삶을 말한다. 그들과 우리를 위한 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의 말인가!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죄와 악한 자에 대한 승리에 관심을 둔다. 그는 이 용어(*니카오*)를 요한일서에서 6 회(참조, 2:13, 14; 4:4; 5:4, 5), 계시록에서 11 회,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참조, 16:33) 사용하고 있다. 승리를 가리키는 이 용어는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참조, 11:22), 바울서신에서는 두 번(참조, 롬 3:4; 12:21) 사용되고 있다.

▣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것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점이다. 여기서 이 말은 내주하시는 성부에 대한 언급으로 보인다(참조, 요 14:23; 고후 6:16). 신약은 (내주하시는 성자(참조, 마 28:20; 골 1:27)와 (2) 내주하시는 성령(참조, 롬 8:9; 요일 4:13)을 또한 강조한다. 성령과 성자는 거의 동일시 되고 있다(참조, 롬 8:9; 고후 3:17; 갈 4:6; 빌 1:19; 벧전 1:11). 요 14:15 의 특별주제를 보라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참조, 요 12:31; 14:30; 16:11; 고후 4:4; 엡 2:2; 요일 5:19)과 그의 추종자를 말한다.요한일서에서 "세상"은 항상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즉, 하나님을 떠나 조직되어 있고 작용하는 인간 사회).

4:5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이것은 원천으로부터의 탈격이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려는 타락한 인간사회의 개념이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집합적이고 독립적이려는 영이다! 가인이 그 예이다(참조, 3:12).

▣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 대항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다(참조, 요 15:19; 딤전 4:1).

4:6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참된 신자는 사도적인 진리를 계속해서 듣고 이에 반응한다! 신자는 그들의 하는 말의 내용과 그들에게 반응하는 자들을 봄으로써 그들이 참된 설교가/교사들인지 아닌지를 알게 된다.

▣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것은 성령(참조 요 14:17; 15:26; 16:13; 요일 4:6; 5:7)과 악한 영인 사탄을 각각 가리킨다. 신자는 그들의 말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 종종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말로 여겨진다. 한 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지만, 다른 한 쪽은 인간의 관찰과 개인적 자율를 강조한다.

로버트 거들스톤, *구약의 동의어들*,은 신약에서 "영"의 용법에 대해 흥미로운 논의를 하고 있다.

"1. 악한 영들
2. 인간의 영
3. 성령
4. 성령이 인간의 영 안에서 인간의 영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
   ㄱ.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 롬 8:15
   ㄴ. '온유의 영' – 고전 4:21
   ㄷ. '믿음의 영' – 고후 4:13
   ㄹ. '그를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 엡 1:17

ㅁ. ‘무력한 영이 아니라 능력, 사랑, 훈련의 영’ – 딤후 1:7
ㅂ. ‘그릇된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 – 요일 4:6”(61-63 쪽).

> **개역개정 4:7-14**
> **[7]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11]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14]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4:7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랑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다(참조, 고전 13; 갈 5:22). 이것은 요한의 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으로서 윤리적 시험의 본질적인 내용이다(참조, 요 13:34; 15:12, 17; 요일 2:7-11; 3:11, 23; 요이 5). 가정법은 부수적인 것을 언급한다.

▣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인간편의 인간애, 불쌍히 여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다(참조, 16 절). 여기서 감정이 <u>아니라</u> 목적이 주가 된다(참조, 10 절; 요 3:16).

▣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동사는 완료 수동과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 요한은 신자가 되는 것을 육체적인 출생에 즐겨 비교했다(참조, 2:29; 3:9; 5:1; 4:18; 요 3:3, 7, 31; 19:11). “안다”는 히브리적 개념으로서 계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가리킨다(참조, 창 4:1; 렘 1:5). 이것은 요한일서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서 77 회 이상 사용되었다.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표식이다.

이것은 요한의 심원하면서도 단순한 진술의 하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하나님은 빛이시다”(참조, 1:5)와 “하나님은 영이시다”(참조, 요 4:24)와 함께 간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를 뚜렷하게 대비하는 방법은 신 5:9 를 5:10 와 7:9 과 비교하는 것이다.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 직설법이다(참조, 요 3:16; 고후 9:15; 롬 8:32).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에 죽도록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명백하게 나타내셨다. 사랑은 행동이지 느낌이 아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 삶이다.

▣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성육신과 그 결과는 남아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독생자”라는 용어는 *모노게네스*로서 “독특한,” “같은 종류의 하나”를 뜻하지 성적결합에 의한 자식이라는 뜻이 아니다.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 혹은 마리아의 성적 경험을 말하지 않는다. 요한은 이 용어를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 여러 번 사용한다(참조, 요 1:14, 18; 3:16, 18; 요일 4:9). 요 3:16 의 상세한 설명을 보라. 예수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자들은 단지 이차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으로서 믿음의 행동이 부수적으로 필요함을 뜻한다. 성육신의 목적은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이었다(참조, 요 10:10).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삶과 죽음에 명백히 드러났다(참조, 롬 5:6, 8). 예수를 앎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신약은 세계종교 가운데 매우 독특하다. 종교는 특징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찾으시는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하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자아, 반역과 자랑을 넘어 우리를 찾으셨다.

기독교의 영광스러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생을 바꾸는 만남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계속하신다는 점에 있다.

▣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2:2 의 설명을 보라.

4:11 "만일" 이것은 제 1 유형의 조건절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그의 저작 목적에서 볼 때 사실인 것을 가정한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참조, 롬 8:31)!

▣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것은 요 3:16 처럼 "이 같은 방법으로"로 이해해야 한다.

▣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한다(참조, 2:6; 3:16; 4:1).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혼란을 주는 행동과 태도를 반영하는 진술이다.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것은 완료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주목하고 보는 것"을 뜻한다(참조, 출 33:20-23; 요 1:18; 5:37; 6:46; 딤전 6:16). 동방신비종교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교사들이 하나님을 보았거나 또는 하나님으로 부터 어떤 종류의 이상을 보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예수는 성부를 충분히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 그를 주목하여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 **"만일"** 이것은 제 3 의 조건절로서 가능성있는 행동을 뜻한다.

▣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2:10 의 특별주제인 거함을 보라.

▣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것은 우회적 완료 수동 분사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증거이다(참조, 2:5; 4:17).

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내주하시는 성령(참조, 3:24; 롬 8:9)과 그의 변화시키시는 영향은 확신의 증거이다(참조, 롬 8:16). 13 절은 성령의 주관적인 증거가 되고 14 절은 사도적인 증거의 객관적인 증거인 것 같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13-14 절에 분명히 나타난다. 요 14:26 의 특별주제를 보라.

4:14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동사들은 완료 중간태 (디포) 직설법이 현재 능동 직설법과 함께 나오는 경우이다. 이것은 1:1-3 과 같이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요한의 목격자적 증거를 말한다. "보았다"는 말은 12 절의 "집중하여 주목했다"는 말과 같은 헬라어이다. 요 1:8 의 특별주제인 예수께 대한 증거를 보라.

▣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사실(참조, 요 3:16)은 선한 영과 악한 물질의 이원론적 추정에 근거한 영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친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창 3 의 저주로 부터 세상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죄로 인해 악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참조, 롬 8:18-25).

▣ **"세상의 구주로"** 성부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를 택하신 사실은 구원에 대한 영지주의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한다. 그들은 천사적 영역에 속한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다. 그들은 이러한 천사적인 영역의 것들을 *에온* 또는 높은 하나님과 세상을 조성한 낮은 신 사이의 천사적 권세의 영역으로 불렀다.

"세상의 구주"란 표현은 (1) 제우스와 같은 신들의 칭호였고 (2) 로마의 황제에 대한 공통적 칭호였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 이 칭호를 가질 수 있었다. 이점은 소아시아에 있었던 황제숭배 종교에 의해 박해를 유발한 이유가 되었다.

이것이 모든 이를 포함함을 보라. 만일 그들이 단지 반응하기만 하면, 그는 모든 자(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의 구주가 되신다(참조, 요 3:16; 롬 5:18).

개역개정 4:15-21

15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20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가정법이다. "시인"에 대하여는 2 절의 설명을 보라. 요한이 참 기독교인의 3 가지 시험중의 하나는 예수의 인성과 사역에 대한 신학적인 진리이다(참조, 2:22-23; 4:1-6; 5:1, 5). 이것은 요한일서와 야고보서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과 일치한다. 기독교는 인격이고, 진리이며, 삶의 양식이다.

포괄적인 용어인 "누구든지"는 어떤 자이든지 누구든지 그에게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커다란 초청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참조, 창 1:26-27; 5:3; 9:6). 하나님은 창 3:15 에서 인류에 대한 구속을 약속하셨다. 그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세상에 향한 부르심이었다(참조, 창 12:3; 출 19:5). 예수의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다루셨다(참조, 요 3:16). 누구든지 언약적인 요구인 회개, 믿음, 순종, 섬김, 인내에 응답하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라"이다(참조, 사 55).

▣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갖는 관계의 언약적 구조를 반영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도권을 가지시고 시작하시며 언약의 내용을 제시하시고 그 기초를 제공하시고, 인간은 이에 대해 응답함으로 시작함과 계속적으로 응답 할 책임이 있다.

거함은 언약의 요구조건이다, 또한 놀라운 약속이다. 우주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타락한 인간들과 거함심(내주하심)을 생각해 보라(참조, 요 14:23)! 2:10 의 특별주제 거함을 보라.

4:16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동사들은 모두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실존적인 주위환경이 아닌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는 자의 확고한 확신은 그들의 관계의 기초이다.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을 표현한다.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중요한 진리는 반복되고 있다(참조, 8 절).

4: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것은 헬라어 단어 *텔로스*(참조, 12 절)에서 왔다. 이것은 죄가 없음이 아니라 완전함, 성숙함, 완성을 뜻한다.

▣ **"우리에게"** 이 전치사(*메타*)는 "우리 안에"(TEV, NJB), "우리 가운데"(NKJV, NRSV, NIV, REB), 또는 "우리와 함께"(NASB)로 이해될 수 있다.

▣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원래 이 용어는 말할 자유를 의미했다. 요한은 이것을 확장적으로 사용한다(참조, 2:28; 3:21; 5:14).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담대함을 말한다(참조, 히 3:6; 10:35).

▣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참조, 3:16; 4:11). 그들은 그가 당하신 것 처럼 거부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또한 그처럼 성자와 성령에 의해 사랑받고 붙드심을 입을 것이다! 어느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인생의 선물에 대한 회계를 할 것이다. 심판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심판자로 두려워 않게 된다. 많은 이들의 경우(모든 경우가 아니라면) 두려움—심판, 정죄, 지옥에 대한—을 인하여 회심하게 된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구속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난다: 두려움으로 시작된 일이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끝난다!

▣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것은 드물게 사용된 용어로서 오직 이곳과 마 25:46(같은 동사형태가 벧후 2:9 에 나옴)에서 종말적 배경에서 사용되었다. 현재형 동사는 하나님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임시적(시간안에서)이며 종말적(마지막 때에) 대한 것임을 보인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참조, 창 1:26-27) 인격, 지식, 선택과 그 결과와 관계가 있다. 이것은 도덕적 세계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법의 기초 위에서 자신들을 망가뜨릴 뿐이다!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것은 10 절의 강조점의 반복이다. 하나님은 항상 주도권을 취하시지만(참조, 요 6:44, 65)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참조 요 1:12; 3:16). 믿는 자들은 그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의 미쁘심을 믿어야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특성은 구속받은 인간의 희망이요 확신이다.

NKJV 는 "우리가 사랑함은" 뒤에 직접목적어를 추가한다. 직접목적어에 대한 사본적 가능성은: (1) 한 대문자체 사본(א)에서 "하나님"(*톤 테온*)이 보충된다 (2) ψ 에서 "그를"(*아우톤*)이 보충된다(KJV) (3) 벌케이트역에서 "서로"가 보충된다. 이러한 직접목적어는 후기의 가필인 것 같다.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말의 요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요한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인용하는 또 다른 예이다(참조, 1:6, 8, 10; 2:4, 6). 이런 문학적 기교는 비난으로 불린다(참조, 말라기, 로마서, 야고보서).

▣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고착된 미움은 일어날 수 없다(현재시제). 요 4:4 의 특별주제인 인종차별을 보라.

▣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요한은 믿는자로 "여겨지는" 여러 사람들을 거짓말장이로 부르고 있다(참조, 2:4, 22; 4:20). 요한은 또한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한다(참조, 1:6, 10; 5:10).

4:21 이 절은 장의 요약이다! 사랑은 참 신자의 거짓되지 않은 증거이다. 미워함은 악한 자의 자녀됨의 증거이다. 거짓 교사들은 양떼를 나누고 갈등을 일으켰다.

▣ **"형제"** "형제"라는 말이 불분명함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동료 크리스챤" 또는 "동료 인간"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요한이 자주 믿는 자들을 "형제"로 언급한 사실은 앞의 경우를 뒷바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참 기독교를 나타내는 3 가지 시험방법을 열거하라.
2. 누가 정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말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3. 진리의 두 원천(주관적과 객관적)을 말하라.
4. "세상의 구주"라는 칭호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5. 거짓말장이(즉, 거짓 교사)를 드러내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요한일서 5 장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믿음은 세상에 대한 승리이다	믿음으로 순종함	승리하는 믿음	세상에 대한 우리의 승리	
	4;20-5:5			
5:1-5		5:1-5	5:1-5	믿음의 원천
아들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증거의 확실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5:5-13
5:6-12	5:6-13	5:6-12	5:6-12	
영생의 지식		결론	영생	
5:13-15	기도의 확신과 연민	5:13	5:13-15	죄인을 위한 기도
	5:14-17	5:14-17		5:14-17
5:16-17	진리를 알고 거짓을 거부함		5:16-17	편지의 요약
5:18-21	5:18-21	5:18-20	5:18	5:18-21
			5:19	
			5:20	
		5:21	5:21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5:1-4

1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1 "자마다" (2 회) *파스*는 요한일서에서 반복되는 용어이다(참조, 요일 2:29; 3:3, 4, 6[2 회], 9, 10; 4:7; 5:1). 아무도 요한의 흑백의 신학적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초청이다(참조, 요 1:12; 3:16; 딤전 2:4; 벧후 3:9). 이것은 롬 10:9-13 에 있는 바울의 큰 초청과 흡사하다.

▣ **"믿는"**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이 헬라어 단어(명사 – *피스티스*; 동사 –*피스튜오*)는 "믿음," "신뢰," 또는 "믿다"로 번역된다. 그러나 요한일서와 목회서신(딤전, 딤후, 딛)에서 이것은 교리적 내용을 의미하기도 한다(참조, 유 3, 20). 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 이 단어는 개인적인 신뢰와 헌신을 뜻한다. 복음은 믿어야 할 진리며 신뢰하는 분이고, 요한일서와 야고보서가 명확히 말하듯 사랑하는 삶이며 살아야 하는 섬김이다.

▣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거짓교사들의 잘못의 핵심은 완전히 하나님이신 인간 예수님의 인성과 사역에 관한 것이었다(참조, 5 절).

▣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으로서 외적 존재(하나님)에 의해 영원토록 존재하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행동의 집합을 강조한다.

▣

신미국표준역(NASB)	"그에게서 난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뉴킹제임스역(NKJV)	"그가 나신 자를 사랑하느니라"
신개정표준역(NRSV)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현대영어성경(TEV)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자녀를 사랑하느니라"
신예루살렘성경(NJB)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아들을 사랑하느니라"

이 표현은 예수를 사랑함을 뜻하는 데 이는 (1) 단수 (2) 부정과거 시제 (3) 거짓교사들이 신학적으로 예수를 성부로 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반복적인 주제로 이해될 수 있다(참조, 2 절).

5:2 이절은 3 절과 더불어 요한일서의 주요 주제를 반복한다.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인 사랑(참조, 2:7-11; 4:7-21)과 순종(참조, 2:3-6)으로 표현된다. 참 신자의 증거는 (1) 하나님을 사랑함 (2)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함(1 절) (3)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2 절) (4) 순종(2, 3 절) (5) 이김(4-5 절)로 나타난다.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사랑은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 모두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행동중심적이다. 순종은 매우 중요하다(참조, 요 14:15, 21, 23, 15:10; 요이 6).

▣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새 계명에는 책임이 따른다(참조, 마 11:29-30 에서 랍비들은 멍에를 율법에 대하여 사용했다, 23:4). 책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지만, 그 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행위나 선을 행함이 아니다(참조, 엡 2:8-9, 10) 예수의 인도하심은 거짓 교사들의 것과 매우 다르다. 그들은 아무 규율도 없든지(도덕폐기론) 또는 너무 많은 규율(율법주의자)을 강요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할수록 방탕주의와 율법주의의 두 극단에 대해 더욱 많은 염려가 있음을 밝힌다.

▣

신미국표준역(NASB),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현대영어성경(TEV), 신예루살렘성경(NJB)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헬라어 본문은 "모든"(*파스*)을 강조를 위해 1 절에서와 같이 맨 앞에 둔다. 중성 단수(*판*)이 "무엇이든지"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문맥에서 이것이 "에서 난"이라는 완료 수동 분사와 조합되기에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참조, 4:4; 2:13, 14).

▣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예수는 이미 세상을 정복하셨다(참조, 요 16:33). 믿는 자들은 그와의 연합에 거하기에 그들 또한 세상을 이길 가능성을 가진다. "세상"은

여기서 "하나님께로 부터 떠나 조직되고 기능을 갖는 인간 사회"를 의미한다. 독립의 태도는 타락과 인간의 반역의 본질이었다(참조, 창 3).

▣ **"승리"** 이것은 "이겼다"라는 동사의 명사형(*니코스*)이다. 4 절 끝에 같은 어근을 가진 부정과거 능동 분사가 사용된다. 5 절에 *니코스*의 분사형이 또 나온다. 믿는 자들은 이긴 자들이며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안에서 그 승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기는 자들이다. 테니스화로 잘 알려진 "나이키"는 헬라신화에서 승리를 말하는 여신의 이름이다.

▣ **"우리의 믿음"** 이것은 요한의 글 전체에서 오직 한 번 나오는 명사형 "믿음"(*피스티스*)이다. 아마도 요한은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는 것보다 지나치게 강조되는 "바른 신학"(믿음의 시스템으로서)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우려했을 것이다. 동사(*피스튜오*)는 요한에 의해 여러 번 사용된다. 우리의 믿음은 승리를 가져오는데 이는 (1) 이것이 예수의 승리와 연결되어 있고 (2)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기초하며 (3)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능력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개역개정 5:5-12

5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7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1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5:5 이 절은 4 절에 언급된 우리믿음의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다. 우리의 승리는 완전히 사람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뢰의 서원이다(참조, 4:1-6). 믿는 자는 예수께서 (1) 메시아(1 절) (2) 하나님의 자녀(1 절) (3) 하나님의아들(5, 10 절) (4) 생명(참조, 1:2; 5:20)이신 것을 확인함을 주목하라.

5:6 "이는 . . . 임하신 이시니"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분사로서 성육신(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과 그의 희생적 죽으심을 강조하는데, 둘 다 거짓 교사들이 부인하는 내용이었다.

▣ **"물과 피로"** "물"은 예수의 육체적 출생(참조, 요 3:1-9)을 "피"는 그의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수의 참된 인성을 부인한 영지주의 거짓교사의 문맥에서, 이 둘은 그의 인성을 요약하며 드러낸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세린터스)과 관련한 해석의 다른 방법은 "물"을 예수의 침례(세례)로 보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께서 침례(세례)를 받으실 때에 임했고(물) 예수께서 십자가(피)에서 죽기 전에 떠났다고 주장했다.

▣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의 역할은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끌며,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세례)를 행하시고, 믿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루신다(참조, 요 16:7-15).

▣ **"성령은 진리니라"**(참조, 요 14:17; 15:26; 16:13; 요일 4:6).

5:7 6, 7 절과 8 절의 앞 뒤 부분에서 영어 번역본에 약간의 혼동이 있다. KJV 의 7 절에서 "하늘에 성부, 말씀, 그리고 성령, 그리고 이 셋은 하나다" 라는 부분은 3 가지 주요 고대 대문자 사본에는 없다: 알렉산드리아(A), 바티칸 (B), 시내사본(א), 혹은 비잔틴 계열의 사본에도 없다. 이 부분은 4 세기 말의 사본에서만 나온다 (1) 16 세기경의 61 번 (2) 12 세기의 88 번, 여기서는 나중에 난외에 기록됨 (3) 14, 5 세기 경의 629 번 (4) 11 세기 경의 635 번, 여기서는 나중에 난외에 기록되었다. 이 절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적 논의에서조차 어느 초기 교부들로부터도 인용된 적이 없다. 이 절은 한 후기 라틴계 사본(식스토-클레멘틴)외에서는 어느 고대 사본에도 빠져있다. 고대 라틴역 혹은 제롬의 벌게이트역에도 없다. 이것은 주후 385 년에 죽은 스페인의 이단 프리실리안의 조항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5 세기에 북 아프리카와 이탈리의 라틴 교부들에 의해 인용되었다. 이 절은 요한일서의 영감된 원래의 부분이 아니다.

한 분(유일신론)이면서 세 위격(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대한 성경의 교리는 이 절을 거부하는 것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았다.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많은 성경 구절들은 세 위격이신 하나님께서 모두 함께 일하시고 있음을 말한다:

1. 예수의 침례시에(마 3:16-17)
2. 지상명령(마 28:19)
3. 성령을 보내심(요 14:26)
4.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행 2:33-34)
5. 바울의 육체와 성령에 대한 논의(롬 8:7-10)
6. 바울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논의(고전 12:4-6)
7. 바울의 여행계획(고후 1:21-22)
8. 바울의 축복(고후 13:14)
9. 바울의 때가 참에 대한 논의(갈 4:4-6)
10. 성부를 찬송하는 바울의 기도(엡 1:3-14)
11. 이방인이 전에 밖의 사람임을 말하는 바울의 논의(엡 2:18)
12. 하나님의 하나되심에 대한 바울의 논의(엡 4:4-6)
13. 하나님의 친절에 대한 바울의 논의(딛 3:4-6)
14. 베드로의 서론(벧전 1:2)

요 14:26 의 특별주제인 삼위일체를 보라.

5:8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구약에서 둘 혹은 셋의 증거는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했다(참조, 신 17:6; 19:15). 여기서 예수의 생애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이 그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에 대한 증거로 제시된다. 이 절에서 "물"과 "피"는 "성령"과 함께 거론되고 있다. "물"과 "피"는 6 절에서 언급되었다. "성령"은 비둘기가 내려온 것에서 예수의 받으신 침례(세례)를 의미할 수 있다. 주석가들 사이에 각 항목이 어떠한 역사적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불일치가 있다(즉, 그의 출생, 그의 침례(세례), 그의 죽음). 이 사항들은 거짓 교사들이 예수의 참된 인성을 거부한 것과 반드시 관련이 있다.

5:9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이나 그의 저작 목적에 비추어 사실인 것을 가정한다. 요한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교회는 영지주의 교사들의 설교나 가르침으로 인해 혼동상태에 있었다.

▣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문맥에서 이 신적 증거는 (1) 성령의 증거 (2) 예수의 지상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도적인 증거를 말한다.

▣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과거의 행동이 절정에 이르렀고 그 상태가 남아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예수의 침례(세례)시에 하나님께서 소리로 확인하신 것(참조, 마 3:17) 또는 그의 변화산사건(참조, 마 17:5; 요 5:32, 37; 8:18) 또는 성경(즉, 복음서)에서 이 둘에 대한 기록을 의미할 수 있다. 요 1:8 의 특별주제인 예수께 대한 증거를 보라.

5:10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1) 신자 안에서 성령의 주관적이고 내적 증거(참조, 롬 8:16) 또는 (2) 복음의 진리(참조, 계 6:10; 12:17; 19:10). 요 1:8 의 특별주제인 예수께 대한 증거를 보라.

▣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의 또 다른 예이다.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참조, 12 절)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 **"이는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의 또 다른 예로서 회개치않는 것의 정착된 모습을 강조한다.

5:11-12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과거의 행동이나 완료된 행동을 말한다(참조, 요 3:16). 영생은 요 17:3 에서 정의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 이 내용은 예수 자신을 가리킨다(참조, 1:2; 5:20); 다른 경우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참조, 2:25; 5:11; 요 10:28)로서 그리스도안에서 믿음을 통해 받는 것이다(참조, 5:13; 요 3:16). 사람은 성부에 대한 개인적 믿음없이 성부와의 교제를 가질 수 없다!

개역개정 5:13-15

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5:13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완료 능동 가정법(*오이다*는 완료형이지만 현재형으로 번역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중요한 개념으로서 요한일서의 목적으로 자주 언급된다. 두 헬라어 동의어(*오이다*와 *기노스코*)는 이 서신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는데 "알다"로 번역되고 있다. 확신이 모든 믿는 자의 유산임은 분명하다! 또한 지역적인 당시의 환경을 인하여서 현재의 문화적 상황을 인하여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참된 신자들이 있음도 분명하다. 이 적은 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의 끝부분과 비슷하다(참조, 20:31).

요한일서의 끝부분(5:13-20)은 믿는 자들이 알아야 할 7 가지 사항을 말한다. 그들의 복음진리에 대한 지식은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것이 그리스도께 둔 개인의 믿음과 결합하여 확신의 든든한 기반을 형성한다:

1. 신자는 영생을 가짐(13 절, *오이다*, 완료 능동 가정법)
2.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를 들으심(15 절, *오이다*, 완료 능동 직설법)
3. 하나님은 신자의 기도에 응답하심(15 절, *오이다*, 완료 능동 직설법)
4. 신자는 하나님에 의해 거듭남(18 절, *오이다*, 완료 능동 직설법)
5.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옴(19 절, *오이다*, 완료 능동 직설법)
6. 신자는 메시아가 오신 것과 그들이 깨닫게하심을 앎(20 절, *오이다*, 완료 능동 직설법)
7. 신자는 참되신 분을 앎—성부 혹은 성자(20 절, *기노스코*, 현재 능동 가정법)

특별주제: 확신

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참조, 5:13)? 요한일서는 3 가지 시험이나 증거를 제시한다:
  1. 교리적(믿음)(1, 5, 10 절; 2:18-25; 4:1-6, 14-16; 5:11-12)
  2. 삶(순종)(2-3 절; 2:3-6; 3:1-10; 5:18)
  3. 사회적(사랑)(2-3 절; 2:7-11; 3:11-18; 4:7-12, 16-21)

나. 확신은 교단적인 논제가 되었다
  1. 존 칼빈은 하나님의 선택에 확신의 기초를 두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
  2. 존 웨슬리는 종교적 경험에 확신의 기초를 두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죄 이상으로 살 수 있음을 믿었다.
  3.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권위에 확신의 기초를 두었다. 개인이 속한 그룹은 확신의 열쇄이다.
  4. 대부분의 복음주의 자들은 믿는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와 연결하여 성경의 약속에 확신의 기초를 두고 있다(참조, 갈 5:22-23).

다. 나는 타락한 인류의 으뜸되는 확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1. 성부 하나님의 사랑
    ㄱ. 요 3:16; 10:28-29
    ㄴ. 롬 8:31-39
    ㄷ. 엡 2:5, 8-9
    ㄹ. 빌 1:6
    ㅁ. 벧전 1:3-5
    ㅂ. 요일 4:7-21
  2. 성자 하나님의 행동
    ㄱ. 우리 대신에 죽으심
      1) 행 2:23
      2) 롬 5:6-11
      3) 고후 5:21
      4) 요일 2:2; 4:9-10
    ㄴ. 대제사장적 기도(요 17:12)
    ㄷ. 계속적인 중보
      1) 롬 8:34
      2) 히 7:25
      3) 요일 2:1
  3. 성령 하나님의 사역
    ㄱ. 부르심(요 6:44, 65)
    ㄴ. 인치심
      1) 고후 1:22; 5:5
      2) 엡 1:13-14; 4:3

ㄷ. 확신주심
1) 롬 8:16-17
2) 요일 5:7-13

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계약적 호의에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처음뿐만아니라 계속해서)
1. 신자는 반드시 죄로부터 돌아서고(회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와야 한다(믿음)
ㄱ. 막 1:15
ㄴ. 행 3:16, 19; 20:21
2.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호의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ㄱ. 요 1:12; 3:16
ㄴ. 롬 5:1(유추에 의해 10:9-13)
ㄷ. 엡 2:5, 8-9
3. 신자는 반드시 믿음 안에 계속있어야 한다
ㄱ. 막 13:13
ㄴ. 고전 15:2
ㄷ. 갈 6:9
ㄹ. 히 3:14
ㅁ. 벧후 1:10
ㅂ. 유 20-21
ㅅ. 계 2:2-3, 7, 10, 17, 19, 25-26; 3:5, 10, 11, 21
4. 믿는 자는 세 가지 시험을 거친다
ㄱ. 교리적(1, 2, 10 절; 2:18-25; 4:1-6, 14-16)
ㄴ. 삶의 양식(2-3 절; 2:3-6; 3:1-10)
ㄷ. 사회적(2-3 절; 2:7-11; 3:11-18; 4:7-12, 16-21)

마. 확신은 다음의 이유에서 어렵다
1. 종종 신자들은 성경에서 약속하지 않고 있는 어떤 경험을 구한다
2. 종종 신자들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3. 종종 신자들은 의지적으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참조, 고전 3:10-15; 9:27; 딤전 1:19-20; 딤후 4:10; 벧후 1:8-11)
4. 어떤 성격적인 경향(즉, 완벽주의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성경에는 거짓증거의 예들이 있다(참조, 마 13:3-23; 7:21-23; 막 4:14-20; 벧후 2:19-20; 요일 2:18-19)

▣ **"이름을 믿는"**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계속적인 믿음을 강조한다. 이것은 마술적 혹은 신비적으로 이름을 사용하는 것(하나님의 이름에 기초한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이 아니고 어떤 사람 대신에 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구약의 용법이다. 요 2:23 의 특별주제를 보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은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2:28; 3:21; 4:17).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있어서 갖는 담대함이나 자유를 나타낸다(참조, 히 4:16).

▣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잠재성이 있는 행동을 뜻한다.

▣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요한의 말은 신자가 하나님께 간구함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가는 참 신자의 또 다른 표식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구하는 것이다(참조, 3;22; 마 6:10; 막 14:36). 3:22 의 설명을 보라. 2:17 의 특별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보라. 3:22 의 특별주제: 기도, 제한이 없으면서도 제한이 있음을 보라.

특별주제: 중보기도

I. 서론
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모본때문에 중요하다
1. 개인적 기도, 막 1:35; 눅 3:21; 6:12; 9:29; 22:29-46
2.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마 21:13; 막 11:17; 눅 19:46
3. 기도의 모델, 마 6:5-13; 눅 11:2-4

나. 기도는 우리가 믿는 인격적이며 돌보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느껴지는 일로 되게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와 다른 이들을 위하여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다. 하나님은 많은 영역에서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인격적인 제한을 가지신다(참조, 약 4:2).

라. 기도의 주요 목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갖는 교제와 시간이다.

마. 기도의 범위는 믿는 자와 관계된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 대하여이다. 우리는 한 번 믿음으로 구하든지, 혹은 그 생각이나 걱정이 생길 때 마다 거듭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다.

바. 기도는 여러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1.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송영
2. 하나님의 임재, 교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
3.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한 우리의 고백
4. 우리가 느끼는 필요나 소원에 대한 간구
5. 성부 앞에 우리가 다른 이의 필요를 가지고 구하는 중보

사. 중보적인 기도는 신비이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만 아니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종종 변화, 응답, 필요에 영향을 미친다.

II. 성경의 자료
가. 구약
1. 중보기도의 몇 예
ㄱ.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구함, 창 18:22 이하
ㄴ.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함
1) 출 5:22-23
2) 출 32:31 이하
3) 신 5:5
4) 신 9:18, 25 이하
ㄷ.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함
1) 삼상 7:5-6, 8-9
2) 삼상 12:16-23
3) 삼상 15:11
ㄹ. 다윗이 자기 아이를 위해 기도함, 삼하 12:16-18
2.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으심, 사 59:16
3. 우리가 알고 있고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 혹은 회개치 않은 태도는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미침
ㄱ. 시 66:1
ㄴ. 잠 28:9
ㄷ. 사 59:1-2; 64:7
가. 신약
1. 성자와 성령의 중보사역
ㄱ. 예수
1) 롬 8:34
2) 히 7:25
3) 요일 2:1
ㄴ. 성령, 롬 8:26-27
2. 바울의 중보사역
ㄱ. 유대인을 위한 기도
1) 롬 9:1 이하
2) 롬 10:1
ㄴ. 교회를 위한 기도
1) 롬 1:9
2) 엡 1:16
3) 빌 1:3-4, 9
4) 골 1:3, 9
5) 살전 1:2-3
6) 살후 1:11
7) 딤후 1:3
8) 몬 4 절

ㄷ. 바울이 교회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함
1) 롬 15:30
2) 고후 1:11
3) 엡 6:19
4) 골 4:3
5) 살전 5:25
6) 살후 3:1

3. 교회의 중보사역

ㄱ. 다른 이를 위한 기도
1) 엡 6:18
2) 딤전 2:1
3) 약 5:16

ㄴ. 특별한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요청받음
1) 우리의 적, 마 5:44
2) 그리스도인 사역자, 히 13:18
3) 지도자, 딤전 2:2
4) 병자, 약 5:13-16
5) 타락자, 요일 5:16

ㄷ. 모든 이를 위한 기도, 딤전 2:1

III. 응답받는 기도에의 장애

가.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우리의 관계
1. 그 안에 거함, 요 15:7
2. 그의 이름안에, 요 14:13, 14; 15:16; 16:23-24
3. 성령안에, 엡 6:18; 유 20
4.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 6:10; 요일 3:22; 5:14-15

나. 동기
1. 흔들리지 않음, 마 21:22; 약 1:6-7
2. 겸손과 회개, 눅 18:9-14
3. 잘못 구함, 약 4:3
4. 이기심, 약 4:2-3

다. 다른 면들
1. 인내
ㄱ. 눅 18:1-8
ㄴ. 골 4:2
ㄷ. 약 5:16

2. 계속 구함
ㄱ. 마 7:7-8
ㄴ. 눅 11:5-13
ㄷ. 약 1:5

3. 집에서의 불화, 벧전 3:7

4. 알고 있는 죄로부터 벗어남
ㄱ. 시 66:18
ㄴ. 잠 28:9
ㄷ. 사 59:1-2
ㄹ. 사 64:7

IV. 신학적 결론

가.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큰 기회인가! 얼마나 큰 의무요 책임인가!
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다. 성령은 우리의 인도자이시다. 성부는 애타게 기다리신다.
다. 기도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친구들, 그리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

5:15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에안*과 직설법과 함께 쓰임) 저자의 관점이나 저작 목적에서 사실을 가정한다.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절이다:

1. *에이*대신에 *에안*이 있다
2. *에안*이 가정법(즉, 구함)에 연결되는데,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문법구조이다
3. 조건절의 제 3 유형이 14, 16 절에 나온다
4.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위한 신학은 하나님의 뜻(14 절)과 예수의 이름(13 절)에 관련있다.

▣ **"우리가 안즉"** 이것은 또 다른 완료 능동 직설법이며 현재형으로 번역된다. 14 절에 병행을 이룬다. 성부께서 들으시고 그의 자녀에게 응답하심은 신자의 확신이다.

개역개정 5:16-17

[16]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5:16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3 유형으로서 가능성을 말한다. 16 절은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을 위해, 아마도 거짓 교사와 관계된(참조, 벧후 2) 어떤 제시된 한계(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위하여) 안에서 기도해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참조, 갈 6:1; 약 5:13-18).

▣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요한은 여러가지 죄의 목록을 갖고 있었다. 어떤 것은 (1) 하나님과의 교제 (2) 다른 신자들과의 교제 (3) 세상과의 교제에 관련된다. 가장 커다란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것/신뢰하는것/믿음을 갖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죄이다! W. T. 코너스는 *그리스도인의 교리*에서 말한다:

> "그렇지만 이것은 교리나 교의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의미에서 불신앙이 아니다. 이것은 사람이 도덕적 영적인 빛 특히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빛을 거부하는 불신앙을 말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러한 거부가 확정적이고 의지에 의해 되었을 때 이 거부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다(요일 5:13-17). 이것은 따라서 도덕적 자살이다. 이것은 자신의 영적 눈을 빼내는 것이다. 이것은 높은 정도의 각성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의지적으로 사악하게 하나님의 계시인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빛을 어두움이라고 부르는 행동이다" 9135-136 쪽).

특별주제: 사망에 이르는 죄?

가. 해석학적 고려점
  1. 요한일서의 역사적 배경과 관계하여 확인하여야 할 점
    ㄱ. 교회안에 있던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의 존재(참조, 2:19, 26; 3:7; 요이 7)
      1) "세린티안" 영지주의는 인간 예수는 그의 침례(세례)시에 그리스도 영을 받았고 그 그리스도 영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그를 떠났다고 가르침(참조, 5:6-8)
      2) 도세틱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진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영이었다고 가르침(참조, 1:1-3).
      3) 2 세기의 글에 나타난 영지주의는 인간의 몸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짐
        1) 구원은 마음에 나타나는 진리이기에 인간의 몸은 영적인 영역에 대해 부적절하다. 따라서 육체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종종 도덕률 폐기주의나 방탕한 영지주의로 나타났다.
        2) 다른 그룹은 몸을 타고 난 악(즉, 헬라 사상)으로 보아서 어떤 육체적 욕구든지 금했다. 이것은 금욕주의적 영지주의로 불린다.
    ㄴ. 이런 거짓 교사들은 교회를 떠났지만(참조, 2:19) 그들의 영향력은 남아 있었다!
  2. 전체 책의 문학적 문맥과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할 점
    ㄱ. 요한일서는 거짓 가르침을 대항하고 참 신자들의 확신을 돕기 위해 쓰였다
    ㄴ. 이 두 가지 목적은 참 신자들의 시험을 위한 항목에서 드러난다
      1) 교리적
        ㄱ) 예수는 참 인간이셨다(참조, 1:1-3; 4:14)
        ㄴ) 예수는 참 하나님이셨다(참조, 1:2; 5:20)
        ㄷ) 인간은 죄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참조, 1:6, 10)
        ㄹ) 다음에 근거하여 인간은 또한 용서받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바르게 되었다

i) 예수의 죽음(참조, 1:7; 2:1-2; 3:16; 4:9-10, 14; 5:6-8)
ii) 예수를 믿음(참조, 1:9; 3:23; 4:15; 5:1, 4-5, 10-12, 13)

2) 실제적(긍정적)
ㄱ) 순종의 삶(참조, 2:3-5; 3:22, 24; 5:2-3)
ㄴ) 사랑의 삶(참조, 2:10; 3:11, 14, 18, 23; 4:7, 11-12, 16-18, 21)
ㄷ) 그리스도를 닮는 삶(죄를 범하지 않음, 참조, 1:7; 2:6, 29; 3:6-9; 5:18)
ㄹ) 악에게 승리하는 삶(참조, 2:13, 14; 4:4; 5:4)
ㅁ) 그의 말이 그들 안에 있음(참조, 1:10; 2:14)
ㅂ) 그들이 성령을 가짐(참조, 3:24; 4:4-6, 13)
ㅅ) 응답받는 기도(참조, 5:14-15)

3) 실제적(부정적)
ㄱ) 죄된 삶(참조, 3:8-10)
ㄴ) 미워하는 삶(참조, 2:9, 11; 3:15; 4:20)
ㄷ) 불순종의 삶(참조, 2:4; 3:4)
ㄹ) 세상을 사랑함(참조, 2:15-16)
ㅁ) 그리스도를 부인함(성부와 성자를 부인함, 참조, 2:22-23; 4:2-3; 5:10-12)

3. 상응하는 본문에 나타난 특별한 항목들과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할 점(참조, 5:16-17)
ㄱ. 16 절에서 "형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자들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 모두에게 관련이 있는가?
ㄴ. 범죄자들은 한 때 교회의 회원이었는가(참조, 2:19)?
ㄷ. 다음 사항의 본문적 중요성은 어떠한가
1) 관사와 쓰이지 않은 "죄"?
2) "보다"라는 동사가 조건절의 제 3 유형과 부정과거 현재 가정법과 쓰인 점?
ㄹ. 어떻게 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참조, 약 5:15-16)가 자기 죄의 개인적 자백을 하지 않은 자에게 영생"*조에*"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
ㅁ. 17 절은 죄의 종류(사망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에 관련되는가?

나. 신학적 고려점
1. 해석자는 이 본문을 다음과 연결시켜야 하는가
ㄱ. 복음서의 "용서받을 수 없는" 죄
ㄴ. 히 6, 10 장의 "타락함의 죄"

요한일서의 문맥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용서받지 못하는 죄(참조, 마 12:22-37; 막 3:2-29) 또한 히 6, 10 장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죄와 병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세 그룹 모두(바리새인, 믿지 않는 유대인, 영지주의 거짓 교사)은 복음을 분명히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를 거부했다.

2. 오늘날의 교단적 질문은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신학적인 기준을 주어야 하는가?

복음주의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시작되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참된 믿음으로 계속되는 삶의 증거는 소홀히 하였다. 오늘날의 신학적 질문은 1 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놀라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는"목적으로 선택한 본문에 근거한 "확실성"과 우리 자신의 논리적 추론 혹은 교단적 편견을 원할 뿐이다.

우리의 신학적 질문들, 기준들, 특이성은 우리 자신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 우리는 성경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와 명확도를 원하기에 우리의 조직신학은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엮어 서구식으로 특별한 논리적 교리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마 7 장과 막 7 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초대교회를 위해 적절했다! 예수님은 결단이 아닌 제자됨을, 단기적인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 아닌 장기적인 믿음의 삶을 찾으셨다(참조, 마 13:10-23; 요 8:31-59). 기독교는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계속되는 회개, 믿음, 순종, 인내이다. 기독교는 과거에 구입한 하늘로 가는 표가 아니고, 이기적이고 경건치않은 삶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주는 화재보험정관이 아니다!

3. 사망에 이르는 죄는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뜻하는가? 요한이*조에*를 사용한 문맥은 영원한 죽음과의 대조를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죄짓는 자녀를 집(육체적 죽음)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능한가? 이 문맥은 (1) 동료 신자들의 기도 (2) 죄를 범하는 자의 개인적 회개가 신자를 회복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비난을 가져오는 삶을 계속한다면, 그 때는 "때가 이른" 또는 그가 육체적으로 빨리 떠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참조, 노만 가이슬러와 토마스 호우의 *비난자들이 질문할 때*, 541 쪽).

▣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여기의 신학적 사전적 문제는 "생명"(*조에*)의 의미이다. 요한의 글에서 이것은 대개 영생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이것은 건강이나 용서(즉, 약 5:13-15 에서 야고보의 "구원"과 관련된 용법)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하여 기도를 받은 사람은 "형제"로 불려진다. 이 용어는 그가 믿는 자임을 강하게 암시한다(요한이 그의 독자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에 의해).

5:17 모든 죄는 중대하다. 하지만 불신앙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죄는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개역개정 5:18-20

[18]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5:18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이것은 완료 수동 분사이다. 이것은 3:6, 9 에 대한 명백한 확인이다. 영생은 주목할 만한 특성을 갖는다. 도덕률 초월론적인 거짓 교사들의 삶의 양식은 그들의 중생하지 못한 마음을 드러냈다!

요한은 두 종류의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한다. 하나는 죄에 대한 어느 연루도 부인하는 쪽이고(참조, 1:8-2:1) 다른 한 그룹은 죄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었다(참조, 3:4-10 과 이곳). 반드시 처음에 죄를 자백해야 하고 실제 삶에서 피해야 한다. 죄가 바로 문제이고, 문제가 되며, 또한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참조, 5:21).

▣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첫 동사는 부정과거 수동 분사로서 외부적 요인(즉, 성령, 참조, 롬 8:11)에 의해 성취된 완료된 행동을 뜻한다. 이것은 성육신을 가리킨다. 두번째 동사는 현재 능동 직설법이 "그"(*아우톤*)와 쓰인 경우이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계속해서 지키신다" 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계속해서 붙드시는 것을 말한다. 이 번역은 고대 헬라어 대문자체 사본인 A 와 B 를 따른다. 이 해석은 다음의 영어번역본 NASB, RSV, NIV 에서 발견된다.

사본 א과 A^{c}는 다른 대명사 "자기 자신을 지킨다"(헤아우톤)를 갖는다. 이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느정도 자신을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태어 난"으로 사용된 동사는 어디서도 예수님께사용되지 않았다. 재귀적인 개념은 3:3 과 5:21 에서 신자들에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영어 번역본인 KJV, ASV 와 5 세기의 페쉬타(아람어 번역)에 나온다.

▣

신미국표준역(NASB)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뉴킹제임스역(NKJV)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느니라"
신개정표준역(NRSV)	"악한 자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현대영어성경(TEV)	"그 악한 자가 그들을 위험하게 못하느니라"
신예루살렘성경(NJB)	"그 악한 자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현재 중간태 직설법으로서 악한 자가 계속해서 "그를 주장하지" 못함을 뜻한다. 요한의 글에서 이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요 20:17 뿐이다. 기독교인들이 유혹을 받는 것은 성경과 경험에서 분명하다. 이 구에 대한 3 가지 주요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1) 신자들은 법을 범하는 것을 인해 악한 자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칭의) (2)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참조, 요일 2:1; 눅 22:32-33) (3) 사탄이 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약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신자가 일찍 돌아가게 할 지라도(16-17 절에 근거하여) 사탄은 우리로부터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참조, 롬 8:31-39)!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신자의 세계관으로서 확실한 확신이다(참조, 4:6). 모든 것이 이 놀라운 진리 위에 기초한다(참조, 13 절).

▣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직설법이다(참조 요 12:31; 14:30; 16:11; 고후 4:4; 엡 2:2; 6:12). 이것은 (1) 아담의 죄 (2) 사탄의 반역 (3) 각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5:20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이것은 현재 능동 직설법으로서 하나님이신 성자의 성육신을 확인한다. 인간의 몸을 가진 신성은 물질을 악하다고 주장한 영지주의적 거짓 교사들에게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것은 완료 능동 직설법이다. 영지주의의 거짓교사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신성에 대하여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신다. 예수는 그의 삶, 그의 가르침, 그의 행동, 그의 죽음과 부활로 성부를 충분히

드러내셨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말씀이시다; 누구도 그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참조, 요 14:6; 요일 5:10-12).

▣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첫 구인 "참되신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참조, 요 17:3), 그러나 두 번째 구에서 "참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는지 구별하기 어렵다. 문맥에서 이것은 역시 성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성자를 의미할 수 있다. 문법적인 모호성은 요한의 글에서 자주 그렇듯이 의도적인 것으로 보인다. 성부 안에 있는 자는 성자 안에 있어야만 한다(참조, 12 절). 성부와 성자의 신성과 진리됨(진리)은 목적된 신학적인 의도로 보인다(참조, 요 3:33; 7:28; 8:26). 신약은 나사렛 예수의 완전한 신성을 주장한다(참조, 요 1:1, 18; 20:28; 빌 2:6; 딛 2:13; 히 1:8). 그러나 영지주의 교사들도 예수의 신성을(적어도 신적 영이라는 의미에서) 주장했을 것이다.

개역개정 5:21

[21]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5:21

신미국표준역(NASB)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지켜라"
뉴킹제임스역(NKJV), 신개정표준역(NRSV)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현대영어성경(TEV)	"너희 자신을 거짓 신들로부터 멀리하여 안전하게 하라"
신예루살렘성경(NJB)	"우상에게서 지켜라"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명령법으로서 강조된 일반적인 진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있어서 능동적인 면을 보여주는데(참조, 3:3),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참조, 엡 1:4; 벧전 1:5).

"우상"(요한의 글에서 두 번만 사용되는데, 여기서와 구약의 인용인 계 9:20)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삶을 가리킨다. 한편 사해사본은 이 용어를 "죄"의 개념으로 사용하기에, 이 용어는 "우상"과 "죄"는 동의어적으로 이해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신자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세 가지 주요 시험을 말하라.
2. 6 절과 8 절에서 "물"과 "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가?
4. 무엇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인가? 믿는 자가 이 죄를 범할 수 있는가?
5.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능력을 인함인가 혹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인함인가?

요한이서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문안	선택을 받은 여자에게 문안함		서론	인사
1-3 절	1-3 절	1-2 절	1-3 절	1-3 절
		3 절		
진리와 사랑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행함		진리와 사랑	사랑의 법
4-11 절	4-6 절	4-6 절	4-6 절	4-5 절
				6 절
	속이는 적그리스도를 조심할 것			그리스도의 적들
	7-11 절	7-11 절	7-8 절	7-11 절
			9-11 절	
마지막 인사	요한의 작별인사		마지막 말	
12-13 절	12-13 절	12 절	12 절	12 절
		13 절	13 절	13 절

간략한 서론

요한이서는 내용과 스타일에 있어서 명백하게 요한일서와 연결된다. 이 책들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저자에 의해 쓰여졌을 것이다. 이것은 1 세기의 전형적인 개인서신으로서 파피루스 한장에 들어가는 형태와 분량으로 되어있다.

요한일서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어떤 의미로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쓰였는데, 요한이서는 한 교회와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쓴 편지이다(비록, 신약에서 대부분의 개인서신은 전체 교회에서 읽혀지기 위해 쓰였다). 이 책은 1 세기 소아시아(터어키)의 교회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놀라운 작은 창이다.

독서의 첫 단계(v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단번에 책 전부를 읽으라. 책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당신 자신의 말로 써라.

---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을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 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

1. 책 전체의 주제

2. 문학의 형태(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vi-v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다시 한번 그 책 전부를 단번에 읽으라. 중심 주제에 대한 개요를 만들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1. 첫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2. 두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3. 세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4. 네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5.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3 절

[1]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2]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3]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1 절 "장로" 이 호칭(*프레스뷰테로스*)은 요한 2 서와 3 서의 저자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성경에서 이 호칭은 광범위한 의미를 갖는다.

1. 천사들 회의의 구성원인 하나님의 천사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사 24:23). 같은 용어가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같은 피조물들을 일컫기 위해 사용되었다(참조, 4:4, 10; 5:5, 6, 8, 11, 14; 7:11, 13; 11:16; 14:3; 19:4).
2. 구약에서 부족의 지도자들(자켄)에 사용되었다(참조, 출 3:16; 민 11:16). 후에 신약에서는 산헤드린이라고 불리는 유대인 최고회의를 구성하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다(참조, 마 21:23; 26:57). 예수님 당시에 70 명으로 구성되는 이 기구가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 조종되었다.
3. 각 신약교회의 지도자에 사용되었다. 이것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세 가지 용어 중 하나였다(목사, 감독, 장로, 참조, 딛 1, 5, 7; 행 20:17, 28). 베드로와 요한은 지도자 그룹에 자신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참조, 벧전 5:1; 요이 1; 요삼 1).
4. 교회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는데 그들이 반드시 지도자는 아니었다(참조, 딤전 5:1; 딛 2:2).

요한서신은 여러 가지로 저자에 대해 밝힌다: (1) 복음서는 "사랑을 입은 자"라는 수수께끼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2) 첫 서신은 저자를 밝히지 않는다 (3) 두 번째와 세 번째 서신은 "장로"라는 표현을 갖는다 (4) 불변의 묵시적 책인 계시록은 저자를 "그의 종인 요한"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석가들과 학자들 사이에 이 책들의 저자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이 저작들은 모두 언어와 양식에 있어서 많은 유사점과 상이점을 갖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모든 성경 교사들이 받아들이는 설명은 없다. 나는 요한이 이 책들을 썼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해석학적 영역이지 영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실상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계시이지만, 현대인들은 이책들이 어떤 과정으로 쓰여졌고 혹은 모아졌는지 알지 못한다.

▣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이 호칭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많은 이들은 이 말이 헬라어로 선택 혹은 택함을 말하는 *에렉타*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나(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헬라어로 부녀를 칭하는 *키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에게 쓰여졌다(마타나시우스)고 연결시켰다. 그러나 나는 다음의 이유에서 이 용어가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한 제롬에 동의한다: (1) 헬라어로 교회는 여성형이다 (1 절) (2) 이 용어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미할 수 있다(참조, 엡 5:25-32; 계 19:7-8; 21:2) (3) 이 교회는 어린아이로 불리는 구성원을 갖고 있다(참조, 13 절) (4) 이 교회는 다른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매를 갖고 있다(참조, 13 절) (5) 장 전체에 걸쳐 단수형과 복수형이 의미있게 사용된다(4, 5, 13 절에 나오는 단수형; 6, 8, 10, 12 절에 나오는 복수형) (6) 이 용어는 벧전 5:13 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 **"에게"** 여기에 남성 복수 대명사가 사용된 점은 특이하다. 왜냐하면 이 대명사가 여성형인 "부녀" 혹은 중성인 "자녀들"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방법이 상징적으로 말하기 위해 요한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내가 사랑하는 자요"** 요한은 복음서와 계시록에서 *필레오*와 *아가파오*를 동의어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서 그는 오직 *아가파오*만을 사용한다(참조, 3, 5, 6 절; 요일 3:18).

▣ **"진리"** 진리는 자주 반복되는 주제이다(참조, 1[두 번], 2, 3, 4 절). 9 절[두 번]과 10 절의 "이 가르침"이란 표현은 "진리"와 동의어이다. 이 용어는 요한 1 서와 이 작은 서신(4, 7-10 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지역교회 안의 이단으로 인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뜻한다: (1) 요한복음의 성령(참조, 14:17) (2) 예수 그리스도 자신(참조, 요 8:32:14:6) (3) 복음의 내용(참조, 요일 3:23).

2 절 "우리 안에 거하여"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로서 요한이 믿는 자의 거함을 말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용어이다. 2:10 절에 있는 특별주제를 보라. "거하다"는 이 문맥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롬 8:9 또는 아들, 롬 8:9-10).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른 위격도 믿는 자 안에 거하신다(참조, 요 14:23).

▣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한다. 이 얼마나 능력있으며 확신을 주는 내용인가! 진리는 복음의 인격성과 복음의 내용 둘 다이다! 이 "진리"는 항상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언약적 관계에 있는 동료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잃어버려진 자들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한다.

3 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것은 두 가지 점을 제외하고는 전형적인 헬라어 편지의 서두이다. 첫째로, 이것은 조금 바꾸어진 독특한 기독교적 인사이다. 인사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카이레인*이다. 이 말은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로 바뀌었다. 이 서론은 목회서신, 딤전 1:2; 딤후 1:2 의 인사와 매우 유사하다.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바울의 인사에 이 두 가지 용어가 반복되고 있다.

둘째로, 일반적인 문법적 구성은 건강을 구하는 기도나 기원이다. 그러나 요한이서는 진리의 선언이 나온다—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바라는 신적 결과로 하나님과 서는 약속이다.

이 용어들 간에 의도적인 순서나 관계에 신학적인 면이 있지 않은지 질문하게 된다. 은혜와 긍휼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저 주시는 구원을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믿는 자는 완벽한 변화를 경험한다. 타락함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듯이 구원도 회복을 가져옴에 있어서 그렇다. 먼저 지위의 회복이 있고(믿음에 의한 칭의),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인한 세계관의 근본적 변화로 인해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이 있다(점진적인 성화).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참조, 창 1:26-27)이 회복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이 세 가지 용어를 거짓 교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그들은 "은혜"와 "긍휼"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평강"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요한의 모든 책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긍휼"(*엘레에오이*)이 사용된 것은 흥미롭다. "은혜"(*카리스*)는 오직 이곳 요 1:14, 16, 17 과 계시록(참조, 1:4; 22:21)에서만 사용되었다.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두 명사는 모두 전치사(*파라*)를 갖고 있는데 이 전치사는 문법적으로 명사들이 같은 지위에 있음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다.

▣ **"아버지의 아들"** 요한일서에서 계속되는 강조점은 아들을 갖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참조, 요일 2:23; 4:15; 5:10).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주장했다. 요한은 거듭 거듭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다(참조, 요 14:6)라고 말한다.

개역개정 4-6 절

4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5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6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4 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이것은 부정과거 수동(디포) 직설법이다. 아마도 장로는 여행하는 자들로부터 이교회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 **"너의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1) 교회의 어떤 자들이 경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참조, 요이 3-4) 혹은 (2) 회중 안에 있으면서 어떤 이를 그릇가게 했던 이단의 존재에 대하여 알아차렸다는 의미.

▣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이것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으로서 이전에 계명을 준 사실을 나타낸다(참조, 요 13:34-35; 15:12; 요일 3:11; 4:7, 11-12, 21).

5 절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미완료 능동 직설법으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을 말한다(참조, 요일 2:7, 24; 3:11). 계명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사랑"(참조, 5 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받아들이는 것"(참조, 7 절)로 다시 확인되고 있다. 복음은 내용이요, 인격적인 관계이며 삶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주지하라.

▣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것은 현재 능동 가정법이다(이절의 마지막 단어인 건다와 같이). 배타적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단의 특징이었다. 이 점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는 세 가지 검검의 첫 번째 방법이다. 요한일서에서 세 가지 점검할 내용은 사랑, 삶의 방식, 교리로 나타난다. 요한이서에서 이 세 가지 점검은 반복된다: (1) 사랑(참조, 5 절; 요일 2:7-11; 3:11-18; 4:7-12, 16-21; 5:1-2) (2) 그의 계명을 지키기(참조, 6 절; 요일 2:3-6; 3:1-10; 5:2-3) (3) 교리적 내용(참조, 7 절; 요일 1:1 이하; 2:18-25; 4:1-6, 14-16; 5:1, 5, 10).

6 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사랑은 계속되는(현재 시제) 행동이지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참으로 믿는 모든 자의 "표식"이다(참조, 고전 13; 갈 5:2; 요일 4:7-21).

개역개정 7-11 절

[7]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8]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9]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10]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7 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미혹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의 *플라네*에서 왔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행성을 뜻하는 말이다. 고대 세계에서 천체의 움직임은 지도로 표시되었고 연구되었다(*조디악*). 별들은 일정한 변화를 가졌지만 어떤 별들(즉 행성들)은 불규칙하게 움직였다. 고대인들은 그것들을 "떠도는 것"으로 불렀다. 이 용어는 은유적으로 진리에서 떠나 유리하는 자들을 일컫는 의미로 발전되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진실되게 도와주는 과정에서 잘못하거나 그릇되게 이끄는 자들이 아니었다. 요한의 저작에서 바리새인들과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받은바 명백한 빛에 대항하여 반역하고 있는 자들로 나타난다. 바로 이점이 왜 반역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나 "죽음에 이르는 죄"로 말해지는 이유이다. 비극은 그들이 다른 이들도 자신을 따르게 하여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이다. 신약성경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과 그들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을 미리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참조, 마 7:15; 24:11, 24; 막 13:22; 요일 2:26; 3:7; 4:1).

▣ **"세상에 나왔나니"** 이것은 우리가 거하는 행성을 말한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났거나(참조, 요일 2:19) 선교적인 과제를 수행중에 있다(참조, 요삼).

▣ **"부인하는 자"** 이것은 *호모로게오*로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 이 미혹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거짓 가르침을 계속했다. 이 절은 특별히 예수의 완전한 인성과 관련(참조, 요 1:14; 딤전 3:16)하여 "영들을 시험해 볼 것"에 대한 요일 4:1-6 의 훈계를 거듭 말한다. 영지주의는 "영"(하나님)과 "물질"(육체)의 영원한 이원론을 주장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이시며 완전히 인간이실 수 없었다.

초기 영지주의 사상에는 두 가지 신학적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예수의 인성을 부인함(도세티시즘). 그는 인간으로 보였지만 영이었다. (2)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부인함; 이 그룹(세린티안)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침례(세례)시에 그에게 임했다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전에 그를 떠나갔다.

현재시제인 "육체로 오심"은 세린티안 영지주의를, 요일 4:1-6 은 도세틱 영지주의를 물리치기위해 요한이 사용한 방법일 것이다.

■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요일 2:18 에는 복수형인 “적그리스도들”과 단수형인 “적그리스도”와의 구별이 있다. 복수형의 사람들은 요한의 시대에 왔었고 교회를 떠났다(참조, 요일 2:19), 하지만 단수형으로 표현된 인물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요일 2:18-25 에서는 복수형이 사용되었듯이, 이절에서는 단수형이 사용되고 있다.

8 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형이다. “보다”(*블레포*)는 악에 대한 경고로서 은유적으로 사용되었다(참조, 마 24:4; 막 13:5; 눅 21:8; 행 13:40; 고전 8:9; 10:12; 갈 5:12; 히 12:25). 신자들은 잘못된 것을 분별 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1) 그들이 복음을 알고 (2) 그들이 성령을 가졌고 (3)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계속적인 교제를 누리기 때문이다.

■

신미국표준역(NASB)	**“우리가 성취한 것을 너희가 잃지 말고”**
뉴킹제임스역(NKJV)	**“우리가 위해 일한 것들을 우리가 잃지 말고”**
신개정표준역(NRSV)	**“그 결과 너희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현대영어성경(TEV)	**“그 결과 너희가 우리가 위해 일한 것을 잃게 되지 말고”**
신예루살렘성경(NJB)	**“또는 우리의 모든 일이 잃어지리니”**

헬라어 사본의 변이가 이 절의 첫 대명사에서 나타난다: 대명사는 “너희”(신미국표준역, 신개정표준역, 현대영어성경)인가 아니면 “우리”(뉴킹제임스역)인가? 신약 헬라어 본문 (UBS[4])은 “너희”를 지지한다. 본문에 언급된 믿는 자들이 사도적인 증인에 의해 주어진 복음의 목적을 성취함이 아님을 뜻한다.

■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것은 부정과거 가정법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가리킨다. 가정법의 불확실성은 그들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일어날 성숙과 그들로 인해 복음이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다(참조, 고전 9:27; 15:10, 14, 58; 고후 6:1; 갈 2:2; 빌 2:16; 살전 2:1; 3:5).

9 절

신미국표준역(NASB)	**“멀리 가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뉴킹제임스역(NKJV)	**“넘어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신개정표준역(NRSV)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다”**
현대영어성경(TEV)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나쳐 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신예루살렘성경(NJB)	**“만일 어떤 이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나쳐 가면”**

첫째로, *파스*의 부정적인 용법을 주목하라. 복음의 초대는 “모든”이에게 주어졌지만, 불행하게도 이단의 가능성 또한 그렇다. 이 잠정적인 이단은 두 개의 현재 능동 분사로 특징되어진다: “지나가는 것”과 “거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단어인 “지나가는 것”은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지나감을 뜻하는 표제어이었을 것이다. 신자들은 그들 안에 거하는 진리의 말씀에 의해 특징되어진다(참조, 요 8:31; 15:7; 요일 2:14, 부정적 의미로는 요 5:38; 8:31; 요일 1:10). 요 8:31 에서 인내의 필요에 대한 특별주제를 보라.

■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리스도의 교훈”과 2 절의 “진리”는 평행을 이룬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게는 상이 없다(참조, 8 절).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음으로 잃어버려졌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모셔야하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5:10-12).

10 절 “만일” 이것은 조건절의 제 1 유형으로서 저자의 관점에서 사실이거나 저작의 목적에서 사실인 것을 말한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으로서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와 함께 쓰였는데, 후자는 진행중인 행동을 멈추는 것을 뜻한다(문맥에서 결정해야만 한다).

“집”은 그리스도인의 호의를 뜻할 수 있다(참조, 마 25:35; 롬 12:13; 딤전 3:2; 딛 1:8; 히 13:2; 벧전 4:9 또는 요삼 5-6),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여행하며 가르치는 사역자를 가정교회에서 가르치도록 초청하는 것이었을 것이다(참조, 롬 16:5; 고전 16:19; 골 4:15; 몬 2).

■ **“인사도 하지 말라”** 이것은 현재 능동 명령이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화사와 함께 쓰인 또 다른 경우이다. 당신을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자들”과 동일시하지 말라. 어떤 교제의 암시도 그들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참조, 11 절).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수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한다. 그들과 교제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충심으로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여야 한다. 한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이단적인 사람들로 보여지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기독교의 다른 교단의 사람에게 적용할 것은 물론 아니다!

개역개정 12-13 절

[12]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

12 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이것은 요삼 13-14 의 마지막 부분과 유사하다.

▣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완료 수동 완곡한 가정법으로서 완곡하게 목적을 나타낸다(목적절이 부수적 내용을 보인다). 이것은 요한의 글에서 자주 나타나는 주제이다(참조, 요 3:29; 15:11; 16:24; 17:13; 요일 1:4). 이 기쁨은 (1) 교사의 현존과 (2)그가 가져 온 진리의 지식)에 기초했다.
요한은 그의 "기쁨"을 4 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계속 행함에서 언급하고 있다.

13 절 이절은 1 절과 마찬가지로 자매교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말하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요한일서와 삼서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3 가지 시험할 영역을 말하라.

    ㄱ.

    ㄴ.

    ㄷ.

2. 이 서신은 한 여자에게 쓰여졌는가 아니며 한 교회에 쓰여졌는가?
3. 이 짧은 편지에서 그 회중에 이단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4. 7 절에서 나오는 사기꾼과 적그리스도는 누구며 무엇인가?
5. 10 절과 11 절은 친절을 베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신약성경의 명령에 상반되는 내용인가?

요한삼서

현대 번역본에서의 문단구분*

신약 헬라어 본문 (UBS[4])	뉴킹제임스역 (NKJV)	신개정표준역 (NRSV)	현대영어성경 (TEV)	신예루살렘성경 (NJB)
문안	가이오에게 문안함		서론	인사와 문안
1 절	1-4 절	1 절	1a 절	1-4 절
			1b 절	
2-4 절		2-4 절	2-4 절	
협력과 반대	관용할 것을 명령받음		칭찬받은 가이오	
5-8 절	5-8 절	5-8 절	5-8 절	5-8 절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의 경우를 조심하라
9-10 절	9-12 절	9-10 절	9-10 절	9-11 절
11-12 절		11-12 절	11 절	데메드리오를 칭찬함
			12 절	12 절
마지막 인사	작별인사		마지막 인사	후기
13-15 절	13-15 절	13-14 절	13-14 절	13-15 절
		15 절	15a	
			15b	

요한삼서의 문맥적 통찰

서론

가. 요한삼서로 불리는 이 작은 편지는 요한이서보다 약간 더 짧다. 나는 요한이서와 삼서 모두 1 세기 말 로마의 소아시아에 있던 한 지역교회에게 주는 균형된 말씀을 이룬다고 생각한다.

나. 요한이서는 이단적 생각을 가진 순회하는 설교자들로 인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요한삼서는 순회하는 그리스도인 설교자들을 도우라는 훈계를 다루고 있다.

다. 요한삼서에서 특별히 언급되는 세 사람이 있다:
   1. 가이오(수신교회에 있는 경건한 자)
      ㄱ. 성경에서 3 명의 가이오가 언급된다: 마게도니아의 가이오, 행 19:29; 더베의 가이오, 행 20:4; 고린도의 가이오, 롬 16:23; 고전 1:14.

---

* 문단의 분할은 영감되지는 않았지만 원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따르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현대 번역본은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요약을 해놓았다. 각각의 문단은 하나의 중심 주제, 진리,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각 번역본은 그 자체의 독특한 방법으로 주제를 요약한다.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번역본이 주제와 문단나누기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라.

매 장에서 우리는 성경을 먼저 읽고 주제(문단)를 찾은 다음,우리의 이해를 현대 번역본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원저자의 논리와 표현을 따라 그의 의도를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로지 원저자만이 영감을 받았다—따라서 독자들은 그 메시지를 바꾸거나 수정할 수 없다. 성경의 독자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영감된 진리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부록 1, 2, 3 에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기술적인 용어들과 약어들을 참조하라 .

ㄴ. “사도 헌장”으로 알려진 책은 요한에 의해 임명된 버가멈의 주교를 요한삼서의 가이오로 언급한다.

2. 디오드레베(수신교회에 있는 경건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
   ㄱ. 이곳은 신약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유일한 곳이다. “제우스에 의해 양육받은”을 의미하는 그의 이름은 매우 드문 이름이다. “제우스”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이 “여행자의 보호자”였던 “제우스"와 달리 여행자에게 행한 것은 반어적이다.
   ㄴ. 그의 태도는 9-10 절 나타나있다.
3. 데메드리오(요한의 편지를 이 지역교회에 전달한 자)
   ㄱ. 그는 여행하는 선교사 가운데 한 명으로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로부터 편지를 받아 전달했다.
   ㄴ. “사도 헌장”의 전통은 데메드리오를 요한에 의해 임명된 빌라델피아의 주교로 언급한다.

라. 초대교회는 여행하는 설교가/교사/전도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다. 정경이 아닌 2 세기의 초기 저작가운데 하나인 *디다케* 또는 *열 두 사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지침을 준다:

11 장—교사, 사도, 선지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와서 이미 전해진 내용을 가르치면 그를 영접하라. 그러나 그 교사가 돌이켜 이 가르침에 반하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만일 그의 가르침*이 의와 주님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면 그를 주님처럼 영접하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하여는 복음서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하라:너희에게 오는 모든 사도를 주님같이 영접하라. 그러나 그는 하루 *만* 머물러야 된다; 만일 필요가 있다면 그 다음 날까지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셋째 날에도 머무른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그 사도가 떠날 때에는 그가 다음 숙소에 가기까지 필요한 양식외에는 아무 것도 주지말라; 만일 그가 돈을 달라고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380 쪽).

12 장—그리스도인의 영접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힘입어 말한다고 하면서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을 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일 그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하면 아무도 그를 정죄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영접하라, 그 후에 너는 그를 점검하고 알게 될 것이다; 선악간에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너에게 오는 자가 도보여행자이거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도와라; 그러나 그는 너와 이틀 혹은 필요에 의해 삼일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공예가로서 너와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면 그로 하여금 일을 하여 먹게하라; 그러나 만일 네가 알기에 그가 어떤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믿는 자라면, 그가 빈둥거리며 놀고 먹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일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며 지내려는 자이다. 이런 종류의 사람으로부터 네 자신을 멀리하도록 주의하라”(381 쪽).

독서의 첫 단계(v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단번에 책 전부를 읽으라. 책 전체의 중심 주제를 당신 자신의 말로 써라.

1. 책 전체의 주제

2. 문학의 형태(장르)

독서의 두 번째 단계(vi-vii 쪽을 보라)

이것은 연구를 <u>돕기 위한</u>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

다시 한번 책 전부를 단번에 읽으라. 중심 주제에 대한 개요를 만들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1. 첫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2. 두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3. 세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4. 네 번째 문학적 단위의 주제

5. 기타

독서의 세 번째 단계(vii 쪽을 보라)
문단의 영역에서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 장을 단번에 읽으라. 주제(들)를 파악하라. 당신의 주제별 단락을 다섯 가지 현대 번역본과 비교하라. 단락구분은 영감된 것이 아니지만, 해석의 핵심에 있는 원저자의 의도를 따르는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모든 문단은 오직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

1. 첫 번째 문단

2. 두 번째 문단

3. 세 번째 문단

4. 기타

단어와 구 연구

개역개정 1 절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1 절 "장로" 장로란 용어는 "목회자"와 "주교"란 호칭과 동의어이다(참조, 딛 1:5, 7; 행 20:17, 28). 요한이서 1 절의 설명을 보라.

▣ **"사랑하는"** 이것은 요한의 편지에서 특징적인 용어이다(참조, 요일 2:7; 3:2, 21; 4:1, 7, 11; 요삼 1, 2, 5, 11), 그러나 요한복음이나 계시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 **"가이오"** 가이오나 디오드레베가 지역교회의 목회자이었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약간의 정보에 의지하여 어떤 교리적 진술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교회"와 "그들"이 있는 9 절에 의지하여 디오드레베가 어떤 교회의 지도자였고 가이오는 가까이에 있는 다른 교회의 지도자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순전히 추측일 뿐이다.

▣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과 진리"는 요한의 서신에서 종종 함께 사용된다(참조, 요이 1, 2, 3, 4; 요삼 1, 3, 4, 8, 12). 진리는 (1) 성령(참조, 요 14:17) (2)성자 예수(참조, 요 8:32; 14:6) 또는 (3) 복음의 내용(참조, 요일 2:2; 3:23)을 가리킨다.

개역개정 2-4 절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3]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2 절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헬라 편지의 전형적인 서두이다. 이것은 수신자의 재산과 건강에 대한 기도/기원이다. 이것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에게 문안하는 방법이다.

▣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것은 1 세기 헬라-로마 시대에 사용된 전형적인 시작 기도이다. 이 내용은 결코 설교자의 "건강, 부, 재산"을 입증하는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 문맥에서 격리된 성경본문은 어떤 것을 주장하기에 활용된다. 그 당시에 결코 의미하지 않았던 어떤 의미도 본문은 오늘날 말할 수 없다. 유일하게 영감받은 자는 원저자이다. 우리는 그 생각을 따라 가야하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본문에 주입해서는 안된다!

▣ **"영혼"** 이 용어 "*프쉬케*"(영혼)는 "*프뉴마*"와 거의 동의어적이다. 이 용어들은 인격체나 자신의 본질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분리된 사람의 부분(몸, 영혼, 영)을 가리키지 않는다. 사람은 유기체이다(참조, 창 2:7). 우리는 영적 존재<u>이지</u> 영혼을 <u>가진 것이</u> 아니다.

3 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참조, 요이 4; 빌 4:10).

▣ **"와서 증언하되"** 이 둘은 다 현재 분사로서 (1) 이 교회의 구성원이 정규적으로 에베소에 가서 요한에게 보고한 것 (2) 돌아간 선교사들이 가이오의 관대함을 보고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늙은 사람은 쉽게 여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교회의 처한 환경과 교회들의 성장을 듣기를 즐겨했다.

▣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 기독교는 우선적으로 신조나 의식, 또는 가입할 기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살아야 할 삶이다. 초대교회는 처음에 "그 길"로 불려졌다(참조, 행 9:2; 19:9, 23; 24:22). 진리는 지적(내용)일 뿐 아니라 또한 관계이다(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서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요 1:7 의 특별제목인 진리를 보라.

4 절 "내 자녀들" 이것은 요한서신의 일반적 수신자들이다(참조, 요일 2:12, 13, 18, 28; 3:7, 18; 4:4; 5:21). 여기에서 강조점은 (1) 요한의 사도적 권위나 (2) 요한이 그의 사역의 마지막 날을 보냈던 로마의 소아시아(터어키 서부)에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의 애정에 있다.

개역개정 5-8 절

5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6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7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8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5 절 "네가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가이오가 한 행동은 9-10 절의 디오드레베의 것과 정반대이다.

▣ **"네가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은"**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에안*과 부정과거 중간태 가정법과 사용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관점에서의 조건을 나타낸다. 가이오는 여행하는 선교사들을 모든 경우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도왔다.

▣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교회는 순회하는 이러한 기독교 선교사들을 환영하고 지원해야 했다, 하지만 지역적인 환경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고 사랑한다는 사실이외에는 그가 다른 아무 것도 알지 못했던 이러한 형제들을 돕는 일에 참여한 자는 가이오 혼자였다.

6 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에베소에 있던 초대교회는 분명히 전체 예배시간에 선교사들의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좋으리로다"** 이것은 "제발"을 나타내는 헬라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발견된다(참조, 행 10:33).

▣ **"그들을 전송하면"** 이것은 여행하는 선교사들의 채비를 갖추게 돕기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나타내는 용어이다(참조, 15:3; 롬 15:24; 고전 16:6; 고후 1:16; 딛 3:13).

▣ **"하나님께 합당하게"** 이것은 의미있게 사랑으로 풍성하게 함을 뜻한다(참조, 골 1:10; 살전 2:12). 신자들은 복음의 일군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분께 합당한 자세로 해야 한다.

7 절
신미국표준역(NASB) "그 이름을 위하여"
뉴킹제임스역(NKJV) "그의 이름을 위하여"
신개정표준역(NRSV) "그리스도를 위하여"
현대영어성경(TEV)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신예루살렘성경(NJB) "전적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것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말하는 경우이다. 신자들이 그의 이름을 믿듯이(참조, 롬 10:9; 고전 12:3; 빌 2:9-11; 요일 3:22), 그들은 또한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참조, 마 10:22; 24:9; 막 13:13; 눅 21:12, 17; 요 15:21; 20:31; 행 4:17; 5:41; 9:14; 롬 1:5; 벧전 4:14, 16; 계 2:3).

▣
신미국표준역(NASB)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뉴킹제임스역(NKJV) "이방인에게서 아무 것도 취하지 아니함이라"
신개정표준역(NRSV) "믿지않는 자로부터 아무 지원도 받지 아니함이라"
현대영어성경(TEV) "불신자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아니함이라"
신예루살렘성경(NJB) "믿지않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도 의지하지않고"

이것은 1 세기 말 이교도나 불신자를 암시하는 "이방인"의 용법이다(참조, 마 5:47; 벧전 2:12; 4:3). 신자들은 복음의 일을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돕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요한의 시대에 여행하며 가르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돈과 명예를 구하며 가르쳤다. 하나님의 교사/설교자/전도자들은 그들의 말 때문에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참여하는 주님의 선교를 인하여서 돕도록 되어 있었다.

8 절 "마땅하니" 이것은 종종 반복되어 나타나는 도덕적인 훈계이다(참조, 요 13:14; 19:7; 요일 2:6; 3:16; 4:11). *오페일로*란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재정적인 채무에 있음을 뜻하지만, 누구에게 행하여야 할 의무나 신세짐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다.

▣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손접대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의무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관의 통탄할 만한 도덕적 상태때문이었다(참조, 마 25:35; 롬 12:13; 딤전 3:2; 5:10; 딛 1:8; 히 13:2; 벧전 4:9).

▣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신자들이 선교사를 도움으로 믿음과 진리의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이다! 그리스도인의 구제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은 고후 8-9 장에 나온다.

개역개정 9-10 절

[9]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0]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9 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것은 요한일서나 요한이서 혹은 잃어버려진 편지를 말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요한이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

▣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것은 현재 능동 분사이다. 이 말은 "사랑"(*필레오*)와 "첫째 자리를 잡는다"(*프로투오*)의 합성어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었지만 두 번째 단어는 골 1:18 에서 그리스도의 뛰어난 지위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 사람은 "권력 중개인" 혹은 "교회의 두목"으로 맨 처음 기록되었다. 우리는 그가 목회자이었는지 혹은 단지 유력한 평신도이었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이 절은 그의 동기를 말해준다. 이런 종류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가 영지주의자이었는지는 불확실하고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디오드레베는 사도적인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지도를 대항하고 그것을 따르려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까지 행했다!

10 절 "만일" 이것은 제 3 의 조건절로서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말한다.

▣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은 이 사람의 동기(참조, 9 절)와 행위(참조, 10 절)를 분명하게 밝히기 원했다:

1. 신미국표준역(NASB) – "사악한 말로 우리를 바르지 않게 비난하는"
   뉴킹제임스역(NKJV) – "적의있는 말로서 우리에게 대하여 지껄이는"
   신개정표준역(NRSV) – "우리에 대한 거짓 혐의를 퍼트리는"
   현대영어성경(TEV) – "그가 우리에 대하여 말하는 나쁜 일과 그가 말하는 거짓말"
   신예루살렘성경(NJB) – "그가 퍼트리는 우리에게 대한 사악한 비난"
2. "그 자신은 형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그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금한다"
4. "그는 교회로부터 그들을 쫓아낸다

이사람은 주목받기를 원하고 다른 이가 함께 주목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제거할 것이다.

> ## 개역개정 11-12 절
>
>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12]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11 절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이것은 현재 중간태(디포) 명령으로서 진행중인 행동을 멈추게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었다. 영어의 "흉내내다"는 말은 헬라어(*미메오마이*)에서 왔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모델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들은 교회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참조, 살후 3:7, 9; 히 6:12; 13:7). 데메드리오는 좋은 모본이었고, 디오드레베는 악한 모델이었다.

▣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요한의 서신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를 아는 세 가지 점검사항을 말한다. 여기서는 순종의 점검이다(참조, 요일 2:3-6, 28-29; 3:4-10; 5:18; 요이 6). 또한 다른 두 가지 점검사항에 대한 암시가 있다: (1) 교리(3-4 절) (2) 사랑(1-2, 6 절).

▣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거짓교사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경건하지 않고 사랑하지않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무법적이고 방종한 영지주의자를 반영하는데, 그들은 구원이 확신하는 지적인 진리이지 매일의 삶과 하등 관계가 없다고 믿었다.

12 절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이것은 완료 수동 직설법이다. 이것은 요한이 선교사 데메드리오에 대한 일로 가이오를 칭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메드리오는 요한삼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신약에서 칭찬이 나타나는 다른 편지들을 보려면 행 18:27; 롬 16:1; 고전 16:3; 고후 3:1; 8:16-24; 골 4:10 을 참조하라.

▣ **"진리에게서도"** 진리는 데메드리오의 좋은 간증에 대한 의인화된 표현이다.

▣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 자신의 진실된 증거를 하고있다(참조, 요 19:35; 21:24).

> ## 개역개정 13-14 절
>
> **[13]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14]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13 절 이것은 요한이서 12 절과 매우 유사하다.

> ## 개역개정 14b 절
>
> **[14b]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14 절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분명히 히브리어 표현인 *샬롬*을 말한다(참조, 눅 10:5). 이것은 "안녕하세요" 또는 "안녕히 계세요"를 뜻할 것이다. 이 표현은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을

뜻한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맨 처음하신 말씀이다(참조, 요 20:19, 21, 26). 바울(참조, 엡 6:23)과 베드로(참조, 벧전 5:14)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를 마치면서 사용하고 있다.

▣ **"이름을 들어"** 이것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며 따뜻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말은 종종 이집트 파피루스에서 사용되었다.

생각할 질문들

이것은 연구를 돕기 위한 주석이다. 이 말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일에 책임 있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성경해석에 있어서 당신(해석자), 성경, 성령이 모두 중요하다. 당신의 책임을 주석가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아래의 질문들은 이 부분의 주요 요점들을 깊이 생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돕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정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1. 왜 가이오와 데메드리오가 서로 다른지에 대해 여러 종류의 설명이 있었다. 그 제안들은 다음과 같았다: (1) 신학적 이유 (2) 사회적 이유 (3) 교회적 이유 (4) 도덕적 이유. 각 제안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이것들이 요한삼서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하라.

2.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3.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 계속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위한 세 가지 점검사항을 말하라.

부록 1

헬라어 문법용어의 간략한 정의

종종 헬라적 그리스어로 불리는 코이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주전 336-323)의 정복시기부터 시작하여 800 년간(주전 300-주후 500) 지중해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언어였다. 이것은 간소화된 고전 헬라어이었고 또한 여러 면에서 헬라어의 새로운 모습을 지녀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의 지역에서 제 2 언어가 되었다.

신약의 헬라어는 어떤 면에서 독특한데 그 이유는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글은 아람어의 관용적인 표현과 구조적인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진 칠십인역(구약의 헬라어 역본)을 읽었고 인용했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헬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유대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다.

이 점은 우리로 신약성경을 융통성없는 문법구조로 밀어넣을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신약의 헬라어는 독특하면서도 (1) 칠십인역 (2) 요세퍼스 등의 유대 저작 (3) 이집트의 파피루스에서 발견되는 것과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약성경의 문법적인 분석을 할 것인가?

코이네 헬라어와 신약성경의 코이네 헬라어의 문법적 특성에는 유동성이 있다. 여러 면에서 이 헬라어는 단순화한 문법의 시기였다. 문맥이 우리의 주요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단어들은 오직 커다란 문맥에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문법적인 구조를 오직 (1) 저자의 특징적인 스타일 (2) 특별한 문맥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헬라어 형태와 구조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정의도 가능하지 않다.

코이네 헬라어는 우선적으로 동사적인 언어였다. 종종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해석의 열쇄가 된다. 대부분의 주절에서 동사가 맨 앞에 나옴으로써 그 중요성을 보인다. 헬라어 동사를 분석함에 있어서 3 가지 사항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시제, 태, 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강조점(어형론 또는 형태론) (2) 어떤 동사의 기본적인 뜻(사전적 의미) (3) 문맥의 흐름(구문론).

I. 시제

가. 시제나 시상은 동사가 완료된 행동 또는 미완료된 행동에 관련됨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완료적” “미완료적”으로 불린다.

1. 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일어남에 초점을 둔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외에는 다른 사항을 말하지 않는다! 그일의 시작, 계속, 또는 결과는 말해지지 않는다.
2. 미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계속적인 과정에 있음에 초점을 둔다. 이것은 직선상에 일어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진행적인 행동 등으로 설명된다.

나. 시제는 저자가 그 일을 어떻게 되어진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1. 그 일이 발생했다 = 부정과거
2. 그 일이 발생하여 결과가 남아있다 = 완료
3. 그 일이 과거에 발생했고 결과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 과거완료
4. 그 일이 발생하고 있다 = 현재
5. 그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 미완료
6. 그 일이 발생할 것이다 = 미래

어떻게 이 시제가 해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는 “구원하다”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이 단어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시제가 그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1. 부정과거- “구원받았다”(참조, 롬 8:24)
2. 완료- “구원받아 그 결과가 계속된다”(참조, 엡 2:5, 8)
3. 현재- “구원받고 있다”(참조, 고전 1:18; 15:2)
4. 미래- “구원받을 것이다”(참조, 롬 5:9, 10; 10:9)

다. 동사의 시제에 초점을 두면서, 해석자는 원저자가 왜 이러한 시제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 “아무 장식이 없는” 기본적인 시제는 부정과거이다. 이것은 보통의 동사형태로서 “특별하지 않고” “특별한 표시가 없는” 혹은 “약하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광범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문맥에서 그 정확한 뜻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났음을 말한다. 과거의 시간은 직설법에서만 나타난다. 만일 다른 시제가 사용되었다면 특별한 어떤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나 어떻게?

1. 완료시제. 이것은 결과로 남아있는 완료된 행동을 말한다. 어떤 의미에서 부정과거와 현재시제의 결합이다. 보통은 남아있는 결과 혹은 완료된 행동에 초점이 있다. 예: 엡 2:5 과 8 절,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계속해서 구원을 받고 있다.”
2. 과거완료시제. 이것은 결과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료와 같다. 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요 18:16).
3. 현재시제. 이것은 끝나지 않았거나 미완료인 행동을 말한다. 보통 사건의 계속성에 강조가 있다. 예: “그의 안에 있는 자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난 자는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 (요일 3:6, 9).
4. 미완료시제. 이 시제가 현재시제에 대해 갖는 관계는 완료와 과거완료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 미완료시제는 완료되지 않은 일이 지금은 그쳐졌거나 과거에 그 일이 시작된 것을 말한다. 예: “그 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아오고 있었다” 혹은 “그때에 모든 예루살렘이 그에게 나아오기 시작했다”(마 3:5).
5. 미래시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나도록 되어있는 일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강조점은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있지 그것이 실제로 일어남에 있지 않다. 이 시제는 종종 어떤 사건의 확실성을 말한다. 예: “~자들은 복이 있나니”(마 5:4-9).

II. 태

가. 태는 동사의 행동과 주어와의 관계를 말한다.

나. 능동태는 일반적이고 예측되며 강조점을 두지 않는 방법으로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다. 수동태는 동사의 행동을 외부의 것에 의해 주어가 받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행동을 유발하는 외부의 요인은 전치사와 격으로 표시된다:

1. 직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휘포*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행 22:30)
2. 간접적으로 사람인 경우로 *디아*와 탈격으로 표시됨(참조, 마 1:22)
3. 사람이 아닌 경우로 *엔*과 기구격으로 표시됨
4. 어떤 때는 사람 혹은 사람이 아닌 경우로 기구격으로만 표시됨

라. 중간태는 주어가 동사의 행동을 일으키며 또한 그 동사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말한다. 종종 저자의 고조된 관심을 나타내는 태로 불린다. 이 형태는 절이나 문장의 주어게 어떤 면에서 강조점을 둔다. 영어에는 없는 태이다. 의미와 번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융통성이 있다. 몇 가지 형태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재귀 – 주어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 예: “자신을 목 매달았다”(마 27:5).
2. 강조 – 주어가 지신을 위해 행동을 함. 예: “사탄이 빛의 천사들처럼 자신을 가장한다”(고후 11:14).
3. 상호작용 – 두 주어의 상호작용. 예: “그들이 서로 상의했다”(마 26:4).

III. 법(혹은 “모드”)

가. 코이네 헬라어에는 4 가지 법이 있다. 이것은 동사와 사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저자 자신의 생각속에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은 두 가지 큰 범주로 나뉜다: 사실을 나타내는 것(직설법)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가정법, 명령법, 희구법).

나. 직설법은 적어도 저자의 생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헬라어의 법중 <u>유일하게</u> 한정된 시간을 말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이러한 시상은 이차적이다.

다. 가정법은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어떤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직설법 미래와 공통점을 많이 갖는다. 차이점은 가정법은 어느 정도의 의구심을 내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종 “했었을 지도” “였을 지도” “할 지도” “했을 지도”로 표현된다.

라. 희구법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희망을 나타낸다. 가정법보다 실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여겨진다.희구법은 어떤 조건에서의 가능성을 말한다. 신약에서 드물게 나온다. 바울의 유명한 표현에서 나오는데, “”그럴수 없다”(흠정역,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말이 15 회 사용되었다(참조, 롬 3:4, 6, 31; 6:2, 15; 7:7, 13; 9:14; 11:1, 11; 고전 6:15; 갈 2:17; 3:21; 6:14). 다른 예는 눅 1:38; 20:16; 행 8:20; 살전 3:11 에 있다.

마. 명령법은 가능한 명령을 강조하지만, 주어의 의지를 강조한다. 이것은 의지적인 가능성만을 말하며 다른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다. 기도와 3 인칭으로 한 요구에서 명령법은 특별한 용법을 갖는다. 신약에서 이러한 명령은 현재형과 부정과거 시제로만 나온다.

바. 어떤 문법가들은 분사를 또 하나의 법으로 본다. 이것은 신약 헬라어에서 매우 흔하며 대개는 동사적 형용사로 정의된다. 이것은 본 동사와의 관계에서 번역된다. 분사를 번역함에 있어서 많은 다양성이 있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 영어성경을 참고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 번역본 성경*은 매우 유용하다.

사.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은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원저자가 나타내려는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

IV. 헬라어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음의 책들은 필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가. 프리벡, 바바라와 디모티.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그랜드래피트: 베이커, 1988.

나. 마샬, 알프렌. *헬라어-영어 행간 신약성경*.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76.

다. 마운스, 윌리엄 D. *분석적 신약성경 헬라어 사전*. 그랜드래피트: 존더반, 1993.

라. 섬머즈, 레이. *신약성경 헬라어의 핵심*. 내쉬빌: 브로드만, 1950.

마. 코이네 헬라어에 대한 학문적 과목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무디성경연구원에서 수강할 수 있다.

V. 명사

가. 구문적으로 명사는 격으로 구분된다. 격은 어떤 어형변화를 가진 명사가 한 문장에서 동사와 다른 품사와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 코이네 헬라어에서 많은 경우 격의 의미는 전치사에 의해 표현된다. 격변화는 여러가지 다른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의미의 구분을 위해 전치사의 사용이 발달되었다.

나. 헬라어의 격은 다음의 8 가지로 구별된다:

1. 주격은 이름을 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대개 문장이나 절의 주어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서술적인 명사나 형용사가 "~이다" 혹은 "~이 되다"의 동사와 사용된다.
2. 소유격은 설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이것이 사용되는 단어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다. 이 격은 "어떤 종류?"를 묻는 질문에 답을 준다. 종종 "~의"란 의미를 갖는다.
3. 탈격은 소유격과 같은 어형변화를 갖지만, 분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것은 시간, 장소, 자료, 기원, 정도 등에 있어 분리를 뜻하기 위해 사용된다. 종종 "~로 부터"에 해당한다.
4. 여격은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 이것은 긍정적, 부정적 면을 가질 수 있다. 종종 이것은 간접목적을 나타낸다. 종종 "~에게"란 의미를 갖는다.
5. 위치격은 여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위치, 공간적 장소, 시간이나 논리의 한계를 나타낸다. "안에, 위에, ~에, 가운데, 동안, 에 의해, 더불어" 등의 의미를 갖는다.
6. 기구격은 여격 위치격과 같은 격변화를 갖는다. 도구나 협력관계를 나타낸다. 종종 "에 의해" 혹은 "와 함께"로 번역된다.
7. 목적격은 행동의 결말을 나타내며, 한계를 표현한다. 이것은 주로 직접목적어로 사용된다. "얼마만큼?" 혹은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답을 준다.
8. 호격은 직접화법에서 사용되었다.

VI. 접속사와 관계사

가. 헬라어는 매우 많은 관계사를 갖고 있기에 매우 정확한 언어이다. 접속사는 생각(절, 문장, 문단)을 연결한다. 전치사없이 자주 나오기에 종종 석의에 있어 중요하다. 사실상 이러한 접속사와 관계사는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 지를 보여준다. 종종 접속사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매우 결정적이다.

나. 여기에 몇가지 접속사와 관계사의 뜻을 제시하였다(이 자료는 주로 H. E. 다나 줄리어스 K. 만티가 공저한 *신약성경헬라어의 매뉴얼 문법*에서 발췌했다).

1.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ㄱ. *에피, 에페이데, 호포데, 호스, 호테, 호탄* (주어) – "언제"
   ㄴ. *헤오스* – "하는 동안"

ㄷ. *호탄, 에판* (주어) – "언제나"
ㄹ. *헤오스, 아크리, 메크리*(주어) – "까지"
ㅁ. *프리브* (부정사) – "이전에"
ㅂ. *호스* – "이래," "언제," "할 때"

2. 논리적 접속사
   ㄱ. 목적
      (1) *히나*(주어), *호포스* (주어), *호스* – "하기 위하여," "그래서"
      (2) *호스테*(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3) *프로스*(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에이스* (관사를 갖는 목적격 부정사) – "그래서"
   ㄴ. 결과(목적과 결과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가 서로 가깝다)
      (1)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2) *히나*(주어) – "그 결과"
      (3) *아라* – "그래서"
   ㄷ. 원인 또는 이유
      (1) *가르*(원인/효과 또는 원인/결론) – "위하여," "왜냐하면"
      (2) *디오티, 호티* – "왜냐하면"
      (3) *에페이, 에페이데, 호스* – "때문에"
      (4) *디아*(목적격과) 그리고 (관사와 쓰인 부정사와) – "왜냐하면"
   ㄹ. 추론의
      (1) *아라, 포이눈, 호스테* – "그래서"
      (2) *디오*(강한 추론적인 접속사) – "그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3) *운* –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다면," "따라서"
      (4) *토이눈* – "따라서"
   ㅁ. 부사적 또는 대조
      (1) *알라*(강한 부사) – "그러나," "외에는"
      (2) *에* –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한편"
      (3) *카이* – "그러나"
      (4) *멘토이, 운* – "그러나"
      (5) *플렌* – "그럼에도"(주로 누가복음에서)
      (6) *운* – "그렇지만"
   ㅂ. 비교
      (1) *호스, 타소스*(비교절을 이끎)
      (2) *카다*(합성어에서, *카소, 카소티, 타소스페르, 카사페르*)
      (3) *호소스*(히브리서에서)
      (4) *호스테*(가장 많은 경우, 부정사) – "하기 위하여," "따라서"
      (5) *에* – "보다"
   ㅅ. 계속 또는 시리즈
      (1) *테* – "그리고," "지금"
      (2) *카이* – "그리고"
      (3) *테이* – "그리고"
      (4) *히나, 운* – "그래서"
      (5) *운* – "그 때"(요한복음에서)

3. 강조적 용법
   ㄱ. *알라* – "확실히," "정말," "사실상"
   ㄴ. *아라* – "정말," "확실히," "정말로"
   ㄷ. *가르*– "그러나 정말로," "확실히," "사실"
   ㄹ. *데* – "정말"
   ㅁ. *에안* – "조차"
   ㅂ. *카이* – "조차," "정말," "사실"
   ㅅ. *멘토이* – "정말"
   ㅇ. *운* – "정말," "결단코"

VII. 조건절

가. 조건절은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조건절을 가지는 문장이다. 이 문법적인 구조는 해석에 도움을 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 이유, 원인을 제공하여 왜 본동사의 행동이 일어났는지 혹은 그것이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말해주기 때문이다. 4 가지의 조건절이 있다. 조건절은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것에서부터 단지 그가 바라고 있는 것 등 다양하다.

나. 조건절의 제 1 유형은 비록 "만일"이라는 말로 나타나지만 저자의 관점이나 목적에서 볼 때 사실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한다. 여러 문맥에서 이것은 "~이므로"로 해석된다(참조, 마 4:3; 롬 8:31). 그러나 이 점은 모든 제 1 유형이 사실상 진실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이것은 논쟁에 있어서 논쟁점을 드러내거나 오류를 뚜렷이 보이기 위해 사용된다(참조, 마 12:27).

다. 조건절의 제 2 유형은 "사실에 반대되는 것"으로 종종 불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논지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로서는:

1.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는 선지자가 아니라 모르고 있다"(눅 7:39).
2.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면 너희는 나를 믿었을 텐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아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요 5:46).
3.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전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으며 나는 그 분의 종이다"(갈 1:10).

라. 조건절의 제 3 유형은 가능한 미래의 행동을 말한다. 이것은 종종 그 행동의 개연성을 예측한다. 대개 우연히 일어남을 내포한다. 본동사의 행동은 "it"절에 있는 행동에 부수하여 일어난다. 예로서는 요일 1:6-10; 2:4, 6, 15, 20, 21, 24, 29; 3:21; 4:20; 5:14, 16 이 있다.

마.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한층 더 가능성을 제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드물게 사용된다. 사실상 이런 조건이 모두 딱 들어맞는 조건절의 제 4 유형은 없다. 벧전 3:14 의 앞 부분에 제 4 유형의 부분적인 예가 나온다. 행 8:31 에서는 뒤 부분에 제 4 유형이 부분적으로 나온다.

VIII. 금지

가. 현재 명령형과 함께 사용된 *메* 불변화사는 종종(그러나 항상은 아님) 이미 진행중인 어떤 행동을 멈추는 것을 나타낸다. 예로서는: "땅위에 너의 재물 쌓기를 멈추어라"(마 6:19); "너의 인생에 대해 걱정하기를 멈추어라"(마 6:25); "너의 육체의 부분을 잘못함의 도구로 죄에게 드리는 것을 멈추어라"(롬 6:13);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기를 멈추어라"(엡 4:30); "포도주에 취해 있기를 멈추어라"(5:18).

나. 부정과거 가정법과 함께 사용된 *메* 불변화사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것 조차 하지 않게"하는 의미를 갖는다. 예로서는: "이라고 가정하기 시작조차 말라"(마 5:17); "근심하기를 결코 시작하지 말라"(마 6:31); "너는 결코 수치로 여기지 말라"(딤후 1:8).

다. 이중부정과 함께 사용된 가정법은 부정을 매우 강하게 강조한다. "결코, 절대로 아니" 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아니." 예로서는: "그는 결코,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요 8:51); "나는 결코, 절대로 아니…"(고전 *:13).

XI. 관사

가. 코이네 헬라어에서 정관사 "그"는 영어의 관사와 유사하다. 이것의 기본적인 기능은 "지시하는 것"으로서 단어, 이름, 또는 구에 관심을 끌게한다. 신약에서 저자마다 그 사용법이 많이 다양하다. 정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시대명사처럼 대비를 하는 기능
2. 이 전에 나온 주제나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
3. 문장에서 주어를 해당되는 동사에 연결시키는 기능. 예: "하나님은 영" 요 4:24; "하나님은 빛" 요일 1:5; "하나님은 사랑" 4:8, 16.

나. 코이네 헬라어는 부정관사(a, an)를 갖지않는다. 정관사가 없는 경우는

1. 어떤 것의 특징이나 특성에 초점이 있다
2. 어떤 것의 그룹에 초점이 있다.

다. 신약의 저자들이 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XI. 신약성경 헬라어에서 강조점을 나타내는 경우들

가. 신약에서 저자들이 강조점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누가와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일정하고 격식적인 어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 우리는 이미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이 보통의 혹은 "아무 표시도 안한" 방법으로 어떤 일을 기록한 것과 그 이외의 모든 시제 태 법은 어떤 특별한 해석적인 고려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이말은 부정과거 능동 직설법에 아무런 문법적인 고려점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예: 롬 6:10(2 회).

다. 코이네 헬라어의 어순

1. 코이네 헬라어는 여형변화가 있는 언어로서, 어순이 영어처럼 고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저자는 기대되는 일반적인 어순과 다음의 이유에서 달라질 수 있다
   ㄱ. 저자가 독자에게 강조하기 원했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
   ㄴ. 저자가 생각하기를 독자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기 위해
   ㄷ. 저자가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2. 헬라어의 일반적 어순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이 있다. 그러나 추정되는 일반적 어순은 다음과 같다:
   ㄱ. 연결동사에서
      (1) 동사
      (2) 주어
      (3) 보충어
   ㄴ. 타동사에서
      (1) 동사
      (2) 주어
      (3) 목적어
      (4) 간접 목적어
      (5) 전치사 구
   ㄷ. 명사 구에서
      (1) 명사
      (2) 수식어
      (3) 전치사 구
3. 어순은 석의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예:
   ㄱ. "오른손을 그들이 주었다 나에게와 바나바 교제의"(갈 2:9). 이 구에서 "교제의 오른손"이 나뉘어져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한다.
   ㄴ. "그리스도와"(갈 2:20)이 맨 앞에 나온다. 그의 죽으심이 중심에 있다.
   ㄷ. "그것은 조금씩 많은 다른 방법으로"(히 1:1)가 맨 앞에 나온다. 하나님의 계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가 대비되고 있다.

라. 일반적으로 강조의 강도는 다음에 의해 나타난다

1. 동사의 어형변화에 이미 나타나 있는 대명사의 반복. 예 "나, 나 자신이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20).
2. 예상되는 접속사의 부재 혹은 단어 구 절 문장을 잇는 연결용어의 부재. 이것은 접속사의 생략으로 불린다. 연결용어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그것이 없음으로서 주의를 끈다. 예:
   ㄱ. 산상수훈, 마 5:3 이하(항목을 강조)
   ㄴ. 요 14:1(새 주제)
   ㄷ. 롬 (:1(새 단락)
   ㄹ. 고후 12:20(항목을 강조)
3. 단어 혹은 구를 같은 문맥에서 반복함. 예: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엡 1:6, 12, 14). 이 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의 사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4. 관용어 혹은 언어(소리)유희를 이루는 용어의 사용

ㄱ. 완곡어법 – 타부시 되는 주제를 대신하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죽음대신 "잠"(요 11:11-14) 혹은 남성 성기대신 "발"(룻 3:7-8; 삼상 24:3).

ㄴ. 둘러서 표현하기 – 하나님의 이름대신에 "하나님의 왕국"(마 3:21) 혹은 "하늘에서의 소리"(마 3:17)로 표현.

ㄷ. 수사법

(1) 불가능한 과장(마 3:9; 5:299-30; 19:24).

(2) 다소의 과장(마 3:5; 행 2:36).

(3) 의인화(고전 15:55).

(4) 모순(갈 5:12).

(5) 시적 본문(빌 2:6-11).

(6) 단어들의 발음을 사용한 언어적 기교

ㄱ) "교회"

1) "교회"(엡 3:21)

2) "부르심"(엡 4:1, 4)

3) "부르심을 입은"(엡 4:1, 4)

ㄴ) "자유로운"

1) "자유한 여인"(갈 4:31)

2) "자유"(갈 5:1)

3) "자유한"(갈 5:1)

ㄹ. 관용적 언어 – 대개 문화와 언어에 독특한 표현법:

(1) "음식"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4:31-34).

(2) "성전"에 대한 묘사적인 표현(요 2:19; 마 26:61).

(3) "미워함"은 히브리어의 불쌍히 여김에 대한 관용적 표현임(창 29:31; 신 21:15; 눅 14:36; 요 12:25; 롬 9:13).

(4) "모든" 대 "많은." 사 53:6("모든")을 53:11, 12("많은")과 비교하라. 이 용어들은 롬 5:18, 19 에서 처럼 동의어적으로 사용된다.

5. 한 단어 대신에 완전한 언어적 구를 사용하기. 예: "주 예수 그리스도."

6. *아우토스*의 특별용법

ㄱ. 관사와 함께(설명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같은"으로 번역된다.

ㄴ. 관사없이(서술적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강화된 재귀대명사로 번역된다—"그 자신," "그녀 자신," 또는 "그 자신."

마. 헬라어 성경을 읽지 못하는 학생들은 여러 사항들에서 강조점을 발견할 수 있다:

1. 분석적 사전과 헬라어/한국어 행간 성경.

2. 여러 현대 번역본, 특히 다른 번역이론을 가진 번역본의 비교연구. 예: "축어적 번역본"(KJV, NKJV, ASV, MASB, RSV, NRSV)와 "등가번역본"(윌리암스, NIV, NEB, REB, JB, NJB, TEV). 베이커사에서 발행한 *26 개언어 성경*은 많은 도움이 된다.

3. 요셉 브라이언트 로더햄의 *강조 성경*(크레겔, 1994)의 사용.

4. 매우 문자적 번역본의 사용

ㄱ. 1901 년판 *미국표준역*

ㄴ. 로버트 영이 쓴 *영의 문자적 번역 성경*(가디안 출판사, 1976).

문법의 연구는 지루하지만 적절한 해석을 위해 필요하다. 위의 간략한 정의, 설명, 예들은 헬라어를 모르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이책에서 제공한 문법적 사항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위함이다. 이 정의들은 너무 간략한 것이 사실이다. 이 정의들은 교조적이고 융통성없게 사용될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신약의 구문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나아가도록 징검다리역할을 할 뿐이다. 바라기는 이 정의들이 신약성경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석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의 본문에 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우리의 해석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문법은 이런 항목 중 가장 유용한 내용이다; 다른 항목들은 역사적 상황, 문학적 문맥, 그 당시의 단어 사용법, 병행되는 성경귀절이 있다.

부록 2

본문비평

이 주제는 본 주석에 나오는 본문비평적 용어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개요를 사용할 것이다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가. 구약
   나. 신약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으로 불리는 이론과 문제점에 대한 간략한 설명
III.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I. 성경의 본문비평 자료

가. 구약

1. 맛소라본문(MT) – 히브리 자음 본문은 주후 100 년에 랍비 아퀴바에 의해 고정되었다. 모음부호, 악센트, 난외주, 쉼표, 본문비평 각주는 6 세기에 첨가되기 시작했고 9 세기에 완성되었다. 이 일은 맛소라로 알려진 유대인 학자의 가족에 의해 되었다. 그들이 사용했던 본문의 형태는 미쉬나, 탈무드, 탈굼, 페쉬타, 벌게이트의 것과 같은 종류였다.
2. 칠십인역(LXX) – 전통은 70 명의 유대학자들이 프톨레미 2 세(주전 285-246)의 후원 아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위해 70 일 동안 번역을 하여 마쳤다고 말한다. 이 번역본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나와 있다. 칠십인역은 자주 랍비 아퀴바의 본문(MT)과는 다른 히브리어 본문에 기초한다.
3. 사해사본(DSS) – 사해사본은 주전의 로마시대(주전 200-주후 70)에 "에세네파"로 불리는 유대교 분리주의파에 의해 쓰여졌다. 사해주변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 히브리어 사본은 맛소라사본과 칠십인역을 뒷받침하는 히브리어 본문과는 약간 다른 계열로 보인다.
4. 어떻게 이들 본문이 구약을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몇 가지 예는
   ㄱ. 칠십인역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1) 칠십인역의 사 52:14, "많은 이가 <u>그를</u> 보고 놀라게 되듯이."
      (2) 맛소라본문의 사 52;14, "많은 이가 <u>너를</u> 인해 당황하게 되듯이."
      (3) 사 52:15 에서 칠십인역의 대명사적 차이는 확인된다
         ㄱ) 칠십인역,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ㄴ) 맛소라본문, "그래서 그는 많은 나라를 흩을 것이다"
   ㄴ. 사해사본은 번역가와 학자들이 맛소라본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1) 사 21:8 의 사해사본, "그 때 보는 자가 외쳤다, 내가 파수대위에 섰다."
      (2) 사 21:8 의 맛소라본문, "그리고 나는 외치기를 사자! 내 주여, 나는 낮에 . . . 계속해서 파수대위에 서 있습니다."
   ㄷ. 칠십인역과 사해사본이 사 53:11 을 명확하게 한다
      (1) 칠십인역과 사해사본, "그의 영혼이 구로한 후에 그는 빛을 보게 된가, 그는 만족하게 된다"
      (2) 맛소라본문, "그는 보게 된다. . . 그의 영혼의 구로, 그는 만족하게 된다."

나. 신약

1. 5,300 개가 넘는 헬라어 신약성경 사본의 전체나 일부분이 현존한다. 85 개 정도가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268 개는 전체가 대문자로(언셜)로 된 사본이다. 후기인 9 세기 경부터 흘림체(소문자체)가 사용되었다. 헬라어 사본이 기록된 형태의 숫자는 약 2, 700 개이다. 우리는 또한 성구집이라 불리는 예배에 쓰인 대략 2,100 개의 성경 필사본의 목록을 갖고 있다.
2. 신약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대략 85 개의 헬라어 사본이 파피루스에 쓰여졌고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어떤 사본은 2 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대부분은 3-4 세기의 것이다. 어떤 사본도 신약 전체를 갖고 있지 않다. 신약의 가장 오래된 사본들이라고 자동적으로 적은 변이를 갖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지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급하게 쓰여졌다. 그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많은 변이를 갖는다.
3. 시내사본은 히브리 자음 א(*알레프*) 혹은 (01)로 알려져 있는데, 티셴도르프에 의해 시내산에 인는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것이며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어 신약성경을 갖고 있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4. “A” 혹은 (02)로 알려진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5 세기의 헬라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견되었다.
5. “B” 혹은 (03)로 알려진 바티칸 사본은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으며 4 세기 중엽의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70 인역본과 헬라어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알렉산드리아 본문”에 속한다.
6. “C” 혹은 (04)로 알려진 에프라미 사본은 5 세기의 사본으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7. “D” 혹은 (05)로 알려진 베자 사본은 5-6 세기의 사본이다. 이것은 중요한 “서방 본문”이다. 이것은 많은 첨가를 갖고 있고 흠정역본의 기초가 되는 주요 헬라어 사본이다.
8. 신약의 사본들은 세 그룹 또는 네 그룹으로 대별되며 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을 함께 갖는다.
   ㄱ.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본문
      (1) P^{75}, P^{66}(주후 200 경), 복음서
      (2) P^{46}(주후 225 경), 바울서신
      (3) P^{72}(주후 225 경), 베드로서 유다서
      (4) B 사본으로 불리는 바티칸 사본(주후 325 경), 구약과 신약 전체
      (5) 오리겐은 이 본문그룹을 인용한다
      (6) 이 그룹에 속한 다른 사본들은א, C, L, W, 33
   ㄴ. 북 아프리카의 서방 본문
      (1) 북 아프리카의 교부인 터툴리안, 사이프리안의 인용과 고대 라틴역
      (2) 이레니우스의 인용
      (3) 타티안의 인용과 고대 시리아역
      (4) 베자 사본(D)은 이 그룹에 속한다
   ㄷ. 콘스탄틴노플의 동방 비잔틴 본문
      (1) 이 본문 그룹에 속한 사본은 5,300 사본의 80%에 이른다
      (2) 시리아 안디옥의 교부인 캅바도시안, 크리소스톰, 데오오렛의 인용
      (3) C 사본, 복음서만
      (4) E 사본(8 세기), 신약 전체
   ㄹ. 네 번째로 가능한 그룹은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 본문”이다
      (1) 이것은 주로 마가복음에만 있다
      (2) P^{45} 와 W 가 이에 속한다.

II. “본문비평” 혹은 “하등비평”의 이론과 문제점

가. 어떻게 변이가 생겼는가
1. 부주의 혹은 실수(아주 많은 경우가 해당됨)
   ㄱ. 손으로 옮겨 쓰는 과정에서 두 비슷한 단어의 두 번째 단어로 눈이 옮겨져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글자를 놓치게 되는 것(비슷한 단어 탈락)
      (1) 중복되는 글자나 구를 보지 못하고 빠트리는 것(중자탈락)
      (2) 헬라어 본문의 구나 문장을 반복하는 실수(중복오사)
   ㄴ. 귀로 듣고 필사하는 과정에서 철자가 틀리는 것. 종종 철자의 오류는 헬라어의 비슷한 소리로 인한 것임을 의미한다.
   ㄷ. 이른 시기의 헬라어 본문은 장이나 절의 구분이 없었고, 마침표가 전혀 혹은 거의 없었고 단어사이의 구분도 없었다.
2. 고의적
   ㄱ. 필사자의 본문에서 문법적인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변화
   ㄴ. 다른 귀절들과 일치시키기 위해 본문에 만들어진 변화(병행귀절의 조화)
   ㄷ. 차이를 보이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본문을 하나로 길게 조합하는데서 만들어진 변화(합성)
   ㄹ. 인식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본문을 고치는 것에서 만들어진 변화(참조, 고전 11:27; 요일 5:7-8)
   ㅁ. 이전의 서기관이 난외에 기록한 본문의 역사적 상황이나 적절한 해석에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자료를 그 다음 서기관이 본문으로 생각하여 생기는 변화(참조, 요 5:4)

나. 본문비평의 기본 원리(본문에 상이점이 있을 때 원래의 본문을 결정하기 위한 논리적 지침)
1. 가장 이상하거나 문법적으로 일상적이지 않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2. 가장 짧은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3. 다른 것은 모두 같은 수준에 있을 때, 가장 오래된 본문이 역사적으로 원본에 더 근접하기에 더 무게가 있다.
4. 지역적으로 변이를 보이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5. 요일 5:7-8 의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으로 주요한 논제를 다룬 시기의 사본적인 다양성이 있는 경우에, 교리적 색체가 약한 본문이 더 선호되는 본문이다.

6. 다른 본문에 있는 상이점들의 기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이 대체로 원래의 본문이다.
7. 이러한 어려운 차이점들을 다룸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인용을 두 가지 소개하면
   ㄱ. J. 해롤드 그린리의 책, 신약의 본문비평 개론, 68 쪽:
   "어떤 기독교 교리도 논란이 되는 본문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신약학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영감받은 원래의 본문이야말로 가장 정통이고 교리적으로 강하기 위해 그가 가져야 할 본문이라는 것이다.
   ㄴ. W. A. 크리스웰은 *버밍햄 뉴스*의 그렉 개리슨에게 그(크리스웰)는 "적어도 오늘날의 대중에게 전해지기까지 수 세기에 걸쳐 번역가들을 거친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영감되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나는 본문비평을 대단히 신뢰한다. 따라서 나는 마가복음 16 장의 마지막 절반은 이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영감되지 않았고, 단지 조제되어졌다…당신이 그 사본들을 고찰해 볼 때, 마가의 책의 결론은 그러한 것을 갖고 있지 않다. 누군가 그것을 첨가했다…"
   남침례교단의 주요 순회전도자도 주장하기를, 예수께서 베데스다 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내용인 요 5 에서도 명백히 "삽입"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다의 자살(참조, 마 27 과 행 1)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기록에 대해 말한다: 크리스웰은 말하기를 "이것은 자살에 대한 다른 견해이다. 만일 이것이 성경에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 성경에는 유다의 자살에 대한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크리스웰은 덧부치기를 "본문비평은 놀라운 과학 자체이다. 이것은 단명하지 않는다, 부적절하지도 않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중심적이다…"

III. 사본의 문제(본문비평)

가.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자료 소개
1. R. H. 해리슨의 *성경적 비평: 역사적, 문학적, 본문적*
2. 브루스 메츠커의 *신약성경의 본문: 전승, 개악, 회복*
3. J. H. 그린리의 *신약본문비평 개론*

부록 3

용어해설

고등비평.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역사적인 상황과 문학적 구조에 초점을 두는 성경해석의 방법이다.

고의적 다의성. 이것은 동시에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뜻을 갖거나 혹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것을 가리키는 결과를 낳는 표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요한은 일부러 다의성(두 가지 뜻)을 지닌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

공인성경. 이것은 1633 년에 발행된 엘제빌의 헬라어 신약성경에 적용되었다. 이 역본은 기본적으로 후기의 몇 헬라어 사본과 에라스무스(1510-1535)의 라틴어 역본, 스테타누스(1546-1559), 엘제빌(1624-1678)에 기초한 헬라어 신약성경이다. *신약성경의 본문비평개론*, 27 쪽에서 A. T. 로벗슨은 말하기를 "비잔틴사본은 실제적 공인성경이다." 비잔틴사본은 초기의 헬라어 사본의 세 계열(서방, 알렉산드리아, 비잔틴)에서 가장 가치가 적다. 이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손으로 쓰여지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를 갖고 있다. 한편, A. T. 로벗슨은 또한 말하기를 "공인성경은 근본적으로 정확한 본문을 우리들을 위해 보존해 왔다"(21 쪽). 이 헬라어 사본전통은(특히 1522 년에 출판된 에라스무스의 3 판) 1611 년에 출판된 흠정역의 기초를 이룬다.

관용적 표현. 이 단어는 다른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각 단어의 일상적 의미와는 맞지 않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구의 사용을 가리킨다. 현대적 예로서는: "그것은 상당히(끔찍하게) 좋았다" 혹은 "당신은 나를 정말 웃긴다(죽인다)" 이다. 성경 역시 이러한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구문. 이것은 문장의 구조를 가리키는 헬라어 용어이다. 완전하게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어떤 문장에서 각 품사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다룬다.

귀납법. 이것은 논리나 추론의 방법으로서 부분에서 출발하여 전체로 나아간다. 이것은 현대 과학의 경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한 접근방법이었다.

그리스도 중심적. 이것은 예수님의 중심 되심을 나타낸다. 나는 이 용어를 예수께서 모든 성경의 주님이시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는 성경의 완성이요 목적이시다(참조, 마 5:17-48).

동의어. 이것은 어떤 단어들이 정확하게 혹은 매우 비슷하게 같은 뜻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비록 어의적으로 어떤 두 단어도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지만). 서로 깊이 관련되어 있기에 어떤 문장에서 의미의 변함없이 단어들을 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히브리시의 세 평행법가운데 하나를 일컫는다. 즉 시의 두 행이 같은 사실을 말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시 103:3).

네스토리안주의. 네스토리우스는 5 세기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다. 그는 시리아 안디옥에서 훈련받았고, 예수께서 완전히 인간이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신 두 본질을 가지셨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정통적인 교리인 한 본질과 달리하는 것이었다. 네스토리우스의 주요 관심사는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에 있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과 그 자신이 교육받았던 안디옥학파의 연루에 의해 반대되었다. 안디옥은 역사적-문법적-본문중심의 성경해석의 본산지였고, 알렉산드리아는 4 중해석(우화적)의 본산지였다. 네스토리우스는 완전히 면직되었고 추방되었다.

디아스포라. 이것은 지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컫기 위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사용한 특별한 헬라어 용어이다.

랍비적 유대교. 이것은 바빌론 유수(주전 586-538)기간에 유대인들에게 시작되었다. 제사장들과 성전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각 지역에 있던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되었다. 유대문화, 사교, 예배, 성경연구의 장이 된 회당은 국가적으로 종교생활의 구심점이 되었다. 예수님 당시 이 "서기관들의 종교"는 제사장들의 종교와 쌍벽을 이루었다. 주후 70 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바리새인들이 주도하고 있던 서기관적 종교는 유대인들의 종교생활의 지주를 이루었다. 이것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토라(탈무드)의 실제적이고 율법적 해석으로 특징을 짓는다.

맛소라본문. 이것은 9 세기히브리 구약성경 사본으로서 유대 학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왔으며 모음부호와 다른 본문주석과 관련된 참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구약성경에 기초를 이룬다. 이 사본은 역사적으로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 특히 사해사본 이사야서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약어로 "MT"라고 불린다.

무라토리안 단편. 이것은 신약의 정경목록이다. 주후 200 년 이전에 로마에서 기록되었다. 기독교의 신약성경과 똑같은 27 권을 제시한다. 이것은 로마제국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던 지역교회들이 4 세기에 있었던 주요 교회회의 이전부터 이미 "실제적으로" 정경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모형론. 이것은 특별한 해석방법이다. 유추적인 심볼에 의해 구약의 성경귀절과 연관되는 신약의 진리를 일반적으로 일컫는다.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주된 해석방법이었다. 이것의 오용을 막기위해서는 신약에 기록된 명확한 경우로만 그 사용을 한정지어야 한다.

묘사적 표현. 이것은 구약을 기록함에 있어서 사용된 관용적 표현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오감으로 알 수 있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고, 그것을 의도하지도 않았다.

묵시문학. 이것은 유대문학에서 독특하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세계열강들이 유대를 공격하여 지배하던 시기에 비밀스런 형태로 기록된 글을 뜻한다. 이것은 인격적이고 구속의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세상의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 문학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많은 용어들로 인해 매우 상징적이고 환상적이다. 이 방법은 진리를 여러 가지의 색, 숫자, 환상, 꿈, 천사의 중계, 비밀 암호같은 단어들, 선과 악의 날카로운 이원론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장르에는 (1) 구약에서 에스겔 (36-48 장), 다니엘 (7-12 장), 스가랴 (2) 신약에서 마 24; 막 13; 살후 2 와 계시록이있다.

문단. 이것은 산문으로 된 문학형태의 기본적 해석단위이다. 이것은 하나의 중심주제와 그것의 전개를 포함한다. 만일 우리가 중심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면 미미한 점들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원저자의 의도를 놓치는 커다란 실수를 하지 않게 된다.

문자적. 이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한 본문중심의 역사적 해석방법을 일컫는 또 다른 말이다. 이것은 비유적인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석이 인간 언어의 정상적이고 분명한 의미와 연관됨을 뜻한다.

문학장르. 이것은 시나 역사적 이야기체처럼 사람의 의사전달이 취하는 독특한 표현을 가리킨다. 모든 종류의 문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들 외에 각 문학장르마다 독특한 해석학적 절차가 있다.

문학단락. 이것은 성경의 어떤 책에 대한 주요 개념에 따른 구분을 지칭한다. 단락은 몇 절, 몇 문단, 혹은 몇 장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한 가지 중심주제를 갖는 독립적인 단위이다.

바티칸역.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되었다. 원래 구약 외경 신약을 모두 포함했다. 그러나 일부분은(창, 시, 히, 목회서신, 몬, 계) 유실되었다. 이것은 원본의 글자를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한 사본이다. "B"로 표시된다.

벌게이트역. 이것은 제롬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의 이름이다. 로마천주교회의 기본적 또는 "공통의" 역본이 되었다. 주후 380 년에 번역되었다.

반대의. 이것은 히브리 시행의 평행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세 가지 설명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이다. 이것은 반대되는 뜻을 가진 시행의 관계를 나타낸다(참조, 잠 10:1; 15:1).

베자사본. 이것은 주후 6 세기의 헬라어와 라틴어로 된 사본이며, "D"라고 명명된다. 이 사본은 복음서, 사도행전과 공동서신의 일부를 포함한다. 이 사본은 서기관의 수 많은 추가기록으로 특징을 이룬다. 이 사본은 "공인성경"의 기초를 이루며, 흠정역본의 배후에 있는 주요 헬라어 사본이다.

변증론자(변증론). 이것은 "법적방어"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증거와 이성적인 논증을 제시하기 위한 신학의 한 분야이다.

변증법. 이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역설적인 양면을 포함하는 통일된 답을 구하는 사고방법이다. 많은 성경적 교리는 변증법적 짝을 이룬다, 예정—자유의지; 안전—성도의 견인; 믿음—행위; 결단—제자도; 기독교인의 자유—기독교인의 책임감.

병행귀절. 이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성경자체가 역설적인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해석자이며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개념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불확실하거나 이중적인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용하다. 이것은 어떤 주제에 관한 성경귀절을 모두 확인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주제에 대해 가장 명확한 본문을 파악하게 돕는다.

본문비평. 이것은 성경사본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원래의 본문이 남아있지 않고 사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본문비평이 요구된다. 이것은 상이점들을 설명하고, 구약과 신약의 원본(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을 파악하려고 한다. 종종 "하등비평"이라 불린다.

분석적 사전. 이것은 신약에서 사용된 헬라어의 모든 형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돕는다. 헬라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 각 단어의 변화와 기본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행간에 번역이 들어가 있는 성경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도 신약성경의 헬라어 문법과 구문적 형태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본.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의 여러 사본들을 일컫는 말이다. 대개 다른 종류로 구별하는 방식은 (1) 사본이 기록된 재료(파피루스, 가죽) 혹은 (2) 글자자제의 형태 (대문자체 혹은 흘림체)이다. 약어로는 "MS"(단수) 혹은 "MSS"(복수)로 나타낸다.

사해사본. 이것은 1947 년에 사해근처에서 발견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일련의 고대사본들을 가리킨다. 이 사본들은 1 세기 유대 분파의 종교 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사본들이었다. 로마의 점령으로 인한 압력과 열심당원들이 60 년 대에 시작한 전쟁은 그들로 두루마리 사본들을 동굴이나 구멍속에 있는 항아리에 밀봉하여 은밀하게 감추어졌다. 이 자료들은 우리가 1 세기의 팔레스타인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고, 맛소라 사본이 매우 정확하며 주전의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감을 확인해 준다. 이 사본들은 "DSS"라는 약어로 표현된다.

석의. 이것은 어떤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행해지는 어떤 접근법을 의미하는 전문적 용어이다. (본문으로부터) "읽어 내 옴"을 뜻하는 말로서 우리의 목표가 역사적 상황, 문자적인 문맥, 구문과 당시의 단어 의미에 비추어 원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선험적. 이것은 "전제"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기존에 받아들여진 정의나 원리 혹은 사실이라고 가정되는 견해에 기초한 논리전개를 말한다. 이것은 어떤 점검이나 분석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을 가리킨다.

성경의 유추. 이것은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있고, 따라서 성경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보충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러한 전제적 확신은 성경에서 평행되는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

성경적 권위.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이것은 원저자가 그의 시대 사람들에게 한 바를 이해하는 것과 이 진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권위는 성경자체를 우리의 유일한 권위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늘날의 부적절한 성경해석에 비추어 볼 때, 나는 그 의미를 제한하여 역사적-문법적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구사전. 이것은 성경연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사용된 용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구사전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성경의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게 한다 (2) 같은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포함하는 절을 비교 할 수 있게 한다 (3)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가 한글성경의 어디에서 같은 단어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4) 어떤 단어가 성경의 어떤 책, 혹은 저자별로 얼마만큼 자주 사용되는지를 보여준다 (5) 성경에서 어떤 절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참조, 왈터 클락의 *어떻게 신약성경헬라어 연구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54-55 쪽).

세계이해와 세계관. 이것은 서로 같이 사용되는 용어들이다. 둘 다 창조와 연관된 철학적 개념이다. "세계이해"는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세계관"은 "누가" 창조했는지를 말한다.이 개념은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에 의한 창조인지를 우선적으로 말하는 창세기 1-2 장의 해석에 있어 중요하다.

시내사본. 이것은 주후 4 세기의 헬라어 사본이다. 이 사본은 독일 학자인 티첸도르프에 의해 전통적으로 시내산으로 알려진 예벨 무사에 세워진 성 캐서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본은 히브리어 자음의 첫 글자인 "알레프"[**א**]로 명명되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전체를 포함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대문자 사본가운데 하나이다.

신인동형. "인간과 관련된 특성을 갖는"의 뜻을 지닌 이 용어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의 종교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을 일컫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말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말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관련된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용어로써 표현되고

있다(참조, 창 3:8; 왕상 22:19-23). 물론 이것은 유추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과 관련된 용어외에는 달리 우리가 사용할 용어가 마땅히 없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되지만 제한적이다.

아리안주의. 아리우스는 3 세기와 4 세기 초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에서 장로였다. 그는 예수께서 선재하신 분이심을 인정했으나 아마도 잠 8:22-31 에 기초하여 신성은 부인했다(성부와 같은 본질이 아님). 그의 견해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에 의해 거부되었는데, 그 주교는 주후 318 년에 시작되어 여러해 동안 계속된 논쟁을 일으켰다. 아리안주의는 동방교회의 공식적 신조로 받아들여졌다. 주후 325 년의 니케아회의에서는 아리안주의를 정죄하고 성자의 신성과 그가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플라톤의 제자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다. 그의 영향은 오늘날까지 많은 영역에 미치고 있다. 이것은 그가 관찰과 분류에 의한 지식을 강조했기 때문이다.이것은 과학적 방법의 특색을 이룬다.

안디옥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법은 주후 3 세기에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되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기원한 우화적 방법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방법의 핵심은 성경의 역사적 의미에 촛점을 두는 점이었다. 이들은 성경을 인간의 일반적인 문학작품으로 이해했다. 이 학파는 그리스도께서 두 본질을 갖고 계신지(네스토리안 주의) 혹은 한 본질을 갖고 계신지(완전히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인간이신)에 대한 논쟁에 연관되었다. 이들은 로마카돌릭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어 페르시아에 다시 정착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했다. 이들의 해석학적 기본원리는 후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원리가 되었다(루터와 칼빈).

알렉산드리아학파. 이 학파의 성경해석방법은 주후 2 세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발전되었다. 이 방법은 플라톤주의자였던 필로의 해석학적 원리에 기초한다. 이것은 종종 우화적 방법으로 불린다. 종교개혁 때까지 이 방법이 횡횡했다. 오리겐과 어거스틴이 이 학파의 대표적 인물이었다. 모이셋 실바, *교회가 성경을 잘못해석했는가?* (아카데믹사, 1987)을 보라.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것은 5 세기의 헬라어 사본으로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여졌으며, 구약, 외경, 대부분의 신약성경을 포함한다. 이것은 헬라어 신약성경 전체에 대한 주요 사본중의 하나이다(마태복음 일부분과 요한복음, 고린도후서를 제외한). "A"라고 칭해진 이 사본과 "B"(바티칸사본)이 일치할 때, 많은 학자들은 대부분 그 내용을 원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야웨(여호와).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이다. 출 3:14 에서 그 의미가 정의되고 있다. 이것은 "~이다"의 뜻을 갖는 히브리 동사의 원인을 야기하는 형태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부르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 이름 발음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신하여 사용했다. 이것이 이 언약적 이름이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된 이유이다.

양자론.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초기의 견해중 하나였다. 이 견해는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보통 사람이었으나 그의 침례시(참조, 마 3:17; 막 1:11) 혹은 부활시(참조, 롬 1:4) 하나님에 의해 특별한 방법으로 양자되었다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이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때에(침례, 부활) 예수님을 그의 "아들"로 양자삼았다(참조, 롬 1:4; 빌 2:9). 이것은 초대교회와 8 세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가졌던 견해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성육신)을 바꾸어 놓아서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 견해는 성자이시고 선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 그의 모범적인 삶을 인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상 주시고 그를 높이셨는가를 말하기가 어렵다. 만일 그가 이미 하나님이셨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만일 그가 선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면, 어떻게 그가 더 명예를 얻게 될 수 있겠는가? 비록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부의 뜻을 그가 온전히 이루심을 인해 성부께서는 어쨌든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를 영예롭게 하셨다.

어원론. 이것은 어떤 단어의 원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한 단어 연구를 말한다. 어원적인 뜻을 앎으로써 특별한 용례에 따른 의미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석에 있어서 주요 관점은 어원론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단어가 동시대에 지닌 뜻과 용례에 있다.

어의론적 세계. 이것은 한 단어와 관련된 뜻이 미치는 범위 전체를 통털어 지칭한다. 같은 단어라도 다른 문맥에서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역동적 등가번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촛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튜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게 읽을 것인가*, 35 쪽과 로버트 브랫쳐의 TEV 서론에 나와 있다.

역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상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사실이면서 서로 간에 긴장이 있는 진리를 가리킨다. 역설은 반대방향에서 진리를 제시한다. 성경의 많은 진리는 역설적(혹은 변증적) 짝으로 나타난다. 성경적 진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별들이 아니라, 여러 형태를 이루는 별들로 구성된 성단과 같다.

연역법. 이것은 논리에 의해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특별한 적용으로 나아가는 논리나 사고방법이다. 이것은 귀납법과 반대되는데, 귀납법은 관찰된 특별한 사실로 부터 일반적인 결론(이론)으로 나아가는 과학적인 방법을 뜻한다.

영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성경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개념이다. 이것의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영지주의. 이 그룹에 대한 우리의 대부분의 지식은 2 세기에 쓰여진 영지주의 작품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것의 초기적인 모습은 1 세기(혹은 그 이전에) 나타나고 있다.

2 세기의 발렌티안과 세린티안 영지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물질과 영은 상호-영적(존재론적 이원론)이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영이신 하나님은 악한 물질을 사용하여 어떤 것을 형성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 (2) 하나님과 물질사이에 유출(*에온* 혹은 천사적 수준의)이 일어난다. 가장 마지막 혹은 가장 낮은 존재는 구약의 야웨인데, 그는 우주(*코스모스*)를 형성했다 (3) 예수는 야웨와 같은 유출의 결과이지만 좀 더 높은 계급, 즉 참 하나님과의 보다 더 가까운 존재였다. 어떤 이는 말하기는 그를 가장 높지만 아직 하나님에 비해 낮고, 성육신한 신은 확실히 아니었다(참조, 요 1:14).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없었고 아직 신적 존재였다. 그는 영적 환영(참조, 요일 1:1-3, 4:1-6)이었다 (4) 구원은 예수를 믿음과 더불어 특별한 지식을 요구하는데, 이 지식은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 지식(암호)은 천상의 영역를 통과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유대 율법주의 또한 요구되었다.

영지주의의 거짓교사들은 두가지 상반되는 윤리적 가르침을 전했다; (1) 어떤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을 위해 구원과 영성이 천사적인 영역(*에온들*)을 통과하여 비밀스런 지식(암호)으로 합쳐졌다 (2) 다른 이는 말하기를, 삶의 방법은 구원에 매우 중요하다. 그들은 금욕적 삶을 참된 영성의 증거로 강조했다.

영해. 이것은 성경귀절의 역사적 문학적 문맥을 무시하고 다른 기준으로 해석하는 점에서 우화화와 동의어이다.

왜곡.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한 강한 선입견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어떤 사물이나 관점에 대하여 공평한 견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마음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선입관적 입장을 취하게 한다.

우화. 이것은 원래 알렉산드리아의 유대교에서 출발한 성경해석방법이다. 이것은 알렌산드리아의 필로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성경을 자신의 문화나 철학적인 체계에 상응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아래 성경의 역사적 상황과/혹은 문학적 배경을 무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성경의 모든 본문 뒤에 감추어진 영적인 뜻을 찾으려고 했다. 예수께서 마 13 장에서 바울은 갈 4 장에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우화적 방법을 사용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우화가 아니라 모형적인 해석방법이다.

원저자. 이것은 성경을 실제로 기록한 저자/사람을 의미한다.

율법주의. 이것은 규정이나 의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기 위하여 인간의 규율을 지킴에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관계를 덜 중요시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u>둘 다</u> 중요한 요소이다.

의역. 이것은 성경번역의 한 이론이다. 성경번역은 어떤 한글 단어가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 단어나 헬라어 단어만을 사용하는"축어적" 일치 또는 원어의 글자나 구에 상관없이 개념에 촛점을 맞춘 "의역"사이의 연속선에서 행해질 수 있다. 이 두 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동적 등가번역"은 원어의 본문을 매우 중시하면서도 현대적인 문법형태나 관용어에 맞게 번역하려고 시도한다. 이런 다양한 번역이론에 대한 좋은 논의는 피와 스튜어트의 *어떻게 성경을 충실하게 읽을 것인가*, 35 쪽에 있다.

인용을 위한 성경사용. 이것은 성경의 어떤 절을 그것의 문학적 단위가 갖는 직접적 포괄적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원저자의 의도로 부터 그 절(들)을 빼내게 되고, 대개 자신의 개인적 견해에 성경의 권위를 부여하여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읽어 들어가기. 이것은 석의의 정반대 방향이다. 만일 석의가 원저자의 의도를 "읽어 내는 것"이라면, 이 용어는 이질적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읽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계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한 방법이다. 이것은 자연질서(롬 1:19-20)와 도덕적 의식(롬 2:14-15)을 포함한다. 이것은 시 19:1-6 과 롬 1-2 에서 말해진다. 이것은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특별하게 자신을 나타내시되 특히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특별계시와 구별된다.

이 신학적 용어는 크리스챤 과학자(예, 휴지 로스의 글)들의 "헌 지구"운동에 의해 재 강조되었다. 그들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말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자연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다; 이것은 특별계시(성경)와 구별된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의 과학자들이 자연질서를 자유롭게 연구하도록 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점은 현대의 서구의 과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놀라운 새 기회이다.

장르. 이것은 문학의 다른 종류를 뜻하는 프랑스어이다. 이 용어의 핵심은 공통적 특징을 공유하는 형태로 문학작품을 구별짓는 것에 있다: 역사적 이야기체, 시, 잠언, 묵시문학, 법률.

전제.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이해를 뜻한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이슈에 대해 성경자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우리의 견해나 판단을 가지고 있다. 이 전제는 왜곡, 선험적인 생각, 가정, 또는 기존 지식 등으로 불린다.

정경. 이것은 독특하게 영감되었다고 믿어지는 글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일컫는다.

조명.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개념을 위해 사용되었다. 완전한 의미는 대개 세 가지 용어로 표현된다: (1) 계시—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서 행하셨다 (2) 감동—하나님께서 자신의 행하심과 그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를 성경의 기록을 위해 택하신 어떤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다 (3) 조명—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조직신학.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이성적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해석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학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진술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항목별(신, 인간, 죄, 구원 등)로 제시한다.

종합. 이것은 히브리시의 세 가지 평행법 가운데 하나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어떤 것에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행이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때때로 "점증적"인 평행법으로 불린다(참조, 시 19:7-9).

주석. 이것은 특별한 형태의 연구도서이다. 이것은 성경의 각 책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설명한다. 또한 그 책의 각 부분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어떤 책은 적용에, 어떤 책은 보다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다루고 있다. 이 책들은 유용하지만, 반드시 자기 스스로 기초적인 공부를 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어떤 주석을 사용하든지 그 주석가의 해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된다. 다른 신학적 견해를 가진 여러 종류의 주석을 비교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지혜문학. 이것은 고대 근동(그리고 현대)에서 사용된 공통적인 문학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시, 잠언, 짧은 글 등을 통하여 자라가는 세대에게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침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그 내용은 공동체 보다는 개인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대한 암시를 사용하지 않고, 삶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한다. 성경에서 욥기 부터 아가서 까지 야웨의 존재와 그분께 대한 예배를 전제하고 있지만, 인간 경험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종교적 사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장르이다. 이 장르는 모든 특정한 경우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진술로서 각 각의 특별한 경우에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현인들은 인생의 어려운 질문들을 탐구했다. 그들은 종종 전통적인 종교적 견해에 도전했다(욥기와 전도서). 그들은 인생의 비극에 대한 가벼한 견해들에 대항하여 균형잡히고 긴장이 느껴지는 답을 주고 있다.

취사선택. 이것은 본문비평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이것은 다른 헬라어 사본들로 부터 원래의 필사본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지는 본문을 찾기 위해 본문을 선택하는 관습을 말한다. 이 방법은 어느 한 헬라어 사본의 계열이 원본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배격한다.

친필본. 이것은 성경의 원본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이다. 맨 처음 손으로 쓰여진 원본은 모두 전해지지 않고 있다. 단지 사본들의 사본들만 남아 있다. 이 사실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인 사본들과 고대 번역본들에 나타나는 본문의 상이점들에 대한 원인이 된다.

칠십인역. 70 인역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다. 전통에 의하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을 위해 유다의 70 명의 학자들이 70 일동안 마쳤다고 한다. 전통이 말하는 연대는 주전 250 년 전후(사실상 그 번역이 모두 완성되기까지는 100 년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이 번역본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1) 이 사본은

히브리 맛소라 사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고대 역본이다 (2) 이 사본은 주전 2-3 세기에 유대인들이 해석한 내용을 보여준다 (3) 이 사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기 전에 이해했던 유대인들의 메시아사상을 알게 한다. 약어로 "LXX"로 칭한다.

탈무드. 이것은 경전화된 유대 구전전통을 일컫는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구두로 이 내용을 주셨다고 믿는다. 사실상 이것은 오랜 시간을 걸친 유대 교사들의 지혜를 집대성한 것이다. 탈무드에는 두 가지 다른 본문이 있다: 바빌론 탈무드와 짧으면서 미완성의 팔레스타인 탈무드.

토라. 이것은 "가르침"을 뜻하는 히브리어 용어이다. 이것은 모세의 책(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을 일컫는 공식적인 명칭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권위있는 부분이다.

파피루스. 이것은 이집트에서 생산된 책의 재료이다. 강에서 자라는 갈대로 만들었다. 그 위에 가장 오래된 헬라어 신약성경이 기록되었다.

편협. 이것은 지역에 따른 신학적/문화적 배경으로 둘러싸여 생기는 왜곡을 의미한다. 이것은 문화를 뛰어넘는 성경진리의 이해와 그 적용에 장애를 준다.

플라톤. 그는 고대 헬라의 철학자였다. 이집트의 알렌산드리아 학자들과 후기의 어거스틴을 통하여 그의 철학은 초대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는 지구상의 모든 것을 환영으로 이해했고 영적 원형의 복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신학자들은 후에 플라톤의 "형태/개념"을 영적 세계와 동일시했다.

하등비평. "본문비평"을 보라.

해석학. 이것은 석의를 하는 원리들을 일컫는 전문적 용어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지침들과 예술/은사의 조합이다. 성경해석학은 대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일반적 원리들과 구체적인 원리들. 이 원리들은 성경에 있는 다른 문학적 종류에 기인하다. 각기 다른 타입(장르)에 적합한 지침들이 있지만 어떤 공통의 전제들과 해석의 과정을 공유한다.

행간삽입성경. 이것은 성경원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뜻과 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자료이다. 한글로 된 성경을 원어마다 그 바로 밑에 해당되는 뜻을 제시한다. "분석사전"과 더불어 사용함으로써 이 책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형태와 기본적 뜻을 제공한다.

환유법. 이것은 어떤 사물의 이름이 그것과 관련있는 것을 나타내도록 하는 수사법이다. 예를 들면, "주전자가 끓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주전자 안에 있는 물이 끓고 있다"는 뜻이다.

부록 4

교리적 선언

나는 믿음의 어떤 특별한 선언이나 신조에 관심이 있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성경 자체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나는 믿음의 진실이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교리적 입장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는 수 많은 신학적 오류와 속임을 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의 신학의 간략한 요약을 제시하려고 한다.

1. 구약과 신약은 모두 영감되었고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성경은 초자연적 인도하심아래 사람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자기계시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진리와 그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자료이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믿음과 행함을 위한 유일한 자료이다.

2.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하시고 창조주 이시며 구속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다. 그는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면서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는 구별되는 세 인격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진실로 분리되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 똑 같으시다.

3. 하나님은 그의 세계를 능동적으로 주관하고 계신다. 창조에 대한 그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계획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개인에 초점을 둔 계획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식과 허락없이는 아무것도 일어 나지 않으면서도, 또한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다.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선택을 받으신 분이시고,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미리아시는 것은 인간이 이미 쓰여진 각본을 따라 사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이다.

4.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없는 상태로 지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택했다. 비록 초자연적 존재에 의해 유혹을 받았지만,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의 반역은 인류와 창조에 영향을 미쳤다. 아담과 우리가 함께 처한 상황과 우리 자신이 개인적인 의지로 반역한 일로 인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필요로 한다.

5.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위해 용서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시고, 죄없는 삶을 사시고,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과 교제를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신다. 그가 성취하신 일을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전혀 없다.

6. 우리 각자는 예수님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올바른 관계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결심과, 자신이 알고 있는 죄로부터 결심하고 떠남으로써 이루어진다.

7.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 둔 우리의 신뢰와 죄의 회개에 기초하여 완전히 용서받고 회복됨을 누린다. 또한 이렇게 새로와진 관계의 증거는 변화되었고 또한 계속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드러난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앞으로 언젠가 하늘에서 있을 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비록 때때로 죄를 짓게 될지라도 믿음과 자백을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할 것이다.

8. 성령은 "다른 예수님"이시다. 그는 잃어버려진 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구원을 받을 때에 주어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가운데서 예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자세와 동기를 기본적으로 반영하는 은사는 성령의 열매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 성령이 활동하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활동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

9. 성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의 심판자로 세우셨다. 그는 온 인류를 심판하기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자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의 재림 때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반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질 것이다. 그들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완전하거나 자세하지는 않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맛을 여러분께 주리라 기대한다. 나는 이 말을 좋아한다:

"본질적인 내용에는—일치를, 그 외의 것에는—자유를, 모든 일에 있어서는—사랑을"